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학박사 학위논문

서유구(徐有榘, 1764~1845)의
선진 농법 제도화를 통한 국부창출론
: 『의상경계책擬上經界策』의 해제 및 역주

2014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과학사 및 과학철학 전공
정 명 현 (鄭明炫)

서유구(徐有榘, 1764~1845)의
선진 농법 제도화를 통한 국부창출론
: 『의상경제책擬上經界策』의 해제 및 역주

지도교수 임 종 태

이 논문을 이학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정 명 현 (鄭明炫)

정명현의 이학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8월

위 원 장 _____ (인)

부 위 원 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서유구(徐有榘, 1764~1845)의
선진 농업 제도화를 통한 국부창출론
: 『의상경제책』의 해제 및 역주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과학사 및 과학철학 전공
정 명 현 (鄭明炫)

이 논문은 18세기 후반, 19세기 전반에 활동했던 조선의 유학자 서유구(徐有榘, 1764~1845)가 쓴 『의상경제책 擬上經界策』(경제에 관한 견해를 왕에게 올리려고 쓴 진책문進策文)의 전문을 역주하여 해제를 붙이고 이 책에 나타나는 농업정책론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논문의 특징은 『의상경제책』을 분석함과 동시에 역주와 해제를 논문의 일부로 삼았다는 점이다. 제1부에서는 『의상경제책』의 성립 배경과 구조 분석에 중점을 두고, 제2부에서는 『의상경제책』의 해제와 역주를 독립적으로 배치했다.

제1부에서 먼저 저자 서유구의 농업론의 성립과 변화 내용을 살폈다. 이어 이 책에서 다루는 주요 의제인 양전, 결부법, 견종법, 둔전과 관련하여 조선에서의 상황을 정리했다. 이를 통해 『의상경제책』의 주장과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려 했다.

서유구는 조선후기 대표적인 경화세족의 일원이면서도 천문·수학·농학 등에 특장을 보인 가학을 이어받았다. 이 중 농학을 가장 깊고 많이 연구했던 그는 20대에 조부 서명응(徐命膺, 1716~1787)의 농서 저술에 참여하면서 농학 연구를 시작했다. 제1차 사환기에 농업에 대한 견해를 정조(正祖, 1776~1800 재위)에게 피력했는데, 그 중 농서 편찬 등 주요한 의견이 정조의 입장과 일치했다. 정조의 급작스런 사망과 서유구의 귀향으로 농서 편찬이 유보된 상황에서 임원(향촌)에서의 자급적인 삶을 다룬 실용 학문에 연구를 집중하던 서유구는 순조(純祖, 1800~1834 재위)의 경진庚辰 양전령(1819년)을 계기로 『의상경제책』을 저술했다(1820년).

양전령이 내려진 뒤 몇 개월 동안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의상경계책』은 ‘3강綱 11목目’의 체계를 갖춘 농업론이었다. 양전령이 곧 철회되어 순조에게 올리지 못한 이 진책문은 25,000여 자의 장문이었다. 이 책문의 3장에서는 “토지제도의 개혁”, “양전법의 강구”, “농정의 시행”을 순서대로 다루었는데 그 하위 항목에 각각 2목·3목·6목을 두어 세밀한 주장을 펼쳤다. 『의상경계책』의 ‘경계經界’는 본래 농지를 구획하고 양전하여 농지에 과세와 수세收稅를 하는 ‘전정田政’의 영역이었다. 따라서 『의상경계책』의 앞 2장에 해당하는 주제, 즉 토지제도와 양전법만이 ‘경계’라는 주제 아래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유구는 여기에 ‘농정農政’이라는 다소 의외의 주제에 관한 논의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그는 전정과 농정을 통합하여 유기적으로 연결 짓는 농업론을 펼칠 수 있었다.

서유구의 『의상경계책』은 기존의 농업사 연구에 제시된 ‘조선후기 농업기술과 농업경영의 성취’에 관한 인식과는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 조선후기에 농법이 ‘발달’했으며 농업생산력 또한 ‘증대’했다고 알려진 주장과 배치되는 입장들이 이 저술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양법의 발달과 확산이 농업생산력을 제고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는 노동 집약적인 농법으로, 농법의 발달을 이루었다고 이해되는 근경(根耕, 그루갈이)과 간종(間種, 사이짓기)을 금지해야 할 농법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전국에 보급되었다고 알려진 견종법은 북부 일부 지방의 농법에 불과했고, 게다가 이 또한 서유구가 보기에는 진정한 견종법이 아니었다. 농기구는 다양하지 못했고 규격도 표준화 되지 않았다. 수차는 아예 없었고, 수리시설 또한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홍수와 가뭄 대비가 매우 부실했다. 농업기술의 변화를 주도했다고 알려진 광작廣作 현상은 도리어 농업생산량을 떨어뜨렸다고 진단했다.

이와 같은 현실 진단을 바탕으로 서유구는 『의상경계책』에서 중국의 선진 농법을 전국에 보급하여 농업생산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종법(耕種法, 밭 갈아 작물을 재배하는 법)이 조선 농업의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했던 서유구는 경종법의 대대적인 개량과 보급만이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믿었다. 특히 그는 견종법(畝種法, 작물을 골에만 재배하는 법)의 보급이 농업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획기적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경종법의 개량은 경종법 하나만을 바꾼다고 해서 성공할 수 없다고 여겼다. 이 때문에 서유구는 전정과 농정을 경종법, 특히 이 중에서도 견종법이 시행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으로 조성하는 데 몰두했다. 즉 그는 토지제도를 결부법에서 경묘법으로 개혁하고, 전 국토를 정확하게 양전하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공평한 과세를 위한 선결 과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건종법을 시행할 수 있는 전묘田畝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했다. 주요 지역의 위도 측정, 좋은 종자 보급, 수리水利 진흥, 당시 통행되는 번전(反田, 논으로 바꾼 밭) 및 이모작, 즉 근경·간종의 금지와 같은 농정 분야의 제안 역시 경종법의 최적화를 향해 있었다.

서유구가 보기에 건종법 등의 선진 농법이 보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또 하나의 제도가 전제되어야 했는데, 둔전屯田이 그것이었다. 서유구가 제안한 둔전은 기존의 관둔전官屯田과는 전혀 다른 체제로 운영되는, 일종의 시범농장이었으며, 선진적인 경묘법, 양전법, 농법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제도화되는 공간이었다. 실제로 『의상경제책』의 모든 논의는 3강 11목 중 마지막 목인 제3강 제6목에서 제시한 둔전설치론에 종합적으로 반영되었다. 서유구는 이전의 둔전설치론을 종합하여 내지 둔전과 변경 둔전을 모두 세밀하게 기획했다. 그가 보기에, 관개灌漑가 용이하지 않은 논에서의 이양법(모내기법)과 밭에서의 근경·간종 등 통행 농법을 금지하고, 물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논에서의 이양법과 밭에서의 건종법을 보급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이 시범농장의 운영이었다. 서유구의 둔전설치론은 선진 농업기술, 즉 농법이 제도화되어야 전 농민에게 확산될 수 있다는 서유구의 확신에서 비롯되었다. 이와 같은 농정 구상을 담은 『의상경제책』의 최종 목표는 ‘경묘법으로 양전한 둔전에서 건종법으로 농사짓는 일’이었다.

서유구는 농법의 제도화를 국부창출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으로 파악했다. 농법의 제도화를 주장한 박지원·박제가의 논의를 발전시킨 서유구는 이양법과 건종법이 두 가지에 주목했고, 이를 전파하려 했다. 조선의 전 시기에 걸쳐 농법을 국가 차원에서 지도하여 보급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의상경제책』은 민간에서 자생한 농법을 보급하거나 금지하는 소극적 권농에만 머물렀던 풍토에서, 합리적 토지제도, 양전법, 둔전을 제도화하고, 그 속에서 선진 농법을 구현하여 농업 시스템 전반을 표준화함으로써 국부창출을 추구했던 시도였던 것이다.

제2부에서는 『의상경제책』 원문에 교감하고 표점을 가했다. 번역은 쉬운 단어를 이용한 직역을 기본 방침으로 하되, 필요한 곳에서는 의역을 하기도 했다. 해결하지 못한 번역문은 해결하지 못했다는 주석을 달고, 필자가 아는 데까지 추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원문의 출처를 알 수 있는 곳은 사소한 문구라도 찾아서 제

시하려 했다. 이렇게 정리한 역주문에는 각 강이나 목을 단위로 해설을 첨부했다. 이상의 역주 과정을 통해 필자는 원문 가공부터 역주에 이르기까지 이전의 연구 성과를 반영한 ‘연구 번역’을 시도했다.

주요어: 의상경계책擬上經界策, 서유구徐有渠, 경계經界, 경묘법頃畝法, 결부법結負法, 양전量田, 선진 농법農法, 견종법畝種法, 대전법代田法, 둔전屯田, 농법의 제도화, 농업생산력

학번: 2002-30932

〈차 례〉

국문초록	i
제1부. 서유구의 농업론과 『의상경제책』의 성격	1
제1장. 서론	1
제2장. 서유구의 생애와 농업론	14
2.1.	
제1사환기까지(1764~1806)	18
2.1.1. 『본사』 교정과 저술을 통한 농업론 흡수	18
2.1.2. 『해동농서』를 통한 농업론 흡수	23
2.1.3. 1차 사환기의 농업론 : ‘농대’(農對, 1790)와 ‘순창군수응지소(淳昌郡守應旨疏, 1799)’	28
2.2. 귀농기(1806~1823)	34
2.2.1. 경학·경제학에서 ‘임원경제학’으로	34
2.2.2. 귀농기에 시작된 <<임원경제지>> 저술과 그 농업론	43
2.2.3. 『의상경제책』(1820)의 농정론	45
2.3. 제2사환기 및 <<임원경제지>> 정리기(1823~1845)	49
2.3.1. 농정론의 현장 적용	49
2.3.2. 『종저보』(1834)와 비황3책(備荒三策, 1838)의 농업론	56
2.3.3. <<임원경제지>> 정리 및 실천	61
제3장 『의상경제책』의 성격과 농업론 : 선진 농법의 제도화를 통한 국부 창출론	65
3.1. 『의상경제책』의 의미와 서지적 성격	65
3.2. 『의상경제책』의 농업론 : 3장 11목의 유기적 구조	70
3.3. 『의상경제책』 저술 및 경묘법·건종법·둔전 제도화 제안의 배경 · 81	
3.3.1. 『의상경제책』 저술 배경 : 경진庚辰 양전령	81
3.3.2. 결부법의 성립과 그 변천	89

3.3.3. ‘건종법 보급설’과 서유구의 건종법	102
3.3.4. 농법 제도화를 위한 둔전설치론	115
제4장 결론 : 『의상경계책』의 농업사적 의의	129

제2부. 『의상경계책』 역주와 해설135

<의상경계책 역주문 차례>	138
제1장. 『의상경계책』의 전정론 1(토지제도) : 『의상경계책』 상권	141
1.1. 서유구의 도입부 및 제1강 ‘토지제도에서 서둘러 개혁해야 할 두 가지’	141
1.1.1. 서유구의 도입부	141
<도입부 해설>	143
1.1.2. 제1목 ‘결부법을 경묘법으로 고치기’	144
<제1목 해설>	172
1.1.3. 제2목 ‘척과 보를 바꾸어 옛 제도를 따르기’	181
<제2목 해설>	192
제2장. 『의상경계책』의 전정론 2(양전법) : 『의상경계책』 상권	197
2.1. 제2강 ‘양전법에서 서둘러 강구해야 할 세 가지’	197
2.1.1. 제1목 ‘방전법을 써서 은닉한 땅을 찾아내기’	197
<제1목 해설>	204
2.1.2. 제2목 ‘농지 계산법을 나눠주어 미리 연습하도록 하기’	209
<제2목 해설>	227
2.1.3. 제3목 ‘전답 기관을 설치하여 근무 태도 평가하기’	235
<제3목 해설>	241
제3장. 『의상경계책』의 농정론(농법과 둔전) : 『의상경계책』 하권	245
3.1. 제3강 ‘농정에서 서둘러 시행해야 할 여섯 가지’	245
3.1.1. 제1목 ‘북극고도(위도) 측정으로 정확한 때 알려주기’	246
<제1목 해설>	253
3.1.2. 제2목 ‘농법을 가르쳐 땅심 다 쓰기’	259
<제2목 해설>	279

3.1.3. 제3목 ‘좋은 종자 구입하여 재해 대비하기’	288
<제3목 해설>	297
3.1.4. 제4목 ‘수리를 진흥시켜 가뭄과 장마에 대비하기’	299
<제4목 해설>	315
3.1.5. 제5목 ‘번전 및 이모작(간종·근경) 금지하기’	322
<제5목 해설>	327
3.1.6. 제6목 ‘둔전 넓혀 부국 만들기’	333
<제6목 해설>	372
둔전론 제기의 배경	372
서울 주변 둔전 설치 및 운영론	374
지방 둔전의 설치 및 운영론	379
변방 둔전	381
(1) 국경 둔전의 현황 및 필요성	381
(2) 국경의 읍과 진영 설치 방안	383
(3) 국경 개척의 10리利	384
도서 지역 둔전	393
실행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치밀한 둔전론	394
참고문헌	399
Abstract	411
부록	418
발문	431

제1부. 서유구의 농업론과 『의상경제책』의 성격

제1장. 서론

농업이 산업과 국가 경제의 근간이었던 조선 사회는 국가의 유지·발전 및 백성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농업 및 이와 관련된 정치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였다. 농업은 국가 차원에서는 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했고, 백성의 입장에서는 삶의 유지를 위한 생활경제의 거의 전부이다시피 했다. 농업국가인 조선의 조정은 ‘중농重農’을 핵심적인 정치행위로 인식했다. 이로 인해 중농정치는 조선에서 백성을 아끼거나[愛民], 백성을 위하거나[爲民], 백성을 걱정하거나[憂民]·[慮民], 불쌍히 여기거나[恤民] 보호하는 일이나[保民], 민생을 후하게 해주는[厚民生] 행위와 동치 관계로 받아들여졌다. 무본務本이니, 후본厚本이니, 억말抑末이니 하는, 근본을 중시하고 말단을 억제한다는 말은 중농 이념의 다른 표현이었고, 말할 필요도 없이 여기서의 근본은 농업이고 말단은 상업을 의미했다. 국왕의 친경親耕과 왕비의 친잠親蠶 역시 이 중농 이념을 보여주기 위한 정부의 주요 의식 중 하나였다.

이처럼 중농을 국가 운영의 주요 지침으로 받아들였던 조선은 농업의 흥성을 위한 제도의 제정과 이의 정확한 시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아울러 대민 차원에서 권농, 환곡, 재상災傷으로 인한 감세 등의 조치를 자주 시행했다. 정부에서의 농업 정책은 대부분 농업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일들과 연계되어 있었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지방 수령의 제1책무는 ‘농상성(農桑盛, 곡식과 옷감 생산량의 제고)’이었고, 전정田政을 통한 부세賦稅의 균등한 수취도 지방 수령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였다.¹⁾ 하지만 조선 초부터 중농을 국시로 여기며 농업을 중시했던 조선은 18~19세기에 심화된 ‘삼정(三政, 전정·군정·환곡)의 문란’

1) “每歲季本曹具諸司官員實仕及雜故,觀察使具守令七事實跡,啓聞.(七事,農桑盛·戶口增·學校興·軍政修·賦役均·詞訟簡·奸猾息.)” 『經國大典』 卷1 「吏典」 ‘考課’에 실린 이 내용은 순조·헌종 대의 법전으로 사용되었을 『大典通編』(1785년)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 『大典通編』 卷1 「吏典」 ‘考課’(『大典通編』 上, 서울大學校奎章閣, 1998, 169쪽). 원문은 8가지 표점(검표, 마침표, 중점, 물음표, 느낌표, 작은따옴표, 콜론, 세미콜론)을 사용하고 붙여쓰기를 한다. 이하 동일.

현상이 말해주듯 적지 않은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면서, 지배층의 수탈은 점점 증가되었으며 그에 따라 백성은 가혹하게 착취당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 재해로 인한 흉년으로 정부에서 세금 수취를 줄이거나, 지방관이나 아전이 백성에게 수취한 세금을 빼돌리면서 국가 재정도 악화되었다. 그 결과 조선의 세입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세田稅는 그 수입이 점점 줄어들었다.²⁾

조선 시기 전세를 부과하는 기준은 농지를 재배하는 면적이었으며, 이는 농지 측량, 즉 양전量田을 통해 확정되었다. 양전은 20년마다 시행하도록 조선 초부터 규정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규정이 지켜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 더군다나 임진왜란 이후 피폐해진 농지를 복구하고 세금의 기준이 되는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 선조(36~37년, 1603~1604)와 광해군 대(5년, 1613)에 양전을 서둘러 시행한 이후로는 전세 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남(충청·경상·전라도) 지역조차도 이 규정이 거의 지켜지지 못했다. 양전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은 데에는 조선후기에 토지소유권이 강화되고 이와 더불어 지주제가 확산되면서 지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농지 조사를 꺼려한 측면도 무시할 수 없었다.³⁾ 양전을 하지 않음으로써 토지 정보가 담긴 양안量案은 경작 여부, 전주田主 현황, 농지 변형, 토질 변화 등 농지와 관련된 잣은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고 그 결과 조세의 불균등성은 갈수록 심화되었다.

이 글은 이렇게 양전이 오랫동안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삼남 지역을 양전하지 않은지 100년이나 된 순조 20년(1820) 저술된 서유구(徐有渠, 1764~1845)의 『의상경제책擬上經界策』을 번역, 주해하고 그에 담긴 농업 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 책은 제목의 ‘경제’라는 말에서 드러나듯 양전의 방법론에 대한 제안을 담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제(田制, 토지제도)’를 포함한 ‘전정田政’과 농업의 국가적 운용과 관련된 영역인 ‘농정農政’까지 포괄적인 농업 정책을 다루었다.⁴⁾ ‘3강綱 11목目’, 즉 크게는 토지제도·양전론·농정론 3가지로, 작게는 11

2) 金容燮, 『韓國近代農業史研究』 I, 지식산업사, 2004, 제II편 「政府의 賦稅制度 釐正策」 참조.

3) 崔潤晤, 『朝鮮後期 土地所有權의 발달과 地主制』, 해안, 2006; 崔潤晤, 『肅宗朝 方田法 시행의 역사적 성격』, 『國史館論叢』 제38집, 國史編纂委員會, 1992.

4) ‘전제’는 조선의 경우 결부법結負法이라는 토지제도 통해 전세田稅를 수취하는 방식을 말한다. 조선후기에 들어서는 이 전세의 성격이 변하여 대동미를 비롯한 각종 조세가 경작하는 농지의 넓이를 기준으로 부과되었다. ‘양전量田’은 농지를 조사하고 측량하여 경작 상황과 농지 넓이를 파악하는 제도이다. 결부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양전하여 양전 장부인 양안量案에 토지소유자, 실제 경작자, 넓이, 위치 등의 정보를 기입한 뒤 그 결과를 세금을 수취하는 자료로 활용했다. ‘농정’은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기관에서 취하는 일련의 농업 행정을 일컫는다. 이 같은 측면에서 농정은 농사를 국가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운영하려는 행위나 그와 관련된 제도라고 할

가지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조진條陳한 이 정책문進策文은 저술 분량도 상하 2권 25,000여 자나 되어 책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정도이다.⁵⁾

『의상경제책』이 저술된 직접적 계기는 순조 19년에 내려진 전라도와 경상도의 양전 시행령이었다. 이 시행령은 순조 20년 추수가 끝난 뒤 실행되도록 예정되었다. 이후 도 단위 규모의 대대적인 양전을 위해 경상도 감영에서는 양전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실무적인 준비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순조의 양전 시행령은 불과 8개월 여 만에 흐지부지 되었고, 따라서 『의상경제책』의 저술 기간도 이보다 더 길었을 가능성은 적다. 채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농업 전반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 대안을 조목조목 마련하여 저술 수준의 분량을 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의상경제책』의 저자는 조선 최대의 실용백과사전인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를 지은 서유구(徐有渠, 1764~1845)이다. 그가 『의상경제책』을 쓸 당시는 정계에서 물러나 그의 묘향인 장단 주변 지역(현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일대)에서 15년 제 농사를 짓고 임진강 하구 유역에서 물고기를 잡는 등 생계를 몸소 꾸리면서 농학을 위주로 <<임원경제지>> 등의 저술에 몰두하고 있던 때였다. 재야에 머물러 있던 서유구는 조선후기에 주요 관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큰 세력을 형성했던 경화세족京華世族의 주요한 일문인 대구(또는 달성) 서씨의 일원이었다. 비록 재야에 머물러있지만 국가 운영에 언제든지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경화세족으로서 그는 양전령을 계기로 국가 재정 및 그 토대인 농업의 흥성을 위한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개진하려 했던 것이다. 『의상경제책』을 저술한 3년 뒤 서유구는 정계에 복귀했고 이후 16년 간 삼정승과 대제학을 제외한 주요 관직을 두루 거쳤다.

『의상경제책』은 국가 재정과 토지제도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농업정책론이나 농업경영론의 측면에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주목되었다. 김용섭은 서유구의 농

수 있다. 이 3가지 중 전제와 양전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이를 통틀어서 조선전기에는 ‘전제田制’라 했으며 조선후기에는 ‘전정田政’이라 했다. ‘전정’이라는 용어는 인조 대에 처음으로 실록에서 확인된다. 『인조실록』, 17년(1639) 8/3. 이후 숙종(23), 영조(33), 정조(33) 대에 실록에서 20회 이상 등장하며, 『의상경제책』이 저술되었던 순조(12) 대에도 비교적 자주 보인다. ‘전제’라는 말은 조선 전 시기에 걸쳐 사용되었지만 전제가 정착된 성종 대까지 자주 확인된다. 태조(10), 태종(26), 세종(40), 세조(11), 성종(13), 정조(10) 대에 실록에서 10회 이상 나온다. 괄호 안은 출현 건 수.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사이트에서 검색어 ‘田政’과 ‘田制’로 확인.

5) 이 글에서는 『의상경제책』을 저술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표기도 그에 상응하게 했다.

업론을 가장 먼저 심도 있게 분석한 연구자였다. 그는 『의상경제책』 제3장의 6 조목 중 견종법畝種法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경종법耕種法의 도입을 주장한 제2 조목을 강조했고,⁶⁾ 양전론을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양전론과 비교하며 간략하게 소개했으며,⁷⁾ 견종법이 조선후기에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 증거로 견종법의 장점, 관서 및 해서 지방의 견종법 시행 상황, 견종법을 통한 높은 수확량 등에 관한 서유구의 논의를 제시했다.⁸⁾ 또 서유구의 둔전론을 ‘국영농장적인 농업경영론’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그의 둔전론이 농민과 지주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절충적인 농업경영론이라 평가하기도 했다.⁹⁾ 『의상경제책』은 농업경영을 확대해가는 조선후기의 사회상황을 논증하면서 당시 ‘경영형부농’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에도 주요한 사료로 이용되었다.¹⁰⁾ 김용섭은 이 과정에서 『의상경제책』에 관련된 지금까지의 연구 중 전제(토지제도)·양전·농정 등 『의상경제책』의 ‘3강綱’ 모두를 다루며 가장 광범위하게 소개했다. 그는 그 중에서도 제3장을 주로 다루었는데, 이 가운데 특히 경종법을 소개한 제2목과 둔전론을 소개한 제6목을 주로 분석했고, 그에 비해 제1~2장은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았다.¹¹⁾

6) 金容燮, 「林園經濟志와 擬上經界策의 農業論」, 『朝鮮後期農學史研究』, 지식산업사, 2009, 432~478쪽.

7) 金容燮, 「茶山과 楓石의 量田論」, 『韓國近代農業史研究』 I, 185~209쪽.

8) 金容燮, 「朝鮮後期の 田作技術 - 畝種法の 普及에 대하여」, 『朝鮮後期農業史研究』 II, 지식산업사, 2007, 161~172쪽.

9) 金容燮, 「19世紀의 農業實情과 새로운 農業經營論」, 『韓國近代農業史研究』 I, 148~183쪽.

10) 金容燮, 「朝鮮後期の 經營型 富農과 商業的 農業」, 『朝鮮後期農業史研究』 II, 312~437쪽.

11) <표1>은 김용섭이 『의상경제책』을 언급한 5편(위의 주석 5개 참조)의 글을 주로 분석한 결과이다. 제1~2장 중 제1장의 제1목(토지제도의 개혁)은 비교적 많은 부분을 다루었다. 하지만 서유구의 양전론을 다룬 글에서 김용섭은 정작 양전을 다룬 제2장의 세 조목은 거의 다루지 않고 제1장의 제1목을 주로 소개했을 뿐이었다. 金容燮, 「茶山과 楓石의 量田論」, 앞의 책, 193~206쪽.

<표1> 김용섭의 『의상경제책』 인용 상황

강	목	인용 회수
1강	1목	10
	2목	1
2강	1목	1
	2목	1
	3목	1
3강	1목	7
	2목	27
	3목	4

유봉학은 둔전론을 중심으로 서유구의 농정론을 분석했다. 그는 당시에 농업생산력이 발달했다고 전제하고서 서유구의 둔전론은 이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새 농업기술론을 둔전에 도입하여 최대의 생산성을 올리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 부세賦稅 수취의 모순을 해결하고 당시 큰 사회문제였던 유민流民을 둔전에 흡수하려 했다고 평가했다.¹²⁾ 또 서유구의 관 주도 농업경영을 통한 농업생산력 향상과 국가재정 확보 대책은 당시 농업 현실을 면밀히 파악하여 개선하려 했다는 면에서 뛰어났고, 당시로서는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구상이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병작반수의 관행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았다거나 토지 소유의 혁신적 변화를 주장하지 않은 점 등에서 생산 담당자층인 향촌 백성의 입장과 유리된 ‘온건한 농업정책론’이라고 그 한계를 지적했다.¹³⁾

문중양은 조선후기의 수리학水利學 연구에서 수리 진흥 정책을 담은 『의상경계책』의 제3장 제4조목을 소개했다. 그는 서유구가 조부 서명응과 친부 서호수의 농학을 3대에 걸쳐 완성시키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국가표준의 종합농서가 표방할 중요한 쟁점들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저술이라고 『의상경계책』을 평가했다. 문중양은 <<임원경제지>> 『본리지』를 ‘조선 수리학을 종합한’ 저술로 자리매김 하는 과정에서, 『본리지』 이전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서유구의 수리현실 인식과 수리 진흥 방안을 『의상경계책』을 통해 보여주려 했다. 이를 위해 『의상경계책』의 서술 순서를 충실하게 따라가며 서유구의 수리진흥론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데 주력했다.¹⁴⁾

김환수는 조선후기 농학자들이 북방의 조 재배법을 권장할 만한 농법으로 인식하게 된 배경과 그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상경계책』의 견종법을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조선전기에는 고랑 대신에 두둑에 재배하는 남방의 조 재배법이 북방에 보급해야 할 선진농법으로 받아들였던 데 반해, 후기에 간종법間種法이 확산되면서 조 재배법의 문제가 드러나자 농학자들은 그 문제를 타개할 방안으로 고랑에 조를 재배했던 북방의 재배법에 주목했고, 그들 중 한 사람인 서유

	4목	4
	5목	7
	6목	49

12) 유봉학, 「徐有渠의 學問과 農業政策論」, 『연암일과 북학사상 연구』, 일지사, 1995, 217~218쪽.

13) 같은 글, 222~226쪽.

14) 문중양, 『조선후기 水利學과 水利담론』, 集文堂, 2000, 215~226쪽.

구는 여기서 더 나아가 둔전을 통해 이 북방 농법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려 했다는 것이다.¹⁵⁾

농정론에 대한 이상의 연구 외에 다른 측면에서 『의상경제책』을 분석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먼저 『의상경제책』을 통해 서유구의 문예론과 치재관治財觀을 살핀 조창록은 서유구가 시문과 경학을 비판하면서 농학이나 수리數理 같은 실용학을 추구했으며 치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정리했다.¹⁶⁾ 김문식은 서유구의 지역인식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서유구는 자신이 이해한 조선 중심의 지역을 중국, 경사京師, 팔도, 사군육진과 도서島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농정의 도입을 주장했다.¹⁷⁾ 서유구의 산문을 분석한 김대중은 『의상경제책』을 전문적인 농학 지식, 농학자적 식견, 현장 체험, 성찰적 자세, 백성의 참상에 대한 정직한 반응 등을 총집결한 작품으로 평가했다.¹⁸⁾

이와 같이 김용섭 이후 『의상경제책』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는 대개 『의상경제책』 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제3강 제6조목의 둔전론 등 특정 주제에 관한 분석에 치중되었다. 최근에서야 『의상경제책』의 전체 내용과 그 특징에 대한 해제 차원에 가까운 소개가 이어졌고, 이를 토대로 『의상경제책』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시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엄정섭은 『의상경제책』의 전체 내용을 간략히 해설한 뒤 서유구가 농법을 변통하고 농정을 개혁하기 위해 제시했던 방안을 서유구의 다른 저술인 『행포지』·『본리지』를 함께 논의하며 보여주었다. 그는 여기서 서유구의 농업개혁론을 ‘농업기술(농법) 변통론’과 ‘농정개혁론’으로 나누면서도 이 양자가 상호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전자는 후자에서 현실화·구체화되고, 후자는 전자를 선행조건으로 전제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입장에서 그는 『행포지』·『본리지』의 농법변통론, ‘풍석대전법’(견종법) 보급론, 수리시설 개선론, 번전 금지론, 양전법의 하나인 방전법方田法 시행과 양전계획, 둔전 설치와 북방지역 개발 등을 통해 위 양자의 상호 긴밀성을 보여주려 했다.¹⁹⁾ 또 서유구의 둔전론을, 경사京師둔전·영하營下둔전·열읍列邑둔전·북방둔

15) 김환수, 「朝鮮後期 北方 種粟法の 再認識」, 『國史館論叢』 第86輯, 國史編纂委員會, 1999, 255~274쪽.

16) 조창록, 「풍석 서유구의 『擬上經界策』에 대한 일 고찰-그의 文藝觀과 治財觀의 한 면모-」, 韓國實學學會, 『韓國實學研究』 11, 民昌社, 2006, 161~182쪽.

17) 김문식, 「『擬上經界策』에 나타난 徐有渠의 지역인식」, 韓國實學學會, 『韓國實學研究』 18, 2009, 569~602쪽.

18) 김대중, 『풍석 서유구 산문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1, 140~149쪽.

19) 엄정섭, 『농업개혁론을 제시한 임원경제지 편찬자 서유구』, 민속원, 2013, 133~140쪽.

전 네 가지로 설명했던 이전 연구들의 문제를 지적하며, 북방둔전은 북방 개발의 거점이라는 점에서 앞의 셋과 성격이 전혀 다름을 지적했고, 그의 둔전론이 지력을 다 활용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농정개혁론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²⁰⁾

서유구의 농업개혁론을 파헤친 그의 연구는 농법과 농정의 관계성에 초점을 두면서 양전 개혁과 같은 이제까지 비교적 덜 알려진 『의상경제책』의 내용에도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농법과 농정의 상호 연관성을 강조한 그의 연구는 ‘농법변통론’이 ‘농정개혁론’에서 현실화·구체화되고 후자가 전자를 선행조건으로 전제했다는 그의 주장을 세심하게 보여주지 못했으며, 게다가 이 구도를 제3장 안에서만 파악했을 뿐 제1~2장으로까지 확대하지는 않았다. 서유구의 또 다른 주요 개혁론인, 경묘법頃畝法²¹⁾으로의 토지제도 개혁이나 방전법 같은 양전법 강구²²⁾가 농법변통론과 위와 같은 식으로 상호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의상경제책』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이 책의 일부 특성들을 분석하는 데 머물렀기에 서유구의 농정 사상 전체를 통합적이고 구조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양전령의 계기로 저술된 『의상경제책』의 분석에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양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토지제도’와 ‘양전법’에 관한 제안이, 양전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이는 ‘농정’에 관한 건의

183~227쪽.

20) 같은 책, 217~227쪽.

21) ‘경묘법頃畝法’의 ‘畝’는 음이 ‘무’로 쓰이기도 하여 통일된 기준이 없으나 이 논문에서는 ‘묘’로 통일하기로 한다. 자전이나 국어사전에서도 ‘무’로 쓰이기도 하고 ‘묘’로 쓰이기도 하며, 한 사전에서 둘을 혼용하기도 하여 통일된 기준을 찾기는 쉽지 않다. 국어사전의 경우 ‘畎畝’·‘藁畝’·‘頃畝法’ 세 단어의 사례를 볼 때, 예를 들어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 편)에서는 ‘묘’(畎畝·藁畝)와 ‘무’(頃畝法)를 혼용했고, 『고려대 한국어대사전』(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어사전편찬실 편)에서는 모두 ‘묘’로 쓰면서도 ‘頃畝法’의 유의어를 ‘경무법’으로 표기하기도 했으며, 『국어대사전』(이희승 편)에서는 모두 ‘묘’로 썼다. 또한 한국고전번역원의 원문 제공 사이트인 ‘한국고전종합DB’에서도 이 두 발음이 혼용되고 있다. 한편 언해본 『맹자』에는 ‘모’로 적혀 있어 조선에서 ‘畝’의 고음이 확인된다.(『孟子 附彥解』, 學民文化史 영인본) 지금은 모두 ‘무’로 읽는 ‘無’와 ‘務’자의 음이 이 언해본에 모두 ‘무’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예전의 ‘모’가 지금의 ‘무’로 일괄적으로 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식민지시기에 정리된 『朝鮮語辭典』(朝鮮總督府 編, 1936)에 ‘畎畝’의 음을 ‘건묘’로 적은 것으로 볼 때 ‘묘’로 읽은 사례를 더 많이 찾을 수 있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많이 사용된 음을 택했다.

22) 엄정섭은 경묘법 시행과 방전법 시행을 양전 ‘개혁’으로 보았다. 이 같은 입장은 토지제도와 양전 두 분야를 모두 ‘양전’이라는 한 분야로 바라본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유구는 토지제도를 개혁[更張]해야 한다고 말했을 뿐, 양전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서유구에게 양전은 강구[講磨]의 대상이었다.

와 왜 같은 제목 아래에 묶였냐는 점이다. 이 점이 해명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분석으로 인해 3장 11목의 유기적 연관성에 주목할 수 없었다. 이 같은 연구 경향은 ‘3장 11목’의 구성 하에 체계적으로 서술된 이 책의 특성과도 무관하지는 않다. 대주제와 소주제가 쉽게 드러나서 연구자의 관심 영역이 아닌 항목에 대한 접근을 미리 차단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의상경제책』에 대한 연구의 단편적 성격으로 인해 농학자로서 서유구의 농업론을 전체적으로 접근하기도 어려웠다. 『의상경제책』에서 소기所期한 제안의 핵심이, 둔전이라는 공동농장에서 농업생산성을 높여 국부를 창출하는 일임은 기존 연구를 통해 잘 알려진 바이다. 그러나 서유구가 정작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제안한 농업기술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둔전에서 활용하여 보급시키려 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거의 두지 않았다. 예를 들어 제3장 제6목(둔전론)에 간략히 적혀 있는 ‘수전농법과 한전농법(건중법)을 활용한다’는 정도의 언급에서 그치고 더 이상 천착하지 않았던 것이다.²³⁾

『의상경제책』에 관한 기존 연구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짚을 점은, 18세기 말~19세기 초 지방관을 역임하고 농촌에 몸담으면서 농촌 현실을 몸소 체험했던 서유구가 이 저술에서 제시한 당시의 사회상이 조선후기 농업생산력의 발달과 그로 인한 성취를 강조하는 오늘날 연구자들의 이해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다. 당시의 조선 농업 대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서유구의 비판적 접근은 조선 후기의 생산력 수준과 관련된 수많은 연구를 통해 확립된 당시의 ‘농업기술과 농업경영의 성취’에 관한 인식 중 상당 부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심지어 이전 연구는 『의상경제책』의 주장을 오독하여 서유구가 의도했던 것과는 반대의 농업 상을 제시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이루어진 조선후기 농업사 연구에 따르면, 이앙법이 널리 퍼졌고 밭에서도 건중법畝種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거나 근경(根耕, 그루갈이)과 간중(間種, 사이짓기) 같은 노동 집약적인 농법을 쓰는 농업기술 상의 발전이 있었다고 이해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의 결과 이앙법에서의 노동력이

23) 김용섭은 수전농법으로 ‘이앙법’(또는 영남식 수전농법)을, 한전농법으로 ‘건중법’(또는 양서식兩西式 한전농법)이라 명시했고, 염정섭은 ‘경상도의 벼농사법’과 ‘풍석대전법楓石代田法’(즉 건중법)이라 각각 적었으며, 유봉학은 농법에 대해서는 아예 다루지 않았다고 했다. 김용섭의 ‘양서식 한전농업’이라는 표현은 중국의 건중법이 아니라 당시 양서(황해도·평안도)에서 시행되는 건중법을 시행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오해이다. 金容燮, 『韓國近代農業史研究』 I, 162~163쪽; 염정섭, 앞의 책, 223쪽; 유봉학, 앞의 책, 213쪽 주167.

대폭 절감되면서 발작물이 다각화되었다. 시비법의 확산과 농기구 및 수리시설의 발달 또한 이 시기 농업생산력 증대에 기여한 요인으로 간주되었다. 연구자들은 집약적인 농업기술(농법)의 발달로 농업생산성이 증대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조선의 사회 구성이나 사회상의 변화가 촉발되어 새로운 변혁의 움직임이 싹튼 것으로 이해했다.²⁴⁾ 조선후기 역동적인 사회 변화의 기저에 농업기술의 발달이 주요한 추동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다. 요컨대, 연구자의 대부분이 조선후기에 농업기술이 ‘발달’했고 따라서 농업생산력이 ‘증대’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조선후기 농업생산력의 발전을 주장하는 연구의 효시는 김용섭에 의해 이루어졌다. 농업기술을 기반으로 조선 농업사의 전반적인 연구 방향을 주도했던 김용섭은 조선후기에 논에서는 이앙법이 보급되고 밭에서는 견종법畝種法이 확산되어 농업생산력이 발달함으로써 농촌사회가 분해되었고 ‘경영형부농經營型富農’이라는 신흥 농업부유층이 출현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이들이 광작廣作을 통해 농업경영을 확대하고 상업 작물을 적극적으로 재배하면서 농업기술의 변화를 주도했다고 한다.²⁵⁾ 다른 한편, 엄정섭은 농법의 발달이 농민에게나 농업경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분석은 보류한 채, 조선의 농법이 수전水田, 한전旱田, 농기구, 시비법, 수리시설 등의 여러 측면에서 발달했으며 18세기 후반에는 지역농법도 다양하게 발달했음을 보여주었다.²⁶⁾ 김건태는 이앙법의 노동력 감축 효과라는 특징에 주목하여, 조선후기 이앙법의 확산으로 논 농사에 들어갈 노동력이 줄어들었으므로 유희 노동력을 밭에 투입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제초 노동력이 덜 드는 근경 농법에서 근경보다 더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는 간중 농법으로 전환되었고, 제초 노동력이 다른 작물에 비해 많이 들어가는 목화나 담배 농사 비율이 늘어남으로써 노동능률을 제고시켰다는 것이다. 그는 이 같은 농법 전환의 결과 농작물 재배의 다각화와 집약화가 이루어져 농업생산성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보았다.²⁷⁾

하지만 서유구의 『의상경제책』에 담겨있는 조선후기 농업(기술을 포함하여)의

24) 李永鶴, 「조선시기 농업생산력 연구현황」, 近代史研究會 編, 『韓國中世社會 解體期の 諸問題: 朝鮮後期史 연구의 현황과 과제』 下, 한울아카데미, 1987, 23~42쪽; 廉定燮, 「농업생산력의 발달」, 한국역사연구회 역음, 『한국역사입문』 ②, 풀빛, 1999, 396~413쪽; 김건태, 「농업생산력과 농업경영」, 한국사연구회 편, 『새로운 한국사 길잡이』 上, 지식산업사, 2010, 398~410쪽.

25) 金容燮, 『朝鮮後期農業史研究』 II.

26) 嚴正섭, 『조선시대 농법발달 연구』, 태학사, 2002.

27) 김건태, 『조선시대 양반가의 농업경영』, 역사비평사, 2004, 144~158쪽.

모습은 ‘발달’이나 ‘생산성 증가’라는 평가를 내리기에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부정적이다. 이양법의 전국적 확산을 비롯한 벼 재배법 문제에 대해 서유구는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이양법 확산이나 벼와 보리를 돌려짓는 도맥이모작이 성행하여 생산량이 증가했다는 언급 또한 하지 않았다. 대신 논에서는 이양법 성공의 기본 요건인 수리시설이나 수차가 거의 갖춰지지 않아 가뭄이나 장마에 대처하지 못한다거나,(3.4.1~28)²⁸⁾ 수리 조건이 좋지 않은 밭을 논으로 바꿔 벼 재배에 실패를 자주 겪는다고 지적했다.(3.5.1~7) 또 밭에서 성행하는 근경이나 간종 등의 이모작 식 경종법耕種法은 밭아울이 낮고 지력만 소모하는 농법이므로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5.8~12) 김용섭이 조선 후기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고 본 견종법의 경우, 서유구는 확산되기는커녕 농민이 도입하기를 꺼려해서 양서(해서·관서)를 제외하고는 견종법이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또 논과 밭 모두에 적용되는 문제로, 서유구는 가뭄이나 홍수 피해가 없는 해가 없고(3.4.4~14), 특별한 환경에 잘 자라는 좋은 종자를 쓰지 않아 재해에 무방비 상태가 되었으며(3.3.13~15), 쟁기를 비롯한 농기구나 수차 및 준설 기구 등이 전혀 없거나 있다 해도 표준화 되지 않았다(3.2.4~8, 3.4.20~21, 3.4.30~31)는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가뭄이나 홍수, 병충해·풍해 등 자연재해의 영향이 농업생산력과 크게 관계가 없는 듯이 서술하고, 농기구가 분화되고 종류가 다양해졌으며 수차에 대한 연구도 활발했다고 이해한 기존 연구의 관점과 정반대이다. 광작 현상에 대해서 서유구는 농업 인구의 감소로 일손이 부족해져 생긴 부득이한 선택이라며 그 존재를 인정했지만, 그럼에도 광작이 실시된 결과 농작물 재배에 제대로 손을 쓸 수 없어서 도리어 생산량이 낮았다고 평가했다.(3.2.36~37)

이처럼 학계에서는 조선후기의 농업생산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데 반해 서유구는 매우 인색하게 진단했다. 이러한 견해의 격차가 무엇 때문인지, 누구의 시각이 당시의 상황을 더 현실적으로 진단한 것인지는 주목할 만한 연구 주제이다. 이 문제는 『의상경제책』을 비롯한 당시의 다양한 농서 및 농정 관련 자료, 정부의 기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연구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의 연구자와 서유구 사이의 관점 차이를 본격적으로 분석하지는

28) 괄호 안의 세 단계의 표기는 제2부의 제1~3장에 실린 『의상경제책』의 역주를 필자가 임의로 나눈 문단 번호이다. 뒤에 나오는 괄호 안에 0으로 시작하는 두 단계의 표기(0.1~0.4)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0으로 시작하지 않는 두 단계의 표기(예를 들어 3.1 등)는 ‘3장 11목’ 중 목의 제목에 붙인 표기이다.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해설 및 역주(해설 포함)를 통하여 무엇보다도 『의상경제책』에 담긴 농업론의 전모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19세기 전반 조선의 농업 상황에 대한 서유구의 비판적 진단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그의 구상을 복원하는데 목적을 둘 것이다. 이로써 『의상경제책』의 유기적인 성격을 파악하여 3장이 어떤 관계로 연관되는지를 밝히는 한편, 『의상경제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농업기술을 ‘견종법’으로 이해하고 견종법이 서유구의 정책 구상에서 가지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우선 『의상경제책』에 들어 있는 서유구의 농정관을 세밀히 살피는 데 목적을 둔다. 또 그의 농정관이 『의상경제책』에서 어떻게 전체적 일관성을 유지하는지, 세 강이 어떻게 서로 긴밀히 관련되는지를 살피려 한다. 이와 동시에 『의상경제책』 원문 전체를 역주했으며, 이 책이 저술된 배경과 내용을 해설했다. 번역하는 과정에서 서유구의 농정론의 이전 출처를 추적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상의 역주와 해설을 통해 이 논문은 『의상경제책』과 그 속에 담긴 서유구의 농업 정책론이 지닌 다음과 같은 성격을 드러내고자 한다. 서유구는 ‘토지제도’를 결부법에서 경묘법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는데, 이는 ‘양전법’의 개선을 통해 결부법의 폐단을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묘법으로 구획된 농지에 선진 농업기술을 포함한 ‘농정’을 적용하자는 그의 정책적 제안으로까지 이어진다. 서유구의 견해로는 견종법으로 대표되는 선진 농업기술은 기존 농법의 관성에 젖어 있는 민간에 곧장 보급될 수 없었고, 따라서 그 효과를 반드시 시범농장에서의 실행을 통해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서유구가 『의상경제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시한 ‘둔전’의 제도가 바로 그 시범농장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었는데, 이 둔전이야말로 서유구의 구상에서 ‘토지제도’인 경묘법, ‘양전법’인 방전법, ‘농정’의 일환인 견종법을 위시한 여러 농법이 종합적으로 펼쳐지는 곳이었다. 『의상경제책』의 3강은 이처럼 어느 한 요소라도 빠지면 국부창출이라는 서유구의 장기적인 계획이 성사될 수 없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 세 요소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요소가 바로 농업생산력을 제고할 수 있는 농법으로서의 견종법이었다. 서유구의 구상에서 경묘법이 적용되지 않는 농지에서는 견종법을 시행할 전묘(田畝, 이랑의 모양)를 표준적으로 만들 수 없고, 둔전이라는 공동농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견종법을 전국에 보급할 수 없다. 서유구에게 견종법은 토지제도와 양전이 둔전과 결합될 때 최대의 농업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농업기술이었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부 제2장에서는 서유구의 생애와 농업론을 다루고, 제3장에서는 『의상경제책』의 3장 11목에 담긴 서유구의 제안을 분석한다. 그리고 제2부(1~3장)에서는 『의상경제책』을 역주한다.

먼저 제2장의 2.1절에서는 정조대와 순조 초년에 걸친 서유구의 제1사환기를 다룬다. 여기서는 서유구의 가계를 살피고 가학의 전통을 그가 어떻게 흡수했는지를 살핀다. 이 과정에서 젊은 시절 서유구의 학문 중 특히 농학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어 과거에 급제한 뒤 사환 활동을 시작한 서유구가 국왕에게 제출한 농정론을 통해 그의 초기 농정론을 검토한다. 2.2절에서는 18년간 이어진 서유구의 귀농기를 다룬다. 정치적 시련기로도 볼 수 있는 이 시기에 그의 농업론이 크게 바뀌는 사정을 살핀다. 이 시기를 통해 서유구는 전문 농학자이자 농부로 변신하며 경학과 경제학으로부터 실용을 추구하는 학문으로 전환했다. 서유구의 대표작인 <<임원경제지>> 저술이 이 시기에 시작되었고, 서유구는 이를 통해 ‘임원경제학’이라는 학문의 기반을 구축했음을 확인할 것이다. 이와 함께 귀농기의 농업정책서인 『의상경제책』의 전체 구조를 살피고 다른 진책문과의 비교를 통해 농정만을 다룬 이 책의 의의를 확인한다. ‘3장 11목’의 체계적인 구조를 지녔음과 함께 다루는 내용의 분량도 역대의 진책문 중 가장 많은 농정책을 언급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2.3절에서는 서유구의 제2사환기 및 정리기를 다룬다. 귀농기에 축적했던 그의 농정론 중 지방관으로 재직할 때 시도했던 농정의 사례를 살핀다. 또 사환기에 이루어진 <<임원경제지>>의 보완 및 정리 작업, 그리고 퇴임 후 이 책을 저술하는 데만 머무르지 않고 자신도 향촌의 삶에서 그 속에 담긴 지식을 실천하려 했음을 살펴볼 것이다.

이상의 제2장에서 『의상경제책』이라는 농정서를 지은 저자의 삶과 농업론을 살펴봄으로써 『의상경제책』을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 했다. 특히 서유구 농업 사상의 형성과 변화 내용을 추적하여 『의상경제책』에서 제시한 농정론이 그의 농업 사상의 전체적 틀에서 갖는 위치를 가늠하는 바탕으로 삼았다.

제3장에서는 『의상경제책』이라는 문헌의 성격과 그 속에 담긴 정책의 내용을 규명한다. 3.1절에서는 이 책 제목의 의미를 풀어주고 유일본인 책의 서지 정보를 알려준다. 우선 제목의 핵심어인 ‘경제’의 의미와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 말을

이해했는지 분석했다. 또한 현존본 『의상경제책』이 서유구 사후에 작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본에 가까운 교감본을 작성했음을 언급했다. 3.2절은 『의상경제책』의 구조적인 특성을 살핀다. 이를 위해 먼저 『의상경제책』의 줄거리를 살피고 각 목에서 주장하는 내용의 의의를 간략히 정리하면서 ‘3강 11목’의 유기적인 구조를 개괄한다. 3.3절에서는 『의상경제책』의 저술 배경과 농업론을 살핀다. 먼저 경진 양전령이 어떤 배경으로 내려져서 그 이후의 흐름은 어떠했는지를 정리한다. 이어 결부법의 내용을 분석한다. 결부법이 세종 대에 제도화가 된 취지와 그 내용을 상세히 살피고 그 변화상을 일별함으로써 서유구가 왜 결부법의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하면서 개혁하려 했는지에 대한 선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에 이어, 『의상경제책』에서 보급하려는 핵심 농업기술인 견종법을 조선에서 어떻게 이해했는지 서유구의 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견종법이 조선에 널리 보급되었다는 기존 연구의 주장을 서유구의 논의와 비교하며 재검토했다. 서유구와 후대 연구자들이 이해한 ‘견종법’의 개념이 달라 생긴 견해의 차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서유구가 견종법을 조선에 도입하려 했던 이유를 좀 더 세밀히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유구의 농업론을 종합한 둔전설치론을 이해하기 위해 조선의 둔전론과 서유구가 흡수한 이전의 둔전론들을 개괄했다. 이를 통해 서유구의 둔전론에서 보이는 특징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장 결론에서는 『의상경제책』이 견종법의 전국적 보급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원대한 구상임을 확인하고 이 구상이 조선후기 농업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소개했다. 즉 서유구는 ‘경묘법으로 양전한 둔전에서 견종법으로 농사짓는 일’을 통해 특정 농업기술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전정과 농정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켰다. 그 결과는 왕도정치의 실현으로 이어져 자연스럽게 조선의 국부창출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계획이었다.

제2부의 제1~2장은 제1~2장이 들어있는 『의상경제책』 상권을, 제3장은 제3강 전체가 수록된 하권을 역주하고 뒤이어 각 목 별로 해설을 추가했다. 역주에 앞서 『의상경제책』 원전의 성격을 환기시키고 역주를 논문의 일부로 신게 된 배경과 역주 방침들을 간략하게 소개할 것이다. 역주는 원문 가공 과정을 거친 교감본을 토대로 진행하여, ‘3강 11목’ 체제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원전에 없는 목차를 비교적 상세히 제시했으며 번역문은 직역을 원칙으로 하되, 직역으로 어색한 곳은 의역했고 필요에 따라 원문에는 없더라도 보충역을 추가했다.

제2장. 서유구의 생애와 농업론

서유구는 말년(1842년, 79세)에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오비거사 생광 자표 五費居士生墳自表’에서 자신의 인생을 다섯 시기로 구분했다.(표2)¹⁾ 이를 토대로 각 시기의 활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비기費期’는 유금(柳琴, 1741~1788), 서명응(徐命膺, 1716~1787), 서형수(徐滢修, 1749~1824), 이의준(李義駿, 1738~1798), 박지원(朴趾源, 1737~1805) 등에게서 문장을 배우고 연마하던 시기이다. 1790년 과거급제로 조정에 입문하면서 이 시기가 일단락된다. ‘2비기’는 정조 대에 규장각에서 활동하고 내외직을 수행했던 시기이다. 1806년 ‘김달순 옥사’ 사건으로 작은아버지 서형수가 유배형을 당하면서 이 사건에 연루되어 관직을 떠나게 된다. 이 시기가 서유구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했던 때로 판단된다.

〈표2〉 서유구의 생애 구분²⁾

구 분	성 격	기 간	거 주 지
1비기	성장 및 학문 수련기	1764~1790	신촌, 죽서, 용산(풍석암)
2비기	1차 사환기	1790~1806	용산
3비기	귀농기	1806~1823	유양, 노원, 금화, 두호, 대호, 난호, 용산
4비기	2차 사환기	1823~1839	용산, 난호, 번계
5비기	임원경제지 정리기	1839~1845	번계, 두릉

-표에 언급된 거주지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신촌莘村: 용주와 가까운 한강 가의 마을로 추정³⁾; 죽서竹西: 서울 지하철 회현역 쪽 남산 기슭⁴⁾; 용주溶洲: 현 서울 용산; 번

1) ‘오비거사’는 서유구가 자신에게 붙인 호로, 인생에서 5가지를 허비했다는 뜻의 겸사이다. ‘생광’은 죽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무덤이고, ‘자표’는 묘비의 글을 자신이 썼다는 뜻이다. 徐有桀, <<楓石全集>> 『金華知非集』 卷6 「墓表」 ‘五費居士生墳自表’(<<叢刊>> 288, 424~425쪽). 주석의 ‘徐有桀, <<楓石全集>>’ 부분은 앞으로 ‘<<全集>>’로 약칭한다.

2) 이는 유봉학(『연암일과 북학사상 연구』, 일지사, 1995, 191쪽)이 서유구의 회고를 근간으로 한 시기 구분을 따랐으며 시기 명칭은 필자가 다시 명명했다. 이 책에서는 다섯 시기를 성장기, 사환기, 방폐기放廢期, 현달기, 은퇴기로 명명했다.

3) 신촌은 용산과 그다지 멀리 떨어지지 않은 한강가에 있었던 마을로 보인다. “徐尙書君受氏年未老,三上章乞骸不獲命,辭愈力,屏居莘村江上,不復蟬冕入春明者三載于茲矣.” 金煜, 『竹下集』 卷16 「序」 ‘送徐尙書(命膺)燕行序’(<<叢刊>> 240, 504쪽). 원문에 들어 있는 괄호 안의 글자는 주석을

계樊溪: 현 서울 번동 지역의 북한산 자락; 금화金華: 현 서울 도봉산 자락(당시는 양주)으로 추정; 두호豆湖·대호帶湖·난호蘭湖: 현 파주시 장단면 일대의 지명; 두릉斗陵: 현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3비기’는 묘향 장단(長湍, 현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민통선 일대)에 귀향하여 몸소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던 시기이다. 임진강 하구 일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물고기를 잡기도 하면서 농학·어류학·요리학 등에 관한 전문서적과 <<임원경제지>> 저술을 시작한 시기이다. 이 시기를 이전 연구에서는 보통 ‘방폐기放廢期’라고 하는데, 나는 ‘귀농기’로 명명했다. 서유구가 이 시기를 자신이 “재야로 내쳐졌다”는 뜻의 방폐放廢라는 용어로 자주 표현하는 점에 비추어볼 때⁵⁾ 그 말이 적절해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시기의 시작은 ‘방폐’임에는 틀림없으나 이후 삶의 전개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삶을 새로이 경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장단에서 서유구는 여러 농서를 연구하고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서 농법을 개량하는 등 조선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시도했다.

‘4비기’는 귀농기에 축적한 공부와 경험을 관료로서 발휘하는 때이다.⁶⁾ 60세에 제2의 관료 생활을 시작한 그는 16년간이나 내직과 외직을 오가며 당대 최고 관료의 길을 걸었다. 자신의 『종저보種諸譜』와 최치원의 『계원필경桂苑筆耕』, 서명응의 『보만재집保晩齋集』 등 영향력 있는 책을 출간하고, 관료로서의 중요한 치적들도 남겼다. 마지막으로, ‘5비기’는 정계를 은퇴하고 삶을 정리하는 기간이다.

의미함. 이하 동일.

4) 당시 서유구 집안은, 저동茆東에 작은 할아버지 서명선이, 죽서에 서명응이 살았다. 저동은 당시에 양향청糧餉廳이 있었던 현 중부세무서(지하철 명동역 동쪽 남산 기슭, 서울 중구 남학동 12-3) 주변이었다면(조창록, 앞의 논문, 19쪽 주46 참조) 서쪽으로 남산 기슭은 회현역 부근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5) 방폐라는 말은 <<楓石全集>>에서 총 9회 등장한다.

6) 유봉학은 ‘4비기’에 해당되는 기간을 고위 관직을 두루 거쳤다는 이유로 ‘현달기’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나는 2비기에 정조의 신임을 받으며 규장각의 촉망받는 신하로 활동했을 때가 더 ‘현달’한 시기라 생각한다. 4비기에는 정치적 경륜이 쌓이고 고위직을 두루 역임하기는 했으나 그보다 품계가 더 빨리 올라간 다른 이들에 비해 그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했다. 이 상황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서유구의 품계를 올려달라는 우의정 이지연(李止淵, 1777~1841)의 건의이다. 서유구가 75세였던 1838년, 그는 서유구가 일찍부터 명망이 있었고 정조 대의 규장각 신하였으며 정조·순조·현종의 세 조정을 거치며 원로가 되었는데도 아직 승반(崇班, 1품 반열)에 오르지 못한 일에 대해 여론이 그의 처지를 억울하게 생각한다면서 종1품으로 올려달라고 건의했고, 그제서야 대왕대비의 허락을 받을 수 있었다. 『備邊司謄錄』 현종 4년(1838) 7/30. 『備邊司謄錄』은 국사편찬위원회 ‘비변사등록’ 사이트 참조. 책 이름은 앞으로 한글(『비변사등록』)로 표기함. 이하 동일.

이때는 <<임원경제지>>에 쓴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했다. 임원의 좋은 터를 잡으려고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이 살았던 동네인 두릉(斗陵, 현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까지 진출하기도 했다. 그리고 필생의 저작 <<임원경제지>>를 하나하나 마무리했다.

서유구는 숙종·영조·정조 대 저명한 관료가 많이 배출된 경화세족京華世族 대구 서씨의 후예로, 이조판서를 지낸 서호수(徐浩修, 1736~1799)와 한산韓山 이씨(1736~1813)의 둘째 아들로 영조 40년(1764) 11월 10일 태어났다.⁷⁾ 조부는 규장각 설립을 주도했으며 대제학을 지낸 서명응(徐命膺, 1716~1787)이다. 서유구의 자는 준평準平, 호는 풍석楓石·용주자溶洲子·오비거사五費居士 등이며 풍석이 대표적인 호이다.

중시조는 대제학을 역임한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의 형 서거광(徐居廣, ?~1459)의 현손이자 선조宣祖·인조仁祖 대에 판서를 지냈던 서성(徐滄, 1558~1631)이다. 그의 넷째 아들이자 선조의 사위였던 달성위達城尉 서경주(徐景肅, 1579~1643)는 대구(달성) 서씨 가문 중 조선후기에 가장 창성했던 도위공파都尉公派의 시작이기도 하다. 서경주의 큰 아들 서정리(徐貞履, 1599~1664)는 아들이 넷이었는데, 이 중 넷째 아들이 서유구의 고조 서문유(徐文裕, 1651~1707)로 형조·예조판서를 거쳤으며, 서정리의 큰 아들은 참의를 지낸 서문상(徐文尙, 1630~1677)이다. 서문유의 후손은 서유구 때까지 관직이 모두 판서에 이르렀고 서문상의 후손은 19세기 중반까지 6대에 걸쳐서 3대 정승⁸⁾, 3대 대제학⁹⁾을 배출해 낸 명문가로 유명하다. 서문유의 큰 아들이자 서유구의 증조 서종옥(徐宗玉, 1688~1745)은 이조판서를 역임했다.¹⁰⁾

서종옥의 아들이자 서유구의 할아버지 서명응은 형제가 넷으로, 모두 양자로 후손을 이어서 계보가 다소 복잡하다. 서명응이 둘째였는데, 나머지 세 형제에 후사가 없자 서명응의 큰 아들 서호수는 큰 형 서명익(徐命翼, 1709~?)의, 작은 아들 서형수는 막내 동생 서명성(徐命誠, 1731~1750)의 양자가 된다. 이로 인해 정작 서명응의 후손이 없어서 달성위 서경주의 셋째 아들 서진리(徐晉履, ?~?)의

7) 徐命膺, 『大丘徐氏世譜戊編』(1775년)(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도서번호 奎 2327, 奎 5387) 二, 29면.

8) 서종태(徐宗泰, 1652~1719)·서명균(徐命均, 1680~1745)·서지수(徐志修, 1714~1768)를 가리킨다.

9) 서유신(徐有臣, 1735~1800)·서영보(徐榮輔, 1759~1816)·서기순(徐箕淳, 1791~1854)을 가리킨다.

10) 이상의 가계에 대해서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해당 인물 표제어 참조.

후손이자, 서명응의 8촌인 서명장(徐命長, 1688~1767)의 아들 서철수(徐澈修, 1749~1829)가 양자가 되었다. 서철수는 본래 서유구의 11촌 숙부였으나 조부의 양자가 되었고, 그는 다시 서유구를 양자로 삼는다.¹¹⁾ 결국 서유구가 출계出系의 과정을 거쳐 서명응의 후사가 된 것이다.

이상의 서유구 가계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청나라 사행을 다녀온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서정리의 후손 중 정부의 고위직을 가장 많이 배출한 큰 아들 서문상과 넷째 아들 서문유 가계만을 보았을 때 서문상 가계에서 2명(2회), 서문유 가계에서 5명(7회)이 연행사를 역임했다(표3).¹²⁾ 사행의 과정에서 이들은 청나라 문물을 전문하고 서적을 대량 구입해 오거나 청의 학자들과 교류했다. 이 두 가계가 가까운 인척으로서 한 집안과 같이 오랜 동안 소론으로서 정치적 운명을 함께 했기 때문에 사행 후 청에서 가져온 물건이나 겪었던 건문의 교류는 자연스럽게 일어났을 것이다.

<표3> 서정리 가계의 중국 사행 상황

서정리 후손의 사행단	자 격	조선왕조실록 출전
서문유(유)	사은부사	1703 9/21, 1704 3/27
서종태(상)	동지사	1703 10/28
서명균(상)	진하부사	1723 4/2, 9/7
	주청사	1737 7/25, 12/27
서종옥(유)	진위 겸 사은부사	1739 2/8, 7/18
서명응(유)	진하 겸 사은사 서장관	1755 8/26
	동지사	1769 6/25, 10/12(승정원일기)
서호수(유)	진하 겸 사은부사	1776 9/24
	진하 겸 사은부사	1790 4/26, 5/27, 9/27(중간보고), 10/22
서형수(유)	진하 겸 사은부사	1799 7/8, 10/12, 11/4, 11/17

-사행단 명단 중 괄호 안의 ‘유’는 서문유의 후손을, ‘상’은 서문상의 후손을 뜻한다.

이 과정에서 서유구 가문은 박지원(1780년 사행)·홍대용(洪大容, 1731~1783, 1765년 사행)·박제가(1778년 사행) 등 청나라 사행 경험에 기반해 북학을 주장했던 이들과 견해를 함께하여 청의 문물·기술·학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

11) 曹蒼錄, 위의 논문, 11쪽; 徐命膺, 『大丘徐氏世譜戊編』二, 29면.

12) 이는 공식 사행단 대표인 정사·부사·서장관만을 조사한 결과이다. 사행 때 인척이나 교류 인물과 동행했던 다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사행에 참가한 이들의 일족은 더 많을 것이다.

다는 여론을 형성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박제가의 『북학의』에 쓴 서문에서 서명응은 “(중국의) 성곽과 주택, 수레와 기물에는 성인이 제정한 규격과 제작법을 위배하여 만들어진 것이 거의 드물다. 따라서 중국 사람이 만든 물건은 정교하고 견고하여 재물을 축내거나 백성들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없다.”¹³⁾라고 하여 청나라 문물에 대해 매우 호의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 홍대용을 제외한 위의 인물은 모두 서유구가 북학을 추구하는 데 큰 영향을 준 이들이었다.¹⁴⁾

이 장에서는 서유구 자신의 이상의 구분을 존중하면서 1·2비기를 2.1절 ‘제1 사환기까지’로, 3비기를 2.2절 ‘귀농기’로, 4·5비기를 2.3절 ‘제2 사환기 및 <<임원경제지>> 정리기’로 크게 나누어 그의 생애를 정리하되, 각 시기 그의 농업론과 변화 양상에 주된 관심을 둘 것이다.¹⁵⁾ 특히 서유구의 농업론이 귀농기인 3비기를 계기로 크게 변화했음에 주목할 것이다. 그가 이 기간에 농사 및 어로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시험 연구를 했고, 농학에 적극적으로 몰두했으며, 이와 더불어 <<임원경제지>> 저술을 시작했다는 측면 등에서 그 변화상을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2.1. 제1사환기까지(1764~1806)

2.1.1. 『본사』 교정과 저술을 통한 농업론 흡수

서유구는 어려서 할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서유구는 서명응이 평안 감사였던 시절 평양에 거주하면서 서명응에게 당송팔가문을 배웠다(1777년, 14세).¹⁶⁾ 평양에서 서울로 돌아와서도 그는 서명응과 죽서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 이 시절 서호수·서형수(작은아버지)·서유본(형)과 함께 『보만재집』 편집을 거들었고,

13) “其城郭室廬車輿器用, 違聖人數法者蓋寡, 是以精緻牢固, 無傷財害民之患.” 徐命膺, 『保晚齋集』 卷7 「序」 ‘北學議序’(<<叢刊>> 233, 208쪽); 『北學議』 「北學議序」(韓國學文獻研究所 編, 『農書』 6, 亞細亞文化社, 1981, 3쪽).

14) 홍대용이 비교적 일찍 세상을 떴기 때문인지 서유구가 그와 교유한 흔적은 찾을 수 없다..

15) 보다 자세한 서유구의 생평에 대해서는 정명현, 「서유구는 누구인가」, 풍석 서유구 지음, 정명현·민철기·정정기·전종욱 외 옮기고 씀, 『임원경제지 : 조선 최대의 실용백과사전』, 씨앗을 뿌리는 사람, 2012, 127~238쪽 참조. 『임원경제지 : 조선 최대의 실용백과사전』의 서지사항은 앞으로 ‘개관서’로 약칭하기로 함.

16) “憶余年十四, 從公于溟營.” <<全集>> 『金華知非集』 卷9 「雜著」 ‘龍灣百一院節目後識’(<<叢刊>> 288, 476쪽); “渠年十四, 受唐宋八家文于先王父保晚先生.” <<全集>> 『金華知非集』 卷5 「記」 ‘又思穎亭記’(<<叢刊>> 288, 385쪽).

<<보만재총서保晩齋叢書>> 중 『위사緯史』를 찬술했다. 용산으로 옮긴 뒤에는 이미 정계에 은퇴한 서명응과 약 3년을 거의 생활을 함께 하면서 삶의 태도나 학문에 대해 적지 않게 배웠을 것이다.¹⁷⁾

서유구는 20대에 『보만재집』, <<보만재총서>> 등 서명응의 저술을 교열, 교정하는 일에 많이 참여했다. <<보만재총서>>에 수록된 13종의 저술 중에는 교열 및 편찬에 관여한 이들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것들이 있는데, 『선천사연先天四演』(2권)·『위사』(12권)·『본사本史』(12권)가 그것이다(표4). 서호수와 서형수(徐滢修, 1749~1824)가 『선천사연』 한 책만을 교정했고[校], 서유본(徐有本, 1762~1822) 역시 이 한 책만을 교열[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의 3종 저술 모두에 참여한 서유구는 <<보만재총서>> 저술에 가장 많이 간여한 셈이다. 게다가 <<보만재총서>>에 들어 있는 세계 인문 지리서인 『위사』는 서명응의 지침에 따라 서유구가 편찬하고 뒤에 서명응의 교정을 거쳤으며(1784년), 농학서인 『본사』 12권 중 마지막 권의 대부분을 역시 서유구가 편찬했다.¹⁸⁾

<표4>의 ‘저술 유형’ 난은 저자명인 서명응 뒤에 쓰여 있는 글자이다. 『위사』에는 유일하게 ‘감정鑒定’이라 했고 이어 손자 서유구가 ‘편열編閱’했다는 기록을 남겼다.¹⁹⁾ 감정은 감수를, 편열은 편찬 및 교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유구가 서명응이 정해준 의례에 따라 『위사』를 편찬했음을 보여준다.²⁰⁾

17) 손주 수 십 명 중 가르치고 아껴주는 은혜를 자신이 가장 많이 받았다고 자부했던 서유구는 서명응에게 조석으로 문안하고, 식사를 올리고, 계단에 지팡이와 신발을 대명하고, 붓과 먹을 준비하는 일 등 일상의 시종드는 일을 도맡았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은 3년간 매일 밤 늦도록 책에 대해 토론도 하고 고금의 시세를 평하는 일을 했기에 서유구는 조부의 생각이 귀에 익숙하고 마음에 무뎌져 마치 자신에게 있었던 생각인 양 착각할 정도였다. “先生有孫數十人, 尸鳩之均, 豈或厚薄, 而教愛之深, 小子實最焉. 始先生之卜居于蓉洲也, 吾王母病在牀, 吾諸父入而扶護, 出而執掌, 不可以從, 遂以小子從焉. 於是乎先生之爲天於小子者全矣. 晨夕問寢小子也, 早晏侍食小子也, 陪杖屨於庭砌者小子也, 奉筆研於棊几者小子也. 吮濡顧復, 兩不相捨者, 屈指三閱歲. 每夜闌籟寂, 朗月垂軒, 開導娓娓, 訓誨諄諄. 或討論墳典, 或評確今古, 至燭見跋不肯休, 如是者三年如一日. 慣乎耳浹乎心, 自以爲固有, 而不知其甚樂也.” <<全集>> 『楓石鼓篋集』 卷5 「祭文」 ‘祭王父保晩齋先生文’(<<叢刊>> 288, 269쪽).

18) 이에 대해서는 후술함.

19) 13종 중 6종은 ‘학學’을, 3종은 ‘집輯’을 썼다. 또 『본사』는 ‘찬撰’을, 『고사십이집』은 ‘증정重訂’을 썼으며 『참동고』에는 표시가 없었다. ‘집’은 여러 글을 모았다는 뜻의 겸양으로, ‘찬’은 자신의 저술임을 뜻하는 말로, ‘증정’은 이전의 저서(『고사신서攷事新書』)를 재수정했다는 의미로 쓴 것으로 보이며(韓茂燮, 『徐命膺 一家의 博學과 叢書·類書 編纂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0, 88~89쪽), ‘학’은 대체로 자신의 독자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있다는 뜻으로 쓴 것 같다.

20) “粵在甲辰, 保晩齋叢書垂成, 而史類闕一焉. 先生將編緯史補之, 手定其義例, 以授小子曰: ‘事鉅工大, 吾老矣, 力不能. 無已則汝卒吾業可乎? 吾開其端, 汝成其終, 一書而祖孫之精力在此, 則後之讀此者安知不賞我家學之源流邪?’ 小子踴而受, 退而不敢惰也. 會有事中撤, 先生遂取而親焉.” <<全集>>, 같은 글.

<표4> <<보만재총서>>의 구조와 저술 방식

순서	분류	서명	저술 유형	교정·교열·편열자	권수
1	經翼	先天四演	學	男浩修滌修 同校 孫有本有渠 同閱	2
2		尙書逸旨	學	없음	2
3		詩樂妙契	學	없음	2
4		大學直指	學	없음	1
5		中庸經緯	學	없음	1
6	史別	疇史	輯	없음	2
7		緯史	鑒定	孫有渠 編閱	12
8		本史	撰	없음	12
9	子餘	髣禮準	輯	없음	2
10		先句齊	輯	없음	2
11		元音鑰	學	없음	4
12		參同攷	없음	없음	6
13	集類	攷事十二集	重訂	없음	12
총 권수					60

-‘교정·교열·편열자’란은 각 책의 권두에 표기된 내용이다. 『본사』의 권두에는 서유구가 이 책 일부 저술에 참여했음을 밝히지 않았으나 본문에 그 사황을 알려주고 있다.

이제 서유구가 서명응을 통해 농서 저술 태도를 배우면서 농업론을 흡수하게 된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서유구가 용산에 거주하기 시작할 때(1785)는 죽서에서 하던 작업을 이어 서명응의 저술인 <<보만재총서>> 편찬에 막바지 힘을 기울이던 시기였다.²¹⁾ 앞서 언급했듯, <<보만재총서>>에 수록된 글에는 서명응 이외의 글로 유일하게 서유구의 글이 들어 있는데, 그 글은 모두 『본사』(12권)에 있다. 『본사』는 역사서 형식으로 쓴 농서로서, 농정이 천하의 큰 근본일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과 사람도 모두 농사를 근본으로 삼는다는 인식 때문에²²⁾ 서명응은 책 제목에 ‘본本’이라는 글자를 선택했다. 이 농서는 『사기』의 기전체를

21) “용주에 집을 지었을 때 공(서명응)은 70을 넘어 80을 바라보았다. 시력과 청력이 줄지 않아서 날이 저물어 등불을 켜지 않은 경우 간혹 몸소 저술함에 총명함을 유지하셔서 <<보만재총서>> 60권이라는 서적을 교감하셨다. 其卜築蓉洲,已逾耆望耄矣.聽視不減,或日昏燭未至,則輒手卷就牕明,勘校保晚齋叢書六十卷之汗青.” <<全集>> 『金華知非集』 卷8 「遺事」 ‘書祖考文靖公遺事’(<<叢刊>> 288, 462쪽).

22) “於是統名之曰本史,則以農政,天下之大本也,豈惟天下之大本而已哉?仰觀于天,天有農祥·天田·丈人之星,則天以農爲本也;俯察于地,地有畎·澮·溝·洫·同·成之制,則地以農爲本也;中類于人,人之等不越乎天子·大夫·士·庶人,而天子親耕藉田,大夫各事采地,士·庶人以勤惰分爲上中下,則人以農爲本也.” 徐命膺, <<保晚齋叢書>> 7 『本史』 ‘本史序’, 서울大 奎章閣韓國學研究院, 2009, 241~242쪽.

모방해 본기本紀·지志·세가世家·열전列傳으로 분류되었다. 서명응은 곡식이 팔정 八政의 근본이기 때문에 본기에, 곡식과 관련된 내용을 지에, 채소와 과일은 제사 음식을 보조하기 때문에 세가에, 나무와 초본류는 생명을 보위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열전에 배속했다.²³⁾ 권1~11까지를 본기 8종, 지 9종, 세가 10종, 열전 16종으로 구성한 『본사』의 편제는 농서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독특했다.

권11까지의 편제는 이처럼 모두 『본사』에 걸맞게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잠업을 다루는 마지막 권인 권12는 본기·지·열전 등 ‘세가’를 제외한 모든 편찬 요소들이 한 권 내에 함께 들어 있다. 권12의 제목은 『본사』 본문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서유구의 ‘발본사(跋本史, 『본사』 발문)’에 따르면 「잠사蠶史」라는 명칭을 세워도 하자가 없는 부분이었다. 「잠사」는 의복 재료를 재배하고 수확하여 옷감을 만드는 내용을 담았다.²⁴⁾ 이렇게 분리된 권12를 서명응은 저술하지 못한 상태에서 손자 서유구에게 기본 저술 방침을 지시한 뒤 「잠사」를 저술하도록 했다.

<표5> 『본사』 권12 「잠사」의 구조와 분량²⁵⁾

대제목	소제목	쪽 수
본기本紀 제1	잠본기蠶本紀	9.9
	저본기苧本紀	2.1
	마본기麻本紀	2.5
	면본기棉本紀	2.5
지志 제2	소사지繅絲志	2.6
	방적지紡績志	4.9
	자기지磁器志	23.4
	잠서지蠶書志	2.8
열전列傳 제3	상자름호열전桑柘蘆蒿列傳	5.6
총 쪽 수		56.3

23) “本史,以紀志系傳,叙農政之始終也.叙之維何?洪範八政,食居三公賓師之上而爲其本,故八穀皆本紀也.八穀既爲本紀,則其八穀之所有事,皆志也.蔬菜果實分占園圃,助供養祭之本,猶宗藩分封,世修土貢,故蔬菜果實,皆世家也.樹木(원문은 本이나 의미상으로 수정함)草卉,爲棟樑爲舟車爲(기+簾, 簾의 오자로 보임)簾禁楸,以及幹根之臙腫·莖葉之委靡,采之藏之,備豫衛生之本,是又賢能曲藝俱收并畜,以布列於朝廷百執事,故樹木草卉,皆列傳也.” 같은 책, 241~242쪽. 팔정은 나라 정사의 8가지 일이다. 곧 식(食, 음식)·화(貨, 재화)·사(祠, 제사)·사공(司空, 농지 개간)·사도(司徒, 교육)·사구(司寇, 치안)·빈(賓, 외교)·사(師, 국방)이다. 『書經』 「주서周書」 ‘홍범洪範’. 이 중 사공·사도·사구를 삼공三公이라 한다.

24) 『본사』에 잠업을 다룬 권12가 포함된 것은 전통시대에 농촌의 일로 대변되는 ‘농상農桑’의 구색을 갖추기 위함으로 보인다. ‘농農’은 남자가, ‘상(桑, 누에치기로 대변되는 옷감짜기)’은 여자가 해야 할 농사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 농과 상을 아울러 ‘농’이라 했기 때문에 ‘상’ 즉 부궁婦功은 농사의 일부였다.

『풍석고협집』에 실린 ‘발본사’에서 서유구는 「잠사」 이하를 자신이 할아버지 명을 받아 이어서 완성했다고 썼다.²⁶⁾ 이에 의거할 때 서유구는 「잠사」가 수록된 『본사』 권12를 대부분 저술했다고 볼 수 있다. 권12에는 본기 4종, 지 4종, 열전 1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글 뒤에는 ‘태사공왈太史公曰’로 시작되는 논단이 있다. 이 중 『풍석고협집』에 수록되지 않은 논단은 ‘저본기’와 ‘소사지’ 둘뿐이었다. 이 두 논단은 그의 저술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총 9종 중 7종을 서유구가 편찬한 셈이 된다. 『본사』 권12는 총 56면인데, 이 중 ‘저본기’·‘소사지’가 차지하는 분량은 4.7면으로 전체의 약 8.4퍼센트를 차지한다(표5).²⁷⁾ 서유구 저술이 90퍼센트가 넘는 비율임을 알 수 있다. 글자 수는 대략 10,300자 정도 된다.²⁸⁾

『풍석고협집』에 실린 ‘본사보논단(本史補論斷, 『본사』를 보완한 논단)’에는 ‘잠본기’·‘마본기’·‘면본기’·‘방적지’·‘자기지’·‘잠서지’·‘풍자름호열전’이 차례로 적혀있다. 『풍석고협집』에 수록된 글에는 거의 모두 이덕무·성대중·이의준 중 한두 사람의 평가문이 각 글 맨 뒤에 수록되어 있는데, ‘본사보논단’ 평가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²⁹⁾ “향창자·범승지·가사협의 책 같은 옛날 농잠서農蠶書 이래로 왕정·서광계의 책에 이르기까지 ‘전아典雅’하지 않은 책이 없었으니, 이는 그 책들의 실용성 때문이다. 지금 ‘본사논단’을 읽어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³⁰⁾ 평가자는 이러한 옛 농잠서의 문체를 ‘전아하다’고 했고, 그 이유를 내용의 실용성 때문이라 적시했다. 그리고 서유구가 쓴 농잠서의 글 역시 전아하다는 것이다. ‘전아하다’는 뜻은 본래 ‘범도’와 ‘올바름’이라는 의미가 있으나 여기서는 내용과 문

25) 쪽수 산정은 권두 제목과 저자명, ‘本紀 第一’·‘志 第二’ 같은 대제목 등을 제외했으며 한 줄의 글자 수의 다과는 고려하지 않고 차지하는 공간만을 계산했기 때문에 실제 글자 수의 비율은 조금 차이가 날 것이다. 徐命膺, <<保晚齋叢書>> 七 『本史』 卷12, 269~326쪽 참조.

26) “王父保晚公既編本史十二卷,其蠶史以下,命有渠續成之.” <<全集>> 『楓石鼓篋集』 卷6 「雜著」 ‘跋本史’(<<叢刊>> 288, 289쪽). 밑줄은 『본사』와 다름.

27) 徐命膺, <<保晚齋叢書>> 7에 『본사』 권12가 실려 있는데(269~325쪽), ‘저본기’(279~281쪽)는 2.1쪽, ‘소사지’(286~288쪽)는 2.6쪽이다.

28) 1면의 글자를 200자(20자 10행)로 계산한 결과이다. 서유구가 저술한 부분의 분량은 51.6면이다. 56.3면(총 면수)-4.7면(서명을 저술 부분)=51.6면.

29) 하지만 이 평가문을 쓴 이가 기록되지 않아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이 평가문, 즉 평어評語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金大中, 『『楓石鼓篋集』의 評語 연구』, 2005, 서울대 석사학위논문을 참조.

30) “古來農蠶之書,若亢倉子·汜勝之·賈思勰書,以至王禎·徐光啓書,莫不典雅,以其實用故也.今讀本史論斷,亦可驗焉.” <<全集>> 『楓石鼓篋集』 卷6 「雜著」 ‘本史補論斷’(<<叢刊>> 288, 286쪽). 여기서 ‘옛날 농잠서’는 각각 『향창자』·『범승지서』·『제민요술』을 가리키고 왕정과 서광계의 책은 각각 『왕정농서』·『농정전서』를 일컫는다.

체와 체제에서 ‘당대성’과 ‘실용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당대성이란 당대의 문체로 당대의 일을 기록하여 당대의 역사로 삼는 일이고, 실용성이란 보통 사람도 이해할 정도로 쉽게 쓰여서 농사에 실제로 도움 될 수 있도록 쓰는 일을 의미했다.³¹⁾

하지만 서유구가 애초에 이런 ‘전아한’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본사』 권12를 집필하던 중 여러 번 원고를 고치며 보완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그리하여 글짓기 능력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본사』 보완을 하지 못하겠다고 할아버지에게 사양했다. 서유구는 「잠사」를 쓰면서 『사기』와 『한서』의 문체를 모방하려 했지만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이었다.³²⁾ 이에 대해 서명응은 “문장은 시대에 따라 문세가 교체되어 내려온다. 역사란 사건을 기록하는 일일뿐만 아니라 동시에 당대 문기文氣의 변화를 보여주려는 것이다. (중략) 당대의 글로 당대의 사건을 기록하는 일 역시 당대의 역사가 되는 데 저해되지 않는다.”³³⁾라며, 이미 오래 전인 한나라 역사 서술 문투를 모방할 필요 없이 현재의 문장으로 현재의 문기를 표현하라고 주문했다. 서명응의 문장론은 ‘당대성’을 중시했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서명응은 『본사』가 농서라는 책의 특성을 고려하라는 주문을 덧붙였다. 즉 “더욱이 『본사』를 지은 목적은 천하의 어리석은 백성이 책을 한 번 펼치는 즉시 작물을 재배하고 가꾸는 법을 환히 깨달아 ‘실용’에 쓰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제 난해하여 읽기 곤란한 말을 써서 독자에게 입에 재갈을 물리는 꼴이 되면 후세에 글을 모르는 이가 장독대 덮는 데나 쓸까봐 걱정이다.”³⁴⁾라며 쉬운 글쓰기를 독려했다. 그는 당대성과 동시에 ‘실용성’도 농서 저술의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여겼다. 이 말을 들은 서유구는 기쁘게 깨달은 바가 있어 『본사』 공동저술을 완성했다고 한다.³⁵⁾

31) ‘전아하다’의 이 같은 뜻의 보다 심층적 분석에 대해서는 金大中, 앞의 논문, 105~109쪽을 참조.

32) “有渠初欲效史·漢文體，屢易藁不成，乃辭不能於公。” <<全集>> 『楓石鼓篋集』 卷6 「雜著」 ‘跋本史’(<<叢刊>> 288, 289쪽).

33) “文章與世遞降，史者不徒紀事而已，兼欲示當時文氣之升降。(중략)以當時之文，紀當時之事，亦不害爲當時之史也。” <<全集>> 『楓石鼓篋集』 卷6, 같은 곳.

34) “況本史之作，蓋欲使天下之愚夫愚婦，一開卷之頃，霑然通曉其種植樹藝之法，以施之實用。今爲艱深幽澁之語，使讀者如鉗在口，則吾恐後世無文者將以是覆醬瓿也。有渠怡然覺悟，退而編成。” <<全集>> 『楓石鼓篋集』 卷6, 같은 곳.

35) 위의 주 참조.

2.1.2. 『해동농서』를 통한 농업론 흡수

서명응이 『본사』 저술을 통해 서유구의 농업론 형성에 영향을 주었듯이 생부 서호수도 서유구의 농업론에 적지 않게 영향을 주었다. 서유구는 부친에 대한 언급이 조부에 대한 것보다 양도 적을뿐더러 애뜻함도 덜 표현되어 있다. 또한 학문의 구체적인 수수 관계를 드러내지도 않았다. 하지만 서호수의 농서를 통해 아들에게 미친 영향을 살필 수 있다.

이조판서까지 역임한 서호수는 범상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30세(1765년)에 식년문과 과거에서 급제자 52명 중 장원이었고,³⁶⁾ 관찬 백과사전인 <<동국문헌비고>> 중 『상위고象緯考』 편찬을 맡기도 했다(1770년, 35세).³⁷⁾ 이 책은 “역대의 역상 연혁, 즉 천문학사의 정리는 물론이고, 당시의 조선 역법 체계가 근거하고 있던 최신 천문학 이론과 천문 데이터들, 그리고 천문 기구들을 잘 정리”한 점 등에서 “우리나라 천문 역상의 이론과 제도를 제대로 정리한 첫 번째 천문서”였다.³⁸⁾ 또 그는 규장각 직제학直提學을 역임하면서³⁹⁾ 국가적 편찬사업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정조의 문화정치의 일선에 있었다. 서호수는 특히 당대 유학자나 천문학자 사이에서도 천문역산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공인받았다. 관상감觀象監을 책임(관상감 제조)질 때⁴⁰⁾ 다른 유학자 출신 책임자처럼 업무를 단순히 관리·감독만 하지 않고 자신의 전문적 실력을 토대로 관상감 개혁 작업을 진두지휘하기도 했다. 관직이 이조판서까지 이르렀고 정승 후보까지 오르기도 한 정조의 고위 관료로서는 드물게 수학, 천문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보여주었다.⁴¹⁾

또한 서호수는 『해동농서海東農書』를 저술하는 등 농학적 전문성까지 보유했

36) 『영조실록』 41년(1765) 3/6에는 53인으로 적혀 있다. 『國朝文科榜目』 2, 太學社, 1984, 1207~1211쪽(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청구기호:奎106)에는 52인이다.

37) 『일성록』 정조 7년(1783) 9/9.

38) 문중양, 「『東國·增訂·增補文獻備考』 「象緯考」의 편찬과 영정조대의 한국 천문학」, 『震檀學報』 106호, 2008, 278쪽.

39) 『정조실록』 4년(1780) 6/7.

40) 『정조실록』 15년(1791) 10/11; 19년(1795) 11/30.

41) 서유구는 서호수가 성력星曆 관련 저술을 도맡았고 관상감과 장악원 제조提調를 떠난 적이 없을 정도여서 논자들이 그를 ‘전문절예(專門絕藝, 전문 분야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여줌)’한 이로 추앙했다고 전한다. 그의 저서들 중에는 서양의 수학과 천문학을 반영한 중국의 『수리정운數理精蘊』·『혼개통헌渾蓋通憲』 등을 보완하는 『수리정운보해數理精蘊補解』·『혼개통헌집진渾蓋通憲集箋』과 음악 이론과 악기 제조 등을 다룬 『율려통의律呂通義』 등 여러 권이 있었다(“素嫻曆象之學,著有渾蓋通憲集箋·數理精蘊補解·律呂通義諸書.論者推爲專門絕藝,朝廷有星曆述作,輒待公裁定.雖其周流踐歷,不常于一職乎?至雲觀黎園,未嘗一日不帶焉.” <<全集>> 『金華知非集』 卷6 「墓表」 ‘本生先考文敏公墓表’(<<叢刊>> 288,422쪽)). 하지만 이 책들은 거의 일실되었다.

다. 『해동농서』는 현재 2종이 전하는데, 이 중 성균관대본은 초고본이고 오사카 나카노시마 부립도서관본(이하 오사카본)은 정리본이다.⁴²⁾ 이 정리본은 미완인 상태로 남아 있지만 남은 자료로만 볼 때, 조선의 풍토에 맞는 농법만을 정리하려 했던 점이 가장 특징적이다. 이를 위해 이전의 조선 농서, 즉 『농사직설農事直說』, 강희맹(姜希孟, 1424~1483)의 『금양잡록衿陽雜錄』, 신숙(申誨, 1600~1661)의 『농가집성農家集成』을 최대한 반영했고, 농촌백과사전인 『산림경제山林經濟』의 증보판 『증보산림경제』의 농사 부분을 활용하는 등 조선의 농법을 정리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와 동시에 조선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농법만을 중국 농서에서 채록하려 했다. 농서에 ‘해동’이라는 명칭을 붙인 이유이기도 하다.

『해동농서』 목차에서 특이한 점은 권1에서 ‘토지제도’를 맨 앞에 두고, 이어 ‘수리水利’를 배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배치는 이전의 중국이나 조선 농서에서는 살필 수 없는 목차였다.⁴³⁾ 토지제도에서는 조선의 역대 토지제도의 변천을 살피고 이어 양전척량田尺의 실제 길이를 고증했으며 양전법量田法을 부록으로 실었다. 이어 주로 『농정전서』를 인용한 수리의 다양한 방법을 실었다.⁴⁴⁾ 이 특이한 목차는 이후 서유구의 농서 『행포지杏蒲志』와 <<임원경제지>> 중 첫 번째 지志인 『본리지本利志』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행포지』의 권1은 ‘토지제도-수리’의 순서로 시작했다. 『본리지』 권1과 권2의 대제목이 각각 ‘토지제도’와 ‘수리’였고, 권1의 ‘토지제도’의 부록으로 양전법을 실은 점도 동일했다. 이 양전법 항목에는 『해동농서』의 내용이 거의 모두 실려 있다.⁴⁵⁾

42) 성균관대본(청구기호: 회C6A-9)은 8권 4책이고, 오사카본은 4권 2책으로 『農書』 9·10(亞細亞文化社, 1981)으로 영인되어 있다. 이 책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金容燮, 『朝鮮後期農學史研究』, 385~392쪽 참조.

43) 예를 들어 『농사직설』은 농업의 이론적 배경은 전혀 신지 않고 바로 각 작물의 농법을 차례로 해설했고, 강희맹의 『금양잡록』은 곡식의 품종이 맨 앞을 차지한다. 이 두 책을 주요한 내용으로 삼은 신숙(申誨, 1600~1661)의 『농가집성』의 목차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었다. 박세당(朴世堂, 1629~1703)의 『색경』은 중국농서를 정리한 책으로, 흙의 중요성과 흙을 분별하는 법을 실은 ‘임지任地’와 ‘변토辨土’를 권두에 차례로 앞세우고 있다(이상의 농서 목차는 『農書』 1, 亞細亞文化社, 1981의 목차 참조. ‘임지’와 ‘변토’는 중국 농서에 자주 인용되는 『여씨춘추』의 농업 부분의 편명으로, 『여씨춘추』의 이 내용이 들어 있다). 서명웅의 『본사』는 주요 곡식을 논하는 내용으로 시작하여 일반적인 농서의 목차와 전혀 다르다. 중국 농서 중 서호수가 많이 참조한 『왕정농서』나 『농정전서』에 토지제도를 다룬 내용이 있기는 하나 역시 책의 맨 앞에 두지는 않았다.

44) 『農書』 10, 亞細亞文化社, 1981, 1~6쪽.

45) 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임원경제지 본리지』 1, 소와당, 2008, 41~294쪽. 『해동농서』 양전법 내용 15.3쪽 중 2.4쪽(여기에는 두 번째 문제의 풀이 과정이 들어 있다)만 생략했다. 『農書』 10, 32~34쪽 참조.

이 같은 점에서 서유구의 농서 편찬이 서호수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유구가 서호수의 농업론을 모두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그 단적인 예가 풍토불의론(風土不宜論, 풍토에 알맞지 않은 작물이 있다는 견해)에 대한 견해차였다.

서호수는 중국과 조선은 물론, 조선에서도 지역에 따라 풍토가 다르다는 사실을 대전제로 하여 조선을 근간으로 하고 중국을 참조하는 식으로 저술 방향을 정했다.⁴⁶⁾ 이에 따라 중국에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되 필요없다고 판단한 농법은 조선의 농서만을 활용했다. 한 예로 조선은 수리에 어둡다⁴⁷⁾는 인식을 갖고 있던 서호수는 수리 관련 내용 전체를 중국 농서로만 채웠으나,⁴⁸⁾ 그러면서도 중국의 수리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였다. 서양의 수차 중 옥형차玉衡車·항승차恒升車를 배제하고 용미차龍尾車만 실은 것이 그 예이다.⁴⁹⁾ 반면 곡식 종자에 대해서는 중국 품종을 일체 배제하고 한결같이 조선의 품종만 소개했다. 품종도 한자명 아래에 한글명을 병기했다.⁵⁰⁾ 조선의 품종이 조선의 풍토에서 재배에 가장 적합하다는 서호수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서유구는 조선의 품종은 물론 중국 품종도 매우 상세히 소개했다.⁵¹⁾ 풍토와 상관없이 좋은 품종을 잘만 재배하면 어떤 농작물이라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서유구의 이 같은 생각은 서광계(徐光啓, 1652~1633)처럼 풍토불의론에 반대한 결과였다.⁵²⁾ 서유구는 다른 작물을 대신 파종하여 가뭄을 극복하는 방법

46) “五穀之種有各地之土宜,佃作之具有各地之俗尚.(중략)土宜所存,俗尚所固,五穀之名色,佃作之器械,以至田制·水利亦自有東國所用,不可以中國之農政一概論也.此編以東國農書爲本,參之中國古方,顏曰海東農書云.” 徐浩修,『海東農書』「海東農書凡例」(『農書』9·10, 3~4쪽).

47) “東俗昧于水利.” 徐浩修,『海東農書』卷1「水利」(『農書』10, 74쪽).

48) 이 항목에서 조선에 관한 내용은 조선의 수리가 얼마나 열악한 상황이었는지 등에 대한 서호수의 견해가 일부 들어 있을 뿐이다.

49) 徐浩修, 앞의 책(『農書』10, 47~106쪽). 이는 서유구가 중국의 수리 관련 내용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인 점과 대조된다. 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앞의 책, 197~294쪽; 『임원경제지 본리지』3, 소와당, 2009, 297~481쪽 참조.

50) 徐浩修, 앞의 책(『農書』10, 183~198쪽).

51) 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임원경제지 본리지』2, 소와당, 2009, 597~599쪽.

52) 서유구는 “어떤 이는 우리 동국의 풍토가 중국 풍토와 같지 않다고 의심한다.”면서 이 의론을 다음과 같은 서광계의 논의를 들어 반박한다. “풍토불의론은 1,000이나 100 가운데 한둘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그 밖의 좋은 종자들을 이곳저곳에서 통용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가만히 앉아 게으름을 피우는 일일 뿐이다. (중략) 나는 많은 곳에서 여러 종자를 구입하여 손수 가꾸고, 시험해 (본 농사가) 효과를 내야 비로소 널리 퍼뜨렸다.” 이에 대해 서유구는, “나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인仁을 실천하는 사람의 말을 음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농사가 안 되는 이유는 풍토보다는 좋은 종자를 적절하게 재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굳건하게 세웠다. “或疑吾東風土,不并于中州.(중략)余謂風土不宜,千百中一二.其他美種不能彼此相通者,正坐懶惰耳.(중략)多

을 『행포지』(권5 「오해고」)·『의상경계책』(역주본 3.3)·「사헌부 대사헌 사직 상소문」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조선의 토종 종자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좋은 품종을 사와서 가뭄을 대비해야 한다는 확신을 피력했다.

이처럼 부자지간에 농업에 대한 견해가 다르기는 했지만 서유구가 『해동농서』로부터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다. 농서에 그림을 실었던 방식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서호수의 『해동농서』는 현존 농서 중 그림이 최초로 수록된 책이기도 하다. 이전 조선의 농서에서는 『농가집성』 등 조선의 농법을 주로 실은 농서는 물론이고 『색경』처럼 중국 농법을 다룬 저술에서도 그림을 신지 않았다. 심지어 농기구나 수리 기구 등의 그림이 다수 실려 있는 『농정전서』를 주로 참고한 『과농소초』조차도 그림이 없었다.⁵³⁾ 또한 서명응의 농서 『본사』도 그림 한 점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서호수는 중국 농서의 그림과 함께 조선에만 있는 조선 쟁기·호미·괘이·가래·고무래 등의 그림을 새로 그려 넣었다. 용미차에 대해서도 해설과 함께 그림 전체를 수록했다.⁵⁴⁾ 서유구의 『본리지』는 『해동농서』에 실린 그림을 거의 대부분 실었을 뿐 아니라 다른 그림도 포함하여, 그림의 수록 범위가 훨씬 늘어났다. 또한 『행포지』에서는 『해동농서』에서의 예처럼 「독륜차獨輪車」와 「요맥차(澆麥車, 맥류에 오줌 주는 수레)」, 「따비[踏犁]」 같은 새로운 그림을 그려 넣는 시도까지 했다.⁵⁵⁾ 농서에 그림을 남기는 풍습이 거의 보이지 않았던 때에 자신의 농서에 그림을 포함시킨 서유구의 태도는 서호수의 영향으로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⁵⁶⁾

方購得諸種,手自樹藝,試有成效,乃廣播之.(중략)余每讀之,未嘗不有味乎其仁人之言也.” 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앞의 책, 585~586쪽. 『본리지』에 실린 이 글은 출전이 『杏菴志』 卷5 「五害攷」이다. 서광계 의견의 원 출처는 『農政全書』 卷25 「樹藝」 「稻」(徐光啓 撰, 石聲漢 校注, 『農政全書校注』, 上海古籍出版社, 1979, 628쪽)이다.

53) 이 책에서 박지원은 용미차·옥형차·항승차 등 서양 수차 제작법도 옮겨 적었지만 제작에 꼭 필요한 참고도는 옮기지 않았던 것이다. 조선 농서의 이 같은 상황은 『農書』 1~8책을 참조. 예외적으로 이희경(李喜經, 1745~?)의 『농기도農器圖』는 농기구 그림을 그린 책이나 일설되었다. 『북학의』에 이희경이 쓴 「농기도 서문」이 첨부되어 있다. 朴齊家, 『北學議』 「北學議外篇」 「附:李喜經農器圖序」(『農書』 6, 120~121쪽).

54) 徐浩修, 앞의 책(『農書』 10, 79~106, 150~183쪽).

55) 서유구는 똥거름을 운반하는 기구로 독륜차를, 맥류 농사에 오줌이 가장 좋은 거름이라면서 오줌을 효율적으로 줄 수 있는 기구인 요맥차를, 밭로 밟아 밭을 일구는 따비를 해설과 함께 그림을 수록했다. 徐有槩, 『杏菴志』 권3 「淤陰」(버클리본). 고려대 해외한국학자료센터 사이트 참조. 이 버클리본은 초고로, 「풍석암서옥楓石庵書屋」이라는 간행처 이름이 찍힌 원고다. 그러나 이후 정리본인 「자연경실장」본(오사카 나카노시마 부립도서관 소장본) 『행포지』에는 독륜차·요맥차·따비를 그려 넣을 자리만 빈 공간으로 남아 있어 미처 그림을 보완하지 못한 상태다. 徐有槩, 『杏菴志』 卷3 「淤陰」(『農書』 36, 103~106쪽, 111쪽). 이 중 요맥차와 따비는 『본리지』에서 다시 인용되었다.

2.1.3. 1차 사환기의 농업론 : ‘농대’(農對, 1790)와 ‘순창군수응지소(淳昌郡守應旨疏, 1799)’

이상에서 살폈듯이 가문의 최고 현달 시기를 누리면서 가학을 주로 전수받아 농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 분야에 소양을 쌓았던 서유구는 이후 출사의 과정을 밟았다. 서유구는 조부 서명응의 삼년상(1787~1789년)을 마친 뒤 과거에 급제하고 한 달 뒤 규장각 초계문신抄啓文臣으로 발탁되었다.⁵⁷⁾ 그는 한 동안 초계문신으로서 국정을 위한 연마 과정을 거치면서 문서를 정리하거나 책을 편찬하는 문화사업의 주요 일원으로 활동했다. 초계문신으로 선발된 그는 여러 차례 시험을 치러야 했다. 그 중 『시경』을 주제로 한 ‘경사강의經史講義’ 즉 ‘시경강의’에서 정조에게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다.⁵⁸⁾ 서유구는 『시경』 이외에 다른 유교 경서에도 상당히 깊이 있는 이해를 갖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규장각에서 대교待敎 직(정9품, 6인의 간부 중 하나)을 맡으면서 정조가 추진한 각종 편찬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⁵⁹⁾ 학술활동에만 7년 여 동안 전념했던 이때의 경험은 <<보만재총서>> 편찬에 참여한 이력과 함께 훗날 <<임원경제지>> 같은 거질의 서적을 편찬하는 주요한 원천이 되었다.⁶⁰⁾

급제 후 규장각 등 내직에만 근무했던 서유구는 1797년 거의 7년 만에 외직에 나가게 되는데, 순창군수가 첫 보임이었다.⁶¹⁾ 서유구는 순창 군수 재임 동안 농정을 현장에서 펼치면서 현실 농정의 문제와 한계를 실감했을 것이다. 이 시절 규장각 대교 자격으로 조회에 참석한 그를 만났을 때 정조는 전라도의 수취로 인한 폐해를 물어본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서유구는 가장 폐해가 심한 4곳을 거론하면서, 순창의 경우 수취할 부세나 상납 물품이 많지만 다른 읍과 다르게 오

56) 서유구가 농사에 위도와 경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믿음을 갖게 된 계기 역시 서호수의 영향이 컸다. 서호수는 서운관(관상감) 책임자인 제조提調로 있을 때 팔도 감영의 위도와 경도 값을 추산하여 이를 역서曆書에 반영하려 했다(1791년). 결과는 그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서유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이다. 제2부 제3장에 나오는 3.1.1의 해설 부분 참조.

57) 『정조실록』 14년(1790) 9/30.

58) ‘시경강의’와 관련한 상세한 분석은 정명현, 「서유구는 누구인가」, 개관서, 149~158쪽을 참조.

59) 이 때 그는 옥당玉堂이라고도 하는 홍문관弘文館의 정자(正字, 정9품)까지 겸하는데, 규장각 각신으로서 국왕 보위의 중요한 기구였던 홍문관 관원이 된 예로는 서유구가 처음이었다. 그는 전례가 없는 일을 맡을 수 없다며 규장각 대교 사직 상소를 올렸으나(<<全集>> 『金華知非集』 卷1 「上疏」 ‘辭奎章閣待敎疏’(<<叢刊>> 288, 293쪽)),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승정원일기』 정조 16년(1792) 2/28).

60) 서유구가 이 시절 편찬한 책들에 대해서는 정명현, 앞의 글, 165~166쪽을 참조.

61) 정조 21년(1797) 7월에 명을 받아 정조 23년(1799) 1월 초까지 유지했다.

로지 농지세를 통해서만 이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어서 읍의 폐단과 민폐가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그는 정부의 몫으로 보관 중인 곡식을 환곡으로 전환하여 여기서 얻은 이자를 활용해 폐단을 완화하는 방안을 건의했다.⁶²⁾

한편 순창 군수 재직 시(1798년) 가뭄 타개책으로 정조가 실시한 농정의 실패를 겪기도 했다. 정조는 가뭄으로 논의 모내기 시기를 놓치자 그곳에 메밀로 대과代播하라는 지시를 내린다.⁶³⁾ 순창에서도 이 지시를 실행하기 위해 서유구는 논을 다니며 메밀 파종을 권했으나 얼마 뒤 장마가 와서 흉년을 면할 수 없었다. 메밀 대과 실패의 경험은 서유구에게 큰 교훈으로 남았고 그 결과 자신의 농서 『행포지』, <<임원경제지>> 『본리지』, 『의상경제책』, 사헌부 대사헌 사직 상소 등 그의 주요 문헌 여러 곳에 이 일화를 반복해서 언급했다. 대과를 했던 정책은 옳았지만, 작물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그는 중국의 좋은 품종을 사오는 일을 꾀었다.⁶⁴⁾

편찬 활동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서유구는 농업에 대한 견해를 펼치기도 했다. 서명응의 『본사』 중 「잠사」를 보완한 이후 서유구가 농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한 때는 이로부터 5년 뒤였다. 초계문신으로 발탁된 해에 그는 과시課試라는, 매 달 1회씩 치러야 할 시험을 세 번 치렀다. 첫 번째는 ‘십삼경 十三經’, 두 번째는 ‘중용中庸’, 세 번째는 ‘농사[農]’가 시제試製였다.⁶⁵⁾ 초계문신이 치른 시험성적이 실려 있는 『내각일력(內閣日曆, 규장각 일지)』에는 이 3회의 과시 성적 명단에 모두 서유구가 들어 있다. 또한 서유구의 문집 『금화지비집』에는 ‘십삼경’과 ‘농사’를 주제로 한 과시 문제와 자신의 답안이 남아 있다.⁶⁶⁾

이제 서유구의 농업론과 관련하여 이 중 마지막 과시인 ‘농사’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 순창 군수 시절의 농업론인 ‘순창군수응지소’를 검토하기로 한다. 그는 과시

62) 『비변사등록』 정조 22년(1798) 3/24.

63) 화성부에 메밀을 대과하라는 명령이 남아 있고(『정조실록』 22년(1798) 6/5), 순창에서도 메밀 대과를 행했다는 증언으로 보면 이 명령은 전국에 하달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경기 광주부의 경우 토질에 따라 메밀 이외의 작물을 재배해도 좋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아(『비변사등록』 정조 22년(1798) 6/4), 지역마다 차이는 있었을 것이다.

64) 『杏蒲志』 卷6 「五害攷」(풍석암서옥 본, 오사카본에는 이 부분 없음); 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임원경제지 본리지』 2, 598~599쪽; 『의상경제책』 역주본, 3.3.13~15; 『헌종실록』 4년(1838) 6/10.

65) <<홍재전서>> 제50권 『책문策問』 3.

66) <<全集>> 『金華知非集』 卷10 「策對」(<<叢刊>> 288, 492~504쪽). 이곳에는 과시 3종 중 ‘중용’ 답안은 실리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다.

‘농사’의 답안인 ‘농대農對’에서 정조가 제시했던 약 20개의 질문에 대해 대부분 조목조목 답을 적었다. 과시 문제는 농업에 대한 인식과 농업의 지위 등을 포함한 농업 이론과 농정에서 부딪히는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농정론에 대한 서유구의 견해이다. 다른 질문에 대한 답은 대체로 농서나 경세서 등에 나와 있는 교과서적인 표준 답안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었지만, 농정론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농대’에서 자신의 농정론으로 3가지를 들었다. 토지제도를 밝히고[田制之當明] 수리를 진흥시키며[水利之當興] 기계를 버려야 한다[器械之當利]는 주장이 그것이다.⁶⁷⁾ 그는 자신의 견해를 농업에 힘쓰는 상법常法으로 삼아야 한다고 자신했다.⁶⁸⁾

우선 서유구가 밝히려 했던 토지제도는 한전법限田法이었다. 이상적인 토지제도였던 정전법井田法을 회복하기는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빈익빈부익부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농지 소유 한도를 제한하는 한전법이 으뜸이라 여겼다. 그가 한전법을 통해 추구하려 했던 목적은 빈부의 차이가 확대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것이었다.⁶⁹⁾

다음으로 수리를 진흥시키는 일을 손꼽았다. 그는 “곡식은 농사가 아니면 자라게 할 수 없고, 농사는 수리가 아니면 번식하지 않는다.”⁷⁰⁾고 주장했는데, 그 바탕에는 “우리나라 농사기술의 영성함 중에 수리보다 심한 게 없습니다. 위에는 몇 경頃の 옥토가 있고, 아래에는 마르지 않는 큰 강이 있어도, 쳐다보기에 8~10척 정도 되기만 해도 물을 돌려 올리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내버려 두어 갈대밭이 된 곳”⁷¹⁾이 많다는 현실 인식이 깔려 있었다. 또한 역대로 농사와 수리를 긴밀하게 연관시킨 여러 주장들에서 볼 때 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는

67) <<全集>>『金華知非集』卷10「策對」‘農對’(<<叢刊>> 288, 503~504쪽).

68) “농업에 힘쓰는 방도 역시 빈말을 일삼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옛 제도를 참작하여 지금에 알맞게 관통시켜 바꿀 수 없는 상법(常法, 떳떳한 법)을 정하려 한다면 그 조목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토지제도·수리·농기구, 이 3가지가 그것입니다. 務農之道,亦不可徒言爲也,苟欲酌古之制,通今之宜,而定爲不易之常法,則其目有三:田制也·水利也·稼器也,此三者是也.” 같은 책, 500쪽.

69) “비록 옛 제도를 한 번에 회복할 수는 없지만 만약 소순蘇洵이 말한 ‘정전에 가까운 제도를 골라 이를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들에 빈 땅은 없어지고 나라에 떠돌이도 없을 것이니, 농사에 힘쓰는 요지 중 한전법보다 앞세울 것이 없습니다. 雖不可一復古制,而苟如蘇洵所謂‘擇其近井田者而用之’,則庶乎野無曠土,國無游民,而務農之要莫先於限田之法.” 같은 책, 504쪽.

70) “臣聞穀非農不養,農非水利不殖.” 같은 곳.

71) “東農術之鹵莽莫有甚於水利.上有幾頃之沃壤,下有不涸之巨川,而仰視尋丈,無術轉升,拋爲蘆葦之場者,豈豈可更僕數哉?” 같은 곳. ‘更僕數’는 ‘更僕難數’의 준말로, 셀하는 시중을 드는 사람을 교대시킬 만큼 오래 걸려도 다 셀 수 없다는 뜻이다.

논자는 거의 없었을 정도라는 점도 그가 수리를 중시하는 데 작용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계, 즉 농기구를 개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계가 개량되면 노동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그가 서광계의 『농정전서』를 열람한 뒤에 받은 충격이 중국 농기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으로까지 확장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일찍이 『농정전서』에 나오는 도보圖譜에 관한 여러 편을 본 적이 있는데, 용미차·옥형차 등에서 씨레·로·맥작麥緯 유類까지 일정한 제도가 없는 게 없었습니다.”⁷²⁾라는 고백에서 당시 중국 농서 중 최대의 농기구 도보가 포함된 『농정전서』를 연구하여 농법 개량을 촉진하려 했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무농삼도務農三道’를 제안한 뒤 서유구는 제안 하나를 추가했다. 국가 운영과 백성의 후생을 위한 법전으로서 농서를 편찬하자는 것이었다. 농서 편찬이야말로 무농삼도보다 급선무라며 여러 책을 모으고, 여러 설을 채록한 뒤 옛 제도를 기준으로 삼으면서도 현재에 적용 가능한 농서를 편찬해야 한다는 것이다.⁷³⁾

이상에서 서유구가 처음으로 펼친 농정관은 한전법 시행, 수리 진흥, 농기구 개량, 농서 편찬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생각은 8년 뒤 정조가 내렸던 ‘권농정구농서윤음(勸農政求農書綸音, 농정을 권장하고 농서를 구하는 윤음)’의 요지 중 수리 진흥, 농기구 개량, 농서 편찬 이 3가지와 일치한다.⁷⁴⁾ 하지만 이후 20여 년 뒤 작성한 『의상경계책』에는 이 중 수리 진흥만 반영되었을 정도로 그의 농정론은 상당히 변하게 된다.⁷⁵⁾

서유구의 답변 중 특이한 점은 농서를 편찬하자는 제안이었다. 농서 보급으로 농업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은 훗날 정조의 ‘권농정구농서윤음’에서의 의도와 비슷한 측면이 있었다. 이 윤음에 대한 답변을 올렸을 때도 서유구는 농서 편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국가적 차원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담은 농서를 편찬하여 이를 백성에 보급하자고 했다. 이는 농서의 효과를 과신했던 시기의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농서를 보급함으로써 농사의 잘못된 풍습을 바로 잡고, 이전의 좋은 농법을 전하면 국가 운영과 백성의 후생을 진작

72) “臣嘗觀農政全書中圖譜諸篇,自夫龍尾·玉衡之類,以至耙·勞·麥緯之類,莫不有一定之制.” 같은 곳.

73) “當今之急先務又莫過乎纂成一部農書,廣蒐羣書,博采衆說,準古之制,通今之宜,而著爲令甲,以正一世之習尚,行之悠久,以垂百王之美制,則未必不爲經國厚民之一大典章.” 같은 곳.

74) ‘윤음’의 요점은 수리 진흥, 알맞은 토양에 재배, 농기구 개량, 농서 편찬 등 4가지였다. 여기에는 서유구의 한전제 시행 건만 포함되지 않았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후술함.

75) 이에 대해서는 후술함.

시킬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⁷⁶⁾ 불과 몇 년 전에 조부 서명응의 농서를 보완한 경험이 있었던 그는 농서의 보급이 농업 경제의 향상에 큰 자극이 될 수 있다고 믿은 듯했다. 하지만 훗날 『의상경제책』에서는 농서 편찬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았고, 대신 둔전屯田을 조성하여 거기에서 효과적인 농법을 백성들에게 실제로 보여줌으로써 백성이 저절로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다.

‘농대’를 쓴 8년 뒤 서유구가 순창군수로 재직하던 시기에 정조는 ‘권농정구농서윤음(이하 ‘윤음’으로 약칭)’을 내려 중앙 관료와 지방관을 포함하여 백성들이 이에 응하는 답을 올리도록 했다.⁷⁷⁾ 이는 농정을 권면하고 농서를 구하려는 의지를 밝힌 윤음인데, 백성의 의견을 묻는 일종의 ‘구언교求言敎’의 성격을 띤 글이었다. 구언교는 국정 운영 과정에서 부딪히는 난제를 타개하기 위해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하교였다.⁷⁸⁾

이 ‘윤음’은 당시 몇 년 사이에 잇단 흉년을 겪으면서 국정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포되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정조는 ‘농가의 대전[農家之大全]’을 편찬하고자 했다. 표준이 될 만한 농서를 국가 차원에서 편찬함으로써 농정을 일으키려 했던 것이다.⁷⁹⁾ 이는 효종 대 공주목사였던 신숙(申淑, 1600~1661)이 편찬한 『농가집성(農家集成, 1655)』을 정부에서 간행한 이후 처음 시도하는 일이자, 세종 대 『농사직설(農事直說, 1429)』을 편찬한 이후 370년 만에 노농 및 관료 등의 집단 경험 및 지식을 아울러 관찬하려는 계획이었다. 이 ‘윤음’에 대한 응답에 90명이 넘는 이들이 참여했는데, 글은 ‘상소’와 ‘농서’ 두 가지 형태로 진달되었다. 조선 정부는 정조 23년(1799) 6월까지 응지문 69건을 접수하여 검토한 기록을 남겨놓았다.⁸⁰⁾ 이 검토 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지식인이거나 지방 수령의 응지상소 및 응지농서가 24건 더 있었다.

서유구는 윤음에 응지한 극소수(9명)의 지방 수령 중 한 명이었다.⁸¹⁾ 그의 응지문인 ‘순창군수응지소淳昌郡守應旨疏’는 1790년 ‘농대’를 쓴 이후 9년 만에 밝힌 농정관이었다. 그는 이 글에서 크게 5가지를 제시했다. ①밭을 논으로 바꿔서

76) “著爲令甲,以正一世之習尙,行之悠久,以垂百王之美制,則未必不爲經國厚民之一大典章.” 앞과 같은 곳.

77) 정조 22년(1798) 11/30.

78) 金容燮, 『朝鮮後期農業史研究』 I, 지식산업사, 1995, 5쪽.

79) “人人各進良策,我則受之,折衷而用之,可謂農家之大全.(중략)起我農政,綠我農書,不翅如農夫之望秋.” <<弘齋全書>> 卷29 『綸音』 4 ‘勸農政求農書綸音’(<<叢刊>> 262, 479쪽).

80) 이 69명의 응지서 및 응지농서를 분석한 글로, 金容燮, 앞의 책, 3~77쪽이 좋은 참조가 된다.

81) 이들 중에는 먼천군수 박지원, 영평현령 박제가, 곡산부사 정약용이 포함되어 있다.

생기는 폐해 없애기, ②진흙곡을 수리시설 축조에 활용하기, ③농서 편찬 절차, ④환곡의 폐단 시정, ⑤호남의 사대부 자제 교육의 제도화가 그것이다. 물론 ‘윤음’의 질문을 염두에 둔 답들이었다. 하지만 정조의 질문을 따라가며 성실하게 답변했던 ‘농대’와는 달리 응지소에서는 3개 조항만이 ‘윤음’의 답변이었고 나머지 2개 조항은 질문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다.

서유구가 응지소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중 세 가지는 뒷날 자신의 농정론의 토대가 되기도 했다. 먼저 ‘①밭을 논으로 바꾸서 생기는 폐해 없애기’의 내용은 훗날 『의상경제책』의 11조목 중 한 조목(제3강 제5목: 변전을 금지하여 명과 실을 밝히기)이 되었고, ‘②진흙곡을 수리시설 축조에 활용하기’는 『의상경제책』의 제3강 제4목(수리를 진흥시켜 가뭄과 장마에 대비하기)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논거가 되었으며, ‘③농서 편찬 절차’의 내용은 자신의 귀농기부터 시작되어 <<임원경제지>>로 완성될 농서 편찬 작업에 적용되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면 순창군수 재임 과정에서 겪은 경험과 자신의 농정론을 가미한 응지소에서는 훗날 『의상경제책』에 담길 여러 농업론을 아직 본격적으로 제기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흥년 타개책의 일환으로 실시했던 ‘윤음’을 통해 정조가 알고자 했던 답변의 핵심은 3가지였다. ‘윤음’에서 농사의 요체로 규정한 이 3가지는 (1)수리사업 일으키기[興水功] (2)알맞은 토양에 재배하기[相土宜] (3)농기구 개량하기[利農器]였다.⁸²⁾ 여기에 덧붙인 기획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응지소와 응지농서를 반영한 (4)‘농가의 대전’ 편찬이었다. 서유구의 응지소에서 제안한 ①은 정조가 뽑은 농사의 3요체 중 (2)의 답변이고, 서유구의 제안 ②는 정조의 (1)을 염두에 둔 답변이었으며, 서유구의 제안 ③은 정조의 (4)‘농가의 대전’ 편찬을 위한 의견이었다.

정조의 ‘윤음’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서유구가 8년 전 ‘농대’에서 제안했던 4가지 중 3가지가 ‘윤음’에서 제기했던 항목과 동일하다는 점이다. ‘농대’에서 말한 ‘수리를 진흥시켜야 하는 일[水利之當興, ‘윤음’의 (1)]’과 ‘기계를 베풀어야 하는 일[器械之當利, ‘윤음’의 (3)]’과 지금의 급선무로서 ‘농서를 편찬하는 일[纂成一部農書, ‘윤음’의 (4)]’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정조의 윤음은 공교롭게도 서유구가 쓴 ‘농대’의 제안 중 ‘토지제도를 밝혀야 하는 일[田制之當明]’ 한 가지를 제외한

82) “農之本在乎勤與勞,而其要則亦惟曰:‘興水功也,相土宜也,利農器也.’” <<弘齋全書>> 卷29 『綸音』 4 ‘勸農政求農書綸音’(<<叢刊>> 262, 479쪽).

모든 제안을 국정의 최대 요체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서유구는 자신이 ‘농대’에서 농업에 힘쓰는 방법의 하나로 강조했던 ‘윤음’의 (3)(농기구 개발하기)에 대해서 ‘응지소’에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다. 대신 정조가 제시한 주제를 벗어난 듯 보이는 두 가지(④·⑤)를 제안했다.

정조가 지방관의 응지소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이유로 재차 연두 윤음을 내린 사실로 추측하면, 그는 응지소를 정조 23년(1799년)에 작성한 것 같다. 연두 윤음이 순창군에 도착할 즈음에는 서유구의 가정에 큰 상이 생겼다. 1월 10일에 친부 서호수가 사망한 것이다.⁸³⁾ 순창군수 직은 바로 교체되었고(1/12)⁸⁴⁾ 삼년상을 치러야 했다. 게다가 부친의 장사를 미처 치르기도 전인 1월 27일 서유구는 부인 여산 송씨 상까지 당했다. 부친의 상중이라 장례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한 채 장단에 있는 어머니 묘소가 있는 곳에다 급히 부인의 장사를 치러야 했다.⁸⁵⁾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차분히 응지소를 쓰기에는 감정의 추스림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응지소는 아마도 상을 당하기 바로 전에 쓰기 시작하여 상중에 마무리했거나, 아니면 상중에 쓰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마 이러한 이유로 서유구는 ‘윤음’에 대해 몇 가지 제안만 나열하는 정도에 그쳤다. 분량에서도 같은 시기에 올린 정약용 ‘농정소農政疏’의 4,607자에 비해, 서유구의 ‘응지소’는 2,573자로, 정약용의 것이 훨씬 많다. 서유구는 ‘윤음’을 통해 정조가 얻으려 했던 농정의 핵심을 이미 8년 전에 제시했으나 ‘응지소’를 써야 할 시기에 집안의 줄초상으로 농정을 더 세밀하게 논하지 못한 상태로 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부친의 삼년상을 치러야 했고, 정조도 이듬 해(1800년) 사망함에 따라 서유구가 농정과 농서에 대한 의견을 정리할 기회는 당분간 없었다.

2.2. 귀농기(1806~1823)

2.2.1. 경학·경제학에서 ‘임원경제학’으로

83) 『내각일력』 정조 23년(1799) 1/10. 『내각일력』 원문은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사이트 참조.

84) 『승정원일기』 정조 22년(1798) 1/12.

85) “夫人沒以己未(1798)正月丙戌(28일). 渴葬于長湍府鵝谷先姑之兆. 時我本生先考文敏公喪在殯, 故葬夫人儀不備.” <<全集>> 『金華知非集』 卷7 「墓誌銘」 ‘亡室貞夫人礪山宋氏墓誌銘’(<<叢刊>> 288, 432쪽).

순조 초년의 급변하는 정세에서 1806년 병인경화丙寅更化로 불리는 ‘김달순 옥사’에서 서유구의 작은아버지 서형수가 유배형을 받으면서 가문의 존폐가 위태로워지자, 홍문관 부제학(정3품)이었던 그는 사직하고 세거지인 장단長湍으로 귀향했다.⁸⁶⁾ 서유구의 1차 사환기의 관록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마감한다. 표면적으로는 서유구가 자발적으로 부임을 거부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의 강력한 사임 의사는 당시의 불안한 정국의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서유구는 부제학 직을 사직한 뒤 시골에 살면서 농사를 본격적으로 연구했다. 그의 이 같은 행보는 학문적 탐구이기도 했으나 한편으로는 당시의 고난과 시름을 잊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다. “세상을 등지고 살던 초기에, 나는 근심 속에서 근심을 잊고자 책을 널리 모으고 가려서 <<임원경제지>>를 편찬했다.”⁸⁷⁾는 고백은 이 같은 사실을 말해준다. 그는 귀농 초기, 자신을 비롯한 집안의 앞날을 하루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의 양부인 서철수도 서형수의 유배에 연루되어 벼슬이 끊기면서 가산을 탕진했다.⁸⁸⁾ 서유구는 자신이 집안을 꾸려나가야 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실제로 자신의 몸을 놀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고, 밭일을 하느라 손에 못이 박이기도 했다.⁸⁹⁾

정계에서 물러난 서유구는 본격적으로 농사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 녹봉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서유구를 비롯하여 형제 넷이서 서조모 박씨와 어머니 한산 이씨를 모시고 자식을 건사하며 집안을 책임져야 했다. 그는 이 18년 간 여러 번 주거지를 옮겨가며 생활고에 빠져있었다. 다리 걷어붙이고 논밭독길을 헤쳐 가며 농사지었고, 임진강 하류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 재야로 물러났기에 고관대작처럼 하인들의 노동력으로 재산을 형성할 수 없는 처지인지라 자신과 어린 아들도 몸으로 뛰는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시절의 고투와 애환은 그의 문집과 외아들 서우보(徐宇輔, 1795~1827)의 문

86) 편집위원회, 「풍석 서유구 연보」, 개관서, 1543~1544쪽.

87) “屏避之初,爲在憂忘憂也,薈萃博采,纂林園經濟志.” <<全集>> 『金華知非集』 卷6 「五費居士生墳自表」(<<叢刊>> 288, 424쪽).

88) “明舉公(서형수)謫海島,府君(서철수)坐廢于家,突隳漂搖,家殖中落,損先人之產殆盡而坦然也.” <<全集>> 『金華知非集』 卷6 「墓表」 ‘先考贈吏曹判書府君墓表’(<<叢刊>> 288, 423쪽).

89) “어머니께서 밥을 대할 때면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가득 차린 음식이 모두 자네 열 손가락에서 나왔구만. (중략) 요즘 자네 손에 못이 박인 걸 보니, 농사가 얼마나 힘든지 더 잘 알겠네.’ 其在金華山莊也,有渠灌園耕田,以供饗飮.先妣對餘輒笑曰:‘是饑饉者皆從汝十指中出也.(중략)近見汝胼胝,益知稼穡之艱難.’” <<全集>> 『金華知非集』 卷8 「遺事」 ‘書本生先妣貞夫人韓山李氏遺事’(<<叢刊>> 288, 470~471쪽).

집 『추담소고』의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이렇게 경영해 나간 집안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끼니 때 죽조차 먹지 못하기도 했고,⁹⁰⁾ 세 들어 살면서 추운 날 방을 덥힐 땀감조차 마음껏 땀 수 없었다.⁹¹⁾ 팍팍한 삶 때문인지, 좌절감과 상실감 때문인지, 서유구는 인생을 포기하려는 유혹에 수없이 사로잡히기도 했다.⁹²⁾

좌절을 거의 맛보지 못했던 젊은 시절 서유구의 포부는 여느 사대부에게서 볼 수 있듯이, 입신출세하여 세상을 경영하는 데 일조하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자신의 몸과 가족의 생계를 꾸리는 일 등이 사소해 보였다.⁹³⁾ 그러나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실존적 체험을 겪은 뒤, 그는 허공과도 같은 대도大道를 좇고 움직이지 않는 산처럼 정해진 운명을 옮기려 애쓰는 삶의 허무함과 무기력함을 깨달았다.⁹⁴⁾ 이 같은 그의 깨달음은 그가 당시 농학에 한창 몰두해 있을

90) “병인년(1806) 이후 집안이 힘든 시기를 만나 아버지(서유구)께서는 시골집에서 분주하게 일을 하셨으나 끼니 때 죽조차 잇지 못했다. 自丙寅以後,家丁艱難之會,家大人棲屑于鄉舍,而饘粥有時不繼.” 徐宇輔, 『秋潭小藁』 卷下 ‘祭庶曾祖母密陽朴氏文’, 27면.

91) “내가 새벽에 일어나니 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추기에 하인을 불러 동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아궁이에 불 좀 피우라고 했네. 그곳이 남의 동산이라 하인은 기회를 엿보다 나아가서는 머뭇머뭇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살폈지. 아무도 없음을 안 뒤에야 비로소 두려움을 무릅쓰고 마른 나무를 주워왔는데, 한 움큼도 되지 않더군. 생각해보니 내가 남의 집에 세 들어 목숨을 부지하고, 사람들과 헤어져 살고서 지금 세월이 한참 흘렀네. 吾晨起覺體栗而栗,呼僮樵于園,烘于竈.僅爲其他人之園也,狙緣而進,躊躇四顧而睢.知其無人然後始敢拾枯以歸,仍不盈握矣.念吾僑僑而爲命,離羣而索居,今且幾歲月矣.” <<全集>> 『金華知非集』 卷2 「書」 ‘與叔弟朋來書’(<<叢刊>> 288, 324쪽). 번역은 김대중, 앞의 글, 186~187쪽 참조.

92) “병인년(1806)에 내가 재야로 내쳐지면서 갑작스레 떠돌이가 되자 하루에도 여러 번 죽고 싶었는데, 그 유혹이 20년이 지나도 그치지 않았다. 歲丙寅,余放廢于野,突隳漂搖,一日三祈死者二十年未艾.” <<全集>> 『金華知非集』 卷7 「墓誌銘」 ‘亡兒墓誌銘’(<<叢刊>> 288, 441쪽).

93) 육수성(陸樹聲, 1509~1605)의 『병답오언病榻寤言』이라는 책에서, “사람이 살면서 1~20세에는 자기 한 몸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20~30세에는 가족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30~40세에는 자손을 위한 계획을 세운다.”는 글을 보고 책을 내던지며 비웃기도 했다(“記昔在蓉洲精舍也,偶閱陸樹聲病榻寤言.有云:‘人生一歲至(二)가 빠진 듯함: 필자)十歲爲身計,二十至三十爲家計,三十至四十爲子孫計.’擲卷而笑.” 같은 글). 공자처럼 학문에 뜻을 두고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림이 없는 철학을 세우려 했던 시절, 내 몸과 가족의 생계를 꾸리는 일처럼 누구나 다 하는, 그래서 더 비루해 보이는 일이 서유구의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다.

94) “그런데도 나는 멋대로 허공을 잡으려 했고 산을 옮기려 한 지가 오래 되었네.”라고 동생 서유락에게 토로한 말은, 그가 겪은 좌절감과 허무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豈意倏焉轉眼之頃,送盡數十年光陰,而志與命闕,事與情違,卽無論學問事功,向所謂身家子孫之計者,亦且茫乎無措手之地哉?古人有言:‘大道等虛空,虛空不可以手搏;定命如山嶽,山嶽不可以力移.’吾之妄欲搏虛空而移山嶽也久矣.” <<全集>> 『金華知非集』 卷2 「書」 ‘與叔弟朋來書’(<<叢刊>> 288, 324쪽)). 자신이 몸소 집안을 꾸려야 하는 처지에 몰리고서야, 아무리 애써도 집안 하나 건사하는 일조차 제대로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나서야, 일상을 위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으로 느끼게 된 것이다(“허, 이게 된 소린가! 나고 장성하고 늙어서 죽을 때까지 세운다는 계획이 고작 내 몸과 가족과 자손을 넘어가지 못한다고? 공자가 15세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 30세에 홀로 섰고, 40세에 주관이 흔들

때이니 만큼, 바로 농학 연구와 함께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유구는 귀농기에 농학을 위시한 ‘향촌 가정경제학’에 몰두했다.⁹⁵⁾ 서유구에 게 향촌 가정경제학은 벼슬하지 않고 향촌에 사는 사대부가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지식을 실천하는 일을 의미했다. 지금으로 보면 농학, 농업경제학, 가정학, 의학, 건축학 등 여러 학문 영역이 한꺼번에 다뤄져야 할 이 분야는 당대는 물론 이전의 지식인이 거의 다루지 않거나 외면했던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식 체계를 세우기 위한 자료 수집은 물론 자료의 섭렵과 이의 정리를 위해서는 적지 않은 집중과 노력이 필요했으리라 생각된다. 자료를 주제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재정리하여 책을 편찬하는 일은 규장각 각신으로 여러 국가적 편찬사업에 관여했던 서유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였다.⁹⁶⁾

서유구가 귀농기에 관심을 기울였던 향촌 가정경제학 분야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려서부터 습득했던 경학이나 경제학 같은 학문에 대해 일정 정도 거리를 두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이런 학문에 대해 거리를 두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예 관심을 끊으려 했다. 경학이나 경제학은 당대 사대부라면 으레 평생 추구해야 했던 학문이었다. 이 학문에 관심을 끊는다면 학자로서는 물론이고 경제가로서 관직에 몸담을 마음까지 접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었다.

귀농기가 끝나고 복권이 되어 2차 사환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서유구는 귀농기에 대부분 저술했을 농서 『행포지』 서문을 썼다(1825년).⁹⁷⁾ 그는 이 글에서 자신의 학문 편력을 요약 소개하면서 경학과 경제학에 경도되었다가 인생의 좌절감을 맛 본 이후에는 늙어 몸을 운신하기 힘들 때까지 농업에 온 마음

리지 않았던 일과 비교하면 어떤가?’ 그런데 순식간에 수십 년의 세월을 다 보내면서도, 뜻과 운명이 막히고 일과 마음이 어긋나, 학문과 사공事功은 물론이고, 예전에 말한 내 몸과 가족과 자손을 위한 계획조차도 멍하니 손 쓸 곳이 없을 줄 어찌 생각이나 했을까? 曰:‘嗟嗟乎,唉哉!生而壯而老而死,而所爲計者,不越乎身家子孫之外邪?其視十五而志于學·三十而立·四十而不惑,何如也?’豈意倏焉轉眼之頃,送盡數十年光陰,而志與命閔,事與情違,卽無論學問事功,向所謂身家子孫之計者,亦且茫乎無措手之地哉?” 같은 글).

95) ‘향촌 가정경제학’은 필자의 조어이다.

96) 규장각 채직 시 검서관으로서, 그와 함께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교유했던 성해응에 따르면 서유구가 저술할 때에는 필요 없는 내용을 삭제하고 주제에 맞게 강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을 매우 정확하고 정밀하게 해냈기 때문에, 규장각에서 책을 만들어야 할 때는 많은 이들이 서유구를 먼저 추천할 정도였다(“記余從公周旋於內閣,公方妙歲蜚英,承家世文獻之餘,而值儒學馳騁之會,揚茂實而著異采,著論吐詞,委棄窠空,爬櫛疵類,綱維俱張,涯涘無際,鎔鑄堅凝,部分精嚴,凡有述作編摩,衆輒推公爲先.” 成海應, 『研經齋全集』續集 冊17 「文」 3 ‘送楓石徐學士之淮陽府使序’(《<<叢刊>> 279, 438쪽)).

97) “乙酉(1825)日南至,楓石徐有渠書.” 『杏菴志』 「杏菴志序」(『農書』 36, 5쪽).

을 기울였다고 고백했다.

나만 유독 농가農家의 설에 푹 빠져, 늙어서 기운이 다하도록 그치지 않았으니, 이게 정말 무엇 때문이었는가? 나는 예전에 경예학(經藝學, 경학)을 공부했었다. 그런데, 말할 만한 것은 옛 사람들이 이미 모두 말해버렸으니, 내가 거기다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해봐야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나는 예전에 경세학을 공부했었다. 처사들이 이리저리 생각하여 한 말은 ‘흙 국[土羹]’이었고, ‘종이 떡[紙餅]’이었다. 그런 노력이 또한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⁹⁸⁾

농업을 평생의 과제로 삼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는 경학을 열심히 공부했지만, 이 분야에는 이미 선인들이 보탬 만한 내용을 다 보탰기 때문에 자신이 더 이상 개입할 여지가 없어서 관심을 끊게 되었다고 술회했다. 또한 경세학도 한 때 열심히 공부했지만, 이 분야는 ‘토갱지병(土羹紙餅)’, 즉 흙으로 국을 끓이고 종으로 떡을 만드는 일처럼 공허한 말장난을 일삼고 있다고 결론짓고 경세학에 대한 관심도 끊게 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유구가 귀농기에 경세학을 완전히 저버린 것은 아니었다. 순조의 경진 양전령에 즈음하여 1820년 저술된 『의상경계책』은 그의 경세론의 대표적인 저작이다. 「행포지 서문」이 1825년의 작품임을 감안할 때 “예전에 경세학을 공부했었다.”는 그의 고백에서 말한 ‘예전’이란 말에는 『의상경계책』을 저술한 5년 전의 기억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귀농한 이래 15년 가까이 농촌 관련 저술을 일삼던 서유구가 순조의 양전령 소식을 들은 뒤 그의 농학적 견해를 경세학적 관심에 접목시킨 것이다. 그러나 고심하여 쓴 그의 농정론은 국왕에게 제대로 읽혀질 기회조차도 갖지 못한 채 사장되고 말았다. 이 같은 상황이 ‘토갱지병’을 운운하게 된 계기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의상경계책』의 저술 기간은 1년도 안 되었고, 따라서 서유구가 귀농기에 경세학에 몰두한 시간이 많지는 않았겠지만, 경세론의 현실화가 얼마나 허무한 기대인지를 절실히 깨달았을 것으로 보인다.

실용과 효용 측면에서 농사가 으뜸이라 판단한 서유구는 결국 농학을 자신이 평생 추구할 학문으로 선택하기에 이르렀다. 귀농기 전후에 본격적으로 몰두한

98) “余獨弊弊乎農家者流,窮老盡氣而不止之者,是誠何爲也?吾嘗治經藝之學矣,可言者,昔之人言之已盡,吾又再言之三言之,何益也?吾嘗爲經世之學矣,處土揣摩之言,土羹焉已矣,紙餅焉已矣,工亦何益也?” 같은 책, 4쪽.

농학과 농사는 환갑을 넘긴 나이에든 저버릴 수 없는 분야였다. 『행포지』 서문의 이어지는 구절에서 서유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리하여 미련을 버리고서 범승지·가사협의, 작물 심고 가꾸는 기술에 진력하였다. 앉아서 말할 만하고, 서서 시행할 만한 실용은 오직 농사가 그런 것이며, 천지가 준 봉록으로 부모를 봉양할 수 있게 해 준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것 역시 농사에 있지 판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체넘게 이제야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니, 아, 내가 어찌 농사 연구를 그만 둘 수 있겠는가!⁹⁹⁾

그가 농사야말로 ‘실용’을 추구할 수 있고 부모를 ‘봉양’할 수 있는 일이라고 자부한 이글에는 귀농기를 대표하는 표현이 들어 있다. ‘폐연(廢然, 미련을 버리고서)’이라는 말이 그것이다.¹⁰⁰⁾ 성찰을 통해 이전 삶과 단절했다는 어감을 전달하는 이 말은 아마도 자신의 사상적, 학문적 방향에 경학·경제학에서 농학으로 큰 전환이 일어났음을 암시해 주려는 듯하다.

농학 연구와 농사는 서유구가 귀농기에 가장 주력한 활동이었고, 결국 이 활동은 향촌 가정경제학을 하나씩 정리함으로써 새로운 학문 영역을 개척하는 데로 확대되었다. 서유구가 <<임원경제지>>에서 제시한 이 새 학문은 ‘임원경제학 林園經濟學’¹⁰¹⁾이라 할 만하다. 그는 학문적 측면에서 귀농기에 ‘편찬물’이 아닌 자

99) “於是乎廢然匍匐于汜勝之·賈思勰樹藝之術.妄謂在今日坐可言起可措之實用者,惟此爲然,而其少酬天地祿養之恩,亦在此而不在彼.嗟呼!余豈得已哉!”『杏菴志』「杏菴志序」(『農書』 36, 4~5쪽).

100) 이 말은 서유구가 자신의 ‘오비거사생광자표五費居士生曠自表’에서 말한 5가지 허비기 중 ‘세 번째 허비기[三費]’를 내세운 구절에도 나온다. 그는 이 구절에서 귀농기에 농사에 온 마음을 쏟았다고 고백했는데, 이 때 자신의 행위를 강조한 어구도 ‘폐연’이라는 말이었던 것이다. “夫然後知才之不可擢而進也,命之不可力而移也.始廢然俛就于東陵之瓜·雲卿之蔬·汜勝之賈思勰之樹藝,經營籌度,積有日月,不謂無競之地,亦且有物靳之,齟齬絆攣.以迄于今,而卒之身廢家覆,萬緣瓦裂則三費也.” <<全集>> 『楓石鼓篋集』 卷2 ‘書’ ‘與朋來書’(<<叢刊>> 288, 325~326쪽); “夫然後廢然俛就于東陵之瓜·雲卿之蔬·汜勝之賈思勰之樹藝,經營籌度,積有日月,不謂無競之地,亦且有物靳之,齟齬絆攣.願莫(‘英’의 오기일 듯: 필자)之遂,而卒之生棟覆屋,萬緣瓦裂則三費也.” <<全集>> 『金華知非集』 卷6 ‘墓表’ ‘五費居士生曠自表’(<<叢刊>> 288, 424쪽).

101) 이 개념은 김대중이 최초로 제안했다. 그는 서유구가 구축한 “‘임원생활에 필요한 총체적 지식’을 간결하면서 포괄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용어는 달리 찾기 힘들”다며, ‘이용후생학’이라는 종래의 개념은 서유구의 문제의식을 예리하게 표현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풍석 서유구 산문 연구』, 195쪽. 조창록은 이에 앞서 서유구의 사상적 지향성을 ‘임원경제’라는 용어로 개념화한 바 있다. 그의 박사학위논문(성균관대) 『楓石 徐有渠에 대한 한 研究』의 부제는 “‘林園經濟’와 『樊溪詩稿』와의 관련을 中心으로”였다. 하지만 『산림경제』에서 암시를 받았던 그의 학문은 『산림경제』에서 다루는 범위를 넘어섰을 뿐 아니라, 이전의 어느 학문 영역에서도 포괄할 수 없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시도라, 이를 <<임원경제지>>라는 책명을 딴 ‘임원경제학’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임원경제학은 좁게는 ‘이용후생학’이나 ‘실용학’이라

신의 ‘저술’을 집필했다. 이 시기의 저술에는, 『풍석고협집』 이후의 작품을 모은 문집 『금화지비집』에 들어있는 짧은 글을 제외하고 『금화경독기金華耕讀記』·『행포지』·『난호어목지蘭湖漁牧志』·『경술지鵲麟志』·『웅치(잡)지饗饌(雜)志』가 있으며, 『금화지비집』에 들어 있는 『의상경제책』을 짓기도 했다. 이와 병행해서 자신의 ‘임원경제학’을 구현한 <<임원경제지(임원십육지)>>를 저술했다.

이제 귀농기의 저술 중 임원경제학이라는 새 학문 영역의 기반을 구축하려 했던 『본리지』와 『행포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두 저술은 특히 『의상경제책』의 농업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리지』는 <<임원경제지>> 저술 중 하나이지만 서유구의 농학 연구의 핵심적 결과물이 담겨 있다. 서유구의 말년까지 저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⁰²⁾ 그가 범승지와 가사협, 서광계 등이 저술한 중국 농서에 몰두해 있을 때, 과거 정조가 ‘권농정구농서윤음’을 반포하여 ‘농가의 대전’을 편찬하려 했던 취지를 살려 새로운 농서를 저술하려 했을 수도 있다. 농서 편찬에 대해서는 서유구가 이미 ‘농대’(1790)에서 제안했고 ‘순창군수옹지소’(1799)에서 구체적인 편찬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기에, 농서 저술을 본인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있었을 것이다.¹⁰³⁾ 따라서 귀농의 뜻을 품었던 순조 대 초년 경에 서유구는 ‘농가의 대전’ 같은 저술을 염두에 두면서 책을 짓기 시작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물은 40여 년 뒤 <<임원경제지>> 16지 중 『본리지(농사 일반 및 곡물 농사)』·『관휴지(灌畦志, 채소·약초 농사)』·『예원지(藝畹志, 화훼 농사)』·『만학지(晩學志, 과실·나무 농사)』·『전공지(展功志, 옷감 농사)』·『위선지(魏鮮志, 농업기상)』·『전어지(佃漁志, 축산)』 등 앞 부분의 7지로 분산, 정리되었다.¹⁰⁴⁾ 이 7지는 모두 40권으로, 요즈음의 쪽 수로는 2,996쪽에 해당하며 글자 수는 568,816자이다.¹⁰⁵⁾ 서유구 이전과 이후 조선에서 편찬된 어느 농서와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방대했다.¹⁰⁶⁾ 또한 중국

는 용어와 별반 다르지 않게 보이지만, 이전의 유학자들이 ‘임원경제학’에 용해되는 분야 중 극히 일부(이를 보통 이용후생학이라 표현한다)에만 관심을 가졌던 점과는 크게 대조된다.

102) 예를 들어 『본리지』에는 현종 5년(1839)에 발생한 매미충[蟬蟲]의 피해와 대처에 대해 설명한 『행포지』의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임원경제지 본리지』 2, 651~652쪽.

103) 金容燮, 『朝鮮後期農學史研究』, 433~434쪽.

104) 40여 년 뒤까지 수정·보완했을 테지만, 책의 틀과 내용의 상당 부분은 귀농기에 정리되었을 것이다. 이 중 『관휴지』는 해초류 채취하는 법을, 『전어지』에서는 사냥법과 어류 잡는 법 등 농사 이외의 분야도 일부 다루고 있다.

105) 쪽 수 계산은 <<林園經濟志>> 一~二, 保景文化社, 1983을 기준으로 했으며, 글자 수는 정명현, 『『임원경제지』 해제』, 개관서, 286쪽 표8을 참조했다.

의 농학을 종합한 책으로 평가받는 서광계의 『농정전서』(60권, 70만 여 자)의 분량에 육박한다.¹⁰⁷⁾ 이로 볼 때 <<임원경제지>>의 농업 부분 7지는 조선 최대의 농학서로, 조선 농업을 집대성한 저술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¹⁰⁸⁾

이 중 특히 『본리지』는 총 13권 분량(891쪽, 151,254자)으로 나머지 농서 6종 각각보다 훨씬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농서 연구와 새 농서 편찬 과정에서 기존의 자료를 위의 7지로 분산 배치했겠지만, 주로 관심을 두었던 책은 곡식 농사뿐 아니라 농사 일반을 함께 다룬 『본리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본리지』는 중국·일본 및 조선의 문헌(자신의 저술 포함) 95종을 종합·정리했으며 이 중 자신의 저술은 31퍼센트였다.¹⁰⁹⁾ 뒤에 살펴듯이 이 책은 또한 농서에 토지제도를 본격적으로 다루었으며 견종법을 비롯한 여러 농법을 자신의 견해로 제시했다.

『행포지』는 1825년에 1차 완료되었고 이후 1840년까지 보완되었으며 총 5권이다.¹¹⁰⁾ 이 책이 서호수의 『해동농서』의 목차에 영향을 받은 점은 이미 지적했다. 앞서 소개했듯이 귀농기에 농사를 연구한 결과가 이 책에 반영되었다. 농사에 대한 개론과 곡물 농사를 주로 다뤘지만(권1·2·4·5), 채소·화훼·나무 농사 등도 일부 다루었고 농산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소개하기도 했다(권3). 『행포지』는

106)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조선의 농업관련서, 즉 『농사직설』(1429년, 18쪽, 3,186자), 『금양잡록』(1492년, 53쪽), 『농가집성』(1655년, 150쪽), 『색경』(1676년, 270쪽), 『산림경제』(18세기 초) 농사 부분(180쪽), 『증보산림경제』(1766년) 농사 부분(382쪽), 『본사』(1785년, 1,198쪽), 『해동농서』(1790년대 경, 360쪽), 『과농소초』(1799년, 266쪽), 『전일록』 농업 부분(약 445쪽)(卷2 「田制」의 부분 포함), 『행포지』(1825년 경, 300쪽), 『농정회요農政會要』(1834~1842년 경, 약 1,284쪽)·『육해법陸海法』(1834년, 70쪽)·『심기도설心器圖說』(1842년, 55쪽)과 비교했을 때 <<임원경제지>>가 가장 많은 분량이었다. 『농정회요』·『육해법』(수리 기구 및 시설 등 해설)·『심기도설』은 최한기(崔漢綺, 1803~1879)가 편찬했다. 『농정회요』 2~8冊이 1,124쪽이다. 1冊은 결본이어서 2~8책의 1책 당 평균 쪽 수(약 160쪽)로 계산했으며 10책은 음식 관련 내용이어서 계산에서 제외했다. 『심기도설』은 기구나 기계와 관련된 『원서기기도설遠西奇器圖說』을 옮긴 책으로, 통계에서는 이 중 농업과 관련된 「取水」·「轉磨」·「轉碓」·「代耕」·「自行磨」·「水打羅」 부분만 반영했다. 이상의 농서는 아세아문화사에서 영인한 『農書』 1~13과 『農書』 36을 참조. 『행포지』는 『農書』 36에 실린 부분에서 「五害攷」가 들어있는 화봉문고 소장본 권6의 분량을 더했다.

107) 『농정전서』 중 서광계 본인의 저술 내용은 전체의 8.7퍼센트 정도이다. 정명현, 「『임원경제지』 해제, 개관서, 323쪽.

108) 물론 양이 가장 많다고 해서 '집대성'이라는 평가를 할 수는 없다. 이전의 농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자신의 견해도 정확하게 밝혔다는 점이 서유구의 농학 서적의 특징이다. <<임원경제지>>에 수록된 농학 부분의 분석은 풍석 서유구 지음, 정명현 외 옮기고 씌, 개관서의 제3부 중 413~799쪽을 참조.

109) 정명현, 『본리지 해제, 개관서, 460쪽 표6 참조. 『본리지』에 담긴 서유구의 저술 양은 『농정전서』에 수록된 서광계의 저술보다 3.5배가량 많다.

110) 『農書』 36에 수록된 『행포지』에는 4권까지 있으며 일실된 5권(「五害攷」)은 이전의 원고(현존 풍석암서옥본)에 남아 있다.

농서 등을 통해 농학을 연구한 결과와 함께 자신이 논밭에서 몸소 경험한 농법을 담는 등 귀농기 이후에 몰두한 그의 농학 연구와 이를 통해 얻은 농업론의 핵심이 담겨있다. 따라서 그의 농업 관련 주요 저서인 <<임원경제지>> 『본리지』와 『의상경제책』에 자신의 농학 사상을 반영하는 논거로 인용되기도 했다.

『본리지』가 이전의 문헌과 자신의 저술을 종합한 편찬물이었음에 반해, 『행포지』는 다른 저술을 자신의 논지 전개에 필요할 때 삽입한 것 외에 독립적인 기사로 소개한 적이 없는 자신의 저술이었다. 그 결과 『행포지』의 대부분(권3 제외)이 『본리지』에 반영되었지만, 그 반대 현상은 없었다. 『본리지』의 인용문을 그대로 『행포지』에 옮긴 기사는 없기 때문에 『본리지』에 편입된 『행포지』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서로 겹치는 내용이 없는 것이다. 『행포지』 5권 중 권3을 제외한 4권의 내용을 『본리지』 13권 중 적소에 배치시키는 방식이었다. 『행포지』는 『본리지』 권9, 10~13을 제외한 9권에 고루 배치되면서 『본리지』의 완성도에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한 책이었던 것이다.

『행포지』의 내용은 『의상경제책』에서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의상경제책』의 3강 중 1강에서 다룬 토지제도 및 양전을 비롯하여, 북극고도 측정의 필요성, 구전법區田法·건중법畝種法 등의 밭 농법, 수리의 필요성과 방법, 그리고 종자 구입의 중요성과 실천 방법 등을 다루면서 주요 논거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뒤에서 살펴듯이 『행포지』는 『의상경제책』의 3강 11조목 중 제2강에 해당하는 세 조목(2.1~2.3)을 제외한 8조목에 유용하게 재배치되었다.¹¹¹⁾

이 두 책을 비롯한 여러 책들을 저술하면서 서유구는 새로운 학문 영역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틈틈이 책을 읽었고,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식을 차곡차곡 정리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경독기耕讀記들인 『금화경독기』·『행포지』·『난호어목지』·『경술지』·『옹치잡지』를 쓰면서, 한편으로는 『본리지』를 시작으로 하는 <<임원경제지>> 원고를 정리하고 있었다. <<임원경제지>>의 목차를 편성하고 이책 저책을 섭렵하면서 차곡차곡 정보를 채웠다. 이 과정에서 참고 문헌에서 다루지 않은 정보이지만, 내용 서술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내용은 서유구 자신의 경독기가 대신해주었다. 그의 경독기 서적들은 모두 ‘임원경제학’의 기반을 구축하는 자신의 주요 저술이었던 것이다.¹¹²⁾

111) 이에 대해서는 제1부 3.2절 참조.

112) 또 경독기의 저술에 포함이 되지는 않지만 <<임원경제지>>에 들어 있는 서유구 자신의 견해인 ‘안설案說’(<<임원경제지>> 원문에는 ‘案’으로 적고 이 글자에 네모 테두리를 두르고 있는 부분이 안설이다)의 상당 부분이 귀농기의 현장 경험과 고증 등의 방법론이 잘 반영된 결과였다.

2.2.2. 귀농기에 시작된 <<임원경제지>> 저술과 그 농업론

앞 소절에서 살폈듯이 <<임원경제지>> 저술은 시간의 선후 차이가 있지만 서유구의 귀농기에 자신의 다른 저술과 함께 시작되었다. 벼슬살이를 할 수 없는 처지로, 가족의 삶을 챙겨야 하는 생활인으로서 서유구가 농촌 지식인의 삶의 방향성에 천착했기에 이 저술이 가능한 일이었다. <<임원경제지(또는 임원십육지)>>는 사대부가 벼슬하지 않고 시골에 살 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망라하여 16개의 분야[志]로 나누어 소개한 책으로, 곡식·채소·약초·화훼·나무·과일·옷감재료 농사를 비롯하여 조리법, 집 터 고르는 법과 집 짓는 법, 공업·상업에 이르기까지 일상에 필요한 실용 지식으로 채워져 있다(표6). 저술 기간은 귀농기에 시작하여 서유구가 세상을 뜨기 전까지 40년 가까이가 된다. 총 113권 54책, 253만 자 가까이 수록되어 있다.¹¹³⁾

<<임원경제지>>는 국가 운영과 사회 제도의 문제를 다루지는 않는다.¹¹⁴⁾ 즉, 지식인으로서 고민해야 할 국가의 통치철학이나 국가 경영에 대한 견해를 설파하는 일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이 책에서 다루는 범위는 인간의 일상적인 삶에 한정되었다. 제목에 들어 있는 ‘임원’이라는 명칭은 시골의 삶의 문제를 다루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낸 작명이었다. <<임원경제지>>에 담을 내용과 담는 방식, 그리고 ‘임원’의 의미를 그는 이렇게 말했다. “시골에서 사는 데 필요한 일의 도리를 대략 골라 部로 나누고 제목[目]을 세워 여러 책을 뒤져서 채워 넣었다. 이 책에 ‘임원’으로 제목을 붙인 까닭은, 벼슬하여 세상을 구제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이다.”¹¹⁵⁾ 서유구는 향촌에 사는 지식인들을

(물론 귀농기의 경험과 저술만이 <<임원경제지>>에 반영된 것은 아니었다. 귀농기 이전의 저술인 『향례합편鄕禮合編』(1795년, <<임원경제지>>에는 『풍석집櫚石集』으로 적었다) 내용(『향례지』에 4,679자 인용)과 『누판고鏤板考』(1796년)의 내용(『이운지』에 14,293자 인용) 뿐 아니라, 귀농기 이후 저술인 『種譜譜』(1834년)의 내용(『만학지』에 7,100 여 자, 『정조지』에 18자 인용)도 이 책에 반영되었다. 하지만 이런 저술의 양은 귀농기 저술에 비해 아주 적었으며 따라서 귀농기의 연구가 ‘임원경제학’의 주된 기반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임원경제지>>에 반영된 서유구 저술의 글자 수 통계는 정명현, 「『임원경제지』 해제」, 개관서, 322쪽 표13을 참조. 이 표에는 『만학지』에 인용된 『종저보』의 통계는 빠져 있다. 그 이유는 『종저보』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할 때 『종저보』를 저술하면서 참조했던 문헌을 『만학지』에 그대로 밝혀두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정명현, 「만학지 해제」, 개관서, 600~602쪽을 참조).

113) <<임원경제지>>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서유구 지음, 정명현·민철기·정정기·전종욱 옮기고 씀, 앞의 책을 주로 참조했다.

114) 『본리지』 권1 「토지제도」는 국가 경영을 염두에 둔 내용이 다소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는 농촌 지식인에게도 요구되는 지식이었다.

위한 ‘가정백과사전’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행했던 것이다.

표6은 <<임원경제지>> 16지의 명칭과 순서, 각 지의 내용 요약과 권 수를 소개하고 있다. <<임원경제지>>에서 먹을거리를 다룬 부분은 『본리지』·『관휴지』·『만학지』·『위선지』·『전어지』·『정조지』 6지이다. 의복에 대해서는 1지(『전공지』), 집에 대해서는 3지(『섬용지』·『이운지』·『상택지』)에서 다루고 있다. 즉 의식주 분야에 반 이상의 지를 안배한 것이다.

<표6> <<임원경제지>> 16지의 뜻과 내용 및 권수 구성

순서	16지	제목의 뜻	내용	권수
1	본리지本利志	봄에 밭 갈아 가을에 수확하는 작물에 관한 기록.	농사 일반, 곡물농사	13
2	관휴지灌畦志	두렁밭에 물 대서 재배하는 작물에 관한 기록.	채소·약초농사	4
3	예원지藝畹志	난초 같은 화훼작물의 재배와 관련한 기록.(밭에 난초를 기른다는 굴원의 시에서 뜻을 취함)	화훼농사	5
4	만학지晩學志	늘그막에 배워 짓는 나무농사에 관한 기록.	과일·나무농사	5
5	전공지展功志	부녀자의 옷감 짜기와 관련된 기록.	옷감재료 생산 및 옷감만들기	5
6	위선지魏鮮志	위선이 한 일과 관련된 기록.	기상·천문을 보고 풍흉 예측	4
7	전어지佃漁志	목축, 사냥, 어로에 관련된 기록.	가축기르기·양봉·양어·사냥법·물고기잡기	4
8	정조지鼎俎志	술과 희생(犧牲)을 올리는 그릇에 관련된 기록.	요리하기	7
9	섬용지贍用志	넉넉하게 쓰여야 할 생활용품에 관련된 기록.	집짓기 및 일용품 만들기	4
10	보양지葆養志	몸을 양생(보양)하는 일과 관련된 기록.	건강법	8
11	인제지仁濟志	어진 마음으로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관한 기록.	치료법	28
12	향례지鄉禮志	향촌의 의례에 관련된 기록.	마을 행사 치르는 법 및 마을공동체 윤리	3
13	유예지游藝志	늘 보고 익혀야 할 기예에 관한 기록.	몸공부·마음공부를 위한 교양 지식	8
14	이운지怡雲志	홀로 구름을 즐기는 일에 관한 기록.	고상한 문화생활	8
15	상택지相宅志	집 지을 곳을 살피는 일에 관련된 기록.	좋은 집터 잡기	2
16	예규지倪圭志	장사에 능했던 백규의 방법을 결론짓는 일에 관한 기록.	상업 활동	5
합 계				113

-출처 : 정명현, 『『임원경제지』 해제』, 서유구 지음, 정명현·민철기·정정기·전종옥 외 옮기고 씀, 앞의 책, 258쪽.

<<임원경제지>>의 농업론은 사대부층의 각성과 실천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모아져 있다. <<임원경제지>>에 들어 있는 서유구의 농업론은 자급자족의 삶을 위해 사대부 지식인이 각성하여 농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을 가장 강조했

115) 정명현 옮김, 『임원경제지 서문』, 개관서, 405쪽.

다. 이를 토대로 필요할 때는 사대부가 심지어 공업이나 상업 같은 산업에도 종사해야 하고, 중국의 농업기술도 적극 도입하여 백성에게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유구가 바라본 조선의 농업 현실은 매우 비관적이었다. 농민들은 농사를 잘 짓지도 못하고, 나무 재배법에도 어둡다는 것이다.¹¹⁶⁾ 또 그는 도구나 기기 제작에도 서툰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¹¹⁷⁾ 조선 현실에 대한 이 같은 비관적 판단에는 사대부들이 유식자로서 “헛되이 곡식만 축내는 짓을 계책으로 삼”을 뿐 조선의 산업을 선도해나가는 역할을 자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¹¹⁸⁾

2.2.3. 『의상경제책』(1820)의 농정론

<<임원경제지>>와 이의 토대가 되는 저술들이 한창 진행되던 순조 19년, 순조가 호남과 경상 지역을 양전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서유구는 당시까지 해왔던 저술과는 다른 성격의 글을 쓰게 되었다.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행정 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양전을 제대로 시행하고 나아가 양전 뒤 농업생산량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순조에게 건의하여, 그간 조선 사회에 쌓였던 부조리와 모순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의상경제책』이 그것이다. 이 책은 농촌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저술에 전념했던 서유구가 그간 축적해온 농업론 중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변화를 이끌기에 한계가 있어 국가의 합리적 정책이

116) 「만학지 서문」에서 서유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에 서투르다. 농사의 근본이 어두운데 어느 겨울에 나무 재배까지 애쓰겠는가? 높은 산 깊은 골짜기에서 제멋대로 자라다 말라 죽는 유실수의 경우는 간혹 꺾어다 꽃아 두기도 하나 영성하기 짝이 없다.”고 개탄했다. 차영익 옮김, 「만학지 서문」, 개관서, 617쪽.

117) 그는 “일찍이 농사짓는 도구와 옷감 짜는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 방식이 거칠고 뒤떨어졌다고 이미 여러 곳에서 논하였다.”면서 『본리지』와 『전공지』에서 표명한 견해를 확인한 뒤 “후생(厚生)의 근원에서 법도대로 다 하지 못한 것이다. 대개 생활용품 분야[贍用]에 이르러서는, 한숨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이 반 이상을 훨씬 넘는다.”라고 하여 『섬용지』에서 다루는 일용용품 제작의 분야에서도 중국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져 있음을 역설했다. 정도원 옮김, 「섬용지 서문」, 개관서, 933쪽.

118) “우리나라 사대부들은 이와 달라, 10대 이상의 조상 중에 1명이라도 벼슬한 이가 있으면 눈으로는 ‘어(魚)’ 자와 ‘노(魯)’ 자도 구분 못하면서 손으로는 쟁기나 보습을 잡지 않는다. 헛되이 문벌에 의지하면서 공업이나 상업 애기를 부끄러워한다. 건문은 습관을 통해 고질병이 되고 몸뚱이는 방종에 익숙해져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않고 헛되이 곡식만 축내는 짓을 계책으로 삼는다. 시골의 100가구 모인 곳에 이런 무리가 반이 넘는다. 我東士夫異於是, 十世以上, 一有冠冕, 則目不辨魚魯, 手不執耒耜, 而徒藉門閥, 恥言工商. 聞見, 痼於習俗, 筋骸狃於放逸, 以不動一指, 空蝗黍粟爲得計. 鄉野百家之聚, 若此類殆過半焉.” <<임원경제지>> 51 『섬용지』 권4 「공업 총정리」 「공업 교육」 ‘사대부는 공업제도에 뜻을 두어야 한다’. 번역은 『섬용지』 역자 정도원의 미출간원고 외에, 서유구 지음, 안대희 엮어옮김, 『산수간에 집을 짓고』, 돌베개, 2005도 참조함.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저술이었다.

『의상경제책』은 ‘3강 11목’ 체제를 갖추고 있다. 3강은 전제(田制, 토지제도), 양전법(量田法, 농지측량법), 농정(農政,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이를 다시 전제 2가지, 양전법 3가지, 농정 6가지의 조목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편제상으로도 구별이 쉽게 편집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7)

<표7> 『의상경제책』의 3강 11목 구조(11목의 괄호 안 번호는 필자가 매긴 것임)

권 차 례	3강	11목	글자 수	비율(%)
상권	제1강: 토지제도에서 서둘러 개혁해야 할 일 (田制之亟宜更張者)	도입부: 글 쓴 경위	168	0.7
		제1목(1.1) 결부법을 경묘법으로 고치기 (改結負爲頃畝法)	4,286	22.3
		제2목(1.2) 척과 보를 바꾸어 옛 제도를 따르기 (正尺步以遵古制)	1,365	
	제2강: 양전법에서 서둘러 강구해야 할 일 (量法之亟宜講磨者)	제1목(2.1) 방전법을 써서 은닉한 땅을 찾아내기 (用方田以括隱漏)	958	19.0
		제2목(2.2) 농지 계산법을 나눠주어 미 리 연습하도록 하기 (頒數法以豫肄習)	2,783	
		제3목(2.3) 전담 기관을 설치하여 근무 태도 평가하기 (設專司以考勤慢)	1,066	
하권	제3강: 농정에서 서둘러 시행해야 할 일 (農政之亟宜施措者)	제1목(3.1) 위도 측정으로 정확한 때 알 려주기 (測極高以授人時)	877	58.0
		제2목(3.2) 농법을 가르쳐 땅심 다 쓰기 (教樹藝以盡地力)	2,871	
		제3목(3.3) 좋은 종자 구입하여 재해 대 비하기 (購嘉種以備災傷)	864	
		제4목(3.4) 수리를 진흥시켜 가뭄과 장 마에 대비하기 (興水利以虞旱澇)	2,713	
		제5목(3.5) 변전 금지하여 명과 실 밝히 기 (禁反田以覈名實)	735	
		제6목(3.6) 둔전을 넓혀 부국 만들기 (廣屯田以富儲蓄)	6,599	
글자 총수			25,285	

『의상경제책』은 글자 수는 총 25,383자(원문 25,285자, 권두·권미 98자)로 필사본이다. 『의상경제책』은 정책문 형식의 농정 제안서로서 분량이 상당히 많은 글이다. 보통 국왕에게 정견을 제출하는 정책문進策文은 많아야 1만 자 내외이다.¹¹⁹⁾ 긴 글이지만 매우 정연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3강을 제시하면서 “○○之亟宜○○者”라는 일정한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앞의 두 글자는 다루고자 한 대주제이고 뒤의 두 글자에는 다루는 주제에서 필요한 조치를 표현했다. “○○에서(之) 서둘러 ○○해야 할 일(亟宜)”의 식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같은 표현에는 모두 제안자의 절박한 위기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이 3강에서 첫째 강은 2개의 목을, 둘째 강은 3개의 목을, 셋째 강은 6개의 목을 이끌고 있다. 그러니까 2-3-6의 목을 유지하며 총 11개의 목을 둔다. 글의 구성은, 대체로 ‘현실의 문제제기 → 제안 → 반론에 대한 반박 → 제안의 확립과 그 기대효과’의 순서를 밟고 있다.

‘3강 11목’ 체제인 『의상경제책』의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글의 모두에 농사짓고 있는 재야 지식인으로서 글을 쓰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서술했고, 바로 이어지는 제1강에서는 제1목인 ‘결부법을 경묘법으로 고치기’와 제2목인 ‘척과 보를 바꾸어 옛 제도를 따르기’라는 두 조목으로 풀었다(이하 표7 참조). 제1목은 서유구의 『의상경제책』에서 가장 토대가 되는 주장으로 전체 11개의 목 중 2번째로 분량이 많다. 제1~2목은 정확한 주척을 기준으로 토지제도를 중국의 경묘법 제도로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제1강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약 22퍼센트이다.

제2강은 목이 3개로, 제1목인 ‘방전법을 써서 은닉한 땅을 찾아내기’와 제2목인 ‘농지 계산법을 나눠주어 미리 연습하도록 하기’, 그리고 제3목인 ‘전답 기관을 설치하여 근무 태도 평가하기’로 풀었다. 제1강에서 양전을 위한 대전제를 확립했다면 제2강에서는 그 대전제를 현실화시키는 양전 방안을 제시한다. 제2강의 3목 모두 양전을 정확하게 시행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1목에서는 방전법이라는, 정사각형 모양으로 농지 넓이를 재는 방법이 양전법에서 좋은 이유를 들었다. 제2목에서는 다양한 농지 형태에 따라 넓이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119) 필자가 확인한 바로 이보다 더 긴 농정 제안서로는 철종 13년(1862) 강위(姜緯, 1820~1884)가 삼정책에 대해 쓴 ‘의삼정구폐책擬三政揅弊策’ 하나만 오로지 발견될 뿐이다. 국정 전반에 관한 견해를 적는 상소도 분량이 많은 경우, 선조 대 우부승지右副承旨였던 이이(李珣, 1536~1584)가 쓴 만언봉사(萬言封事, 1574, 11,600여 자)로 대표되듯이 만언 즉 1만 자 내외이다. 숙종 대 우의정 신완(申琬, 1646~1707)의 만언봉사가 예외적으로 상당히 많은 분량이다.(25,946자) 이 때 제출되는 상소의 내용은 주로 시무와 관련한 국정 전반의 문제를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농정만을 만언봉사처럼 긴 글로 제안한 글은 없었던 것 같다.

일종의 ‘실전문제’ 같은 성격을 띠는 내용이다. 제3목은 양전 전담 기관을 설치하여 양전 과정에서 생기는 비리를 예방하고 정확한 측량이 될 수 있도록 지방 수령을 제도적으로 평가하자는 제안이다. 제2장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9퍼센트이다.

제3장에서는 경묘법이라는 토지제도가 적용된 농지에서 실제로 농산물의 수확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경제 성장 대책을 실었다. 앞 2개의 장이 전세를 거두는데 주력하는 전정田政이라면, 제3장은 농지에서 실제 생산량을 높이는 권농 및 기술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농정農政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모두 6개의 목으로 나누어 서술했다.

이 중 제1목 ‘위도 측정으로 정확한 때 알려주기’는 농시農時를 아는 데 그 지역의 위도가 한 요소로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2목은 ‘농법을 가르쳐 땅심 다 쓰기’로, 저자가 농학에 몰두하면서 체득한 농업 생산력 증대 방안 중 세부적인 농업 기술을 제안했다. 여기에서는 특히 조선 농업사에서 저자가 가장 깊이 연구한 견종법(대전법)이라는 밭 농법의 전국적 확대를 주장한다. 제3목 ‘좋은 종자 구입하여 재해 대비하기’는 중국에서 나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 종자를 구입하여 조선에 보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제4목은 ‘수리를 진흥시켜 가뭄과 장마에 대비하기’로, 농업 기술에서 빠트릴 수 없는 수리에 대해 아주 세밀한 기술까지 제안한다. 제2목과 더불어 농정의 구체적 기술로 가장 정성을 많이 들인 분야이기도 하다. ‘번진 금지하여 명과 실 밝히기’라는 제5목은 논으로 만들 수 없는 밭을 논으로 만들면서 흉작을 초래하는 당시의 세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물을 확보하기 어려운 논은 아예 만들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하자는 엄정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 제6목은 ‘둔전을 넓혀 부국 만들기’이다. 여기에서는 서유구 자신이 판단하기에 가장 현실성이 있는 농지운영책이자 경제 부흥책으로 둔전 경영론을 제시했다. 서울 주변 네 군데의 활용 가능한 농지를 국가에서 매입하여 최대의 생산성을 올림으로써 이 성공 사례를 팔도 감영과 읍까지 확대시키고 북방의 국경 지역과 남방의 도서 지역의 둔전 설치를 통해 탄탄한 생산 기반을 바탕으로 국방을 강화하려는 계획이다. 앞의 10개 목에서 펼친 제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 부흥의 동력을 제시하려는 시범농장 운영론이었던 것이다. 제1장이나 제2장 전체의 분량보다 많으면서, 11개 목 중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했던 이 제3장은 전체의 26퍼센트 가량을 차지한다. 이를 포함하여 제3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58퍼센트이다.

2.3. 제2사환기 및 <<임원경제지>> 정리기(1823~1845)

홍문관 부제학을 사임하고 정계를 떠나고서 18년 째 되는 해에 서유구는 정계에 복귀하여, 이후 16년을 다시 조정의 여러 고위직을 거쳤다. 이 제2사환기는 탄핵을 받는 등의 굴곡이 없는, 외형적으로 비교적 순탄한 시기였다. 60세부터 시작된 이 시기에 서유구는 귀농기에 구상했던 자신의 농정론을 펼치고자 했고, 정계 은퇴 뒤에는 <<임원경제지>>에 실린 방식대로 삶을 실천하려고 했다. 이와 동시에 죽을 때까지 <<임원경제지>>를 교정하는 작업을 놓지 않았다.

이 절에서는 서유구가 사환의 임무 수행 중에 특히 농정에 주력한 일, 그리고 <<임원경제지>>를 정리하고 이를 생활에서 실천했던 과정을 살피기로 한다. 이 시기는 『의상경제책』이 저술된 이후의 시기로서, 『의상경제책』에서 펼쳤던 농정론을 서유구가 어떻게 적용하려 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3.1. 농정론의 현장 적용

서유구는 지방관 재임 시 활동 내역을 기록한 행정 일지를 남겼다. 『완영일록 完營日錄』과 『화영일록華營日錄』이 그것이다. 『완영일록』은 전라도 관찰사 시절(순조 33년 4월 10일~순조 34년 12월 30일)¹²⁰⁾의, 『화영일록』은 수원부 유수 시절(헌종 2년 1월 1일~헌종 3년 12월 12일)¹²¹⁾의 일지이다. 도 관찰사 급의

120) 현존하는 『완영일록』의 기록은 이때까지만 남아 있으나 서유구가 감사 직을 그만 둔 때는 실제로 이듬해 3월 중순 경이다. 서유구는 헌종 1년(1835) 1월 12일 이전 해에 사망한 순조의 장례에 참여하겠다고 전라 감사 사직 상소를 올렸고, 같은 날 후임으로 김흥근(金興根, 1796~1870)이 임명되었다. 하지만 김흥근이 감사 직을 사퇴하겠다는 상소를 올리면서(헌종 1년 1/17) 근무지로 가지 않자, 3월 6일 대왕대비가 김흥근을 접견하여 감사 직을 잘 수행하라고 권유했고 이날 임명장(교서)이 작성되었다. 그로 인해 서유구는 1월 22일 예문관 제학에 임명되었지만, 한양으로 올라갈 수 없어 3월 11일에는 청나라 황후 책봉과 관련한 교서를 작성해야 할 책임자인 예문관 제학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같은 날 김흥근이 비로소 임지로 가기 위해 국왕에게 하직인사를 했기 때문에(『비변사등록』 헌종 1년(1835) 3/11), 서유구는 적어도 이후 며칠 동안은 전라 감사 직을 수행했을 것이다. 『비변사등록』의 출처를 제외한 내용은 모두 『승정원일기』의 해당 날짜 기사를 참조함.

121) 화성 유수 임명은 1월 12일이고 임명장을 1월 26일에 받았으며 다음 날 부임지로 갔지만 기록은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華營日錄』, 3~10쪽; 번역본은 이해영 역, 『華營日錄』, 경기도박물관, 2004, 17~25쪽 참조.

행정 일기로서는 유례가 거의 없을 만큼 드문 기록인데, 이 일록들을 통해 서유구가 행정 현장에서 농정을 어떻게 펼쳤는지 엿볼 수 있다. 그는 농정과 관련하여 묵은 땅의 개간을 독려했고,¹²²⁾ 기근으로 고생하는 백성들을 진휼했으며,¹²³⁾ 농사를 부지런히 짓고 병자나 약자의 농지도 서로 도와 놀리는 일이 없도록 권농에 힘썼으며,¹²⁴⁾ 소 도축으로 인해 발갈이 효과가 낮아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소 도살 금지령을 강화했고,¹²⁵⁾ 가뭄이나 홍수를 대비해 수리시설을 자주 수축했으며¹²⁶⁾ 이와 동시에 가뭄 때 수차를 보급하기도 했고,¹²⁷⁾ 고구마 재배법을 정리한 『종저보』를 보급하는¹²⁸⁾ 등의 일에 역점을 두었다.

지방관으로서의 그의 이 같은 활동은 귀농기에 펼쳤던 그의 농정론 일부를 백성에게 몸소 시행하려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비록 『의상경제책』의 핵심 주장인 경묘법頃畝法으로의 토지제도 개혁(1.1), 농정론의 대표적인 주장인 견종법 보급(3.2), 둔전을 통한 농업 생산량 확대(3.6) 등 중앙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정책까지 시도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실제 농정은 일반 지방관의 의례적 권농에서 한 발 더 나아갔다.

개간, 진휼, 권농, 소 도살 금지, 수리시설 수축 등 중앙 정부의 지속적이고 주요한 관심사를 잘 시행하려 하는 한편, 소 도살범칙금으로 소를 구입하여 발갈이를 돕는다거나, 정부에서도 포기했던 수차를 제작하여 농민에게 보급했다거나, 지방관 대부분이 관심을 두지 않았던 고구마 재배법을 보급하는 등 서유구는 중앙 정부의 명령 전달자에만 머물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 농업에 간여했다. 이 같은 과정은 농업 생산량 향상 즉 ‘농상성農桑盛’을 가장 우선 책무로 삼아야 하는 지방 수령의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결과였다. 이제 서유구가 시행한 이상의 농정을 ‘우금牛禁’과 ‘수리’, 그리고 ‘대전법(또는 견종법)’ 보급 정책을 중심

122) 이와 관련된 사례는 다음을 참조. 이하 동일. 徐有渠 著, 林煥澤 編, 『完營日錄』 一,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2002, 139~141쪽(순조 33년 9/2). 이하 『完營日錄』과 『華營日錄』 주석은 서기년도 표기 생략.

123) 1836년 2월 27일부터 4월 27일까지 총 7회에 걸쳐 동일한 대상자들에게 진휼곡을 나누어주었다. 번역본 『華營日錄』, 46~87쪽.

124) 徐有渠 著, 林煥澤 編, 『完營日錄』 一, 500~504쪽(순조 34년 1/11); 『完營日錄』 二, 248~256쪽(순조 34년 3/23); 번역본 『華營日錄』, 31~32쪽(순조 36년 2/1) 등.

125) 『完營日錄』 一, 15~19쪽(순조 33년 4/22), 『完營日錄』 二, 256~257쪽(순조 34년 3/23); 번역본 『華營日錄』, 31~32쪽(헌종 2년 2/1).

126) 『完營日錄』 一, 99~101쪽(순조 33년 8/3), 238~241쪽(동년 10/24); 『完營日錄』 二, 50~53쪽(순조 34년 2/6), 『完營日錄』 二, 78~79쪽(동년 2/11).

127) 『完營日錄』 二, 602(순조 34년 7/5)·606(동년 7/6)·608(동년 7/7)·614쪽(동년 7/8).

128) 『完營日錄』 三, 345~348쪽(순조 34년 11/13).

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복직한 뒤 처음으로 부여받은 지방관인 회양 현감 시절에는 소 발갈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그간 농사 경험과 농서 연구와 집필로 농정에 대한 국가적 안목을 확보한 서유구는 지방관으로 부임하자마자 그 지방의 특성을 간파한 뒤 소 발갈이 보급을 첫 번째의 농정으로 삼았다.¹²⁹⁾ 당시에 소는 장정 몇 사람의 노동력을 대신하는 매우 중요한 ‘농부’였다. 소를 농가마다 보유하는 일은 그 당시 매우 어려웠는데, 117마리나 되는 소를 마을에 보급했다면 이는 결코 작지 않은 사업이었다. 물론 이 소를 농민들에게 무료로 보급한 것은 아니었다. 소를 빌려주고서 값을 받아서 그것으로 밀린 세금으로 충당했던 것이다.¹³⁰⁾ 이런 행적이 뒷날에도 회자되는 미담이었는지, 뒤에 서유구의 인척인 홍양호(洪良浩, 1724~1802)의 손자 홍경모(洪敬謨, 1774~1851)가 서유구의 시장謚狀을 쓰면서 이 일화를 남겨놓기도 했다.¹³¹⁾

서유구는 이후 지방 농정에서도 소의 활용을 매우 중요한 시책으로 삼았다. 전라도 관찰사(1833~1834년), 수원부 유수(1836~1837년) 등 광역을 관장하는 고위 지방관으로 재직할 때에는 소 도살을 엄금하고 소 발갈이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농민에게 권장했다.¹³²⁾ 당시 우금牛禁이라는 소 도살 금지법이 있었는데도 법

129) 서유구의 회양현감 2대 후임이었던 홍희조가 자신의 상소문에서 이 사실을 적시했다. “회양현감 홍희조가 상소에서 이렇게 말했다. ‘(중략) 전전 현감 신 서유구가 감영에 보고한 내용을 중앙에 알려준 바에 따르면, 공명첩 400장을 받아 이를 판 자금으로 암소 117마리를 구하여 각 마을에 나누어 주고서 농사 밀친을 삼아 개간을 권장하는 근본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淮陽縣監洪義祖疏曰:“(중략)所以前前縣監臣徐有渠報營轉聞,請得空名帖四百張,買取雌牛一百十七頭,分授各里,以爲資農勸墾之本.” 『승정원일기』 순조 26(1826) 9/3.

130) “收其雇貫三百餘兩,防給各里虛名一百餘額之布,其所不足,尙爲三百餘額,未及究竟,旋即去官.” 같은 기사.

131) “회양은 동쪽의 요로이자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다. 백성은 흩어져있고 논밭은 황폐하여 하늘이 주는 농시에 인력이 못 미친다. 공(서유구)은 부임한 날 관원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다. ‘발해渤海에서 백성에게 소를 사도록 권장한 일과 여강廬江에서 사람들에게 소 발갈이를 가르친 일을 어찌 여기에서 헛되이 하겠는가.’ 그리고서 이 계획을 강원감사에게 보고하고서 공명첩을 청하여 얻은 뒤, 공명첩을 팔아 소를 사서 면과 리에 나누어주고 서로 부지런히 하자고 격려했다. 淮東之孔路岩邑也.民散田荒,人工不逮於天時.公於下車之日,率籲衆感曰:‘渤海之勸民買犢,廬江之教人牛耕,夫豈徒然於是乎?’謀及道伯,請得空名帖,賣帖買牛,分授面里,勸相斯勤.”(洪敬謨, 「謚狀」(『完營日錄』 三, 519쪽)) 평민 부호에게 공명첩을 팔아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소 발갈이 하는 권농에 투입하는 행정을 높이 평가했던 것이다. 아마도 지방관이 적극적으로 소를 구입하여 농사에 활용하는 농정을 시행하는 일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같은 사례를 부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132) 『完營日錄』 一, 15-368-457쪽; 『完營日錄』 二, 10쪽, 『完營日錄』 三, 177-315-324-447쪽; 『華營日錄』 헌종 2년 2/1, 「勸農傳令」, 12/17 「傳令」, 헌종 3년 5/27 「甘結」 등. 曹蒼錄, 앞의 논문, 146쪽 주41 참조.

을 위반하여 고기를 저자에 파는 일이 빈번했다. 소 도살은 농사의 황폐화와 직결됨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인식했던 그로서는 이 같은 현상을 좌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서유구는 우금을 어긴 이들에게는 우속전牛贖錢이라는 도살범칙금을 받아 진휼 재원으로 쓰기도 했다.¹³³⁾

또 소 자원의 확보를 위해 소 전염병[牛疫]에 적극 대처하기도 했는데, 전라 감사 시절 우역이 돌자 「우역방(牛疫方, 소 전염병 처방문)」을 관내에 배포했다.¹³⁴⁾ 「우역방」과 동시에 하달한 공문[甘結]에서는 우금을 철저히 지키도록 다시 상기시키고, 동봉하는 우역 처방을 곳곳에 돌려 많은 이들이 활용하라고 지시했다.¹³⁵⁾ 이렇게 우역 관련 내용을 신속히 정리하여 하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임원경제지>> 『전어지』에서 이미 이 같은 정보를 확보해 두었기 때문이었다.¹³⁶⁾

서유구는 농정에서 수리水利 시책에도 역점을 두었다. 그의 수리 시책은 전라 감사와 화성 유수 재임 시의 활동에서 그 일단이 보이는데, 서유구는 조선 역사상 수차水車를 제작하여 반포한 유일한 지방관으로 보인다. 전라도 관찰사로 재직할 때는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수차를 제작해 관할 군현에 배포했고, 전라도 화순 유생 하백원(河百源, 1781~1845)¹³⁷⁾이 설계한 자동양수기 ‘자승차(自升車)’를 제작하려고 그에게 세 차례나 간곡한 서신을 띄우기도 했다. 수차는 인력으로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농사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서, 이에 대해 서유구는 전문적 소양을 지니고 있었다. 서유구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승차 시범 제작은 그것이 작동할 지에 대해 자신이 없던 하백원의 거부로 결국 이루어지지

133) 孫炳圭, 「徐有渠의 賑恤政策-『完營日錄』·『華營日錄』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제42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98쪽 표1 참조.

134) 『完營日錄』 一, 순조 34년 1/17 「牛疫方」, 525~53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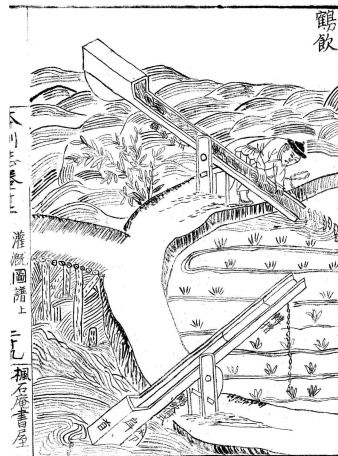
135) 같은 책, 순조 34년 1/17 「甘結」, 523~525쪽. 「우역방」은 총 26가지 치료 방법만을 담고 있는 전문 처방문으로, 글자 수는 1,097자에 달한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사시유요四時類要』·『제민요술齊民要術』·『농정전서農政全書』·『박문록博聞錄』과 같은 중국 농서류와 『증보산림경제』·『과농소초課農少抄』 같은 조선 농서,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난호어목지』에 반영되기도 했다.

136) <<임원경제지>> 38 『전어지』 권2 「목축·양어·양봉(하)」 “소” ‘치료하기’의 하부 항목으로 된 세 표제어 즉 ‘치우역방(治牛疫方, 소 전염병 치료법)’, ‘예방우역방(豫防牛疫方, 소 전염병 예방법)’, ‘치우역비방(治牛疫秘方, 소 전염병 치료하는 비방)에 나온다. 역자 및 편집위원회 옮김, 『전어지 목차』, 개관서, 787쪽.

137) 하백원은 순조와 헌종 연간에 활동한 학자로 신경준(申景濬, 1712~1781), 위백규(魏伯珪, 1727~1798), 황윤석(黃胤錫, 1729~1791)과 함께 호남 4대 학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성리학 적 의리학에 머물지 않고 천문·지리·율력·산수·후종候鐘·서화도장 등 여러 분야에 관심을 기울였다. 나경적羅景績이 제작한 자명종을 보완했고, 『동국지도東國地圖』와 『만국전도萬國全圖』를 모사했으며, 계영배戒盈蠹와 향흡기缸吸器를 만드는 등 뛰어난 기술을 지니고 있었다.

못했다.¹³⁸⁾ 다만 자승차 제작법을 실은 「자승차도해」를 <<임원경제지>> 『본리지』의 맨 마지막에 거의 전문을 옮겨두었고, 자신이 편찬하려 했던 <<소화총서 小華叢書>>에 실으려 했을 뿐이었다.¹³⁹⁾

하지만 서유구는 수차 보급을 포기하지 않았다. 같은 해 초 소 전염병이 돌았을 때 「우역방」을 하달하여 신속히 전염병 퇴치와 예방에 대처했던 사례처럼, 가뭄에 대해서도 또다른 대비책을 강구해두었다. 수차인 학음鶴飲의 제작과 반포가 그것이었다. 학음은, 머리 쪽에는 물을 담을 수 있는 통이 있고 이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긴 홈통을 만든 구조물로, 이를 시소처럼 가운데 부분에 받침대를 연결하여 상하운동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그림1). 서양의 여러 기물들을 소개한 『제기도설諸器圖說』¹⁴⁰⁾에서 인용한 이 수차는 학이 물을 마시는 모습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 이름이 붙여진 것 같다.¹⁴¹⁾



<그림1> 학음

출처: 『본리지』 권12 「그림으로 보는 관개시설 (상)」(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임원경제지 본리지』 3, 357쪽).

138) 서유구의 자승차 개발과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정명현, 「서유구는 누구인가」, 개관서, 193~204쪽 참조.

139) 『본리지』 권13의 마지막 기사와 「小華叢書目錄」(미국 버클리대 동아시아도서관(아사미 문고) 소장본으로, 고려대 해외한국학자료센터에서 웹으로 제공하는 ‘林園十六志引用書目’ 이미지의 57쪽)을 참조.

140) 명나라 왕징王徵이 서양 선교사 테렌츠(Terenz, J., 鄧玉函)의 『기기도설』(1627년)의 영향을 받아 편찬한 책으로, 11개의 기물 도해가 실려 있다.

141) 『제기도설』의 원문과 그림은 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임원경제지 본리지』 3, 소와당, 2009, 356~357쪽 참조.

서유구는 학음을 제작하여 7월 초순 4일에 걸쳐 전라도 관할 군현 총 8곳에 각각 1대씩 하달했다.¹⁴²⁾ 시험해 보아서 효과가 있으면 그대로 본떠서 더 제작한 뒤 활용하라는 지시도 함께 내렸다.¹⁴³⁾ 하백원과의 서신 교환에도 불구하고 자승차 제작 시도가 물거품이 되자 곧장 학음을 제작하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학음 반포 결과에 대한 기록이 없어 전라도에서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용했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용미차 제작 경험, 자승차 제작 시도, 학음 제작과 반포 등 일련의 사례에서 서유구가 수리 정책을 현실에 적용하려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서유구는 수리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많이 밝히지는 않았으나, 중국 농서에 축적된 수리 지식과 정보를 최대한 반영했다. 그의 농서 『행포지』에서는 수리 부분이 권 하나의 분량도 안 되었으나,¹⁴⁴⁾ 『본리지』에서는 전체 13권 중 3권을 수리 내용으로 할애했다. 이는 『본리지』 전체의 1/5을 넘는 분량이다.¹⁴⁵⁾ 또한 『의상경제책』에서는 ‘농정에서 서둘러 시행해야 할 여섯 가지’ 중 하나로 수리 정책을 내세우면서 조선의 수리 문제와 해결 방안을 상세히 피력했다.¹⁴⁶⁾ 여기에서 그는 국가적 차원에서 수리 진흥책을 제안하면서 5가지 수차 등을 제작하자고 건의했다(3.4.30).¹⁴⁷⁾ 수차 제작 논의는 조선 전 시기에 걸쳐 여러 차례 있었으나 실제로 제작하여 농부가 활용하도록 한 예는 거의 찾을 수 없을 만큼 수차 보급 정책은 전무하다시피 했다.¹⁴⁸⁾ 이런 상황에서 그가 수차를 실제로 지방 관아에 보

142) 순창(7월 5일), 나주·임피(7월 6일), 남원·광주·영광·나안(7월 7일), 고부(7월 8일) 등이 그곳이다. 『完營日錄』 二, 602~615쪽.

143) “佃夫先試於赤城江沿流之處,以爲沾潤洗滌之地爲乎矣.引水之功,此若便利是去等.境內水根稍裕處,使之依樣造出,以爲一齊試用之地事.”(밑줄 부분은 이두) 같은 책, 603쪽.

144) 『행포지』에 수록된 수리 부분은 총 1,206자였다. 『杏菴志』 卷1 「水利」(『農書』 36, 57~63쪽).

145) 『본리지』 권2 「수리」, 권12 「그림으로 보는 관개시설 상」, 권13 「그림으로 보는 관개시설 하」가 그것으로, 글자 수는 총 29,458자(『본리지』 전체 글자 수는 151,254자)였다. 특히 권12~13에 수록된 그림은 총 51폭이나 되기 때문에 『본리지』에서 다른 수리 부분의 양은 글자 수의 비율(약 19.5퍼센트)보다 상회하는 분량으로 보아야 한다.

146) 『의상경제책』의 수리 부분은 2,713자로 전체의 1/10을 상회한다(약 10.7퍼센트). 수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후술한다.

147) 이때 거론한 수차는 주로 중국의 전통 수차와 『태서수법泰西水法』에 수록된 수차였다. 『태서수법』은 1612년 이탈리아 선교사 우르시스(熊三拔, Sabbathino de Ursis, 1575~1620)가 구술한 내용을 서광계(徐光啓, 1562~1633)가 정리한 책으로 총 6권이다. 권1은 용미차, 권2는 옥형차·항승차, 권3은 물탱크 만드는 법(수고법), 권4는 우물 파는 법·물 치료법, 권5는 수법(水法)에 관한 문답, 권6은 권1~3에 나오는 내용들의 그림을 소개하고 있다. 『의상경제책』에 학음을 비롯한 『기기도설』이나 『제기도설』 등에 수록된 수차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학음에 관한 정보는 『의상경제책』 저술 이후에 얻은 것 같다.

148) 조선의 수차 보급론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문중양, 『조선후기 水利學과 水利담론』; 정명현, 「

급했다는 사실은, 수리 정책을 현장에서 구현해야 한다는 그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일례이다.

마지막으로 서유구는 새로운 경종법耕種法의 보급에도 힘썼다. 예를 들어 호조판서 재임 시에 중국 농법인 대전법(代田法, 골에 작물을 재배하는 법)을 조선에 도입하려 했다는 기록이 있다. 서유구를 존경하고 따랐으며 고종 대에 영의정을 역임했던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이 쓴 일화가 그것이다.

옛날에는 밭이 많고 논이 적었기 때문에 부종(付種)하는 법이 있었다. 임진왜란(1592) 뒤부터 이쪽(밭)의 김매고 복주는 일을 싫증내고 저쪽(논)의 편하고 쉬운 일을 익혔으니, 이것이 소위 모내기다. 풍석 서공(서유구)이 호조판서에 재임하면서 한나라와 당나라의 고사를 인용하여 부종하는 농법을 회복하자고 청했는데, 이는 풍석이 농사에 익숙했기 때문이었다.¹⁴⁹⁾

여기서 부종하는 농법은 논농사가 아니라 밭농사의 농법이다.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논을 밭으로 바꿔 밭벼나 조·맥류 같은 곡식을 재배하는 방식이다. 이때 조나 맥류 재배법은 한나라의 대전법을 말한다. 이 같은 농법을 『본리지』나 『의상경제책』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농가에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는데, 호조판서였던 서유구가 국가 정책으로 제안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은 당시 정부 문서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16년간의 제2사환기에 서유구는 농업 전문서 『행포지』를 1차 완료했고(1825),¹⁵⁰⁾ 구황을 타개하기 위해 고구마 재배법을 기록한 『종저보』를 편찬·보급했다(순조 34년(1834) 3월).¹⁵¹⁾ 역시 전라 감사 시절에 했던 작업이었는데, 흉년으로 백성들이 흩어지는 상황을 목도한 서유구는 고구마를 재배하는 지역에서 재배법을 묻고 서광계의 『감저소甘藷疏』, 강필리(姜必履, 1713~?)와 김씨의 『감저보甘藷譜』 등을 참조하여 이를 편찬했던 것이다.¹⁵²⁾ 『종저보』의 거의 대부분은 <<임

‘임원경제’의 제도적 시도와 복학론의 집대성, 개관서, 195~200쪽을 참조.

149) “古者旱田多而水田少,故有付種之法.自壬辰後,厭此耘耔,習彼便易,是所謂插秧也.楓石徐公在度支,引漢唐古事,請復付種之規,蓋習於農也.” 이유원, 『임하필기』 제27권 「춘명일사春明逸史」 ‘농부에 대한 이야기’. ‘한국고전종합DB’ 참조.

150) 이후 책은 거의 1840년까지 보완되었다.

151) “上之三十四年甲午(1834)季春,湖南巡察使徐有渠書于觀風軒中.” 徐有渠, 『種藷譜』 「種藷譜序」(『農書』 36, 亞細亞文化社, 1986, 433쪽).

152) “余爲是懼,亟訪諸種於產藷州君,頒諸列邑.且取皇明徐玄扈甘藷疏·我東姜金二氏之譜,彙類編纂.” 같

원경제지>> 『만학지』의 ‘고구마’ 조에 재 수록되었다. 또 사헌부 대사헌이었던 1838년에는 가뭄이 크게 들자 중국에서 가뭄에 잘 견디는 종자를 수입해서 재배 하자는 건의를 올려 이를 성사시키기도 했다.¹⁵³⁾

이상에서 살펴듯이 서유구는 정계 복귀 후, 재야 시절 축적한 자신의 농업론과 농정론을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에서 펼치려 노력했다. 하지만 『의상경제책』에서 주장한 양전법, 토지제도의 개혁, 둔전론 등, 서유구가 보기에 조선 농정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시도를 하지는 않았다. 이 같은 제도적 개선은 군주를 비롯한 관료들과 여론의 지지를 받아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입론을 주장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2.3.2. 『종저보』(1834)와 비황3책(備荒三策, 1838)의 농업론

여기서 제2사환기에 서유구가 실행했던 농정 중 글로 남아 있는 두 자료인 『종저보』와 ‘비황3책’을 주장한 상소문에서 보이는 그의 농업론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여러 작물 중 고구마에 대한 서유구의 애착은 지대했다. 고구마 관련 정보가 실린 <<임원경제지>> 『만학지晚學志』에는 “고구마” 조가 표제어(15개)와 글자수(7,144자, 전체의 10.5퍼센트)에서 가장 많다. 1765년에 일본에서 들여왔다고¹⁵⁴⁾ 그가 적어 놓았던 고구마 재배법은 아직 조선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다.¹⁵⁵⁾

서유구는 고구마에 대해 구황의 측면에서 주목했다. 호남관찰사로 재직하던 시절(1834년) 호남 지방의 기근으로 농민들이 농지를 등지면서 생긴 너른 황무지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같은 해에 고구마에 관한 정보를 모은 『종저보種諸譜』를 지었다.

갑오년(1834년) 나는 호남을 시찰하다 노령 남북 지역에 있는 평야의 넓은 밭에 끝없

은 책, 432쪽.

153)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2.3.2소절 참조.

154) 이와 같은 견해로, 이규경은 1764년에 일본에서 들어왔다고 했다. “我東自英廟朝甲申, 七灘李匡呂從倭得來.” 『五洲衍文長箋散稿』 「人事篇」 “糶糴賑恤” ‘山野荒政辨證說’.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참조. 이하 동일.

155) 그에 관해서는 다만 김장순(金長淳, ?~?)과 강필리 두 사람의 책(『김씨감저보金氏甘藷譜』, 『강씨감저보姜氏甘藷譜』)과 『증보산림경제』에 일부 실려 있을 뿐이었다.

이 이어진 황무지를 곳곳에서 보았다. 그 지역 사람에게 물어보니 “옛날 기사년(1809년)과 갑술년(1814년) 기근 때 농민이 떠나고서 흙에 농기구를 들이지 않은지 오래 되었습니다.”라고 했다. 아! 하늘이 때를 주고 땅이 산물을 준 것은 모두 사람을 기르기 위함이다. 그러나 다만 사람의 기술이 미치지 못함으로 인해 하늘이 준 때를 버리고 땅이 준 산물을 막는 것이다. 공간적으로 토지를 헤아려볼 때 잃어버린 땅이 몇 천, 몇 만, 몇 억이 될지 모른다. 또 시간적으로 햇수를 헤아려볼 때 정교한 역산가라도 어떻게 그 수를 다 헤아리겠는가.¹⁵⁶⁾

재배 기술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이런 기근이 왔다고 판단한 서유구는 고구마를 수직, 수백 구덩이만 재배해도 흉년에 굶주리지는 않을 것이라 믿었다.

『중저보』에는 고구마의 유래, 심는 시기, 재배법, 수확법, 저장법, 치료법, 활용법 등에 대해 다양한 정보들이 담겨있다. 요즘처럼 두둑에 고구마 순을 쫓는 획일적 농법보다 훨씬 다채롭고 풍부한 면모가 드러난다. 『중저보』에서는 고구마에 대해 총 14개의 조목으로 분류하고 그 주제에 적합한 내용을 모았다. 내용은 주로 서광계의 『감저소甘藷疏』와 『김씨감저보』·『강씨감저보』·『군방보群芳譜』 등이 주로 이용되었다.¹⁵⁷⁾

서유구는 전라도 53개 읍 전 지역과 법성진法聖鎭에 이 『중저보』를 배포했다.¹⁵⁸⁾ 그는 순조 34년 11월 13일에 고구마 재배를 촉구하는 관문關文을 하달하면서 먼저 고구마의 장점들을 강조했다. 즉 고구마는 흙의 비옥도나 지역을 가리지 않고 재배할 수 있는 유일한 채소류이며 더구나 가뭄이나 해충의 피해를 보지 않고 곡식 대용으로 쓸 수 있어서 흉년을 구제할 수 있는 특이한 작물이라는 것이다.¹⁵⁹⁾ 그런데 전라도 일부 해안 지역인 태인·강진·해남 등지에서만 고구

156) “歲甲午,余巡按湖南,見蘆嶺南北往往有平疇衍壠一望汙萊.詢之土人曰:‘往值己巳·甲戌之饑,佃戶流亡,鋤基不入者久矣.’噫!天與之時,地與之產,皆所以養人也.而特因人工之不逮,拋天之時,錮地之產,橫計於土地,所失者將不知爲幾千萬億,豎計於歲年,巧曆何以窮其數哉?” 『種藷譜』 「種藷譜序」(『農書』 36, 431~2쪽).

157) 『중저보』는 <<임원경제지>> 『만학지』와 『정조지』에 반영되었는데, 특히 『만학지』 권3의 “고구마” 조에는 이 『중저보』의 대부분이 들어 있다. 분량으로는 『중저보』가 조금 많은데, 이는 『중저보』의 내용이 『만학지』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삭제되거나 다른 지(『정조지』)로 기사가 이동되면서 생긴 현상이다. 즉, 『만학지』의 “고구마” 조가 『중저보』를 거의 그대로 반영했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고구마” 조와 『중저보』의 표제어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 “고구마” 조와 『중저보』의 내용 차이에 관한 분석은 정명현, 「만학지 해제」, 개관서, 608~609쪽을 참조. 한편 『만학지』에서는 『중저보』라는 인용문헌이 기록되지는 않았다. 『중저보』를 옮기면서도 이 책의 내용대로 원 출전을 밝히고 안설도 그대로 썼을 뿐이다.

158) “以種藷申飭事,發關五十三州·法聖.” 『完營日錄』 三, 345쪽(순조 34년 11/13).

159) “菓蔬之救飢而濟人者非止一二種,而地不無饒瘠之別,產或有南北之異是矣.惟此甘藷一種.無土不宜,

마 재배가 이루어질 뿐 이 외의 지역에서는 고구마가 무엇인 줄도 모르는 상황을 그가 목도하고는¹⁶⁰⁾ 급히 여러 자료를 모아 활자로 간행하여 하달한 것이다.¹⁶¹⁾ 『종저보』를 접한 전라도 백성들이 고구마를 얼마나 더 재배했으며 얼마나 유용하게 흉년에 활용했는지 더 추적할 수는 없었으나,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고구마가 보급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에 서유구의 기여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서유구는 그의 말년(1838년, 75세)에 국왕에게 농정에 대한 글을 올렸다. 그 해에는 경기·충청 지방의 경우 20년 만에 처음 있는 가뭄이 계속되었다.¹⁶²⁾ 기우제를 무려 열 차례나 지냈으며 이례적으로 종묘에서 지내기도 했다.¹⁶³⁾ 기우제가 한창일 때 서유구가 사헌부 대사헌으로 임명되자 보름 뒤 그는 사직 상소를 올리며 아울러 구황책을 건의했다.¹⁶⁴⁾

그는 이 상소에서 ‘비황3책(備荒三策, 구황책 3가지)’¹⁶⁵⁾을 제안했는데, ① 좋은 품종을 중국에서 구입하기, ② 수리사업 일으키기, ③ 변전 금지하하기가 그것이다. 이 3가지 중 ②는 그가 쓴 모든 농정론에 들어 있던 ‘약방의 감초’였고, ①은 『의상경계책』에서, ③은 ‘응지소’와 『의상경계책』에서 제기했던 내용이다. 이 제안들은 『의상경계책』 11조목 중 3조목만이 선택된 것으로, 모두 제3강綱인 ‘농정에서 서둘러 시행해야 할 일’에 속해 있다(표8). 『의상경계책』을 쓰고서 18년이 지난 뒤에 국왕에게 올린 농정 상소에서 『의상경계책』의 11조목 중 나머지 8조목은 전혀 거론하지 않았고 3조목만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반복한 것이다.

旱蝗不能害;代穀爲食,歉荒不能灾.功居百菜之長,利在五穀之列,此誠奇種也.” 같은 책, 345~346쪽.
 밑줄은 이두(이하 동일).

160) “本來傳殖,如泰仁·康津·海南等若而邑外山野諸邑段,不知諸爲何物,雖有荒陂隙地之可以種諸代糧者良置一切拋置不曾留意.” 같은 책, 346쪽.

161) “亟取諸家甘藷疏譜,彙類編輯,活字開印,茲以搨本一卷下送爲去乎.” 같은 책, 347쪽.

162) “今年畿·湖閏月之旱,儘是廿年初有之災.” 『승정원일기』·『내각일력』 현종 4년(1838) 6/10 서유구 상소문.

163) 『승정원일기』 현종 4년(1838) 5/6~6/10.

164) 『승정원일기』 현종 4년(1838) 5/25, 6/10. 상소문 요약본은 『헌종실록』 같은 날 기사에 있다.

165) ‘비황3책’은 서유구가 쓴 표현이다. “무술년(1838) 여름 심한 가뭄이 들어서 나는 명을 받들고 기우제를 지냈으나 비는 내리지 않았다. 얼마 뒤 사헌부 대사헌에 임명되자 비황3책을 건언했는데, 그 중 하나가 중국 강남의 법씨를 구하는 일이었다. 戊戌夏旱魃爲災,余承命禱雨,未得雨.旋糜憲長,遂陳備荒三策而其一卽購求江浙稻種事也.” 『樊溪詩稿』 卷3, 10면.

<표8> 『의상경제책』과 대비되는 서유구 농업론의 변화

강	목	농대 (1790)	응지소 (1799)	행포지 (1825)	분리지 (1806~1839 경)	대사헌 상소 (1838)
1. 토지제도 에서 서둘러 개혁해야 할 일	1.1. 결부법을 경묘법으로 고치기	×	×	토지제도(권1)	토지제도-경묘 법과 결부법 (권1)	×
	1.2. 척과 보를 바꾸어 옛 제도를 따르기	×	×	토지제도(권1)	토지제도-경묘 법과 결부법 (권1)	×
2. 양전법 에서 서둘러 강구해야 할 일	2.1. 방전법을 써서 은닉 한 땅을 찾아내기	×	×	×	×	×
	2.2. 농지 계산법을 나눠 주어 미리 연습하도록 하기	×	×	×	토지제도-양전 법(권1)	×
	2.3. 전답 기관을 설치하 여 근무 태도를 평가하기	×	×	×	×	×
3. 농정에서 서둘러 시 행해야 할 일	3.1. 북극고도(위도) 측 정으로 정확한 때를 알려주기	×	×	律時(권1)	시후 살피기- 경도와 위도(권 3)	×
	3.2. 농법을 가르쳐 명심 을 다 쓰기	있음(일 부)	×	토지제도(권1), 과종과 심기 (권2)	토지제도(권1), 과종과 가꾸기 (권5·6)	×
	3.3. 좋은 종자 구입하여 재해에 대비하기	×	×	곡식 이름 고 찰(권4)	곡식 이름 고찰 (권7)	있음
	3.4. 수리를 진흥시켜 가 뭍과 장마에 대비하기	있음	있음	수리(권1)	수리(권2)	있음
	3.5. 번전을 금지하여 명과 실을 밝히기	×	있음	×	×	있음
	3.6. 둔전을 넓혀 부국을 만들기	×	×	×	×	×

『의상경제책』에서 이미 구상해놓았던 3조목은 ‘좋은 종자 구입하여 재해에 대비하기’(3.3), ‘수리를 진흥시켜 가뭄과 장마에 대비하기’(3.4), ‘번전을 금지하여 명과 실을 밝히기’(3.5) 등으로, 농정의 6조목 중 3·4·5번째에 실린 제안이었다. ‘비황3책’ 중 ①·③은 『의상경제책』에 실린 같은 주제의 축약판이었다. 주로 저수지 신설이나 수축을 다룬 ②(수리사업)에서는 2가지를 제안했는데, 지방관이 이 상황을 조사한 뒤 기민饑民을 모아 곡식으로 임금을 지불하면서 실행하는 방안이 그 하나였고 재정이 부족할 경우 관내의 부자들[饒戶]에게 장정을 모집하여 부역시키게 한 뒤 한나라의 역전과力田科처럼 그들의 농사 성과를 평가하여 관직을 제수하는 방안이 나머지 하나였다.¹⁶⁶⁾ 이를 통해서 기민을 구제하면서 동시에 수리시설을 확보할 수 있으니, 진휼책과 수리책을 동시에 성사시킬 수 있어서

근본적인 구황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¹⁶⁷⁾

이렇게 서유구의 ‘비황3책’에 담긴 정책은 『의상경제책』에서 건의하고자 했던 내용과 비교할 때 3조목만 언급되었고 그 분량도 약 6퍼센트 정도의 분량으로 대폭 축소되었다.¹⁶⁸⁾ 그의 농업론의 이 같은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 상황은 물론, 자신의 농업론을 반영한 그의 농서 및 <<임원경제지>> 등의 농업론을 함께 살펴야 할 것이다. 서유구는 말년에 <<소화총서小華叢書>>를 기획하면서 신라부터 당대까지 역대의 경·사·자·집 사부四部로 분류하여¹⁶⁹⁾ 주요서적을 집대성하려 했다. 이때 그가 모은 총 123종 중 자신의 저술은 3종만 포함시켰다. 그것은 사부史部의 『금강도경金剛圖經』, 자부子部의 『행포지』와 『종저보』였다. 「소화총서 목록」에 실린 77명의 역대 문장가 중 유득공(柳得恭, 1749~?)·이익(李瀾, 1681~1763)·성해응(成海應, 1760~1839)·서명응의 저술이 각각 8종·5종·5종·4종 실렸고, 정약용 저술의 경우 『역사전(易四箋, 주역사전)』·『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동국수경주(東國水經註, 대동수경)』 3종이 들어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서유구가 선택한 본인 저술 3종은 자신의 글 중에서 역사에 내놓을 만한 가장 자신 있는 저술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 중 2종이 농서인 『행포지』와 『종저보』였다. <<소화총서>>에 실린 저술은 1인 당 저술의 평균 종수가 1.57종이었다. 서유구가 문장을 배우기도 했고, 당대 문장가로 유명했던 박지원의 글은 한 편도 실리지 않았다.¹⁷⁰⁾

『행포지』에 들어 있으면서 『의상경제책』에 실어 놓은 경묘법으로의 토지 제도 개혁론이나 농정에서의 견종법 보급론 등은 서유구가 일생에 걸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농업론이었다. 하지만 농업 진흥에 대해 국왕에게 올린 마지막 상소에서 이 모든 내용은 빠졌다. 대사헌 사직 상소에서 거론하지 않은 주장은 대부분

166) “臣謂諸道堤堰,申嚴冒耕之禁,另施疎鑿之功,案付以外,如有兩岸周遭可施瀦閘之制者,亦令地方官,詢究興修的確之處,議賑諸邑,依朱子浙東之奏,募饑民修築.若其財力不敷處,則境內饒戶,聽其募丁赴役,日役百夫以上,差定監董監官,事竣之後,道臣以其名聞,視其募丁之多寡,赴役之久近,疎鑿之廣狹,或單付樞衡,或量與爵秩,以倣漢家力田科之遺意.” 『승정원일기』·『내각일력』 현종 4년(1838) 6/10 서유구 상소문.

167) “賑政·堤政,一舉兩得.不僅止於一時埽荒,而可永賴於萬世之埽荒,策無便於此者也.” 같은 글.

168) ‘비황3책’이 들어있는 상소문 중 “今年畿·湖·關·月之旱~謹昧死以聞.”까지 1,523자가 비황을 개진한 본문이다. 『내각일력』, 위의 글 참조. 『의상경제책』의 본문은 25,285자(=25,383자(전체 글자 수)-98자(권두·권미의 목차·제목·저자명 등의 글자 수))이다.

169) 그가 사용한 사부 용어는 經翼·史別·子餘·載籍이었다. 그의 조부 서명응이 <<보만재총서>>에서 쓴 사부 분류는 經翼·別史·子餘·集類였다.

170) 버클리본 『小華叢書 目錄』 참조. 이 중 서유구의 『금강도경』은 전혀 알려지지 않아 어떤 저술인지 알 수 없다.

경묘법과 견종법, 둔전 실시론과 관련된 내용으로, ‘북극고도(위도)를 측정하여 농사의 때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농정론의 한 조목만 제외하고는 모두 견종법의 전국적 보급을 위해 해결해야만 하는 선결과제였다. 서유구는 토지제도의 개혁 없이는 둔전론도 의미가 없고, 경묘법으로 양전하지 않은 농지에서의 견종법 시행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¹⁷¹⁾ ‘비황3책’을 쓸 당시 조정에서 개량은 여전히 거의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결부법을 송두리째 바꾸는 개혁을 건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독자가 왕인 『의상경제책』이나 독자가 향촌 사대부인 『행포지』·『본리지』에 모두 담았던 전정론의 시행에 대해 서유구는 더 이상 왕의 조치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농서에 전정론을 계속 남겨두었던 것으로 보아 향촌 사대부의 실천 내용까지 버리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경제학을 저버렸다는 서유구가 펼친 마지막 경제론은 『의상경제책』에서 구상한 11목에서 8목이 빠진 세 가지였고, 이 세 가지 정도가 그나마 현실성이 있는 정책이자 농정에서 꼭 시행해야 할 것이라는 판단의 표현이었으리라 생각한다.

2.3.3. <<임원경제지>> 정리 및 실천

서유구는 제2사환기 동안 지방관과 중앙의 요직을 두루 걸치는 과정에서도 서유구는 <<임원경제지>> 찬술 작업을 계속했다. 인용문헌 수정 등의 내용 교체, 내용의 삭제와 삽입, 해당 내용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한 기사를 분리 편집함으로써 재배치하는 등의 내용 이동, 표제어 변경 등 책의 꼴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작업들을 손에 놓지 않았던 것이다.¹⁷²⁾

정조의 제2고향, 수원부를 총괄하던 시절 서유구는 74세(1837년)의 나이에 번계로 이사했는데, 이곳에서 <<임원경제지>> 마무리 작업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임원경제학’을 실천하기도 했다. 우선 거주지로 번계라는 곳을 선택한 자체가 좋은 집터를 고르는 데 필요한 정보가 집적된 <<임원경제지>> 『상택지相宅志』의 실천이었다. 『상택지』에는 좋은 집터를 알아보는 조건으로 지리, 물, 흙, 생업, 풍속, 경치 등에 관한 세부 설명에다가, 집을 가꾸기 위해 필요한 황무지 개간, 나무 심기, 건물 짓기와 배치, 우물·못·도랑 등을 자세히 다루었다. 여기

171) 이에 대해서는 제1부 제3장에서 다시 논하기로 한다.

172) 원고 수정의 구체적인 사례 분석에 대해서는 정명현, 「오사카본 편집 체제의 특징」, 개관서, 384~399쪽을 참조.

에 덧붙여 전국의 명당 233곳도 일일이 거론하며 거주지 선택을 위한 정보를 세밀하게 제공했다.¹⁷³⁾ 서유구는 번계로 옮기고 몇 년 뒤에 다시 두릉으로 이주했는데, 이 또한 ‘상택’을 실천하는 일환이었다.

또한 번계에서 서유구는 『이운지怡雲志』에서 그랬던 건물을 짓고 주변 환경을 조성하려 했다. 그가 『이운지』에서 인용한 자신의 저술 『금화경독기』에는 서재, 약제실, 도서실, 활자 보관실, 누에방, 길쌈방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건축물들이 소개되어 있다. 하지만 『이운지』에서 제안한 건물을 번계에서 모두 갖추지는 못했다. 『이운지』에서 제안한 건물 중 번계에서 구현한 건물로는 자연경실(自然經室, 서재), 자이열재(自怡悅齋, 기거 공간), 거연정(居然亭, 정자), 광여루(曠如樓, 농사 독려하는 누각), 오여루(奧如樓, 휴식하는 누각) 등 5가지 정도다.¹⁷⁴⁾ 이 중에서 자연경실은, 이미 여러 번 언급했다시피, ‘자연경실장自然經室藏’이라는 <<임원경제지>> 원고의 생산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운지』에서 소개한 다양한 건축물은 각자가 자신의 처지에 맞게 가감하라는 의도로 집에 갖추 수 있는 모든 건축물을 소개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는 또 시 짓기를 ‘임원경제학’을 실현하는 일부로 활용하기도 했다. 서유구는 생애 말년의 몇 년을 제외하고는 시를 거의 짓지 않았다. 자신이 본래 시를 잘 못 짓기 때문이기도 했지만,¹⁷⁵⁾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시작詩作이 실용 학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회의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초계문신 시절 ‘시경장의’에서 보여준 『시경』에 대한 남다른 분석력을 본다면 서유구가 시를 짓지 못할 이유가 없었지만 이런 까닭으로 굳이 나서서 짓는 일은 일부러 삼간 것 같다. 『홍재전서』에는 정조와 여러 신하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시작을 남기게 될 때 서유구도 여기에 한 축 끼어 여러 수가 남아 있다. 그러나 자신의 문집에는 시를 단 한 편도 남겨 놓지 않았다. 시가 문집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여타의 문집과는 대조된다.¹⁷⁶⁾

173) 정명현, 「상택지 해제」, 개관서, 1426~1432쪽; 편집위원회 옮김, 「상택지 목차」, 개관서, 1443~1450쪽 참조.

174) 曹蒼綠, 『楓石 徐有渠에 대한 한 研究』, 98~105쪽 참조.

175) 자신이 시작에 소질이 없다는 고백은 “余素喜文章而獨不能詩.” <<楓石全集>> 『楓石鼓篋集』 卷1 「序」 ‘梨雲閣詩序’(<<叢刊>> 288, 221쪽); “吾之於詩, 猶子瞻之於酒云. 子瞻不能飲而好飲人以酒, 吾不能詩而好評論人詩.” <<楓石全集>> 『楓石鼓篋集』 卷1 「雜著」 ‘題蘭湖華萼集’(<<叢刊>> 288, 480쪽) 등을 참조.

176) 하지만 서유구가 시를 전혀 짓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젊은 시절부터 주위의 권유나 분위기에 따라 시를 짓기도 했다. 김대중, 앞의 글, 29쪽.

시에 대한 이런 태도는 그의 말년에 변했다. 말년에 후배들과 시를 주고받는 시회詩會를 자주 가졌던 것이다. 그 결과로 『번계시고』(3권)가 남아 있는데, 이 시집에는 서유구가 먼저 시를 지으면 시회에 참여한 많은 문사들이 응수하는 형식으로 엮여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지은 서유구의 시 중에는 <<임원경제지>>를 읽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실용적인 내용이 많다는 점이다. 시에서조차도 <<임원경제지>>가 지향하는 실용성을 표출한 것이다. 자신의 시 중 상당 부분이 향촌에서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실용 지식을 피력하는 데로 이어졌던 것이다.

‘종수가種樹歌’ 같은 시가 이런 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종수가’는 늘그막에 나무 재배하는 법을 배우면서 알게 된 여러 실용 지식들을 시적으로 표현한 칠언고시七言古詩로, 총 100구(700자)이다. 웬만한 산문만큼 긴 시이다. ‘종수가’ 도입부에서는 번계로 거주지를 옮긴 뒤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에 마음을 둔 서유구가 나무 재배를 서툴게 하는 모습을 보고 마을 노인이 탄식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¹⁷⁷⁾ 이렇게 시작하는 ‘종수가’는, 이어서 마을 노인이 가르쳐주는 나무 재배법을 상세히 시로 표현했다. ‘종수가’를 통해 <<임원경제지>> 『만학지』를 시로 재정리한 듯한 인상을 받는다. 이 시가 비록 나무 재배법에 능한 노농에게 서유구가 종수법을 배우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임원경제지>> 중 특히 『만학지』의 정보들이 이용되었다. 노농이 얘기해 준 내용 중 예를 들어 “꽃마다 나무마다 각각 생기는 모양 다르니, 토끼 눈, 쥐 귀(원주: 『범승지서』에 나오는데, 이는 모두 과일나무 잎이 나오는 모양이다.) 자세히 살펴야 하오.”¹⁷⁸⁾라는 대목은 나무 옮겨 심는 시기를 알기 위해서는 싹이 특정 모양으로 형성된 때를 잘 알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범승지서』를 인용했다.¹⁷⁹⁾ 또 “접붙이기 세 비결 들어보면, 가지가 푸른색 멀 때, 마디 부분을 서로

177) “내 듣기로 산촌에 사는 방도는/ 나무 심고 꽃가꾸기가 제일이라네// 하지만 나무심기는 10년 계획이나/ 아, 난 이미 산 넘어 지는 노을!// 옛날 현호(서광계)에겐 좋은 계획 있었으니/ 나이 들수록 나무심기 서두르라는구나// 근래에 번계 가에 집 지었으니/ 뒤론 낮은 언덕 앞으론 가로진 비탈// 임원 날마다 거니는 일 취미 되어/ 아이들 두셋 불러다 삼 들고 따르라 했지// 한 해에 3천 그루 심어야 하는데/ 열에 하나 살고 아홉은 말라죽었지// 남쪽 이웃 영감 지나가다 보고는/ 내 영성함 답답해하며 외마디 탄성. 如是我聞山居術,種樹蒔花居第一.雖然種樹十年計,嗟我晚景已崢嶸.昔者玄扈有良畫,年老尤宜急樹之.邇來卜築樊溪畔,後拱短麓前橫陂.林園日涉仍成趣,呼僮兩三操鋤隨.課歲栽得三千株,十株一生九憔悴.南隣之叟偶來見,問我鹵莽發一喟.” 『樊溪詩稿』 卷1 38면. 번역은 曹蒼錄, 『楓石 徐有渠에 대한 한 研究』, 125쪽 참조.

178) “花花樹樹各異候,兔目鼠耳(出汜勝之書,俱果木葉出形.)仔細認.” 『樊溪詩稿』 卷1 38면.

179) “然棗,鷄口;槐,兔目;榛,蝦蟆眼;榆,負瘤散;其餘雜木鼠耳,虻翅,各以其時.凡種栽并插皆用此等形象(注:此等名目,皆是葉形容之所象似.以此時栽樹者,葉皆卽生.)” <<임원경제지>> 23 『만학지』 권1 「총

대고, 마주보게 접합하리라오.”¹⁸⁰⁾라는 구절은 나무를 접붙일 때 가장 중요한 세가지를 정리한 내용으로, 『농정전서』에 나오는 접붙이기 기사를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느낌이 든다.¹⁸¹⁾ 이처럼 서유구가 말년에 지었던 시를 통해 시에서조차도 <<임원경제지>>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시 중 상당 부분이 향촌에서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실용 지식을 피력하는 데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서유구의 농업론은 그의 생애와 관련해서 볼 때 종합적인 농업론이라 할 수 있다. 귀농기 이전에 그는 농업을 농학과 경제론적인 측면에서 주로 연구했다. 귀농기에는 농사에 종사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의 농업론은 『행포지』, <<임원경제지>> 속 농서, 『의상경제책』 같은 책에서 농학, 경제론, 농사 등의 성격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특징을 보였다. 제2사환기 이후로는 관료로서 농정을 펼치기도 했다. 서유구는 전 시기에 걸쳐 농학을 주된 바탕으로 삼았으며, 그가 처한 상황에 따라 경제학적 농정론을 제안하거나, 농사의 실질적 문제에 집중하거나, 관료로서 농정을 실천하는 등의 활동을 병행하면서 농업의 종합화를 이루었다.

서유구의 농업에 대한 이 같은 특징은 농학이라는 특정 분야의 국부적인 관심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 자신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가 농학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의 확고한 신념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삼대에 걸쳐 농서를 저술한 가문은 서유구의 집안을 제외하고는 조선에 없었다. 그만큼 농학은 서유구에게 젊은 시절부터 적지 않은 비중을 갖는 분야였고, 결과적으로 조선의 최대 농서를 남겼다. 서유구의 농학에 대한 학술적인 관심은 단지 학문적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농학 연구의 결과가 백성의 먹을거리와 국가경제의 건전성을 담보함으로써 조선이 보다 부유한 나라가 되기를 희망한 데서 비롯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면서 그의 농학적 경제론인 『의상경제책』의 농업론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서) “씨 뿌리고 심기” ‘과중 시기’. 역자 및 편집위원회 옮김, 「만학지 목차」, 개관서, 620쪽. 이하 「만학지 목차」 출처는 따로 적지 않음.

180) “接換三訣試歷舉, 襯靑就節暨對縫.” 『樊溪詩稿』 卷1 38면.

181) “接樹, 有三訣: 第一襯靑, 第二就節, 第三對縫. 依此三法, 萬不失一.” <<임원경제지>> 23 『만학지』 권1 「총서」 “접붙이기” ‘총론’.

제3장 『의상경계책』의 성격과 농업론 : 선진 농업의 제도화를 통한 국부창출론

3.1. 『의상경계책』의 의미와 서지적 성격

『의상경계책』의 글 형식은 제목의 끝 글자에서 알 수 있듯이 ‘책策’이다. ‘책’은 문체의 일종으로, 왕이 신하에게 정사에 관한 견해를 묻는 경우 책문策問(또는 策題)이라 하고, 책문에 대한 신하의 답글을 대책對策이라 하며, 선비가 스스로 정사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왕에게 올리는 글을 진책進策(또는 制策)이라 한다. 『의상경계책』은 책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저자가 자발적으로 썼기 때문에 진책에 해당한다. ‘의擬’라는 글자가 제목 맨 앞에 적혀 있는 글은 특정 독자를 염두에 두고 쓴 글이지만 그 독자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상上’은 ‘상소’의 용례에서 알 수 있듯이 ‘왕께 올린다’는 뜻이다.

특정 독자에게 쓰는 글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그 독자에게 전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쓴 글과 애초에 전달하려는 목적 없이 그러한 형식만을 빌려 쓴 글이 그것이다. 『의상경계책』의 경우로 살펴보면 애초의 제목이 『의상경계책』일 수도 있고, 처음에는 『상경계책』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했다가 왕에게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집에 편집되는 과정에서 ‘의’자가 추가로 들어갔을 수도 있다. 즉 애초에 문집에 수록된 제목(『의상경계책』)과 같았다면 왕에게 실제로 올릴 계획은 없으면서 진책문의 형식을 빌려 쓴 글일 것이다. 반면 『상경계책』이라는 애초의 제목이 최종 제목으로 바뀌었다면 왕에게 올릴 작정을 하고 썼지만 사정으로 인해 제출을 하지 않은 글일 것이다. 이 두 가능성을 염두에 둘 때 ‘의상경계책’은 ‘경계經界에 관한 견해를 왕께 올리려고(또는 올리는 형식을 빌려) 쓴 진책문’ 정도의 의미가 된다.

이 두 가능성 중 『의상경계책』은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다. 실제로 이 글을 순조에게 제출하려 했지만, 의도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순조 19년 순조가 내린 양전령을 계기로 삼아 서유구가 자신의 농정책을 펼치려 했다는 정황이 보이기 때문이다.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양전령이 내려진 8개월 여 뒤에 양전이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제출하려던 의지가

급속히 꺾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행 토지제도에 근거한 양전조차도 시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선의 토지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자신의 시무책이 당시 상황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으리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물론 이와는 반대일 가능성도 있다. 즉 순조의 양전령이라는 계기가 있다고 해서 서유구가 반드시 왕에게 올리겠다는 마음을 먹고 『의상경계책』을 쓰지는 않았을 수 있는 것이다. 양전령을 계기로 평소 자신의 토지제도 및 농정에 관한 견해를 정리해보겠다는 정도의 의도에 그쳤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연이은 흉년과 전정의 폐단 등으로 국가 경제는 물론 백성의 삶이 궁핍해져 있던 상황에서 자신의 시무책을 단지 정리해보기 위해 저술한다는 발상은 서유구처럼 실용을 추구하려는 생각이 강한 사람에게는 생기기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왕과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 관료에게 읽히지 않을 글을, 형식만을 빌어서 쌓인 욕구를 배설하듯 자위하는 수준에서 머물렀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런 이유로 나는 『의상경계책』을 순조에게 올리려 한 글로 이해하고 글을 전개해 갈 것이다.

『의상경계책』이라는 제목에서 핵심어는 무엇보다도 ‘경계’라는 두 글자이다. ‘경계’라는 주제로 서유구는 이 글에서 토지 제도 및 농업 전반의 문제를 다루었다. 여기서 경계는 토지, 특히 농지의 경계를 뜻한다. 이 말의 유래는 『맹자』 「등문공」의 “인정필자경계시仁政必自經界始”라는 문장에서 왔다. “인정仁政은 반드시 경계로부터 시작한다.”는 이 말에서 인정은 유가의 정치적 이상인 ‘왕도 정치[王政]’의 다른 표현이다.¹⁾ 왕도 정치의 출발이 농지의 경계를 바로잡는 일이라는 맹자의 이 말은 중국 전국시대에 등滕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정전井田제도에 대해 문의했을 때 해준 대답이었다. 『맹자』의 맥락에서 경계는 본래 정전을 구획하는 일이었지만, 이후로는 의미가 확대되어 농지 일반을 구획하는 일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경계가 인정의 출발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맹자는 “경계가 바르지 않으면 정전井田의 구획이 균등하지 않고 관리의 봉록이 공평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폭군이나 탐관오리는 반드시 정전의 경계 구획을 제대로 다잡지 않는다. 경계가 바르게 되면 농지를 분배하고 봉록을 조절하는 일은 앉아서도 정할 수 있을 만큼 쉬워진다.”²⁾라고 하여 경계의 구획이 농지를 백성에게 고루 분배함과 동시에 관

1) 이런 이유로 맹자의 말을 인용할 때 ‘仁政’ 대신에 ‘王政’이라는 표현을 흔히 쓰기도 한다.

2) “經界不正,井地不鈞,穀祿不平.是故暴君汙吏必慢其經界.經界既正,分田制祿,可坐而定也.”『孟子』「滕文公上」3.

리의 봉록도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백성과 관리에게
의 부의 공평한 분배, 그리고 이를 통한 공평한 과세가 왕도 정치의 주요한 목표
였음을 알 수 있다. ‘경계’는 『맹자』의 맥락에서 균전均田과 균세均稅의 의미를
내포했던 것이다.

이 같은 토지제도의 취지는 이후 중국과 조선에서 계속 재론되었다. 조선후기
지식인들의 토지제도 개혁안에 토지를 고르게 분배하자는 균전론均田論이나 일
정 넓이 이상의 토지 겸병을 제한하자는 한전론限田論이 자주 거론된 이유도 바
로 정전제도의 취지를 살려 부의 균등한 분배와 균등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함이
었다.

그러나 후대에 토지제도가 복잡해져 고대 정전제의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자
‘경계’의 의미 또한 변화를 겪어야 했다. 즉 경계라는 표현에 담겨졌던 두 의미
중 균전의 의미는 퇴색되고 균세를 표방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던 것이다. 그 대
표적인 사례가 남송 시대 주희(朱熹, 1130~1200)에게서 보인다. 그는 부세의 균
등한 과세를 목표로 양전을 정확하게 시행하는 데 주력했다. 임진왜란 이후 새로
운 토지제도를 추구하려 했던 조선에서도 ‘경계’라는 용어는 각 논자의 정치적,
사상적 입장에 따라 다른 의미를 띠었다. 예를 들어, 17세기 말, 18세기 초에는
정전제를 부활할 수 있다고 확신했던 소론 계열과 정전제를 시행할 수 없다는
노론 계열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했다.³⁾ 소론의 입장을 띤 것으로 보이는 유집일
(兪集一, 1653~1724)의 경우, 정전제가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응
책으로 양전법의 일종인 방전법方田法을 시행하여 은·누결의 폐단을 막아보려 노
력했다.(2.1.3~10) 숙종 대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을 필두로 한 노론 계열
의 경자양전 주도자들은 새로운 양전법을 쓰기보다는 기존의 양전법을 규정대로
시행하기만 하면 전정의 폐단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견해를 고수했다. 기존의 토
지제도나 양전법 같은 전정의 제도는 좋지만 이를 이행하는 수령이나 서리 등의
잘못으로 폐단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제도들을 잘 쓰면 전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조선후기 ‘경계’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입장의
차이가 존재했다.⁴⁾

3) 崔潤晤, 「肅宗朝 方田法 시행의 역사적 성격」, 『國史館論叢』 제38집.

4) 주희의 경계법과 조선에서의 분화상에 대해서는 崔潤晤, 「朝鮮後期の 量田均稅論」, 『朝鮮時代史學報』 19, 朝鮮時代史學會, 2001 참조. 최윤오는 이 글에서 주희의 경계법이 조선에서는 정치
적·사회적·경제적 입장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정전론에 입각한 토지개
혁론이 첫째요, 유집일의 방전법이 둘째요, 경자양전을 통해 구체화된 양전법이 셋째였다.

그럼에도 조선의 위정자들 대부분은 정전제 폐기 이래로 추구해오던 ‘균세’라는 전정에서의 대전제를 ‘경계’라는 용어를 통해 표출했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실제로 조선 초의 몇 사례만 보더라도 『맹자』의 이 구절이 부의 균등한 배분과 관련된 논의에서 대전제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 예를 들어 태종 때 의정부에서 양전을 위한 규정을 올리는 글에서,⁶⁾ 세종이 과거에서 토지제도에 관해 내린 책문에서,⁷⁾ 양전 실무에 대한 건의와 양전을 연기해달라는 건의에서,⁸⁾ 균전을 시행하자는 요청에서⁹⁾ 가장 중요한 전제 중 하나로 인용되었던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조선후기에도 비슷하게 이어졌다.¹⁰⁾ 특히 비교적 대규모 양전이 많았던 숙종 대에 맹자의 이 구절이 자주 언급되었는데(7회), 대부분은 숙종의 언급이었다.¹¹⁾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의상경계책』에는 농지 경계를 바로 잡는 일과 그 효과, 즉 전정의 영역에 관한 서유구의 견해가 제시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즉 ‘경계’라는 주제어를 통해 우선 양전을 떠올릴 수 있고, 이는 다시 맹자의 언급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양전의 토대가 되는 토지제도와 연결 지을 수 있는 것이다. 양전과 토지제도는 무엇보다 전세田稅와 직결되어 있다. 농지에서의 소출을 기준

5) ‘한국고전종합DB’에서 ‘經界始’로 검색한 결과 ‘仁政必自經界始’(글자의 변형이 있더라도 의미가 같은 곳 포함)의 취지로 인용한 사례는 ‘고전원문’에 3건, ‘한국문집총간’에서 57건(이 중 2건은 무관한 글이다)이 검색되었다. 2014년 1월 22일 현재.

6) “議政府上量田事目,從之.啓曰:‘仁政必自經界始.在前各道量田,輕重不均,或至怨咨.’” 『태종실록』 5년(1405) 9/10.

7) “御仁政殿,出文科策問題.王若曰:‘自古帝王之爲治,必立一代之制度,稽諸方策,可見矣.制田之法,助於何時?’(중략)孟子曰:‘仁政必自經界始.’” 『세종실록』 9년(1427) 3/16.

8) “左司諫金孝貞等上疏曰:‘臣等竊謂仁政必自經界始.經界正,然後裕國足民之道得矣.’” 『세종실록』 10년(1428) 9/4; “平安道觀察使成倪上疏曰:‘臣以今年農事不實,請停量田.’(중략)孟子曰:‘仁政必自經界始.經界不正,井地不均,穀祿不平.經界既正,分田制祿,可坐而定也.’” 『성종실록』 17년(1486) 10/8.

9) “遂良(박수량, 1475~1546)曰:‘仁政必自經界始.一邑之內,一人有田數百餘結.若過五六年,則一邑之田,必聚於五六人家.是豈可也?今若均之,則是固先王井田之遺意也.’” 『중종실록』 13년(1518) 5/27.

10) 실록 기사에서 『맹자』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으로는 『태종실록』(1), 『세종실록』(3), 『성종실록』(1), 『중종실록』(1), 『인조실록』(1), 『효종실록』(1), 『숙종실록』(7), 『영조실록』(3), 『정조실록』(8), 『순조실록』(3), 『고종실록』(2) 등으로 총 31건이었다. 검색어는 ‘自經界始’.

11) “上,下備忘曰:‘孟子云:‘仁政必自經界始.’正經界者,王政之先務也.我國經界不正,賦役仍以不均.’” 『숙종실록』 17년(1691) 윤7/28; “修撰吳命峻言:‘仁政必自經界始.我國經界不正,三南量田,已過六十餘年,陳起不明,漏結甚多.’” 『숙종실록』 26년(1700) 1/20; “上曰:‘孟子曰:‘仁政必自經界始.’經界正,然後民役可均.江原道量田之停廢,殆近百年.’” 『숙종실록』 34년(1708) 9/25; “上語諸臣曰:‘量田已久,經界不正.孟子曰:‘王政必自經界始.’田政,固是重事,不可因循置之.’” 『숙종실록』 42년(1716) 1/26(「숙종대왕행장」에도 1회 나오는데, 그 내용은 이때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上曰:‘孟子曰:‘仁政必自經界始.’政之大者,莫過於量田,何可廢而不行乎?’” 『숙종실록』 43년(1717) 9/22; “上曰:‘仁政必自經界始,即今改量之舉,非爲得剩結.蓋量田不行已久,田政淆紊,不可不及時行之,故決意先試於三南.’” 『숙종실록』 44년(1718) 12/18.

으로 세금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전세는 조선 정부 재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원 중 하나였고, 국가 재정을 모으고 지출하는 호조가 주무 기관이었다. 또한 서유구 시대에는 공납貢納인 대동세大同稅와 군정軍政 영역에서 책정한 군포軍布 등을 비롯하여 각종 부가세들이 농지의 전결(田結, 농지의 결부結負 수 즉 넓이)을 기준으로 부과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농지 넓이를 양안에 등록하지 못하면 그로 인한 불균등한 과세의 여과는 결코 적지 않았다. 따라서 『의상경제책』은 조선 경제 정책의 주요 부분인 전세와 관련된 문제 즉 전정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되는 글이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은 기대한 경제 정책 분야는 물론 경제 정책의 토대인 농산물이라는 실물을 어떻게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책까지 포괄했다. 농지에서의 수취제도뿐 아니라 농지 안에서 일어나는 농사의 문제까지를 다루었던 것이다. 요컨대 『의상경제책』은 조선 시대 경제 정책에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전정’과 ‘농정’을 동시에 다룬 사례였다. 서유구에게 ‘경제’란 이전의 사례들과는 달리 전정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농정 영역까지 확장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의상경제책』은 서유구의 문집인 <<풍석전집楓石全集>> 중 『금화지비집金華知非集』에 실려 있는데(권11~12), <<풍석전집>>은 20대의 문집인 『풍석고협집楓石鼓篋集』 6권과 그 이후의 글을 모은 『금화지비집』 1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풍석전집>>은 서울대 중앙도서관 소장본이 유일본으로,¹²⁾ <<한국문집총간>>(제288책)에 영인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DB’에서 제공된다.¹³⁾ 『풍석고협집』과 『금화지비집』이 언제 합하여 <<풍석전집>>으로 편집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유원이 <<풍석전집>> 서문에서 밝힌 자신의 직위에 근거해 볼 때¹⁴⁾ 최소한 고종 12년(1875) 이후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유원이 영의정이자 세자사世子師의 직위를 동시에 지니던 때가 1875년 2월 이후였기 때문이다.¹⁵⁾ 그렇다면 <<풍석전집>>은 서유구 사후 30년 뒤에 편성되었다고 추측

12) 도서번호는 3436-4-1~8.

13) <<叢刊>> 288에 윤행임(尹行恠, 1762~1801)의 『碩齋稿』 II와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의상경제책』의 또 다른 영인본으로는, <<楓石全集>>, 保景文化社, 1983, 270~311쪽; 『農書』 36, 亞細亞文化社, 1986, 261~429쪽이 있다.

14)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月城李裕元書.” <<全集>> 楓石集序[李裕元](<<叢刊>> 288, 312쪽).

15) 이유원이 영의정으로 재직할 때는 1873년 11월~1874년 12월과 1875년 2월~4월이었다. 이 기간에 세자사世子師의 직위를 갖고 있었던 때는 1875년 2월부터였다. 『승정원일기』 고종 12년 2/15, 2/17; 『고종실록』 12년 2/17.

할 수 있다.

표지에 ‘수운자합편水芸子合編’이라 적혀 있어 수운자가 이 두 문집을 하나로 편집했음을 알 수 있으나,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그렇다고 현재 남아 있는 유일본이 최초의 편집본인 것 같지는 않다. 이 편집본은 표지에 ‘자연경실장 自然經室藏’이라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자연경실장본의 정리본으로 볼 수 있고, 뒷날 ‘풍석암서옥’본에 의거하여 결락한 글자를 보충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금화지비집』의 ‘백씨 좌소 선생(서유본)에게 후기를 논하며 올린 편지[上伯氏左蘇先生論候氣書]’에 빠진 17자를 후에 풍석암서옥본을 근거로 보충했다는 첨지가 『금화지비집』에 있다.¹⁶⁾ 이로 볼 때 <<풍석전집>>이 되는 자료는 적어도 풍석암서옥본과 자연경실장본 두 본이 존재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¹⁷⁾

하지만 풍석암서옥본 『금화지비집』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연경실장본 『의상경계책』은 유일본이라 이본을 대조할 수 없다. 그러나 『의상경계책』을 저술하면서 이용한 여러 자료, 특히 서유구의 『행포지』, 『본리지』 및 서호수의 『해동농서』를 활용하면 상당 부분은 타교(他校, 다른 저술을 이용한 교감)가 가능하다. 본 논문은 <<풍석전집>>의 『의상경계책』을 번역하면서 위와 같은 저술 및 그 외의 저술과 대조하여 교감본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쳤다.

3.2. 『의상경계책』의 농업론 : 3장 11목의 유기적 구조

이제 결부법 개혁을 앞세운 3장 11목 체제의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의상경계책』의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1장에서 서유구가 개혁해야 할 토지제도로 제시한 것은 두 가지로, ‘결부법’과 ‘척보’이다. 그 중 제1목은 결부법을 중국의 경묘법으로 바꾸자는 주장을 담고 있다. 조선의 토지제도인 결부법은 중국에는 없는 제도로, 토지의 품등을 6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마다 농지를 재는 양전척의 기준을 달리한 제도였다. 서유구는 결부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8가지 폐단[八弊]’이 생겼다고 그 폐단을 하나

16) “此在西法未出之前其疎於籌法固其所也.以上十七字脫,楓石庵書屋本ニヨリ補う.昭和十二(1937).三.二.” 서울대본 <<全集>> 5책 『金華知非集』 卷2, 8면. 같은 내용이 들어 있는 <<叢刊>> 288, 322쪽에는 ‘十七字落’이라는 본래 첨지만 영인되어 있고, 그 첨지 위에 추가해서 붙여진 첨지의 글자 중 원문에 해당되는 17자(此在西法未出之前其疎於籌法固其所也)를 조관하여 보충했다.

17) <<楓石全集>>의 서지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은 김대중, 앞의 논문, 14~31쪽을 참조 바람.

씩 상세하게 설명했다. 또 결부법에 문제가 많은데도 개혁을 이루지 못한 데에는 결부법을 지지하는 입장이 견고했기 때문이라며, 서유구는 이런 입장을 ‘오의五議’라 일컫고 이에 대해서도 일일이 논박했다.

서유구에 따르면 결부법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주척 6척을 양전척 1척으로 통일하는 경묘법으로 바꾸어야 했다. 경묘법을 시행하면 교활한 비리가 종식되고, 농지를 숨기는 관행이 개혁되며, 농지가 제대로 정리되고, 세금을 공평하게 징수하며 나라에 묵은 곡식이 쌓일 정도로 국부가 창출되어서, 백성도 풍요로운 삶을 구가할 수 있다. 서유구가 보기에 경묘법으로의 전환이 바로 토지 경계를 바르게 하는 유일한 제도이며 경계가 바르게 하는 일이 왕정의 급선무였다.

제1목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왜 결부법의 대안이 경묘법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제1목의 여러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설명하지만, 서유구가 제시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경묘법이 정전제도를 시행했다고 알려진 주나라의 제도였기 때문이었다. 정전제의 토지 구획은 주척 6척을 1보로 삼고(보법), 100보를 1묘로 삼으며(묘법), 100묘를 1경으로 삼는(경법) 식이었다. 이 같은 구획 방식은 임의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농작물의 그루와 그루 사이를 정하는 거리 기준이 척법과 같고 밭갈이법의 기준이 보법과 같은 등 농법과 직결되었다. 따라서 경묘법이 야말로 정전제의 토지 구획과 다를 없는 제도였으며 농작업의 효율과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제도라고 서유구가 받아들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가 토지제도를 논하면서 “고대의 선왕께서 토지제도를 제정하실 때 반드시 먼저 척도를 바르게 한 뒤 쟁기 하나로 흙을 갈아엎어 생긴 밭두둑 규격을 너비 1척 깊이 1척으로 하였고, 1묘의 너비에는 고랑 셋 두둑 셋으로 하셨으며, 6척을 1보步로 하고 100보를 1묘로 하셨”(1.1.13)다며 밭 모양을 규정하는 전묘제도田畝制度를 언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금의 부과량을 책정하기 위한 단위로 토지를 구획했던 결부법은 이런 측면에서 결정적으로 달랐다. 경묘법이라는 토지제도가 제3장 제2목에서 다룰 대전법代田法(또는 견종법畝種法)이라는 농법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1목 원문(改結負爲頃畝法)의 첫 글자가 ‘改’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부법을 경묘법으로 고치자는 주장은 서유구가 이 글을 쓰고 있을 당시까지 조선에서 430여 년 동안 시행한 토지제도의 ‘개혁’을 의미했다. 이는 중국 고대의 이상적인 토지제도를 회복하자는, 실현가능성이 다소 낮아 보이는 주장으로 보일 수도 있었다. 제1~2목을 제외한 다른 9개 목에서 급진적 개

혁보다는 현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더 강하게 갖고 있던 그가 토지제도만큼은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강한 주장을 펼친 것이다. 그 만큼 서유구는 결부법의 ‘팔폐’를 적시하고 결부법을 옹호하는 ‘오의’를 반박하는 데 공을 들이면서 자신의 논리를 보강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생각된다.

제2목은 척법과 보법을 옛 제도에 따라 바르게 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 서유구에 따르면, 경묘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경묘법의 기본 척도인 주척의 길이가 확정되어야 했다. 먼저 그는 고대의 주척이 사라진 뒤 주척의 실제 길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중국에서 오랜 시기에 걸쳐 이루어졌음을 살폈다. 그에 따르면, 위진남북조의 진나라 순욱이 고증한 자, 화포貨布·화천貨泉 같은 한나라 때 주조했던 동전류, 한나라 건무 연간의 구리자 등이 주척과 부합했다. 서유구는 또한 중국의 성과를 이어받아 주척의 참값을 찾으려고 했던 조선의 노력을 정리했다. 하지만 그는 당대까지 전해진 조선 정부의 공식 자가 점차 주척보다 짧아지고 있었다고 파악했다. 주척의 작은 오차라도 1경(=360,000척²) 정도의 넓은 토지를 측량할 때는 오차가 몇 천 척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주척의 참값을 확정하는 척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다. 주척의 고제古制를 회복하기 위한 고증을 통해 서유구는 주척 실제 길이를 알아냈다고 주장하며, 이를 경묘법에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이로써 제2목은 제1목에서 주장한 경묘법이 지금도 시행될 수 있다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해준다. 척법이 확정된 뒤에야 보법과 묘법이 정해질 수 있다. 서유구가 제안한 보법은 6척을 1보로 했고, 묘법은 100보를 1묘로 했다.

이상의 제1강은 토지제도를 표준화함으로써 공정한 과세와 선진 농법을 실현하려는 객관적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제안이었다. 주척을 기준 척도로 한 경묘법은 제2장에서 구상하는 정확한 양전법을 시행할 수 있는 기준이자, 제3장에서 실현하려는 농정의 제도적 기반이었다.

제2강은 경묘법에 입각한 양전을 정확하게 실행해내는 방법을 제안했다. 제1강이 토지제도의 원칙을 확정짓는 일이었다면 제2강은 확정된 원칙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일을 다루었다. 따라서 서유구의 구도에서 제1강과 제2강은 바늘과 실처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제2강 중 제1목은 숙종 대 유집일이 사용했던 방전법이라는 양전법을 다시 활용하자는 주장이었다. 결부법을 통한 양전이 실무자의 선에서 자의적으로 시행된 결과 은·누결의 폐단은 점점 커졌다. 방전법은 농

지 뿐 아니라 산천·거리·들판 등을 모두 측량하기 때문에 양안에 누락된 농지를 찾는 데 가장 좋은 양전법으로 인식되었다. 서유구는 숙종 대에 유집일이 황해도에서 시행했던(1701년) 이 양전법을 시행해야 은·누결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전법은 측량이 쉽고 정확하여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할 수 있는 양전법이라는 것이다. 그는 120년 전에 시행된 이 방법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당시의 경진 양전에 쓰게 된다면 양전 과정의 비리를 막을 수 있다고 믿었다.

제2목에서는 여러 가지 농지 넓이 계산법을 제시했다. 제1목의 방전법은 비교적 넓은 정사각형 농지를 측량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모양이 천차만별인 작은 농지를 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유구는 다양한 유형의 농지 넓이 계산법을 15가지로 제시했는데, 그 과정에서 서양 수학이 반영된 『수리정운』에 주로 의존했다. 이 문제들을 호조와 관상감의 산원에게 익히게 한 뒤 팔도에 파견하여 읍의 양전 실무자인 서리들에게 전습시키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산술에 통달한 서리를 양성하면 양전 계산을 못해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제와 문제풀이만 제시되어 있는 제2목은 실무지침서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제1~2목이 양전 현장에서의 방법론과 실무 지침이었다면 제3목은 실무를 관리·감독하는 감독관의 운영 지침에 관한 제언이다. 제언의 핵심은 중앙 정부에 각 도의 양전을 담당하는 전담 기관을 설치하고, 군전사는 해당 도의 관찰사가 맡으며 해당 읍의 양전 총괄은 도내의 신망있는 수령이나 사족 중에서 선발한 군전관均田官이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때 군전관은 양전 업무를 완전히 숙지한 뒤에, 이를 다시 선발된 실무자들에게 숙지하게 한다. 이 같은 제안은 중앙에서 군전관과 경차관을 파견하면서 생겼던 폐단과 수령이 자신이 맡은 읍의 양전을 총괄 감독하면서 생기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방법이었다. 서유구는 경묘법과 양전법이 아무리 잘 갖춰졌다 해도 이를 관리하는 수령이나 도백道伯이 적격자가 아니면 폐단을 피할 수 없다고 인식했던 것이다.

이상의 제2장은 개혁된 토지제도인 경묘법을 정확하게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었다. 양전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수 백 년 누적된 전정의 폐단을 없앨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서유구는 정밀한 토지 측정법을 제안했다. 또한 제2장에는 양전을 관리·감독하는 운영 체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만들려는 열망도 내포되어 있었다. 양전을 총괄하는 군전관이 양전 업무를 꿰뚫게 함으로써 양전 과정의 부패를 예방하도록 했다. 제1장이 토지제도의 원칙론이라면 제

2강은 토지제도의 실무론이었다. 정확한 양전의 시행이 없이는 경묘법이 실현될 수 없고, 복원한 주척을 기준으로 6척을 1보로 삼는 경묘법의 대원칙이 없이는 양전의 신뢰도나 객관성은 떨어질 것이었다.

이어지는 제3강에서 서유구는 농정에서 시행해야 할 여섯 가지를 제시했는데, 이는 중농을 정책 기조로 삼는 조선에서 서둘러서 취해야 할 농업정책을 의미했다. 농업정책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실행하는 ‘농사’라기보다 국가 차원에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성격의 농업을 다루었다. 그 중 앞의 다섯 목은 말 그대로 농업정책이라 할 수 있지만 마지막 목인 둔전설치론은 제1~3강에서 거론된 총 10개의 목이 모두 반영된 종합 농업정책이자 경제부흥정책이었다.

먼저 제1목에서 서유구는 농시農時를 지역에 맞게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땅에서의 200리 차이마다 위도가 1° 차이가 나서, 위도의 차이에 따라 절기의 온도가 달라진다는 천문학의 성과를 농업에 반영하자는 제안이다. 농시는 태양의 고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북극고도 즉 위도를 얹으로써 농시를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이다. 천문이나 역법에 조예가 깊었던 저자의 집안에서나 나올 수 있는 제안이다.

시헌력時憲曆을 도입한 중국에서는 이미 각 지역의 경도와 위도를 역서에 반영하고 있었지만 한양의 위도에만 근거한 조선의 역법은 한양 주변 200리의 역법에 불과하다고 서유구는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상한의象限儀를 팔도에 반포하여 팔도 감영과 국경 사방 읍들의 북극고도를 실측하자고 했다. 나머지 읍들은 이 실측값에 근거하여 서운관에서 추산한 뒤 각 지역의 북극고도를 역서에 반영한다. 조선이 중국에 비해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굳이 중국을 모방할 필요는 없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조선의 남단과 북단의 거리 차이가 크기 때문에 농작업 시기를 한양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맞출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제2목은 선진 농법을 가르쳐 곡식 수확량을 늘리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 서유구는 농법 중에서도 구체적으로는 한전 즉 밭 농법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구전법區田法과 대전법代田法이 조선에 보급해야 할 선진적 밭 농법으로 제시되었다. 서유구는 이 중에서도 특히 대전법 교육에 역점을 두었다. 구전법은 땅에 작물이 자랄 공간만큼 구획을 지은 뒤 그곳에 구덩이를 파고 그곳에 파종하여 재배하는 법이고, 대전법은 고랑과 두둑을 1척 간격으로 반복되게 밭을 만든 뒤 고랑에 파종하여 재배하는 법이다. 그는 이 두 가지 경종법을 조선의 대표 농법으로 만들고자 했다. 구전법은 “인가 주변이나 산굽이나 비탈진 곳”에서, 대전법은 “평지

나 넓은 들판”에서 써야 좋다는 그의 입장에서 볼 때(3.2.13) 구전법보다는 대전법이 더 조직적이고 큰 규모의 농사에 쓸 수 있는 농법이었다. 그에 비해 서유구는 논농사 기술에 대해서는 『의상경제책』에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제2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유구는 먼저 중국 농법과 조선 농법을 비교한 뒤 조선 농법이 법도가 없다고 지적한다. 조선은 일마다 중국에 못 미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하게 차이나는 것이 농법이라고 역설했다. 경종법耕種法, 즉 밭갈이법과 재배법(파종법·김매기법 포함)에서 모두 중국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이어 조선에서 시행해야 할 경종법으로 구전법과 대전법을 들고 각각의 농법을 설명했다. 여기서 대전법은 견종법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이 두 농법 중 견종법에 대한 설명이 매우 길고 자세한데(제2목의 절반을 차지한다), 견종법의 농사법과 높은 생산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전국에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에서 다루겠지만 견종법에 대한 연구는 당시 중국의 학자를 포함하여 서유구가 가장 깊이 있고 상세하게 진행했다. 그는 이어 견종법을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둔전 설치, 둘째 엄격한 인사관리가 그것이다. 엄격한 인사관리를 위해 서유구는(둔전 설치에 대해서는 제6목에서 후술할 것이라서 제2목에서는 생략했다) 농사를 천시하는 조선의 오래된 풍토를 바꿔 ‘중농重農’을 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농을 실행하기 위해 다시 두 가지가 필요했다. 첫째는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었던 군포軍布를 사대부를 포함한 전 인민에게서 거두자는 제안으로, 농민의 불이익을 없애자는 것이다. 둘째는 농사를 잘 짓는 역농자力農者를 선발하여 서울 주변에 설치할 둔전의 총책임자인 전농관典農官으로 임명하고 여기서 실적이 좋은 자를 수령으로 임명하자는 제안으로, 농민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이 같은 중농 정책으로 농민의 지위가 안정된다면 견종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조선은 풍요롭고 인仁한 나라[仁壽之域]가 될 수 있다고 서유구는 확신했다.

제3목에서 서유구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종자를 중국에서 구입하여 재해에 대비하자고 제안했다. 흉수나 가뭄의 피해가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곡식을 섞어서 재배하면 완전한 실농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 뒤, 이미 이를 실천하고 있던 중국의 농법을 본받자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의 여러 종자들을 일일이 나열하며 돈을 아까워하지 말고 중국에서 매년 구입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서유구의 확신은 정조 대 잘못된 대파代播 정책으로 크게 실농한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순창군수로 재직하던 정조 22년(1798) 호남에 가뭄이 들어 모내기를 못

하게 되자 정조는 대안으로 메밀을 파종하게 했다. 그러나 곧 이은 장마로 물에 취약한 메밀이 다 죽어 큰 흉년을 겪었다. 메밀 대신 물에 강한 품종이나 늦게 파종해도 좋은 품종의 벼를 재배하도록 했다면 그 같은 큰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는 후회가 좋은 품종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외래 품종은 조선의 풍토에 맞지 않다며 그의 생각에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열대에서 자라는 몇몇 작물을 제외하고는 풍토에 알맞은 종의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참깨·수수·수박·고구마·면화 등 외래종으로 조선에 정착한 작물의 예들이 그 반증이라 했다. 좋은 품종을 도입하려는 노력은 ‘재성보상(裁成輔相, 천지의 도를 재단하여 이루고 천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돕는 일)하여 백성을 다스린다.’는 『주역』의 구절과 부합할 만큼 중요한 왕정의 일환이라는 것이 서유구의 생각이었다. 조선의 고유한 종자가 있다기보다는 조선의 땅에서 잘 자라려면 그것이 조선 사람에게도 이로운 작물이라는, 보다 개방적인 농업관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제4목에서는 수리를 진흥시켜야 한다는 농정책을 다루었다. 수리는 봄 가뭄이 많고 여름 장마가 심한 조선의 기후 환경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기술 중 하나인데도 조선에서 수리 기술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거의 없다는 비판적 입장에서 서유구는 대안을 모색했다. 그는 수리 분야를 소통, 물막이, 양 조절, 저장의 네 가지로 범주를 나누고서 조선에는 앞 세 가지는 없고 마지막 한 가지만 있다고 분석했다. ‘소통’은 인수引水나 배수를 하는 수로를 정비하는 일이고, ‘물막이’는 농지로의 물 범람을 막는 방죽이나 제방을 쌓는 일이고, ‘양 조절’은 저수貯水와 배수의 양을 조절하는 수문과 수차를 설치하는 일이고, ‘저장’은 물을 가둬두는 저수지나 호수를 수축하는 일이다. 조선에는 앞의 세 가지가 없고 저수지나 호수는 별처럼 뻐뻐할 정도로 많다고 했다. 하지만 호수나 저수지의 경우도 그 용도가 저수와 배수에 그칠 뿐이며, 수문이나 수차가 없는 저수 시설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있어도 없는 것과 진배없다고 서유구는 평가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가뭄이나 장마로 인한 흉년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유구의 수리 대책은 앞의 네 범주로 나눈 수리 사업 각각을 진흥시키는 일이었다. 우선 비변사에 수리 행정을 통괄하는 사무국을 개설하여 수리 연구에 집중한 뒤 각종 수리 기구를 제작하게 하여 한양 주변에 시범 수리사업을 일으키자는 계획을 제안했다. 소통사업 중 준설은 한강 상하류에서, 도랑 개설은 한양의 동서 양쪽에서, 저장 및 양 조절사업은 한강에 유입되는 지류支流에서,

물막이사업은 한강의 범람 피해가 잦은 양주(현 남양주시)와 고양의 한강 가에서 일으켜 몇 년간 풍년이 들도록 한다. 그런 뒤에 팔도에서 이를 부러워하면 비로소 수리사업을 팔도에 퍼뜨린다는 계획이었다.

수리사업의 시행 초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 인력동원을 우려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서유구는 대책을 제시했다. 어차피 방출하게 될 진흙곡으로 백성을 동원하여, ‘진흙’과 ‘수리’를 모두 달성하자는 것이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는 대기근(1809, 1814년)에 방출했던 진흙곡이 최소 50만 석이며 이는 40만 명이 5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라는 계산 결과를 제시하고서, 이 진흙곡으로 수리사업을 일으키면 일시적인 구황에 머무르지 않고 영구적인 구황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선의 수리사업의 열악함을 개선하기 위해 서유구가 제시한 절차는 이강의 제6목에서 농법을 보급하기 위해 제안한 둔전설치론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한양 주변부터 시범사업을 함으로써 주변에서 본받게 했다는 점과 정부의 양곡을 투자하여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려는 시도가 그것이다.

제5목은 번전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건의이다. 번전은 논으로 조성한 밭을 말한다. 이 제5목은 쌀밥을 선호하는 풍속의 성행으로 밭을 논으로 바꾸는 일이 잦았던 당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번전은 대개 관개시설이 열악한 농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뭄의 피해가 심했다. 서유구의 분석에 따르면 이런 번전이 농지 전체의 3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였다. 번전의 문제는 재해를 당해 전세를 낼 수 없는 처지가 되더라도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데에 있었다. 1년 1작하는 목화밭을 제외한 모든 밭은 재해에 따른 세금 감면이 없으므로, 양안量案에 지목이 밭으로 기재되어 있는 번전은 실체는 논이지만 밭의 세법을 따라야 했기 때문이다.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수리불완전답水利不完全답은 밭으로 회복시키고 논으로 만들지 말도록 법으로 금하자는 것이다.

번전의 금지와 더불어 서유구는 밭에서의 이모작 금지령도 제안했다. 조선의 생산력 향상에 큰 기여를 했다고 후대에 평가받는 밭의 이모작 농법에 대해 서유구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것이다. ‘맥류-조(또는 콩)’ 식으로 밭을 새로 갈아 근경根耕하거나 맥류가 자라는 사이사이에 조 등을 간종間種하는 이모작은 ‘말세의 잘못된 관행’으로, 이런 농법은 수확량이 좋지 않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모작이 금지되면 밭에서도 1년 1작을 하게 될 것이므로, 우선 전세를 감면해주는 법을 논의 사례와 같게 한 뒤 이모작 금지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번전은 당시 유행처럼 번지던 추세였고, 근경과 간종은

당시 조선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농법이었다.¹⁸⁾ 농민들에게 가장 익숙한 농법, 즉 관행농법이었던 것이다. 수리불완전답에 이앙법을 금지하자는 주장은 조선 초부터 서유구 당대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하지만 근경과 간종이라는 관행농법을 제도적으로 금하라고 주장한 사람은 서유구가 거의 유일한 것 같다. 어떤 측면에서는 매우 무모하고 과격해 보이는 그의 이 주장은 구종법과 견종법, 그 중에서도 견종법이라는 대안농법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¹⁹⁾

마지막으로 제6목은 둔전을 넓혀 국가재정을 늘리자는 주장을 담았다. 조선은 정부의 채용 관리가 취약하여 나라의 빈곤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한 서유구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제2목에서 설명한, 땅심을 다 활용하는 농법을 가르치는 일뿐이라고 단언한다. 서유구가 보기에 팔도 농민에게 농법을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방법은 이를 몸소 배울 시범농장을 설치하는 일이고, 이를 실행할 제도적 장치가 둔전이었던 것이다.

둔전은 서울 주변의 네 곳[京屯]에서 시작하여 팔도 감영과 예하의 읍으로 확대된다. 한편으로는 변경에도 둔전을 설치하는데, 북방의 평안·함경도 국경지대에는 민둔民屯과 관둔官屯을 설치하고 남서해의 도서 둔전에는 경둔의 방식을 모방한 둔전과 북방의 관둔을 모방한 둔전을 설치한다. 둔전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서는 개발 및 운영 자금을 확보한 뒤 둔전 부지, 농우, 농기구 및 수리 기구, 곡물 보관 시설 등의 하드웨어를 확보하고, 총책임자를 선발하며 농민을 모아야 했다. 둔전에서 거둔 수확물의 용도를 확정하는 일도 중요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는 둔전의 농지 구획과 둔전에서 실행할 농법과 같은 소프트웨어였다.

서유구는 이 모든 요소를 치밀하게 기획했다. 가장 선결되어야 할 자금은 서울 주변 둔전의 경우 중앙의 여러 관서에 비축해둔 자금을, 감영 둔전의 경우 감영의 별도 자금인 별비전別備錢을, 읍 둔전의 경우는 읍에서 조성한 일종의 비자금인 공사고公使庫를 투자하도록 했다. 국경의 경우 민둔에서는 원하는 부호들로 하여금 개인 투자를 통해 토지를 개간하도록 했고, 민둔에서 거둔 세금이 축적되면 이를 관둔 설치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렇게 출자한 금액은 대체로 10년이 안되어 원금 환수는 물론 막대한 이자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그는 전망했다.

18) 이에 대해서는 제2부 제3장의 제5목 해설 부분 참조.

19) 이에 대해서는 제2부 제3장 (3.5.12)의 주석 참조.

자금만 확보되면 그 이후에 필요한 부지, 집, 농우, 농기구 등의 요소는 서유구의 상밀한 계획에 따라 추진하면 되었다. 이 중 특히 농우는 밭갈이를 가장 잘한다는 영남의 소를 구입하도록 했다. 농민의 경우는 논 농사를 잘 짓는 영남인과 조 농사를 잘 짓는 양서(해서·관서)인을 모집하고 농법에 서툰 경기 농민을 도성으로 유입되던 유민들 중에서 선발한 뒤 이들이 한데 힘을 합쳐 공동 경작하게 하자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영남의 논 농법과 양서에서 시행하는 밭 농법과 비슷한 견종법이 경기도 농민에게 전달되게 하고자 했다.

이렇게 둔전을 설치할 준비가 되면 농지 구획을 하고서 개간을 하는데, 이때 제1~2강에서 주장했던 경묘법을 토대로 한 양전법을 적용한다. 구획된 농지는 입지 조건에 따라 논이나 밭으로 조성하게 된다. 논은 영남 농부의 방식을 기본으로 하여 쟁기질, 씨레질, 벼 밀어젖히기, 벼 말리기 등의 공정을 조금 더 정교하게 시행하면 된다. 조선의 농법에서 미진한 부분만을 보완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밭의 경우는 조선 농법을 거의 쓰지 않고 양서 지역에서 일부 유사하게 시행되던 중국의 대전법 즉 견종법을 적용해야 한다. 대전법은 밭갈이의 표준이라, 결코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서유구의 확고한 의지였다. 그가 제안한 농법을 주로 하여 제3강의 제1~5목의 농정을 반영하면 평년작 기준으로 둔전의 1묘에서 조 1석을 수확한다.²⁰⁾ 따라서 1경(100묘)에서의 수확은 100석이 되어, 200~300경인 서울 주변 둔전 하나에서 2~3만 석을 수확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둔전에서 시행되는 농법은 내지 둔전이든 변방 둔전이든 관계없이 모두가 방법대로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둔전이 아닌 일반 민가의 논밭에서도 둔전에서의 고소득 효과를 본받아 견종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될 수 있고, 그 결과 국부가 창출되며 백성도 풍요를 구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유구는 국경 둔전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한 뒤 국경 둔전으로 생기는 이익을 10가지로 나열했다. 이 중 다섯 번째로 들었던 이익은 견종법을 적용하기에 좋은 입지조건이라는 점이다. 고산지대이지만 평지는 평탄하고 넓기 때문에 바둑판처럼 반듯하게 경지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열 번째로 거론했던 이익은 정전제를 시행할 수 있는 최적지라는 점이다. 주나라의 정전제가 폐지된 이래 정전제를 복원하려는 수없는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하지만 국경 민둔의 경우는 부호가 개발하여 운영하는 민간 둔전이기 때문에 정전제 시행의 큰 걸림돌 2가지, 즉 토지 몰수로 인한 지주들의 반항과 정전제 시

20) 『의상경제책』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쌀은 밭 수확의 2배이므로 1묘에서 2석을 얻는 셈이다.

행 중 토지 분배와 환수 과정에서 생기는 속임수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이곳에서는 정전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²¹⁾ 정전제가 시행되는 농지에서는 주나라 때처럼 견종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본다면 국경 둔전은 지리적 여건 상 밭 농사 위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데, 그 밭 농사의 핵심 농법은 견종법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서유구가 제3장에서 강조한 농법의 핵심은 견종법이었고, 둔전을 통한 농법 보급 방안도 모두 견종법 보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견종법은 또한 제1장 제1목을 중심으로 한 전정田政과 제3장 제6목의 둔전설치론을 연결하는 핵심 고리이기도 하다. 전술했듯이 경묘법으로의 농지 구획은 견종법을 실행하는 농지 규격과 동일하다. 양전척 1보를 주척 5척이 아닌 6척으로 규정한 이유도 이 견종법 실행을 위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6목에서 둔전을 설치하자고 주장한 이유도 서유구에게는 그것이 견종법을 보급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그가 제도화하여 전국에 보급하려 했던 중국의 선진 농법은 견종법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1묘 당 조 1석(평년 기준)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견종법은 견종하기 위한 경종법耕種法만을 보급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농법이 아니었다. 서유구가 보기에, 경묘법으로 토지제도를 개혁하고, 주척을 기준으로 한 방전법으로 양전하여 농지가 투명화·표준화되는 전정 영역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했다. 이와 더불어 북극고도를 측정하여 지역마다 다른 정확한 때를 알려주고, 좋은 종자 보급과 수리의 진흥으로 가뭄이나 홍수에 대비하며, 번전을 금지하여 논과 밭이 지리적 특성에 맞게 정확히 구분되는 농정 영역의 농업기술이 적용되어야 비로소 서유구가 경종법의 표준으로 받아들였던 견종법이 실현될 수 있었다. 전정과 농정의 이 같은 ‘종합적 표준화’는 정부의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둔전이라는 시범단지에서의 농법의 제도화로 가능하다고 그는 판단했다. 둔전이라는 농업 시범단지는 기존 둔전과는 운영체계와 방식이 전혀 다른, 서유구가 종합한 전정과 농정이 농업기술을 매개로 긴밀하게 결합된 새로운 농업경영 제도였다. 요컨대, 서유구의 둔전은 견종법을 위주로 한 농법을 제도화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고 믿었던 국부창출의 근거지였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의상경제책』의 3장 11목은 국부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국부창출의 핵심은 바로 농업 분

21)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은 제2부 제3장의 제3장 제6목 해설 참조.

야에서 선진 농업기술의 적용에 있었기에, 11목은 선진 농법을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수렴되었다. 농법의 전국적 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는 둔전이었다. 이 둔전에서 중국의 선진 농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농법에 걸맞는 토지제도로 개혁해야 했다. 개혁된 토지제도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정밀한 양전법을 시행해야 했다. 이렇게 경묘법이 실현되면 둔전 농지 안에서는 지형에 맞는 농사를 짓되, 지역마다 편차가 나는 절기에 맞추고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농업기술을 적용해야 했다. 물의 확보가 용이한 곳에는 논농사를,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밭농사를 짓는다. 밭이 약 75%를 차지했던 조선은 논농법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밭농법은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서유구는 믿었다. 『의상경제책』에서 중국의 화북농법인 견종법을 도입·보급하려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그 결과 둔전 설치를 통해 선진 농법을 국가 제도에 편입시켜 그 효과를 국가에서 보장하려 했던 것이다. 이처럼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국부를 창출하려는 서유구의 구상은 3강과 11조목을 통해서 각 조목의 내용들이 서로를 필요로 하는 긴밀한 연관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3.3. 『의상경제책』 저술 및 경묘법·견종법·둔전 제도화 제안의 배경

3.3.1. 『의상경제책』 저술 배경 : 경진庚辰 양전령

『의상경제책』은 서유구가 귀농기에 쌓았던 농정에 관한 견해를 비교적 짧은 기간에 토로한 글이다. 초야에서 농서와 <<임원경제지>> 등을 저술하고 있었던 그가 조선 정치와 경제의 핵심 정책인 토지제도 개혁과 양전의 적극적 시행 같은 큰 주장을 언급할 지위에 있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조정의 고위 관료 못지않은 정보를 활용하며 국가의 시책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붓을 들었던 것이다. 그가 왜 하필 순조 20년 몇 달 사이에 자신의 농정론을 많은 분량으로 쏟아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순조의 양전령이 직접적인 계기였다. 그렇다면 경진년(순조 20년, 1820)에 양남에서 시행하라 했던 순조의 경진 양전령은 어떻게 내려지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조선후기 국가 재정의 원천은 농지에 매긴 세금이었다. 세금을 수취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농지의 넓이와 등급을 확정해야 했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작업이 토지측량, 즉 양전量田이었다. 『경국대전』에는 “모든 농지는 6등급으로 나누며, 20년마다 다시 양전하여 대장을 만든 뒤 이조와 해당 도 및 해당 읍에 보관한다.”²²⁾라고 규정했다. 농지의 실태를 파악하는 양전에는 대체로 두 가지 방식이 있었다. 경작 여부를 판단하는 ‘사진査陳’과 해당 지역을 전면적으로 측량하는 ‘개량改量’이 그것이다. 사진은 양안에 진전(목은밭)으로 등록된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서 탈세하거나 진전을 경작지로 등재하여 부당한 과세를 하는 사례가 많은 경우, 실사를 통해 경작지인지 목은밭인지를 확인하는 일이었다. 이에 반해 개량은 진기(陳起, 목은밭과 경작밭) 여부는 물론 농지의 넓이까지 다시 전면적으로 측량하는 양전이었다. 『경국대전』에서 규정한 양전은 대체로 사진보다는 개량을 의미했다. 세종 대에 확정되어 조선 전 시기에 걸쳐 적용된 토지제도인 결부법은 농지의 등급에 따라 농지 넓이를 다르게 규정했기 때문에, 비옥도가 수시로 바뀌고 농지의 이용 상황과 소유주가 고정되지 않는 농지의 특성 상 일정 주기로 농지의 상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지만 20년 주기의 개량은 조선 전 역사에 걸쳐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법조문이 되었다. 조선 초 태종 때(1405~1413) 전국적인 양전을 시행한 이래 15세기에는 그나마 30년 전후 주기로 개량하려 했지만²³⁾ 16세기 중반 이후에는 이마저도 지키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조선 조에는 전국적 규모의 양전은 총 4회 밖에 이루어지지 못했다.²⁴⁾ 서유구가 『의상경계책』을 쓸 당시까지, 도 단위 규모의 양전은 숙종 대 기해년(1719)에서 경자년(1720)에 걸쳐 삼남(충청·전라·경상)에서 시행한 ‘경자양전庚子量田’이 마지막이었다(표9).

양전 시행론과 반대론은 정부의 주요 현안으로 자주 대두되었으나, 흉년이나 전염병 등 재난이 생기면 양전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어렵고 민심이 혼란스러워진대거나 양전을 제대로 실시할 인물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번번이 연기되거나 지연되었다. 숙종 대에는 경자양전 이외에 총 2회가 실시되었는데, 황해도 3읍(1701)과 강원도 16읍(1709)이 그것이었다. 경자양전 이후 영·정·

22) “凡田分六等,每二十年改量,成籍藏於本曹·本道·本邑.” 『經國大典』 卷2 「戶典」 ‘量田’.

23) 중종 19년(1524)의 전라도 양전은 성종 24년(1493)의 양전 이후 31년 만에 이루어졌다.

24) 태종 대(1405~1413), 성종 대(1471~1493), 선조 대(1603~1604), 고종 대(1898~1904)가 그것이다.

순조 3대의 양전은 거의 대부분 읍 한 군데에서 시행되었고, 2읍 이상의 양전은 8회에 불과했다.

<표9> 조선 시대 양전 시행 현황²⁵⁾

연도	재위 년	양전 지역	연도	재위년	양전 지역
1401	태종원	연해의 주·군	1719~20	숙종 45~46	충청·전라·경상 3도(경자양전)
1405	태종5	충청·전라·경상 3도	1727	영조3	경상 개령
1406	태종10	경기·황해·강원 3도	1729	영조5	경상 울산
1411	태종11	평안·함경 2도(~1413)	1736	영조12	강원 정선
1419	세종원	제주	1737	영조13	경기 양근 등 6읍(8읍?)
1428	세종10	강원·전라 2도	1745	영조21	전라 진전陳田 개량(이후 수년)
1429	세종11	충청·경상 2도	1746	영조22	황해 신천
1432	세종14	경기	1748	영조24	함경 회령·무산
1461	세조7	경기	1749	영조25	황해 금천
1462	세조8	충청·전라 2도	1750	영조26	경상 경주 등 4읍
1463	세조9	경상	1756	영조32	황해 황주·재령
1471	성종2	황해	1759	영조35	황해 송화, 경기 수원·장단, 충청 영동·옥천
1476	성종7	강원	1761	영조37	강원 양구
1486	성종17	평안	1762	영조38	경기 진위·부평
1488	성종19	함경	1767	영조43	함경 회령
1492	성종23	경기·충청 2도	1777	정조1	경상 함안
1493	성종24	전라·경상 2도	1791	정조15	경상 창원(중단), 충청 결성·회인
1522	중종17	강원	1793	정조17	황해 안악(중단)
1524	중종19	전라(~1525)	1831	순조31	경상 홍해
1603~04	선조 36~37	8도(5도?)(계묘양전)	1843	헌종9	경상 칠원
1613	광해군5	충청·전라·경상 3도	1846	헌종12	경상 창원 등 5읍
1634	인조12	충청·전라·경상 3도(갑술양전)	1856	철종7	경상 진보·영산
1663	현종4	경기	1869	고종6	경상 언양·동래
1665	현종6	함경	1872	고종9	황해 평산
1669	현종10	충청 공주 등 20읍, 황해 황주 등 4읍(기유양전)	1879	고종16	충청 온양
1701	숙종27	황해 강령 등 3읍	1898~1904	광무3~8	양지아문(1898~1902) 양전 124군
1709	숙종35	강원 통천 등 16읍			지계아문(1901~1904) 양전 94군

-정조 15년 창원의 양전 중단은 『정조실록』 20년(1796) 9/29 참조.

-정조 11년 안악의 양전 중단은 『정조실록』 17년(1793) 9/29 참조.

영조 때에는 도 단위 대신 읍 단위의 소규모 양전을 하기로 정책을 전환하면서²⁶⁾ 정조 대에도 양전 요구가 있었고 정조도 한때 이를 받아들이기도 했으나,²⁷⁾ 24년 재위 기간 동안 3읍에 대해서만 양전했고 두 군데는 중단되었다. 정

25) 이세영, 「朝鮮 肅宗代의 量田의 政治學」, 한국역사연구회 토지대장연구반, 『조선 후기 경자양전 연구』, 해안, 2008, 22~23쪽의 표.

26) 같은 글, 21쪽.

조는 재위 후반기에 이르러 양전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이 바뀌기도 하고, 양전을 허가하기도 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1796년 정조는 양전을 담당하는 관리들이 오로지 국가 재정을 풍족하게 하는 데만 마음을 쓰고 있는 점을 들어, 백성을 착취하여 국가 재정에 쓰느니 차라리 도둑질하는 신하를 두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개량을 반대했다.²⁸⁾ 하지만 몇 년 뒤 스스로 반포한 농정 윤음에 답하는 재야 지식인의 양전 건의에 대해서는 상황이 좋아지면 개량이나 사진査陳을 하도록 지시했다.²⁹⁾ 순조 대의 1회는 1831년에 실시된 경상도 홍해 한 읍의 양전이었으니, 『의상경제책』이 저술될 당시(1820)까지 순조 대에는 한 번도 양전이 실시된 적이 없었다(표9).

이 같은 정부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양전 때문에 생기는 폐해보다 양전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폐단이 갈수록 심화되었다. 양전이 실시되지 않음으로써 전정田政이 문란해졌다는 주장이 자주 거론되었고, 그에 따라 토지를 집적한 지주의 탈세액이 영세한 소농민에게 전가되면서 묵은땅에 전세를 부과하는 백징白徵, 집안 사람 또는 이웃에 부과하는 족징族徵·인징隣徵 등 부당한 과세가 늘었다. 이로써 빈부 격차가 심화되는 불균등한 부세가 구조화되고 있었다.³⁰⁾

하지만 여러 사람들 사이에 이권이 개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전 시행론은 지주, 지방 수령 등은 물론이고 중앙 관료들에게도 쉽게 동의를 얻지 못했다. 양전에 대한 거부감은 관료나 백성들에게 매우 뿌리 깊이 자리했다. 양전을 하지 않은 폐해를 알고 있는 군주로서도 쉽사리 전면적 양전을 명할 수 없는 요인이 곳

27) 부사직 이재간(李在簡, 1733~1789)이 개량을 요구하자, 비변사에서는 1년에 한 도에서 적게는 3~4읍에서 많게는 6~7읍을 매년 양전한다면 10년 전후로 전국을 양전할 수 있다고 보고했고 이에 정조도 이를 받아들였다(『정조실록』 10년(1786) 1/22). 또 우의정 김충수(金鍾秀, 1728~1799)의 양전 건의를 받아들이며 농사 상황이 좋고 적임인 수령이 있는 곳부터 차례대로 양전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정조실록』 14년(1790) 4/30).

28) “경들은 이전에도 개량해야 한다는 말을 했었지만 나는 개량이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대개 인정은 반드시 경계로부터 시작하지만, 이 말을 마음에 두는 자는 거의 없다. 우선 백성에게 거두어서 나라를 풍족하게 하려는 데에 마음을 두고 있으니, 참으로 ‘차라리 도둑질하는 신하를 두겠다.’는 경우이다. 上曰: ‘卿等前亦以改量爲言, 而予則以爲難便. 蓋仁政必自經界始, 而人之以此爲心者絶少. 先以斂民富國爲心, 眞所謂‘寧有盜臣’者也.’” 『정조실록』 20년(1796) 9/29.

29) “李書九以備邊司言啓曰: ‘南原幼學許奎所陳冊子, 有草記回啓之命矣. (중략) 改量之政不容少緩, 而中外之論每以人才之不古, 至今因循. (중략) 稍待秋事之登熟, 無論改量與查陳, 作一規模, 斷以行之.’ (중략) 傳曰: ‘量田一事, 待稍豐決意試之.’” 『승정원일기』 정조 23년(1798) 1/8.

30) 양전 관련 폐단에 대해서는 金容燮, 『韓國近代農業史研究』 I, 315~327쪽; 이세영, 「조선 숙종대의 양전의 정치학」, 한국역사연구회 토지대장연구반, 『조선후기 경자양전 연구』, 24~28쪽 등 참조.

곳에 존재했다. 예를 들어 『의상경제책』 저술 3년 전에 정리된 『경세유표經世遺表』(1817년)에서 정약용은 개량이 100년 넘도록 시행되지 않은 구조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 핵심이 결부법이라는 법 자체의 성격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양전 때마다 실무자인 아전의 농간으로 인해 백성과 관원이 모두 피해를 보게 되고, 심지어 아전도 비리가 탄로될까 두려워하므로 양전을 기피한다는 것이다.³¹⁾ 이 같은 입장에서 정약용도 결부법을 폐지하고 경묘법을 도입하자면서 서유구와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도 단위의 대규모 양전(경자양전)이 시행된 지 100년이 다 되어 가는 순조 19년에도 양전에 대한 견해는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다. 양전이 실시되면 손해가 날 지주들이 지방 수령의 비리를 공개하겠다고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수령은 양전이 행해지지 않도록 공조해야 할 처지에 있기도 했다. 또 양전을 실시하면 은닉한 농지인 은결隱結이나 양안에 누락된 농지인 누결漏結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은·누결이 만들어지도록 뇌물을 준 지주나 이를 묵인한 지방 수령 및 양전 관리 업무를 맡은 이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주의 경우는 전세가 늘어날 것이다. 지방 수령은 은·누결을 통해 지방 재정을 확보했기 때문에 은·누결이 양안에 기재되면 재정 운영에 타격을 입게 된다. 아전들은 자신들의 비리가 탄로남으로써 받게 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이처럼 양전을 둘러싸고 다양한 세력이 얽혀있었기 때문에 양전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으려는 이들은 한사코 양전이 시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현상이 반복되었다.

31) “우리나라는 결부로 농지를 경계 짓는데, 이것은 형체가 없는, 농지의 비옥도를 살핍니다. 그리하여 양전 때 뇌물이 은밀히 오가고 온갖 교묘한 속임이 생깁니다. 비록 우禹나 직稷에게 감독하라 해도 그 농간을 밝혀낼 수 없을 것입니다. 법에는 ‘20년마다 개량한다.’고 했으나 지금 100년이 다 되도록 개량하지 않음은 무엇 때문입니까? 개량하게 되면 아전들이 농간을 부리고, 아전들이 농간을 부리면 백성의 저주가 일어나며, 백성의 저주가 일어나면 관원에 대한 책망이 일어나서 죄벌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개량은 오직 아전만이 원할 뿐, 백성과 관원은 모두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또 은결이 밝혀질까 두려워 아전도 꺼립니다. 이것이 100년이 지나도 개량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무릇 입법 내용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받들어 시행하는 자는 반드시 죄과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제가 “결부로 농지를 경계짓는 법은 좋지 못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吾東以結負經田,此致察於無形之肥瘠也.賄賂潛行,變詐百出,雖使禹稷監量,無以昭其奸矣.法曰二十年改量,而今至百年未改量,斯何故也?改量則吏奸舞,吏奸舞則民詛興,民詛興則官謗作而罪罰隨之.故改量者唯吏願之,民與官皆不肯.又恐隱結被覈,吏亦憚之.此所以百年未改量也.夫唯立法未善,故奉行者必陷於罪過.臣故曰‘結負經田之法未善也.’” 정약용, 『경세유표』 제6권 「지관 수제地官修制」 “전제고田制考 6” ‘방전의邦田議’(<<叢刊>> 285, 119쪽).

이런 상황에 순조는 경진년(1820)에 삼남 양전을 시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양전을 시행하라는 왕명은 1819년(순조 19) 12월에 내려졌다. 이에 앞서 같은 해 8월에 올린 승지 이지연(李止淵, 1777~1841)의 건의와 영의정 서용보(徐龍輔, 1757~1824)의 적극적인 지지로 이 같은 결정이 이루어졌다.³²⁾ 이후로 양남에서는 가을에 양전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했다. 경상감사 김이재(金履載, 1767~1847)는 곧장 본격적인 양전을 위해 대비책을 강구하는 「양전사목量田事目」을 작성하여 순조에게 보고했다.³³⁾ 김이재는 일찍부터 양전에 의욕적이었다. 1820년 1월에 작성한 「양전사목」에는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경상도 관할 읍 10개에 대해 시범 양전을 실시한 결과를 싣기도 했다.³⁴⁾ 또한 농지의 품등을 조정하고 은결이나 누결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양전 불이행으로 생겨난 불공평한 부세를 개정하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³⁵⁾ 양전이 시행되지 않은 지 100년 만이라 양전을 위한 세세한 기준안과 설명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같은 선행 시험을 통해 기초조사를 하려는 것이었다.

김이재가 올린 「양전사목」에 따르면 경진년 양전은 경자양전보다 더 치밀하게 계획되었다. 당시 양전 불이행으로 생겨난 폐해는 김이재가 양전할 때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거론했듯이, 첫째 농지 품등이 불공정하다, 둘째 양전 때에 누락되는 농지가 있다, 셋째 농지 측량이 제멋대로이다, 넷째 묵은밭과 경작밭의 구분이 정확하지 않다, 다섯째 지주가 탈세를 위해 몰래 관리에게 뇌물을 바친다는 등이었다.³⁶⁾ 경자양전 때는 품등을 가급적 조정하지 않으려는 보수적 입장을 취한 데 반해, 경진년 「양전사목」에서는 품등 조정이 비교적 용이하도록 규정을 바꿨다.³⁷⁾ 또한 은결이나 누결을 찾기 위해 실무자인 서리 대신에 좌수座首³⁸⁾에

32) 『순조실록』 19년(1819) 8/17, 9/10, 12/10.

33) 『순조실록』 20년(1820) 3/27.

34) 이 「量田事目」(연세대 소장본. 청구기호: 고서(I) 353.0072 양전사)의 속 제목이 「庚辰 正月 日 改量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월부터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경진년 「양전사목」에 대한 분석은 金容燮, 『韓國近代農業史研究』 I, 342~350쪽에 자세하다.

35) 같은 책, 345~350쪽.

36) “等數之陞降不公是去乃,田段或漏是去乃,尺量之盈縮用私是去乃,陳起或混是去乃,或潛捧賂物是去乃,有一於此,則今日營邑之臣,對揚朝令之意,果安在哉?” 「量田事目」 ‘更關草’ 1. 같은 책, 346쪽에서 재인용.

37) 같은 책, 346~347쪽.

38) 좌수 : 조선시대 지방의 주·부·군·현에 두었던 향청(鄉廳: 留鄉所)의 우두머리.

게 양전을 담당하게 했고, 백성이 경작하는 농지 현황을 손수 보고하도록 했다는 점도 경자양전에서는 볼 수 없던 규정이었다.³⁹⁾

김이재는 「양전사목」을 올린 뒤 사직 상소를 제출했는데(8월 4일), 이에 대해 순조는 양전을 앞두고서 감사를 교체하는 일은 전투가 임박할 때 장수를 바꾸는 일과 같다고 그의 사직서를 거부했다.⁴⁰⁾ 이때까지만 해도 순조와 조정에서는 경진년 가을의 양전 시행 의지는 바뀌지 않은 듯 보였다. 그러나 이 같은 분위기는 전라 감사 이서구(李書九, 1754~1825)의 ‘양전연기론’에 부딪혀 순식간에 가라앉았다. 이서구는 김이재의 사직 상소가 올라오기 이틀 전(8월 2일) 상소를 올려 전라도의 양전 연기를 강력히 주장했다. 1805년에 탄핵으로 향촌에 은거한 뒤 15년 만에 호남 관찰사로 정계에 복귀한⁴¹⁾ 이서구는 같은 해 가을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양전을 대비해야 하는 일이 자신의 큰 임무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서구가 들고 나온 대책은 ‘양전사목’이 아니라, 당해년도 양전불가론이었다.⁴²⁾

전라도에서 양전은 연기되어야 한다고 이서구가 주장한 주된 근거는 잦은 흉년으로 인한 진전(陳田, 묵은밭)의 증가였다. 흉년 때문에 백성이 줄면서 진전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진전은 본래 황무지가 아니라 백성이 흩어져서 생긴, 경작이 언제라도 가능한 휴경지였다. 이런 상황에서 양전이 시행된다면 진전은 주인 없는 공지가 될 것이고, 결국 아전들이 농간을 부려 중간착취가 이뤄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으로도 손실이고 백성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권농정책을 활성화하여 백성이 돌아오게 하고, 농사가 잘되기를 기다려 3~5년 뒤에 여건이 좋아지면 그때 양전을 하자는 제안이었다.⁴³⁾ 양전 연기를 주장한 이서구의 상소는, “직접 그 자리에 있으면서 눈으로

39) 「量田事目」, 2월 5일 ‘到付輪關’. 같은 책, 349쪽에서 재인용.

40) 『비변사등록』 순조 20년(1820) 8/4.

41) 유봉학, 『연암일과 북학사상 연구』, 187쪽.

42) 경상도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경진년 양전 대상이었던 전라도에서는 순조의 양전령 이후에도 대비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전라도의 양전 관련 보고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양전령이 내려지고서 3개월 여 뒤에 당시 전라감사였던 박종훈(朴宗薰, 1773~1841)이 임명된 지 채 1년이 안 되어 체직된다(임명일은 1819년 윤4월 19일(『승정원일기』 같은 날 기사 참조)에, 사직일은 1820년 3월 18일(『순조실록』 20년(1820) 3/18)이었다). 박종훈의 사직상소에서는 양전이 일체 언급되지 않았다(『승정원일기』 순조 20년(1820) 3/18). 박종훈에 이어 임명된 이서구는 부임한 뒤 다시 4개월 여 뒤에, 전라도에서의 양전 시행이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보고했던 것이다.

그 형세를 보았다.”는 이유로, 바로 받아들여져서 전라도 양전은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려 천천히 시행하기로 결정되었다.⁴⁴⁾

이어 순조는 그 해 초부터 양전을 준비한 경상도에 대해서도 양전 시행령을 거두었다. 조선과 청 사이의 사신 행차가 계속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이 그 쪽으로 집중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비변사의 건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로써 경상도에 지급된 양전 경비까지 다시 거두어들일도록 했다.⁴⁵⁾ 예정된 외교 관련 예산까지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궁여지책으로 국가의 또 다른 중대사인 양전까지 연기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미루어진 양전 사업은 조선이 거의 끝날 때까지 재개되지 않았다.

대규모의 양전이 100년 동안 시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결정된 순조의 양전령으로 인해 서유구는 전정과 농정에 관한 제언을 하기 위해 『상경계책』을 썼다. 귀농기에 범승지와 가사협, 왕정과 서광계 등이 쓴 중국 농서에 파묻혔고, 이를 토대로 농업의 입론을 다졌던 그는 민가의 농업생산성 향상 그 자체뿐 아니라 국가 단위의 생산성을 올리는 데에도 진지한 고민을 해오던 차였다. <<임원경제지>>라는 저술의 특성 상 국가 운영에 관한 내용을 거의 다루지 않았지만, 『행포지』와 『본리지』 첫 부분이 ‘토지제도’로 시작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서유구의 농업 사상에서 토지제도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였다. 이 때문에 토지제도, 양전, 농정을 하나로 잇는 장편의 『상경계책』을 저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위에서 살핀 과정을 거쳐 순조의 양전령은 결국 유야무야가 되었고, 『상경계책』도 정부에 접수하지 않은 채 『의상경계책』으로 남게 되었다.

43) 이서구의 이 같은 주장은 국가 재정을 왕실이나 세도가나 탐관오리 등이 잠식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유봉학, 앞의 책, 181쪽). 40세(1793년)에 이미 호남 관찰사를 역임한 바 있고, 40대 후반 3년 동안(1800~1803년) 경제정책 수장인 호조 판서를 3회나 맡은 적이 있었던 그의 재정운영론은 재화의 창출이나 생산력 증대보다는 절약에 방점을 두고 있었다(“生財之本,惟在於節省,舍此而生財,非臣攸聞.” 李蕃永, 『楊齋集』 冊8 「楊齋先生年譜」(<<叢刊>> 270, 358쪽). 이서구의 재정운영론에 대해서는 유봉학, 앞의 책, 181~184쪽 참조. 여기서 이서구는 세도정권에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생산력 증대보다 절약을 강조했던 반면, 서유구는 절약보다는 둔전을 통해 생산력 증대를 지향한 점이 비교된다고 지적했다(같은 책, 183쪽)).

44) “廟堂啓言:‘道臣所論,躬莅其地,目見其勢,故其言如此.此非以量田爲不可行也,必欲待歲事之連登,田功之克舉,始可議於定界也.請本道量田一款,依所請許令姑徐.’從之.” 『순조실록』 20년(1820) 8/2. 비변사의 계문은 같은 해 8월 5일에 보고되었으나 『순조실록』에는 8월 2일에 정리되었다. 『비변사등록』 순조 20년(1820) 8/5.

45) 『비변사등록』, 순조 20년(1820) 8/24; 『순조실록』 20년(1820) 8/25.

3.3.2. 결부법의 성립과 그 변천

1820년 농학에 심취해있던 서유구는 양전 명령이 떨어졌을 때 왜 왕에게 정책 건의서를 올리려 했을까. 양전과 서유구의 농학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의상경제책』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물음에 대한 답을 먼저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전과 그 바탕인 조선의 토지제도를 일별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조선 전 시기에 걸쳐 큰 변화 없이 이어진 조선의 토지제도 결부법의 형성 과정과 그 내용을 살피고, 결부법이 어떤 식으로 변모했는지를 추적해 보도록 한다.

세종 때 공법貢法 시행을 계기로 정착된 조선의 토지제도는 결부법을 토대로, 농지의 품등을 6등으로 나누고(전분6등법) 풍흉의 품등을 9가지로 나누는(연분9등법) 방식이었다. 이런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인 토지 조사 사업이 이루어져야 했다. 특히 농지를 조사하는 양전이 시행되어야 양전 서류인 양안을 바탕으로 수세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기에 정립된 이 제도는 세조 때부터 양전에 적용하기 시작하여 조선이 몰락할 때까지 이어졌다. 19세기 초에 정리한 『만기요람萬機要覽』(1808년)에도 이 원칙이 다시 확인된다.⁴⁶⁾

세종 때 확정된 공법 체제는 중국 하·은·주 삼대 중 하 왕조에서 시행했다는 토지제도로, 『맹자』에서 소개한 내용이 빈번하게 인용되곤 했다. 『맹자』에 따르면 하나라의 공법은 50묘씩을 백성 1가구에 분배하고 거기서 나온 수확량의 1/10을 세금으로 수취하는 방식이었다. 이때 수확량은 여러 해 동안 소출의 평균값으로 정했고, 이를 통해 정해진 세금은 풍흉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고정되었다. 맹자에 따르면, 이런 식의 세금 수취는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풍년에는 많이 걷어도 남을 지경인데도 적게 걷고, 흉년에는 적게 걷어도 모자랄 지경인데도 많이 걷는 불합리한 제도였다.⁴⁷⁾ 농사의 풍흉은 일정하지 않는데 세금은 일정하게 정해진 데서 오는 모순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세종은 이 하 왕조의 공법을 도입하려고 일찍부터 구상했다. 세종 9년

46) 『萬機要覽』 『財用編』 2 ‘年分·收稅’. 19세기 경에 연분은 9등에서 3등(수확이 좋은 순서대로 초실稍實·지차之次·우심尤甚)으로 조정되었다.

47) “夏后氏五十而貢,殷人七十而助,周人百畝而徹,其實皆什一也.徹者徹也,助者藉也.龍子曰:‘治地莫善於助,莫不善於貢.’貢者,校數歲之中以爲常,樂歲粒米狼戾,多取之而不爲虐,則寡取之,凶年糞其田而不足,則必取盈焉.” 『孟子』 『滕文公 上』 3.

(1427) 세종이 낸 문과 과거 문제를 보면, 당시 명나라에서도 이 공법을 근간으로 하는 전제를 받아들였다는 점도 공법 구상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⁴⁸⁾ 그렇지만 세종이 공법을 도입하려한 더 근본적인 이유는 고려의 토지제도가 옛 제도, 즉 중국의 고제古制를 따르지 않아 폐단이 생겼다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세종이 낸 책문의 “皇明動遵古制而取夏后之貢”,⁴⁹⁾ 즉 “명나라에서 갑자기 옛 제도를 따라 하나라의 공법을 채택했다.”는 언급에서 ‘옛 제도를 따른다[遵古制]’는 표현은, 토지제도는 삼대의 제도를 따라야 한다는 암묵적인 인식을 공유한 결과이다.

세종은 이후로 공법 시행 여부에 관련한 수많은 회의를 거치고 많은 백성의 의견을 듣고서 17년 뒤에 큰 틀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세종 12년(1430)에는 풍흉과 농지의 비옥도에 관계없이 농지 1결 당 10두(합갈·평안도는 7두)의 조세를 걷은 데 대해 약 5개월간 팔도 백성의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그 결과 172,806명이 참여하여 찬성 98,657명, 반대 74,149명으로 찬성 의견이 많았으나 세종은 황희 등 안전에 반대하는 이들의 견해를 따르도록 지시했다.⁵⁰⁾ 오래 시간을 두고 숙의한 결과 고려의 토지제도를 이어받은, 조선 초 계지척計指尺을 기준으로 한 수등이척제(隨等異尺制, 등급에 따라 자 길이를 달리하는 법)가 ‘공법’ 논의를 통해 세종 26년(1444)에 ‘전제田制 상정소詳定所’⁵¹⁾의 안으로 확정되었다. 이 공법은 전품(田品, 농지 등급)을 종래의 상·중·하 3분법에서 6분법으로, 양전 기준 척을 종래의 지척에서 주척으로 바꾼다는 내용이 골자였다.⁵²⁾ 확정된 이 공법은 ‘결부법’을 토대로 한 전분6등법과 연분9등법이 주된 내용이다.

여기서 『의상경계책』에서 제기한 토지제도의 핵심 용어인 ‘결부법’과 ‘경묘법’의 의미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결부법結負法은 조세 수취량을 정해 놓고 이 조세를 낼 수 있는 농지 넓이를 조절하는 토지제도이다. 조세와 곡식 수확량과 농지 넓이를 한 묶음으로 파악하려는 것이다. 즉 곡물 수확량 1줌[握]을

48) 『세종실록』 9년(1427) 3/16. 공법을 구상한 이 기사에서 세종은 『의상경계책』 제목의 유래인 맹자의 “인정은 반드시 경계로부터 시작한다.”는 말을 인용했다.

49) 나는 원문의 ‘動’을 ‘輒’(갑자기)으로 풀었다.

50) 『세종실록』 12년(1430) 3/5, 7/5, 8/10.

51) 전제 상정소는 공법의 구체적인 절목을 제정하고 시행을 추진할 기구로, 세종 25년 11월에 설치되었다. 도제조都提調는 진양晉陽 대군(즉 수양 대군) 이유李瑅였고, 제조提調는 좌찬성 하연(河演, 1376~1453), 호조판서 박종우(朴從愚, ?~1464), 지중추원사 정인지(鄭麟趾, 1396~1478)였다. 『세종실록』 25년(1443) 11/13.

52) 이 체제는 효종 4년(1653)까지 이어진다.

1파把, 10파를 1속束, 10속을 1부負, 100부를 1결結이라 하며, 이 단위는 그대로 농지 넓이 단위가 되어 앞의 곡물량을 생산할 수 있는 농지 넓이를 각각 파·속·부·결이라 한다. 즉, 결부법의 명칭이 된 ‘결’과 ‘부’는 본래 농지 넓이가 아니라 곡식 수확량의 단위이다. 예를 들어 수확량이 400두인 농지 넓이를 1결結이라고 한다면, 1결 당 수확량의 1/20인 20두를 조세 수취량으로 걷는 식이다. 이 같은 방식에서는 농지에 따라 비옥도 차이가 있기 마련이므로 400두를 생산할 수 있는 농지 넓이는 비옥도에 따라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따라서 농지 넓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등급에 따라 상대적이다.

이에 비해 서유구가 지지했던 경묘법頃畝法은 농지 넓이 단위를 일정하게 정해놓고 농지의 비옥도에 따라 조세 수취량을 조절하는 토지제도이다. 주척周尺으로 5척(또는 6척)을 1보步로 정하고 이를 양전척의 1척으로 삼는다. 양전척으로 100척인 넓이를 1묘畝라 하고, 100묘를 1경頃이라 한다. ‘경’과 ‘묘’는 조세 수취량과는 관련 없는 넓이의 단위인 것이다. 예를 들어 1경의 수확량의 1/20을 조세로 걷는다면, 수확량이 400두인 등급의 농지에서는 20두를, 200두인 등급의 농지에서는 10두를 조세로 내는 식이다. 양전척의 길이를 통일한다면 1경의 넓이는 흙의 비옥도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동일하게 되는 절대적 기준이 된다. 경묘법은 지금의 미터와는 길이 단위가 다르지만 경이나 묘가 절대적인 길이라는 의미에서 미터법과 같은 개념이라 이해할 수 있다.

공법을 제정하려 했던 세종이 처음부터 결부법을 지지한 것은 아니었다. 공법이 확정되기 전 경묘법을 시행하려는 시도가 있었다.⁵³⁾ 공법이 확정되기 1년 전(1443)에 발표한 이 시도에서는 전분5등과 연분9등을 골자로 하면서 결부結負 대신 주척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가 된다. 첫째 계지척 대신 주척을 쓸 것, 둘째 전국의 농지를 5등급으로 나눌 것, 셋째 연분을 9등급으로 나눌 것 등이 그것이다.⁵⁴⁾ 하나라 공법의 문제가 매년의 농형(農形, 작황)을 반영하지 않는 데 있었기 때문에 세종은 연분을 9등으로 하여 공법의 약점을 보완하려 했고, 전품에 따라 기준이 다른 계지척을 사용하는 대신 삼대의 고제인 주척을 채택하려 했다. 경묘법을 토대로 전품을 5등급으로 나눈 이유는, 공법은 중국 삼대의 제도를 본받은 제도였던 반면 그 때까지 시행한 답험손실법(踏驗損失法, 농사 상황을 실사하여 그에 따라 세금을 정하는 법)은 경전에 없던 제도로서, 액수 책정이 임

53) 『세종실록』 25년(1443) 11/2, 11/14.

54) 『세종실록』 25년(1443) 11/2.

의적이라 폐단이 많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⁵⁵⁾ 이는 주척을 공식 양전적으로 삼아 고려에서 쓰던 결부제를 버리고 주척을 기준으로 삼는 경묘를 농지 넓이 단위로 쓰자는 계획이었다. 즉, 이전에는 양전적을 전품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함으로써 농지 넓이가 균일하지 않았으므로 이제는 계지척이 아닌 주척을 사용하여 단위를 표준화하자는 결정이었다.

세종의 경묘법은 ‘옛 제도를 따른다.’는 원칙에 근거했다. 계지척 대신 주척을 써야 한다는 명령의 배경에는 항상 고제가 있었던 것이다. 그는 옛 제도를 따르기 위해 “각 등급의 밭과 논은 같은 기준으로 다시 양전하고, 조세는 농지 등급에 따라 가감”하려 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주척으로 다시 양전해야” 한다고 보았다.⁵⁶⁾ 이때 세종이 도입한 경묘법은 “자는 주척을 쓰고, 25척²이 되는 넓이를 1보로 하고, 240보²을 1묘로, 100묘²을 1경으로, 5경을 1자^字⁵⁷⁾로 한다.”⁵⁸⁾는 제도이다.^{(1.1.55)⁵⁹⁾}

그러나 이 경묘법은 제대로 시행도 되기 전에 무산되었다. 세종 26년 1월에 경묘법 시행을 위해 의정부에서 기존 3등전의 결부를 경묘로 환산하는 법을 만들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지만,⁶⁰⁾ 그 해 6월 여러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경묘법 대신 결부법을 시행하도록 하고, 3등전을 세분하여 5등전으로 나누려 했던 계획을 변경해 다시 6등전으로 더 나누고, 조세를 동일하게 맞추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때 전제 상정소에서는 백성들이 새로운 제도에 대해 생소해 하고 전분5등과 연분9등에 따라 총 45가지의 경우로 조세가 각각 다르게 책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산이 번거로우며, 이로 인해 아전이 비리를 저지르게 되고 군역과 부역 등의 사무도 복잡해진다는 이유로 예전대로 결부법을 시행하자고 제안했다.⁶¹⁾ 영의정 황희(黃喜, 1363~1452)는 경묘법에 대해 “한갓 보고듣는 자로 하여금 놀라게 할 뿐”이라 했고, 다른 여러 신료들도 “여러 사람들의 귀를 놀라게 합니다.”라며 경묘법 반대 의견을 보였다.⁶²⁾ 이후 새 공법에 대한 찬반이 치열하

55) 위의 기사.

56) 위의 기사.

57) 농지를 5경 단위로 천자문 글자 순서(天·地·玄·黃···)대로 표기한다는 뜻이다.

58) 『세종실록』, 25년(1443) 11/14.

59) 이 제도는 한대 이후 중국의 신법을 따른 것으로, 5척=1보步, 240보²=1묘로 한다. 한대 이전에 쓰인 구법은 6척=1보, 100보²=1묘로 삼는다. 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임원경제지 본리지』 1, 45~47쪽.

60) 『세종실록』 26년(1444) 1/20.

61) 『세종실록』 26년(1444) 6/6.

62) 위의 기사.

게 대립했으나 결국 위에서 이야기했던, 결부법을 중심으로 한 새 공법을 시행했던 것이다.⁶³⁾

그러면 이제 서유구가 결부법 혁파를 요구하게 된 이유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세종 대 공법을 정할 때, 각 등급 간의 양전척과 1결당 넓이를 어떻게 구했는지 추적해보자. 이 과정은 세종 26년(1444) 결부법 제정 당시 전제 상정소에서 제안한 내용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먼저 충청도 청안현에서 상·중·하 3등전 중 하등전 1결인 57묘 넓이를 기준으로 실험한 결과 상상년(上上年)에 밭에서 곡식의 수확량은 1등전의 경우 40석이고 6등전의 경우 10석이였다.⁶⁴⁾ 57묘를 1결로 삼은 이 같은 논의는 결부법이 아니라 경묘법을 적용할 경우를 예측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상상년일 경우 1등의 논 수확량을 80석, 6등의 논 수확량을 20석으로 정했다. 상한과 하한을 이렇게 정해 놓고, 2등전~5등전의 수확량을 균등한 차이로 나눴다. 밭의 경우 최고와 최저 등급의 차이가 30석이어서 1등급에서 등급마다 6석 씩 줄어나갔다.

이렇게 나누고 보면 57묘라는 동일한 넓이에서 1등전과 6등전의 수확량은 정확히 4배 차이가 난다. 따라서 1등전과 6등전에서 동일한 세금을 수취하고자 한다면 6등전은 1등전 넓이의 4배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1등전 57묘 밭에서 600두(40석)가 수확된다면, 수확량의 1/20인 수세량은 콩(메주콩) 30두가 된다. 6등전의 경우 같은 넓이의 밭에서는 150두(10석)가 수확되므로, 수세량은 콩 7.5두가 된다. 따라서 6등전에서도 1등전과 동일한 세금(30두)을 걷으려면 6등전 농지는 1등전 농지의 4배가 되어야 한다. 아래 표는 세종 26년에 제안한 전제 상정소의 안을 정리한 내용인데, 이를 보면 각 등급 간의 소출량이 균등하게 안배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얻는 전세는 상상년 1등전의 30두에서 하하년 6등전의 1.5두에 이르기까지 총 54가지 경우가 생기게 된다(표10).

<표10> 경묘법(하등전 1결=57묘)으로 산출한 공법⁶⁵⁾

등전	1	2	3	4	5	6	비 고
1결 넓이(묘)	57	57	57	57	57	57	

63) 『세종실록』 26년(1444) 11/13.

64) “今政府議定租稅之法,上上年五十七畝之地一等田所出四十石,六等田所出一十石.” 『세종실록』 26년(1444) 8/24. 하지만 이 같은 수확량의 산출이 당시 생산력에 비추어 과장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이호철에 따르면 “안정적 연작농법의 확립이란 농법발달을 지나치게 과장하였기 때문에 1등전 57畝地에서의 上上年 40石, 下下年 10石이란 지나치게 과다한 토지생산력을 산출”했다고 분석했다. 李鎬澈, 『朝鮮前期 農業經濟史』, 한길사, 1986, 242~243쪽.

상상년 1결 논 소출 (두)	1200 (80)	1020 (68)	840 (56)	660 (44)	480 (32)	300 (20)	팔호 안은 석
상상년 1결 밭 소출 (두)	600 (40)	510 (34)	420 (28)	330 (22)	240 (16)	150 (10)	팔호 안은 석
연분9등에 따른 수세량(두)							
상상년	30	25.5	21	16.5	12	7.5	소출량의 1/20
상중년	27	22.9	18.9	14.8	10.8	6.7	
상하년	24	20.4	16.8	13.2	9.6	6	
중상년	21	17.8	14.7	11.5	8.4	5.2	
중중년	18	15.3	12.6	9.9	7.2	4.5	
중하년	15	12.7	10.5	8.2	6	3.7	
하상년	12	10.2	8.4	6.6	4.8	3	
하중년	9	7.6	6.3	4.9	3.6	2.2	
하하년	6	5.1	4.2	3.3	2.4	1.5	

-연분9등에 따른 수세량은 논인 경우 걸곡식을 쪼은 쌀이, 밭의 경우는 콩이 기준이며 논 수확량을 밭 수확량의 2배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상상년에 1등전의 논인 경우 쌀 30두가, 1등전의 밭인 경우 콩 30두나 쌀 15두가 전세이다.⁶⁵⁾

이렇게 경묘법을 채용하여 6가지 등급의 농지를 모두 57묘를 1결로 정하게 되면 전분6등과 연분9등에 해당하는 농지 54가지 경우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고 실무자는 이를 익혀야 한다. 또 농지의 전세를 기준으로 군역과 부역도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54개나 되는 다양한 경우에 해당하는 백성들에게 균평하게 역을 분담시키려다 보면 고르지 못한 부과 때문에 폐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겼다.⁶⁷⁾ 그 결과 경묘법을 포기하고 “마땅히 전례에 따라 결부의 크기를 등급마다

65) 『세종실록』 세종 26년(1444) 11/13.

66) “밭의 소출은 논인 수량을 기준으로 전례에 따라 절반으로 정합니다. 가령 상상년의 경우 논인 전세가 쌀 20두이면, 밭의 전세는 콩으로는 20두이고, 밭쌀[田米]로는 10두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旱田所出準水田之數, 依前例折半爲定. 假令上上年水田之稅, 收米二十斗, 則旱田之稅, 黃豆則二十斗, 田米則十斗之類.” 『세종실록』 26년(1444) 11/13. 또 정약용은 걸곡식을 쪼어 쌀이 되면 반이 줄어든다고 했다. 김용섭도 이를 논에서 수확한 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800두(80석, 즉 1석=10두로 봄)는 피곡皮穀이고, 그 조세인 20두는 미미라고 하여 껍질을 벗긴 쌀로 본 것이다. “上上年一等田, 出皮穀八十石, 二十而取一, 其稅三十斗, 畝收五升二合六勺有奇. (其稅三十斗者, 米也. 每皮穀十斗作米五斗.)” 丁若鏞, <<與猶堂全書>> 第五集 政法集 第九卷 『經世遺表』 卷九 「地官修制」 “田制別考” — ‘結負考辨’(<<叢刊>>285, 166쪽); 金容燮, 『韓國中世農業史研究』, 지식산업사, 2000, 245쪽 표4 참조.

67) “여섯 등급의 농지를 일괄적으로 57묘를 1결로 삼고, 이에 따라 조세를 각각 다르게 징수하게 되면 지침이 복잡할 뿐 아니라, 농지를 비례로 군대에 나가고 부역에 응하는 등의 일은 계산이

각기 다르게 정하여 동급으로 과세한다.”는 원칙을 수립했다.⁶⁸⁾ 같은 해 6월에 전제 상정소에서 결부법을 고수하자는 건의가 이때도 받아들여진 것이다.

여기서 전제 제정자들은 고민이 생긴다. 결부법을 적용하면 세금의 기준량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1결의 넓이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 6등전의 수세량인 7.5두로 일괄 수세한다면, 6등전 1결이 57묘가 되므로, 1·2등전의 1결 넓이가 너무 적어진다. 반대로 1등전의 수세량인 30두로 일괄 수세한다면, 1등전 1결이 57묘가 되므로, 5·6등전의 1결 넓이가 너무 많아진다. 다시 말하면 만약 57묘가 6등전의 1결이라면 그에 비해 넓이가 1/4이 되는 1등전의 1결은 14.27묘가 되고, 2등전은 16.7묘⁶⁹⁾가 되어 1·2등전의 1결 넓이가 너무 작게 되며, 만약 57묘가 1등전의 1결이라면 4배가 되는 6등전의 1결은 228묘가 되고, 5등전은 142.5묘⁷⁰⁾가 되어 5·6등전의 1결 넓이가 너무 커진다.

따라서 전제 제정자들은 57묘를 1등전이나 6등전의 1결로 정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서 새로운 1결의 기준을 찾고자 했다. 이때 판단의 근거는 상상년에 1등전 57결의 수세량이 30두였기에 새 1결 넓이는 57묘보다는 작아야 한다는 점이었다. 조정에서 공법을 제정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은 1결의 넓이에 있다기보다 전제 양에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 1결의 수세량은 57묘일 때의 수세량 즉 30두보다는 작아야 했다. 1등전의 30두는 상상년의 세액이라 그 아래로 8개 등급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세액을 너무 작게 잡을 수도 없었다. 이를 조정한 결과 1결을 상상년에 1등전에서 수세량 20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맞추었다.

왜 하필 20두로 결정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30두를 기준으로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등급간 수세량이 정수 비가 된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결에 30두였을 때는 연분9등에 의한 등급 간 수세량 차이가 3두였다. 상중·상하가 각각 27·24두였고 이런 식으로 감액되어 하중·하하는 각각 9·6두가 되었던 것이다. 3이라는 정수로 감액되는 식의 기준을 충족하면서 30두보다 작은 세액은 20두가 가장 적절해 보인다. 30두였을 때 3두씩 감액한 기준대로 하려면 20두였을 때 2두씩 감액하여 2라는 정수로 줄어드는 방식이 가장 간편할 것이기

매우 어렵다. 六等田,皆以五十七畝爲結,而依此收稅各異,則非惟節目煩碎,科田出軍賦役等事,計算甚難.”『세종실록』 세종 26년(1444) 11/13.

68) “當依前例,結卜廣狹,各異分定,而同科收租.” 위의 기사.

69) 16.7묘는 ‘57묘 : 510두 = x : 150두’라는 비례식에서 구했다.

70) 142.5묘는 ‘57묘 : 240두 = x : 600두’라는 비례식에서 구했다.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상상년의 1결 세액을 20두로 하여 그 아래 등급으로 내려가면서 18·16···6·4두로 매길 수 있다(표11). 이와는 달리 만약 상상년 1결의 세액을 25두로 한다면 연분의 각 등급간 차이가 2.5두가 되어 정수 비가 되지 못한다. 반대로 1결의 세액을 10두로 할 경우 1등전의 1결 넓이가 19묘(=57묘/3)가 되어 너무 작아진다는 문제가 생긴다.

〈표11〉 각 등전 1결 당 수세량

연분/등전	1	2	3	4	5	6	비 고
상상년	20	20	20	20	20	20	소출량의 1/20
상중년	18	18	18	18	18	18	
상하년	16	16	16	16	16	16	
중상년	14	14	14	14	14	14	
중중년	12	12	12	12	12	12	
중하년	10	10	10	10	10	10	
하상년	8	8	8	8	8	8	
하중년	6	6	6	6	6	6	
하하년	4	4	4	4	4	4	

결국 이상과 같은 고려 끝에 전제 제정자들은 상상년 1결의 수세액을 20두로 정해야 가장 합리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결부법을 바탕으로 한 1결의 넓이를 확정하여 세종에게 보고한 전제 상정소의 최종안이다.

만약 6등전의 조세인 7.5두를 따라 동일액으로 결을 정하면, 1등·2등의 농지는 너무 좁아지고, 1등전의 조세인 30두를 따라 동일액으로 결을 정하면, 5등·6등의 농지는 너무 넓어집니다. 이로 말미암아 넓이가 적절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57묘라고 정한 수로 추론하고 연역하여, 20두를 동일액으로 결을 정합니다. 그러면 6등전 1결은 152묘, 5등전 1결은 95묘, 4등전 1결은 69묘, 3등전 1결은 54.2묘, 2등전 1결은 44.7묘, 1등전 1결은 38묘입니다. 조세액은 상상년에 20두, 상중년에 18두, 상하년에 16두, 중상년에 14두, 중중년에 12두, 중하년에 10두, 하상년에 8두, 하중년에 6두, 하하년에 4두입니다.⁷¹⁾

71) “如從六等田稅七斗五升,同科定結,則一二等之田過狹;從一等田稅三十斗,同科定結,則五六等之田太廣.由是廣狹不中,故以五十七畝所定之數,推而演之,以二十斗同科定結,則六等田之結一百五十二畝,五等田之結九十五畝,四等田之結六十九畝,三等田之結五十四畝二分,二等田之結四十四畝七分,一等田之結三十八畝.上上年收稅二十斗,上中年收稅十八斗,上下年收稅十六斗.中上年收稅十四斗,中中年收稅十二斗,中下年收稅十斗.下上年收稅八斗,下中年收稅六斗,下下年收稅四斗.” 『세종실록』 26년(1444) 11/13.

이렇게 조정하여 찾은 1등전의 넓이가 38묘였다.⁷²⁾ 1등전 1결이 38묘로 정해지면 이의 1/4의 수확을 내는 6등전은 1결의 넓이가 1등전의 4배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152묘가 된다. 1등전 1결이 정해지면 나머지 다섯 등전의 1결 넓이는 비례 관계를 통해 구할 수 있다. 2등전의 1결에서는 1등전의 1결과 같은 수확량은 내야 한다. 콩 20두를 전세로 건는 1등전 1결 즉 38묘에서의 수확량은 400두이다. 그렇다면 2등전에서는 몇 묘의 넓이에서 400두의 수확을 낼 수 있는가를 구하면 된다. 이를 알기 위해 먼저 세종(26년, 1444) 때 하등전 1결인 57묘를 기준으로 여섯 등급의 농지 생산량을 산출하기 위해 경묘법으로 계산한 방식을 적용해 보기로 하자.

<표12> 1결=38묘 기준에서의 밭 등급 간 수확량

밭 등급	1	2	3	4	5	6
1결 넓이(묘)	38	38	38	38	38	38
밭수확량(두)	400	340	280	220	160	100

1등전의 수확량이 400두이면 이의 1/4을 수확하는 6등전은 100두를 산출할 것이고, 2~5등전은 1등전과 6등전의 수확량의 차이인 300두를 5등분한 60두의 차이를 보이며 수확량이 줄어든 것이다. 즉 2등전부터 5등전까지의 수확량은 차례대로 340·280·220·160두가 된다. 여기서 2등전의 경우 38묘의 넓이에서의 수확량이 340두라는 말이다(표12). 이를 결부법의 기준으로 바꾸려면 2등전에서도 400두(수세량 20두)를 산출해야 한다.

<표13> 1결=38묘(1등전) 기준에서의 밭 등급 간 1결 넓이

밭 등급	1	2	3	4	5	6
수세량(상상년)	20	20	20	20	20	20
1결 넓이(x_i)		38:340	38:280	38:220	38:160	38:100
구하는 식		$=x_2:400$	$=x_3:400$	$=x_4:400$	$=x_5:400$	$=x_6:400$
1결 넓이(묘)	38	44.7	54.2	69	95	152

그러므로 38묘 넓이에서 340두를 수확할 수 있는 밭에서 400두를 수확하려면

72) 20두 전세를 받을 1등전 1결의 넓이(x)를 구하기 위해서 '57결 : 30두 = x : 20두'라는 식을 이용하면 $x = 38$ 묘가 나온다.

농지 넓이(x)가 얼마여야 하는지를 구하면 그 값이 2등전의 1결 넓이가 된다. 이를 비례식으로 만들면 ‘38묘 : 340두 = x : 400두’가 될 것이고, 미지수는 44.7묘이다(표13).⁷³⁾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등전의 1결 넓이를 구한 결과는 위의 표와 같으며 이는 공법에서 발표한 넓이와 일치한다.

이렇게 각 등전의 넓이를 확정 한 뒤 전제 상정소에서는 각 등전을 측량하는 기준척이 되는 양전척 1척의 길이를 확정해야 했다. 양전척은 1등전의 양전척을 나머지 다섯 등전에 적용하지 않고 각각의 등전마다 양전척을 달리해야 했기 때문이다. 각 등급의 양전척 길이는 각각의 1결 넓이를 역산함으로써 구할 수 있었다.⁷⁴⁾ 1결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100척인 넓이이므로 이를 이용해 1척의 길이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묘는 240보²이고, 1보는 주척으로 5척이므로 1묘는 6,000척²(=5척×5척×240)이다. 따라서 1등전 1결인 38묘는 228,000척²이다. 다시 양전척으로 가로와 세로가 100척이 되는 넓이가 이 값이므로 1등전의 양전척의 주척의 길이를 x라 하면, 228,000척²=(x×100척)×(x×100척)에서 x = 4.7749345…가 된다. 척, 촌, 푼, 리까지 지정하는 척제에 따르면 소수 셋째자리까지만 유효숫자였고 소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했다.⁷⁵⁾ 이에 따라 1등전의 양전척은 4.775척으로 정해진다. 이런 방식으로 나머지 등전의 척 수도 구할 수 있다(표14).

<표14> 각 등전의 기준 묘 수와 척 수

	1등전	2등전	3등전	4등전	5등전	6등전
1결의 경묘법 기준 면적(묘)	38	44.7	54.2	69	95	152
1결의 경묘법 기준 면적(척)	228,000	268,220	325,200	414,000	570,000	912,000
주척에 대비한 기준척 1척의 길이(척)	4.775	5.179	5.703	6.434	7.55	9.55

이렇게 제도화된 결부법의 조세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

73) 1등전 1결인 38묘에서의 수확량이 400두일 때 나머지 2~6등전의 1결 넓이(x_i)는 ‘38묘 : y_i = x_i : 400두’(y_i는 각 등전 38묘의 수확량, i = 2, 3, 4, 5, 6)라는 비례식에서 ‘x_i = (38묘×400두)/y_i’라는 일반식을 얻을 수 있다.

74) 역산 과정에서 반드시 제곱근을 구해야 하므로, 양전척 길이는 정수로 정해지지 않고 척을 비롯하여 10진법 단위로 작아지는 촌·푼·리까지 나오게 되었다.

75) 이 소수는 당시에는 척, 촌, 푼, 리로 적은 방식을 이해의 편의상 오늘날 표기법으로 기재한 수이다.

간이 지나야 했다. 세종 대에도 이 공법으로 양전을 제대로 못하다가 세조 때 경기도와 하삼도 양전을 공법을 적용해 실시했고(1461~1463), 성종 때에 강원·황해·영안(함경)·평안도 등을 비로소 개량했다(1471~1488).⁷⁶⁾ 공법 제정 44년만에 겨우 팔도의 양전을 1회 실시했던 것이다.

요약하자면, 이 공법(결부법)은 고려시대의 토지제도를 이어받아 토질에 따라 넓이를 달리 한다. 즉 농지의 양전은 토지 중심이 아니라 세금 중심이었다(1.1.6~8). 결부법은 토품에 따라 1결의 넓이가 달랐기 때문에, 토품 변경이 생기면 결수도 그에 따라 조정되었다. 즉 등급이 높을수록 결수는 줄어들고, 낮을수록 넓어진다.

공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농지를 전국에 걸쳐 6등급으로 나누는 일이 균등한 조세에 일조할 것이라는 확신이 신하들 사이에 있었다. 전제 상정소에서 농지를 6등급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전에 시행했던 3등전 체제는 각 도별로 품등을 정했기 때문에 도 내부에 다양한 토질까지를 판별하지 않았다. 따라서 각각의 농지의 품등을 상세하게 조사하지 않음으로써 조세 균등이 실현되지 못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전국의 토지를 모두 조사하여 6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다.⁷⁷⁾ 그렇게 되면 전품이 차별화되면서 바르게 되고 그에 따라 조세도 균등하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전제 제정자들은 믿었다.

그들은 새 결부법이 이 뿐 아니라 양전 계산에도 편리하다고 믿었다. 여섯 등전의 양전척을 모두 양전척 1결로 정하여 결 수 계산을 용이하게 했다는 것이다. 앞서 살폈다시피 1결 당 최고 전세를 20두로 맞추면서 이 기준에 맞는 여섯 등전의 농지 넓이를 재는 기준 척을 환산한 결과, 예를 들어 1등전의 경우 4척 7촌 7푼 5리(즉 4.775척)이고 4등전의 경우 6척 4촌 3푼 4리(즉 6.434척)가 되어서, 정수의 척 단위로 환산되지 않고 촌·푼·리 단위까지 생겼다. 이 촌·푼·리 단

76) “전제 상정소에서 아뢰었다. ‘경기·하삼도는 이미 일찍이 양전하여 공법으로 수세하는데, 강원·도·황해도·영안도·평안도 등은 60여 년 동안 개량하지 못하고 단지 손실損實으로써만 수세하니, 비단 일국의 수세하는 법이 남북 간에 다를 뿐 아니라 세금의 수입양도 같지 않아, 이로 인해 경계가 바르지 않고 차역差役도 고르지 못하여 더욱 불편하게 되니, 위 항목의 제도諸道도 모두 타당하게 하소서.’ 주상께서 이를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2년(1471) 4/29.

77) “(이전에 행했던) 전품의 분등은 8도를 통틀어 (같은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고 다만 한 도에 대해서만 (같은 기준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때문에 세 등급 농지의 비옥도가 같지 않은데도 납세액의 차이는 매우 달라서,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하게 되니, 심히 안 될 일입니다. 만약 모든 도의 전품을 모두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6등급으로 나눈다면 아마도 전품이 바르게 되고 조세도 고르게 될 것입니다.” 『세종실록』 26년(1444) 11/13.

위까지 계산하려면 계산이 복잡하게 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제 제정자들은 6개 등전의 6개의 주척 수를 모두 양전척 1척으로 단위척을 만들었다. 즉 4.775척인 자는 1등전의 양전척 1척이 되고 6.434척인 자는 4등전의 양전척 1척으로 정수화했다. 이렇게 새로 만든 단위 척으로 가로와 세로 100척인 넓이를 1결로 정의했기 때문에 결 수 계산이 아주 쉬워졌다고 그들은 자평했다.⁷⁸⁾ 이처럼 결부법 시행을 결정한 초기, 결부법 시행 주장자들 사이에는 균등한 조세를 부과할 수 있고 편리하게 양전할 수 있는 좋은 법이라는 강한 자부감이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확신에 찼던 계획이 이후에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었다. 우선 20년 단위의 양전이 시행되지 않았고, 결부법 자체의 모순으로 양전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정이 개입되었다. 서유구의 분석에 따르면 전품을 제대로 파악한다는 일 자체가 매우 임의적이고 주관적 판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1.1.27~31) 또 쉽게 할 수 있다는 계산도 실제로는 제대로 할 수 있는 실무자가 거의 없었다(1.1.24~26). 이 결부법에 대해 서유구는 “여섯 등급에 대한 양전척이 균일하지 않”다고 성토했다. “등급에 따라 척 수가 달라 통일된 기준이 없이 제멋대로”이기 때문에 같은 곳에서도 “동쪽 두렁에 있는 1결의 실제 넓이가 서쪽이나 북쪽 두렁에 있는 1결의 몇 배가 되기도 하고, 남쪽 두렁에 있는 밭에 비해 겨우 반을 넘기기도”(이상은 1.1.16)했다. 1·2등전이 많은 삼남지방이 5·6등전이 많은 평안·함경도보다 결수가 4배나 많게 나오는 이유가 된다면 결부법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1.1.17)

수등이척제에 근거한 세종 대 결부법은 이후 『준수책遵守冊』에서 양전척을 통일하면서 인조 대 갑술양전(1634년) 때는 단일양전척을 사용했다.⁷⁹⁾ 이때는 1등전 양전척을 모든 전품에 일괄 적용했다. 대신 여섯 등전의 결 수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차등을 두었다. 즉 38묘가 1등전에서는 1결이지만, 2등전에서는 0.85결, 3등전에서는 0.70결, 4등전에서는 0.55결, 5등전에서는 0.40결, 6등전에서는

78) “여섯 등급 농지의 실제 넓이를 평방平方으로 계산할 때는 한 번(가로 또는 세로)에 대한 숫자에 가끔 몇 촌寸 몇分寸의 끝수가 있어서 계산이 매우 곤란하게 되므로, 여섯 등급 농지를 한 번마다 백으로 평분하여 각 등전의 농지에 대한 계량 척도로 합니다.(중략)이렇게 하면, 양전척은 여섯 등급에 따른 길이 차이가 있으나, 수량은 다 그 양전척으로 100척을 한 번으로 하고, 1,000척을 넓이로 하는 것이니, 비록 계산에 익숙하지 못한 자가 계산해도 어렵지 않습니다.” 위의 기사.

79) 『증보문헌비고』 권141 「전부고」 1 ‘경계’ 1, 中, 634쪽. 金容燮, 『韓國中世農業史研究』, 252쪽, 주200번에서 재인용. 『준수책』의 찬술 연도(제정연도)를 세조 7년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李榮薰, 「『田制詳定所遵守條劃』의 制定年度」, 『古文書研究』 9·10, 1996.

0.25결로 정한 것이다.⁸⁰⁾ 김용섭은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세종 대 경묘법을 시행하려 했던 경험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세종 대에 비록 결부법으로 회귀는 했지만 경묘법이 갖는 의의를 인정함으로써, 모든 전품의 농지를 1등 양전척 하나로 양전하고 그 넓이를 투명하게 드러내어 세종의 공법 제정을 중심으로 한 농정이념을 계승하려 했던 조치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단일양전척을 사용한 변화에 대해 서유구는 이와는 다른 평가를 보였다. 즉 효종 대(1653)에 『준수책』의 기록을 토대로 1등전의 주척으로 양전척을 통일했으나, 전품에 따라 농지의 결수에 차등을 두었기 때문에 1등전과 6등전과의 넓이 차이가 4배가 나는 구조는 이전이나 마찬가지로라는 것이다.(1.1.24)

다른 한편, 갑술양전 때 단일양전척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양전척의 길이가 늘어난 문제가 발생했다. 갑술양전척이 세종 대에 정한 길이인 1등전 양전척 4.775척을 표방하기는 했으나 임진왜란 등의 전란으로 세종 대 이후 내려온 양전척을 분실하여 새 양전척을 만들면서 실제로는 4.9996척이 되었던 것이다. 4.775척은 본래 포백척 2.126척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지만, 갑술양전 때 쓴 준수척은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전 포백척보다 0.1척이 늘어난 2.226척을 기준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⁸¹⁾ 양전척 1척의 길이가 늘어남에 따라 결의 실제 넓이는 더 늘어났고, 그만큼 결총은 감소했다.⁸²⁾

결부법은 세종 대 공법으로 제정된 이래 인조 대 갑술양전 이후 양전척을 통일하는 변화를 겪었지만, 서유구가 『의상경제책』을 쓸 당시까지 결부법을 토대로 한 토지제도는 굳건히 유지되었다. 서유구가 보기에 결부법에 기초한 양전 때문에 조세의 균등한 부과는 달성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한 온갖 폐단이 국가 수입의 점진적 감소를 초래했고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실제로 임진왜란 이후 결부법에 근거한 양전이 오랫동안 시행되지 않음으로써 생긴 폐해에 대해서는 실록을 비롯한 국가 기록물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 같은 전정의 문란을 해소하기 위한 근원적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서유구는 『의상경제책』의 제1목에서 살피듯이 결부법의 문제와 결부법 혁파 반대 논리를 세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려 했던 것이다.

80) 金容燮, 『韓國中世農業史研究』, 254쪽.

81) 『인조실록』 12년(1634) 10/26, 『숙종실록』 44년(1718) 10/10. 인조 대의 준수척이 세종 대 1등전의 양전척인 4.775척보다 늘어난 길이를 x라 하면, '2.126척 : 4.775척 = 2.226척 : x'라는 비례식에서 $x = 4.9996$ 척이 된다.

82) 김용섭, 앞의 책, 263~265쪽.

3.3.3. ‘견종법 보급설’과 서유구의 견종법

서유구가 『의상경제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농업기술은 견종법이었다. 농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제3장 제2목에서 견종법과 관련된 부분은 전체의 반 가량이나 차지한다. 그는 조선의 경종법, 특히 밭의 경종법을 개선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견종법으로의 농법 전환을 표방했고, 조선에서 견종법이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는 세태에 대해 강하게 탄식했다.(3.2.32) 서유구의 이 같은 탄식은 조선에서 견종법 보급의 어려움에 대한 토로였지만, 견종법을 소개한 『의상경제책』의 내용은 연구자에 의해 18~19세기에 견종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는 주장의 논거로 잘못 활용되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김용섭의 연구이다. 그는 서유구가 『의상경제책』에서 분석했던 대전법(견종법)의 장점 5가지(3.2.22~27), 그리고 그가 예로든 관서·해서 지방에서 견종법으로 재배한 사례(3.2.32)가 ‘노동력 절약’과 ‘소출 증대’라는 견종법의 효과를 보여주었고, 이런 효과로 인해 조선후기에 견종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견종법의 확산이라는 농업기술에서의 변화로 인해 농촌사회의 분해가 촉진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농법 전환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강조했다. 즉, ‘노동력 절약’은 부농층의 경영확대를 자극했고 이로 인해 농지에서 배제된 몰락농민이 증가했으며, ‘소출 증대’는 영세한 소농층의 생계유지를 가능하게 했고, 나아가 부농층의 소득 증대와 이들이 농작물의 상품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⁸³⁾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조선 일부 지역에 국한되었던 견종법을 마치 전국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확대 해석했으며, 중국 대전법을 제대로 시행했을 때 얻을 수 있다는 견종법의 효과에 대한 서유구의 전망을 역사적으로 실재한 현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적다.⁸⁴⁾

이 ‘견종법 보급설’은 조선후기 농업생산력과 사회적 변동 사이의 관계에 관한 주요한 가설이었기 때문에 1980년대 이후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연구자들

83) 金容燮, 『朝鮮後期農業史研究』 II, 166~175쪽. 김용섭이 견종법 보급론의 논거를 『의상경제책』에서만 들었던 것은 아니나 『행포지』『본리지』에도 수록된 이 같은 『의상경제책』의 사료가 그의 주장의 주요 논거임에는 틀림 없다.

84) 김용섭의 견종법 보급설에 대한 더 구체적인 논의는 정명현, 「조선후기 견종법(畝種法) 보급설 논쟁 검토」, 『한국 과학사 50년 한국 과학 50년: 한국과학사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한국과학사학회, 2010, 15~32쪽 참조.

사이에서는 이 설이 폐기된 것처럼 이야기되기도 하지만,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다.⁸⁵⁾ 견종법 보급설과 이를 둘러싼 논쟁들은 논자들이 견종법을 보급하자는 서유구의 제안을 당시 조선에서 견종법이 보급되었다는 뜻으로 오해한 결과 비롯되었다. 하지만 『의상경제책』의 제3장 제2목에서 알 수 있듯이 서유구는 조선에서 견종법이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 진단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이를 전국에 보급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서유구에 따르면 어떤 작물에 대해서건 간에 견종법이 조선 전역에 전파된 적은 없었다. 서유구와 오늘날 연구자들의 견해가 달랐던 것이다. 이에 『의상경제책』의 핵심 주장 중 하나인 견종법에 대한 연구사를 검토하고 논쟁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견종법이 조선후기에 전국적인 양상으로 보급되었다는 주장은 김용섭이 최초로 제기했다(1969년).⁸⁶⁾ 그에 따르면 조선 전기에 농종법(籠種法, 곡식을 두둑에 재배하는 법)으로 재배했던 조·맥류(보리와 밀) 등의 주곡을 조선후기에는 견종법으로 재배했다. 17~18세기 말까지는 가을보리 이외에는 아직 견종법의 보급이 미미했지만, 19세기 전반기에는 맥류의 견종은 널리 퍼졌고 조와 밭벼의 견종도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이로써 견종법은 조선후기 밭 농법의 가장 중요한 기술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 견종법 보급설은 이후 중·고등학교 『국사』에 소개됨으로써(1979년) 정설로서의 지위를 굳혔으며, 정도가 약해지기는 했지만 2002년 개정까지 이어졌다. 이후 이 내용이 빠졌지만, 최근 김인정 교과서의 일부에서 다시 실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초등 교과서의 경우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사회 6-1』 교과서에 실려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다.

김용섭의 주장이 발표되고 10여 년이 지난 뒤에서야 이견들이 제시되었다. 먼저 민성기는 김용섭의 논지를 전면 부정했다.⁸⁷⁾ 그에 따르면 맥류 이외의 밭작물은 조선시대를 통틀어 모두 농종법이었고, 맥류는 조선전기부터 계속 견종법의

85) 주진오 외, 『중학교 역사(하)』, 천재교육, 2012, 16쪽; 이문기 외, 『중학교 역사(하)』, 두산동아, 2012, 18쪽; 이인석 외, 『고등학교 한국사』, 삼화출판사, 2011, 104쪽; 한철호 외, 『고등학교 한국사』, 미래엔, 2011, 87쪽; 왕현중 외, 『고등학교 한국사』, 두산동아, 2014, 132쪽; 최준채 외, 『고등학교 한국사』, 리베르스쿨, 2014, 166~167쪽; 권희영 외, 『고등학교 한국사』, 교학사, 2014, 134쪽.

86) 金容燮, 「朝鮮後期の 田作技術 -畝種法の 普及에 대하여-」 『歷史學報』 43, 1969, 1~34쪽; 金容燮, 『朝鮮後期農業史研究』 II, 141~175쪽.

87) 閔成基, 「朝鮮前期의 麥作技術考-『農事直說』의 種麥法 分析」, 『釜大史學』 6, 1982, 33~73쪽; 閔成基, 『朝鮮農業史研究』, 一朝閣, 1988, 130~168쪽.

로 재배되었다. 미야지마 히로시는 앞 두 연구자의 주장을 절충하는 입장이면서도 자신의 독특한 가설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맥류 이외의 발작물은 조선 전·후기 구분없이 농종법을 썼다는 민성기의 설에 동의했다. 하지만 역시 민성기의 주장인, 조선 전기의 맥류가 모두 견종법으로 재배되었다는 설에는 반대했다. 그는 맥근전(麥根田, 맥류 수확 후 후속 작물을 재배할 밭)일 경우는 견종법이 우세했지만, 맥류의 근경(根耕, 봄 곡식 수확 후 맥류를 재배할 밭)이나 간종(가을 작물인 맥류와 봄 작물을 사이사이에 짓는 재배)의 경우에는 농종법을 썼다며 김용섭의 견해를 따랐다. 이와 더불어 그는 이전의 맥류 재배법이 18세기 후반부터는 높은 두둑을 만들어 그 두둑에 조성한 고랑에 재배하는 맥류 견종법으로 발전했다는 주장을 새로 제시했다.⁸⁸⁾

이호철도 이 논쟁에 참여했다. 그는 조선전기 발작물 재배법이 과종법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며 견종법과 농종법 재배 방식을 앞의 연구자들보다 세밀하게 분류했다. 그는 『농사직설』의 과종법을 크게 세 가지, 즉 점파법(點播法, 점뿌림), 조파법(條播法, 줄뿌림), 살파법(撒播法, 흩어뿌림)으로 정리하면서 맥류의 경우는 1년 1작식(맥근전)과 근경인 경우는 견종법으로 재배되었지만 간종의 경우는 농종법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맥류 이외의 발작물도 견종과 농종이 섞여있었는데, 점파법이면 농종법, 조파법이면 견종법(참깨 재배 중 일부는 농종법), 살파법이면 만종법(縵種法, 고랑 없이 두둑만으로 된 밭에 흩어뿌림하는 법) 또는 농종법으로 재배되었다고 했다.⁸⁹⁾ 견종법 보급설에 대한 이 같은 반론에 대해 김용섭은 농서(주로 『농사직설』)를 세밀히 분석하여 맥작기술이 조선전기에 서 후기로 이행하면서 농종법에서 견종법으로 변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견종법뿐만 아니라 시비법 등의 발달과정에 관한 논의를 통해 보강했다.⁹⁰⁾

발농법과 관련된 이상의 논쟁에 대해 몇몇 연구자 정리도 있었다. 이경식은 1980년대 이호철이 논쟁에 참여하기 전까지의 상황을 정리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는 발곡식의 견종화 여부는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맥麥의 경우는 민곶씨(민성기: 필자)의 의견대로 전기에도 견종법畝種法이었다 하더라도, 속(粟, 조)을 위시한 여타 곡물의 농종에서 견종으로의 전환은 그대로 승인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⁹¹⁾라며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사실 견종법 보급설의 승인에

88) 宮嶋博史, 「李朝後期における朝鮮農法の發展」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8, 1981, 80~92쪽.

89) 李鎬澈, 『朝鮮前期農業經濟史』, 124~151쪽.

90) 金容燮, 「朝鮮後期の 麥作技術」, 『東方學志』 60, 1988; 金容燮, 『朝鮮後期農業史研究』 II, 176~240쪽.

가까운 입장을 취했다. 김용섭이 제출한 조 건종법 관련 자료까지 철저히 반박하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영학은 생산력 발전을 건종법 보급에서 찾기보다는 경작 방식의 변화에서 찾아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민성기, 미야지마 히로시, 이호철 3인의 의견을 김용섭의 견해보다 우위에 둔 평가였다. 따라서 1년 1작식이 지배적이었던 조선전기에서 2년 3작 또는 2년 4작식의 윤작체제로의 이행이 생산력 발전 논의에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다.⁹²⁾ 염정섭은 이영학의 연구사 정리를 다시 한 번 정리하면서 건종법과 관련한 논쟁에서 각 연구자의 주장을 소개하는 데 그쳤다.⁹³⁾ 반면 김건태는 “조선후기가 되면 대부분의 밭작물이 건종법으로 재배되었다.”⁹⁴⁾고 하여 여러 이설을 모두 배제하고 건종법 보급설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이렇듯 밭작물 재배를 통한 농업생산력 연구사 정리자들도 건종법 보급설 지지(이경식, 김건태), 반대(이영학), 중립(염정섭) 등으로 여러 입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후 염정섭은 민성기와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 즉 조선전기 맥류 재배법이 “묘간畝間, 즉 견畝에 시비와 더불어 파종하는 건종법畝種法이었다.”고 했다.⁹⁵⁾ 이와 더불어 조선후기에 조 재배법은 건종법이 아니라 농종법이라 주장하며 민성기의 견해를 보강했다.⁹⁶⁾ 안승택도 건종법 보급의 “가설은 오늘날 거의 입지를 상실”했다며, 이 “가설은 오늘날 상당부분 부정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이호철의 말을 언급하면서, 민성기와 가까운 입장을 밝힌 염정섭의 견해에 동의했다. 안승택은 이런 오류가 간종법과 대전법(건종법)을 ‘사이짓기’라는 단순한 규정에 의해 하나의 흐름으로 본 데서 시작되었다고 지적했다.⁹⁷⁾

이상의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여준 건종법 보급설에 관한 논쟁과 평가들은 건종법을 서유구가 설명한 건종법과는 다른 정의를 바탕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 건종법은, 뒤에서 살펴볼 서유구의 견해에서 잘 드러나듯이 파종의 위치로만 규정할 수 있는 농법이 아니었다. 밭의 모양을 1척 간격으로 고랑(골)과 두둑이 번갈아 생기게 만든 뒤 파종 이후의 배수는 물론 제초 및 복

91) 李景植, 「朝鮮後期 農業地主制研究의 動向과 「국사」教科書의 敘述」, 『歷史教育』 39, 1986, 159~160쪽.

92) 李永鶴, 「조선시기 농업생산력 연구현황」, 『韓國中世社會 解體期の 諸問題(下)』, 35쪽.

93) 염정섭, 「농업생산력의 발달」 『한국역사입문 2 중세편』, 401~404쪽.

94) 김건태, 「농업생산력과 농업경영」, 『새로운 한국사 길잡이 上: 제3판 한국사연구입문』, 405쪽.

95) 염정섭, 『조선시대 농법 발달 연구』, 108쪽.

96) 염정섭, 같은 책, 255~261쪽.

97) 안승택, 『식민지 조선의 근대농법과 재래농법』, 신구문화사, 2009, 378쪽.

주기까지를 고려한 농업기술이었다.(3.2.19~20) 견종법은 ‘고랑에[畎] 파종하는[種] 농법[法]’이라는 협소한 뜻이 아니라 ‘고랑에 재배하는[種] 농법’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뜻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견종畎種의 종種은 ‘파종한다’는 뜻으로 보통 번역되지만, 농서의 대부분의 용례에서 재배과정을 모두 포괄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 재배과정을 고려할 때 같은 밭에서 고랑과 두둑에 작물을 동시에 재배하는 간종법은 견종법이 아니다. 또한 고랑 너비가 2~3척이나 되는 넓은 고랑에 재배해도 견종법이 아니다. 그러나 김용섭은 서유구의 이와 같은 견종법의 정의를 따르지 않았다. 김용섭은 견종법을 말 그대로, 고랑에 작물을 파종하는 농법으로 이해하여, 작물이 고랑에 재배되지만 하면 주변의 여건이 어떤 것이든 상관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간종도 견종법의 사례에 포함시켰다.⁹⁸⁾

김용섭이 견종법의 정의를 서유구와 달리했다는 점이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견종법에 대해 김용섭이 새롭게 정의하고서 이의 실체에 접근해간 시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서유구가 자신의 정의에 근거하여 제시한 견종법의 효과를 김용섭 자신이 정의한 견종법에 그대로 적용했다는 데 있다. 이렇게 되면 김용섭의 견종법으로는 서유구가 말한 견종법의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모순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김용섭은 견종법의 효과에 대해서는 서유구의 견해를 모두 받아들이면서도 서유구의 견종법 정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98) 김용섭은 본래 견종법을, “旱田에서 主穀栽培를 위하여 農地를 畎(밭고랑)과 畝(밭이랑)로 다스리고, 穀種은 畎中에다 파종하는 農法”(金容燮, 『朝鮮後期農業史研究』 II, 141쪽)이라고 정의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재배작물을 두둑이 아니라 고랑에만 파종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소개했던 간종적 견종법은 사실 견종법이라 할 수 없다. 하지만 그가 실제 들었던 견종적 경향의 자료는 대전법, 변형된 중국의 대전법(즉 한인종속법), 변형된 조선의 견종법, 간종법 등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 따라서 김용섭이 확산되었다고 주장한 견종법은 이들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의 두 방식의 농법은 조선에서 거의 행해진 적이 없다. 다만 실험을 위한 일부의 시도들이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대전법과 조선의 고랑재배법의 차이를 김용섭도 이미 확실히 인지하고 있었다. 대전법의 특징인 1묘畝3견畎 제도를 조선에서 따르지 않았던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그는 “代田法은 中國 古代에 한때 있었던 하나의 모형적, 실험적인 耕種法이었으며, 中國에서도 그 후 그대로는 계승되지 않았다. 이를 조선후기에 그대로 재현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며 당시 농민들은 농학의 연구성과에서 “농지를 견과 묘로 다스리고 종자는 견종을 한다는 원칙”(金容燮, 같은 책, 165~166쪽)만 배웠을 뿐이라고 해석했다. 이 같은 해석은 그가 말하는 조선의 견종법의 범주에는 대전법이 애초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견종법 보급설을 주장하는 여러 논거에서 중국의 대전법도 자신이 말하는 견종법에 들어 있음을 자주 보여주고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된다고 하겠다.

이렇게 건종법을 포괄적으로 이해한 김용섭의 입장을 이후의 연구자들 대부분이 따랐다. 즉 이들은 건종법으로 재배하는 농지의 고랑과 두둑의 너비가 얼마인지, 두둑에 다른 작물을 간종하는지 여부보다는, 작물을 고랑에 재배했는지 아닌지만을 기준으로 삼게 되었다. 민성기가 조선전기 『농사직설』 단계 때부터 건종법을 시행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김용섭의 건종법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민성기는 김용섭의 주장을 “속粟·맥麥할 것 없이 모든 한전작물旱田作物은 농종壟種이라는 묘상파종畝上播種이 원칙이었으나, 후기에 들면 점차 건종법畝種法이라는 건종파종畝中播種으로 전진하였다.”라고 정리했다.⁹⁹⁾ 이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역시 건종법을 단순히 고랑에 파종하는 농법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다. 미야지마 히로시, 이호철도 고랑에 파종하는 농법을 건종법으로 정의한 데서는 다른 이들과 큰 차이가 없다.¹⁰⁰⁾

이렇게 건종법이 파종법의 일종이며 따라서 간종법도 이에 포함된다는 방식의 이해는 이후의 연구자들에게 의심되지 않은 채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염정섭도 김용섭의 정의에 따라 건종법 여부를 판단했던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작은 고랑을 만들어 凍甃(동모, 언보리: 필자)를 파종하고, 작은 이랑(두둑: 필자)을 만들어 그 사이에 양맥兩麥을 파종하는 경종법이 건종법畝種法(고랑파종법)임이 확실하다.”¹⁰¹⁾는 주장이 그 한 예이다. 이상에서처럼 김용섭 식의 건종법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인 연구자들 사이의 건종법 보급설 논쟁 또한 김용섭이 보여준 모순을 그대로 안고 갈 수밖에 없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김용섭과 이후 연구자들이 건종법으로 이해한 대부분은 간종법이나 너비가 넓은 고랑에 파종하는 방법을 일컫는 것이었다. 하지만 건종법의 효과에 대해 서유구의 설명에 따른다면, 건종법의 정의 또한 서유구의 것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만약 서유구의 정의를 따른다면, 실제로 다음에서 박지원·박제가·서유구 등이 당시 농가의 세태를 분석한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후기에 건종법이 보급되었다는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서유구가 조선 말 농법의 전면 개량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그 대안으로 건종법을 제시했다는 사실은 그가 건종법이 농업생산력의 증대에 큰 효과가 있다고

99) 閔成基, 앞의 책, 131쪽.

100) 宮嶋博史, 앞의 글, 81쪽; 李鎬澈, 앞의 책, 132쪽.

101) 염정섭, 앞의 책, 253쪽.

확실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의상경제책』 저술에 앞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서유구의 견종법 연구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이를 조선의 대표 농법으로 만들려 했던 그의 노력을 살필 것이다.

서유구가 『의상경제책』에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 공을 들였던 견종법에 대한 중국과 조선 농학자들의 연구는 매우 소략했다. 『한서』 「식화지」에 최초로 기록된 이 견종법은 이후 중국 농서로는 『제민요술』, 『농상집요』, 『농상의식촬요農桑衣食撮要』(또는 『농상촬요』), 『농정전서』,¹⁰²⁾ 『사변록思辨錄』, 『흙정수시통고欽定授時通考』¹⁰³⁾ 등에 다시 실렸다.¹⁰⁴⁾

서유구 이전에 대전법으로 조선 농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한 이들은 유형원, 박지원, 박제가였다. 이들은 모두 조선의 경종법이 대전법보다 수확량이 훨씬 못 미친다는 점에 주목했고, 따라서 대전법의 수용을 적극 주장했다. 특히 박제가의 경우 농업생산량이 낮은 조선의 경종법의 문제는 비단 농촌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가 전체의 부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대전법을 조선에서 활용하는 데 관심을 둔 이들은 대전법의 큰 틀을 이해하여 이것이 효과가 뛰어난 농법임을 찬양하고 도입의 당위성만 역설했을 뿐 대전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¹⁰⁵⁾

북학의 측면에서 위의 3인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서유구는 대전법 보급을 조선 농정의 주요 과제로 삼으면서 이 농법을 깊이 연구하고 실험했다. 그 결과 서유구의 견종법은 중국의 대전법을 토대로 하면서도 그 이전의 어떤 대전법 제도 와도 다른 새로운 제안이 들어 있었다. 이는 바로 밭 모양을 만드는 작묘법(作畝法, 이랑 만드는 법)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해석한 대전법을 견종법(또는 견종지법)¹⁰⁶⁾이라 불렀다.¹⁰⁷⁾

『본리지』에 상세하게 기록된 서유구의 견종법은 대체로 대전법과 동일했다. 작묘법은 너비 6척인 밭 1묘畝¹⁰⁸⁾에 고랑과 두둑을 1척 너비와 깊이로 각각 3개

102) 徐光啓, 『農政全書』 卷1 「農本」(石聲漢 校注, 『農政全書校注』, 25~26쪽).

103) 鄂爾泰 等, 『欽定授時通考』 卷11 「土宜」 「田制」 上; 卷45 「勸課」 「官司」.

104) 이 소절은 정명현, 「조선시대 견종법(畝種法) 보급론의 확대」, 『농업사연구』 제11권 2호, 한국 농업사학회, 2012, 27~56쪽을 참조했다.

105) 위 3인의 대전법 도입론에 대해서는 같은 글, 34~41쪽 참조.

106) ‘견전법畝田法’ 또는 ‘견전지법畝田之法’이라고도 했다.

107) 서유구가 해석한 대전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같은 글, 42~46쪽 참조.

108) 1묘의 세로 길이는 원칙적으로 100보(즉 600척)이나, 농지가 끝나는 곳까지 밭을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씩 만든 뒤, 고랑에 줄뿌림하는 방식이었다. 대전법에 관한 가장 이른 기록이 실린 『한서』 「식화지」에서는 1묘에 고랑 셋을 만들라고 했을 뿐, 밭 모양을 어떻게 만들라는 지시는 없었다. 이 때문에 서광계나 박지원 같은 후대의 농서 저술가도 대전의 밭 모양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서유구도 그 중 한 사람이었다.

서유구가 말하는 견종법은 이랑 만드는 법에서 기존 대전법과 결정적으로 차이가 난다. 그는 「식화지」에서 말한 1묘 3건 재배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깊이갈이를 하여 고랑에서 자라는 작물 뿌리가 쉽게 뺏어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묘와 묘 사이에 배수로를 만들고 더 나아가 밭의 사방 둘레에 더 큰 배수로를 만듦으로써 장마에 대비하도록 했다. 서유구는 특히 맥류와 조 재배에서 견종법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그의 구체적인 이랑 만들기 방법을 살펴보기로 하자.

조 재배의 경우 먼저 9~10월에 큰 보습으로 농지 전체를 3회 깊이갈이 한 뒤, 씨레질을 6회 실시하여 흙을 잘게 부수어야 했다. 그리고 췌날가래로 밭 사방 둘레에 깊이와 너비 2척이 되도록 큰 도랑을 파고 밭 내부에는 6척마다 가로 방향으로 깊이와 너비 1.5척이 되는 작은 도랑을 만든다. 이듬해 봄에 작은 보습으로 너비가 6척인 이랑에 고랑을 3개 씩 낸다. 그러면 고랑 3개와 두둑 3개가 만들어진다.¹⁰⁹⁾ 이 설명은 얼핏 보면 후작의 1묘 3건 제도를 그대로 설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서유구가 이 제도를 새롭게 해석한 내용이다. 깊이갈이, 밭 사방의 큰 도랑(2척)과 이랑(묘)과 이랑 사이의 작은 도랑(1.5척)은 대전법을 언급한 중국이나 조선의 이전 문헌에는 없던 내용이다(그림2).

대전의 일반적인 방법을 설명한 아래 내용에서는 깊이갈이 1회, 씨레질 3회에 이어 이랑과 이랑 사이에 배수로를 만들도록 주문했다. 조 재배법에 비해 밭갈이와 씨레질 횟수가 줄고 밭 사방의 배수로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조과의 대전법에서 깊이갈이와 배수로 만들기를 보완했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보완 작업을 통해 작물의 뿌리내리기와 배수 효과를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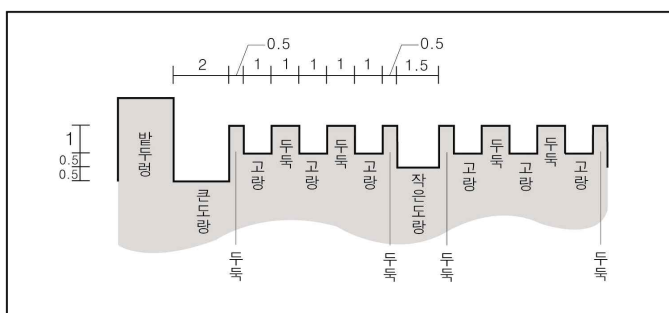
대전을 만들 때는 반드시 먼저 큰 보습으로 땅을 깊이 갈아야 한다. 한 번 갈아주고 세 번 씨레질을 하여 흙이 아주 곱고 기름지도록 한다. 6척을 띄어 췌날가래로 도랑

109) “種粟莫如用后稷畝田法。九十月治地，三耕六耙，令極細軟。以鐵刃欸環田之四界掘溝，深二尺，廣如之。復於田內，隔六尺作橫溝，深一尺五寸，廣如之，長則竟畝。明年清明穀雨之間，用小鋤，耕作細畝於畝上，廣尺深尺。每一畝三畝三伐，則伐之高廣，如畝之深廣也。” 徐有桀，『杏菴志』卷2「種植」‘種粟’(『農書』36, 127쪽); 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임원경제지 본리지』2, 286쪽.

하나를 만든다. 다시 작은 보습을 소나 당나귀 1마리에 멩에를 지워서 이랑[畝] 위에서 알게 갈아 고랑 3개와 두둑 3개를 만든다.

『한서』 「식화지」에 나온 조과가 만든 법에서는 비록 밭 가는 법을 명확히 말하지 않았으나, 그 법이 시행된 뜻을 살펴보면 마땅히 이와 같을 것이다. 만약 먼저 큰 보습으로 깊이갈이를 하지 않으면 고랑의 바닥흙은 갈지 않은 흙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어떻게 뿌리가 뻗어나가게 할 수 있겠는가? 만약 6척 간격으로 도랑을 만들지 않는다면, 눈앞에 보이는 것은 모두 얕은 고랑일 것이니 어떻게 물을 뺄 수 있겠는가?¹¹⁰⁾

<그림2> 서유구가 해석한 대전을 재해석한 작묘법¹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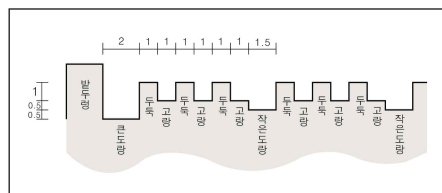


이렇게 그는 『한서』에 밭 가는 법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전을 조성하는 법을 해설하면서, 이랑의 대체적인 형식만 기록된 『한서』를 대전법의 취지를 살

110) “作代田,必先用大鑿深耕之.一耕三耙,令極細膩.用鐵刃杵.隔六尺作一溝.復以小鑿,駕隻牛或驢馬,淺耕于畝上,作三畦三伐.漢志趙過法,雖不明言耕法,然觀其設施之意,要當如此.苟不先用大鑿深耕,則畦底無異生土,何以行根?苟不隔六尺作一溝,則澗望都是淺畦,何以洩水也.” 徐有榘,『杏菴志』卷1「田制」(『農書』36, 44~45쪽); 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임원경제지 본리지』1, 151쪽.

111) 이 그림은 서유구가 설명한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즉 서유구는 한 이랑에 “고랑 3개와 두둑 3개”를 만든다고 했으니, 그림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은 모양이 될 것이다. 나는 양 옆에 배수로로 둔 이랑에 두둑도 1척 너비로 3개를 만들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림처럼 고랑 하나(오른쪽 끝 고랑)에는 두둑이 없기 때문이다.

<그림3> 서유구가 해석한 대전의 작묘법



려 재해석한 것이다.

서유구는 맥류 재배법도 반드시 건종법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맥류 재배법에서는 밭갈이에 부리는 소를 깊이갈이 때는 2마리, 고랑갈이 때는 1마리를 쓰도록 하여, 밭갈이 작업의 세부적인 지침을 더 추가했다. 또한 이랑(큰 묘) 사이의 배수로를 만들 수 있다 하여 사방의 배수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사방 배수로 없이도 맥류는 봄장마를 견딜 수 있음을 암시한다. 작물에 따라 작묘법을 달리 지시한 사실에서 자신의 재배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내 생각에는 맥류 재배하는 밭은 마땅히 후직의 ‘1묘에 고랑 3개[一畝三畝]’를 만드는 제도를 본받아야 한다. 큰 보습을 소 두 마리에게 멩에를 지워 밭을 갈아 큰 묘를 만드는데, 너비는 주척(周尺)으로 5~6척이 되게 하는 것이다. 씨레로 곱게 갈고 다시 작은 보습을 소 한 마리에 멩에를 지워 그 위를 얇게 간다. 1묘에 고랑 3개와 두둑 3개를 만들어 고랑 가운데에 맥류를 재배한다.

이와 같이 하면 고랑 아래에 기름진 흙이 여전히 0.5~0.6척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뿌리가 땅 속 깊이 들어가지 못할 염려가 없다. 고랑이 오목하니 오줌을 주거나 눈을 남기는 데도 편하여 도랑과 다를 것이 없다. 더욱이 그 큰 묘 좌우의 도랑에도 물길을 깨끗하게 낼 수 있다. 갖고 있는 조나 콩은 다른 밭에 재배한다. 밭이 적으면 남겨 두었다가 맥류 수확을 기다려도 된다.¹¹²⁾

이런 제안에 따르면 건종법은 당시 조선에서 통용되는 맥류 재배법의 다음과 같은 단점 세 가지를 모두 극복할 수 있다고 서유구는 확신했다. 첫째, 깊이갈이를 하지 않은 채로 고랑에 재배하기 때문에 뿌리 아래쪽은 흙이 단단해서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 그 결과 내풍성과 내한성이 약하다. 둘째, 도랑이 없어 습기에 약한 맥류가 봄장마에 쉽게 망가진다. 셋째, 맥류 사이에 조나 콩을 사이짓기로 재배하기 때문에 이미 무성해진 맥류가 그늘을 만들어 조나 콩이 번성하지 못한다.¹¹³⁾ 이 같은 조선의 맥류재배법에 건종법을 씌으로써 “뿌리가 땅 속

112) “余謂種麥之田,宜倣后稷一畝三畝之制.用大鑱駕雙牛耕之,作大畝,廣可周尺五六尺.耙治既淨,復以小鑱駕隻牛,淺耕于其上.每一畝作三畝三伐,種麥于畝中.如此,則畝下油土.尚餘五六寸,根不患不深入矣.畝既凹窪,其便於澆尿留雪,與溝無異矣.且其大畝左右之溝,又可以清理水道矣.所有粟豆,種之他田.田少者,留待刈麥,可也.” 徐有榘,『杏蒲志』卷2「種植」‘種麥’(『農書』36, 140-142쪽); 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임원경제지 본리지』2, 331쪽.

113) “지금 사람은 맥류를 재배할 때 모두 두 두둑 사이의 고랑에 재배한다. 대개 흙에 눈을 남기거나 오줌을 주는 데는 고랑이 두둑보다 낫다. 게다가 남겨진 두둑은 봄에 조나 콩 재배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데는 잘못이 세 가지 있다. 무릇 땅을 갈면, 쟁기와 보습이

깊이 들어가지 못할 염려가 없”어지고 “큰 묘 좌우의 도랑에도 물길을 깨끗하게 낼 수 있다.” 또한 맥류만 단작하기 때문에 “조나 콩은 다른 밭에 파종”하거나 밭이 적은 경우는 “맥류 수확을 기다”렸다가 그루갈이를 함으로써 사이짓기로 인한 작물의 성장 저해 부작용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세 인용문은 서유구가 해석한 대전법, 즉 견종법의 작묘법에 대한 것이다. 대전법에 대해 이렇게 상세하게 그 제도를 해설한 예는 중국과 조선의 농서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서유구는 대전법 연구를 통해 깊이갈이와 여러 번의 씨레질을 통한 작묘법으로 습기를 싫어하는 맥류뿐 아니라 조나 콩과 같은 여름 작물도 견종이 가능하도록 구상했던 것이다.

서유구는 이와 같은 자신의 연구를 토대로 견종법에서의 생산성을 강조하며 만전緡田에 농사짓는 농민에게 견종법으로의 농법 전환을 권유했으나, 농민은 이 농법으로의 변화를 거부했다. 조선의 농민이 관행 농법을 버리고 견종법을 기꺼이 쓰려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분석한 이역시 서유구가 거의 유일하다. 중국의 견종법 즉 대전법을 소개한 박세당, 유형원, 박지원, 박제가 등은 대전법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서유구만큼 심도 있게 분석하지는 않았다.¹¹⁴⁾ 서유구는 농부들의 처지에서 견종법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이유를 가장 현실적으로 전달하고 있는데, 그것은 크게 두 가지였다. ① 놀리는 두둑을 아까워하기 때문이고, ② 치묘 즉 밭 모양을 만드는 작업이 힘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견종법 쓰기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도 두둑을 놀리는 일이 아까워서가 아니겠는가. 하지만 견전법은 결코 두둑을 놀리지 않고 바로 두둑을 허물면서 뿌리에 복주기하는 방법으로, 한여름이 되면 고랑은 오히려 두둑이 되고 두

지나간 곳은 고랑이 되고 양쪽의 흙이 덩어리져 솟은 곳은 두둑이 된다. 쟁기와 보습이 지나간 땅에 재배하는 것은 맨땅에 재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뿌리가 땅 속 깊이 들어가지 못하여 바람과 가뭄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첫째 잘못이다. 건조함을 좋아하고 습함을 싫어하는 것이 맥류의 성질이다. 그러므로 도랑 같은 고랑에 파종했다가 한번 봄장마를 만나면 물에 잠겨서 망치는 것이 둘째 잘못이다. 3~4월에 맥류 모가 밭두둑보다 더 높게 자라 나왔는데, 그제야 조와 콩을 재배하면 무성하게 자란 맥류 그늘 아래에서 거의 번성할 수 없는 것이 셋째 잘못이다. 今人種麥,皆種于兩壟之間畎中.蓋爲留雪澆尿,畎勝於壟也.且留壟以擬春種粟菽也.然其失有三:凡耕地,犁鏟所過爲畦,兩邊起壟爲壟.種之犁鏟所過之地,與種之生地,何異?根不深入,不耐風旱,一也.好燥惡濕,麥之性也.種之畦溝,一遇春霖,浸淹敗損,二也.三四月之間,麥苗已長出壟上,而始種粟菽,翳在麥蔭,鮮能滋茂,三也.”徐有榘,『杏菴志』卷2「種植」‘種麥’(『農書』36, 140~141쪽); 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위의 책, 330쪽.

114) 박세당 등 4인의 대전법 도입 논의에 대해서는 정명현, 「조선시대 견종법(畎種法) 보급론의 확대」, 앞의 책, 34~41쪽 참조.

독은 오히려 고랑이 된다. 그렇다면 이는 고랑에서 파종처를 빌리고 두둑에서 복줄 거리를 제공받아, 두둑 하나와 고랑 하나가 협동하여 작물 하나를 서로 길러내는 일에 불과할 뿐이다.¹¹⁵⁾

인용글은 견종법을 쓰면 땅의 낭비가 심하다는 당시 농부들의 인식을 보여준다. 서유구에 따르면 이는 견종법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로, 농부들은 무작정 고랑에서 재배하는 일만을 견종법으로 이해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당시에 시행되는 방식이 모두 간종법(間種法, 사이짓기)의 일부였고, 이 농법에서는 두둑의 흙을 허물어 작물에 복주는 작업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노동력에 대한 부담이었다. 위의 인용문에 바로 이어지는 『행포지』의 이야기는 서유구와 견종법 반대론자(당시의 노농이었을 것이다)와의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서유구가 견종법을 쓰면 수확량이 몇 배가 늘어나는데 왜 이 농법을 쓰지 않는지 묻는 말에 농부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제가 만전을 만들면 하루에 30묘(이랑)를 만들고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의 방법으로 견전을 만들려면 밭 갈고서 썩레질 해야죠, 썩레질 하고서 곰방메질 해야죠, 곰방메질 하고서 고랑까지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장정의 하루 노동력으로 킁킁대며 애써도 10묘를 만들기에도 부족할 것이니, 인력이 적은 농가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¹¹⁶⁾

농부의 답변은 견종법이 비록 소출을 높인다 해도 견전을 조성하는 노동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를 시도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력을 대략 비교해도 당시 풍속이었던 만전보다 3배 정도 소요되어야 하는 일이라 소농들은 엄두도 낼 수 없다고 했다. 소농 입장에서 든 이유이기도 하지만, 밭 조성에 3배나 품이 더 든다면 광작을 하는 대지주가에서도 선불리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렇듯 견종법 시행이 어려웠던 데에는 농부가 노는 땅을 아까워하는 이유 이외에 과도한 노동을 꺼려하는 상황이 있었던 것이다.¹¹⁷⁾ 그럼에도 서유구는 『

115) “東人之難於耨種,何也?豈非棄壠之爲可惜耶!耨田之法非果棄壠也,政爲墾壠附根,而比及深夏,耨反爲壠,壠反爲耨.則是不過借基於耨,資培於壠,合一壠一耨之地,交養一苗耳.”『杏菴志』卷2「種植」「種粟」(『農書 36』, 134~135쪽).

116) “吾治耨田,一日治三十畝而有餘. 用子之法,將爲耨田耶,既耕而耨之,既耨而耨之,既耨而耨之. 壯夫一日之力,搨搨乎治十畝而不足,少力之家不可爲也.”『杏菴志』卷2「種植」「種粟」(위의 책, 136쪽).

117) 앞서 김용섭이 견종법의 효과로 ‘노동력 절약’이라는 점을 거론했으나 이는 제초 노동력만 주

행포지』와 『본리지』에서 견종법을 심도 있게 연구했고, 농민에게도 견종법을 권유했다.

이처럼 서유구가 농촌 현장에서 견종법을 보급하려는 노력을 경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입장에서 견종법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현실을 경험했기에, 개인이나 몇몇의 권유로 오래 이어온 기존 농법을 바꾸기는 불가능하다고 그는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견종법 확산을 위해 『의상경제책』에서는 선구자의 권유나 농서 등을 통한 보급보다는 둔전 제도를 통한 모범 사례를 활용하려 했던 것이다.

서유구의 견종법은 전국의 농업 현황을 토대로 그가 연구한 결과였다. 예를 들어 조선의 밭갈이법, 파종법에 법도가 없다는 지적,(3.2.5~12) 두둑에 작물을 재배하는 만전법縵田法을 쓴다는 설명,(3.2.22~31) 관서·해서 지역의 견종법 재배의 효과 설명(3.2.32)은 자신이 실험했던 장단 일대에서의 경험에만 근거한 주장이라고 보기 힘들다. 『의상경제책』에는 실리지 않았지만 자신의 저술에서 조선의 조와 맥류 재배법을 소개했고,¹¹⁸⁾ 영남·관동·해서·경기 등 지역의 조 재배법을 설명하기도 했다.¹¹⁹⁾

조선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향은 비단 견종법과 관련해서만이 아니었다. 우리나라 토질의 등급을 전국 단위로 살펴면서 『택리지擇里志』 등 6종의 문헌을 신기도 했고,¹²⁰⁾ 영남 좌도에서 지대가 낮고 습한 황무지를 개간하는 법,¹²¹⁾ 경기와 삼남(영남·호남·호서)의 밭갈이법,¹²²⁾ 영남과 북방 지역의 논 손질

목한 결과였다.

118) “대개 우리나라 사람의 조 재배법을 보면, 산골짜기와 산꼭대기의 화전을 일구는 곳을 제외하고, 넓은 들이 있는 곳에서는 대개 9월에 밭을 갈아 고랑에 보리나 밀을 파종하고, 다음 해 3월에는 조를 두둑에 파종한다. 凡東人之種粟也,除峽鄉山顛火耕外,野衍之地,率皆九月耕田種麥于畎,明年三月種粟于壟.” 『杏菴志』 卷2 「種植」 ‘種粟’(『農書』 36, 129쪽); 『임원경제지 본리지』 2, 288쪽; “지금 사람은 맥류를 파종할 때 두 두둑 사이의 도랑에 모두 파종한다. 今人種麥,皆種于兩壟之間畎中.” 『杏菴志』 卷2 「種植」 ‘種麥’(『農書』 36, 140쪽); 『임원경제지 본리지』 2, 330쪽.

119) “嶺南人種粟于麥田,用小鋤駕隻牛,耕壟作畎而種之.關東·海西亦多棄壟種畎之處,而視諸壟種,收必倍之.關東種粟法:埋糞園中,受人屎尿.清明後·穀雨前,出粟種.薄篩于薦席或木板上,以屎尿澆之,曬曝更澆.如是三五次,復厚拌燼灰,而種之畎中,則穗長數尺.中歲一日耕之地,可收二十石.畿甸壟種者,豐年僅收六七石,畎則半之.” 『杏菴志』 卷2 「種植」 ‘種稻’(『農書』 36, 133~134쪽); 『임원경제지 본리지』 2, 293쪽.

120) 『임원경제지 본리지』 1, 341~346쪽.

121) “濕田不宜種藝處,經霜後,刈草剗之,厚布田中,種小麥,則麥極茂,而翌年變爲乾田.雖種木綿亦宜.嶺南左道人行之.” 申渢, 『農家集成』 「農事直說」 ‘耕地’(『農書』 1, 15~16쪽); 『임원경제지 본리지』 2, 93쪽.

122) “京畿·嶺南之地,可用一牛耕,故四日當古晦百晦;湖西·湖南,用兩牛耕,故三日耕之地,可當古晦百晦.” 『樞溪隱錄』 卷1 「田制」 上 ‘分田定稅節目’; 『임원경제지 본리지』 1, 60쪽.

법,¹²³⁾ 호남의 연해 지역과 도서 지역에서 사람의 힘을 써서 쟁기질 하는 법,¹²⁴⁾ 관동·관서 지역에서 벌레 피해를 예방하는 법,¹²⁵⁾ 관북의 귀리 산지¹²⁶⁾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또한 팔도 전역에서 쓰는 농법으로 근경과 간종과 상수리나무잎을 퇴비로 쓰는 법을 설명해주기도 했다.¹²⁷⁾

요약하자면, 건종법은 조선전기에는 아예 거론조차 되지도 않았다가 후기에 대전법 보급을 위해 일부 농학에 관심을 둔 유학자들을 통해 논의가 시작되었다. 서유구는 중국의 대전법 논의와 선배 유학자의 논의를 종합하여 건종법 체계를 확립하고서 『의상경제책』에서 이를 확대·보급시키려는 원대한 구상을 세웠다. 하지만 결국은 간종 및 근경이라는 민간의 오랜 관행을 바꾸지 못했고, 그 결과 건종법은 서유구를 비롯한 일부 지식인의 실험에 그친 농법이 되고 말았다.

3.3.4. 농법 제도화를 위한 둔전설치론

둔전은 본래 국방상 요충지에 주둔하는 군사들이 농경과 국방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군수軍需를 자급하기 위한 농지를 일컫는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이러한 본래 용도 외로 외연이 확대되어 중앙 아문衙門이나 지방의 영營·진鎭·읍邑 등에서 군수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개설한 농지까지 둔전에 포함되었다. 임진왜란 이후로 농지가 황폐화되고 유민이 대규모로 생기면서 농업생산이 크게 줄어들자, 군량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 정부에서는 무주진황지無主陳荒地를 개간하여 둔전을 설치하도록 대대적으로 독려했다. 이로 인해 대량의 황무지를 개발하고 유민을 정착시키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후에 무주진황지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민간 농지를 침탈하기도 했다. 둔전 운영은 17세기에는 해당 군문軍門에 소속된 군인·노비들이나 유민 등의 부류를 통해 대부분 이루어졌으며 18~19세기

123) “嶺南人治稻田,每收穫既畢,卽竝力用耒耨掘畦中土,深可二尺許.”『杏菴志』卷2「種植」‘種稻’(『農書』36, 121쪽); 『임원경제지 본리지』2, 199쪽; “我國北方之俗,每於春初解凍,修築水田之隄阡,鑿鍤齊集,力役而止.南方殊無此法.”『금화경독기』; 『임원경제지 본리지』2, 200쪽.

124) “我東湖南沿海·島嶼,或有土中多藏石礫,不可用牛犂者,往往用人踏犂起壤者.”『杏菴志』卷2「種粟」‘耕耙’(『農書』36, 108~110쪽); 『임원경제지 본리지』2, 127쪽.

125) “我東關西·東種粟預防蟲損法,取煮鹽竈灰拌粟種播之,如無則以鹽少許拌灰種之,亦可;或以歲時,餅篩後糶未少許,拌灰種之,亦能辟蟲.”『杏菴志』卷6「五害攷」(『農書』36에 미수록); 『임원경제지 본리지』2, 579쪽.

126) “耳麥出關北之三水·甲山·六鎭等地.(중략)舊只產關北,今殆遍漠北,救荒諸種中,不可缺者也.”『杏菴志』卷4「穀名攷」(『農書』36, 253~254쪽); 『임원경제지 본리지』2, 534~535쪽.

127) 제2부 제3장의 제5목 해설 부분 참조.

에는 이 같은 운영 형태와 더불어 일반백성에게 병작을 시키는 방식이 늘어났다. 각 군문에서는 둔전 관리자로 군문의 장교 중에 둔감屯監을 두었고, 아문둔전의 경우 도장導掌이라는 독립적인 관리자를 두기도 했다. 이들이 전세를 가혹하게 징수하여 사적으로 착복하는 폐단으로 인해 둔전민과 군문·아문 모두 손실을 입기도 했다.¹²⁸⁾

그러나 조선의 경세가들은 둔전의 확대와 이의 관리에만 관심이 있었다. 둔전만 만들면 거기서 생기는 이익은 저절로 생기는 것으로 믿어서인지, 둔전민이 수확을 잘 거둘 것으로 믿어서인지, 둔전 설치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 둔전에서 실행될 농법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물론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권농 행위를 시도했겠지만, 일반 농지에서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둔전 운영자들은 관행 농법을 전제로 소극적 변통에만 머물렀을 것으로 보인다. 그 대표적인 예로, 둔전 관련 역대의 기록을 정리해 둔 <<증보문헌비고>> 『전부고』에서는 농법 개량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다.¹²⁹⁾ 따라서 새로운 농법을 둔전에 제도적으로 도입하려 했던 시도도 찾아보기 어렵다.

서유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둔전 설치방법이나 운영론 등과는 다른 방식의 둔전을 구상했다. 무주진항지를 개간하거나, 매입을 통해서 둔전을 국가 소유로 만들거나, 국경 둔전의 경우 민간 개발을 유도한 뒤, 토지제도, 양전법, 둔전 책임자인 전농관典農官의 선발, 농정 관련 제반 시행 사항 등을 모두 새로운 논리와 계획에 의거하여 추진하려 했다. 이를 통해 군문·아문 및 지방 관청의 재정을 탄탄하게 해줄 뿐 아니라, 둔전민들에게도 소득을 넉넉하게 보장해주며, 둔전 관리자에게도 관직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했다. 이로써 서유구는 진항지나 미개간지를 개척하여 농지를 확대하려 했고, 국경 개척을 통해 국방을 보다 공고히 하며 남방민들의 이민을 유도하여 유민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했다. 둔전은 삼정의 문란으로 인한 구조화된 수탈을 피해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이나 열악한 대우를 받는 고용 노동자들을 흡수해 대규모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는 점에서 서유구의 둔전론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이 같은 일련의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서유구식 둔전의 핵심 콘텐츠는 이전의 둔전 관련 경세론과 크게 차별화되는 농법의 제도화였다. 이하에서는 둔전을

128) 宋亮燮, 『朝鮮後期 屯田 研究』, 景仁文化社, 2007, 271~284쪽.

129) <<增補文獻備考>> 卷145 『田賦考』 5 「屯田」(『국역 증보문헌비고 전부고』 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8, 181~213쪽).

통한 농법의 제도화 및 변경 둔전 설치론과 관련된 제안을 서유구 이전의 제안과 서유구 둔전론을 비교하며 점검해보기로 한다.

둔전을 서울 주변에 설치한 뒤 서서히 전국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한 서유구의 내지 둔전론은 자신의 창안이 아니었다. 그 기본 골격은 박지원·박제가(1799년)의 둔전론에서 채용했는데, 이는 정조의 ‘권농정구농서윤음’(1798년)에 대한 답글로 각각 저술한 『과농소초課農小抄』와 『북학의北學議』에 실린 내용이었다. 전술했듯이 서유구도 이때 「순창군수응지소」를 정조에게 제출했으나 이때까지만 해도 그의 농정론에서 둔전론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었다.

우선 박지원은 서울 주변 동서 두 군데에 ‘법전法田’을 설치하자고 했다. 법전은 본보기가 되는 시범농지로, 박지원은 동쪽의 10리(흥인문~왕십리) 땅에는 기자箕子의 정전井田인 기전箕田 16구區를, 서쪽의 10리 땅(송례문~서강)에는 정전 10정井을 설치하여 기자의 정전과 주나라의 정전 두 제도를 적용하려 했다.¹³⁰⁾ 이 농장 책임자는 농리農理에 능통한 사람으로 선발하되 해당 군영의 책임자에서 뽑고, 농사를 잘 짓는 자제 수 십~백 여 명은 각 도에 소속된 향군에서 뽑는다. 농부들 각각에게는 3개월 분 식량으로 27두를 제공하고 이들에게 경종법耕種法을 교육시킨다. 이 때 기존의 관행 농법을 따르지 말고 옛 농법[古方]을 연구하여 편리한 방식을 찾아 현재에 실행할 수 있는 농법을 찾고, 이 방법을 얻어 확실한 효과를 본 뒤에 고향으로 돌려보낸다. 이들이 각각 농법을 자기 읍에 전수하는 역할을 한다.¹³¹⁾

박지원의 법전은 한양의 동서 양쪽에 설치되어 정전의 두 종류로 알려진 은나라 기자의 정전과 주나라의 정전의 제도를 복원하는 농장이었다. ‘법전’은 그것이 이상적인 토지제도를 구현할 모델임을 드러낸 명명이었다. 이 양 정전에서 구현

130) 기자의 정전은 은나라 말 주왕紂王에게 쫓겨 조선으로 왔다는 기자가 평양에 설치하여 서유구 당대까지도 그 유적이 남아 있다고 주장되던 정전을 가리킨다. 70묘를 1구區로 하여, 4인 가족에게 1구를 배정한다고 알려져 있다. 한백겸(韓百謙, 1552~1615)·서명응·박지원 등의 기자정전 논의에 대해서는 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임원경제지 본리지』 1, 101~124쪽 참조. 주나라의 정전은 정전제의 정전으로, 100묘를 1부夫로 하여, 8인 가족에게 1부를 배정한다.

131) “亦願國家置法田於東西兩郊之中,而一以箕田爲式,一以井田爲則.舉深曉農理者,爲之師.致四方力田子弟數十百人,與之耕作,毋循常習,必按古方,而益求其便利,可行於今者,使各盡得其法而灼見其效,然後歸之.俾各爲一鄉一邑之師,而又從之以董勸考試之政,則民無不興起樂業,而農之學始可大明矣.(중략)臣又曰:‘自興仁門至旺尋里方十里,適爲十井之地,自崇禮門至西江方十里,亦足以畫箕田十六區.四方力田之子弟,莫如諸道上番之鄉軍,皆健實上農夫.其一夫三朔放料,爲米二十七斗,足爲農糧.訓農之官亦不須他求,自有該營之將官,此皆曾經守令之人,亦將爲字牧之任,自領其軍,足以課農矣.’ 朴趾源, <<燕巖集>> 卷16 別集『課農小抄』「田制」(<<叢刊>> 252, 361쪽).

할 농법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박지원은 조선의 통행 농법을 배제하고 중국의 옛 농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 중국 농법을 전국에서 경사京師 지역으로 차출된 향군에게 익히도록 한 뒤 이들이 귀향하여 전국에 농법을 전하는 방식이었다. 법전의 운영자는 동서 교외 지역을 담당하는 군영에서 충당하도록 했다. 이 같은 구상을 볼 때, 법전은 정전이라는 토지제도를 바탕으로 한 중국 선진 농법의 연수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었으며, 농법을 연구하고 이를 전수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는 제도적 시도였다. 박지원이 정전제도를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정전제도를 구현한 법전은 균세를 추구하는 부세의 측면보다는 중국의 선진 농법을 시행하기 위해 동시에 병행해야 하는 전묘제도를 익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서유구의 둔전론에서 드러나는 선진 농법의 제도화 구상은 이미 박지원의 논의에 그 기본 틀이 등장했던 것이다.

박제가의 둔전론은 박지원의 법전론보다 구체적이었다. 그도 역시 농법 개선을 위해 시험농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농법 개선에 대해 그는 논자들이 일반적으로 농법을 갑자기 바꾸기 어렵다고 여겨 현행 농법을 바탕으로 개선하자고 주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새 농법을 도입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시험농장을 운영하여 새 농법의 효과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여겼다. 둔전을 운영할 때, 농기구는 중국 요양遼陽의 농기구를 구해서 이를 본받아 만들고, 농지는 서울 주변에 1~100경 정도로 만든다. 둔전 책임자로는 한나라에서 수속도위搜粟都尉를 둔 제도처럼 농사 전문가를 선발하고, 농부 수 십 명을 후한 비용으로 고용하여 한두 해 농사를 시험한다. 그 뒤 이 농부들을 팔도에 파견하여 1인이 10인에게 전수하고 이 10인이 100인에게 농법을 전수하면 10년이 안 되어 새 농법을 전파할 수 있다고 그는 확신했다.¹³²⁾

박제가는 둔전 10경을 기준 단위로 설정하고 여기서 소요되는 비용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10경마다 농우 20마리, 수레 10대, 인부 20명이 필요하다. 또 수차·수문을 비롯하여 보습·곰방매·호미·씨레·낫·대패·풍구·항아리방아·돌절구·연마連磨(동시 작동 맷돌)·육독(흙을 부수거나 곡식 터는 기구) 등의 농기구까지 준비

132) “議者必曰：‘風俗不可卒變，只就今之農而消息之’云爾，則不須多言，試可乃已。先買遼陽農器各種，開鐵冶于京師，照式打造。遠州產鐵處，遣屬分造，以收其利，以頒其制。試農之地，不拘多少，只就京師近處，少則百畝，多可百頃，作爲屯田。以知農者一人領之，如古搜粟都尉，別選農徒數十人，厚其稍廩，一聽其指。時秋既穫，校其得失一年二年，見其必效，然後分遣其徒於諸道，以一傳十，以十傳百，不出十年，風俗可易。” 朴齊家，『北學議』，『進北學議疏』(『農書』 6，亞細亞文化社，1981，75~76쪽). 번역은 박제가 지음，안대희 옮김，『북학의』，돌베개，2003 참조(이하 동일).

하는 비용이 수 십 만 냥 정도이지만, 황무지에다 군병을 동원한다면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그는 예상했다. 하지만 하나라 우임금의 치수 관련 내용을 다룬 『상서尙書』 「우공禹貢」에서는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 상관없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¹³³⁾ 또 서울 동쪽의 중령포 서쪽 사방 몇 리 되는 황무지 들판(훗날 서유구가 동둔 중 하나로 지목한 곳)을 준설하여 물을 소통시키고 옛 밭두둑을 회복하면 수천 석의 벼를 수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둔전에도 일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¹³⁴⁾

이상의 박제가 둔전론 역시 큰 틀에서 서유구 둔전론과 유사했다. 우선 농법을 교육하고 전파하기 위한 매개로서의 둔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박지원의 ‘법전’이라는 표현 대신에 ‘둔전’으로 명시한 점도 같았다. 둔전 10경을 기준으로 서울 주변에 둔전을 설치한다든지, 둔전 책임자를 기존의 관리 중에서 선발하는 형식이 아니라 역농자를 흡수한다든지, 농부를 임금으로 고용하는 방식이라든지, 10경을 둔전의 기준 단위로 하여 소요되는 소·수레·인부 등을 산정하고, 중국의 다양한 농기구를 활용한다든지, 중녕포 주변의 황무지 개간을 주장한 점 등은 이후 서유구의 둔전론에 유사하게 반영되었다.

물론 서유구와 박제가의 둔전론이 모두 같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박제가는 수레를 강조했지만, 서유구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또 둔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매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던 서유구에 비해 박제가는 이 방안에 대해 다소 추상적인 일반론만을 언급했다. 박지원의 법전과 마찬가지로, 박제가는 서울 주변의 둔전만을 고안하는 데 그쳤고 전국의 요지에 시범농장을 설치하자는 구상으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서울에서 교육시킨 농법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전국에 확산시킬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른 한편, 박제가 또한 선진 농법을 제도화하려고는 했지만 서유구와 달리 선진 농법의 구체적인 내

133) “屯田以十頃爲率，當用牛二十頭·車十乘·徒二十人，自開墾下種至春(竹/欺)(籓의 오자로 보임: 필자)作米，大而水閘·水車之類，小而犂·耨·鋤·耙·鎌·鋤·颶扇·礪碓(礪의 오자로 보임: 필자)·石杵·連磨·礪(礪의 오자로 보임: 필자)礪之屬，費當不下數萬緡錢，若只就閒地，姑取北車及軍兵受本料者用之，當略省費，然禹貢一篇不言經費，以事所當爲，雖舉天下而聽之，不可不行故也。” 朴齊家， 위의 책， ‘屯田之費’ (『農書』 6, 94~95쪽).

134) “京城東十里有水，出佛巖山，流注于栗橋，南過石串圩，又南入于中冷浦，而浦之西地方數里，其中舊有民田，契券俱存，近自數十年來，每當夏潦，暴至流沙漂下，漸至堆積，水失故道，汎濫橫流，仍成荒埜，遇客之指畫者，欲事隄防，則計其功力，望洋而返，今若依中州濬河之法，講造龍爪等器，疏其支脈，通其咽喉，但使水田地中行而已，則比諸隄防，難易懸隔，治其舊隄，闢其新畝，則田乃復初歲，可收數千斛稻米，亦屯田之一助矣。” 朴齊家，『北學議』 「濬河」 (『農書』 6, 95쪽).

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학의』 여러 곳에서 조선 농법의 문제를 거론하고 중국의 구전법이나 대전법 등의 장점을 자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제가 역시 중국의 선진 농법을 보급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박제가와 박지원은 공히 서유구와는 달리 병농일치를 통해 양식을 자급하는 둔전의 본래 취지를 추구하는 둔전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는 않았다.

서유구는 변경 수비와 식량 자급을 위해 변방의 둔전에도 적지 않은 관심을 쏟았다. 이를 통해 그는 공지를 개간하여 농업생산량을 높이려 했다. 1년 반 정도 의주를 다스렸던(1802~1804년)¹³⁵⁾ 그였지만 의주 북쪽의 천 여 리나 되는 국경의 상황을 스스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국경 둔전 개발에 대해 남구만과 서미수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군과 육진을 포함한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의 세부적인 상황과 국경 지대의 운영에 대해 이 두 사람의 견해가 『의상경계책』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남구만(南九萬, 1629~1711)은 함경도 관찰사 재직 시 국경 개척에 관해 상소를 올렸다. 글자 수가 5천 자에 가까운(4,899자) 장문의 이 상소는 두만강과 압록강 이남이 조선의 국경이 분명한데도, 국경 천 리에 백성이 거주하는 곳조차 군사·행정력이 거의 미치지 못하고 심지어는 옥토가 황무지 상태로 비어있는 상황을 타개하자는 건의서였다. 이 글에서 남구만은 함경도의 수많은 지명을 거론하며 둔전을 설치하여 인구를 이동시키고 본래 국경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¹³⁶⁾ 청의 건국으로 이민족이 모두 압록강과 두만강 너머로 이주하면서 그들이 살던 조선 영토가 비어있음에도 조선 정부는 이 공지를 방치하고 있었다. 남구만은 조선 정부의 이 같은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며 압록강·두만강까지 국경 수비대를 진출시키고 광활한 땅을 개간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상소문은 단지 일부의 건의만 받아들여졌으며, 나중에 그마저도 폐기되는 결과로 이어졌다.¹³⁷⁾

135) 『순조실록』 2년(1802) 12/13, 『일성록』 순조 4년(1804) 5/14.

136) 南九萬, 『藥泉集』 第四「疏筭」『陳北邊三事, 仍進地圖疏』(<<叢刊>> 131, 497~503쪽); 『현종실록』 14년(1673) 12/30. 당시 국경의 상황을 세부적인 지명과 지세로 설명해가며 올린 이 상소를 계기로 북방 정책에 대한 논의가 몇 년에 걸쳐 계속되었다(『숙종실록』 6년(1680) 5/26, 『숙종실록』 9년(1683) 4/3, 윤6/3, 『숙종실록』 11년(1685) 11/13, 11/15, 『숙종실록』 23년(1697) 6/3 등의 기사를 참조 바람).

137) 남구만의 이 상소는 그 뒤 최창대(崔昌大, 1669~1720), 홍양호(洪良浩, 1724~1802), 이극익(李肯翊, 1736~1806), 정약용 등이 재인용하기도 했다. 崔昌大, 『昆侖集』 卷6「記」『新設茂山府』

서유구의 11촌 족속인 서미수(徐美修, 1752~1809)도 국경에 둔전을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서미수는 강경부사로 재직하던 시절(정조 24년, 1800년) 관할 지역인 폐사군을 둘러본 뒤 정조에게 둔전 설치를 건의한 일이 있었다. 서유구가 쓴 서미수의 신도비에 따르면, 서미수는 폐사군 지역에, “백성을 모집하여 땅을 개간하고 병과 농이 서로 의지되고 진과 보를 옮겨 요해처를 방비하며 울창을 세워 날뛰는 일을 대비한다.”는 내용의 장계를 올렸다고 한다.¹³⁸⁾ 장계를 본 정조는 “근래의 장계 중에 이런 글은 없었다.”라며 그의 건의를 높이 평가했고, 평안도 관찰사와 병마절도사에게 논의 후 보고하라고 했으나, 얼마 뒤 정조가 죽으면서 이 일은 유야무야 되었다.¹³⁹⁾ 강계부의 폐단과 이를 없앨 방안을 총 11조목으로 작성한 서미수의 제안은 강계부 지역의 둔전 설치를 주된 내용으로 했다.¹⁴⁰⁾ 둔전 설치의 필요성을 지방관이 겪은 경험을 통해 제시했기 때문에 남구만의 둔전론 못지않게 구체적인 정보와 의견이 담겨 있었다. 뿐만 아니라 둔전과 수비대의 운영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서미수는 농지 사방 100척(=10,000척²)을 ‘하루같이’로 정하여 군호와 민간호에게 차등 지급하자고 하여 농지 구획 방안도 명시했다.¹⁴¹⁾ 하지만 그는 국경수비와 둔전 운영의 큰 틀에 대해 좀 더 세부적인 방안을 이야기했을 뿐, 둔전을 농업 경영과 연관 짓지는 않았다.

서미수가 복원을 주장했던 4군郡의 경우 태종·세종 대에 설치되었고 세조 때

館宇勸建記’(<<叢刊>> 183, 113쪽); 洪良浩, 『耳溪外集』 卷12 「北塞記畧」 ‘北關古蹟記’(<<叢刊>> 242, 358쪽); 이공익, 『연려실기술』 제34권 「숙종조 고사본말肅宗朝故事本末」 ‘무산부茂山府를 창설하다’; 이공익, 『연려실기술』 별집 제18권 「변어전고邊圉典故」 ‘북쪽 변방’; 丁若鏞, <<輿猶堂全書>> 第六集 地理集 第六卷 『大東水經』 「大東水經 其二」 ‘滿水’ 1(<<叢刊>> 286, 361쪽) 참조. 4군과 6진 등 북방 국경에 대한 역사와 논의는 『연려실기술』에 자세하다. 이공익, 『연려실기술』 별집 제18권, 위의 기사.

138) “公既赴任,身自行邊,露宿十餘日,遍歷四郡之地,盡得其形便,遂建屯田之議,請募民墾土,使兵農相資,人自爲守,徹防戍以省餽餉.使鎮堡以扼要害,樹砦柵以備奔突.” <<全集>> 『金華知非集』 卷6 「神道碑銘」 ‘承政院都承旨徐公神道碑銘’(<<叢刊>> 288, 405쪽).

139) “上覽其奏,亟詔曰:‘近來奏狀,無此作也.’仍命本道觀察使·節度使詳議以聞.議未上而仙馭賓天,事遂寢.” 徐有渠, 위와 같은 글.

140) 정조가 영의정 이병모, 좌의정 심환지(沈煥之, 1730~1802), 우의정 이시수(李時秀, 1745~1821)와 서미수가 제출한 11조목에 대해 논의한 구체적인 내용은 『비변사등록』·『승정원일기』 정조 24년 윤4/24 참조.

141) “농지를 구획하는 규정은 길이와 너비 각 100척을 하루같이로 삼습니다. 군졸 1호戶마다 며칠 같이로 정하여 지급하고 군호軍戶가 아니면 길이의 수를 조금 줄여서 지급합니다. 농지가 안에 있고 집이 밖에 있도록 힘쓴다면 거의 상세上世에 행했던 한전限田 제도를 본받게 될 것입니다. 劃田之規,長廣百尺,作爲一日耕.每軍一戶,定給幾日耕,非軍之戶,稍減耕數,而務令田在內家在外,則庶倣上世限田之制.” 『비변사등록』 정조 24년(1800) 윤4/24.

이민족이 이곳을 침탈했기 때문에 폐지되었다가 서유구의 당대까지도 회복되지 않았다. 청이 건국되면서 이곳의 이민족 역시 모두 압록강 이북 국경 밖으로 이주했고 더 이상 조선의 영토로 내려오지 않은지 200여 년이 되었다. 이에 숙종·영조 대에 4군을 다시 설치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반론에 부딪혀 뜻대로 되지 않았다.¹⁴²⁾ 정조 대에 이르러서야(1794) 4군의 애초 경계였던 “삼천방三川坊의 경작과 개간을 허락했다.”(3.6.54)¹⁴³⁾ 서미수의 계문은 바로 이 같은 상황에서 올려졌다. 이로부터 25년 뒤 서유구가 『의상경계책』을 쓸 즈음에는 삼천방의 인구는 1만 호가 넘었다고 한다.(3.6.54)¹⁴⁴⁾ 그럼에도 여전히 폐사군에는 진鎭이나 보堡가 설치되지 않아 공권력이 백성을 보호할 수 없는 처지였던 것이다.

국경의 광활한 영토가 비어 있음에 주목한 서유구는 북부의 국경과 남서의 도서 지역에도 둔전을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이전의 국경 둔전주창론은 둔전 설치의 당위성만 언급했을 뿐 둔전의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었다. 농업생산성의 향상이 변경 수비와 유지의 토대가 된다는 확신이 있었던 서유구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선진 농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내지 둔전의 토지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농지를 구획하여 견종법을 시행함으로써 경제력을 높이려 했다는 점이 서유구의 제안이 이전의 국경 둔전론과 크게 다른 점이다.

서유구는 국경 둔전에 ‘민둔’을 적용함으로써 이전의 둔전론과는 다른 구상을 할 수 있었다. 민간의 비용으로 둔전을 개발하고 개발자에게 그 둔전의 운영과 관리권을 부여함으로써 정부의 재정 부담을 없앴다. 또한 민둔에서 창출되는 부

142) 숙종 대 “백성들에게 들어가 농사짓도록 허락했으나, 곧바로 다른 의견에 부딪혀 해산했다.”(3.6.53) 이후 영조 대에도 신일청(申一淸, 1698~1770?)이 사군 설치를 건의하기도 했으나 역시 그때도 무산되었다(『영조실록』 46년(1770) 5/13).

143) 이는 당시 강계부사江界府使 신대년(申大年, 1731~?)이 실행한 일을 두고 한 말이었다. 이 민족이 떠난 틈을 타 그 사이에 4천 여 명의 민간인이 개간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그간은 묵인만 하다가 이때 개간을 공식적으로 허가한 것이었다. 평안도 관찰사 김사목(金思穆, 1740~1829)은 정조에게 올린 장계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방금 강계부사 신대년의 첩정을 보니, ‘마전령麻田嶺과 자작령慈柞嶺 사이를 백성들이 새로 개간할 수 있는 곳으로 허락해 주고 삼천방三川坊이라 이름하여 9개의 마을로 나누어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민호는 1,161호이고 남녀 인구는 3,734명입니다. 새로 개간한 전지가 6,465일경日耕이며, 그중에 평전은 3,070일 3시경時耕이고 산전은 3,394일 3시경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정조실록』 18년(1794) 11/19.

144) 목민 지가 오래되어 땅심이 매우 좋아 “조 1승상을 파종하면 7~8석을 얻을 수 있”었기에(3.6.54) 인구가 나날이 증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조 대에 삼천방 개간 허가 시, 호 당 인구는 평균 3.2명(=3,734명/1,161호) 정도였기 때문에(위의 주석 참고) 1만 호가 넘는 당시 인구는 3만 명을 훨씬 상회했을 것이다.

의 축적을 통해 ‘관둔’을 설치함으로써 진과 보가 양강兩江 유역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민둔은 국경의 공지에 진출하여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두보였다. 이와 더불어 서유구는 이 민전에서 정전제도를 실시하도록 했다. 그가 국경의 민둔과 관둔 개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 나열했던 10가지 중 7가지는 농업의 생산력을 토대로 한 경제력 향상이었다. 국경 둔전에서 농법의 제도화가 갖는 비중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민둔과 관둔의 상보적 구상을 통해 서유구는 국경 지역에서 국부를 창출하고 이상적 토지제도를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았던 것이다.

서유구의 둔전론은 『의상경제책』의 11목 중 유일하게 여러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이다. 서유구 둔전론을 처음으로 분석한 김용섭은 그의 둔전론을 “토지소유관계土地所有關係나 농업경영관계農業經營關係의 전면적인 변혁을 목표로 하되, 현실사회現實社會에서의 실현성 여부를 고려하여 점진적이고도 무리 없는 방법으로 이를 성취하려는” “새로운 농업경영론農業經營論이고 농업개혁론農業改革論”이라 평가했다.¹⁴⁵⁾ 토지소유와 농업경영 측면에서 새로운 개혁론을 제시했으면서도 그 방법은 점진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서유구의 둔전론은 그에 따르면 조선후기에 정착된 지주제를 타파하여 토지를 몰수하려는 전면적인 개혁을 추구한 것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당시 새롭게 부상한 농업경영자인 ‘경영형부농經營型富農’들의 농업경영방식을 국영농장인 둔전에 도입하고서 ‘경영형부농’을 둔전에 흡수하여 이들과의 유대를 통해 농민층에게 부를 균등하게 분배할 수 있는 경제적 평등을 추구했으며, 결국 지주의 농업경영을 둔전에서의 경영방식으로 바꾸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그는 주장했다.¹⁴⁶⁾ 그리고 둔전에서의 경영의 본질은 임금노동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바로 자본가적資本家的인 농업경영農業經營, 자본제적資本制的인 생산양식生産樣式과 흡사”하다고 이해했다.¹⁴⁷⁾ 따라서 “그 개혁방안改革方案은 순전히 농민위주農民爲主가 아니라 지주층地主層의 입장도 살리고 있는 절충적”인 것이었고, 이런 점에서 “생산력의 발전이나 생산관계生産關係의 변혁이라는 점에서는 뛰어난 것이지만, 모든 농민農民的 경제적 평등화를 추구해야 할 농업개혁農業改革이라는 점에서는 미흡”했다

145) 金容燮, 『韓國近代農業史研究』 I, 152~154쪽.

146) 같은 책, 157~158쪽.

147) 같은 책, 175쪽.

고 결론을 내렸다.¹⁴⁸⁾ 요컨대, 김용섭은 서유구의 둔전론이 지주층과 농민층 양측의 입장을 모두 살린 절충적 입장이었고 결국 모든 농민의 경제적 평등을 달성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녔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서유구의 ‘한계’에 대한 김용섭의 비판은 서유구를 비롯한 조선후기의 경제론자들이 균전론·한전론·여전론 등처럼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지주제를 타파한 뒤 다시 농민에게 균등하게 분배하자고 주장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제하고 있는 지적이다. 하지만 서유구는 토지의 균등 분배보다는 전정의 기본 방향인 ‘공평 과세’를 더 중시했다. 그는 양전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전정이 문란함으로써 야기된 농민의 부당한 수탈을 광정하는 일이 더 시급한 사안이라고 보았다. 즉, 전정의 개혁이 토지소유관계의 개혁보다 더 현실적으로 시급한 문제라고 보았던 것이다. 정조가 시행한 과시課試에서 서유구가 한전론의 필요성을 제기한 적도 있으나 그 뒤로 한전론을 언급하지 않고 그 대신 둔전론을 내세웠던 이유는, 현실적으로 토지의 균등 분배를 통한 공평 과세의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서유구의 이런 판단은 토지소유관계를 재조정하는 방안만이 전정의 모순을 타파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김용섭에 이어 유봉학도 서유구의 둔전론을 통해 그의 농정론 전반을 분석하려 했다. 그는 서유구가 “당시에 광범위하게 달성되었던 농업 생산력의 발달과 그것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그의 새로운 농업기술론을 적용하여 최대의 생산성을 올림으로써 (농업문제를) 해결해 보려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부세 수취의 모순을 해결하고 유민流民을 둔전에 흡수함으로써 당시의 큰 사회문제 중 하나인 유민을 정착시키려 했다고 평가했다.¹⁴⁹⁾

그러나 유봉학은 북방 민둔의 둔전 책임자를 등용할 때 문과가 아닌 무과에 응시하도록 했다는 측면에서 서유구의 등용 정책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점, 둔전 안의 민의 존재 형태나 처지에 대해 구체적인 구상이 결여된 점, 국가 재정의 확충에만 주목한 나머지 민간의 부세 수취상의 모순을 부차적으로 다루었다는 점, 병작반수의 관행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거나 토지 소유의 혁신적 변화를 주장하지 않은 점 등에서 서유구의 둔전론은 생산 담당자층인 향촌 백성의 입장과는 유리되었다는 한계를 가진 ‘온건한 농업정책론’이라고 평가했다. 유봉학은

148) 같은 책, 176쪽.

149) 유봉학, 앞의 책, 217~218쪽.

이 같은 서유구 농정론의 한계가 경화거족 출신 전직 관료로서의 처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하지만 서유구의 둔전론이 백성의 입장을 고려하는 데 소극적이었다는 유봉학의 평가는 『의상경제책』 중 둔전론만을 분석하고 다른 건의안을 살피지 않은 결과였다. 서유구가 결부법과 양전법의 폐해라든지 수확이 적은 관행 농법의 폐해 등을 논하면서 대안을 제시했을 때, 농민의 문제를 소극적이거나 부차적으로 다루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병작반수의 관행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혁신적인 토지소유론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그의 한계라는 비판도 김용섭과 마찬가지로 조선후기의 급진적 개혁론을 주창한 이들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유형원·박지원·정약용 등이 주장한 지주 토지의 몰수를 통한 토지재분배는 당시 상황에서 현실성이 전혀 없는 이상론으로서, 서유구가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여 그의 사상에 한계가 있다고 단정 짓기는 무리가 있는 것이다.

도리어 서유구가 광범위하게 퍼진 지주제를 인정한 토대 위에서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3장 제2목에서 보았듯이 견종법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해 농업생산량이 향상된다면 결국 왕도정치도 실현할 수 있다는 그의 확신은, 당시 농민을 수탈하는 여러 모순을 해결하고 농민이 풍요롭게 살 수 있게 하려는 구상을 전제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다. 이 점에서 서유구는 자신이 과거에 한 때 몰두했던 경세학을 ‘흙으로 끓인 국[土羹]’이요 ‘종이로 만든 떡[紙餅]’이라 여겼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행포지 서문」(1825년)의 이 말은 『의상경제책』을 쓴 지 5년 뒤의 술회였다. 이 서문을 쓸 당시 가장 최근에 쓴 경세론적인 글은 『의상경제책』이었기 때문에 그의 술회는 자신의 이 둔전론과 농정론조차도 ‘토갱지병土羹紙餅’이었다고 후회한 글일 수도 있다. 다른 경세론에 비해 상당히 현실적으로 접근하려 했던 자신의 『의상경제책』에 대해서조차도 실현될 수 없는 토갱지병의 구상으로 평가했다면, 이는 서유구 자신의 ‘현실적 제안’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상론에 불과했다는 자괴감의 표현으로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온건한 농업정책론’이었다는 유봉학의 평가와는 달리 서유구의 농정론은 그리 온건하지 않았다. 둔전론 자체만을 살폈을 때는 온건해 보일 수 있으나 『의상경제책』 11목 전체를 연관 지어 볼 때 각 목 하나하나가 정부에서 시행되기 쉬운 제안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 11목 중 『의상경제책』 저술 이후에 조선에서 실현된 사례는,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제8목인 “좋은 종자 구

입하여 재해에 대비한다.”는 내용뿐이었다. 그것도 서유구 자신이 『의상경계책』이 작성된 지 18년 뒤에 현종에게 건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었고, 결국 구입한 중국의 종자를 실험 재배한 사람도 서유구 자신이었다. 이 종자가 조선에 퍼트려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 방식을 감안하면 이 또한 서유구의 실험으로 끝났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 같은 사례를 볼 때 서유구가 제안한 11목 모두 당시 조선에서는 시행되지 않았던 사항들이었기에, 그는 온갖 논리를 동원하여 현실을 분석·비판했고, 구체적인 자료 제시와 함께 제도 시행 당위론을 펼쳤으며, 시행을 반대했던 강고한 여러 반론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재반론을 해가며 실현가능한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럼에도 『의상경계책』의 전정론과 농정론은 제출조차도 못했고, 대부분이 조선에서 실현되지도 않았다. 예를 들어 조선 초부터 400여 년 실시된 결부법을 경묘법으로 바꾸고 방전법 등으로 양전법을 강구하자는 제안은 토지제도의 전면적 개혁이 수반되어야 가능한 제안이었으며, 수리 진흥 같은 농정론도 조선 역사에서 제대로 실현된 적이 거의 없는 사업이었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서유구 농정론은 결코 온건하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서유구의 둔전론에 대해 전면적인 변혁을 목표로 하면서도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점진적이고도 무리 없는 방법을 취했다고 했던 김용섭의 평가를 받아들일 만하다.

서유구의 둔전은 시범농장이자 국부창출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 논에서는 영남의 이양법, 밭에서는 중국의 건종법이라는 핵심 농법을 제도화하되, 운영 방식은 이상적인 토지 제도인 정전제도까지도 시도해볼 수 있는 시험무대였다. 내지 둔전에서는 국가의 비축미를 확보하려 했고, 국경 둔전이나 도서 둔전에서는 무주진황지無主陳荒地에 백성을 진출하게 하여 둔전의 본래 목적인 병농일치를 통해 국경 방비를 튼실하게 하려 했고, 오랫동안 휴경지여서 비옥한 농지가 될 수 있었던 이 둔전을 통해 국부를 늘릴 수도 있었다.

서유구의 둔전론은 빈농층의 고용을 증대시키고, 자영농을 양성하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 내지 둔전에서는 금위영이나 어영청에 입대한 군인 중 영남의 젊은 농부에게 식솔까지 데려와 살 수 있게 하거나, 황해도와 평안도 출신의 인부들에게 연봉을 후하게 지불한다거나, 경기 지역의 유랑민을 선발하여 집을 제공해주는 경우는 모두 고용 형식의 선발이었다. 변경 둔전 중 민둔의 경우는 정전제도의 세금(수확량의 10퍼센트)만 내는 자영농을, 관둔의 경우는 지주제를 적용한 소작농을 육성하려 했다.(3.6.24~39, 3.6.71~73) 내지 둔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국경에 비어 있는 땅이 천 리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둔전 개발로 창출되는 고용 효과와 자영농 육성 효과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서유구의 둔전론은 또한 중간층의 수탈을 막는 효과를 낼 수 있었다. 그가 거론했던 결부법과 양전법의 폐단 중 서리층의 부정을 통한 수탈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 중간층의 횡포로 인해 백성의 삶은 황폐화되고, 국가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도 담보하기 어려웠다. 일반 농지에서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당시 둔전에서도 중간관리층의 횡포는 큰 문제가 되었다. 그 한 예로, 군문 둔전에서 ‘봉명별장奉命別將’을 둔전관리자로 파견한 이유 중 하나는 군문 소속이 아닌 일반인이 중간 관리직을 맡음으로써 수탈을 자행하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함이었다.¹⁵⁰⁾ 만약 『의상경계책』에 실린 서유구의 제안들이 실현되었다면, 기존의 농지에서 일어난 이 같은 중간 수탈의 폐해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았다. 경묘법을 통한 양전이 시행된 둔전을 전농관이나 백부장·천부장(국경 민둔의 경우) 등이 직접 관리하고 수취하여 중간층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경묘법 시행만으로도 이전에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던 중간층의 양전 비리를 줄일 수 있었다. 전농관의 경우 이들의 실적을 고과하여 목민관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있었고, 백부장·천부장은 시범 정전제도의 책임자로서 세습을 할 수 있었다. 전농관이나 백부장 등은 둔전만을 관리하기 때문에 내부 사정에 밝을 것이고, 그에 따라 이들의 지시를 받는 중간관리층이 노골적으로 수탈을 감행하기는 어려울 것이었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여러 형태의 둔전을 제기한 서유구의 정책이 조선후기 농정론의 역사에서 새로운 제안이었던 것만은 확실하다. 남구만·서미수·박지원·박제가 등 둔전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선인의 주장을 흡수한 서유구는 중국의 채용 관리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전에 어느 누구도 제안하지 않았던 방식의 둔전론을 조선의 상황에 맞게 제안했다. 서유구가 내지 둔전과 국경 둔전을 통해 전국을 국가의 통제권에 두는 둔전형 국영농장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즉 전 농지의 국유화를 목표로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의 둔전론을 통해 농법을 제도화하여 농업생산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전국의 농지에서도 둔전의 농법을 본받을 수 있는 시범단지를 조성하려 했던 서유구의 강한 의지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50) 宋亮燮, 앞의 책, 201~209쪽.

제4장 결론 : 『의상경제책』의 농업사적 의의

『의상경제책』의 저자 서유구는 정조 대 가장 현달한 경화세족 대구(달성) 서씨 가문의 일원으로 일찍이 할아버지 서명응과 생부 서호수의 지적 영향을 받으며 성장했다. 특히 서유구는 서명응의 농서인 『본사』의 일부를 집필하면서 농학에 눈을 떴다. 입사入仕한 뒤에 그는 정조 대 규장각의 초계문신으로 활약하며 경학과 경세학의 식견을 늘리는 한편 다양한 국가적 편찬사업에 참여했다. 초계문신의 과시課試에서 제출한 ‘농대農對’(1790년)와 정조의 윤음에 호응하여 쓴 ‘순창군수응지소淳昌郡守應旨疏’(1799년)는 그의 젊은 시절에 형성된 농정론을 잘 보여준다. 이 시기부터 농서 저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서유구는 그러나 부친과 부인의 연이은 사망과 정조의 급작스런 서거를 겪으면서 농서 저술의 기회를 상실했다. 1806년 ‘김달순 옥사’에 연루된 작은아버지 서형수가 정치적으로 몰락하자 서유구 또한 정계에서 배제되었다.

뜻하지 않게 찾아온 정치적 방패放廢로 서유구는 이제 가족의 부양을 책임지기 위해 묘향 장단長湍 주변을 여러 차례 옮겨다니며 농사와 어업에 종사해야 했다. 이 시기에 그는 농업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며 농업론에서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다. 한갓 농정을 논하는 위정자로서가 아니라 농부이자 농학자로서의 실천을 바탕으로 농촌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도를 찾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행포지』·『난호어목지』 등 농업, 목축, 어업에 관계된 실용서를 저술했고, 이를 토대로 농촌 생활과 관련된 방대한 지식을 집대성한 실용백과사전인 <<임원경제지>> 저술도 시작했다. 18년간 지속되었던 귀농기에 서유구는 시골에 사는 사대부에게 유용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임원경제학’의 기반을 차근차근 다졌다. 또한 대규모 양전이 100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던 상황에서 순조가 1819년 양전령을 내리자 서유구는 그 동안 축적했던 자신의 농정 사상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왕에게 쓴 정책 건의문인 『의상경제책』을 짧은 시간에 완성했다.

1823년 서형수의 사면으로 정계에 복귀한 그는 중앙과 지방의 여러 직책을 두

루 거치면서 귀농기에 품었던 자신의 농정론을 정치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지방관으로서 그는 소를 함부로 잡지 못하도록 했고, 농우農牛를 구입하여 백성에서 빌려주었으며, 전라도 감사에 재직할 때에는 고구마 재배법 보급을 위해 『종저보』를 간행해 관할 읍에 보급했다. 역시 전라도 감사 시절 가뭄을 구제하기 위해 자동양수기인 자승차를 제작하고자 했으며, 이에 성공하지 못하자 그 대신 학음鶴飲이라는 수차를 제작하여 보급하기도 했다. 관직 생활을 하면서도 귀농기에 시작했던 <<임원경제지>> 저술은 계속되어, 보충과 수정이 계속되면서 그 양도 늘었다.

서유구의 일생에서 농학은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결과 그는 종합적인 농업론을 형성했다. 이 중 『의상경제책』은 농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론의 대표적인 저술이다. 『의상경제책』에서 서유구는 토지제도·양전법·농정이라는 세 가지 대주제에 대해 토지제도와 관련해서는 2가지, 양전법과 관련해서는 3가지, 농정과 관련해서는 6가지 소주제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세밀한 정책을 제시했다. 앞의 두 강은 농지를 적절히 구획하여 거기서 세금을 공평하게 거두려는 전정의 영역이었고, 제3강은 농지에서의 수확량 증대를 우선의 목표로 삼는 농정의 영역이었다. 이 중 특히 제3강 제6목의 둔전론은 전정과 농정을 현장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시험농장의 제도를 개진한 것이었다.

서유구의 제안에 따르면, 토지제도는 ‘개혁[更張]’해야 하고, 양전법은 양전 기술을 정확히 ‘강구[講磨]’해야 하고, 농정은 ‘시행[施措]’되어야 했다. 그가 보기에 곡식 생산량 증대라는 최종의 산물을 얻기 위한 필수요건은 토지제도의 개혁이었고, 그 개혁의 핵심은 ‘결부법’을 ‘경묘법’으로의 변환하는 일이었다. 경묘법은 길이의 표준을 제도화하는 일이었다. 경묘법으로 전환된 뒤로는, 이를 토대로 토지 넓이를 정확히 재는 기술을 터득해야 한다. 이것이 양전법인데, 서유구가 제시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방전법’이었다. 방전법을 익숙하게 시행하면 은결이나 누결이 발생할 여지가 생기지 않아 양전법도 표준화가 가능했다. 이로써 토지제도가 완성된다.

서유구가 셋째 ‘강’으로 제안한 ‘농정’의 구체적인 방법론은 바로 이 토지제도와 양전법이 갖춰졌을 때 가능한 국부창출론이었다. 그는 먼저 북극고도(위도)를 측정하여 지역마다 다른 자연환경을 농민에게 알려줌으로써 농시를 더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영남의 논농사법과 구전법이나 대전

법(건종법) 등의 효율적인 경종법을 보급시켜 논밭에서의 소출을 최대한으로 올리려 했고, 재해로 인한 대흉을 면하기 위해 특수한 환경에 적합한 종자를 구입하도록 했으며, 가뭄 대비는 물론이고 홍수까지 막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수리를 진흥시키려 했고, 수리 조건이 좋지 않은 농지를 논으로 전환하는 일과 간종·근경 등 당시 성행하던 농법인 밭에서의 이모작조차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정을 포함한 큰 의미의 농정에 관한 자신의 구상이 종합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둔전이라는 제도를 시행하자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서유구의 이 같은 제안들은 경묘법, 즉 주척 6척을 1보로 삼는 정전제의 토지 구획이 이루어진 토대에서만 실현이 가능한 것들이었다.

서유구의 『의상경제책』에서는 기존의 농업사 연구에 제시된 ‘조선후기 농업기술의 발전과 농업경영의 성취’에 관한 인식과는 다른 측면이 여러 곳에 나타난다. 조선후기에 농법이 ‘발달’했으며 농업생산력 또한 ‘증대’했다고 알려진 주장과 배치되는 입장들이 이 저술에 보인다는 것이다. 제3장 제2목에 주로 수록된 당시 농업 풍토들이 그것이다. 예를 들면 이양법의 발달과 확산이 농업생산력을 제고했는지에 대해 서유구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는 노동 집약적인 농법으로, 농법의 발달을 촉진하여 생산력을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받은 윤작농법, 즉 근경(根耕, 그루갈이)과 간종(間種, 사이짓기)을 금지해야 할 농법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오늘날 연구자들에 의해 조선후기 전국에 보급되었다고 간주된 건종법은 서유구에 따르면 북부 일부 지방의 농법에 불과했고, 게다가 이 또한 서유구가 보기에는 진정한 건종법이 아니었다. 농기구도 다양하지 못했고 규격도 표준화 되지 않았다. 수차는 아예 없었고, 수리시설 또한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홍수와 가뭄 대비가 매우 부실했다. 광작廣作 현상은 도리어 농업생산량을 떨어뜨렸다고 진단했다. 위에서 말한 여러 요소는 오늘날 모두 조선후기 농업기술의 발달을 주도했던 요인들로 알려져 있었으나, 서유구는 후대 연구자들과 견해를 달리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 진단을 바탕으로 서유구는 『의상경제책』에서 중국의 선진 농법을 전국에 보급하여 농업생산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유구가 『의상경제책』에서 구상한 농정의 핵심은 ‘둔전에서 의 건종법 시행’이었다. 19세기 초반 조선은 밭이 전국 농지 중 약 75퍼센트를 차지했다. 논은 당시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수리 시설이 열악한 상황이었어서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서유구는 논에서의 이양법에 대해 영남에서 어느 정도 토착화되었기 때문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다. 반면 건종법은

밭 소출을 최대로 올릴 수 있는 농법이었으나, 조선에서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서유구는 조선의 밭 농법을 모두 견종법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민간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보급시키기에는 이전 농법의 관행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 농법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둔전이라는 국영농장이 매개가 되어야 했다. 그는 둔전론에서 국부창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대책을 제안했다. 내지 둔전에서는 식량 비축과 국부창출에, 변경 둔전에서는 국방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었다. 하지만 내지 둔전이든 변경 둔전이든 둔전에서의 생산력을 담보하는 핵심은 견종법이었다.

서유구는 이처럼 왕도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토지제도 및 양전 같은 전정을 농정과 연결지었다. 그에 따르면 왕도정치는 토지를 구획하는 데서 시작하고, 국부를 창출하고 백성의 삶이 여유로워지는 데서 완성된다. 토지의 구획은 ‘토지제도’와 정확한 ‘양전’으로 구현된다. 국부창출과 백성의 풍요로운 삶은 농정의 합리적 시행을 통한 ‘곡식 생산량의 증대’로 구현된다. 이렇게 전정과 농정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농정’ 구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유구는 이전 위정자들과 경세가들이 농민의 일로 간주하여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농사’의 세부 영역을 정책 제안의 요소요소에 배합했다.

이렇게 볼 때 서유구의 진정한 목적은 양전령을 계기로 『의상경제책』을 기획했을 때부터 경진양전에서의 정확한 양전에 머물지 않았다. 경진양전은 보다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농정안을 제안하기 위한 방편적 계기였다. 그의 목적은 견종법의 전국적 보급을 통한 조선 농업생산성의 비약적 향상이었다. 그의 판단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선진 농법을 국가 제도로 편입시키는 일이었다. 경묘법, 양전법, 견종법, 둔전의 만남은 이렇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농법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전정과 농정이 모두 함께 제도화되어야 했다. 요컨대, 『의상경제책』에서 구상한 농법 제도화의 핵심은 ‘경묘법으로 양전한 둔전에서 견종법으로 농사짓는 일’이었다. 따라서 서유구의 농정론 체계에서는 3장 11목이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관되지 않을 수 없었다.

농업기술 즉 농법의 제도적 혁신, 이는 조선에서 한 번도 본격적으로 시도된 적이 없는 일이었다. 조선후기에 광범위하게 퍼진 농업기술들 즉 이앙법, 근경, 간종 등은 민간에서 오랜 시일에 걸쳐 자연스레 정착되었지, 관이 주도하여 제도화한 농법이 아니었다. 물론 수리 상황이 좋지 않은 곳에 이앙하는 풍습을 금지하려 했다거나, 가뭄으로 이앙 시기를 놓친 경우 다른 작물을 파종하도록 했던

식의 간헐적이거나 소극적인 간여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농법 전체를 국가가 지속적으로 관장하여 개선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선진 농법을 제도화하려는 박지원·박제가의 법전론과 둔전론을 계승한 서유구는 옛 농법 중에서 건종법에 특히 주목하여 깊이 연구했고 그 결과 앞의 두 사람과는 달리 그가 선진적이라고 판단한 구체적인 농법을 둔전에 적용하려는 구상을 할 수 있었다. 『의상경제책』은 건종법이라는 특정 농법을 제도를 통해 보급하려 했던 최초의 시도였던 것이다.

서유구에게 ‘경제’는 농지를 구획하고 방전법으로 양전하여 공평한 세금을 거두어들이려는 전정에 한정되지 않았다. 구획된 농지 안에서 벌어지는 농사의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개념이었다. 그에게 ‘경제책’은 전정과 농정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서로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과세를 공정하게 하면서도 농업생산량을 최대로 올릴 수 있는 종합경제정책이었다.

전정과 농정의 분리, 농정 중에서도 특히 농법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하여 전정의 틀과 연결지으려는 서유구와 같은 시도는 그 이전에 없었던 듯하다. 전정의 결부법과 그에 연결된 양전법에 대해 많은 이들이 제도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파생한다고 인식했다. 반면 결부법을 경묘법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이들은 소수였다. 서유구는 결부법의 폐단을 혁파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지만, 여기서 머물지 않고 새로운 토지제도의 도입이 농업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려 했다는 점에서 여느 농정가와 달랐다. 전정은 전정대로, 농정은 농정대로 분리하여 생각했던 대부분의 경제가와 달리 서유구는 이 둘을 종합적으로 연결시켰던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의상경제책』은 경제라는 전정 영역의 개념을 확장하여 농법을 다루는 농정 영역까지 종합적으로 아우른 구상이었다.

서유구는 고대의 이상적인 경제가로서 구전법을 전한 이윤伊尹이나, 1묘에 3승을 더 수확하는 농법을 가르친 이희李愷나, 건종법을 창안했다는 후직이나, 건종법을 정비했다는 조과趙過 같은 인물들을 꼽았다. 서유구는 이들이 정전제도의 전묘田畝 조성법에 의거하여 농업기술을 보급했다고 믿었다. 그리고 제도화된 정전제의 구획법과 농법(건종법)의 유제가 서유구 당시 청나라의 요동 지역에 남아 있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서유구가 보기에, 이와는 대조적으로 조선은 중국의 농법을 배우는 데 소홀한 결과 골에 작물을 재배하는 고대의 농법이 당시 거의 남아 있지 않았고, 기존 농법만 추수하던 농민은 그 고대의 선진적 방법을 도입하려 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은 갈수록 가난해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게 된 서유구는 어쩌면 스스로 후직이나 이회 같은 역할을 자처하려 했는지도 모른다. 젊은 시절부터 농학에 대한 소양을 키웠던 그는 귀농기를 계기로 조선에서 가장 방대한 농서를 저술했으며, 제2사환기에는 그의 농학적 소신을 정책에 반영하려 하기도 했다. 비록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그는 견종법을 보급함으로써 국부가 창출되고 민생이 안정되는 세상을 꿈꾸었다. 이렇게 서유구는 견종법이라는 농법을 제도화하고 농법의 성공으로 왕도정치를 실현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침체해가는 조선 사회의 부흥을 꾀하고자 했던 것이다.

제2부. 『의상경계책』 역주와 해설

제2부에서는 이제까지 논의했던 내용의 원전인 『의상경계책』 전문을 역주한 뒤 해설한다. 역주의 대본臺本은 서유구의 문집인 <<풍석전집楓石全集>> 중 『금화지비집金華知非集』에 상·하 2권으로 실려 있는(권11~12) 유일본이다. <<풍석전집>>은 『풍석고협집楓石鼓篋集』 6권과 『금화지비집』 1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대 중앙도서관 소장본이 유일본이다.¹⁾ <<풍석전집>>은 일찍이 영인된 뒤²⁾ 표점을 추가하여 <<한국문집총간>>(제288책)으로 재 영인되었으며³⁾ 그 원문은 한국고전번역원의 웹사이트인 ‘한국고전종합DB’에서 제공된다. 필자의 역주 작업은 ‘한국고전종합DB’의 원문을 그대로 옮겨옴으로써 시작되었다.⁴⁾ <<풍석전집>>은 서유구 사후 30년 뒤(1875년 이후)에 편성되었다는 추측은 이미 밝힌 바와 같다.⁵⁾

논문이 대상으로 하는 사료를 역주하는 작업은 우선 사료 전체를 완역해 낸다는 데 의의가 있다. 완역이 됨으로써 이 논문에서 다루는 논의의 근거를 명확히 제공하고, 후속 연구의 발판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역주문을 쓰는 또 다른 의의는 본 논문에서 다 다루지 못한 내용을 논문의 저자가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이와 동시에 독자로 하여금 논문의 내용을 원전의 전체 틀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할 것이다.

제1~3장에 실은 『의상경계책』 역주는 교감本校勘本과 함께 제공된다. 교감은

1) 도서번호는 3436-4-1~8.

2) 徐有渠, <<楓石全集>>, 保景文化社, 1983.

3) 民族文化推進會 編, <<韓國文集叢刊>> 288, 民族文化推進會, 2002. <<韓國文集叢刊>> 288에는 윤행임(尹行恁, 1762~1801)의 『碩齋稿』 Ⅱ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의상경계책』의 또 다른 영인본으로는 『행포지』·『중저보』와 함께 수록된 『農書』 36, 亞細亞文化社, 1986, 261~429쪽이 있다.

4) 원문 25,000여 자를 일일이 입력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과 공력이 소요된다. 이 과정을 생각 하고서 쉽게 원문을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한국고전번역원의 원문 서비스 덕분이었다. 지면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원문을 쓰기 전에 나는 조창록 선생이 『의상경계책』을 입력하고 초역한 선행 작업물을 제공받았다. 학위논문 주제를 선택하게 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이 작업물에는 조 선생의 많은 학적 노고가 들어가 있었다. 조 선생의 호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역주는 조창록 선생의 작업에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필자의 독자적인 번역의 결과이며, 따라서 오역과 잘못된 필자의 책임임을 밝힌다.

5) 이에 대해서는 제1부 3.1절 참조.

이본異本이나 인용문헌 등과 대조함으로써 필사 과정에서 생긴 오류를 바로 잡아 필자가 이해하는 원문을 확정하는 행위이다. 『의상경계책』은 유일본이기 때문에 이본과 대조하는 대교對校 과정은 생략되었고 대신 저술에 활용된 서유구 자신의 『행포지』와 『본리지』, 그리고 서유구가 인용한 다른 서적과 비교하는 타교他校를 주로 활용했다. 그 결과 『의상경계책』의 오류 글자를 상당 수 수정할 수 있었다. 중국에는 ‘교감학’이라는 학문 분과가 있을 정도로 교감 전통이 오래 되었고, 이 때문에 교감을 학술적 차원에서 접근한다. 번역은 차치하고 교감본을 작성하는 작업만으로도 학술 업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의상경계책』 역주 작업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진행되었다.

<원문 가공 방침>

1. 원문은 유일본이어서 사본 대조 과정은 없지만, 인용한 문장의 원 출전과 대조하여 교감본을 작성했다.
2. 원문의 표점은 중국의 25사 표점 방식을 채택하되, 마침표, 쉼표, 물음표, 느낌표, 쌍점(:), 쌍반점(;), 큰따옴표, 작은따옴표, 가운데점(·) 등 총 9가지를 사용했다. 번역문이 함께 제공되었으므로 서명, 인물, 지명 등의 기호는 생략했다.
3. 원문은 필사본 원문 체제를 따라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단, 원문에서는 존경의 표현으로 왕이나 국가와 관련된 표현 앞에서 한 칸을 띄어 쓰고 있는데, 이 띄어쓰기 방식을 존중하여 빈 칸에 네모 기호(□)를 넣었다. 당시 띄어쓰기도 의미 전달의 한 수단이라는 판단에서이다. 이전 번역서에서는 이 띄어쓰기를 거의 무시했다.
4. 원문의 주석에 들어가는 요소는 용어 및 문구 해설, 난해한 한자 풀이 등이다.
5. 교감사항에 대해서는 주를 달아 대교에 참고한 서적을 제시했으며, 다른 서적과의 대조 없이 문의文意 상 필사오류로 보이는 글자에 대해서도 가급적 역주자가 판단한 근거를 제시하며 수정했다.
6. 가급적 짧은 호흡을 유지하기 위해 원문에 없는 단락을 나누었고 각 단락에 번호를 부여했다.

<역주문 가공 방침>

1. 번역은 직역을 기본 방침으로 하되, 어색한 한글 투로 옮겨질 것 같은 부분은 의역을 하기도 했다. 아울러 필요에 따라 보충 역어를 괄호 표기 없이 첨가하기도 했다. 또한 긴 문장에 대해서는 원문의 리듬과는 별도로 번역문을 짧게 매듭지으려 했다.
2. 원문에는 체제 분류나 본문에 대한 번호가 없으나 가독성과 글의 체계 파악을 위해 역주자가 번호를 부여했다.
3. 번역문의 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원문에 없는 간단한 제목을 달기도 했다. 이 제목 앞에 부여한 번호는 제1~3장의 절 및 소절에 부여한 번호와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도록 했다.
3. 역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주석을 달고, 대신 역주자의 가설을 제시하려 했다.
4. 번역문에 확신이 없는 곳은 밑줄을 그어 독자가 참고하도록 했다.
5. 번역문에서는 가급적 한자 병기를 피했다. 오른쪽에 원문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6. 번역어는 가급적 쉬운 단어를 쓰려 했다.
7. 역주에서는 서유구가 언급한 말의 출처를 가급적 제공하려 했다.

<해설문 방침>

1. 역주에 이은 해설은 각 강이나 목을 단위로 첨부했다.
2. 역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각 목의 내용을 정리했다.
3. 정리 내용 중에 보다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서는 관련 배경 지식과 현대의 연구 결과와의 차이 등을 설명하려 했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둔 『의상경계책』 역주는 ‘연구 번역’을 목표로 한다. 연구 번역은 원문의 현대적 가공 단계부터 역주자가 간여하여 번역의 전 과정(자료 정리→교감과 표점 작업을 통한 정본화→이를 토대로 한 번역→번역문 이해를 돕기 위한 역주→참고문헌 정리→해제 및 논문)에서 이전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학술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연구를 통해 규명할 수 있는 한계를 가급적 정확히 밝히고 뒷날의 보완을 기다리고자 했다. 번역 연구 결과를 논문의 일부로 포함시킴으로써 번역이 단지 타인의 글을 옮기는 단순 기술행위가 아니라, 논문 못지않게 중요한 학술 연구의 한 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려 한다.

<의상경제책 역주문 차례>

의상경제책 상

0. 도입부

1. 토지제도에서 서둘러 개혁해야 할 두 가지

1.1. 결부법을 경묘법으로 고친다

1.1.1. 팔폐(八弊, 결부법의 8가지 폐단)

- 1.1.1.1. 제1폐: 이름이 바르지 않다
- 1.1.1.2. 제2폐: 본말이 전도되었다
- 1.1.1.3. 제3폐: 척도의 기준이 일정하지 않다
- 1.1.1.4. 제4폐: 서리의 횡포 제어가 불가하다
- 1.1.1.5. 제5폐: 복잡한 계산법으로 양전이 재해가 되었다
- 1.1.1.6. 제6폐: 품등 책정의 기준이 없다
- 1.1.1.7. 제7폐: 품등 조정에 보수적이다
- 1.1.1.8. 제8폐: 법조문이 어렵다
- 1.1.1.9. 폐단의 결과와 그 대안인 경묘법

1.1.2. 오의(五議, 결부법을 지지하는 5가지 주장)

- 1.1.2.1. 제1의: 주나라 제도를 본받았다
- 1.1.2.2. 제2의: 천여 년 이어온 불후의 제도이다
- 1.1.2.3. 제3의: 조선에서 정착한 법이 되었다
- 1.1.2.4. 제4의: 비용 소모와 백성의 동요가 크다
- 1.1.2.5. 제5의: 지방관과 아전에게 은혜를 베푸는 차원이다

1.1.3. 제안

1.2. 척과 보를 바꾸어 옛 제도를 따른다

2. 양전법에서 서둘러 강구해야 할 세 가지

2.1. 방전법을 써서 은닉한 땅을 찾아낸다

2.2. 농지 계산법을 나눠주어 미리 연습하도록 한다

- 2.2.1. 예제 15개
- 2.2.2. 예제의 응용
- 2.3. 전담 기관을 설치하여 근무 태도를 평가한다

의상경계책 하

- 3. 농정에서 서둘러 시행해야 할 여섯 가지
 - 3.1. 북극고도(위도) 측정으로 정확한 때를 알려준다
 - 3.2. 농법을 가르쳐 땅심을 다 쓴다
 - 3.3. 좋은 종자 구입하여 재해에 대비한다
 - 3.4. 수리를 진흥시켜 가뭄과 장마에 대비한다
 - 3.4.1. 3무無와 1유有
 - 3.4.1.1. 제1무: 도랑과 하천(소통이 없음)
 - 3.4.1.2. 제2무: 방죽과 제방(물막이 시설이 없음)
 - 3.4.1.3. 제3무: 수문과 수차(양 조절이 없음)
 - 3.4.1.4. 제1유: 저수지(저장 시설은 있음)
 - 3.4.2. 피해의 영향
 - 3.4.3. 대책
 - 3.5. 번전을 금지하여 명과 실을 밝힌다
 - 3.6. 둔전을 넓혀 부국을 만든다
 - 3.6.1. 둔전 시행의 필요성
 - 3.6.2. 서울 주변 둔전 네 곳
 - 3.6.2.1. 동둔東屯
 - 3.6.2.2. 서둔西屯
 - 3.6.2.3. 남둔南屯
 - 3.6.2.4. 북둔北屯
 - 3.6.3. 둔전의 운영 및 보급
 - 3.6.4. 초기 비용 마련 방안
 - 3.6.5. 농우 구입 및 농부 모집 방안
 - 3.6.6. 지방 둔전 운영 방안

3.6.7. 내지 둔전론을 제기한 이유

3.6.8. 국경 둔전

3.6.8.1. 국경 읍과 진영의 필요성

3.6.8.2. 국경의 읍과 진영 설치 방안 : 둔전 활용

3.6.9. 국경 개척의 10리(利, 이익)

3.6.9.1. 제1리: 이민족에게 국경을 잠식당할 우려 종식

3.6.9.2. 제2리: 국경지대의 병농일치로 방비의 폐단 제거

3.6.9.3. 제3리: 내지 군사 시설 폐지로 경비 절감

3.6.9.4. 제4리: 평안도 요충지 강변 7읍의 식량 비축

3.6.9.5. 제5리: 견종법 시행 용이

3.6.9.6. 제6리: 4군郡에서의 풍년 기대

3.6.9.7. 제7리: 수로가 곧 견고한 요새

3.6.9.8. 제8리: 유출되던 목재 풍부하게 확보

3.6.9.9. 제9리: 양 목축과 양잠으로 생산물 공급

3.6.9.10. 제10리: 정전제 시행의 최적지 확보

3.6.10. 도서 지역 둔전

3.6.11. 둔전은 부국의 근본

제1장. 『의상경제책』의 전정론 1(토지제도)

: 『의상경제책』 상권

1.1. 서유구 도입부 및 제1강 ‘토지제도에서 서둘러 개혁해야 할 두 가지’

1.1.1. 서유구 도입부

0.1. 엮드려 아뢰옵건대, 정사를 집행할 때 널리 자문을 구하는 일은 어진 임금의 아름다운 모범이요, 때를 만나 좋은 계책을 올리는 일은 뜻있는 선비의 반짝거리는 욕망입니다. 제가 초야에 엮드려 살면서 아침저녁으로 하는 것은 논밭 일이고, 듣고 보는 것은 밭 갈고 씨 뿌리고 재배하는 일인지라, 생각은 논밭의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논밭의 근심거리가 천하의 일에 앞서기도 합니다.

伏以臨事博詢,明王之懿範,逢時獻猷,志士之顯欲.臣踰伏草野,所朝夕者田父耘夫也,所耳目者耕播樹藝也.思不出乎畎畝,憂或先於天下.

0.2. 저는 우리 동국의 토지제도에서 서둘러 개혁해야 할 사안이 2가지요, 양전법에서 서둘러 강구해야 할 사안이 3가지요, 농정에서 서둘러 시행해야 할 사안이 6가지라고 생각합니다.⁶⁾

竊以爲我東田制之亟宜更張者二,量法之亟宜講磨者三,農政之亟宜訓勵者六.

0.3. 마음에 둔 말은 날로 많아지지만, 전하께서 계신 곳에 바칠 길은 없습니다. 최근에 듣자하니 신료들이 전하께 주청을 드리자 양전을 시행하라는 하명을 하셨습니다.⁷⁾ 지금 말씀드리지 않으면 저의 말조차도 전하께 전달되지 않을 듯

6) 이와 같이 토지제도, 양전법, 농정 등으로 나누어 언급된 11항목을 ‘3강綱 11목目’이라고 명명한다.

7) 『순조실록』에는 순조 19(1819) 12/10, 양남(호남·영남)에 양전령을 내린 것으로 기록되었다. 『備邊司謄錄』에는 동년 12/12에 나온다. 순조 20년(1820) 6월, 양전 시행을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영의정 서용보의 하차로 전국 양전은 시들해지다가 결국 취소되었다.(金容燮, 『韓國近代農業史研究』 I, 지식산업사, 2004, 335~336쪽) 서용보의 하차가 실제로 양전 준비 상황에 얼마나

합니다. 이에 급히 제 소견에 조목을 나누고 경계책의 한 방도를 지어서 목록제
제한 뒤 옮겨 적어 전하의 숭고한 뜻을 모독하게 되었습니다.

胸中之言日多,天門之獻無階.近者伏聞臣僚上言,量田有命.今而不言,言亦無及,輒敢條
其說,爲經界策一道,齋沐繕寫,干瀆□⁸⁾崇嚴.

0.4. 전하는 말에 “미친 이의 말에서도 어진 임금께서는 고르신다.”고 합니다. 오
로지 전하께서 저의 참람함을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저의 어리석음을 잘 살펴 주
소서. 신은 죽어 마땅한 죄를 지어 떨리는 마음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傳曰:“狂夫之言,明主擇焉.”惟□殿下寬其僭⁹⁾而察其愚焉.臣無任隕越戰恐之至.

영향을 주었는지 모르겠으나, 순조 20년(1820) 양전 실무 지침서인 「양전사목量田事目」을 작성
하여 순조에게 보고하는 등(『순조실록』 20년(1820) 3/27) 양전에 의욕적이었던 경상감사 김이
재(金履載, 1767~1847)가 사직 상소를 올리고(8월 4일), 이어 전라감사 이서구(李書九,
1754~1825)가 잦은 흉년으로 인해 진전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양전을 연기하자는 건의를 받아
들여(8월 2일) 결국 양남의 양전 시행령을 철회했다.(『비변사등록』, 순조 20년(1820) 8/24; 『순
조실록』 20년(1820) 8/25.) 그러므로 이 글은 순조 20년 상반기 몇 개 월 사이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8) □: 이 네모 기호가 있는 곳의 원문은 한 글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비어 있음을 의미한다.
필자는 왕이나 왕실과 관련된 표현 앞에서 한 칸을 비우는 조선 지식인들의 글쓰기 방식을 남겨
놓기 위해 네모 기호를 표기해두었다. 이하 동일.

9) 僭: 『金華知非集』 (僭-先+文).

<도입부 해설>

정조 14년(1790)에 관직 활동을 시작한 서유구는 16년 간 내·외직을 거쳐 순조 6년(1806) 1월 홍문관 부제학(정3품)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김달순 옥사에 작은 아버지 서형수가 연루되자, 사직 상소를 올리고서 한양 주변에서 잠시 머물다 묘향인 경기도 장단으로 낙향했다. 이후 장단의 여러 곳을 전전하면서 농사를 짓고 임진강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이어갔고, 동시에 농서 및 <<임원경제지>> 등을 저술하고 있었다. 첫 단락(0.1)의 두 번째 문장은 당시(순조 20년) 15년째 귀농 생활을 하면서 농학 연구에 심취해있던 서유구의 관심사를 요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의 말은 한 촌로의 겸양의 표현이 아니라 당시 그의 생활과 관심사를 있는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의상경제책』 전체가 논밭의 일에서 출발하고 논밭의 근심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조선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그는 『의상경제책』을 쓰게 된 동기를 말한다. 양전을 시행하라는 순조의 명령을 계기로 ‘경제책’을 썼다고 하면서, 이 시점이 아니면 자신의 생각이 왕에게 전달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지었다고 했다. 서유구는 순조의 양전 시행령과 자신의 ‘논밭의 근심거리’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기에 서둘러서 왕에게 건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을까. 얼핏 보기에 양전은 국가 행정의 일환이고 논밭의 근심거리인 농사는 백성의 생계의 일환이라, 큰 연관이 없을 것 같다. 농지 넓이를 재는 전정田政은 농민이 간여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에 비해 농사는 지방 수령도 함부로 아는 체 할 수 없는 농부만의 고유 영역이었다. 비록 수령이 권농을 통해 농사에 적지 않게 간여하기는 하지만 농작업의 세부 노동 행위로 들어가면 깊숙이 간여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이다.

만 16년 간(1790~1806)의 중앙 관직과 지방 수령(순창군수, 의주부윤, 여주목사)의 경험이 있던 서유구는 귀농기 15년 차(1806~1820)가 될 무렵 작은아버지 서형수를 사면하려는 움직임과 더불어 자신이 곧 정계에 복귀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던 차였다. 그리고 <<임원경제지>>를 저술하면서 그간 농촌 및 농업에 최고의 전문적인 소양을 쌓아가고 있었다. 이런 그가 전정과 농사를 연계시켜 국가 경제를 개선해보려는 건의를 시도한 것이다.

1.1.2. 제1목 ‘결부법을 경묘법으로 고치기’

1.1. 결부법을 경묘법으로 고친다

1.1.1. 토지제도에서 서둘러 개혁해야 할 사안이 2가지인데, 그 중 하나는 결부법結負法을 경묘법頃畝法으로 고치는 일입니다.

田制之亟宜更張者二,一曰‘改結負爲頃畝法’:

1.1.2. 제가 듣기로 예부터 토지제도는 반드시 경묘로 제정한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길이를 잴 때 푼과 치 단위가 있고, 양을 잴 때 되와 약龡¹⁰⁾ 단위가 있고, 건물의 규모를 따질 때 채나 칸으로 해야 하고, 옷감을 재단할 때 자나 폭으로 재는 일과 같은데, 2천 여 년 동안 사방 3만 리 안에 사는 사람치고 이를 어긴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臣聞自古制田,必以頃畝.猶度之有分寸,量之有升龡,數屋之必而楹架,裁衣之必以尺幅,上下二千年,縱橫三萬里,莫之有違者也.

1.1.3. 그런데 우리 동국에서는 일마다 중화를 본뜨면서도, 오로지 토지제도에서 만든 고려 말의 천박한 풍습을 답습하였습니다. 지금의 ‘결·부·파·속’이란 역대 고금으로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없는 말입니다.¹¹⁾

我東事事模擬中華,而獨於田制,因襲麗季之陋.今所謂結·負·把·束者,古今歷代之所未聞,寰宇八埏之所未有.

1.1.4.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당시의 양전법은 농지를 6등분하였는데, 등급마다 치수가 달랐습니다. 1등전의 측량자[量尺] 길이 1척은 주척으로 4.775척이고, 2등전의 측량자는 주척으로 5.179척, 3등전의 측량자는 주척으로 5.703척, 4등전의 측량자는 주척으로 6.434척, 5등전의 측량자는 주척으로 7.55척, 6등전의 측량자는 주척으로 9.55척입니다. 또 측량자로 1척¹²⁾은 1파이고, 10파는

10) 약龡 : 반홉 또는 1/10홉.

11) 유형원 이후로 결부법의 문제를 서유구처럼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 논의는 정약용의 『경세유표』를 제외하고 거의 찾기가 어렵다.

12) 1척 : 가로와 세로가 각각 1척인 넓이. 즉 1척².

1속, 10속은 1부, 100부는 1결입니다.¹³⁾ 1등전은 1결이 중국의 38묘이고, 2등전은 44묘 7분, 3등전은 54묘 2분, 4등전은 69묘, 5등전은 95묘, 6등전은 152묘입니다.¹⁴⁾ 이는 국초에 고려의 옛 제도를 토대로 증감한 것입니다.¹⁵⁾

其法:田分六等,等各異尺.一等田量尺之長,準周尺四尺七寸七分¹⁶⁾五釐;二等田量尺,準周尺五尺一寸七分九釐;三等田量尺,準周尺五尺七寸三釐;四等田量尺,準周尺六尺四寸三分四釐;五等田量尺,準周尺七尺五寸五分;六等田量尺,準周尺九尺五寸五分.量尺一尺爲把,十把爲束,十束爲負,百負爲結.一等田一結,準中國三十八畝;二等田一結,準四十四畝七分;三等田一結,準五十四畝二分;四等田一結,準六十九畝;五等田一結,準九十五畝;六等田一結,準一百五十二畝.此□國初因高麗舊制,而增損者也.

1.1.1. 팔폐(八弊, 결부법의 8가지 폐단)

1.1.5. 저는 일찍이 우리 동국의 결부법을 중국의 경묘법과 비교·정리하다가 그 득실을 연구했는데, 결부법의 폐단으로 대략 8가지를 들어보았습니다.

臣嘗以我東之結法,較繫乎中國之頃法,而究觀其得失,則結法之弊,繫舉之有八.

1.1.1.1. 제1폐: 이름이 바르지 않다

1.1.6. 무릇 경묘법은 땅의 경계로 나눈 네모난 모양의 넓이요, 결부법은 세금제도로 조정한 세금의 양입니다. 토지제도를 마련한다면서 땅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쓰지 않는다면, 옷을 재단하면서 자를 버리거나 건물 규모를 따지면서 채나 칸으로 하지 않는 일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夫頃畝者,經界之方面也;結負者,租稅之劑量也.制田而捨方面,何異裁衣而捨尺寸,數屋而不以楹架哉?

1.1.7. 중국의 경묘법은 먼저 경계의 사방 넓이를 일정하게 하고 그 뒤에 땅의 비옥도를 살펴 그 땅의 세금을 올리거나 내립니다. 따라서 농지를 기준으로 삼았

13) 이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척²=1파², 10파²=10척²=1속², 10속²=100척²=1부², 100부²=1,0000척²=100척×100척=1결².

14) 『杏菴志』 卷1 「田制」(『農書』 36, 亞細亞文化社, 1986, 37~39쪽); 『임원경제지 본리지』 1, 56쪽. 본래 이 부분은 『經國大典』 卷2 「戶典」 「量田」에 나온다.

15) 이 단락은 『반계수록』과 내용이 비슷하다. 특히 마지막 문장은 『반계수록』을 거의 그대로 옮긴 내용이다. 『礪溪隨錄』 卷1 「田制 上」 「分田定稅節目」; 『임원경제지 본리지』 1, 50쪽.

16) 七分: 『金華知非集』 없음.

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결부법은 먼저 세금의 양을 정하고 그 뒤에 땅의 비옥도를 살펴 그 땅의 경계를 늘리거나 줄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¹⁷⁾

中國之頃法,先齊經界之方面,而視土沃瘠,上下其租稅.是以田地爲主者也.我□國之結法,先定租稅之劑量,而視土肥确,展縮其經界.是以租稅爲主也.

1.1.8. 농지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경·頃·묘·畝·부·夫·정·井¹⁸⁾은 모두 농지라는 의미이고, 세금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결·부·파·속은 모두 세금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뜻을 보면, 법을 만든 본뜻을 알 수 있습니다.

以田地爲主,故頃畝夫井皆以田地爲義;以租稅爲主,故結負把束皆以租稅爲名.觀其命名之義,而制法之本意可見矣.

1.1.9. 저는 옛 성왕들께서 토지를 경영하실 때 농지를 나눠 주고 재산을 규제하시는¹⁹⁾ 까닭이, 하늘의 일을 대신하여 백성을 먹여 살리려는 것인지, 아니면 세금 수입을 유리하게 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한 분을 섬기게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臣未知古昔聖王所以經理土地分田制產者,將以代天工而粒蒸民耶?抑將利其貢賦之入而以天下奉一人耶?

1.1.10.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바르게 따라가지 않고, 말이 바르게 따라가지 않으면 일이 되지 않는다.”²⁰⁾ 우리나라의 결부라는 이름은 진실로 이웃나라에서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첫째 폐단입니다.

孔子曰:“名不正則言不順,言不順則事不成.”我□國結負之名,誠不可使聞於鄰國:其弊一也.

17) 이 단락은 유형원의 표현과 비슷하다. 『碕溪隨錄』 卷1 「田制 上」 ‘分田定稅節目’; 『임원경제지본리지』 1, 51쪽.

18) 경·頃·묘·畝·부·夫·정·井: 6척=1보步(또는 5척=1보), 100보=1묘(또는 240보=1묘), 100묘=1경, 3경=1부, 3부=1정.

19) 『孟子』 「滕文公 上」 3에 “分田制祿”이란 표현이 나온다.

20) “名不正則言不順,言不順則事不成.事不成則禮樂不興.禮樂不興則刑罰不中,刑罰不中則民無所措手足.” 『論語』 「子路」 3.

1.1.1.2. 제2페: 본말이 전도되었다

1.1.11. ‘체體’가 선 뒤 ‘용用’이 행해지고²¹⁾, 근본이 정해진 뒤 말단이 거행되는 일은, 이 세상의 보편적인 뜻이요, 변하지 않는 몇몇한 도리입니다. 농지는 ‘체’이자 근본이요, 세금은 ‘용’이자 말단입니다. ‘체’를 바르게 세워 ‘용’을 조절하면 버리가 들려지고 그물코가 펼쳐져 ‘용’(쓰임)이 바로 그 안에 있게 됩니다. 반면 말단을 따르고 근본을 버리면 본령이 문란해져서 아무리 조사하려 해도 방도가 없게 됩니다.

體立以后用行,本定而后末舉,宇宙之通義,不易之常經也.田地體也本也,租稅用也末也.正其體而制其用,則綱舉目張而用在其中;徇其末而遺其本,則本領已紊而考稽無方.

1.1.12. 그러므로 중국의 경묘법은 땅의 넓이가 바르기 때문에 농지에는 탈루의 폐단이 없고, 고르지 않은 과세도 훨씬 살필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결부법은 땅의 넓이가 고르지 않기 때문에 농지에는 탈루의 폐단이 있고, 쉽게 밝힐 수 있는 과세조차도 종종 가측 없는 털²²⁾ 풀이 됩니다. 경묘법과 결부법의 이해 득실의 현격함이 어찌 천리만큼만 멀겠습니까? 이것이 둘째 폐단입니다.²³⁾

是以中國之頃畝,地面既正,田無漏脫之弊,而稅課之不齊者亦可以照察.我□國之結法,地面不齊,田有漏脫之弊,而稅課之易明者,往往作皮不存之毛²⁴⁾.其利害得失相懸,奚啻千里之遠哉?:其弊二也.

1.1.1.3. 제3페: 척도의 기준이 일정하지 않다

1.1.13. 지극한 한결같음이 아니면 천하의 어지러움을 통제할 수 없고, 지극한 가지런함이 아니면 천하의 들쭉날쭉함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대의 선왕께서 토지제도를 제정하실 때 반드시 먼저 척도를 바르게 한 뒤 쟁기 하나로 흙을 갈아엎어 생긴 밭두둑 규격을 너비 1척 깊이 1척으로 하였고,²⁵⁾ 1묘의

21) 이 구절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에 나온다. “是其一體一用,雖有動靜之殊,然必其體立而後用,有以行則其實亦非有兩事也.” 『中庸章句大全』上 ‘致中和天地位焉萬物育焉’의 주석.

22) 과세의 기준인 땅의 넓이가 다르기 때문에, 과세의 잘못을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말이다. 유사한 구절이 다음에서 확인된다. “皮之不存,毛將安傅?”(가죽이 없으면 털은 어디에 붙겠는가?) 『춘추좌전』 「僖公」 14.

23) 둘째 폐단의 주요 내용은 유형원의 표현과 비슷하다. 『磻溪隨錄』卷1 「田制 上」 ‘分田定稅節目’; 『임원경제지 본리지』 1, 51쪽.

24) 皮不存之毛: <<叢刊>>에 몇 군데 보인다.

너비에는 고랑 셋 두둑 셋으로 하셨으며, 6척을 1보步로 하고 100보를 1묘로 하셨습니다.

非至一不能御天下之不一,非至齊不能制天下之不齊.故先王之制田也,必先正其尺度,然後一畝之代²⁶⁾廣尺深尺,一畝之廣三畎三伐,而六尺爲步,百步爲畝.

1.1.14. 척법은 과법(科法, 그루 사이의 거리를 정하는 법)과 기준을 같이 하고, 경법(耕法, 밭갈이법)은 보법步法과 기준을 같이 하고, 보법은 묘법畝法과 기준을 같이 합니다. 들판 농지의 넓이는 주척의 도수로 갖춰져서 법이 이처럼 간단하고 한결같았습니다.

尺法與科法相準,耕法與步法相準,步法與畝法相準.田野地面已具周尺度數,爲法之簡易畫一,乃如是矣.

1.1.15. 여기에서 묘를 100배 하여 경頃이 되고, 경을 9배 하여 정井이 되고, 정을 4배 하여 읍邑이 되고, 이어서 4정井²⁷⁾이 전甸이 되고, 4전이 현縣이 되고, 4현이 도都가 되고, 4도가 동同이 되기에 이르기까지²⁸⁾ 모두 이 척도를 쓰니, 사해의 사방과 구주의 관할 구역의 문서를 한 번 펼치면 일목요연합니다. 이는 참으로 척도가 바르게 되어 나눈 수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²⁹⁾

25) 『周禮』「考工記」『匠人』에 나온다. “爲溝洫,耜廣五寸,二耜爲耦,一耦之伐,廣尺深尺謂之畎.” 『農政全書』卷4 「田制」『玄扈先生井田攷』(徐光啓 撰, 石聲漢 校注, 『農政全書校注』, 上海古籍出版社, 1979, 95쪽)에서 재인용했다.

26) 一畝之代: 『周禮』·『農政全書』 一耦之伐. 번역은 『周禮』·『農政全書』에 의거함.

27) 井: ‘丘’의 오기로 보인다. 『周禮』, 『農政全書校注』 참조.

28) 이와 같은 토지구획은 『周禮』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야기한다. “經土地而井牧其田野.九夫爲井,四井爲邑,四邑爲丘,四丘爲甸,四甸爲縣,四縣爲都.以任地事而令貢賦.” 『周禮注疏』卷11 「地官司徒」『小司徒』.

29) 주척은 동同에 이르기까지, ‘척→보→묘→경→정→읍→구→전→현→도→동’이라는 행정구역을 정하는 기준 단위이자 농지 넓이를 재는 기준 단위인 것이다. 지금 미터법과 길이 차이가 있을 뿐 확장되는 방식은 동일하다. 다만 경묘법은 길이 단위(척, 보)와 넓이 단위(묘~동)가 혼재되어 있을 뿐이다(표1).

<표1> 기준 척도와 확장 척도의 구성

기본 단위	구성 단위	단위의 성격
척尺	10촌	길이 단위
보步	6척	
묘畝	100보 ²	넓이 단위
경頃	100묘 ²	
정井	9경 ²	

於是焉,百其畝而爲頃,九其頃而爲井³⁰⁾,四其井而爲邑,以至於四井之甸·四甸之縣·四縣之都·四都之同,皆此尺此度,而四海之廣袤·九州之提封,一展籍而瞭然乎心目.誠以尺度正而分數明故也.

1.1.16. 우리나라 결부법에 척도가 없지는 않지만, 여섯 등급에 대한 양전척이 균일하지 않아, 거의 작은 풀줄기와 큰 기둥의 차이³¹⁾만큼이나 커서, 등급에 따라 척 수가 달라 통일된 기준이 없이 제멋대로인 것입니다. 같은 들판에 있으면서도, 동쪽 두렁에 있는 1결의 실제 넓이가 서쪽 두렁에 있는 1결의 몇 배가 되기도 하고, 북쪽 두렁에 있는 1결의 실제 넓이가 남쪽 두렁에 있는 밭에 비해 겨우 반을 넘기기도 합니다.³²⁾

我國結法非無尺度,而六等量尺之不齊,殆若莛之與楹,隨等異量,漫無統紀.同在一坪之內,而東阡³³⁾一結之實積或倍蓰於西阡,北陌一結之實積或強半於南陌.

1.1.17. 그러므로 삼남지방(경상·전라·충청도)의 농지 결수가 서북지방(관서·관북, 즉 평안·함경도)보다 4배나 많은 이유는 넓이가 서북지방보다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양서지방(해서·관서, 즉 황해·평안도)의 농지 결수가 동북지방(관동·관북, 즉 강원·함경도)보다 배나 많은 이유는 동북지방보다 넓이가 넓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어떻게 양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故三南之田結四倍於西北,非幅員³⁴⁾之大於西北也;兩西之田結一倍於東北,非延袤³⁵⁾之

읍	4정 ²	
구	4읍 ²	
진	4구 ²	
현	4진 ²	
도	4현 ²	
동	4도 ²	

30) 서유구가 『본리지』에서 고증해낸 주척의 길이를 23.1cm로 대입하여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묘=6척×600척=23.1cm×6(가로)×23.1cm×6×100(세로)=1.386cm×138.60cm=3600척²×0.231²cm²=58.4평.

1경=100묘=138.6m×138.6m=1,9209.96m²=5840평,

1정=9경=415.8m×415.8m=17,2889.64=5,2560평.

31) 작은~차이: 아주 큰 차이의 비유적 표현. 『莊子集釋』 卷1下 「齊物論」 第2, 中華書局, 69~70쪽.

32) 앞의 세 단락(1.1.13~14, 16)은 『행포지』와 이를 수록한 『본리지』의 구절과 거의 같다. 『杏菴志』 卷1 「田制」(『農書』 36, 33~34쪽); 『임원경제지 본리지』 1, 95~96쪽.

33) '阡'은 남북 방향으로, '陌'은 동서 방향으로 난 논밭의 두렁길이다.

34) 幅員: 너비와 둘레, 곧 강역의 넓이.

35) 延袤: 길이와 너비, 곧 넓이.

廣於東北也.如此則安用量地爲哉?

1.1.18. 옛날 송나라 신하 소순蘇洵³⁶⁾은 동쪽 집과 서쪽 이웃의 잣대가 다르다 하여, 당시의 법이 분명치 않다면서 크게 탄식했습니다.³⁷⁾ 더욱이 몇몇한 나라에서 땅을 분할하여 토지제도를 제정하는 잣대를 이처럼 들쭉날쭉한 수로 만든다면, 속이고 숨기고 현혹하고 무모한 것이 익숙해지는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소순에게 이것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것이 셋째 폐단입니다.

昔宋臣蘇洵,以東家西鄰之異尺,深致慨于當時法禁之不明也.況以堂堂國家均地制田之尺,而爲此參差不齊之數,以啓其欺隱眩冒之習.使蘇洵見此,以爲如何也?:其弊三也.

1.1.1.4. 제4폐: 서리의 횡포 제어가 불가하다

1.1.19. 6등급을 재는 양전척의 길이는 본래 참조한 곳도 없이 고려[勝國]의 손가락 기준자[計指尺]³⁸⁾를 그대로 따른 데 불과하면서도, 주척의 도수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각 등급의 양전척의 길이를 꼭 ‘주척으로 몇척 몇촌 몇리이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머리가 가지런하지 않은 수’라는 것입니다.³⁹⁾

六等量尺之長短,本無斟酌量,不過因勝國計指尺,而紐準周尺之度.故各等量尺之長,必曰周尺幾尺幾寸幾釐,此即所謂不齊頭之數也.

1.1.20. 그러니 이런 수로 가감승제 하는 법은, 비록 장부에 쓰인 숫자 계산에 익숙한 노련한 서리라도 반드시 산가지를 들고 이리저리 계산한 뒤에야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잠시 머물다 가는 고을 수령들은 말해 뭐하겠습니까? 또 아무 것도 모르는 농부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서리의 손에 모두 맡기

36) 소순(蘇洵, 1009~1066):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 그의 아들 소식蘇軾과 소철蘇轍을 각각 대소大蘇·소소小蘇라 하고, 그를 노소老蘇라 하여, 삼부자를 삼소三蘇라 했다.

37) 원 출전을 찾지 못함.

38) “고려의 토지측량법은 농부의 손가락을 척도로 삼았는데, 검지와 중지를 붙인 이지二指로 10번을 재서 상전척上田尺으로 삼고, 이지로 5번 재고, 또 검지와 중지와 무명지를 붙인 삼지三指로 5번을 재서 중전척中田尺으로 삼고, 삼지로 10번을 재서 이를 하전척下田尺으로 삼았다. 거칠고 무법함이 이 지경이었던 것이다. 高麗量田之法,用農夫手指爲度:二指 計十,爲上等田尺;二指計五,三指計五,爲中等田尺;三指計十,爲下等田尺.其鹵莽無法,乃至於此矣.” 『杏菴志』 卷1 「田制」(『農書』 36, 34쪽); 『임원경제지 본리지』 1, 96쪽. 『임원경제지 본리지』 1의 번역문을 일부 수정함.

39)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 1등전 양전척이 주척으로 4.775척인 것처럼, 소수 셋째자리까지 유효숫자로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한 말이다. 이 문장은 『행포지』와 『본리지』에 나온다. 『杏菴志』 卷1 「田制」(『農書』 36, 35쪽); 『임원경제지 본리지』 1, 97쪽.

게 되는 것입니다.

其乘除加減之法,雖老吏之嫻於文數者,必待握籌布算而後知之.況於一時官司乎?又況於蚩蚩之佃氓乎?其勢不得不一付諸胥吏之手.

1.1.21. 제각각인 자를 들고 알기 어려운 수치를 계산해야 하는데, 제멋대로 농간 부리는 서리들에게 그 권한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의 농간을 면밀히 살필 수 있는 수령은 아무도 없고, 이들의 잘못에 대해 항변할 수 있는 백성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뇌물이 성행하고 여기저기서 땅을 숨겨주는데도, 나라에서는 눈 뜨고 앉아 잃은 개간지가 어느 정도인지 그 끝을 모르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夫執不齊之器,叩難明之數,寄其權于舞文弄法之吏,而官莫能察其奸,民莫能訟其誤.無怪乎賄賂滋章,隱冒狼藉,而國家之坐失墾田,不知其紀極也.

1.1.22. 대전의 법에 “양전 때 1결 이상을 은닉한 자는 곤장 100대에 유배 3천리 형을 내리고, 수령은 해임하여 5년 동안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니,⁴⁰⁾ 법과 율령이 엄중하다 할 만합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면 제 몸을 아끼기 마련인데도, 도리어 위법을 저지르려 하며, 양전을 한 번 했다 하면 폐단의 반복이 여전하니, 그 까닭을 알만합니다.

大典之法“量田隱冒者,一結以上杖一百流三千里,守令罷其職,五年不原”,法可謂嚴矣,律可謂重矣.人皆愛身,寧欲干憲,而一經量田,弊復如前,其故可知矣.

1.1.23. 예를 들어 이제 온갖 보물이 여기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를 눈금도 없는 저울을 쥐어 주면서 이익을 독점하려는 자에게 맡기고, 귀와 눈이 모두 먼 자에게 자유롭게 앉아서 그들을 감시하게 한다면, 비록 날마다 때려가며 값을 깎아 주지 말라고 해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양전이 이와 다를 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넷째 폐단입니다.

今有百寶於此,操無星之秤,付龍斷之手,而使鬻且瞽者坐肆而監之,雖日撻而求其不折閱,不可得矣.我國量田,何以異此?:其弊四也.

40) 『경국대전』에는 없고 『속대전續大典』에 다음의 내용으로 나온다. “改量時,監官等以起爲陳·以陳爲起·田形失實·循私落漏·用意妄冒者,每一負答一十至杖一百而止.通計滿一結者杖一百流三千里.(중략) 前守令罷職者經五年乃敘.” 『大典通編』 卷2 「戶典」 ‘量田’(『大典通編』 上, 200~201쪽).

1.1.1.5. 제5폐: 복잡한 계산법으로 재해가 된 양전

1.1.24. 효종 4년(1653)⁴¹⁾에 옛 제도가 세금을 등급에 따라 매기는 데에만 중점을 두었을 뿐, 농지에 동일한 자를 사용하는 데에는 중점을 두지 않았다고 여겨 결부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등전의 자로 6등전까지 모두 재기는 했습니다.⁴²⁾ 하지만 1등전에서는 1결로, 2등전에서는 85부 1파로, 3등전에서는 70부 1속 1파⁴³⁾로, 4등전에서는 55부 7파⁴⁴⁾로, 5등전에서는 40부로, 6등전에서는 25부로 정했습니다.⁴⁵⁾ 그렇다면 척도는 같아졌으나 땅의 경계가 늘거나 줄어든 현

41) 효종 4년에 반포한 『遵守冊』(또는 『전제상정소준수조획田制詳定所遵守條畫』)에 나온 기록을 이야기하고 있다. “효종 기사(1653, 효종 4)에 구제舊制의 등급에 따라 척수를 달리한 법을 혁파하고, 주척周尺의 4척 7촌 7푼 5리를 가지고 양척量尺으로 정하고, 등급의 높낮이는 논할 것 없이 통틀어 해부(解負, 결부結負를 계산하는 일)하여, 전田의 1척을 파把로, 10파를 속束으로, 10속을 부負로, 100부를 1결結로 하고, 계산하여 10,000척이 되는 전지에 대하여 1등전은 1결, 2등전은 85부, 3등전은 70부, 4등전은 55부, 5등전은 40부, 6등전은 25부로 정하여, 전품田品の 차등에 따라서 수세收稅케 하였다.” 『萬機要覽』 「財用編」 2 ‘田結-量田法’

“옛날에는 전지 제도가 상품·중품·하품으로만 구분되어 있었고 측량하는 자 역시 3등급에 따라 각기 달랐다. 팔도八道の 토질이 일정하지 못해 등수를 3단계로만 해서는 될 수 없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서로의 등차가 정밀하지 못했었다. 그리하여 이제 다시 더 자세한 방법으로 전지를 6등급으로 나누고 결법結法도 다시 정하기로 한 것이다. 즉 주척周尺으로 해서 4척 7촌 7푼 5리를 양척量尺 단위로 하고, 단위 곱하기 1만 척을 일정 면적으로 하여 1등급인 경우 1결結을 파세하고, 2등급은 85부負 1파把, 3등급은 70부 1속束 1파, 4등급은 55부 7파, 5등급은 40부, 6등급은 25부로 한다.” 『국조보감』 제38권 「효종조 2」 ‘4년(기사, 1653)’.

42) 1등전의 기준적인 주척 4.775척을 측량자 1척으로 삼아 넓이 1만 척을 잴다.

43) 70부 1속 1파 : 『임원경제지 본리지』 70부 1속. ‘임원경제지 본리지’는 소와당 출판사본 원문을 가리킨다. 이후는 『본』으로 축약하기로 한다.

44) 55부 7파: 『본』 55부.

45) 본문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2> 효종 때 개정한 결부법의 6등급 농지의 결수환산

토지등급	결부법	결수환산	계산식	넓이환산
1등전	1결	1.0000결	38묘÷38묘	3686.86평
2등전	85부1파	0.8501결	38묘÷44.7묘	4336.97평
3등전	70부1속1파	0.7011결	38묘÷54.2묘	5258.68평
4등전	55부7파	0.5507결	38묘÷69묘	7363.41평
5등전	40부	0.4000결	38묘÷95묘	9217.15평
6등전	25부	0.2500결	38묘÷152묘	1,4747.44평

서유구는 주척 1척의 정확한 길이를 고증하기 위해 중국과 조선의 척도 변천사를 깊게 연구하여 실물 크기를 찾아냈다. 그 길이는 『임원경제지 본리지』에 수록되었는데, 오늘날 고증한 주척 1척과 거의 같다. 여기서는 오늘날 고증한 결과인 주척 1척을 23.1cm로 환산하기로 한다. 1등급의 넓이를 평 단위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상은 예나 다름 없었습니다.⁴⁶⁾

孝廟四年,以舊制之但主租稅同科,不主田地同尺,更定結法.以一等田尺通量六等田面,而一等爲一結,二等爲八十五負一把,三等爲七十負一束一把,四等爲五十五⁴⁷⁾負七把,五等爲四十負,六等爲二十五負,則尺度雖同,而經界之展縮,猶之舊也.

1.1.25. 등급이 내려가면서 결부의 수가 점차 줄어드는 방법은 반드시 사율비례 四率比例⁴⁸⁾로 추산해야 합니다. 이에 산술가에는 결부를 풀이하는 조목을 따로 두었으나 이 방법을 서둘게라도 쓸 수 있는 서리는 수십 개 읍에서 겨우 한둘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수십 개의 읍에서 양전할 때는 반드시 이 한두 사람의 손에만 의존해야 합니다만, 덧셈 뺄셈을 계산하다가 누에의 실처럼 엉키기라도 하면 산가지 하나의 실수로 실제 농지의 어긋남은 1000척이나 되어 허송세월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⁴⁹⁾

其遞減結負之法,必用四率比例推之.於是乎算術家別有解結負之目,而胥吏之粗解其法者,數十邑幸得一二焉.此數十邑之量田必藉此一二人乎手,而紐計加減,紛若蠶絲,一籌之錯,地差千尺,其勢不得不曠日費月.

1.1.26. 백성은 양전에 필요한 물품을 대라고 독촉당하면서 온갖 마음을 번다하게 소모하여 서리나 아전이 지나간 곳에는 닭과 개가 남아있지 않기에, 양전 명령이 들리기라도 하면 백성 또한 두려워하며 이를 재해로 여겼을 뿐이었습니다. 이 이유를 따져보면, 황당무계한 결부법에 연결되어 여기저기서 복잡하게 얽혔다가 결국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섯째 폐단입니다.

※ 1등급 넓이 = $(4.775\text{척} \times 23.1\text{cm} \times 100\text{척})^2 = 1,2166,6415.062\text{cm}^2 = 1,2166.6415062\text{m}^2 = 3686.86106248\text{평}$.

이 식은 $1\text{결}^2 = 100\text{부}^2 = 1,0000\text{척}^2$ (주 13번 참조)이라는 식을 이용했다.

46) 기준적만 달라졌을 뿐 6등급의 넓이 비율은 예전과 같다는 말이다. 여기까지는 『임원경제지 본리지』 1, 57쪽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다. 『杏菴志』 卷1 「田制」(『農書』 36, 37~39쪽).

47) 十五 : 『의상경계책』 十. 『행』, 『본』에 의거하여 수정.

48) 사율비례: 향이 네 개인 비례식. 사율비례는 현대 수학에서 'a : b = c : d'의 식으로 쓰는 비례식에 대한 전통시대의 명칭이다.

49) 사율비례를 이용하여 해부解負하는 방법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3등전의 어느 농지를 양전했더니 넓이가 30부(즉 0.3결)로 측량이 되었다면 이 30부의 농지는 1등전 양전적 기준으로 몇 결일까”라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자. 이때 사율비례를 사용하면 $1.0000(\text{결}) : 0.7011(\text{결}) = x(\text{결}) : 0.3000(\text{결})$ 이라는 식을 만들 수 있다. 여기서 x를 구하면 $0.4278990\cdots$ 이 나오는데, 소수 5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 0.4279가 된다. 따라서 30부의 농지는 0.4279결이 된다.

供億追呼⁵⁰⁾,煩費百端,吏卒所過,雞犬一空⁵¹⁾,一聞量田之令,民且狼顧⁵²⁾以爲厲己也.原其由,祇坐結法之悠謬⁵³⁾,轉輾紛紜,遂至于此耳:其弊五也.

1.1.1.6. 제6페: 품등 책정의 기준이 없다

1.1.27. 흙을 분별하는 방법은 정해진 규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례』에 나오는 5종의 토지[五地]와 12종의 토양[十二壤]을 분별하는 법⁵⁴⁾이나, 『관자』에 나오는 5종의 토지[五施]나 30종의 토지[三十物]를 분별하는 법⁵⁵⁾도 개략적인 내용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실제로는 검은 토양이 정말 좋은 땅입니다만, 이런 땅에서도 작물 재배를 게을리 하는 자가 있습니다. 반면 모래밭이나 돌밭이 정말 척박한 땅입니다만, 이런 땅에서도 이삭 수확을 민첩하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辨壤之法不可典要⁵⁶⁾.周官之五地十二壤·管子之五施三十物,亦存其槩略耳.其實則黑壤之地信美矣,而或有懶於扇苗者;沙确之地信薄矣,而或有捷於穎粟⁵⁷⁾者.

1.1.28. 그러므로 농가에서 흙을 살피는 법은 흙을 파서 단지 잔지 맛보거나, 흙을 저울에 달아 무게를 비교하거나 하는 등 다각적으로 비교·검토하면서 다년간의 확인을 거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행여 잘못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합니다. 故農家相土之法,或剗土嘗其甜鹹,或秤土較其輕重,多方比絮,歷年嘗試,而瞿瞿乎猶恐失之也.

1.1.29. 하물며 평소에 보습이나 쟁기도 모르는 농땡이에게 논두렁 밭두렁을 돌아다니면서 잠깐 사이에 땅의 등급을 판별하게 하면서도, 품등의 차례가 텅 끝

50) 供億: 수요에 따라 공급하다. 또는 그 물건; 追呼: 서리들이 집집마다 다니며 독촉하는 일.

51) 다음의 글에 이런 표현이 나온다. 『宋名臣奏議』卷110 「財賦門」 「新法」 2.

52) 狼顧: 이리는 달려갈 때 항상 뒤를 돌아봄. 두려워하는 바가 있음의 비유.

53) 悠謬: ‘謬悠’에 ‘덩 비고 땀. 황당무계함의 비유’라는 뜻이 있다.

54) 이 내용은 『周禮注疏』卷10 「地官司徒」 第2 ‘大司徒’에 나오며, 『임원경제지 본리지』 1, 319~320, 323쪽에 자세히 실려 있다.

55) 『管子』卷19 「雜篇」 「地員」 第58; 『農政全書校注』卷1 「諸家雜論」 上, 上海古籍出版社, 1979, 6~11쪽; 『임원경제지 본리지』 1, 299~315쪽에 자세히 실려 있다.

56) 典要: 변치않을 준칙. 일정한 규칙.

57) 穎粟: 이삭과 쌀알. 이 용례는 『시경』 「대아大雅」 ‘생민生民’에 있다. “誕后稷之穡, 有相之道. 菲厥豐草, 種之黃茂. 實方實苞, 實種實褒. 實發實秀, 實堅實好. 實穎實栗, 即有郇家室.” 여기서 ‘實栗’은 ‘결실이 좋다.’는 뜻이다.

만큼도 어긋나지 않기를 바라는 데에서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는 마치 장대를 들고 바다로 가는 일⁵⁸⁾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況使平生不識耒耜之游手⁵⁹⁾,巡行阡陌,辨別腴瘠於指顧⁶⁰⁾之間,而欲其品第之不爽毫釐?不殆類於揭竿者之於海乎?

1.1.30. 중국의 경묘법은 농지 넓이가 표준화되어 있기에 오류를 알게 되면 곧장 개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결부법은 농지 넓이가 표준화되지 않았기에 비록 담당 관리에게 오류를 알게 하더라도, 단 1결만 바꾸면 1000결이 그에 따라서 밀려나게 됩니다. 따라서 도나 읍 전체에서 양전을 고치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⁶¹⁾

中國頃法,地面齊正,故一覺差謬,隨即改正;我□國結法,地面不齊,故雖使官司覺察其誤,一結改易,千結推退.苟非道邑改量,更不可措手.

1.1.31. 저 서리라는 자들도 수령이 자기들을 어찌 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등급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며, 농지 넓이를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니, 결부법에 기준이 없고 세금이 고르지 못한 것은 일의 추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일의 이치가 이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어서입니다. 이것이 여섯째 폐단입니다.

彼爲胥吏者亦知官司之莫如我何也.低仰展縮,恣意所欲,而結負之無紀,賦稅之不均,勢

58) 『莊子』卷8「雜篇 庚桑楚」第23(안동립 역, 『장자』, 569~570쪽)에 나온다.

59) 游手: 손을 놀림. 아무 일도 하지 않음.

60) 指顧: 한 번 가리키고 잠깐 보는 동안. 곧, 짧은 동안.

61) 당시 양전 행정에서는 농지를 차례로 양전하면서 경작지이건 묵은밭이건 가리지 않고 5결마다 천자문 글자로 농지의 순서를 표기해야 했다. 이 방식으로 양전을 하면 한 읍의 전지 전체에 천·지·현·황 등으로 순서가 매겨지게 된다. 그 결과 양전이 한 번 시행되면 5결마다 매겨진 농지의 순서는 다음 양전까지 고정될 것이다. 그런데 결부법 체제에서 5결로 확정된 농지 안에는 1~6 등급의 농지가 섞여 있어서 천자문 순서로 지정된 5결의 실제 넓이는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천자문 순서로 '천天'의 농지가 35,000평이고, '지地'의 농지가 50,000평이고, '현玄'의 농지가 20,000평이라고 가정해 보자. 이 중 '지'의 농지가 넓은 것으로 보아 등급이 낮은 척박한 곳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지' 농지 중 1/5인 1결로 양안에 등록된 농지의 주인이 양전 실무자인 서리에게 뇌물을 주고 1등급으로 판정할 만한 농지를 6등급으로 속여 기재를 하게 했다고 하자. 그리고 이 사실이 수령에게 탄로 나서 본래 대로 수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이 전주의 농지는 1결이 아니라 1등전의 4배인 4결이 되어야 한다. 이 여파로 이전에 5결이었던 '지' 농지는 8결이 되어, 5결을 초과했으므로 농지 순서를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만약 '지' 농지 이외의 농지의 전품이 변하지 않았다면, 5결마다 농지에 글자 번호를 표시해야 하는 법을 적용할 때 그 읍 전체의 농지 번호가 재조정되어야 하는 지경에 이른다. 이렇게 되면 한 읍 전체의 양안을 모두 수정해야 할 것이다.

所固然,理所必至:其弊六也.

1.1.1.7. 제7폐: 품등 조정에 보수적이다

1.1.32. 흙의 비옥도는 10년이 되면 변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거름으로 토성을 바꾸면서 갈고 썰레질 하여 부드럽게 만들면, 예전에 단단했던 흙이 지금은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밭을 간다면서 영성하게 갈고 김을 맨다면서 대충 맨다면, 예전에 아주 기름졌던 흙이 지금은 너무나 척박해집니다. 이런 결과는 대개 농부들이 얼마나 바지런히 힘쓰느냐에 달려 있고, 얼마나 바지런히 힘쓰느냐는 농부들을 얼마나 잘 통솔하여 감독과 평가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⁶²⁾

土之肥确未有十年不變者.淤蔭以化之,(耒+耨)⁶³⁾耨以揉之,則昔之強槩⁶⁴⁾,今焉上腴;耕而鹵莽,耘而滅裂,則昔之膏厚,今焉窳薄.蓋惟在乎人力勤惰,而人力之勤惰又在乎董率督課之如何耳.

1.1.33. 진정 그렇지 않다면 『주례』에 어떻게 흙을 바꾸는 법⁶⁵⁾이 있겠으며, 『상서』 「우공」에 어떻게 “13년 수리사업을 해야 다른 곳의 땅과 같아진다.”는 글⁶⁶⁾이 있겠습니까? 태공이 제나라 땅에 분봉되고서 척박한 땅에 곡식을 파종하게 되었고, 정국거鄭國渠와 백거白渠가 수리사업을 이뤄내자 관중 지역에 흉년이 없

62) 『경국대전』 이래로 조선의 법전에는 20년마다 개량改量하도록 한 규정이 바뀐 적은 없었다. 그러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었다. 20년 주기로 개량하라는 규정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게 마련이다. 농지의 지목이 바뀐다거나 토질이 변하는 등 농지에서의 변화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적어도 20년 주기로 그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서유구 입장에서 흙의 변화는 적어도 10년마다 조사해야 할 정도로 심했다. 본래 비옥한 땅도 농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척박해지고, 척박하던 땅도 거름을 풍부히 투입하고 밭갈이와 썰레질 등으로 흙을 부드럽게 충분히 삶으면 다시 비옥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 입장에서는 부지런히 농지 관리에 힘써야 하고, 국가 입장에서는 농번기에 국가 권력을 동원해 노동력을 빼앗지 않고 농사에 몰두할 여건을 만들어 주고, 부지런히 농사에 신경 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격려하고 감독해야 한다. 또 진전이 개간된 곳도 있고, 개간지가 진전이 된 곳도 있다. 홍수로 농지가 쓸려나가 없어진 곳도 있고, 이 없어진 흙이 퇴적되어 새로운 농지가 형성되기도 했다. 농지의 이런 다양한 변화는 양전이 시행되지 않음에 따라 양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토품 또한 변하지 않은 채로 1백 년 이상 이어졌다.

63) (耒+耨): 『의상경계책』 (耒+耨).

64) ‘強槩’의 용례는 다음의 내용에 보인다. “凡糞種,駢剛用牛,赤緹用羊,填壤用藥,渴澤用鹿,鹹澇用貍,勃壤用狐,植墟用豕,疆藥用蕘,輕農用犬.” 『周禮注疏』 卷16 「地官」 ‘草人’.

65) 草人이 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草人掌土化之濃,以物地相其宜而爲之種.” 『周禮注疏』 卷16 「地官司徒」 ‘草人’.

66) “厥田惟中下,厥賦貞傳貞,作十有三載乃同.” 『尚書注疏』 卷5 「禹貢」.

어졌습니다.⁶⁷⁾ 저들은 도대체 어떤 기술을 부렸단 말입니까?

苟非然者,周禮何以有土化之法?禹貢何以有作“十有三載乃同”之文也?太公封而斥鹵播嘉穀,鄭·白成而關中無饑年.⁶⁸⁾彼誠何術哉?

1.1.34. 그러므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거진 숲을 곡간이나 노적가리를 쌓을 곳으로 만들고, 물고기나 자라 소굴을 논밭으로 만든다. 이것이 지도자가 마음 쓰는 일이다.” 설령 들판 들판 들쭉날쭉 하여 갈아먹지 못할 땅이 있어도, 갖가지로 권장하고 도와주어 쓸모없는 곳을 쓸모있는 곳으로 바꾸는 방법을 생각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미 개간해 놓은 땅을 버리고 실체가 아닌 이름을 사칭하면서도 아까워하는 이가 없다니요!

故曰:“叢林之下爲倉庾之坻⁶⁹⁾,魚鼈之窟爲耕稼之場者,君長之所用心也.”縱有歷落⁷⁰⁾不食之地,猶當多般勸相,思所以變無用爲有用.尙可以拋既墾之地·冒非實之名,而莫之惜乎!

1.1.35. 지금은 하등급 농지가 나라 전체에서 거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태평세월 100년 간 흙에서는 이익을 농치지 않아서 척박한 흙을 기름진 흙으로 바꾼 넓이를 어찌 이루 다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일단 토지 대장에 기재되던 끝끝내 고치지 않았고, 이 가운데 2/3의 땅이 하등급으로 굳어 버렸습니다. 사람을 굳어 버리게 하는 일도 안 되는데, 하물며 땅을 굳힐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일곱째 폐단입니다.

今下等之田,幾占通國三分之二矣.昇平百年,土無遺利,瘠變爲腴,何可勝計?而一載圖籍,終古不改,是將三分二之地,錮之于下等也.錮人且不可,況可以錮地也乎?:其弊七也.

1.1.1.8. 제8폐: 법조문이 어렵다

1.1.36. 옛 사람이 법을 만들 때는 반드시 간단명료함을 중요하게 여겼으니, 이는 어리석은 아녀자나 어린아이라도 시행할 법조문을 훤히 알게 하는 것이었습

67) 『齊民要術校釋』, 15~16쪽, 주32, 33 참조.

68) “仲長子曰:‘叢林之下爲倉庾之坻,魚鼈之窟爲耕稼之場者,此君長所用心也.是以太公封而斥鹵播嘉穀,鄭·白成而關中無饑年.蓋食魚鼈而戴澤之形可見,觀草木而肥壤之勢可知.’”『齊民要術』「齊民要術序」.

69) 坻: 『의상경계책』 坻.

70) 歷落: 드문드문하고 들쭉날쭉한 모양. ‘歷’은 드문드문하다는 뜻.

니다. 더욱이 농지를 경영하고 세금 바치는 일은 모두 농민[佃戶]에 기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법을 먼저 만들어 놓아서 농민이 아무도 그 자초지종을 이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古人制法,必貴明白簡易,使婦孺之愚曉然知設施之條例.況治田供稅,皆藉佃戶.而先爲此紛糾繳晦之法,使佃戶莫測其端倪,此何爲者也?

1.1.37. 그래서 민간에서 논밭의 넓이를 표시할 때 자기들끼리 통용되는 방법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 밭갈이 시간을 쓰기도 하고,⁷¹⁾ 파종하는 종자의 양을 쓰기도 했던 것입니다.⁷²⁾ 이렇게 공문서와 사계약서가 서로 판이하게 달라지자 사기와 허위가 온갖 군데에서 나와 소송이 날로 엄청 많아졌습니다. 경묘법에서 공사문서를 통용하는 점에 견주면 결부법에서의 복잡함과 난이도는 과연 어떠하겠습니까?⁷³⁾ 이것이 여덟째 폐단입니다.

故民俗之記認⁷⁴⁾田段,不得不自創一法.或以耕犁之時日,或以播種之斗斛.公籍私契判作兩樣,而欺僞百出,訟獄日繁.其視頃畝法之公私通用,繁簡難易,果何如也?:其弊八也.

71) 예를 들면 하루갈이[一日耕], 이틀갈이[二日耕] 같은 표현을 일컫는다.

72) 예를 들면 한마지기[一斗落], 한섬지기[一石落] 같은 표현을 일컫는다.

73) 법과 현실의 괴리는 컸다. 민간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법과는 달리 민간에서 통용되는 방식을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었다. 지금까지도 농촌에서 쓰는 용어인 ‘마지기’가 그 대표적인 예다. 마지기의 한자어는 두락斗落으로, 법씨 1두(또는 1말)를 파종하여[落] 재배할 수 있는 논밭의 단위이다. 대체로 약 200평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지역마다 다르다. 기름진 농지와 토박한 농지 1마지기 넓이가 같을 수 없었다. 마지기보다 큰 단위로, ‘섬지기’도 있는데, ‘석락石落’의 우리 음이다. 종자 1석을 뿌려 재배할 수 있는 농지의 넓이다. 그보다 작은 단위로, ‘되지기’는 1승(1되)을 뿌릴 수 있는 넓이다. 이렇게 파종하는 종자의 양을 기준으로 농지 넓이를 재는 방식은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된 용어이다.

한편 작업량을 기준으로 헤아리는 방법도 있다. ‘하루갈이’는 소로 밭을 갈 때 하루 정도 걸리는 넓이를 말하는데, 한자로는 ‘일일경一日耕’이라 한다. 밭에서만 사용된다. 이 용어는 지금은 거의 사라져 쓰지 않는 말이라, 해당 넓이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데 보통 1500~2000평 정도를 가리킨다고 한다. 또 잠깐이면 갈 넓이를 한참갈이[一息耕]라 하고, 낮 동안의 반을 갈 넓이를 한나절갈이[半日耕]라 한다. 이 역시 객관적 기준을 갖는다고보다는 주관적이거나 어렵으로 셈하는 전통의 표현이다. 갈아야 할 흙이 부드러우면 더 많이 갈고, 그렇지 않으면 더 적게 간다. 밭갈이 소의 힘이 좋으면 더 많이 갈고, 그렇지 않으면 더 적게 간다. 소를 부리는 농부가 소를 잘 부리면 더 많이 갈고, 그렇지 않으면 더 적게 간다.

민간에서 쓰는 넓이에 대한 용어가 이렇게 다양했지만, 그렇다고 정부에서 결부라는 공식 용어를 쓰도록 강제하지 않았다. 실제로 정부의 공식문서에서도 하루갈이니, 마지기니 하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쓰기도 했다(예를 들어 하루갈이[一日耕]를 언급하는 기사로 다음을 참조. 『태종실록』 13년(1413) 1/7, 11/26; 『선조실록』 31년(1598) 2/4).

74) 記認: 기억하여 알; 표지, 기호.

1.1.1.9. 폐단의 결과와 그 대안인 경묘법

1.1.38. 이 8가지 폐단이 되풀이되고 서로 원인이 되어, 우리 동국의 토지제도는 결국 물어볼 것도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삼가 조사해보니, 선조 임진년(1592, 임진왜란 발발) 이전의 전국 개간지는 총 151,4000여 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조 기축년(1769)의 전국 개간지는 겨우 80,0800여 결이었으니⁷⁵⁾, 전후 몇 백 년 사이에 은닉으로 잃어버린 땅만 무려 71,4000여 결이나 됩니다.⁷⁶⁾

是八弊者,反復相因,而我東之田制,遂不可問矣.臣謹稽□宣廟壬辰以前八道墾田,總百五十一萬四千餘結.及至□英宗己丑,八道墾田,堇八十萬八百餘結.前後數百年之間,失之隱冒者爲七十一萬四千餘結矣.

1.1.39. 만약 품등 지정이 정밀하지 못하여 고질의 농지를 저질의 농지로 지목하거나, 측정이 잘못되어 넓은 농지가 좁은 농지로 바뀌었다면, 이 80만 결 외에 또 몇 십만 결을 잃어버린 셈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농지는 과연 얼마이었습니

75) 『朝鮮田制考』에 수록된 표에 따르면, 이 해의 출세出稅 실결수實結數는 803,885결이다. 中樞院調查課 編, 『朝鮮田制考』, 朝鮮總督府中樞院, 1940.

76) 이 같은 서유구의 분석은 다소 문제가 있다. 임난 이전의 151만 결이 모두 개간지라기보다는 이를 포함한 원장부元帳付 결수로 보아야 한다. 원장부 결수는 각종의 면세결免稅結과 유래진잡탈(流來陳雜頭, 여러 해 동안의 재해로 토지대장에 면세대상지로 기록된 진전. ‘잡탈雜頭’은 국역國役과 같은 국가적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경우 공식적인 면제사유 이외의 다양한 이유를 들어 의무에서 면제된다는 뜻이다. 시기결時起結의 총합이다. 이 중 실제 수세 대상은 시기결로서 당해연도 실 경작지를 의미한다. 그러나 시기결이라 해서 모두 수세를 하지는 않았다. 농사를 지었으나 자연재해로 실농한 결수를 제외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해로 인한 실농지 넓이를 급재결給災結이라 한다. 요컨대 임난 이전의 결수에는 결총(총 결 수)만 기록되어 있을 뿐 결총의 세부 내역에 관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임진왜란 이전과 영조 대의 개간지 비교는 비교의 차원이 달라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임진왜란 이전 개간지 결수는 원장부결수이고, 영조 대의 경우는 출세 실결수이다. 임난 이전 출세 실결수를 원장부결수의 반이라는 추정을 적용한다면(李鎬澈, 『朝鮮前期農業經濟史』, 한길사, 1986, 261쪽 주 52번), 75,7000결이어서 오히려 영조 대보다 적을 수 있다. 한편 1776~1783년 사이의 급재면세결과 제반면세결이 각각 3.6퍼센트, 41.3퍼센트여서 시기결과 출세실결은 각각 원장부결수의 58.7퍼센트, 55.2퍼센트였다.(李鎬澈, 같은 책, 260쪽 주 52번) 하지만 서유구가 제시한 통계 수치에 문제가 있다 해도, 결부법의 폐해로 인한 시기결 수의 축소는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가 지적하려 한 점은 유래진잡탈 결수의 증가로 추측된다. 영조~순조시기에 결총에서 제반 면세결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 중 유래진잡탈 명목의 결수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다(부록 표1~8 참조. 中樞院調查課 編, 『朝鮮田制考』, 附錄 2~59쪽의 표). 이는 진전이 실제로 증가했기보다는 명목만 진전인 성격의 땅이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실제로는 기경전이지만 양안에는 진전으로 기재해두고서 관아나 아전이나 개인이 관청 비용으로 충당하거나 세금을 착복하려 했던 것이다. 이런 유의 농지는 일종의 은결에 해당된다. 서유구가 “은닉으로 잃어버린 땅만 무려 71,4000여 결”이라 한 말은 바로 이런 은결을 염두에 둔 표현일 것이다.

까?

或品第不精,指良爲薄,或紐量差爽,幻廣爲狹,則是八十萬結之外,又失幾十萬結矣.存者果幾何哉?

1.1.40. 국경에는 사소한 소란도 없었고, 나라 안에서는 지방을 점령하는 반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날마다 백 리씩 줄어드는도다.”라는 시인의 노래와 가까운 상황입니다. 아, 법의 폐단이 마침내 이 지경이 되다니요!⁷⁷⁾

四境無犬吠之警⁷⁸⁾,疆內無割據之僭,而詩人所謂日蹙百里⁷⁹⁾者,不幸近之.嗟乎!法之爲弊,一至此哉!

1.1.41. 제가 들은 바로는 “병을 잘 고치는 이는 반드시 병이 생긴 뿌리를 뽑고, 폐단을 잘 해결하는 이는 반드시 폐단이 발생한 근원을 살핀다.”⁸⁰⁾고 했습니다. 8가지 폐단이 발생한 근원이 과연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찌 농지 경계를 늘리거나 줄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겠습니까? 경계를 늘리거나 줄인 폐단을 바로 잡 고자 한다면 오로지 결부법을 경묘법으로 바꾸는 길 뿐입니다.

臣聞:“善治病者必醫其受病之根,善救弊者必尋其起弊之原.”八弊之起,其原安在?豈非以經界展縮之故歟?欲矯經界展縮之弊,惟有改結負爲頃畝而已.

1.1.42. 청이 있습니다. 주척 6척을 양전척 1척으로 하여 전국의 농지를 다시 양전해 주소서. 양전하는 법은 이렇습니다. 양전척으로 사방 1척(즉 1척²)이 1보(즉 1보²)이고, 주척으로는 36척(즉 36척²)입니다. 사방 100보(즉 100보²)가 1묘(즉 1묘²)이고, 주척으로는 3600척(즉 3600척²)입니다. 사방 100묘(즉 100묘²)가 1경(즉 1경²)이고, 주척으로는 36,0000척(즉 36,0000척²)입니다.⁸¹⁾

77) 임란과 호란을 겪은 뒤로 거의 200년이 되어 가는 평화기에, 개간지가 당연히 늘어야 함에도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이 현상이 바로 토지제도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것이 바로 서유구의 판단이다. 임진왜란 이후 인구증가율보다 개간지 증가율이 못 미쳤기 때문에 농민의 토지 소유는 ‘영세균등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개간지가 꾸준히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김건태, 『조선시대 양반가의 농업경영』, 471쪽). 그런데 총결이 그만큼 늘어나지 못한 것은 양안이 실제 농사 현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증한다.

78) 犬吠之警: 개가 짖는 정도의 경계. 대수롭지 않은 소란의 비유.

79) 昔先王受命有如召公曰辟國百里今也日蹙國百里. 『毛詩注疏』 卷25 「大雅」 「召旻」

80) 이 말은 구양수의 상소에 나온다. “其三日財用.臣又聞‘善治病者必醫其受病之處,善救弊者必尋其起弊之源’.今天下財用困乏,其弊安在?起於用兵而費大故也.” 宋 陳亮 編, 『歐陽文粹』 卷五 「書」 ‘準詔言事’; 『宋文選』 卷二 「歐陽永叔文」 ‘上皇帝封事書’ 등 참조.

臣請以周尺六尺爲量尺之長,改量八域之田.其法:量尺方一尺爲步,積周尺三十六尺;步百爲畝,積周尺三千六百尺;畝百爲頃,積周尺三十六萬尺.

1.1.43. 땅의 위치나 토질에 상관없이, 농지의 모양에 상관없이, 모두 양전척으로 1,0000척²이 1경인 것입니다. 모자라면 묘 단위로 계산하여 이웃 농지와 합쳐 1경을 만들고, 남아도 역시 묘 단위로 계산하여 이웃 농지로 합쳐 1경을 만들어 어린도책魚鱗圖冊⁸²⁾을 만듭니다.

不論地之坂隰鹵墾⁸³⁾,不論田之方圭句直⁸⁴⁾,皆以量尺萬尺爲一頃.不足者以畝計之,與鄰田合湊爲一頃,有餘者亦以畝計之,與鄰田合湊爲一頃,作爲魚鱗圖冊.

1.1.44. 10경마다 천자문 순서대로 한 글자 씩 표지합니다. 그러면 바둑판의 구획처럼 금을 그은 듯이 보기 쉽고, 의기(儀器, 천문관측기구)에 그어진 도수처럼 정연하여 문란하지 않습니다. 동서로도 이를 기준삼아 똑같이 하고, 남북으로도 이를 기준삼아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사방 10리인 한 마을에 농지가 몇 백 경인지 알 수 있고, 사방 100리인 한 읍에 농지가 몇 천 경인지 알 수 있습니다. 每十頃以千字文一字標之.其畫然而易見也如棋枰之有區,其井然而不紊也如儀象之有度.準諸東西而同,準諸南北而同.一鄉之地方十里則田之爲幾百頃者可知矣,一邑之地方百里則田之爲幾千頃者可知矣.

1.1.45. 우리나라는 남북 3천 리, 동서 2천 리로, 그 판도가 6천 리²⁸⁵⁾입니다.⁸⁶⁾

81) 만약 조선의 결부법을 기준으로 적용할 때 1등전의 경우 양전척 1척은 주척 4.775척이므로, 1경=100양전척×100양전척×4.775척×4.775척=22,8006.25척²이 된다. 또 6등전의 경우는 양전척 1척이 주척 9.55척이므로, 1경=100양전척×100양전척×9.55척×9.55척=91,2025척²이 된다. 1경은 1등전 1결보다는 넓고 6등전 1결보다는 적다. 주척 6척은 3등전(주척 5.703척)과 4등전(6.434척)의 중간에 해당하는 길이이므로, 1경의 넓이는 결부법의 3등전과 4등전 1결의 중간 넓이에 해당한다.

82) 어린도책魚鱗圖冊: 일종의 지적도로, 땀기가 나뉘어 이어진 농지 모양의 그림이 마치 물고기 비늘과 같다고 해서 붙여졌다. 이 지적도로 인해 농지의 실제 모양을 구분하기 쉬웠다. 양안에는 보통 농지의 넓이, 소유자, 위치, 전품 등이 기재되는데, 제2강인 양전법 강구론에서 나오듯이 방전方田으로 양전한 양안에는 이와 함께 해당 농지의 모양을 그려놓은 어린도가 함께 들어 있었다. 중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되었던 이 방식이 조선에서는 방전법을 시행한 숙종 27년(1701) 즈음 기간만 존재했다. 신완(申琬, 1646~1707)의 상소에서 “유집일의 구정양법丘井量法の 어린도책과 토지대장을 보니”(2.1.5)라는 내용이 바로 이 어린도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83) 坂隰鹵墾: 비탈진 곳, 습지, 소금기가 있는 곳, 진흙밭.

84) 方圭句直: 네모난 곳, 세모난 곳, 굽은 곳, 곧은 곳.

85) 오늘날의 표현으로는 (3천 리)×(2천 리) = 6백만 리². 1리=1경(이때 1경은 주척이 아니라 양

여기서 산·하천·습지·수로·도로·성곽·건물·거주지가 차지하는 1/2을 제외하면, 농지는 300만 경이 됩니다. 농지 경계를 바로 잡은 뒤에 농지를 9등급으로 나누고 수확량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눕니다. 이리하여 몇 년 동안의 결과를 비교한 뒤 세금의 총량을 정하면 됩니다. 이게 경묘법의 대략입니다.

我口國南北三千里·東西二千里,提封六千里.除山林·川澤·溝渠·徑塗·城郭·室廬,二分去一,爲田者當三百萬頃矣.經界既正,然後田分九等,年分三等,較數歲之中,定貢賦之入.此其大略也.

1.1.46. 만일 이렇게 시행했는데도 교활한 비리가 그치지 않고, 농지 은닉의 관행이 개혁되지 않고, 농지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세금 징수가 공정하게 되지 않고, 나라에 묵은 곡식이 쌓이지 않고, 백성에게 풍요로움의 행복이 없다면, 저는 기꺼이 도끼로 참수 당하여 땅언을 일삼은 자의 경계가 되겠습니다.⁸⁷⁾

如是而奸猾不戢,隱冒不革,田野不治,征斂不均,國無紅腐之蓄,民無富庶之樂,臣請伏斧鉞之誅,以爲妄言者之戒.

1.1.2. 오의(五議, 결부법을 지지하는 5가지 주장)

1.1.47.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결부법의 폐단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경묘법의 장점들도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함부로 바

전적 기준임)이라면 6백만 리²은 6백만 경²이 된다.

86) 서유구는 남북 3천리, 동서 2천리라고 조선의 넓이를 인식했다. 이는 정조의 인식과 같이 한다. “우리나라 사방 6천 리에 산도 있고 바다도 있어 산길로 수레 타고 요동遼東이나 심양瀋陽까지도 가고, 바닷길로 배 타고 중국이나 외국에도 갈 수 있다. 我國方六千里,被山帶海,山而車通於遼瀋,海而舟連於漢倭.” 正祖, 『弘齋全書』 卷9 「序引」 2 ‘道里摠攷序’(<<叢刊>> 262, 155쪽) 또 이종휘(1731~1797)의 경우도, 동서와 남북의 길이를 계산하여 동서 2500여 리, 남북 3100여 리로 도합 5700여 리이며 대체로 6천 리라고 할 만하다고 보기도 했다. “統而言之則東西廣爲二千五百二十八里.(중략)統而言之則南北袤爲三千一百七十九里,而我國廣袤合爲五千七百七里.舉大數則可以言六千里地方.” 李種徽, 『修山集』 卷14 「東國輿地雜記」 ‘朝鮮地方說’(<<叢刊>> 247, 584쪽). 한편 허목(1595~1682), 이서구(1754~1825), 정약용 등은 대개 남북 3천리, 동서 1천리로 인식했다. “朝鮮九域之地,在燕·齊外東,南西際大海,北連靺鞨.句麗末世,失玄菟·遼東地七百里,以涘水爲界.南北三千里,東西千里.” 許穆, 『記言』 卷35 外篇 「東事」 4 ‘地乘’(<<叢刊>> 98, 207쪽); “我國地方,東西千里,南北三千里.自白頭而至漢拏,則極度高低大相逕庭,節氣早晚必當差爽.” 李書九, 『楊齋集』 卷7 「對策」 ‘天文’(<<叢刊>> 270, 150쪽); “我邦東西千里,南北三千里,其間平原廣野,僅有數處,其餘皆礦穴之所在也.” 丁若鏞, <<與猶堂全書>> 第5集 政法集 第7卷 『經世遺表』 卷7 「地官修制」 “田制” 9 ‘井田議’ 1(<<叢刊>> 285, 139쪽). 한국고전종합DB 참조.

87) “도끼로 참수” 당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표현은 상소문 등에서 상투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경묘법의 효과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반영하는 말이다.

꾸지 못한 이유는 오의(5가지 주장)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의가 뒷받침 하기에 팔폐가 끝내 제거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⁸⁸⁾ 무엇을 오의라 합니까. 제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臣竊思結法之弊,夫人而知之矣,頃法之善,亦夫人而言之矣.然而迄于今不敢更張者,以五議格之也.五議枝梧,而八弊終不可去.何謂五議?臣請歷辨之.

1.1.2.1. 제1의: 주나라 제도를 본받았다

1.1.48. 첫째, 주나라 제도에서 “불역전(매년 농사짓는 농지)이면 1가(家)에 100묘를, 일역전(1년 휴경하는 농지)이면 1가에 200묘를, 재역전(2년 휴경하는 농지)이면 1가에 300묘를 준다.”고 했습니다.⁸⁹⁾ 대개 땅의 비옥도가 달라 곡식 수확량이 몇 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국 결부법에서 6개 등급에 넓이를 달리 함은 실로 그 뜻을 본받은 것이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其一曰:周制“不易之地,家百畝;一易之地,家二百畝;再易之地,家三百畝”.蓋以此之肥瘠不同,而生穀之數或相倍蓰也.我東結法之六等異量,實師其意,不可改也.

1.1.49. 저는 이 주장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역’은 1년을 묵힌다는 말입니다. ‘재역’은 2년을 묵힌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제도에 언제 묵힌밭[陳田]에 세금을 부과한 적이 있었으며, 주나라 법에서 역시 언제 1가구[夫]에 이미 개간

88) 결부법 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당대에도 많은 논자들의 분석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결부법 자체에 제도적인 문제가 없다는 견해는 군주를 중심으로 상존했다. 공법을 제정한 세종의 위업으로, 조정에서 300여 년 시행해온 역사를 부정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 예로 서유구의 정치적 스승이었던 정조가 결부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정조는 말년(1799년)에 규장각 직각直閣이었던 김근순(金近淳, 1772~?)과 『맹자』에 대해 문답한 적이 있다. 이 내용을 모아 그의 사후 『추서춘기鄒書春記』 2권이 간행되었다(정조, <<홍재전서>> 제178권 『일득록日得錄』 18 「훈어訓語」 5). 이 중에 김근순이 『맹자』 내용을 빌어 중국의 토지제도인 정전제와 한전제限田制를 언급하면서, 정전제는 중국에서도 시행이 어려운 제도임을 인정하고 차선책으로 한전제를 시행함이 어떤지 의견을 피력했다(정조, <<홍재전서>> 제121권 『추서춘기鄒書春記』 2 「진심편盡心篇」 ‘서백선양로장西伯善養老章’). 이때 정조는 조선 초부터 이어져온 결부법 제도의 내용과 그 변천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이야기했다. 역대 결부법을 정리한 정조는 “결부법은 금과옥조金科玉條로서 좋은 법, 아름다운 제도가 아닌 것이 없다.”라고 평가했다. 금과옥조라서 아름다운 제도이니 만큼, 제도의 실행 과정에서 제대로 된 인물만 얻는다면, 결부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서유구는 정조의 이 같은 인식과는 정 반대의 입장이었다. 그가 11목 중 제1목에서 주장한 핵심은 조선에 만연한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단 순히 형법 개선과 이의 철저한 시행이 아니라, 바로 전정의 토대인 토지제도의 개혁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개혁의 핵심은 들쭉날쭉했던 척도의 표준화였다.

89) “凡造都鄙,制其地域而封溝之,以其室數制之.不易之地家百畝,一易之地家二百畝,再易之地家三百畝.” 『周禮注疏』 卷10 ‘大司徒’.

한 농지를 두 배나 준 적이 있었습니까?⁹⁰⁾ 게다가 200묘니 300묘니 하는 말은 비옥도와는 무관하게 100묘를 만든 경계는 그대로입니다. 도대체 언제 우리나라 결부법에서 하듯이 경계를 늘였다 줄였다 한 적이 있었습니까?

臣以爲不然.一易云者,一年陳棄之謂也;再易云者,二年陳棄之謂也.我國之制,何嘗責稅於陳地;而成周之法,亦何嘗以既墾之田倍授於一夫乎?且曰‘二百畝·三百畝’云爾,則不論肥瘠,其爲百畝之經界則自如矣.曷嘗展縮經界如我國結法之爲乎?

1.1.2.2. 제2의: 천여 년 이어온 불후의 제도이다

1.1.50. 둘째, 결부법은 멀리 삼국시대부터 천여 년 간 내려온 불후의 제도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 주장도 고려할 가치가 없는 논의라 생각합니다.

其二曰:結負法,遠自三國,已成累千年不刊之典,今不可變易.臣以爲此又不考之論也.

1.1.51. 『고려사』를 살펴보면 태조가 담당 관리에게 말하기를, “태봉⁹¹⁾의 군주(곧 궁예)가 백성을 이용해 욕심을 채우려고 1경의 농지에 6석의 세금을 매겼다.”⁹²⁾고 했습니다. 또 「박영규전」에도 “태조께서 신검⁹³⁾을 평정하신 뒤 박영규⁹⁴⁾에게 토지 1000경을 주셨다.”⁹⁵⁾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부라는 명칭은 태조 이후에 생겼음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稽之高麗史,太祖諭有司曰:“泰封主以民從欲,一頃之田,租稅六碩.”又朴英規傳云:“太祖既平神劔,賜英規田千頃.”則結負之名,起於太祖以後,可推而知矣.

1.1.52. 고려 문종 23년(1069)에는 양전척의 1보의 치수와 여러 등급을 정하였는데, 땅의 넓이는 모두 같았으나 세금은 농지의 질에 따라 경중을 두었습니다.

90) 이미 개간한 농지는 매년 농사를 짓는 불역전을 가리킨다. 이 불역전은 주나라 제도에서도 100묘만 지급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91) 태봉(泰封, 901~918): 궁예弓裔가 송악(松嶽, 지금의 개성)에 세운 나라.

92) 『高麗史』「食貨志」‘田制’.

93) 신검(神劔, ?~?): 후백제의 제2대 왕(935~936 재위)으로 견훤甄萱의 아들.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시키고 왕위에 올랐으나 고려군과 싸워 패배하였다.

94) 박영규(朴英規, ?~?): 후백제의 장군으로 견훤의 사위. 신검이 반역하여 왕위에 오르자 고려와 내통하여 고려가 후 삼국을 통일하는 데 기여했다. 왕건은 박영규의 공을 높이 사 좌승左丞을 제수하고, 토지 1000경을 내려주었다.

95) 『高麗史』「列傳」‘諸臣 朴英規’.

그렇다면 땅에 따라 넓이를 달리 한 법은 문종 이후에 생겼음도 역시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⁹⁶⁾

高麗文宗二十三年,定量田步數諸等,地廣皆同,而賦稅隨地品有輕重之差.則地有展縮之法,冊於文宗以後,又可推而知矣.

1.1.53. 가령 결부법이 삼국시대에 시작되었다면 남해왕(4~24)과 유리왕(24~57)의 치세가 어떻게 주나라의 문왕·무왕·성왕·강왕의 치세⁹⁷⁾와 같겠습니까? 연개소문(?~665)과 김유신(595~673)의 나라 운영은 어찌 주공周公·소공召公 때 만든 제도⁹⁸⁾와 같겠습니까? 나라를 세웠으면 먼저 중화의 제도로 야만의 제도를 바꿔야 하는데⁹⁹⁾, 하물며 고려 말 쇠퇴기에서 나온 제도이겠습니까?

藉令肇自三國,南解·瑠璃之世,何如文·武·成·康之治?蓋蘇文·金庾信之經濟,何如周元聖·召康公之制作?有王者作,當先用夏變夷,況出於麗季衰世之法乎?

1.1.2.3. 제3의: 조선에서 정착한 법이 되었다

1.1.54. 셋째, 결부법이 비록 고려 말에 시작되었다고 해도, 우리 조선의 조종 이래 4백 여 년 동안 이를 따르고 바꾸지 않았으니 이제 조선에서 정착한 법이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지금 하루아침에 바꾸려 한다면, 이는 분란을 일으켜 바꾸는 일을 급암汲黯¹⁰⁰⁾이 탄식했던 부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其三曰:結法雖起於麗季,而我口祖宗以來四百餘年,因而不改,已作口本朝成憲.今欲一朝變易之,此汲黯所以歎息於紛更也.

1.1.55. 저는 이 또한 생각을 깊게 하지 못한 주장이라 여깁니다. 살펴보니 세종

96) 『磻溪隨錄』卷1 「田制」 上 ‘分田定稅節目’; 『임원경제지 본리지』 1, 53쪽.

97) 문왕·무왕·성왕·강왕: 주나라를 건국한 주 무왕을 전후한 왕들로 강왕까지가 왕권 확립기에 해당된다.

98) 주공周公·소공召公: 주나라 건국 초기에 성왕과 강왕을 도와 왕권을 확립한 이들로, 주공은 공자가 가장 본받고 싶어 했던 인물이다.

99) “나는 중화로 야만을 변화시켰다는 말은 들었으나, 중화가 야만에 의해 변화되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吾聞用夏變夷者,未聞變於夷者也.” 『맹자』 「등문공」 상.

100) 급암(汲黯, BC?~BC112): 한나라 무제武帝 때의 간신諫臣. 무제 때 주작도위主爵都尉가 되었고, 구경九卿의 한 사람이 되었다. 충간을 좋아하고 정쟁을 거침없이 제기했는데, 무제가 속으로 욕심이 많았지만 겉으로 인의仁義를 많이 베푼 것도 그의 힘이 컸다. 무제가 그를 두고 사직社稷을 지탱하는 신하라 칭송했다. 도가 사상에 충실한 정치를 주장하며 왕에게 간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회양태수淮陽太守를 마지막으로 은퇴했다. 급직(汲直, 급암의 강직함)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도를 걸었다고 한다. 조선에서도 그의 여러 고사가 매우 많이 인용되기도 했다.

25년(1443)에 왕께서 다음과 같이 하교하셨습니다.¹⁰¹⁾ “양전척[計指田尺]과 결·부·속·파가 옛날 제도에 의거하지 않았다. 자는 주척을 쓰고, 결부법은 경묘법으로 고쳐야 마땅하다.”¹⁰²⁾ 또 세종 27년(1445)¹⁰³⁾ 『양전사목』에서는, “자는 주척을 쓰고 25척²이 되는 넓이를 1보로 하고, 240보²을 1묘로, 100묘²을 1경으로, 5경을 1자字¹⁰⁴⁾로 한다.”¹⁰⁵⁾고 했습니다. 아, 훌륭하십니다! 성군께서 농지를 관리하고 토지 제도를 정하는 핵심을 꿰뚫어 보셔서 경묘법에 이토록 부지런히 애쓰셨으니, 이를 소중히 여기심이 이와 같았습니다.¹⁰⁶⁾

臣以爲此亦不思之甚者也。謹按□世宗二十五年□教曰：“計指田尺·結負把束，不依古法。宜尺用周尺，改結負作頃畝法。”二十七年量田事目曰：“尺用周尺，積二十五尺爲一步，二百四十步爲一畝，百畝爲一頃，五頃爲一字。”於休盛哉！□聖主所以洞見治地制田之要領，憺憺乎頃畝尺法，若是其鄭重。

1.1.56. 이때가 만세에 한 번 오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만, 풍속은 옛 관행에 익숙해져서 반대 주장이 개헌을 막았고, 찬란한 성왕의 계획이 역사책에 헛되이 실리는 데 그치도록 할 뿐이었습니다. 이 일이 옛 것을 고구하고 논의를 숭상하는 선비들이 긴 한숨으로 탄식하면서, 당시 세종을 보필하던 지위에 있던 신하들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게 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전하께서 결행하신다면, 선대의 뜻과 사업을 잇는 일은 여기에 더할 것이 없습니다. 선대의 유업을 계승하겠다는데, 어찌 이를 ‘분란을 일으켜 바꾸는 일’이라 한다는 말입니까?¹⁰⁷⁾ 此誠萬世一時之機會，而俗狃於故常，議格於更張，徒使煌煌□聖謨，虛載史冊。此考古尙論之士，所以咨嗟永歎，不能無慨於當日承佐之地者也。今我□殿下斷而行之，善繼善述，無以加此。堂構¹⁰⁸⁾云爾，何名紛更？

101) 이하 본 기사 끝부분까지의 내용이 『杏菴志』에서는 주註로 처리되었다.

102) 『세종실록』 25년(1443) 11/2.

103) 27년은 25년의 오기이다. 成海應, 『研經齋全集』 外集 卷42 「傳記類」 ‘食貨議[上編]’; 丁若鏞, <<與猶堂全書>> 第五集 政法集 第九卷 『經世遺表』 卷9 「地官修制」 “田制別考” — ‘結負考辨’ 등에도 모두 27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잘못 전승된 자료를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104) 1자字: 천자문의 한 글자로 표기한다.

105) 『세종실록』 25년(1443) 11/14.

106) 『杏菴志』 卷1 「田制」 (『農書』 36, 38쪽); 『임원경제지 본리지』 1, 55~56쪽.

107) 세종 당시에는 실제로 경기도 안산에서 새 제도의 시험을 위해 양전하기도 했었다(『세종실록』 25년(1443) 11/14). 그러나 관행으로 굳어진 결부법을 바꾸는 데 보수적이었던 ‘개헌반대론자’들의 강경한 태도에 밀려 세종의 의지도 꺾이고 말았다.

108) 堂構: 집터를 닦고 집을 지음. 조상의 유업을 계승함의 비유.

1.1.2.4. 제4의: 비용 소모와 백성의 동요가 크다

1.1.57. 넷째, 지금 결부법을 경묘법으로 바꾸려 한다면 반드시 나라 전체의 농지를 다시 양전해야 하고 따라서 돈이 들고 백성을 동요케 할 것이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¹⁰⁹⁾

其四曰:今欲變結負爲頃畝,必將舉一國之田而改量之,費財擾民,不可爲也.

1.1.58. 저는 이 주장도 옳은 듯하나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농지에 양안이 있음은 역시 백성에게 호적이 있음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지금 백성의 호적은 3년마다 바꾸면서 양안은 100년이 지나도 바꿀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자의 「경계장經界狀」¹¹⁰⁾에서는 진년·술년·축년·미년을 양안 바꾸는 해로 삼았습니다. 중국 농지는 3년마다 대장을 바꾸는데,¹¹¹⁾ 우리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바꿀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이 또한 옛 제도를 연구한 것이라 하겠습니까?

臣以爲此又似是而非者也.田之有籍亦猶民之有籍也.今民戶之籍,三年一改,而田籍則百年不敢改者何也?朱子經界狀,以辰戌丑未年爲改籍之式,中國之田三年一改籍,而我國則百年不敢改者又何也?亦嘗究其故乎?

1.1.59.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결’과 ‘부’가 점점 단위가 줄어드는 법¹¹²⁾은 조사하기가 쉽지 않기에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돈이 들고, 돈이 들기 때문에 백성이 동요할 것이다. 지금의 법으로 지금의 농지를 측량하려면, 비변사[籌司]에서 모집한 계산에 밝은 수십에서 백 여 명의 사람과 호조戶曹에서 지출을 유예하고 있는 비축금 수십 만 민緡이 없이는 안 된다.”

109) 이 주장이 아마도 현실적으로 가장 강력한 반대론이 아닐까 생각한다. 실제로 경묘법으로의 개정은 고사하고, 현행법으로 양전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논리가 번번이 그 실행을 가로막았다. 흥년으로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양전을 하면 백성의 동요가 커진다는 이유였다. 1820년 전라도 양전을 계획했을 때 전라감사 이서구가 올린 상소에서 전라도 양전을 늦추자는 논리의 핵심도 바로 이것이었다(『순조실록』 20년(1820) 8/2).

110) 朱子 撰, 『晦菴集』 卷19 「奏狀」 ‘條奏經界狀’; 王懋竑 撰, 『朱子年譜』 卷4.

111) 중국에서 실제로 3년마다 양안을 바꿨는지는 잘 모르겠다.

112) ‘결’과 ‘부’가 점점 단위가 줄어드는 법 : 『준수책』에서 규정한, 등급마다 0.15결이 차례로 줄어드는 법을 가리킨다.

蓋惟曰：“結負遞減之法，句稽¹¹³⁾未易，不得不費日也。費日故費財，費財故擾民。由今之法，量今之田，除非籌司募鏡心計者數十百人·地部出封樁錢數十萬緡，不可爲矣。”

1.1.60. 그런데 이런 주장으로 인해 다만 『경국대전』의 “20년마다 농지를 다시 측량한다.”¹¹⁴⁾는 조문이 지금 종이에만 남아있는 헛말이 되었습니다. 전정田政이 날마다 문란해지고, 농지 은닉이 날마다 번성하고, 세금이 날마다 편중되고, 나라 경제가 날마다 시들어가는 상황을 좌시하면서도 대책을 내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과연 양전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양전하는 자가 기법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했던 말입니까.

秖今使大典“二十年一改量”之文爲紙上之空言。坐視其田政日益紊亂，隱冒日益滋蔓，賦稅日益偏重，國計日益衰痛，而莫之爲謀者。其果量田之不可爲耶？抑其所以量之者不得其術耶？

1.1.61. 만약 경묘법으로 양전한다면 이전에는 1~2년으로도 완수할 수 없던 일을 지금에는 1~2개월만으로도 완수하고 남습니다. 전에는 100~200명으로도 부족하던 일을 지금에는 10~20명으로도 충분합니다. “일은 반, 효과는 두 배”라는 말이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입니다.

誠用頃畝法量之，則前以一年二年而未了者，今可一月二月而有餘；前用百人二百人而不足者，今可十人二十人而優爲。事半功倍，此之謂矣。

1.1.62. 경계가 일단 바뀌어지면 천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기에, 뒷사람들이 양안을 바꿀 때는 토질의 상하 조정과 휴경지인지 경작지인지를 구별만 하면 됩니다. 이 때문에 반드시 읍이나 도 전체의 양안을 모두 바꿀 필요도 없으니, 이 또한 고생 한 번으로 오래도록 편안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經界一正，千年不易，嗣後改籍，不過土品升降陳墾區別而已。固不必舉一邑一道之籍而盡改之，此又一勞永逸之術也。

1.1.2.5. 제5의: 지방관과 아전에게 은혜를 베푸는 차원이다

113) 句稽: 문서나 장부를 조사하여 상고함.

114) “每二十年改量，成籍藏於本曹·本道·本邑.” 『經國大典』 卷2 「戶典」 ‘量田’.

1.1.63. 다섯째, 농지 가운데 은닉한 땅은 서리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주나 현에서 사적으로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만약 모조리 조사하기 시작한다면 연못 속 물고기를 자세히 살피면 상스럽지 못한¹¹⁵⁾ 일일 뿐 아니라, 주나 현의 업무 체제가 크게 흔들릴 것이 뻔하니, 이는 조정의, ‘은혜로 구휼하여 청렴함을 기르는 취지’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¹¹⁶⁾

其五曰:田之隱漏者,非爲胥吏囊橐,則多歸州縣私占.今若查發無餘,不但察淵魚¹¹⁷⁾不祥,州縣事體,憔悴可知,非朝家優恤養廉之義也.

1.1.64. 저는 이 또한 소인배들의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논의이지, 나라를 운영하는 계획이라 할 만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주와 현에 은혜로 구휼하려면 잘 헤아려 녹봉을 더 많이 주어야 할 뿐입니다. 어찌 이렇게 모호하고 밝히기 어려운 법을 만들어 도둑질을 유도하는 문을 열어놓고서는 저기 시골의 늙은이들이 발버둥치며 지어놓은 농산물을 유독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臣以爲此又小人姑息¹¹⁸⁾之論,非可以語經邦之謨者也.誠欲優恤州縣,只當量增廩祿,何可爲此黯昧難明之法,以啓眩弄攘竊之門,獨不見夫田舍翁之掙產者乎?

1.1.65. 무릇 곡식을 빌려주거나 도움을 주어 소작농[佃戶]을 구휼하는 방법은 지극히 잘 갖춰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농지에 속임수가 있으면, 조그마한 실수라도 서로 얼굴을 붉히며 반드시 향청에서 시비를 따져주도록 하고 관청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논밭의 경계를 바꾼 뒤에야 그만 둘 것입니다.

凡所以假貸借助優恤佃戶者未嘗不備至,而或有田段欺冒,則尺寸之失,厲色相加,必辨于鄉訟于官,正其經界而後已.

115) 연못~못한: 드러내서는 안 될 일을 너무 자세히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뜻.

116) 양전으로 지방재정을 충당하는 이 같은 관행은 오랫동안 거의 전통이 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 과감히 들춰서 개혁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불법이었기에, 준법이라는 차원에서는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일이었다. 은결의 증가로 인해 은결에서 징수한 세금이 지방 관청과 아전에게 돌아가는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양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하지만 결부법 유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은결을 다 들춰내는 일은 “은혜로 구휼하고 청렴함을 기르는 취지”에서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굳이 알려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데, 바로 은결을 밝혀내는 일이 그런 종류라는 것이다. 게다가 은결을 밝혀내려 하면 주나 현의 업무에 크게 동요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냈다.

117) 淵魚: 못 속의 물고기. 비밀로 하는 일.

118) 姑息: 일시적인 안일만을 취함. 원칙 없는 일시적인 관용.

1.1.66. 사실 곡식은 남에게 줄 수는 있어도 논밭은 빌려주지 않습니다. 집안의 재산 관리도 이러한데, 하물며 나라 경제를 관리하는 데 말할 게 있겠습니까? 더욱이 시혜를 베풀면 한 푼 밖에 안 되어도 쉽사리 은혜로 여깁니다. 그러나 도둑 질은 천 금이나 되는 돈이라도 은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誠以財穀可以與人,而田地不可貸人也.治產且然,況於治國乎?且夫施與則錙銖之微,亦易爲惠;攘竊則千金之重,不以爲德.此人之常情也.

1.1.67. 저 탐관오리와 교활한 서리들은 한창 눈을 흘겨보며 무섭게 굴면서, 거만한 태도를 보이며 은닉한 농지를 절로 얻은 줄로 여깁니다. 이런 이들이 어찌 조정의 은혜를 알겠습니까? 이토록 은혜로 구휼해주어도 조롱거리가 되기 알맞고, 이토록 청렴함을 기르도록 해주어도 간사함만 기르기에 알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인배들의 고식적인 논의이지, 나라를 운영하는 계획이라 할 만한 말이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¹¹⁹⁾

彼墨吏猾胥方且睖眊恣睢,傲然以爲自我得之.寧知朝家之德意哉?以此優恤,適所以取侮;以此養廉,適所以養姦.臣故曰“小人姑¹²⁰⁾息之論,非可以語經邦之謨者也”.

1.1.3. 제안

1.1.68. 제가 예전에 한漢과 당唐의 고사를 보니, 나라에 큰 일이 있으면 반드시 조정의 신하들에게 의론을 모으게 하였습니다. 지금 전하는 『염철론』이 곧 그 중 하나입니다.

臣嘗見漢唐故事,凡有民國大事,必令廷臣集議.今所傳鹽鐵論,卽其一也.

1.1.69. 제가 바라는 바는 이렇습니다. 제가 논한 ‘팔폐’와 ‘오의’를 담당 관리에게 하달한 뒤, 옳고 그름을 충분히 의논하게 합니다. 만약 큰 이견이 없으면 의논을 그치고 조례를 논의하여 확정합니다. 이를 팔도 감사에게 반포하고서 먼저

119) 서유구는 은결을 묵인하는 이 같은 조정의 오래된 관행을 가정에서의 재산관리에 비유했다. 백성은 곡식을 남에게 줄지언정 논밭을 빌려주지는 않는데, 하물며 국가 경제를 관리하면서 국가가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가에 소속된 관리에게 내맡기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항변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양전을 한때 반대했던 정조는 양전을 함으로써 생기는 폐해보다 하지 않아서 생기는 비리가 더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조는 백성을 착취하여 국가 제정에 쓰느니 차라리 도둑질하는 신하는 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120)姑:『의상경계책』始.

각 도의 감염 관할의 읍에서, 그 편리함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일이 손에 익고, 법령이 사람들에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여러 읍에 시행하게 합니다. 그러면 몇 년 뒤에 나라 전체의 경계가 바르게 될 것입니다.

臣願以臣所論八弊五議,下之有司,熟議可否.如無參商¹²¹⁾,畫卽講確條例.頒諸八道道臣,先從營下邑試其便否.俟事與手熟,法與人慣,以次及於列邑.則數年之後,通國之經界正矣.

1.1.70. 이는 천 년 간 답습했던 고루한 관례를 떨쳐내고, 하·은·주 삼대의 바른 법을 따르는 일입니다. 또 위로는 성조(聖祖, 세종)께서 마치지 못하신 뜻을 잇는 일이요, 아래로는 억조창생의 피폐한 근력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洗千載因襲之陋,遵三代惟正之典.上以述¹²²⁾聖祖未卒之志事,下以紓億兆困瘁之民力.

1.1.71. 예를 들면, 경도와 위도를 측정하여 시간을 알려주는 일, 고지대와 저지대의 재배법을 구별하여 알맞은 토양[土宜]을 살피는 일, 저수지·못을 수축하고 수차·용두레를 만들어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는 일, 편리한 기구로 쓰임을 이롭게 하여 인력을 아끼는 일, 말단(상업)을 눌러 근본(농업)을 장려하고, 부역의 부담을 줄이면서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 아이들이 돌림병에 걸리지 않고 늙은이들이 노래를 읊조리는 일, 온갖 풀이 무성하고 물 속 생물들이 제 명대로 살도록 하는 일은 모두 경계를 바르게 한 뒤에 하더라도 참찬위육參贊位育¹²³⁾이 대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본을 바르게 하면 모든 일이 제대로 된다.”¹²⁴⁾는 말이 이를 일컬은 것입니다.

若夫測經緯之度以授天時,別原隰之種以相土宜,陂池車戽以備水旱,便器利用以省人功;抑末而敦本,輕徭而厚生;童穉不瘥,耆艾¹²⁵⁾歌詠;庶草蕃廡¹²⁶⁾,魚鼈咸若¹²⁷⁾,皆正經界以後事,而參贊位育繫不外此.“正其本,萬事理”者,此之謂也.

121) 參商: 서쪽의 ‘參星’과 동쪽의 ‘商星’; 견해나 감정이 거리가 있음.

122) 述: 『의상경계책』 述.

123) 참찬위육參贊位育: 천지에 참여하여 상하귀천이 제 자리에 안정하고 만물이 길러지도록 돕는 일. 다음의 내용이 참조가 된다. “惟天下至誠爲能盡其性.能盡其性,則能盡人之性;能盡人之性,則能盡物之性;能盡物之性,則可以贊天地之化育;可以贊天地之化育,則可以與天地參矣.” 『중용』 22장; “致中和天地位焉,萬物育焉.” 『중용』 1장.

124) “易曰:‘正其本,萬事理.’失之毫釐,差以千里.” 『前漢書』 卷65 「東方朔傳」 第35.

125) 耆艾:耆는 60세(또는 70세),艾는 50세를 가리킴.

126) 庶草蕃廡: “各以其絃,庶草蕃廡.” 『尙書注疏』 卷11 「周書洪範」

127) 咸若: 만물이 모두 그 성품에 따르고 계절에 순응하여 마땅함을 얻음. 제왕의 교화를 칭송하는 말. “山川鬼神亦莫不寧,暨鳥獸魚鼈咸若.” 『尙書注疏』 卷7 「商書 伊訓」

<제1목 해설>

이 장부터는 『의상경제책』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소개한다. 먼저 제1~2장의 토지제도(2목)와 양전(3목)을 담은 다섯 목이다. 이 두 강에서 다루는 내용은 정부 조세 수입의 주요 원천이 되는 전세田稅 제도의 근간을 이룬다. ‘양전’은 ‘토지제도’에서 규정하는 세부 실천 요강에 해당되므로 토지제도와 양전 이 두 가지는 전정田政이라는 명칭으로 통칭되기도 한다. 농업이 주된 산업이었던 조선의 핵심 경제 정책이기도 하다.

서유구는 『의상경제책』의 11목 중 제1목에서 결부법에서 경묘법으로의 개혁을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그보다 앞서 유형원(柳馨遠, 1622~1673)이 본격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¹²⁸⁾ 그의 『반계수록』은 조선과 중국의 토지제도를 세밀히 비교한 ‘전제田制’로 시작한다.¹²⁹⁾ 전제에서 주장한 균전론均田論은 이 같은 분석을 통해 제안한 것이었다. 그는 여기서 조선의 결부법을 폐기하고 중국의 경묘법을 시행해야 하며, 경묘법을 통한 양전으로 균전 제도가 달성될 수 있다고 믿었다. “토지제도를 마련하는 데 경묘법보다 좋은 것이 없고 결부법보다 좋지 않은 것이 없다.”¹³⁰⁾ 전제에 관한 유형원의 견해는 서유구가 『본리지』에서도 인용한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결부법과 경묘법의 차이에 대한 서유구의 인식은 유형원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본리지』 첫 대목이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여기에서는 “경묘법과 결부법”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는데, 이곳에 수록된 기사 총 14개 중 서유구의 저술 10개(『행포지』 9개, 『금화경독기』 1개)를 제외한 유일한 조선 문헌이 유형원의 『반계수록』(3개)이었다(표3). 서유구가 살핀 문헌의 다양함으로 볼 때 『반계수록』만을 경묘법 개혁론의 근거로 인용했다면 그의 경묘법에 관한 관심은 유형원의 글이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경묘법으로의 토지개혁을 주장한 유형원의 이 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이로

128) ‘한국고전종합DB’에 검색어 ‘頃畝法’ 또는 ‘頃法’이 세종 대 이후 확인되지 않다가 『반계수록』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검색어도 정약용과 서유구의 글 이외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2014년 6월 7일 기준). 이에 근거했을 때 결부법에 대해 근본적으로 회의하고 이를 개혁하려는 논의는 아마도 유형원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129) 총 26권 13책인 『반계수록』은 권1~8에서 토지제도 및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뤘다.

130) “制田莫善於頃法, 莫不善於結法.” 『礪溪隨錄』 卷1 「田制 上」 ‘分田定稅節目’(『礪溪隨錄 영인본』, 明文堂, 1982, 11쪽); 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임원경제지 본리지』 1, 52쪽.

는 서유구와 더불어 정약용을 꼽을 수 있다. 정약용은 ‘방전의邦田議’에서 결부법의 폐해를 상세히 분석했으며, ‘결부고변結負考辨’에서 결부제의 시말을 상세히 논하면서 『반계수록』도 활용했다.¹³¹⁾ 이와는 대조적으로 서유구의 친부 서호수는 『반계수록』을 인용했지만, 세종 대의 공법 내용을 객관적으로 소개했을 뿐 개혁론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¹³²⁾ 박지원도 그의 『과농소초』에서 전제를 다루기는 했지만, 구전區田·궤전櫃田 등 농지의 여러 종류와 기자箕子의 정전井田만을 소개했을 뿐 역시 경묘법을 이야기하지는 않았다.¹³³⁾

<표3> 『본리지』 권1(「토지제도」)에 수록된 기사의 인용문헌

출 처	대제목	소제목	표제어	인용문헌(인용회수)
임원경제지 1 본리지 권1	토지제도	경묘법과 결부법	과거와 현재의 묘법	행포지(1)
			우리나라 결부법	반계수록2 행포지3
			중국과 우리 농지 넓이의 환산	반계수록(1) 금화경독기(1)
			고금의 보법	행포지(1)
			고금의 척법	서광계정전고(1) 행포지(1)
			역대의 척도	행포지(1)
			우리나라의 척법	행포지(1)

유형원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서유구는 경계를 바로 잡기 위한 방법을 하나씩 자세하게 분석했다. 토지 제도에 대해서 서유구는 2가지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는 결부법을 경묘법으로 고치자는 것이고, 둘째는 길이의 척도를 고제古制를 기준으로 바르게 고치자는 것이다.

먼저 조선의 토지제도인 결부법이 고금에 없는 독특한 제도임을 논한다. 조선에서는 모든 풍습이나 제도에 대해 거의 중국을 본뜨는데, 유독 토지제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1.1.3) 이러한 제도는 중국의 경묘법과 비교해서 여러 폐단이 있는데, 서유구는 이를 ‘팔폐八弊’라 하여 8가지로 정리했다. 팔폐에 이어서 결부법 폐지 반대론자들의 논리를 ‘오의五議’라 하여 다섯 가지를 소개했다. 팔폐와

131) ‘한국고전종합DB’에서 『반계수록』의 「전제」 대목을 인용한 부분은 『경세유표』만 확인된다. 『경세유표』의 ‘방전의’와 ‘결부고변’에서 『반계수록』의 이 대목을 인용하며 유형원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더 세밀하게 하고 있다. <<與猶堂全書>> 『經世遺表』 卷6 「地官修制」 “田制考” 6 ‘邦田議’(<<叢刊>> 285, 117~124쪽); <<與猶堂全書>> 『經世遺表』 卷9 「地官修制」 “田制別考” 1 ‘結負考辨’(<<叢刊>> 285, 164~167쪽). 서유구의 『본리지』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깔려있지 않다.

132) 徐浩修, 『海東農書』 卷1 「田制」 ‘列朝詳定’(『農書』 10, 15~19쪽).

133) 朴趾源, <<燕巖集>> 卷16 別集 『課農小抄』 ‘田制’(<<叢刊>> 252, 356~361쪽).

오의의 논법으로 서유구는 결부법의 폐단과 폐지 반대론을 집요하게 파헤쳤다. 유형원 이후로 결부법의 문제를 것처럼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 논의는 정약용의 『경세유표』를 제외하고 거의 찾기가 어렵다. 팔폐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부법은 이름이 바르지 않다.(1.1.6~10) 결부법은 먼저 세금의 양을 정한 뒤, 비옥도에 따라 농지의 넓이를 늘리거나 줄인다. 반면 경묘법은 먼저 농지 넓이를 일정하게 켜 뒤, 비옥도에 따라 그 농지의 세금을 정한다. 결부법은 농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토지제도에 세금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름이 바르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이와 동시에 결부법은 본말이 전도되었다.(1.1.11~12) 농지가 근본이고 세금이 말단인데, 결부법은 세금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결부법은 척도의 기준이 일정하지 않다.(1.1.13~18) 서유구에 따르면, 경묘법은 고대 선왕이 만든 제도로, 지금의 미터법과 같이 어디에서나 기준이 같다. 선왕이 이 제도를 제정할 때 먼저 기준척인 주척을 바르게 확정했다. 그리하여 6척=1보, $1\text{보} \times 100\text{보} = 100\text{보}^2 = 1\text{묘}$ 로 삼았다. 이렇게 정한 1묘는 바로 농지의 기준 넓이임과 동시에 농지를 작물 재배에 적절하게 구획하는 방법이기도 했다. 반면 결부법은 6등급의 양전척이 균일하지 않아 통일된 기준이 없어서, 농지 넓이가 각 도에 따라 다르고, 읍에 따라 다르고, 심지어는 한 마을의 동서와 남북이 달라졌다.

넷째, 결부법으로는 서리의 횡포를 제어하기가 불가능하다.(1.1.19~23) 결부법은 고려의 계지척을 모방했으면서 환산은 주척으로 했다.(1.1.19) 주척과 계지척은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길이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계지척으로 시작했지만, 계지척을 기준으로 삼은 양전척을 세종 대 전제 제정자들은 1등전의 양전척 4.775척처럼 모두 주척으로 환산했다. 하지만 주척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정수로 마감되지 않기 때문에 척 뒤에 촌·푼·리라는 하위 단위까지 남는 수가 생기기 마련이었다. 이런 문제로 인해 농지를 측량한 뒤 넓이를 결부로 다시 환산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해졌다. 결국 지방 수령은 말할 것도 없고 농부도 자신의 농지 넓이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 도리가 없었으며, 심지어 양전 실무자들조차도 제대로 환산할 수 있는 이는 매우 적었다.(1.1.25) 따라서 양전한 결과를 정리하는 아전들이 중간에서 농간을 부릴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

다섯째, 결부법은 복잡한 계산법 때문에 양전이 재해가 되었다.(1.1.24~26) 갑

술양전에서 쓴 사율비례는 효종 4년(1653)에 호조에서 편찬한 『전제상정소준수 조획田制詳定所遵守條畫』(속칭 『준수책』이라 한다.)에 정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1등전 1결인 38묘가 각 등전에서 몇 결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해두었다.

이를 기준으로 시행된 양전에서 해부(解負, 계산을 통해 농지의 결수를 환산하는 일)를 하기 위해서는 사율비례를 이용해야 한다. 서유구가 진단한 당시 상황은 “이 방법을 서툴게라도 쓸 수 있는 서리는 수십 개 읍에서 겨우 한둘이 있을 뿐”(1.1.25)이어서 정확한 해부를 하는 사례가 희귀했다. 계산 착오가 빈번했다는 말이다. 이런 이유로 어찌면 환산을 거의 하지 못한 채 양전이 이루어지기도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따라서 해부를 담당하는 서리나 아전 같은 실무자의 농간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이 개입될지는 불을 보듯 뻔했고, 실제로 『실록』 기사에는 양전 과정에서의 부패 실태를 보고하고 처리하는 내용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여섯째, 결부법에는 품등 책정의 기준이 없다.(1.1.27~31) 서유구가 『의상경계책』을 쓸 19세기 초반 무렵에는 6등급 중 4~6등전이 약 2/3정도를 차지할 정도였다고 한다.(1.1.35) 4등전과 5등전은 약 2,070평(=7,564.29평-5,494.31평), 5등전과 6등전은 약 4,539평(=12,102.87평-7,564.29평) 차이가 난다.¹³⁴⁾ 결코 적지 않은 넓이이다. 따라서 농지의 품등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결수가 차이 나게 되고, 그 결과로 농민 입장에서는 세금의 양이 결정되고, 정부 및 지방 관아 입장에서는 양안에 정리하는 내용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된다. 그런데 논밭에서 직접 경험한 농부들조차도 쉽지 않는 토질 품등을, 농사를 짓지도 않은 서리가 잠깐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짧은 시간에 결정했지만(1.1.29) 이 결정의 객관성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했다.

일곱째, 결부법에서는 농지의 품등 조정에 보수적이다.(1.1.32~35) 당시 양안에는 1~3등전보다 4~6등전이 훨씬 많았다. 조선 초부터 새로 바뀐 결부법으로 양전을 하면서 백성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고려 때부터 이어온 품등에서 큰 차이로 품등을 올릴 수 없었다. 그렇게 낮춰진 품등은 좀처럼 오르지 않았다. 『의상경계책』이 저술될 당시만 해도 낮은 품등이 재조정되지 않은 현상이 심해 나라 전체의 농지에서 하등전이 2/3를 차지할 정도였다고 한탄했다.(1.1.35) 그만큼 품등을 고치는 일에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땅의 변화를 그때그때 반영할 수 없었다.

134) 金容燮, 『韓國中世農業史研究』, 260쪽 표6 참조.

여덟째, 결부법을 토대로 한 양전의 시행령인 법조문이 어렵다.(1.1.36~37) 결부법은 양전하여 세금을 거두기 위한 제도였기 때문에 법 적용의 대상자는 대부분 농민이었다. 그러나 결부법은 지방 수령이나 실무자인 서리나 아전도 제대로 이해하는 이가 적었다. 글자를 모르는 농부들 중 이런 법을 알 수 있는 이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법은 백성이 쉽게 이해해야 하는 게 기본 취지인데, 거의 대부분이 알 수 없는 법조문을 적용하고 있는 현실이었다. 백성을 위한 법조문이 백성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조문으로만 존재했다.

이와 같이 서유구는 결부법 시행으로 인한 폐단 8가지를 조목조목 밝힌 뒤 폐단 때문에 생긴 결과를 짚고 그 원인을 적시한다. 팔폐의 근원은 농지 경계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결부법이라는 제도에 있으므로, 이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다.

서유구는 결부법에 대해서는 극도의 불신이 있었고, 경묘법에 대해서는 지극히 우호적이었다. 경묘법을 시행하되, 농지의 전품은 기존의 6등급에서 9등급으로 늘리고, 연분年分 등급은 기존의 9등급에서 3등급으로 줄여 나눌 것을 제안했다.(1.1.45) 결부법에서는 수세의 종류가 총 54종(=6등×9등)인 데 반해, 서유구가 제안한 경묘법은 총 27종(=9등×3등)으로 줄어드는 것이다.¹³⁵⁾ 서유구는 경묘법이 조선 건국 이래 생겨난 모든 전정의 폐해를 일소할 수 있는 경법經法이라 판단했다.(1.1.46)

이처럼 최고의 토지제도라고 강조한 서유구의 경묘법은 그 개략이 다음과 같다. 먼저 전품에 상관없이 주척 6척을 양전척 1척으로 통일한다. 이 기본적으로 확장된 넓이 단위는 다음과 같다.

$$\text{양전척 } 1\text{척}^2 = 1\text{보}^2 = \text{주척 } 36\text{척}^2$$

$$100\text{보}^2 = 1\text{묘} = \text{주척 } 3,600\text{척}^2$$

$$100\text{묘}^2 = 1\text{경} = \text{주척 } 360,000\text{척}^2$$

주척 6척을 양전척 1척으로 정하여 넓이가 묘畝·경頃·정井 등의 단위로 확장되는 제도는 중국 토지제도사에서 ‘고법古法’을 따르는 선택이었다. 고법은 한대까지 시행된 것으로 특히 주나라의 제도라고 알려진 정전제의 기본척이기도 했다. 양전척 1척이 곧 고법의 1보이고 100보가 1묘이다. 진한 시대 이후에는 주척 5척을 1보로 삼았으며 240보를 1묘로 삼았다. 이를 신법이라 한다.¹³⁶⁾ 세종 대에

135) 이는 정약용이 전품을 18등급으로, 연분을 3등급으로 나누자고 했던 제안과 비교된다. 정해림 역주, 『역주 경세유표』 2, 709~710쪽 참조.

시도하려 했던 경묘법은 5척을 1보로 삼은 신법을 따른 셈이다.¹³⁷⁾

서유구가 세종이 받아들였던 신법을 따르지 않고 고법을 따른 이유는 중국 고대의 선왕이 토지제도를 제정할 때 썼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때 6척을 1보로 삼은 이유는 농법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함이었다. 1묘에 고랑 셋 두둑 셋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1.1.13) 고랑과 두둑의 너비는 모두 1척이기 때문에 1묘의 너비는 6척이 되는 것이다. 이 농법이 바로 서유구가 조선에 도입하려 했던 대전법, 즉 견종법이었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이렇게 확장된 단위는 과법科法과 경법耕法, 보법, 묘법에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그렇다면 그 폐단이 많은 결부법 제도가 어떻게 오랜 기간 동안 바뀌지 않고 유지되었을까. 결부법 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은 어떤 것이었을까. 미터법으로 표준화한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결부법을 경묘법으로 바꾸자는 제안은 너무나 당연한 견해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당시까지 거의 천 여 년 간 통용했던 결부법을 바꾸는 데 동의하는 이는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랜 관행의 관성은 엄청났고 따라서 방향 선회는 거의 불가능해보였다. 이 관행의 관성은 서유구가 보기에 결부법 개혁을 반대하는 5가지의 확고한 주장으로 더욱 공고해졌었다. 그는 이를 ‘오의五議’라 했다. 이 오의를 일일이 소개하며 그 논리도 다시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유구가 이렇게 결부법 비판에 공을 들인 이유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이들이 많아 결부법 옹호론을 깨트리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1의는 결부법이 주나라 제도의 뜻을 본받았다는 주장이었다.(1.1.48~49) “불역전(매년 농사짓는 농지)이면 1가家에 100묘를, 일역전(1년 휴경하는 농지)이면 1가에 200묘를, 재역전(2년 휴경하는 농지)이면 1가에 300묘를 준다.”는 『주례』에 실린 제도는, 땅의 비옥도가 달라 곡식 수확량이 몇 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인데, 결부법이 6개 등급에 따라 넓이를 달리 함이 바로 이 주나라 제도의 뜻을 본받은 것이라는 주장이다.(1.1.48) 이에 대해 서유구는 ‘일역’, ‘이역’이라는 말은 휴경지를 일컫는데, 조선에서는 휴경지, 즉 묵힌밭에 과세하지 않았으며 주나라 법도 개간 농지 즉 불역전(상경전)을 100묘만 지급했지 이의 2

136) 고법과 신법의 기준은 서유구가 『행포지』에서 나눈 기준이다. 전국시대까지의 척법을 고법, 한대 이후의 척법을 신법으로 보고 있다. 정명현·김정기 역주, 『임원경제지 본리지』 1, 45~46쪽.

137) 『세종실록』 25년(1443) 11/14. 이에 비해 『본리지』에서는 농부의 경우 농사에 나오는 “1묘에는 씨앗 몇 승을 쓴다”는 등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면서 5척=1보, 240보=1묘의 신법을 써도 좋다고 했다(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위의 책, 59쪽). 신법을 추천한 이유로, 제도적 개혁을 요구할 수 없는 현실도 한 몫 했을 것이다.

배나 지급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200묘나 300묘라고 했다면 이는 비옥도와는 상관없이 경계는 여전히 그대로이므로, 결부법처럼 비옥도에 따라 경계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1.1.49)

제2의는 천여 년 이어온 불후의 제도라는 논의이다.(1.1.50~53) 결부법이 삼국시대부터 이어온 불후의 제도라 고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서유구는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은 실례를 제시하며 이 주장을 일축했다. 즉 고려 태조 때 경향을 토지 단위로 쓰고 있었고, 고려 문종 때(1069년) 양전척을 정하고 전품을 나눌 때도 땅의 넓이는 같고 세금을 전품에 따라 달리 매겼던 것을 보면 등급에 따라 척도를 달리 하는 수등이척제는 이 이후에 생겨났다는 것이다.(1.1.51~52) 또 만약 삼국시대에 결부법이 유래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주나라 융성기의 제도와 비교할 수 없다며, 중국의 제도를 버리고 주변국의 제도를 따라 바꿀 수 없는데, 하물며 고려 말의 제도를 바꾸는 일을 주저할 수 있겠느냐고 강변했다.

제3의는 결부법이 조선에서 정착한 법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1.1.54~56) 제2의에서 한 발 물러선 입장으로, 결부법이 고려 말에 시작했다 해도 개국 이래 조선이 이 제도를 시행했기 때문에 조선에 정착한 법이 되었으므로, 급히 개정하면 반드시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 섞인 주장이다. 이에 대해서도 서유구는 세종 대에 이미 경묘법으로 고치려 했던 점을 들어 반박했다. 세종이 “양전척[計指田尺]과 결·부·속·과가 옛날 제도에 의거하지 않았다. 자는 주척을 쓰고, 결부법은 경묘법으로 고쳐야 마땅하다.”며 결부법의 전면적 개정령을 내린 언급과, 그 명령에 따라 올린 호조의 『양전사목』에, “자는 주척을 쓰고 25척²이 되는 넓이를 1보로 하고, 240보²을 1묘로, 100묘²을 1경으로, 5경을 1자字로 한다.”는 경묘법 규정이 담긴 것은 바로 토지 제도의 핵심을 파악한 세종이 결부법 혁파 의지를 보여준 증거라는 것이다.(1.1.55)

제4의는 결부법을 경묘법으로 바꾼다면 비용 소모와 백성의 동요가 크다는 주장이다.(1.1.57~62) 이 주장이 아마도 현실적으로 가장 강력한 반대론이 아닐까 생각한다. 실제로 경묘법으로의 개정은 고사하고, 현행법으로 양전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논리가 번번이 그 실행을 가로막았다. 흥년으로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양전을 하면 백성의 동요가 커진다는 이유였다. 1820년 전라도 양전을 계획했을 때 전라감사 이서구가 올린 상소에서 전라도 양전을 늦추자는 논리의 핵심도 바로 이것이었다.¹³⁸⁾

이에 대해 서유구는 호적을 3년마다 바꾸듯이 양안도 법 규정대로 20년마다 개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이 3년마다 양안을 바꾸었던 데 반해 조선의 현실은 100년이 지나도 개량이 안 되었다고 강조했다.(1.1.58) 이런 상황에서 온갖 폐단이 생겼음에도 이를 좌시만 하는 현실을 질타하며, 지금대로라면 100~200명 인원으로 1~2년에도 할 수 없는 양전은 경묘법을 시행한다면 10~20명으로 1~2개월이면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1.1.60~61)

제5의는 결부법이 지방관과 아전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이라고 옹호하는 입장이다.(1.1.63~67) 양전을 하는 목적 중 하나는 토지 조사를 면밀히 수행함으로써 탈루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당시에는 은결이 무수히 존재했고 그 폐단은 이미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실제로 이 은결이 지방 재정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사실을 조정에서도 알고 있으면서 묵인했던 측면이 있다. 국가 재정 부족으로 지방 재정까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쩌면 이 같은 자치적 재정 해결을 조장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양전은 지방 재정 충당과 동시에 실무자들이 뒷돈을 챙기는 주요 수단이기도 했다.

하지만 결부법 개혁 반대론자들은, 당시의 관행은 어쩔 수 없이 생긴 자연스런 전통이므로 이를 인정하자는 취지의 논설을 폈다. 이들은 은결을 다 들춰내는 일은 “은혜로 구휼하여 청렴함을 기르는 취지”에서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서유구는 이 주장은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이며 나라를 경영하는 계획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지방 관청을 진정 은혜로 구휼하려 한다면 녹봉이라는 객관적 제도에 반영하여 녹봉을 올리면 되지, 굳이 알기 어려운 법을 만들어 도둑질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1.1.64) 은결을 방관하여 비리를 조장하는 일은 편법에 불과하다는 것이 서유구의 생각이다. 그는 이 관행을 ‘도둑질’이라 여겼다. 그들은 국가의 묵인을 시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은결을 통해 재물을 축적해도 고마워할 줄 모르고 절로 얻었다고 생각하며, 잘못된 관행의 묵인은 오히려 국가를 조롱하고 간사함만 키우게 한다는 것이다.(1.1.66~67)

이렇게 ‘팔폐’와 ‘오의’를 제시한 뒤 서유구는 자신의 구상을 건의했다. 먼저 팔폐와 오의를 담당관들에게 하달한 뒤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경묘법 조례를 확정한다. 확정된 조례는 팔도 감영의 관할 읍에서 먼저 편리함 여부를 확인하고 실무가 손에 익숙해진 뒤 몇 년 후에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나라 전체의 농지 경계가 바르게 될 것이라고 그는 믿었다.(1.1.69)

138) 『순조실록』 20년(1820) 8/2.

“결부법을 경묘법으로 고쳐야 한다.”는 제1목의 결론에서 서유구는 ‘경계책’을 쓴 목적을 암시하는 말로 마무리 짓는다. 경계책의 핵심은 경계를 정확히 확정하는 일인데, 경계를 바르게 하는 일이 다음과 같은 일에 앞서야 한다는 것이다.

경도와 위도를 측정하여 시간을 알려주는 일, 고지대와 저지대의 재배법을 구별하여 알맞은 토양을 살피는 일, 저수지·못을 수축하고 수차·용두레를 만들어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는 일, 편리한 기구로 쓰임을 이롭게 하여 인력을 아끼는 일, 말단(상업)을 눌러 근본(농업)을 장려하고, 부역의 부담을 줄이면서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 아이들이 돌럼병에 걸리지 않고 늙은이들이 노래를 읊조리는 일, 온갖 풀이 무성하고 물 속 생물들이 제 명대로 살도록 하는 일.(1.1.71)

농사가 잘 되기 위한 농법 개선 문제와 중농정책을 실시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인간이 천지와 더불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자연도 천성에 맞게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바로 경묘법 실시로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경묘법으로 이룰 수 있는 일들은 역대 왕들이 이루려 했던, 하지만 한 번도 이루지 못했던 이상 정치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유구의 이 같은 언급이 상투적인 수사일 수도 있겠으나, 여기서 거론한 농법 개선 문제 등은 『의상경계책』의 뒷부분에서 매우 자세히 논의하고 있어서 빈 말로 넘길 수 없다. 성인이나 달성할 수 있는 정치의 최고 경지라 할 수 있는 ‘참찬위육參贊位育’의 근본 바탕이 바로 경묘법이라는 것이다.

1.1.3. 제2목 ‘척과 보를 바꾸어 옛 제도를 따르기’

1.2. 척과 보를 바꾸어 옛 제도를 따른다

1.2.1. 둘째는 척과 보를 바꾸어 옛 제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二曰正尺步以遵古制:

1.2.2. 제가 듣기로는 주척이 전하지 않자 단편적 지식에서 나와 실정과는 먼 설들이 마당에 가득 찰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검정 기장에서 구한 것, 손가락 마디를 기준으로 한 것, 벼 까끄라기 10개를 1촌으로 삼은 것, 머리카락 10개를 1푼으로 삼은 것 등을 마음으로 골똘히 생각하고 입이 닳도록 따져보아도 자의 길이를 확정할 수 없었습니다.¹³⁹⁾

臣聞周尺之失其傳,而捫燭叩槃¹⁴⁰⁾之說盈庭矣.有求之秬黍者·有准諸指寸者·有以十禾稊爲一寸者·有謂十人髮爲一分者,心竭于思,口弊於議,而不能定也.

1.2.3. 이런 상황에서 오직 진짚의 태시 연간¹⁴¹⁾에 중서감이었던 순옥荀勖¹⁴²⁾만이 예전에 썼던 7가지 물건과 견주어 대부분 합치시켰습니다. 이 7가지 물건은, 첫째 고선옥률¹⁴³⁾, 둘째 소려옥률¹⁴⁴⁾, 셋째 서경西京¹⁴⁵⁾에서 사용한 동당알¹⁴⁶⁾,

139) 이 단락은 한대 이후로 주척이 전하지 않으면서 주척 길이에 대해 거론된 많은 이견들의 일부를 소개했다. 『杏菴志』 卷1 「田制」(『農書』 36, 9쪽)에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

140) 捫燭叩槃: 쟁반을 두드리고 촛불을 잡음.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한 단편적인 인지는 진실과는 동떨어짐.

141) 태시太始 연간: 태시 9년(273)이다. 『晉書』 卷16 「志」 第6 「律曆」 上.

142) 순옥(荀勖, ?~ 289): 진짚나라 사람으로 영천潁川 영음(潁陰, 현 하남 허창시) 사람이다. 가충賈充과 함께 법령을 수정하였으며, 궁정악사宮廷樂事를 전담하였고, 적률笛律 12지支를 연구하여 음률을 교정하였다.

순옥의 자[荀勖尺]는 주척과 같은 길이인데, 『中國科學技術史-度量衡卷』, 276쪽에서는 순옥의 자의 길이를 23.1cm로 고증하고 있다.

143) 고선옥률姑洗玉律: 고선음의 표준이 되는, 옥으로 만든 기구. 길이는 황종黃鐘의 64/81. ‘고선’은 십이율[十二律, 전통 음악의 열두 음계로 옥률六律과 육려六呂의 총칭] 가운데 기준음인 황종에서 5번째 음이고, ‘옥률’은 옥으로 만든 표준 정음기正音器이다. 『大漢和辭典』; Yung Sik Kim, *The Natural Philosophy of Chu Hsi*(1130~1200)(Philadelphia: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2000), p. 185.

144) 소려옥률小呂玉律: 소려음의 표준이 되는, 옥으로 만든 기구. 소려小呂는 십이율 중의 하나로, 중려(中呂 또는 仲呂)라고도 한다. 길이는 황종의 13,1072/17,7147. Yung Sik Kim, *ibid.*, p.

넷째 금 도금 망일, 다섯째 구리 되, 여섯째 옛날 동전, 일곱째 건무建武 연간(24~55)의 구리자 등이었습니다.

惟晉太始中,中書監荀勖之校古物七品,多合。一曰姑洗玉律,二曰小呂玉律,三曰西京銅望臬,四曰金錯望臬,五曰銅斛,六曰古錢,七曰建武銅尺。

1.2.4. 여러 전문가들 중에서도 순옥의 설이 가장 증거에 부합하니, 빈 말로 어림짐작한 설들과는 견줄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나라 역사서인 『수서』의 『율력지』에서는 15등급의 자를 나열했는데, 순옥이 만든 순척荀尺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척, 한나라 유흠¹⁴⁷⁾의 자, 후한後漢 건무 연간의 구리자 등을 모두 같은 등급에 놓았으니, 역시 순척만이 독보적으로 주척의 참값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¹⁴⁸⁾

185.

145) 서경西京: 장안長安. 『農政全書校注』, 107쪽 주15.

146) 동망열銅望臬: 해 그림자의 길이를 재는 구리막대.

147) 유흠(劉歆, ?~23): 왕망王莽이 신新을 건국하면서 국사國師에 책봉되어 탁고개제托古改制的 기치 하에 문물제도를 개혁하려 했다. 태초력太初曆을 수정하여 삼통력三統曆을 완성했고, 원주형의 표준 도량형을 제작하였으며, 그 외에 원주율 계산에 공헌하였다.

148) 다음은 서유구가 중국 고금의 척법을 정리한 내용 중 『수서』에 실린 15등급으로 나눈 자를 설명하는 곳의 일부다. “『수서隋書』에는 15등급의 자가 실려 있는데, 순옥이 만든 순척荀尺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 가운데 주척, 한대 유흠劉歆의 자, 후한後漢 건무 연간의 구리 자, 남조南朝의 송宋나라 조충지祖冲之가 전한 자 등은 순척과 모두 일치했다. 그리고 나머지, 곧 진晉의 농부가 들에서 발견한 옥玉 자, 한의 관청에서 쓰던 자, 위魏의 두기杜夔가 사용하여 조율한 자, 진晉의 후기 자, 위魏의 초기 자[前尺], 중기 자[中尺], 후기 자[後尺], 동위東魏의 후기 자, 채옹蔡邕이 은으로 도금한 구리피리 자, 후주後周의 옥 자, 송宋의 자, 수隋 만보상萬寶常의 수척水尺, 혼천의渾天儀 제작에 쓰는 유요劉曜의 자, 양梁의 민간에서 사용한 자 등 14종은 각각 순척과 길이가 다르다.” 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임원경제지 본리지』 1, 66~68쪽.

순척과 다른 14종 가운데 ‘후주의 옥 자’는 ‘채옹이 은을 도금한 구리 피리 자’와 같은 종류에 속해 있어서 이 14종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隋書』에서는 ‘후주의 옥 자’ 대신 ‘양의 해 그림자 재는 자[梁表尺]’를 들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隋書』 「律曆志 上」, 402~408쪽, 특히 404~405쪽을 참조 바람. 다음은 『隋書』의 내용을 정리하여 현대 단위로 환산한 표다.(『中国科学技术史-度量衡卷』, 316~317쪽의 표에서 번역문에 실린 내용을 중심으로 옮김. 이 표의 근거는 같은 책, 305~316쪽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표4> 『隋書』 「律曆志」의 15등급 자

자의 등급	자 이름	시대(연도)	순척과의 비율(척)	현재 단위로 환산(cm)
1	주척 유흠의 구리 자 건무 연간 구리 자 순옥의 자(진의 초기 자) 조충지가 전한 자	신 (9) 동한(건무, 25~56) 서진(태시 9년, 274) 남북조(송, 420~479)	1	23.1

在諸家中最有證契,非空言揣摩之比.故隋志列十五等尺,以荀尺爲本,而周尺·漢劉歆尺·建武¹⁴⁹⁾銅尺,同置之一等,亦以荀尺之獨得周尺眞度也.

1.2.5. 이 뒤로 척도가 자주 변하자 순척이 전하지 않은 지가 몇 백 년이 되었습니다.

是後尺度屢變,而荀尺之失其傳,又幾百年矣.

1.2.6. 송나라 인종 때, 한림학사 정도¹⁵⁰⁾ 등이 다음과 같이 의론을 올렸습니다. “역대로 척도는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 오직 유흠이 ‘곡식을 되는 구리 그릇[銅斛]’을 주조한 시기에 함께 주조한 착도錯刀나 대천오십大泉五十이라는 화폐들과, 천봉 연간(14~19)에 왕망¹⁵¹⁾이 주조한 화포貨布나 화천貨泉 등의 화폐만이 있으니, 그 이후에 주조한 동전이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네 가지로 분分·촌寸을 전주어 주척의 도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¹⁵²⁾

至宋仁宗時,翰林學士丁度等議曰:“歷代尺度屢改,惟劉歆鑄銅斛之世,所鑄錯刀·大泉五十,王莽天鳳中鑄貨布·貨泉之類,不聞後世有鑄者.以此四物,參校分寸,可得周尺之

2	진의 농부가 발견한 옥 자		1.010	23.331
3	양의 해 그림자 제는 자	남북조(양, 502~557)	1.007	23.262
4	한의 관청에서 쓰던 자	동한(76~88)	1.0307	23.809
5	위의 두기가 사용한 자	삼국(위, 220~265)	1.047	24.186
6	진의 후기 자	동진(317~420)	1.062	24.532
7	후위의 초기 자	남북조(북위 초기, 386~)	1.107 *	25.572
8	후위의 중기 자	남북조(북위 중기)	1.211	27.974
9	후위의 후기 자	남북조(북위 후기, ~534)	1.281	29.591
10	동위의 후기 자	남북조(동위, 534~550)	1.3008	30.048
11	채옹이 은을 도금한 구리 자 후주의 옥 자	동한(132~192) 남북조(북주, 566~580)	1.158	26.749
12	송의 자	남북조(송, 420~479)	1.064	24.578
13	만보상의 수척	수(개황 10년, 590)	1.086	27.396
14	혼천의 제작에 쓰는 유요의 자	16국(전월, 304~329)	1.05	24.255
15	양나라 민간에서 사용한 자	남북조(양, 502~557)	1.071	24.74

* 서유구는 1.107을 1.207로 적고 있다. 참조한 판본의 차이로 보인다.

149) 武: 『의상경계책』 初.

150) 정도(丁度, 990~1053): 북송의 학자이다. 진종眞宗과 인종仁宗 때 활약했으며, 운서인 『광운廣韻』을 수정하여 『집운集韻』을 편찬하였다.

151) 왕망(王莽, B.C. 45~A.D. 23): 신新 왕조의 건립자이다. 한漢 평제平帝를 독살하고 섭황제攝皇帝가 되었다가 전양의 과정을 거쳐 황제가 되었다. 재위기간 동안 탁고개제托古改制를 주장하였는데, 정전제井田制를 회복하고 토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토지는 왕전王田이라 하여 매매를 금지하였다.

152) (1.2.2~7)의 내용은 주로 다음의 내용과 유사하다. 『農政全書』 卷4 「田制」 ‘玄扈先生井田攷’(『農政全書校注』, 92~94쪽); 『임원경제지 본리지』 1, 65~70쪽.

度¹⁵³⁾.”

1.2.7. 이 말은 천 년 전 순욱의 말과 정확히 부합합니다. 그리하여 사마광[司馬備]은 정도가 정한 척도를 받아들여 돌에 새겼고, 주자와 채원정¹⁵⁴⁾이 모두 이를 따랐습니다. 아마도 이쯤에 이르러 주척의 도수가 비로소 확정되었고, 따라서 학자들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설들은 모두 폐기할만했습니다.

其言與荀氏千載同符.於是司馬備取丁氏所定尺度刻之石,而朱子·蔡元定皆從之.蓋至是而周尺之度始定,而諸家影響之說,悉可廢矣.

1.2.8. 순욱이 조사했던 7가지 물건을 지금은 볼 수 없으나 착도·계도·화포·화천 같은 옛 한대漢代의 동전류는 종종 동국까지 전해지기도 합니다. 명나라의 주재육¹⁵⁵⁾이 지은 『율려정의』에는 화포·화천·대천오십의 그림이 실려 있고, 최근 사람인 옹방강¹⁵⁶⁾이 지은 『양한금석기』에는 한나라의 건무 연간의 구리자 그림이 실려 있습니다.

荀氏所校七物,今不可見,而惟古錢如錯刀·契刀·貨布·貨泉之類,往往有流傳東來者.皇明朱載堉所著律呂精義有貨布·貨泉·大泉五十圖,近世人翁方綱所著兩漢金石記有漢建武¹⁵⁷⁾銅尺圖.

1.2.9. 제가 예전에 화천 1개를 얻은 적이 있는데, 『한서』 「식화지」의 “화천의

153) 可得周尺之度: 『본』 正同.

154) 채원정(蔡元定, 1135~1198): 남송 건주建州 건양建陽 사람. 자는 계통季通이고, 호는 서산西山이며, 시호는 문절文節이다. 벼슬에 나가지 않고 학문과 강학에 몰두했다. 어려서 아버지 채발蔡發에게 배웠고, 장성하여 이정二程과 소옹邵雍, 장재張載의 학문을 배웠다. 나중에 주희朱熹를 찾아가 수학했다. 주희가 강우講友로 대우했다. 많은 책을 섭렵했고, 의리義理를 깊이 연구했다. 주희의 이학사상理學思想을 계승 발전시킨 주요 인물로 평가된다. 악물樂律에 조예가 깊었는데, 12월에 6개의 변률變律을 첨가해서 18악물을 개발했다. 척도에 관한 주요 설을 종합한 『율려신서律呂新書』의 지은이다. 임종욱 편저, 『중국역대인명사전』, 이회문화사, 2010.

155) 주재육(朱載堉, 1536~1611): 명나라 황실의 종친으로 음악과 수학을 좋아하여 대나무를 직접 채취하여 율관을 만들기도 했다. 『악물전서樂律全書』를 편찬했다. 『중국과학기술사-도량형권』, 295쪽.

156) 옹방강(翁方綱, 1733~1818): 청나라 순천順天 대흥(大興, 北京) 사람. 『사고전서四庫全書』의 찬수관을 지내고 내각학사內閣學士가 되었다. 금석金石과 보록譜錄, 서화, 사장詞章 등 다양한 분야에 정통했다. 특히 서예는 당인唐人의 해행楷行과 한비漢碑의 예법隸法을 배워 유옹劉墉, 왕문치王文治, 양동서梁同書 등과 함께 청나라 법첩학法帖學의 4대가로 꼽힌다. 『중국역대인명사전』.

157) 武: 『의상경계책』 初.

지름은 1촌이다.”는 글¹⁵⁸⁾에 의거하여 화천 1개의 지름을 1촌으로 하고 10촌을 1척으로 정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울려정의』에 실린 옛 동전의 그림들과 비교해 보니 부절을 맞춘 듯 꼭 들어맞았습니다. 또 『양한금석기』에 실린 건무 연간의 구리자 그림과도 비교해 보니 털끝만큼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臣嘗得貨泉一枚,據漢書食貨志“貨泉,徑一寸”之文,以貨泉一枚之徑爲寸,十寸爲尺.仍以考校于律呂精義所載古錢諸圖,而若合符契.又以考校于兩漢金石記所載建武¹⁵⁹⁾銅尺圖,而不爽毫髮.

1.2.10. 확인하는 과정에서 옛 동전을 통해 순척의 참값을 얻었고, 순척을 통해 주척의 참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에 근거하여 옛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악기, 그릇, 건축물, 토지 구획 등의 수치를 찾는다면 의심할 바 없이 규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¹⁶⁰⁾

益驗,因古錢而得荀尺眞度,因荀尺而得周尺眞度.以尋昔人定律·制器·營室·分田之數,灼然無疑者也.

1.2.11. 저는 예전에 저의 방계 조상인 문정공 신臣 서거정이 편찬한 『필원잡기』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세종 때 문경공文敬公 허

158) “漢書食貨志:“大泉五十,徑寸二分小泉,徑六分,契刀·錯刀,其環如大錢.貨布,長二寸五分,廣一寸首長八分有奇,廣八分足枝長八分,間廣二分圓好徑二分半.貨泉,徑一寸.”『임원경제지 본리지』 1, 75쪽.

159) 武:『의상경제책』 初.

160) 서유구가 이렇게 알아낸 주척은 『의상경제책』에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그의 『본리지』에 1/2척의 그림으로 실려 있다. 그러나 『본리지』 원본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대신 1930년대 필사본인 고려대 소장본(이하 고려대본)과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이후 국립본)의 『본리지』에 그 그림이 전한다. 실측한 결과 고려대본은 약 11.47cm, 국립본은 약 11.77cm였다. 따라서 이 두 본에 실린 주척에 근거한 주척 1척은 각각 약 22.94cm, 23.54cm가 된다. 실제로 중국에 남아 있는 유물로 알아낸 주척 1척은 23.1cm였는데, 이와 비교할 때 고대본에 수록된 주척 길이는 길이의 약 0.16cm가 적게 나온 셈이다(『임원경제지 본리지』 1, 75쪽 주 53번). <<임원경제지>>의 여러 필사본 중 고대본을 선본善本으로 본 연구를 따르면(정명현, 『『임원경제지』 사본들에 대한 서지학적 검토』, 『奎章閣』 34, 서울大學校 奎章閣 韓國學研究院, 2009) 고대본에 실린 주척 그림 길이가 필사본의 대본을 거의 그대로 옮겼다고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서유구가 『본리지』 원고를 완성한 즈음은 1830년대 경으로 비정한다면 약 100 여년 후에 고대본이 만들어졌고, 그로부터 약 70년 뒤에 고대본의 주척 길이를 측정한 셈이다(1939년 4월 20일 자 『동아일보』에 1년 6개월에 걸쳐 최근 필사본을 완성했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다(정명현, 위의 글, 224쪽). 이를 토대로 추정한 고대본 필사 기간은 1937~1939년이다. 국립본과 고대본을 필자가 실측한 때는 2005년이다). 그 동안 세월을 겪으면서 일어났을 중이의 수축을 고려하면 서유구가 고증해낸 주척 길이는 주대의 주척값과 거의 일치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마지막 문장과 앞의 일부 내용은 『農政全書』 卷4 「田制」 ‘玄扈先生井田攷’(『農政全書校注』, 94쪽); 『임원경제지 본리지』 1, 73쪽에 비슷하게 나온다.

조¹⁶¹⁾가 북경에 갔다가¹⁶²⁾ 종이에 그려놓은 주척을 의랑^{議郎} 강천주의 집에서 얻어서 돌아왔다. 이것을 『가례부주』에서 반시거¹⁶³⁾가 확정한 주척과 서로 견주어보니, 조금도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비로소 척제를 정한 것이다. 무릇 천문에 필요한 누기^{漏器}¹⁶⁴⁾, 도로의 리리 수, 활터의 보법 등은 모두 이것에 의거하여 법식으로 삼았다.”¹⁶⁵⁾

臣嘗見臣傍祖文忠公臣居正所撰筆苑雜記云：“世宗朝，許文敬稱朝京¹⁶⁶⁾，得紙本周尺於議郎姜天霍家而歸¹⁶⁷⁾。與家禮附註潘時舉所定周尺¹⁶⁸⁾相校，不差分毫。於是始定尺制。凡¹⁶⁹⁾天文漏器·道路里數·射場步法，皆據此以爲式。”

1.2.12. 제 생각으로는 반시거가 정한 주척은 곧 사마광의 석각척^{石刻尺}입니다. 사마광의 석각척은 곧 순옥이 7종을 비교하여 만든 자이니, 이는 우리 동국만이 주척의 참된 도수를 얻게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161) 허조(許綸, 1369~1439): 권근^{權近}의 문인. 세자가 명명에 가는 길에 서장관으로 수행하면서 명의 제도를 자세히 조사하였다. 조선 초에 태종과 세종을 도와 예악제도를 정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162) 북경에 갔다가 : ‘朝京’을 옮긴 말이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허조가 홍무 계유년, 즉 1393년에 부친상을 당했을 때 종이에 그려놓은 주척을 얻었다고 했다. 『세종실록』 19년(1437) 4/15 그 주척은 원사 금강이 전한 상아척을 근거로 했다고 적고 있다. 이로 근거할 때 허조는 부친상 때라 북경을 간 적이 없었고, 오히려 강천주의 부친 강석^{姜碩}이 원나라에 간 적이 있다는 다음과 같은 기록만 있다. “상장군 강석을 원나라에 보내 천추절을 하례했다. 遣上將軍姜碩，如元賀千秋節。” 『고려사절요』 제26권 「공민왕恭愍王」 1 임진 원년(1352). 한국고전종합DB 참조. 이로 볼 때 『필원잡기』나 다른 기록에는 보이지 않는 ‘朝京’이라는 글자가 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다.

163) 반시거^{潘時舉}: 송대 주희의 제자.

164) 누기^{漏器}: 물시계 등 천문 연구에 필요한 기구.

165) 여기까지의 기록은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의 『筆苑雜記』 卷2의 여섯 번째 글을 토대로 썩었다. 하지만 서유구의 편집 과정에서 글자나 글의 순서가 바뀌고 원본에 없는 글자가 들어가면서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번역은 成百曉 譯註, 『譯註 四佳名著選』, 이희문화사, 2000, 330~331쪽도 참고했다. 이 기록은 이미 『세종실록』에도 나온다. 『세종실록』 19년(1437) 4/15.

다음은 『筆苑雜記』의 원문이다. “昔人於法度之器，必用周尺，而校定尺式，自古爲難。子朱子取司馬文正公家石刻本尺法，載之『家禮』。然『家禮』板本，行於世者不一，而周尺長短皆不同。亦難爲據。世宗時，許文敬公稱，求得陳友諒子陳理家廟神主式，假作尺本。又於議郎姜天霍家，得紙本周尺，乃其父判三司事姜碩第有元院使金剛所藏象牙尺所傳也。面書云：‘神主尺定式。’以今官尺，去二寸五分，用七寸五分。即與『家禮附註』潘時舉所云“周尺，當今省尺七寸五分弱”之語同。二本相較，不差。於是始定尺制。凡士大夫家廟神主，與天文漏器·道路里數·射場步法，據此以爲定式。後司諫院使趙忠佐赴京，買得新造神主來，復以此尺較之，寸分相合。今我國所用周尺，與中國同，無疑矣。” 『大東稗林』 卷29, 國學資料院, 1997, 94~96쪽.

166) 朝京: 『筆苑雜記』 없음.

167) 而歸: 『본』 即元院使金剛牙尺所傳也. 以今官尺去二寸五分, 用七寸五分, 當時官尺之制未詳.

168) 尺: 『본』 尺當今省尺七寸五分弱之語同二尺

169) 凡: 『본』 凡士大夫家廟神主與.

臣謂¹⁷⁰⁾潘時舉所定周尺,卽司馬備石刻之尺;司馬備石刻之尺,卽荀勗攷校七品之尺.是我東獨得周尺眞度也.

1.2.13. 대개 세종 때의 척제에는 5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주척, 둘째는 황종척, 셋째는 조례기척¹⁷¹⁾, 넷째는 영조척, 다섯째는 포백척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하는 자는 거의 없고, 오직 『경국대전』에만 다섯 종류의 자를 실어 도수를 서로 비교할 수 있게 했습니다.¹⁷²⁾

蓋世宗朝尺制有五,一曰周尺,二曰黃鍾尺,三曰造禮器尺,四曰營造尺,五曰布帛尺.而今鮮有傳者,惟經國大典載五¹⁷³⁾等尺,相準度數.

1.2.14. 그런데 관동 삼척부三陟府에 구리로 주조한 포백척이 있었는데, 그 뒷면에 “정통십일년십이월상정신조포백척正統十一年十二月詳定新造布帛尺”[세종 28

170) 臣謂: 『본』 今按.

171) 조례기척造禮器尺: 여러 공식 행사에 쓰이는 기구를 제조할 때 사용하는 자.

172) 이는 『경국대전』에 기록된, 다섯 종의 자 길이에 대한 상대적 비율을 설명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리킨다. “주척을 황종척에 맞추어보면 주척은 황종척의 0.606척이고, 영조척을 황종척에 맞추어보면 영조척은 황종척의 0.899척이고, 조례기척을 황종척에 맞추어보면 조례기척은 황종척의 0.823척이고, 포백척을 황종척에 맞추어보면 포백척은 황종척의 1.348척이다. 以周尺準黃鍾尺,則周尺爲六寸六厘以營造尺準黃鍾尺,則營造尺爲八寸九分九厘以造禮器尺準黃鍾尺,則造禮器尺爲八寸二分三厘以布帛尺準黃鍾尺,則布帛尺爲一尺三寸四分八厘(『經國大典』 卷6 「工典」 ‘度量衡’).” 황종척 1척을 기준으로 다른 네 종의 자의 상대값을 알려주는 내용이다. 이 글에 근거하면 다섯 종 중 한 종의 길이만 알아도 나머지 네 종의 자를 복구할 수 있다. 모두 황종척을 매개로 상대적 비율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주척을 순척과 같은 23.1cm로 상정하고서 『經國大典』에 언급된 자의 길이를 환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 이는 조선의 실제 유물과 도본 상의 실측 길이와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 李宗峯, 『韓國中世 度量衡制 研究』, 해안, 2001, 86~110쪽 참조.

<표5> 『經國大典』의 척도

주척	황종척	영조척	조례기척	포백척
23.1	$23.1 \div 0.606 \div 38.1188$	$38.1188 \times 0.899 \div 34.269$	$38.1188 \times 0.823 \div 31.372$	$38.1188 \times 1.348 \div 51.384$

한편, 조선의 실물과 도본의 실측 길이를 근거로 한 다음의 표도 참고가 된다. 여기서는 주척을 약 20.62cm로 파악했다. 李宗峯, 앞의 책, 86~110쪽을 참조 바람. 특히 표는 110쪽 참조. 단위는 cm.

<표6> 조선전기 척의 길이

주척	황종척	영조척	조례기척	포백척
약 20.62	약 34.48	약 30.8	약 28.63	약 46.66

173) 五: 『본』 各.

년(1446) 12월에 정확히 고정하여 새로 제작한 포백척]이라는 15자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영조 26년(1750)¹⁷⁴⁾에 이 자를 가져다가 『경국대전』에 기록된 도수에 의거하여 당시 쓰이던 척도를 바로잡았습니다.

而關東三陟府有銅鑄布帛尺,背刻“正統十一年十二月詳定新造布帛尺”十五字.英宗二十六年,取此尺,依經國大典所著度數,校正時用諸尺度.

1.2.15. 그러나 현재 시행되는 토지 측량[量田]과 거리 측량[量步]에 사용하는 주척이 모두 정확한 도수를 잃고 매우 짧아졌으니, 비교 기준이 실제값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허조가 얻은 종이본 주척이 순척의 참값이 아니었기 때문이겠습니까?¹⁷⁵⁾

然今行量田量步周尺,俱失之太短,豈校準之失其實耶¹⁷⁶⁾?抑許稠¹⁷⁷⁾所得紙本,非荀尺之眞度耶¹⁷⁸⁾?

174) 26년 : 16년의 오류이다. 후대에 여러 책에서 영조 26년(경오년)으로 잘못 기록하고 있어 서유구도 그 기록을 그대로 답습한 것 같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국가 재정 기록물인 『만기요람』에서도 “영조 경오년(1750년)에 우의정 유척기의 진달에 의해 삼척부에 보관된 세종조의 포백척을 가져다가 당시에 사용하는 여러 척도를 교정하여 중외에 반행하게 했다. 英宗庚午,因右議政俞拓基陳達,命取三陟府所藏世宗朝布帛尺,較正時用諸尺度,頒行中外.”라고 했다(심상규·서영보, 『만기요람』 「재용편」 4 “호조 각장 사례戶曹各掌事例” ‘판적사版籍司’). 영조 대에 활동했던 황윤석조차도 영조 26년으로 적고 있어서, 연도에 대해서는 영조 당대부터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世宗朝所頒銅尺今在三陟府,即布帛尺半據.背刻正統十一年(世宗二十八年丙寅)十二月詳定新造布帛尺,而柳馨遠隨錄記之,先是許穆已有所志矣.今上二十六年庚午(乾隆十五年.)用右議政俞拓基言,命取三陟所藏,依大典相準造周尺營造尺造禮器尺布帛尺及黃鍾尺,與時用諸尺相校,頒行中外.” 黃胤錫, 『願齋遺藁』 卷26 「雜著」 ‘國朝喪禮補編後本尺圖說’(<<叢刊>> 246, 585쪽). 이공익, 『연려실기술』 별집 제13권 「정교전고政敎典故」 ‘주척周尺’; 成海應, 『研經齋全集』 外集 卷62 「器量類」 ‘周尺攷’(<<叢刊>> 278, 136쪽); 成海應, 앞의 책, ‘古今尺度考’(<<叢刊>> 278, 152쪽) 등. 한편 이규경은 이 정보를 옳게 전했다. “英宗十六年庚申,頒布帛尺于中外.三陟府有世宗所造布帛尺,背刻正統十二年十二月詳定新造布帛尺.較今尺,長者減一寸,短者減五分.因俞拓基所奏,命頒于中外.”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人事篇 / 器用類」 “度量衡” ‘[0648]古今度量衡辨證說’.

『영조실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척기가 말했다. ‘세종 때의 포백척이 삼척부에 있으니, 해조(該曹, 즉 호조)에게 가져오게 한 뒤 최천약崔天若처럼 솜씨 좋은 자에게 『경국대전』의 치수에 따라 교정하게 하면, 황종척·주척·예기척·영조척도 다 그 제도에 맞아 차이 나지 않을 것이니, 완성되면 중외에 반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拓基言:‘世宗朝所造布帛尺在三陟府,令該曹取來,令巧手如崔天若者,依大典分寸較正,則黃鍾尺·周尺·禮器尺·營造尺皆可以得其制而不差,既成可頒布中外也.’上從之.” 『영조실록』 16년(1740) 4/5.

175) 영조 때, 세종 대에 제작했던 포백척을 토대로 『경국대전』에 나와 있는 비율에 맞춰 주척을 복구했다면 이 포백척은 구리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자의 마모나 수축은 없다고 봐야 한다. 제작 당시의 길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서유구 당대에 시행되는 양전척이나 양보척(量步尺, 거리측량 자)은 주척의 실제 길이보다 상당히 짧아졌다고 개탄했다.

176) 耶: 『본』 歟, 『행포지』 邪.

177) 稠: 『본』 文敬.

1.2.16. 반시거의 주척은 지금 알 수 없으나, 구준의 『가례의절』에 주척 그림이 있고 또 『가례의절』에, “『가례』의 책머리[卷首]에 예전에 반시거가 전한 사마광의 주척 그림이 있었다. 그런데 근래에 서점[書肆]에서 판각된 반시거의 『가례부주』 등의 책이 판본이 짧고 좁아져서 자도 이에 따라 짧아진 것이다.”고 했습니다.¹⁷⁹⁾

潘時舉¹⁸⁰⁾周尺,今不可詳,而¹⁸¹⁾丘濬家禮儀節有周尺圖,且曰:“家禮卷首,舊有潘時舉所傳司馬氏周尺圖¹⁸²⁾.近時書肆所刻附註等書,板本短狹,尺隨而短.”

1.2.17. 그래서 화천貨泉의 지름 길이를 교정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반시거의 자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故以¹⁸³⁾貨泉之徑校正云爾¹⁸⁴⁾,則其與潘¹⁸⁵⁾尺不相遠,可知也.

1.2.18. 지금 『가례의절』의 척도를 순척과 견주면 『가례의절』의 척도가 몇 푼 더 짧습니다. 이것을 양전주척(토지 측량에 쓰는 주척)과 견주면 양전주척이 0.06척 짧고, 또 양전주척으로 훈련원의 보수주척(거리 측량에 쓰는 주척)과 견주면 보수주척이 0.02척 짧고, 또 보수주척으로 수표교의 석각주척(돌에 새긴 주척)과 견주면 석각주척이 0.04척 짧습니다.¹⁸⁶⁾ 이것은 모두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어긋나고 잘못된 것이니, 세종시대에 길이를 표준화했던 제도를 회복한 것이 아닙니다.¹⁸⁷⁾

今以儀節尺¹⁸⁸⁾,校諸荀尺,則儀節短數分¹⁸⁹⁾,校諸¹⁹⁰⁾量田周尺,則量田周尺短六分;

178) 耶:『본』 歟.

179) “案:家禮神主制度,本伊川說,而無尺式.後人以潘時舉所得,司馬家二尺式圖於卷首.其一,三司布帛尺一,即周尺也.近時書肆刻附註等書,以板本短狹之故,而所畫之尺亦隨之而短.雖其旁書曰:當今三司布帛尺,七寸五分弱.今世之人,豈識三司尺爲何等尺哉.唯鄭森所刻家禮今本在南.監者橫書尺式最爲得體,但亦無所準則,今以武林應氏圖及以貨泉錢較定周尺,而準以今之鈔尺,使作主者,有所據依云.” 丘濬,『家禮儀節』卷1.

180) 舉:『본』 舉所傳.

181) 而:『본』 而唯.

182) 尺圖:『본』 尺.

183) 以:『본』 以武林應氏及.

184) 正云爾:『본』 云爾.

185) 潘:『본』 潘氏所傳之.

186) 柳馨遠,『礪溪隨錄』卷2「田制」下「諸本周尺附」.

187) (1.2.11~18)은 『杏菴志』卷1「田制」(『農書』36, 앞의 책, 29~33쪽); 『임원경제지 본리지』1, 90~94쪽에 나온다.

又¹⁹¹⁾以量田周尺校訓鍊院步數周尺,則步數周尺短二分;又以步數周尺校水標橋石刻周尺,則石刻周尺短四分.皆轉輾訛舛,非復世宗朝同律度之制.

1.2.19. 그리고 지금 시행되는 양전척이 주척으로 4.775척이라는 것도 실제로는 주척으로 4척 내외에 불과할 뿐입니다.

而今所行量田尺之爲周尺四尺七寸七分五釐云者,其實不過周尺四尺左右而已.

1.2.20. 1척의 오차라면 분이나 촌으로 다투겠지만, 1묘의 오차라면 몇 십, 몇 백 척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1묘의 오차라면 100척으로 다투겠지만, 1경의 오차라면 몇 천, 몇 만 척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것이 척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一尺之差,爭以分寸,而一畝之差,不知其幾十百尺;一畝之差,爭以百尺,而一頃之差,不知其幾千萬尺.此尺法之亟宜改正者也.

1.2.21. 옛 제도에서는 6척이 1보였고, 지금의 제도에서는 5척이 1보입니다. ‘보’라는 말이 두 발을 평탄한 곳에서 옮긴다는 뜻이니, 고금에 어찌 그 길이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만 진·한대 이전에는 척도의 차이가 짧았기 때문에 6척을 1보로 했고, 육조 시대에 와서는 척도의 차이가 길어졌기 때문에 5척을 1보로 했을 뿐입니다.

古以六尺爲步,今以五尺爲步.夫步之爲言,兩足平移之謂也,安有古今大小之異哉?特以秦漢以前,尺度差短,故六尺爲步;降及六朝,尺度差長,故五尺爲步.

1.2.22. 척의 수에서 남거나 척의 길이에서 남는다면¹⁹²⁾, 두 발을 평탄한 곳에서 옮기는 1보는 6척이 되든 5척이 되든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자로 재면 6척을 1보로 해야 하고, 지금 자로 재면 5척을 1보로 해야 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법상法象이라, 교묘한 지혜로 올리거나 내릴 수 없습니다.

188) 尺: 『본』 尺度

189) 儀節短數分: 『본』 短數米

190) 諸: 『본』 諸柳馨遠礪溪隨錄所圖

191) 又: 『본』 없음.

192) 척의~남는다면: ‘척의 수에서 남는다.’는 것은 6척이 5척보다 크다는 것을 암시하고, ‘척의 길이에서 남는다.’는 것은 5척 1보짜리 자가 6척 1보짜리 자보다 길이가 길다는 것을 암시한다.

蓋畸於尺之數，而贏於尺之長，則其爲兩足平移之一步，六尺五尺一也。是以尺用古尺則當以六尺爲步，尺用今尺則當以五尺爲步，此卽自然之法象，不可以智巧低仰者也。

1.2.23.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척으로 재면서도 5척을 1보로 하고 있으니, 이야말로 오리 발자국을 세어 학 걸음의 길이를 헤아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1보를 쟈 때마다 1척 차이가 나고 100보를 쟈 때마다 100척 차이가 나서, 정해진 보법이나 묘법이 모두 오류 덩어리라 주나라의 고법도 아닐뿐더러 육조시대의 신법도 아닙니다.¹⁹³⁾ 『경국대전』에 “우리나라의 각 등급의 농지 1결이 중국 농지의 몇 묘에 해당한다.”¹⁹⁴⁾고 실린 수치는 모두 실제 넓이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보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我國尺用周尺，而以五尺爲步，是何異於數鳧跡而料鶴步之長短哉？每一步輒差一尺，每百步輒差百尺，而所定步法畝法一切差謬，既非姬周之古法，又非六朝以後之今法。經國大典所載“我東各等田一結準中國幾畝”云者，皆非其實積。此步法之亟宜改正者也。

1.2.24. 척법이 정해진 뒤에야 보법을 말할 수 있고, 보법이 정해진 뒤에야 묘법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옛 법에서는 100보를 1묘로 했고, 지금 법에서는 240보를 1묘로 했습니다.

尺法定而後可以言步法矣，步法定而後可以言畝法矣。古以百步爲一畝，今以二百四十步爲一畝。

1.2.25. 제 견해로는, 100보를 1묘로 하는 제도를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우리나라는 산천이 에워싸고 있어서 백 리·천 리가 되는 평야가 드뭅니다. 그러니 농지를 구획하는 제도도 단위를 작게 해야지, 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땅 넓이의 수치가 작으면 알아보기 쉬운 반면, 땅 넓이의 수치가 크면 조사나 환산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臣獨謂當用百步爲畝之制者。蓋以我國山川縈紆，鮮有百里之坪千里之野。分田之制，宜小不宜大也。且地面小則識認爲易，地面廣則查准未易也。

193) 6척 1보든, 5척 1보든, 보법의 길이 차이는 없다고 인식한 서유구는, 조선에서의 모순이 척법은 고법을 받아들이고 보법은 신법을 썼다는 데 있음을 지적한다. 주척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마땅히 6척을 1보로 삼아야 하고, 5척을 1보로 삼았다면 마땅히 육조시대 이후의 길어진 자를 1척으로 삼았어야 하는데 그도 저도 아니게 제도가 엉켜있다는 지적이다.

194) 『經國大典』 卷2 「戶典」 ‘量田’. 위의 (1.1.4)에 그 내용이 나온다.

<제2목 해설>

경묘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양전척 통일이 급선무였다. 서유구가 제안한 양전척은, 앞서 제시했다시피 주척 6척을 1척으로 삼은 자이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주척 1척의 길이를 확정해야 했다. 주척은 중국 제도의 전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주나라에서 사용했던 자로,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척도의 표준이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 주척 제도가 사라지면서 주척의 실제 길이를 찾기가 어려워졌다. 중국 주나라의 고제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중국과 조선에서 역사적으로 반복적으로 있었는데, 그때마다 도량형의 기준이 되는 주척을 복원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서유구는 농정의 가장 기초적인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나아가 농사를 제대로 짓기 위해서, 주척 복원을 급선무로 여겼다. 그의 저작 <<임원경제지>>의 첫 내용이자, 『본리지』 권1의 맨 첫 내용이 바로 이 주척의 제도를 추적하는 데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가 척법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하게 인지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그는 “농지를 관리하려면 먼저 과거와 현재의 묘법을 잘 알아야 한다.”¹⁹⁵⁾고 했고, “예전의 보법步法은 6척이 1보였고 지금의 보법은 5척이 1보이다. 이 때문에 고금의 묘법을 잘 알려면 먼저 고금의 보법을 잘 알아야 한다.”¹⁹⁶⁾면서, 결국 “고금의 보법을 잘 알려면 먼저 고금의 척법을 잘 알아야 하는 것”¹⁹⁷⁾이라고 결론지었다. 그 바탕에는 바로 이 척법·보법·묘법이 주척을 기본 단위로 확장되는 동일한 척도 단위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었다. 이 같은 인식으로 서유구는 주척의 실제 길이가 무엇인지를 고구하는 매우 치밀하고 자세한 논설을 쓰기도 했다.¹⁹⁸⁾

주척이 주나라에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서유구는 주로 『주례周禮』에 근거하여 논의했다. 『주례』 「소사도小司徒」에서 정井 단위로 땅을 구획한 것,¹⁹⁹⁾ 『주례』 「지관사도地官司徒」 ‘수인遂人’에서 말한 논밭의 사잇길

195) “治地宜先明古今畝法.” 서유구, <<임원십육지>> 1 『본리지』 권1 「토지제도」 “경묘법과 결부법” ‘과거와 현재의 묘법’(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임원경제지 본리지』 1, 45쪽).

196) “古之步,六尺爲步;今之步,五尺爲步.故欲明古今畝法,先明古今步法.” 위와 같은 곳(위의 책, 47쪽).

197) “故欲明古今步法,先明古今尺法.” 위와 같은 곳(위의 책, 47쪽).

198) 『杏菴志』 卷1 「田制」(『農書』 36, 7~41쪽); 서유구, <<임원경제지>> 1 『본리지』 권1 「토지제도」 “경묘법과 결부법”(위의 책, 65~76쪽).

199) “經土地而井牧其田野.九夫爲井,四井爲邑,四邑爲丘,四丘爲甸,四甸爲縣,四縣爲都.以任地事,而令貢

[徑畛],²⁰⁰⁾ 『주례』 「고공기考工記」에서 말한 논밭의 도랑규격[伐畝, 벌건],²⁰¹⁾ 사마법司馬法에서 100묘를 1부夫로 삼고 3부를 1옥屋으로 삼은 것²⁰²⁾ 등에서 주척이 사용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²⁰³⁾ 주나라에서 사용된 주척 제도를 서유구는 고법古法이라 했다.

주척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사라졌고 도량형 제도도 바뀌었다. 서유구는 그러나 한대까지는 대체로 주척을 복구하여 주척 제도를 활용했다고 보았다.²⁰⁴⁾ 한대 이후로 주척이 전하지 않으면서 주척 길이에 대해 많은 이견들이 생겼는데, “검정 기장에서 구한 것, 손가락 마디를 기준으로 한 것, 벼 까끄라기 10개를 1촌으로 삼은 것, 머리카락 10개를 1푼으로 삼은 것” 등이 그것이었다.(1.2.2)

서유구는 서광계의 『농정전서』에 수록된 글을 참고로 하여 이 중에서 진짚의 태시 연간에 활동했던 순욱(荀勖, ?~289)이 복구해낸 자, 즉 ‘순척荀尺’이 주척과 부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순척은 3세기 당시에 남아 있던 7가지 유물로 고증하여 제작된 자로, 이후 수나라 때 15등급의 자를 나열하면서 이 순척을 주척 등과 같은 등급에 놓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바로 순척이 주척의 참값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고 서유구는 인정했다.(1.2.3~4)

그 뒤로 척도가 자주 변하면서 순척도 전하지 않게 되었다. 송대 인종仁宗 때 한림학사 정도(丁度, 990~1053) 등은 한대에 제조한 것으로 당대까지 남아있던 화폐, 즉 착도錯刀·대천오십大泉五十·화포貨布·화천貨泉 등의 치수를 기준으로 주척 도수를 얻을 수 있다고 건의했고, 이 말에 착안하여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이 석각척(石刻尺, 돌에 새긴 주척)을 만들자 주희(朱熹, 1130~1200)와 채원정(蔡元定, 1135~1198)도 모두 석각척의 도수를 따랐다고 한다. 서광계는 이 때가 되어서야 주척의 도수가 확정되었다고 보았는데, 이 학설을 서유구도 받아들였다.(1.2.7) 착도나 대천오십 같은 한대의 화폐는 명나라 주재육(朱載堉,

賦.”『周禮注疏』卷11「地官司徒」‘小司徒’.

200) “凡治野,夫間有遂,遂上有徑.十夫有溝,溝上有畛.百夫有洫,洫上有涂.千夫有澮,澮上有道.萬夫有川,川上有路,以達于畿.”『周禮注疏』卷15「地官司徒」‘遂人’.

201) “爲溝洫,相廣五寸,二耜爲耦.一耦之伐,廣尺深尺,謂之畝.田首倍之.廣二尺,深二尺,謂之遂.九夫爲井,井間廣四尺,深四尺,謂之溝.方十里爲成,成間廣八尺,深八尺,謂之洫.方百里爲同,同間廣二尋,深二仞,謂之澮,專達於川,各載其名.”『周禮注疏』卷42「冬官考工記」‘匠人’.

202) 이와 관련된 『사마법』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六尺爲步,步百爲畝,畝百爲夫,夫三爲屋,屋三爲井,井十爲通,通十爲成,成十爲終,終十爲同.”

203) 서유구, <<임원경제지>> 1 『본리지』 권1 「토지제도」 “경묘법과 결부법” ‘과거와 현재의 묘법’(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임원경제지 본리지』 1, 45쪽).

204) 『임원경제지 본리지』 1, 65쪽.

1536~1611)이 지은 『율려정의律呂精義』에, 한나라 건무 연간의 구리자는 청나라 옹방강(翁方綱, 1733~1818)이 지은 『양한금석기兩漢金石記』에 그 그림이 실려 있었다. 서유구는 이 중 자신이 소장하던 화천 1개로 주척을 고증해내기도 했다. 화천은 지름이 0.1척인 동그란 동전으로, 10개를 나란히 놓으면 1척이 된다. 서유구는 이 화천을 『율려정의』에 실린 동전 그림, 『양한금석기』에 실린 구리자 그림과 비교해보고서 실물과 부합함을 확인했던 것이다. 이로써 그는 순척의 값을 알았고, 이 값을 바로 주척의 도수로 간주했다.(1.1.8~10)

이렇게 중국 문헌에서 주척을 고증한 서유구는 조선에서 주척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서유구의 방계 조상이기도 한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의 『필원잡기筆苑雜記』를 인용하여 조선에 주척이 도입된 유래를 소개한 것이다. 이는 세종 때 허조(許稠, 1369~1439)가 종이에 그려놓은 주척을 의랑 강천주라는 사람에게서 얻었는데, 이 종이 주척이 반시거潘時舉의 『가례부주家禮附註』에 실린 주척과 일치했으며 이로써 주척의 제도가 정해졌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서유구는 반시거가 정한 주척은 사마광의 석각척이고, 이 석각척은 순척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만이 주척의 정확한 도수를 얻었다고 확신했다.(1.2.11~12) 중국에서도 얻지 못했던 주척의 참값을 세종 대에 얻었다고 믿은 것이다.

서유구는 이어 세종 대의 척제尺制에는 주척, 황종척, 조례기척, 영조척, 포백척의 5가지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당시까지 남아 있는 유물은 거의 없고 『경국대전』에서만 이 다섯 종류 자를 싣고서 각각의 상대적 비율을 알려주고 있다고 했다. 이렇게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세종 대 유물 중 당시까지 전해진 유일한 유물이 관동의 삼척부三陟府에서 발견한 포백척이었다. 이 자는 구리로 제조되었고 자 뒷면에 “정통 십일년 십이월 상정 신조 포백척正統十一年十二月詳定新造布帛尺”이라는 15자가 또렷이 새겨있었다. 이는 “세종 28년(1446) 12월에 정확히 고정하여 새로 제작한 포백척”이라는 뜻이다. 1446년이면 공법을 제정한(1444) 2년 뒤였다. 영조 때(1740년)에는 이 자로 『경국대전』에 기록된 도수에 의거하여 척도를 바로 잡기도 했다.(1.2.14~15) 당시 우의정 유척기(兪拓基, 1691~1767)가 유형원의 『반계수록』에 수록된 삼척부 포백척 얘기를 보고서 이를 건의한 것이다.²⁰⁵⁾ 이 포백척은 세종 대에는 흔하던 자 중 하나였을 것이다.

205) “臣曾見古人文集,則江原道三陟府,尙有世宗朝所造布帛尺云,故臣因人以木依樣造成見之,則其背刻,以正統十一年十二月詳定新造布帛尺云矣.” 『비변사등록』 영조 16년(1740) 4/7. 이 글에서 ‘고인

이후 난리와 전란을 자주 겪으면서 모두 소실되고 유일하게 남은 유물이었지만 유형원은 이 자에 관심을 갖지 않은 세대를 한탄했다.²⁰⁶⁾

서유구가 이렇게 집요하게 주척 1척 길이를 따지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조선의 문물제도의 모델을 중국 문물제도의 근간으로 받아들였던 주나라에서 찾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도량형 제도 역시 고대 성왕이 만들었다고 믿었던 주나라 제도를 따르려 했다. 세종이 공법을 제정하면서 계지척 대신에 주척을 기준으로 삼으려 했던 시도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당연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표준척은 주척이라는 인식은 당대 지식인들에게는 보편적인 것이었다.

서유구가 주척의 원형을 추구한 또 다른 이유는 『의상경계책』에서 주장하는 핵심 농법인 견종법이 바로 주나라 정전제도에서 시행된 농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견종법을 시행할 때는 중국에서 대전법을 시행할 때도 그랬던 것처럼 주척의 치수에 맞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식이 그에게는 아주 강했다. 주척으로 측량된 농지여야만 견종법이 고제에 맞게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주나라 자의 원형을 찾으려 했고, 설령 원형을 찾지 못해도 새 자는 주척 기준의 오차가 적을수록 좋았던 것이다. 당시 통용되는 주척이 표준척의 주척과의 오차가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큰 단위에 적용할수록 그 오차는 엄청나게 커지지 때문이다. 이것이 척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했다.(1.2.20)

이와 같이 척법을 정한 뒤에는 보법步法을 정해야 한다. 6척을 1보로 삼기도 하고, 5척을 1보로 삼기도 했던 보법의 역사를 거론하며, 서유구는 6척 1보 제도가 고법(주나라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따르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은 조선에서 주척을 회복했으면서도 신법을 따르는 모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그에 따르면 6척을 1보로 삼든 5척을 1보로 삼든 1보의 길이는 같다. 이는 6척을 1보로 삼았을 때의 1척 길이에 비해 후대로 오면서 5척을 1보로 삼았을 때의 1척 길이가 더 길어졌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그 결과 6척 짜리 1보나 5척 짜리 1보의 길이는 같다는 것이다.('1.2.23'의 주 참조) 예를 들어 육조

의 문집'은 『반계수록』임이 틀림 없다. 당시 이미 『반계수록』의 내용이 알려져 있었고 많은 이들이 이 책을 읽었는데, 삼척부 포백척에 대한 조사는 『반계수록』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206) “此乃今三陟府所藏銅鑄世宗朝布帛尺,半其所刻,年號月日俱在.製造極精,細入秋毫.蓋當時既齊律度,鑄銅尺遍藏於各司各邑史庫名山,而屢經兵亂,今無存者,唯幸保於此府.人亦視爲尋常,未久又將埋沒,可歎.” 柳馨遠,『礪溪叢錄』卷2「田制」下「諸本周尺附」.

시대 이전의 주척 길이는 23.1cm였으므로 1보는 138.6cm인데, 서유구의 주장을 따르면 이 길이가 육조시대 이후의 신법에서는 주척 5척의 길이와 같으므로 신법의 주척은 고법의 주척보다 4.62cm가 늘어난 27.72cm가 된다. 그의 이 같은 주장은, 『수서』 「율력지」에 실린 15등급의 자를 미터법으로 환산한 값을 볼 때 ‘후위의 중기자’나 ‘후주의 옥자’, ‘만보상의 수척’ 등이 이에 가까운 값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크게 어긋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1.2.4’의 주 참조)

서유구에 따르면, 이렇게 척법과 보법을 확정한 뒤에 묘법畝法을 말할 수 있다. 묘법 역시 고법에 근거한 100보 1묘와 신법에 근거한 240보 1묘 두 방식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세종이 정했던 규정인 240보 1묘를 따르고 있었다. 서유구는 역시 고법으로 일관하여 100보 1묘의 제도를 따르자고 했다. 조선의 산천이 넓은 평야가 드물어서 농지를 구획하는 단위를 작게 하는 것이 업무의 편리를 위해서도 좋고 양전을 위한 조사나 단위 환산의 용이성을 위해서도 좋기 때문이라 하여 고법을 따라야 하는 이유를 조선의 상황에 근거하여 설명했다.(1.2.25) 물론 이 배경에는 주나라 고제를 따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렇게 척과 보를 바르게 해야, 주척 6척을 1보로 삼고(1보가 양전척 1척이 된다), 100보를 1묘로 삼고, 100묘를 1경으로 삼는 경묘법의 표준화가 완성된다.

제2장. 『의상경제책』의 전정론 2(양전법) : 『의상경제책』 상권

2.1. 제2장 ‘양전법에서 서둘러 강구해야 할 세 가지’

제2장에서는 경묘법을 현실화하는 방법으로, 양전을 시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서유구의 제안을 소개한다. 그는 먼저 방전법으로 농지를 크게 구획하여 계산하고 방전법으로 계산할 수 없는 자잘한 폐기(구획된 농지)는 농지 넓이를 계산하는 법을 미리 익힐 수 있도록 예제를 제시했다. 이어 이 같은 양전 실무가 정확하고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양전 전담 기관을 설치하여 지방관의 양전 성과를 관리·감독하자고 제안한다. 방전법은 조선에서 숙종 대에만 시행된 양전 법이었으나 논란이 많이 일어 그 뒤에 더 이상 쓰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 논자는 정확한 양전을 위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방전법이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되었으며 그 효과가 어떤 것이었기에 양전 정책의 논란의 중심이 되었을까.

2.1.1. 제1목 ‘방전법을 써서 은닉한 땅을 찾아내기’

2.1. 방전법을 써서 은닉한 땅을 찾아낸다

2.1.1. 양전법에서 서둘러 강구해야 할 것이 세 가지입니다.

量法之亟宜講磨者三.

2.1.2. 첫째는 방전법을 써서 은닉한 땅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一曰用方田以括隱漏:

2.1.3. 제가 삼가 조사해보니 숙종 27년(1701)에 황해도 농지를 개량할 때, 관찰사 유집일이 방전법을 모두 써서 양전을 했습니다. 이때 논자들은 농지를 찾아내는 좋은 방법이라며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비방에 가로막혀 겨우 서너 읍을 양전하다 그만두었습니다.

臣謹稽肅廟二十七年,改量海西之田,道臣兪集一諸用方田法量之.論者頗稱其括田之良法.未幾,格於謗議,董量三四邑而止.

2.1.4. 그 뒤에 평천군 신완(1646~1707)이 방전법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라는 상소를 올렸습니다.²⁰⁷⁾

是後平川君申琬陳疏請推行其法於八路.

2.1.5. 상소의 개략은 다음과 같습니다.²⁰⁸⁾ “제가 유집일의 구정양법丘井量法の 어린도책과 토지대장을 보니 절목이 상세하고 꼼꼼했으며, 세금은 극히 균등하게 분배했습니다. 돈대墩臺를 세워 방향을 정하고 각자가 측량하니 열흘에서 한 달 사이에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는 이전의 양전법에 견줄 때 일은 반으로 줄고 효과는 배나 되는 결과입니다.

其略曰:“臣見兪集一丘井量法圖帳,節目詳密,分稅極均.設墩定方,各自打量,畢役於旬朔之間.比前量法,事半功倍.

2.1.6. 구丘와 정井에 따라 길의 리 수를 계산해보면, 한 읍에서 동서남북의 거리나 산천, 농지, 들판의 형세가 두 눈썹이 나란하듯 손바닥을 가리키듯, 어린도책과 토지대장만 한 번 펼쳐 보아도 한눈에 환히 들어옵니다. 그리하여 이 방전법이 간편하여 전국에서 시행할 만하다고 비로소 믿었습니다.”

因其丘井,推步道里,則一邑之中,東西南北之遠近,山川田野之形勢,有若列眉指掌,一展圖帳而瞭然目中.始信此法之簡便,可行於八路.”

2.1.7. 또 황해도 어사의 보고서에 기록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인용했습니다.²⁰⁹⁾ “예전의 양전법은 5종의 농지 형태²¹⁰⁾만을 기준으로 하여 길이와 너비에 따랐기

207) 우의정이었던 신완이 숙종에게 바친 차자와 책자 내용은, 『숙종실록』 28년(1702) 8/11에 요약되어 있고 그 원문은, 申琬, 『綱菴集』 卷4, 「疏筭」 “進八條萬言封事冊子筭” ‘八條萬言封事’에 나온다. 본문은 신완이 올린 8조목 중 제8조 ‘정경계(正經界, 경계 바꾸기)’ 조에 나오는데, 그 분량은 전체의 10퍼센트 정도(2,822자/25,921자 = 10.9%)를 차지하는 많은 양이다. 여기에서도 역시 『맹자』의 “仁政必自經界始”라는 말을 맨 앞에 제시했다. 글자 수는 한국고전종합DB 원문에 근거함.

208) 이 글에서 아래의 서명균의 주청까지는 정약용, 『경세유표』 권26 「전제별고」 ‘어린도설’(『역주 경세유표』, 720~723쪽) 참조. 『경세유표』에는 강원도 양전을 했던 1709년에 신완의 글이 제출된 것으로 적혀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

209) 황해도 어사가 누구인지 언제 이 보고서를 올렸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에 측량법이 곳에 따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측량한 뒤에도 잘잘못을 살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측량하거나 등급을 매길 때, 농지의 넓이와 등급의 수준이 모두 서리의 손에서 결정됩니다. 뇌물은 쉽게 건너가고 간사한 사기도 막기 어려운 이유인 것입니다.

又引海西御史書啓曰：“舊時量法，只以五等田形，隨其長短廣狹，而尺量之法，隨處變改。既量之後，善與不善，未易尋考。故尺量分等之際，盈縮高下一切委諸胥吏之手。所以賄賂²¹¹⁾易行，姦僞難防也。

2.1.8. 하지만 이 방전법은 돈대를 만들어 쏘대를 세웠기에 정연하여 문란하지 않고 임야나 하천 및 못·저수지도 모두 아우르게 됩니다. 한 방方 안에는 사람들 각각의 농지가 있어서 토질의 등급과 농지의 넓이를 각자가 올바르게 분변하므로 낮추거나 올리는 일, 가볍게 하거나 무겁게 하는 일이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방전법이 실제로 간사한 사기를 막는 좋은 방법이고 부역을 고르게 하는 아름다운 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今方田之法，設墩立標，井井不紊，山林川澤皆入範圍。一方²¹²⁾之內，人各有田，²¹³⁾土品之高下·結負之多少，各自辨正，而低昂輕重，取決於衆人之口。以此知方田實爲防姦²¹⁴⁾之妙法·均役之美制。”

2.1.9. 또 영조 11년(1735)에 좌의정 서명균(1680~1745)²¹⁵⁾이 다음과 같이 주창 드렸습니다.

“예전에 황해도 양전 때 관찰사 유집일이 방전법을 썼는데, 새끼로 그물처럼 엮어 양전을 했습니다. 이 법을 만들어 쓰던 초기에는 비방이 떠들썩하게 일어나

210) 5종의 농지 형태: 양전할 때 양안에 등록하는 5가지 농지 유형인 방전(정사각형 농지)·직전(직사각형 농지)·제전(사다리꼴 농지)·규전(삼각형 농지)·구고전(勾股田, 직각삼각형 농지)을 말한다. “田形各異，名色易眩，故只以人所易知方田·直田·梯田·圭田·勾股田五名色打量錄案。方田，方自乘；直田，長廣相乘；梯田，大小頭相併折半，以長乘之；圭田，長濶相乘折半；勾股田，勾股相乘折半，各爲田積。”『만기요람』「재용편」 2 “전결田結” ‘양전법’.

211) 賂: 『의상경계책』 賂.

212) 方: 『연려실기술』, 『경세유표』 墩.

213) 이 뒷부분의 글이 편집되었다고 『경세유표』에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부분은 『경세유표』와 『목민심서』의 편집 방식과 유사함.

214) 姦: 『경세유표』 奸.

215) 아버지는 영의정을 지낸 서종태(徐宗泰, 1652~1719)이며, 아들은 영의정을 지낸 서지수(徐志修, 1714~1768)(志修)로 3대가 정승을 지냈다. 증조 서정리(徐貞履, 1599~1664)의 자손에서 갈라진 서유구는 서명균의 8촌 손자가 된다.

겨우 서너 읍만 측량하고 그쳤습니다. 하지만 측량이 이루어진 읍에서는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편리하다고 칭송한답니다.”

英宗十一年,左議政徐命均奏曰:“昔年海西量田時,道臣兪集一用方田法,以藁索結網量田.初設之初,謗言喧騰,量三四邑而止.既量之邑,民至今稱便.”

2.1.10. 이런 몇 가지 설에 의거하면 방전법이 이미 효과를 시험한 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만, 전국에 확대 시행하지 못한 일이 애석합니다.

據此數說,可知方田之爲已試有效之法,而惜乎其不能推廣於八路也.

2.1.11. 제 생각으로는 비변사에 당시의 보고서 원본이 반드시 있을 테고, 황해도 감영 읍에 이 일을 거행할 때의 살펴볼 만한 장부가 있을 테니, 묘당에서 가져다가 상세히 검토하게 하십시오. 과연 쓸 만하면 이번 남도의 양전²¹⁶⁾에 앞서 조례를 논의 후 정하고 관찰사에게 반포하십시오.²¹⁷⁾ 관찰사가 이를 잘 살펴 시행하면 이것도 간소한 사기를 그치게 하고 농지를 고르게 나누는 하나의 방도가 될 것입니다.

臣謂籌司必有當時啓本,海西營邑必有舉行簿錄之可考者,願命廟堂取而看詳.如果可用,迨此南路量田之前,講定條例,頒之道臣.使按而行之,則亦戢姦均田之一道也.

2.1.12. 더러는 송나라 회녕 연간(1068~1077)에 방전법을 정하여 10년 동안 시행했다가 천하에 소요가 일었고, 송녕 연간(1102~1106) 초에 다시 방전법을 시행했지만 역시 복잡하고 난잡하다 하여 그만 두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이를 본받을 수 있겠느냐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或謂宋熙寧中,定方田法行之十年,天下騷擾,崇寧初復行方田法,亦以煩擾罷,今何可效之.

2.1.13.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송나라의 방전법은 동서남북으로 각각 1000보인데, 41경 66묘 160보²¹⁸⁾에 해당하며 이를 1방方으로 합니다. 네 모퉁이에 흙을 쌓아 봉분[烽]을 만들고 거기에 이 땅에서 잘 자라는 나무를

216) 영호남 양전임을 알 수 있다.

217) 전국적인 양전에 앞서 양남에서 먼저 시행하기로 했다. 金容燮, 『韓國近代農業史研究』 I, 336쪽.

218) $1000 \times 1000 = 41\text{경 } 66\text{묘 } 160\text{보}$: $41(\text{경}) \times 2,4000(\text{보}) + 66(\text{묘}) \times 240(\text{보}) + 160(\text{보}) = 100,0000(\text{보})$

심어 경계를 표시합니다. 여기에 백성이 고생하고 많은 이들이 동원된 것은 분명합니다.

臣以爲不然。宋制方田法，²¹⁹⁾以東西南北各千步，當四十一頃六十六²²⁰⁾畝一百六十步爲一方。而四角立土爲埒，植所宜木以封表之。其勞民動衆固也。

2.1.14. 제가 말씀드린 유집일의 방전법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노끈 측량법에 근거하여 약간 변통한 것에 불과합니다. 1방마다 1~2경에 그칠 뿐이니 회녕·승녕 연간의 제도와 이름은 같아도 크기는 비교가 안 됩니다.

臣所言俞集一方田法，不過因今行繩量之法而稍變其制。每一方止一二頃而已，則與熙寧崇寧之制，名雖同而大小不侔矣。

2.1.15. 게다가 제가 듣기로, 잘 버린 기구가 있어도 서툰 장인이 쓰면 손가락에 피 나고 얼굴에 땀 나며, 훌륭한 법이 있어도 게으른 관리가 운용하면 정사가 소홀히 되어 폐단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송사』를 살펴보니 신종(1067~1085 재위)·취종(1100~1125 재위)의 치세에 시행한 까닭을 알 수 있었습니다.

且臣聞‘雖有利器，庸工用之則血指而汗顏；雖有良法，窳吏用之則政慢而弊起’。考之宋史，而神·徽之世所以施措者可見矣。

2.1.16. 대관 4년(1110)에 조칙에서 “방전을 담당하는 관리가 농지세를 마음대로 올렸을 뿐 아니라, 부처 먹을 수 없는 산까지 넣어 방전을 만들고서 꼴풀 샷까지 내라고 한다.”²²¹⁾고 했습니다.

大觀四年，詔曰：“方田官吏，非特妄增田稅，又兼不食之山而方之，俾出芻草之直。”

2.1.17. 또 대관 5년(1111)에는 신하들이 말씀을 올리기를 “조정에서 방전법을 시행한 초기에는 외직 관리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예전에 관리하던 세액 외에 세금의 액수를 늘려 이를 ‘축잉(蓄剩)’이라 불렀습니다. 이런 세금이 한 읍

219) 丁若鏞, <<與猶堂全書>> 『經世遺表』 卷六 「地官修制」 ‘田制五’에 자세한 원문이 있다. 이는 『文獻通考』 卷四 「田賦考」 4 ‘歷代田賦之制’에 나오는 내용과 같다. 하지만 여기의 원문과는 차이가 있다.

220) 六: 『의상경계책』 一.

221) “大觀二年復詔行之。四年罷其稅賦依未方舊則輸納。十一月詔方田官吏非特妄增田稅，又兼不食之山而方之俾出芻草之直。民戶因時廢業失所監司其悉改正毋失其舊” 『宋史』 卷174 「食貨志」 第127 ‘食貨上2’.

에서만도 몇 만 건이나 됩니다.”²²²⁾라고 했습니다.

五年臣僚上言:“朝廷推行方田之初,外路官吏不遵詔令,輒於舊管稅額之外,增出稅數,號爲蹙剩,有一邑之間至數萬者.”

2.1.18. 선화 원년(1119)에 신하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전법을 달성했다고 보고한 곳은 6개의 주州에 불과하고, 방전 측량을 책임진 관리들은 걸어 다니는 일을 싫어하여 논밭 두령을 몸소 돌아다니지 않고 모두 서리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200여 묘가 방전으로 20묘가 되거나, 2경 96 묘가 방전으로 70묘로 된 경우가 있습니다. 또 13전이던 세금이 2관貫 200전까지 오른 경우도 있습니다.”²²³⁾

宣和元年,臣僚言:“方田告成者六路,而方量官吏憚於跋履,並不躬行阡陌,一任之胥吏.有二百餘畝方爲二十畝者,有二頃九十六畝方爲七十畝者,有租稅一十三錢而增至二貫二百者.”

2.1.19. 이토록 관리는 교활하고 세금이 무거운데, 어찌 떠돌이나 도망자가 날이 갈수록 많아지지 않겠으며, 어찌 원망이나 탄식이 폐거리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어찌 방전법의 잘못이라 하겠습니까!

吏猾而賦重也如此,流亡安得不日多?怨咨安得不朋興?是豈法之罪哉!

2.1.20. 송나라 경우 연간(1034~1037)에²²⁴⁾ 왕소와 구양수의 간언에 따라 대리 사승大理寺丞 곽자를 채주蔡州에 파견하여 1천 보 단위를 쓰는 방전법으로 누락된 농지를 찾아냈는데, 그 농지가 한 현에서 2,6930여 경頃이나 되었고 이에 대한 세금을 백성들에게서 받아냈습니다.²²⁵⁾

宋景祐中,用王素·歐陽脩言,送大理寺丞郭諮于蔡州,以千步方田法括田,一縣得田二萬六千九百三十餘頃,之²²⁶⁾其賦於民.

222) 『文獻通考』卷五「田賦考」五「歷代田賦之制」; 丁若鏞, <<與猶堂全書>> 『經世遺表』卷九「地官修制」‘田制別考’一 方田始末(『역주 경세유표』, 682~683쪽).

223) 『宋史』卷174「食貨志」第127「食貨上2」; 『文獻通考』卷五「田賦考」五「歷代田賦之制」.

224) 『文獻通考』卷4「田賦考」4「歷代田賦之制」.

225) 『星湖先生全集』卷之四十五「雜著」‘論括田」.

226) 之: 『문헌통고』均. 之에 用, 取의 의미가 있음.

2.1.21. 그렇다면 같은 방전법인데도, 관자가 쓰면 세금이 고르게 되었고 승녕 연간에 쓰면 백성이 흩어졌으니, 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운용하는 방법에 좋고 나쁨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날의 양전은 마땅한 인물을 고르는 일이 제일의 핵심이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等是方田之法,而郭諮用之而稅均,崇寧用之而民散,法未嘗不善,而所以用之者有善不善耳.臣故曰:“今日量田,當以擇人爲第一義諦也”.

<제1목 해설>

방전법은 숙종 대 황해도 관찰사였던 유집일(兪集一, 1653~1724)에 의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행되었다. 그 시말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1700년(숙종 26), 평소 방전법에 관한 조예가 깊었던 것으로 보이는 그가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하자 조정에서는 경상도 양전 시행을 적극 지원했다.²²⁷⁾ 이들이 방전법의 장점으로 들고 있는 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간편하여 백성에게 소요를 일으키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마칠 수 있다. ② 연분의 등급을 매길 때 농간이 생기는 폐단이 없다. ③ 농지를 은폐할 수 없어서 은·누결이 생길 폐단도 없다.²²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양전 시행의 당위성 문제로 굳이 논란할 필요가 없을 듯했고, 전정의 폐단이 특히 심하다고 정부에서 진단했던 경상도 양전도 곧 실시될 수 있을 듯했다.

그러나 양전 자체를 반대했던 세력에 편승하거나 그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들에 의해 유집일에 대한 탄핵이 이어졌고, 그도 사직을 여러 번 요청하면서²²⁹⁾ 결국 승지로 체직되고 말았다.²³⁰⁾ 유집일은 그 뒤 다시 황해도 관찰사로 부임한 뒤에 강령·웅진·은율 세 읍을 방전법으로 양전했고, 그 결과 이전 양안보다 총 결 수가 증가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세액이 올라가게 된 이곳 지주들의 여론이 들끓었다. 조정에서도 세액을 감해주는 방안을 논의했고 형평성이나 민심안정의 차원에서 실제 결 수보다 적은 세액을 책정하기로 했다.²³¹⁾ 결국 이 과정에서 황해도 양전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고, 따라서 유집일이 주도적으로 시도했던 방전법은 제대로 그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일단락되고 말았다.²³²⁾ 이 같은 전력이 있던 양전법을 서유구는 경묘법 양전에서 활용해야 한다

227) 이 때 좌의정 이세백(李世白, 1635~1703), 우의정 신완(申琬, 1646~1707), 호조판서 김구(金構, 1649~1704), 행판돈녕부사 최석정(崔錫鼎, 1646~1715), 좌부승지 조태동(趙泰東, 1649~1712) 등 논의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당파에 따라 비록 입장 차이는 조금씩 있었지만 경상도 양전에 찬성했고 숙종도 시험적으로 경상도에서 이를 시행하라고 했다. 이들 대부분은 유집일이 이전부터 강조한 방전법의 내용을 그를 통해 들어서 알고 있었다. 『비변사등록』 숙종 26년(1700) 8/8.

228) 崔潤晤, 「肅宗朝 方田法 시행의 역사적 성격」, 『國史館論叢』 제38집, 4쪽. 방전법 시행 추이에 관한 이하의 논의는 이 논문 참고.

229) 『승정원일기』 숙종 26년(1700) 8/10~24의 유집일 관련 기사들 참조.

230) 『승정원일기』 숙종 27년(1701) 9/18.

231) 『승정원일기』 숙종 26년(1700) 9/10.

232) 유집일이 결부법 양전제를 따르지 않고 경묘식 방전법으로 개량함으로써 황해도 3읍의 결 수는 이전보다 약 4~5배 정도 늘어났다(『錫鼎曰』:(중략)伏見兪集一狀啓,則三邑打量結卜之數,比前四

고 제안했다.

하지만 『의상경제책』에서는 방전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아 개괄적인 사항만 유추할 수 있다. 서유구의 소개를 통해 방전법을 이용한 측량이 간편하고 균등한 세금을 매길 수 있으며, 방전으로 만들되 그 안을 바둑판처럼 세분하여 구획하는 방법도 썼겠다는 추측을 할 수 있다. 또 방전법으로 농지 뿐 아니라 모든 땅을 측량했으며, 한 방方에는 여러 지주의 농지가 함께 분포되어 있어서 전주(또는 소작인)들끼리 농지 넓이와 전품을 결정하는 체제로 운영됨을 알 수 있다.(2.1.5~9) 이런 방식이라면 방전법을 통한 양전은 모든 농지를 조사할 수 있어서 은·누결이 생길 여지가 거의 없고, 각자 소유의 농지 넓이와 전품이 각 방 안의 농지 소유자들끼리 정해지기 때문에 서리들의 농간이 개입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정약용의 『경세유표』에 수록된 것으로서 유집일의 글로 알려져 있는 다음의 내용에서 방전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필 수 있다.

이른바 방전이란 제가 창안한 방법이 아니고, 새롭거나 기이한 방법도 아닙니다. 이는 실제로 송나라 유자 장재張載와 주희가 남긴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나라 양전법에다 사방 둘레에 한번 덧붙임을 더해 농부에게 각기 스스로 줄로 측량하게 하여 감독관이나 아전의 농간이 용납되지 못하게 한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돈대를 설치해 표목을 세우는 곳의 거리는 360보를 기준으로 하는데, 곧 사방 1리를 정井으로 삼던 성인의 방법입니다. 돈대의 높이와 너비는 으레 2척이어서 방석 놓는 자리 정도에 불과합니다.²³³⁾

五倍.” 『승정원일기』 숙종 27년(1701) 7/15). 이 중 목헌밭을 뺀다 해도 이전의 결 수보다 2배 정도 증가했다(“領議政崔錫鼎所啓, 卽見黃海監司狀啓, 則方田之法, 先試於三邑. 大綱已立, 所得結數, 初則意謂幾至五倍矣, 詳察其文書, 則僅至一倍, 而卜數既如是多報, 則民安得不怨?” 『승정원일기』 숙종 27년(1701) 7/8). 결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농민이 내야 할 세액이 많아진다. 결 수가 늘어난 이유는 방전법의 예상 효과에서 이야기했듯이 전 농지를 이 방식으로 양전함으로써 은·누결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 입장에서는 늘어난 결 수로 인해 국가가 관리하는 전토를 더 확보할 수 있고 거기다 세수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 동안 은밀한 거래를 통해 경영해오던 농지가 공식화되면서 세금 지출이 늘어난다. 늘어난 세금을 두려워하는 이들은 대부분 대부분 대지주들이었다. 소규모 농지를 소유하거나 소작을 하는 농민들에게는 이전의 백정 등 부당한 수탈을 고려하면 손해볼 일이 아니었겠지만, 토지를 겸병하며 농장 규모를 확대해 온 요호饒戶·부농富農들에게는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이었다. 요호·부농은 관리들의 가문일 수도 있고, 관리들과 유착 관계일 수도 있는 집안이었다. 이런 향촌사회의 유력자들이 방전법을 달가워 할 리가 없었다. 결부법 방식의 양전도 극구 거부하던 이들이 방전법을 반대했을 것임은 분명하다(金容燮, 『韓國近代農業史研究』 I, 337~341쪽).

233) “所謂方田, 非臣所創, 亦非新奇之法. 此實宋儒張載·朱熹遺制, 而不過吾東量法, 加方圍一著, 使田夫各

이 글에 따르면 방전법은 송대의 장재 등이 이미 제안하고 시행도 했던 양전법인데, 정사각형(방전)의 가로·세로를 360보로 구획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사방 1리를 정으로 삼던 성인의 정전법과 같다는 언급에서 정전井田을 구획하는 방법을 차용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즉 이 방전을 가로·세로로 120보씩 각각 삼등분을 하면 총 9개의 농지로 구획되는 정전과 같아진다. 주나라의 정전은 가로·세로를 300보로 구획하여 100보씩 3등분하고, 주척으로는 고법 즉 ‘6척=1보’ 방식을 쓴다. 유집일의 방전은 신법 즉 ‘5척=1보’ 방식을 썼다는 차이만 있을 뿐 넓이는 고법과 동일하다고 본다.²³⁴⁾

또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는 방전법은 사방 구석에 정사각형의 돈대를 가로·세로·높이 2척으로 만든다는 사실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방전을 도형으로 단순화시키면, 네 꼭지점이 돈대이고 한 변의 길이가 360보가 되는 정사각형인 것이다. 이 때 유념할 점은 360보가 전품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상대 기준척이 아니라, 주척을 기준으로 확대된 절대 기준척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방전은 토품에 관계없이 동일한 1방이고 그 넓이는 $360\text{보} \times 360\text{보} = (5 \times 360\text{척}) \times (5 \times 360\text{척}) = 324,0000\text{척}^2$ 이 된다. 즉 방전법은 경묘법식 양전이었던 것이다. 결부법 체제에서는 이렇게 측량된 넓이를 농지 등급에 따라 재조정하는 해부解負를 거치게 된다.

이처럼 농지를 구획하면, 1방 안에는 지주 한 사람의 농지만 들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러 지주의 땅이 함께 포함되었을 것이다. 또 그 안에 들어 있는 농지의 전품도 각기 다를 수 있다. 이럴 경우 황해도 어사의 설명에서 확인했듯이, 1방에 함께 구획된 농지의 전주나 소작인이 모여 그 안의 농지를 세부적으로 측량하여 각각의 넓이를 구하고, 토품도 오랫동안 농사를 지은 이들이 모여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전법의 또다른 특징은 어린도魚鱗圖라는 지적도를 양안에 기재한다는 점이다. 양안에는 보통 농지의 넓이, 소유자, 위치, 전품 등이 기재되는데, 방전으로

自繩量,毋容監色弄奸而已.設墩立標之處,相距以三百六十步爲準,卽方一里爲井之聖法.墩之高廣,例爲二尺,不過一方席之地.” <<與猶堂全書>> 『經世遺表』 卷9 「地官修制」 “田制別考” 3 ‘魚鱗圖說’ (<<叢刊>> 285, 177쪽). 번역은 丁若鏞 撰, 丁海康 역주, 『역주 경세유표』 2, 現代實學社, 2004, 724~725쪽 참조.

234) 정확하게 말하면 이 당시는 1등전 양전척(=주척 4.775척)을 양전척 1척으로 삼았으니, 이 양전척 1척이 곧 1보이며 주척으로는 5척이 아니라 4.775척이 된다.

양전한 양안에는 이와 함께 해당 농지의 모양을 그려놓은 어린도가 함께 들어 있었다. 폐기가 나뉘어 이어진 농지 모양이 마치 물고기 비늘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 지적도로 인해 농지의 실제 모양을 구분하기 쉬웠다. 중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되었던 이 방식이 조선에서는 방전법을 시행한 이 한 시절만 존재했다. 신완의 상소에서 “유집일의 구정양법丘井量法の 어린도책과 토지대장을 보니”(2.1.5)라는 내용이 바로 이 어린도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숙종 대에 유집일의 방전법 시행은 갑작스런 돌출 행동이 아니라, 당시의 토지 개혁 논의와 연결되어 있다. 임진왜란 이후 전국이 황폐화 되면서 토지개혁론이 적극적으로 개진되었는데, 이 때 정전제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어났다. 이들의 견해는 대체로 각자가 속한 봉당의 견해와 궤를 같이 했다. 송시열을 위시한 노론은 주희의 정전 시행불가론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와 반대로 숙종 6년(1680) 경신환국으로 남인이 대거 숙청되면서 지나친 남인 숙청을 반대하며 서인에서 분화한 소론少論은 대체로 정전이 조선에서 시행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당시 평양 외성 밖에 있던 농지가 기자箕子가 조선에서 시행했던 은나라의 정전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부상하면서 기자 정전에 대한 관심이 한층 고조되었다. 한태동 같은 이는 심지어 대토지소유자의 토지를 몰수하여 백성에게 고루 나눠준 뒤 정전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개혁책을 주장하기도 했다.²³⁵⁾ 갑술환국(1694년)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잡은 소론은 노론과 결정적으로 당을 나누게 되면서, 주로 정전제 시행 가능론에 공감했다. 이 당시 소론의 입장을 취했던 유집일이 경상도에서 방전법으로 양전하도록 지원을 했던 신완, 최석정 등은 모두 소론의 정치적 입장을 가진 이들이었다.²³⁶⁾ 그러나 같은 소론계였던 서유구가 단지 당색 때문에 방전법 시행을 주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남인이었던 정약용이 방전법을 높이 평가했던 사례(아래에서 기술함)처럼 당색을 떠나 국가 운영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나름의 판단이 작용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35) “今雖不能大治經界,悉復丘井,而若稍近古制,筭畝以授,則是無區畫之擾蒼治之久,而一持籌之吏旬月可辦矣,亦何不可行之有?而士大夫方且畏之而不敢議者,每以亟奪富人之田爲解,而聖問中所謂拂人情者亦此也.雖然今之民有田者一二,而無田者千百,而規制已設,限柙若立,則多者雖減,無者自有減者之怨,其視有者之樂則有間矣.怨者之至寡,若較樂者之至多則相遠也.國家亦安能懼拂一二人之情,而坐視千百人之困而不救乎?” 韓泰東,『是窩遺稿』卷7「科體」‘田制策’(<<叢刊>> 48, 571쪽).

236) 물론 소론계열의 모든 이들이 정전론에 찬동한 것은 아니었다. 일례로 남구만(南九萬, 1629~1711) 같은 경우는 이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이 당시 소론계의 분파 과정과 토지개혁안의 입장에 대해서는 崔潤晤, 위의 글, 특히 9~14쪽을 참조.

『의상경제책』에서 서유구는 방전법의 시행과 좌절의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했다. 먼저 유집일의 황해도 개량과 그것이 반대에 부딪혀 그만 둔 사실을 말하고,(2.1.3) 방전법의 전국 확대론을 펼쳤던 신완의 주장(1702년)을 소개했다. 신완은, 유집일이 방전법의 지침을 세밀하게 작성했고, 세금을 균등하게 분배했으며, 측량 기간을 예전에 비해 훨씬 단축시켰기 때문에, 방전법을 전국적으로 시행할만하다고 믿었다는 것이다.(2.1.5~6) 이어서 방전법이 “실제로 간사한 사기를 막는 좋은 방법이고 부역을 고르게 하는 아름다운 제도”라고 보고한 황해도 어사(누군지는 확인 안 됨)의 글과 방전법으로 “측량이 이루어진 읍에서는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편리하다고 칭송”한다는 서명균(徐命均, 1680~1745)의 글을 소개했다.(2.1.7~9)

이로써 방전법의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믿은 서유구는 비변사에 보관된 방전법 기록을 재검토한 뒤 남도의 양전에서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 온갖 폐단을 그치게 하고 균전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도가 될 것이라 확신했다.(2.1.11) 그의 이 같은 생각은 방전법에 대해 “삼대의 고법으로서 송과 명을 거쳐 오늘날까지 중국에 통행하는 법”²³⁷⁾이며 “천하의 좋은 법”²³⁸⁾이라 높이 평가하고서 방전법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정약용의 견해와 일치했다.

서유구는 이와 동시에 방전법 실시를 반대하는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반대론은 방전법을 실시했던 송나라의 경우 백성을 동원하여 고생시키고 오히려 전세를 올려 받은 역사적 사례를 근거로 삼았다.(2.1.12~21) 반론에 나선 서유구는 송의 경우는 방전법을 실시한 규모가 컸지만 조선은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사례가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송에서도 마땅한 관리가 양전을 담당했을 경우는 은결을 찾아 균세를 실천한 사례가 있었던 점을 들며 “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운용하는 방법에 좋고 나쁨이 있었을 뿐”이기 때문에 마땅한 인물을 고르는 일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237) “此是三代古法,而大宋皇明以至今日,爲中國通行之法.” <<與猶堂全書>> 『經世遺表』 卷9 「地官修制」 “田制別考” 3 ‘魚鱗圖說’(<<叢刊>> 285, 177쪽).

238) “兪集一方田之法,天下之良法.” 위의 글(<<叢刊>> 285, 176쪽).

2.1.2. 제2목 ‘농지 계산법을 나눠주어 미리 연습하도록 하기’

2.2. 농지 계산법을 나눠주어 미리 연습하도록 한다

2.2.1. 둘째는 농지 계산법을 나눠주어 미리 연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二曰頒數法以豫肄習.

2.2.2. 제가 듣기로, 수에는 분야가 9개인데 방전이 그 중 하나를 차지합니다. 전하는 말에 “방전은 농지 영역을 처리한다.”²³⁹⁾고 했습니다. 대개 농지 영역의 모양으로 실제 넓이를 구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가로와 세로의 길이로 방전(方田, 정사각형 농지)·직전(直田, 직사각형 농지)·圭田(圭田, 삼각형 농지)·사전(梭田, 마름모 농지)·제전(梯田, 사다리꼴 농지)·사전斜田의 넓이를 구하거나,²⁴⁰⁾ 원 둘레와 지름으로 원전(圓田, 원형 농지)·완전(宛田, 가운데가 볼록 솟은 농지)·환전(環田, 원 고리모양 농지)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²⁴¹⁾

臣聞數有九章,方田居其一焉.傳曰:“方田以御田疇界域.”蓋以田疇界域之象形,求其畝步之積實.如以廣縱而求方·直·圭·梭²⁴²⁾·梯·斜,以周徑而求圓田·碗²⁴³⁾田·環田是也.

2.2.3. 그러나 『손자산경』²⁴⁴⁾ 이래로 농지 계산법을 말하는 이들은 근사값으로만 표현해서 상밀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서양의 신법인 『기하원본』이나 『수리정온』 같은 여러 책들은 모두 적지 않게 고루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전의 산서들이 거칠게 개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然自孫子算經以下,言其法者略而不詳.近世新法如幾何原本·數理精蘊諸書,皆不少槩及.蓋以其麤率而略之也.

239) “方田以御田疇界域.” 劉徽 注, 李淳風 注釋, 『九章算術』 卷1.

240) 丁若鏞, <<與猶堂全書>> 『牧民心書』 卷4 「戶典六條」 ‘田政’(『역주 목민심서』 2, 176~179쪽)에 그림과 함께 실례가 소개되어 있다.

241) 이 단락의 첫 문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서명응의 <<保晚齋叢書>> 卷55 『攷事十二集』 卷7 「午集文藝」 ‘方田數法’(<<保晚齋叢書>> 10, 80쪽)에 나온다.

242) 梭: 베틀의 북처럼 두 끝이 길쭉하게 생긴 밭. 마름모 모양이다.

243) 碗: ‘宛’의 오기로 보인다. 『九章算術』 卷1에 ‘宛田’이 나온다.

244) 『손자산경孫子算經』: 중국 고대의 수학서. 3권. 도량형 제도, 주산을 이용한 각종 계산법을 소개했다. 편찬자와 성립연대는 자세하지 않은데, 춘추시대 손무孫武가 편찬했다는 설과 후한 대 명제明帝 이후 성립했다는 설이 있다. 周瀚光, “孫子算經”, 徐余麟 主編, 『中國學術名著提要-科技卷』, 復旦大學出版社, 1996, 8~10쪽.

2.2.4. 제가 예전에 신법의 구고법과 삼각법을 이용하여 양전법의 몇 유형을 예제 15개로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²⁴⁵⁾ 삼가 아래에 기록해두니, 이를 담당자에게 내려주어 호조의 산원算員 8명과 관상감의 역관曆官²⁴⁶⁾ 8명을 뽑아 이 문제들을 증거를 통해 바로 잡고 미루어 확대시켜 모든 도에 이들을 각 도마다 2명씩 나눠 파견하도록 하십시오.

臣嘗用新法句股·三角之法,擬作量田數法十五題.謹開錄如後,乞下有司,選戶曹算員八人·觀象監曆官八人,證訂推衍,仍分送其人于諸道,每一道送二人.

2.2.5. 그리고 여러 읍의 서리 가운데 곱셈과 나눗셈을 대충이라도 할 줄 아는 이들을 선발하여 감영에서 교육시킵니다. 이들이 철저하게 알게 될 때 각자의 읍으로 되돌려 보내 차례대로 전습시키면, 서너 달도 되지 않아 산술에 통달하는 서리 수 십 수 백 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일이 닳았을 때 엄두도 못 내고서 시간만 허비하는 지경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選列邑吏胥中粗解乘除者于營下而敎習之.俟其通透,各歸其邑,以次傳習,則不出三四月,可得通曉算術之吏數十百人.庶不至臨事扞格曠日費時矣.

2.2.1. 예제 15개

2.2.6. ① 만약 정사각형 농지[正方田]에서 각 변이 678척이면 넓이는 얼마인가?²⁴⁷⁾

設如正方田每邊六百七十八尺,問面積幾何?

2.2.7. 풀이법: 1변 678척을 제곱[自乘]하여 45,9684척을 얻으면, 곧 구하는 넓이이다.

法:以一邊六百七十八尺自乘,得四十五萬九千六百八十四尺,即所求之面積²⁴⁸⁾.

245) 본래 이 내용은 서유구의 생부 서호수의 『해동농서』에 수록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이 문장은 『해동농서』의 문제를 서호수의 지시로 서유구가 정리했다는 진술로 이해할 수 있다.

246) 역관은 역서를 담당하는 관리로 천문역법을 수학해야 한다. 천문역법의 상당 부분은 수학을 바탕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역관이 수학에 능통했다. 이 때문에 역관을 양전 연구에 참여시키도록 했다.

247) 여기부터의 계산 문제 15개(2.2.6~55)는 徐浩修, 『海東農書』(『農書』 10, 亞細亞文化社, 1981, 31~47쪽); 『임원경제지 본리지』 1, 181~195쪽의 대부분을 재수록했다.

2.2.8. ①-1 만약 정사각형 농지의 넓이가 45,9684척이면 1변의 길이는 얼마인가?²⁴⁹⁾

設如正方田面積四十五萬九千六百八十四尺,問每一邊數幾何?

2.2.9. 풀이법: 정사각형 넓이 45,9684척의 숫자를 나열해놓는다. 맨 끝자리부터 자리수를 세우되, 정사각형 넓이의 두 자리마다 정사각형 변의 한 자리를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4척(일의 자리인 4) 위에 일의 자리를 정하고, 600척(백의 자리인 6) 위에 십의 자리를 정하고, 5,0000척(만의 자리인 5) 위에 백의 자리를 정한다.

法:列²⁵⁰⁾方積四十五萬九千六百八十四尺.自末位起,每方積二位,定方邊一位.乃於四尺上定單位,六百尺上定十位,五萬尺上定百位.

2.2.10. 여기서 45,0000척이 첫째 셈[初商]의 넓이이다. 첫째 셈의 본래 자리[本位]로 계산한다면 5,0000척(만의 자리인 5)이 첫째 셈 넓이의 일의 자리에 해당하고, 45,0000척을 45로 간주한다. 여기에 6의 제곱수로 환산하면 첫째 셈은 6으로 정해진다. 그리고 6의 제곱인 36을 빼주면 9,0000척이 남는다.

其四十五萬尺爲初商積.以初商本位計之,則五萬尺爲初商積之單位,而四十五萬尺爲四十五.與六自乘之數相準,即定初商爲六.而以六自乘之三十六相減,餘九萬尺.

2.2.11. 이어서 정사각형 한 변의 둘째 자리인, 넓이 9600척(백과 천의 자리인 96)을 아래에 내려 써주면, 9,9600이 둘째 셈[次商] 염우법의 전체 넓이이다. 둘째 셈의 본래 자리로 계산한다면 600척(백의 자리인 6)이 둘째 셈 넓이의 일의 자리에 해당하고, 9,9600척을 996척으로 간주한다.

爰以方邊第二位積九千六百尺續於下,共九萬九千六百尺爲次商廉隅²⁵¹⁾之共積.以次商本位計之,則六百尺爲次商積之單位,九萬九千六百尺爲九百九十六.

248) 積: 『본』 積也.

249) 이 문제에 대해 『본리지』에서는 풀이법은 없이 문제와 답만 기록했다. 『수리정운』의 주석에는 다음의 글이 적혀 있다. “此題正方面積之六位皆以尺命位似與前題分丈尺寸三色者不同然其每取方積二位續書於下其末位即命爲單位立算仍與丈尺尺寸同也” 『御製數理精蘊』 下編 卷1 「面部」 1 「平方」. 이 부분에는 계산식을 쓰는 방법도 적혀 있다.

250) 列: 『해동농서』 刊.

251) 廉隅: 물건의 모퉁이. ‘廉’은 변, ‘隅’는 각.

2.2.12. 그리고 첫째 셈에서 나온 6은 곧 60이다. 따라서 첫째 셈의 6을 60으로 만들어 2배하면 120을 얻어 염법廉法²⁵²⁾이 된다. 120으로 996을 나눌 때 7배로 충분하면, 둘째 셈은 7로 정해진다. 이 둘째 셈의 7이 우법隅法이 된다. 이를 염법인 120과 합하면 127을 얻어 염우법廉隅法이 된다. 이어 둘째 셈인 7과 곱하여 889를 얻는다. 그리고 둘째 셈 염우법의 넓이(9,960척)와의 차를 구하면 1,0700척이 남는다.

而初商之六,卽爲六十.故以初商之六,作六十倍之,得一百二十爲廉法.以除九百九十六,足七倍,卽定次商爲七.而以次商七爲隅法.與廉法一百二十相加,共得一百二十七爲廉隅共法.以次商七乘之,得八百八十九.與次商廉隅共積相減,餘一萬零七百尺.

2.2.13. 다시 정사각형 한 변의 마지막 자리인 넓이 84척을 아래에 내려 써주면 1,0784척이 셋째 셈[三商] 염우법의 넓이이다. 셋째 셈의 본래 자리로 계산한다면 넓이와 변은 모두 본래 자리이다.

復以方邊末位積八十四尺續於下,共一萬零七百八十四尺爲三商廉隅之共積.以三商本位計之,則積與邊皆仍爲本位.

2.2.14. 여기에 첫째 셈과 둘째 셈인 670을 2배하면 1340을 얻어 염법이 된다. 1340으로 1,0784를 나눌 때 8배로 충분하면, 셋째 셈은 8로 정해진다. 이 셋째 셈의 8이 우법이 된다. 이를 염법인 1340과 합하면 1348을 얻어 염우법이 된다. 이어 셋째 셈인 8과 곱하여 1,0784를 얻는다. 그리고 셋째 셈 염우법의 넓이(1,0784척)와의 차를 구하면 모두 없어진다.

乃以初商次商之六百七十倍之,得一千三百四十爲廉法.以除一萬零七百八十四,足八倍,卽定三商爲八.而以三商八爲隅法.與廉法一千三百四十相加,共得一千三百四十八爲廉隅共法.以三商八乘之,得一萬零七百八十四.與三商廉隅共積,相減恰盡.

2.2.15. 이렇게 개방²⁵³⁾으로 678척을 얻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로 삼는 것이다.²⁵⁴⁾ 개평방법(정사각형 넓이에서 한 변을 구하는 법).

252) 『御製數理精蘊』下編 卷十一 「面部」 — ‘平方’.

253) 개방開方: 정사각형 넓이를 풀어 한 변을 구하는 방법, 즉 제곱근을 구하는 방법.

254) 『본리지』에는 이 부분을 생략하고 마지막 문장인 결론만 실었다.

是開方得六百七十八尺,爲方面每一邊之數也.開平方法.

2.2.16. ② 만약 직사각형 농지[長方田]에서 세로[長]²⁵⁵⁾가 38척이고 가로[闊]²⁵⁶⁾가 33척이면 넓이는 얼마인가?

設如長方田,長三十八尺,闊三十三尺,問面積幾何?

2.2.17. 풀이법: 세로 38척과 가로 33척을 서로 곱하여 1254척을 얻으면, 곧 구하는 넓이다.

法:以長三十八尺與闊三十三尺相乘,得一千二百五十四尺,卽所求之面積²⁵⁷⁾.

2.2.18. ③ 만약 직사각형 농지 넓이가 1254척이고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5척 길다면 세로와 가로는 얼마인가?

設如長方田面積一千二百五十四尺,縱多五尺,問長闊各幾²⁵⁸⁾何?

2.2.19. 풀이법: 넓이 1254척에 4를 곱하여 5016척을 얻는다. 또 가로보다 더 긴 길이인 5척을 제곱하여 25척을 얻고, 여기에 앞의 4를 곱해 얻은 수를 더하여 5041척을 얻는다. 이 수를 개방으로 풀어 71척을 얻으면 곧 이것이 세로와 가로를 더한 수이다. 이때 가로보다 더 긴 길이인 5척과 세로와 가로를 더한 수 71척을 더하면 76척을 얻고, 이것을 반으로 나눠 38척을 얻으면, 곧 이것이 직사각형 농지의 세로 길이이다. 38척에서 가로보다 더 긴 길이인 5척을 빼서 33척을 얻으면, 곧 이것이 직사각형 농지의 가로 길이이다.²⁵⁹⁾ 교수대종평방(가로

255) 세로[長]: ‘長’은 직사각형의 긴 변. 여기서는 수학용어로 통일하기 위해 ‘세로’라고 쓸 것이며, 이는 길이가 긴 변이라는 의미이다.

256) 가로[闊]: ‘闊’은 ‘너비’라는 뜻으로 직사각형의 짧은 변. 여기서는 ‘가로’로 쓸 것이며, 이는 길이가 짧은 변이라는 의미이다.

257) 積: 『본』 積也.

258) 各幾: 『본』 幾.

259) 이 문제를 도형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는 생략한다. 이하 동일. 풀이 과정은 다음과 같다.

정사각형을 만들기 위해 4를 곱한다.

① $1254\text{척}^2 \times 4 = 5016\text{척}^2$.

② $5\text{척} \times 5\text{척} = 25\text{척}^2$.

③ ①+②= 5041척^2 .

④ $5041\text{척}^2 = 71 \times 71\text{척}^2$.

⑤ $71\text{척} + 5\text{척} = 76\text{척}$.

긴 변, 곧 세로의 길이를 구하기

길이와 세로 길이의 차가 주어졌을 때, 이 두 길이의 합을 1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해 구하는 방법).

法:以面積一千二百五十四尺,用四因之,得五千零一十六尺.又以縱多五尺自乘,得二十五尺,加入四因之數,得五千零四十一尺.開方得七十一尺,即爲長闊相和之數.爰以縱多五尺,與長闊之和七十一尺相加,得七十六尺,折半得三十八尺,即長方之長.以三十八尺,減縱多五尺,得三十三尺,即長方之闊也.較數帶縱平方.

2.2.20. ④ 만약 먼저 넓이를 측량하니 1254척이요 세로와 가로 길이의 합이 71척이라고 했을 때, 세로 길이와 가로 길이 각각을 구하면 얼마인가?

如先有面積一千二百五十四尺,長闊和七十一尺,以求長闊之各幾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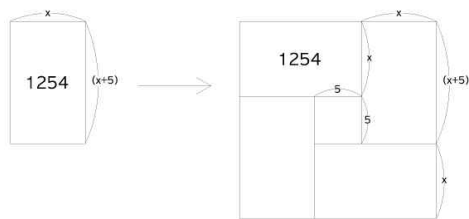
2.2.21. 풀이법: 넓이 1254척에 4를 곱하여 5016척을 얻는다.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의 합 71척을 제곱하여 5041척을 얻고 4를 곱하여 얻은 수(곧 5016)를 빼면 25척이 남는다. 개방을 이용하여 5척을 얻으면 곧 이것이 세로와 가로의 길이 차이이다. 이때 길이의 차인 5척과 길이의 합인 71척을 더하여 76척을 얻고, 이것을 반으로 나눠 38척을 얻으면, 곧 이것이 직사각형 농지의 세로의 길이이다. 38척에서 길이의 차 5척을 빼서 33척을 얻으면, 곧 이것이 직사각형 농지의 가로의 길이이다.²⁶⁰⁾ 화수대중평방(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의 합이 주어졌을 때, 이 두 길이의 차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해 구하는 방법).

위한 방법이다.

큰 정사각형 1변, 곧 71척에 5척을 더하여 세로 길이의 2배가 되도록 만들어준 것이다.

⑥ 76척÷2=38척 : 세로 길이.

38척-5척=33척 : 가로 길이.



양전법 3

260) 풀이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1254 \text{척}^2 \times 4 = 5016 \text{척}^2$.

② $71 \text{척} \times 71 \text{척} = 5041 \text{척}^2$.

③ ②-①=25척²이므로,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5척이다.

따라서 세로 길이의 2배는, 71척+5척=76척.

④ 76척÷2=38척:세로 길이.

38척-5척=33척:가로 길이.

法:以面積一千二百五十四尺,用四因之,得五千零一十六尺.以和七十一尺自乘,得五千零四十一尺,減去四因之數,餘二十五尺.開方得五尺,卽爲長闊較.爰以較五尺,與和七十一尺相加,得七十六尺,折半得三十八尺,卽長方之長.以三十八尺,減較五尺,得三十三尺,卽長方之闊也. 和數帶縱平方.

2.2.22. ⑤ 만약 직각삼각형 농지[句股田, 구고전]에서 ‘직각을 이룬 짧은 변[句]’이 60척이고 ‘직각을 이룬 긴 변[股]’이 80척일 때, 넓이는 얼마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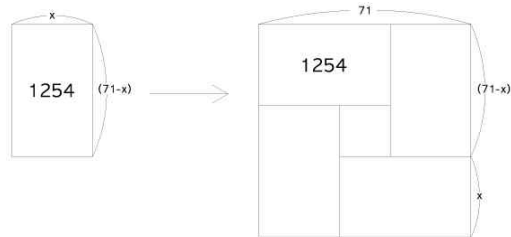
設如句股田,句六十尺,股八十尺,問面積幾何?

2.2.23. 풀이법: 짧은 변 60척을 반으로 나눠 30척을 얻고, 이것을 긴 변 80척과 곱하여 2400척을 얻으면, 곧 이것이 구하고자 하는 넓이다.²⁶¹⁾

法:以句六十尺折半,得三十尺,與股八十尺相乘,得二千四百尺,卽所求之面積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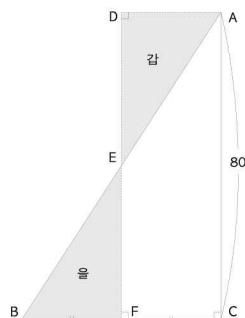
2.2.24. ⑥ 만약 삼각형 농지[三角田]에서 양 빗변 가운데 긴 변[大腰]은 17척, 짧은 변[小腰]은 10척, 밑변은 21척, 수선은 8척일 때, 넓이는 얼마인가?

設如三角田,大腰十七尺,小腰十尺,底二十一尺,中垂線八尺,問面積幾何?



양전법 4

261) 이 풀이를 위해 도형으로 표시하면 그림과 같다.
 $\triangle ADE \equiv \triangle BFE$ 이므로
 갑 = 을이다.
 따라서 $\triangle ABC = \square ADFC$.



양전법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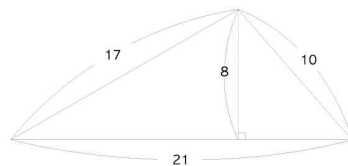
2.2.25. 풀이법: 밑변 21척과 수선 8척을 곱하여 168척을 얻고 이를 반으로 나누어 84척을 얻으면 곧 이것이 구하고자 하는 넓이다.²⁶²⁾

法:以底二十一尺,與中垂線八尺相乘,得一百六十八尺,折半得八十四尺,即所求之面積也.

2.2.26. ⑦ 만약 마주 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고 직각이 없는 평행사변형 농지 [斜方田]에서, 짧은 변이 모두 25척, 긴 변이 모두 39척, 마주보는 두 예각끼리 이은 사선이 56척, 둔각에서 사선에 내린 수선이 15척일 때, 넓이는 얼마인가?
設如兩兩等邊無直角斜方田,小邊皆二十五尺,大邊皆三十九尺;對兩銳角斜線五十六尺,自鈍角至斜線之中垂線十五尺,問面積幾何?

2.2.27. 풀이법: 마주보는 두 예각끼리 이은 사선 56척과 가운데 수선 15척을 곱하여 840척을 얻으면, 곧 이것이 구하고자 하는 넓이다.²⁶³⁾

262) 이 풀이를 위해 도형으로 표시하면 그림과 같다.
밑변×높이÷2=21척×8척÷2=84척².



양전법 6

이는 현대수학의 풀이법과 같다. 그런데 양 빗변의 길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필수조건은 아닌데도 제시된 것이 특이하다. 이런 상황은 아래의 문제에서도 반복된다.

그에 비해 서유구가 참고한 『수리정운』에는 이와 같은 유형이 발견되지 않는다. 대신 세변의 길이(이 문제에서의 길이와 동일)만 주고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서는 먼저 삼각형의 수선의 길이를 구한 뒤, 이 문제의 풀이법과 같은 방식으로 푼다. 『수리정운』의 문제는 꼭 필요한 조건만을 주었음에 반해 여기에서는 수선의 길이가 주어졌기 때문에 양 빗변의 길이는 필요하지 않은 조건이 주어졌다는 차이가 있다. 『御製數理精蘊』下編 卷14 「面部」 4 「三角形」.

263) 참고 도형은 다음과 같다.

法:以對兩銳角斜線五十六尺,與中垂線十五尺相乘,得八百四十尺,卽所求之面積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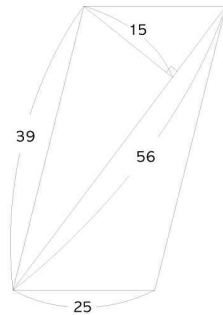
2.2.28. ⑧ 만약 변의 길이가 같지 않은 직각이 2개인 사다리꼴 농지[兩直角斜方田]에서 직각을 끼고 있는 변의 길이가 50척, 윗변의 너비가 20척이며 아랫변의 너비가 28척일 때, 넓이는 얼마인가?

設如不等邊兩直角斜方田,直角之邊長五十尺,上闊二十尺,下闊二十八尺,問面積幾何?

2.2.29. 풀이법: 윗변 20척과 아랫변 28척을 더하여 48척을 얻어서 이것을 반으로 나누면 24척을 얻는다. 이것을 직각을 끼고 있는 변의 길이 50척과 곱하여 1200척을 얻으면, 곧 이것이 구하고자 하는 넓이이다.²⁶⁴⁾

法:以上闊二十尺,與下闊二十八尺相加,得四十八尺,折半得二十四尺.與長五十尺相乘,得一千二百尺,卽所求之面積也.

2.2.30. ⑨ 만약 사다리꼴 농지[梯田]²⁶⁵⁾의 높이가 30척이고 윗변이 12척이며 아랫변이 20척일 때, 넓이는 얼마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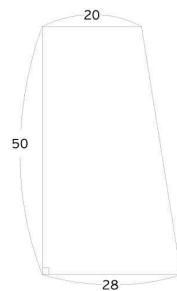


양전법 7

264) 『御製數理精蘊』下編 卷19 「面部」 9 ‘直線形’.

⑧은 ⑦과 유사한 문제 바로 다음에 나온다.

참고 도형은 다음과 같다.



양전법 8

265) 사다리꼴 농지[梯田]: 토지의 한 유형인 다락밭[梯田]과는 다른 것으로서, 수학 용어이다.

設如梯田,長三十尺,上闊十二尺,下闊二十尺,問面積幾何?

2.2.31. 풀이법: 윗변 12척과 아랫변 20척을 더하여 32척을 얻어서 이것을 반으로 나누면 16척을 얻는다. 이것을 높이 30척과 곱하여 480척을 얻으면, 곧 이것이 구하고자 하는 넓이이다.²⁶⁶⁾

法:以上闊十二尺,與下闊二十尺相加,得三十二尺,折半得十六尺,與長三十尺相乘,得四百八十尺,即所求之面積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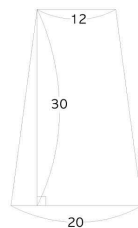
2.2.32. ⑩ 만약 고리 모양의 정사각형 농지[方環田]에서 바깥 둘레가 280척이고 안 둘레가 120척일 때, 넓이는 얼마인가?

設如方環田,外周二百八十尺,內周一百二十尺,問面積幾何?²⁶⁷⁾

2.2.33. 풀이법: 바깥 둘레 280척을 4로 나누어 70척을 얻어 이것을 제곱하면 4900척을 얻는다. 또 안 둘레 120척을 4로 나누어 30척을 얻어 이것을 제곱하면 900척을 얻는다. 2개의 제곱수를 빼서 4000척이 남으면, 곧 이것이 구하고자 하는 넓이이다.²⁶⁸⁾

法:以外周二百八十尺,四歸之,得七十尺,自乘得四千九百尺.又以內周一百二十尺,四歸之,得三十尺,自乘得九百尺.兩自乘數相減,餘四千尺,即所求之面積也.

266) 『御製數理精蘊』下編 卷19 「面部」 9 「直線形」.
참고 도형은 다음과 같다.



양전법 9

267) 何: 『의상경계책』 없음.

268) 같은 글.

이 풀이를 간단히 표시하면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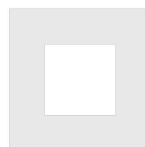
바깥 둘레: 280척.

안 둘레: 120척.

(큰 정사각형)-(작은 정사각형)

$= (280 \text{척} \div 4)^2 - (120 \text{척} \div 4)^2$

$= 4000 \text{척}^2$.



양전법 10

2.2.34. ㉑ 만약 변의 길이가 같지 않고 직각이 없는 사각형 농지[四邊田]에서 최대변이 35척이고 그 다음 변이 28척, 그 다음 변이 17척, 최소 변은 10척, 마주보는 각을 연결한 사선이 21척이고, 이때 생긴 큰 삼각형에서 내린 수선이 16.8척이며 작은 삼각형에서 내린 수선이 8척일 때, 넓이는 얼마인가?

設如不等邊無直角四邊田,最大邊三十五尺,次邊二十八尺,次邊十七尺,最小邊十尺;對角斜線二十一尺,大三角形中垂線十六尺八寸,小三角形中垂線八尺,問面積幾何?

2.2.35. 풀이법: 마주보는 각을 연결한 사선 21척을 작은 수선 8척과 곱하여 168척을 얻고, 이를 반으로 나누어 84척을 얻으면 이것이 작은 삼각형의 넓이이다. 또 최대변 35척을 큰 수선 16.8척과 곱하여 588척을 얻고, 이를 반으로 나누어 294척을 얻으면 이것이 큰 삼각형의 넓이이다. 그리하여 두 삼각형의 넓이를 더하여 378척을 얻으면, 곧 이것이 구하고자 하는 사각형 농지의 총 넓이이다.²⁶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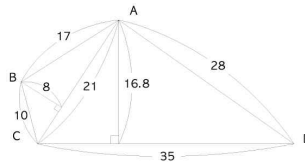
法:以對角斜線二十一尺,乘小垂線八尺,得一百六十八尺,折半得八十四尺,爲小三角形之面積.又以最大邊三十五尺,乘大垂線十六尺八寸,得五百八十八尺,折半得二百九十四尺,爲大三角形之面積.乃以兩三角形之面積相併,得三百七十八尺,卽所求四邊田之總面積也.

2.2.36. ㉒ 만약 원형 농지[正圓田]에서 지름이 8척일 때 넓이는 얼마인가?

設如正圓田,徑八尺,問面積幾何?

2.2.37. 풀이법: 14분을 1율率로 삼고, 11분을 2율로 삼고, 원의 지름 8척을 제곱하여 64척을 얻은 것을 3율로 삼아 4율인 50척 28촌 57분 14리가 조금 넘는 값²⁷⁰⁾을 얻으면, 곧 이것이 구하고자 하는 넓이이다.²⁷¹⁾

269) 이 풀이법은 다음과 같이 도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square ABCD = \triangle ABC + \triangle ACD$



양전법 11

270) 50척~값: 곧 50.285714...척. 여기에서 기록된 척, 촌, 분, 리의 단위는 이전에 1/10로 줄여 들어갔던 것과 달리 1/100로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곱한 값을 표시할 때만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法:以十四分爲一率,十一分爲二率.圓徑八尺自乘得六十四尺爲三率,求得四率五十尺二十八寸五十七分一十四釐有餘,即所求之面積也.

2.2.38. 무릇 정사각형 둘레와 원 둘레의 비는 정사각형 넓이와 원 넓이의 비와 같다. 대개 원지름이 7이면 원둘레는 22가 되고 이를 반으로 나누면 11을 얻는다.²⁷²⁾ 정사각형의 1변이 7이면 정사각형 둘레는 28이고 이를 반으로 나누면 14를 얻는다.²⁷³⁾ 그러므로 14분과 11분의 비는 또한 지금 주어진 원지름을 제곱하여 얻은 정사각형의 넓이와 지금 얻은 원의 넓이의 비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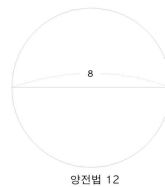
凡方周與圓周之比,同於方積與圓積之比.蓋圓徑七,則圓周爲二二,半之得一一.方邊七,則方周爲二八,半之得一四.故以十四分與十一分之比,亦同於今所設圓徑自乘之方積與今所得圓面積之比也.

2.2.39. ㉓ 만약 타원형 농지[橢圓田]에서 장축의 길이가 9척이고 단축의 길이는 6척일 때, 넓이는 얼마인가?

設如橢圓田,大徑九尺,小徑六尺,問面積幾何?

2.2.40. 풀이법: 장축 9척과 단축 6척을 곱하여 54척을 얻으면 타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의 넓이가 된다. 이렇게 하고 나서 사각형의 변의 길이와 원의 지름은 서로 같으나, 사각형의 넓이와 원의 넓이의 비가 같지 않을 때 사용하는 정해진 비

271) 풀이법에서의 1율, 2율, 3율, 4율은 오늘날 수학의 비례식 $a:b=c:d$ 에서의 순서와 같다. 이 문제의 풀이법 뒤에 나오는 설명에 따르면, (정사각형 둘레):(원 둘레)=14:11이다. 따라서 풀이법을 비례식으로 쓰면, $14:11=64:x$ 이므로 $x=50.285714\cdots$ 이 된다.



272) 원의 지름을 7로 가정한 것은 원둘레를 정수로 만들기 위해서다. 지름이 7인 원둘레가 22라면, $7 \times \pi = 22$ 에서, $\pi = 3.142857\cdots$ 이다. 그런데 오늘날 밝혀진 π 값은 3.1415926536...이다. 5세기 중국에서, π 값을 3.1415926과 3.1415927 사이값임을 알아낸 것을 감안하면, 여기에서 적용한 π 값은 그다지 정확하지 않다. 중국에서의 π 값 계산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Joseph Needham 등, *Science and Civilisation in China*(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9), vol. 3, pp. 99~102 참조. 한편 서유구도 열람했을 가능성이 있는 한역 서양 수학서에서는 π 값을 3.14159265358979323846과 3.14159265358979323847 사이 값이라 제시했다.(徐光啓 等撰, 『新法算書』卷91)

273) 앞의 두 문장에 쓰인 22, 11, 28, 14는 원문에 각각 二二, 一一, 二八, 一四로 되어 있다. 십진법의 단위 곧 ‘十’을 사용하지 않은 점이 특이하다. 이후의 문제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서양수학의 영향으로 보인다.

례관계를 사용한다.

法:以大徑九尺與小徑六尺相乘,得五十四尺,爲長方積.乃用方邊圓徑相等·方積圓積不同之定率比例.

2.2.41. 타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의 넓이 1억을 1율로 하고, 타원의 넓이 7853,9816을 2율로 하고,²⁷⁴⁾ 지금 장축과 단축을 곱하여 얻은, 타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의 넓이 54척을 3율로 하여 4율인 42척 41촌 15분 00리 64호毫(곧 42.41150064척)를 구하여 얻으면, 곧 이것이 구하고자 하는 넓이다.²⁷⁵⁾

以方積一〇〇〇〇〇〇〇〇爲一率,圓積七八五三九八一六爲二率,今所得大·小徑相乘之長方積五十四尺爲²⁷⁶⁾三率,求得四率四十二尺四十一寸一十五分零六十四毫,卽所求之面積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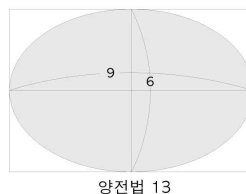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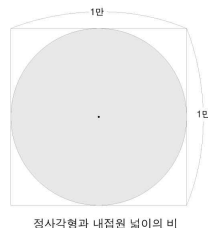
2.2.42. ⑭ 만약 원 고리 모양의 농지[圓田]에서 바깥 원의 지름이 2.4척이고 안 원의 지름이 1.2척일 때, 넓이는 얼마인가?

設如圓田,外徑二尺四寸,內徑一尺二寸,問面積幾何?

2.2.43. 풀이법: 바깥 원의 지름 2.4척을 제공하여 5.76척을 얻는다. 또 안 원의 지름 1.2척을 제공하여 1.44척을 얻는다. 이렇게 얻은 2개수를 빼면 4.32척이

274) 타원에~하고: 외접 사각형의 넓이와 타원의 넓이의 비는 외접 사각형의 넓이와 원의 넓이의 비와 같다. 이 비는 그림과 같이 한번의 길이가 1만인 정사각형과 내접원을 상징하여 얻는다. 그림 참고. 이 비를 구하기 위해 다음을 참조했다. “凡方員同徑,則方積大,員積小.周亦如之.其比例若四〇〇〇〇〇〇〇〇與三一四一五九二六五.方徑一〇〇〇〇,周四〇〇〇〇,積一〇〇〇〇〇〇〇〇;員徑一〇〇〇〇,周三一四一五九,積〇七八五三九八一六.” 梅文鼎 撰,『曆算全書』卷56 「方圓冪積」卷1 ‘方圓周徑相求’.

275) 문제 13, 14의 풀이를 볼 때, 사각형의 모양과 원 모양에 관계없이 사각형의 넓이와 원의 넓이의 비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이용한 비례식은 다음과 같다. (비례식에서 콤마는 네 자리 단위로 끊었다.) 1,0000,0000: 7853,9816 = 54: x.



276) 爲: 『본』 없음.

남는데 이것이 정사각형 고리 모양의 넓이이다. 이렇게 하고 나서 정사각형의 넓이와 원의 넓이의 정해진 비례 관계를 이용한다.

法:以外徑二尺四寸自乘,得五尺七十六寸.又以內徑一尺二寸自乘,得一尺四十四寸.兩數相減,餘四尺三十二寸,爲方環面積.乃用方積圓積定率(率)比例.

2.2.44. 정사각형의 넓이 1억을 1율로 하고, 원의 넓이 7853,9816을 2율로 하고, 지금 얻은 고리 모양 정사각형의 넓이 4.32척을 3율로 하여 4율인 3.392920척 남짓을 구하여 얻으면, 곧 이것이 구하고자 하는 넓이이다. 대개 정사각형 고리 모양의 넓이와 원 고리 모양의 넓이의 비는 곧 정사각형의 넓이와 원의 넓이의 비와 같다.²⁷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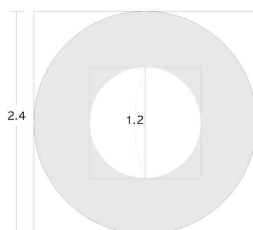
以方積一〇〇〇〇〇〇〇〇爲一率,圓積七八五三九八一六爲二率,今所得之方環面積四尺三十二寸爲三率,求得四率三尺三十九寸二十九分二十釐有奇,即所求之面積.蓋方環積與圓環積之比,即同於方積與圓積之比也.

2.2.45. ㉕ 만약 활꼴 농지[弧矢田]에서 현弦의 길이는 8척이고 시矢²⁷⁸⁾의 너비는 2척일 때, 넓이는 얼마인가?

設如弧矢田,弦長八尺,矢闊二尺,問面積幾何?

2.2.46. 풀이법: 활꼴을 이용하여 전체 원의 지름 10척을 구하여 얻는다. 이를 절반으로 나눠 5척을 얻어 1율로 하고, 현을 반으로 나눈 4척을 2율로 한다. 반지름 10만을 3율로 해서 4율인 8만을 구하여 얻고 이를 정현수²⁷⁹⁾로 삼는다. 이것으로 삼각함수표인 팔선표²⁸⁰⁾를 검색하여 53도 07분 49초를 얻어 반호半弧의

277) 여기에서 이용한 비례식은 다음과 같다.
 $1,0000,0000:7853,9816=4.32:x$.



양전법 14

278) 시矢: 원의 중심에서 현에 수선을 그을 때 현과 호 사이에 생기는 선분의 길이.

279) 정현수正弦數: 그림 46의 직각삼각형에서 $\sin\theta=b/c$ 일 때, b 곧 $c \times \sin\theta$ 값을 의미한다. 여기서 는, 풀이법을 해설한 아래 각주의 도형 $\triangle OAB$ 에서 볼 때, $\angle OBP$ 에 대한 코사인 값을 찾는 것이다.

280) 팔선표八線表: 삼각함수의 진수표. 8선은 정현(正弦, \sin), 여현(餘弦, \cos), 정절(正切, \tan),

각도로 삼고, 이것을 2배하여 106도 15분 38초를 얻어 호 전체의 각도로 삼는다.

法:以弦矢求得全圓徑十尺.折半得五尺爲一率,半弦四尺爲二率,半徑十萬爲三率,求得四率八萬爲正弦數.檢²⁸¹⁾八線表,得五十三度零七分四十九秒爲半弧之度分,倍之得一百零六度一十五分三十八秒爲全弧之度分.

2.2.47. 이렇게 하고 나서 원 전체의 각도인 360도를 129,6000초²⁸²⁾로 환산하여 1율로 삼고, 호 전체의 각도 106도 15분 38초를 38,2538초²⁸³⁾로 환산하여 2율로 삼고, 원의 지름 10척으로 원주 31척 4촌 1분 5리 9호 2사^絲 조금 넘는 수(곧 31.41592...척)를 얻어 3율로 삼아, 4율인 9척 2촌 7분 2리 9호 8사 조금 넘는 수(곧 9.27298...척)를 얻으면 이것이 호의 길이가 된다.

乃以全圓三百六十度,化作一百二十九萬六千秒爲一率;全弧一百零六度一十五分三十八秒,化作三十八萬二千五百三十八秒爲二率;以全徑十尺,求得全周三十一尺四寸一分五釐九毫二絲有餘爲三率;求得四率九尺二寸七分二釐九毫八絲有餘爲全弧之數.

2.2.48. 이것을 반지름 5척과 곱하여 46.3649척을 얻고, 2로 나뉘 23.182450척을 얻고서 원의 중심에서 나눈 부채꼴[弧背三角形]의 넓이로 삼는다.

與半徑五尺相乘,得四十六尺三十六寸四十九分,折半得二十三尺一十八寸二十四分五十釐,爲自圓心所分弧背三角形積.

2.2.49. 또 반지름 5척에서 시矢 2척을 뺀 나머지 3척과 현의 길이 8척을 곱하여 24척을 얻고, 2로 나뉘 12척을 얻고서 원의 중심에서 현에 이르는 삼각형의 넓이로 삼는다.

又於半徑五尺內,減矢二尺餘三尺,與弦八尺相乘,得二十四尺,折半得一十二尺,爲自圓心至弦所分直線三角形積.

2.2.50. 부채꼴의 넓이 23.182450척에서 이것을 빼면 11.182450척이 남는데,

여절(餘切, cot), 정할(正割, sec), 여할(餘割, csc) 등 6선과 정시(正矢, vers), 여시(餘矢, covers)를 추가한 것이다.

281) 檢:『본』檢.

282) 129,6000초=360도×60분/도×60초/분.

283) 38,2538초=(106도×60분/도×60초/분)+(15분×60초/분)+38초.

곧 이것이 구하고자 하는 활꼴 농지의 넓이이다.²⁸⁴⁾

與弧背三角形積二十三尺一十八寸二十四分五十釐相減，餘一十一尺一十八寸二十四分五十釐，卽所求弧矢田之面積也。

2.2.2. 예제의 응용

2.2.51. 무릇 농지의 형태는 지세의 높낮이와 기울기에 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각형과 원, 사선과 수직선이 수 만 가지여서 일정하지 않다. 그러나 이 15문제로 응용한다면 또한 비슷한 유형을 유추하여 두루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凡田形，隨地勢高低平陂而成之，方·圓·斜·直有萬不同²⁸⁵⁾，然以此十五題御之，亦可以推類旁通。

284) 풀이법은 다음과 같다.

△AB를 연장한 원을 가정할 때,
(△AB의 넓이) = (▽OAB의 넓이) - (△OAB),
곧 △AB = ▽OAB - △OAB이다.

① △OAB를 구하려면,

밑변 AB는 주어졌으므로 높이 OP를 구해야 한다.

OP는 반지름 길이를 얻어야 구할 수 있다.

▽OAB의 반지름 r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OBP는 직각삼각형이므로, $r^2 = (r - 2)^2 + 4^2$.

이 식을 풀면, $r = 5$ 이다.

② 호AB의 길이를 l이라 하면,

▽OAB = $1/2 \times (\text{반지름}) \times (\text{호의 길이}) = (1/2)rl$.

따라서 ▽OAB를 구하려면 l 값을 먼저 구해야 한다. l 값을 구하려면 원O에서 비례식을 만들어야 한다.

$l : \text{원주} = \angle AOB : 360^\circ$ 를 이용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angle AOB$ (θ 라고 하자)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반지름이 10만인 원에서 선분 PB의 길이(x 라 하자.)를 구한다.

OB:BP = 5:4 = 10,000:x에서, $x = 8,0000$

$\cos(\theta/2) = 8,0000/10,0000$ 을 이용하여 삼각함수표를 찾으면 $\theta/2 = 53.0749^\circ$ 가 되므로,
 $\theta = 106.1538^\circ = 38,2538^\circ$.

이제 호AB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 비례식을 세우면,

호 AB:원주 = $\theta : 360^\circ$ 에서,

원주 = 지름 $\times 3.141592 \dots$ 척이고, $360^\circ = 129,6000^\circ$ 이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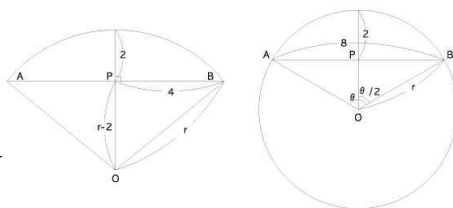
$l = \text{호AB} = (31.41592 \dots \text{척} \times 38,2538^\circ) \div 129,6000^\circ = 9.27298 \dots \text{척}$.

③ ▽OAB = $(1/2)rl = 1/2 \times (5 \text{척}) \times (9.27298 \dots \text{척}) = 23.182450 \text{척}^2$.

④ △OAB = $(1/2) \times (\text{밑변의 길이}) \times (\text{높이}) = (1/2)AB \times OP = 1/2 \times (8 \text{척}) \times (5 \text{척} - 2 \text{척}) = 12 \text{척}^2$

⑤ 따라서 △AB 넓이 = ▽OAB - △OAB = $23.182450 \text{척}^2 - 12 \text{척}^2 = 11.182450 \text{척}^2$.

285) 同: 『본』 齊.



양전법 15

2.2.52. ⑮-1 예를 들어 정오각형 농지의 넓이를 구해보자. 원 전체 360° 를 5로 나누어 72° 를 얻고, 다시 2로 나누어 36° 를 얻는다.

如求五等邊田之面積.以全圖三百六十度,五分之,得七十二度,折半得三十六度.

2.2.53. 이 36° 의 싸인(sine, 正弦) 값을 조사하여 1율로 삼고, 정오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 10만을 2율로 삼고, 지금 주어진 정오각형 농지의 1변을 2로 나누어 3율로 삼고 이것들을 미루어서 4율을 얻으면, 곧 이것이 정오각형 농지의 외접원의 반지름이다.

查其正弦爲一率,半徑十萬爲二率,今所有五等邊田之一邊折半爲三率,推得四率,卽五等邊田之外切圓半徑也.

2.2.54. 그런 뒤 지금 얻은 반지름을 ‘직각삼각형의 빗변[弦, 현]’으로 삼고 정오각형 농지의 한 변의 절반을 ‘직각을 끼고 있는 짧은 변[句, 구]’으로 삼아 이 구와 현을 가지고 ‘긴 변[股, 고]’을 구하여 얻으면, 곧 이것이 정오각형 농지의 중심에서 모든 변에 이르는 수선이다. 끝으로 긴 변과 짧은 변을 곱하고 이어서 5를 곱하면, 곧 이것이 정오각형 농지의 넓이인 것이다.²⁸⁶⁾

爰以今所得之半徑爲弦,五等邊田之一邊折半爲句,以句·弦求得股,卽五等邊田中心至每邊之垂線也.末以股乘句,五因之,卽五等邊田之面積.

286) 정오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수리정운』에서 다섯 가지를 소개했고, 본문의 내용은 그 중 두 번째 방법과 비슷하다. 『御製數理精蘊』下編 卷20 「面部」 10 「曲線形」.

정오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정오각형 넓이) $= 5 \times 2 \times \triangle OAC \dots$ (‘①식’이라 하자)이므로,

$\triangle OAC$ 를 구하려면 선분 OC의 길이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선분 OC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선분 AC의 길이는 실측할 수 있으므로

외접원의 반지름인 선분 OA의 길이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angle AOC$ 를 이용하여 비례식을 만든다.

$\angle AOC = 360^\circ \div 5 \div 2 = 36^\cir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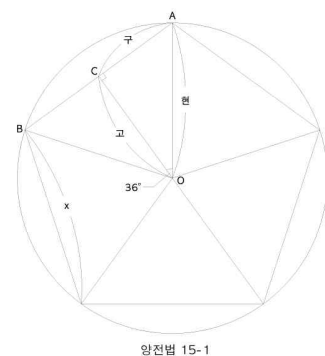
$AB = x$ 라 하면,

$(10,0000 \times \sin 36^\circ) : 10,0000 = x/2 : OA$.

이 식으로 OA 값을 얻으면

$\triangle OAC$ 에서 선분 OC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triangle OAC = AC \times OA \times 1/2$ 이므로, 이 식에서 얻은 $\triangle OAC$ 값을 ①식에 대입하면 정오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다.



2.2.55. 정육각형·정칠각형·정팔각형·정구각형 등의 각 농지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도 모두 이와 같다. 대개 법칙이 있는 농지[有法之田]는 모두 구고법句股法²⁸⁷⁾을 응용해야 하고, 법칙이 없는 농지[無法之田]는 모두 삼각법을 응용해야 한다.²⁸⁸⁾ 사각형과 원, 넓이와 변의 길이 각각에는 비례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오직 법칙을 잘 쓰는 자만이 여러 변형에 통달하여 막히지 않을 것이다.

六等邊·七等邊·八等邊·九等邊之各田法皆倣²⁸⁹⁾此.蓋有法之田,皆當以句股法御之;無法之田,皆當以三角法御之.方與圓,積與邊,各有比例,惟在善用法者,通變而不窮爾.

287) 구고법句股法: 피타고라스 정리의 중국식 표현.

288) “대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법칙이 있는 도형이고, 계산할 수 없는 것은 법칙이 없는 도형이다. 삼각형은 법칙이 있는 도형이다. 길이나 기울기를 논할 필요 없이 삼각형의 넓이[數]를 모두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칙이 있다고 한다. 만약 법칙이 없는 도형을 나누어 보아 삼각형이 되면 계산할 수 있다.” 凡可算者爲有法之形,不可算者爲無法之形.三角者,有法之形也.不論長短斜正,皆可以求其數,故曰有法.若無法之形析之,成三角則可量.” 梅文鼎,『曆算全書』卷50「三角形舉要法」卷1「三角形」. 법칙이 있는 농지[有法之田]는 법칙이 있는 도형[有法之形]을 응용한 표현으로, 원·타원, 모든 삼각형, 정사각형·직사각형, 정다면체 등이다. 법칙이 없는 농지[無法之田]는 법칙이 없는 도형[無法之形]을 응용한 표현으로, 위에 열거한 도형 이외의 도형을 말한다. 徐光啓,『新法算書』卷90「測量全義」“界說”‘第4界’~‘第8界’ 참조.

289) 倣: 『본』 放.

<제2목 해설>

양전을 위해서는 주척 단위의 확정과 함께 농지 넓이를 구하는 일이 관건이다. 농지 넓이 계산이 정확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폐해는 이미 앞에서 들었던 대로이다. 서유구는 방전법이라는 양전법을 추천했고 이어서 여기 제2목(농지 계산법을 나눠주어 미리 연습하도록 하기)에서는 방전법의 규모보다는 작은 농지의 양전에 필요한 계산법을 정리했다. 그가 정리한 내용은 양전 실무자들에게 “농지 계산법을 나눠주어 미리 연습하도록”(2.2.1)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되었다. 이를 서유구는 방전方田이라 불렀는데, 이때 방전은 제1목에서 서술한 ‘방전법’과는 다르다. 방전법이 가로·세로 360보인 정사각형 농지를 측량하는 큰 단위의 양전법이라면, 방전은 방전법을 적용할 수 없는 작은 단위의 양전법으로서 다양한 “농지 영역의 모양으로 실제 넓이를 구하는 일”(2.2.2)인 것이다.

‘방전’은 본래 정사각형 농지라는 뜻이지만, 중국에서 아홉 범주로 분류한 수학 분야 중 하나로 규정되면서 보다 포괄적인 의미가 담기게 되었다. 중국의 대표적인 수학서 『구장산술九章算術(1세기 경)』이 바로 산학의 범주를 9장²⁹⁰⁾으로 체계화했는데, “농지 영역을 처리”(2.2.2)하여 농지 넓이를 계산하는 부분인 ‘방전’을 9장 중 첫 장에 배치했다. 『구장산술』에서 다루는 농지 종류는 방전 이외에 “직전(直田, 직사각형 농지)·규전(圭田, 삼각형 농지)·사전(梭田, 마름모 농지)·제전(梯田, 사다리꼴 농지)·사전(斜田, 직각사다리꼴 농지)과 원 둘레와 지름으로 구하는 원전(圓田, 원형 농지)·완전(宛田, 가운데가 볼록 솟은 농지)·환전(環田, 원 고리모양 농지)”(2.2.2) 등이었고, 이 이후의 산학서에서도 양전 관련 내용이 적지 않게 다뤄졌다. 하지만 서유구는 중국의 농지 계산법이 개략적이라고 판단하여, 이 제2목에서는 서학이 가미된 수학서인 『수리정온數理精蘊』 등을 참고하여 양전에 관한 문제를 총 15개로 유형화했다.(2.2.3~4)

서유구가 제시한 이 15제는 생부 서호수의 『해동농서』에 처음으로 정리되었다. 이후 『임원경제지 본리지』와 『의상경제책』에 거의 그대로 전제되었다.²⁹¹⁾ 『

290) 서유구는 사대부의 교양으로서의 수학을 다룬 <<임원경제지>> 94 『유예지』(권2)에서 『구장산술』과 같이 9장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전(方田, 농지의 넓이 구하기), 속포법(粟布, 물건의 양과 거래 시 가격 계산하기), 쇠분(衰分, 물건의 가격·세금에 차등을 두어 계산하기), 소광(少廣, 화살 묶음의 개수와 토지의 넓이 구하기), 상공(商功, 거리의 원근과 용역 비용 구하기), 균수(均輸, 물건의 가격과 각종 비용 구하기), 영육(盈朒, 사람 수와 물건의 가격 구하기), 방정(方程, 물건의 개수와 가격 구하기), 구고(句股, 직각삼각형의 원리 이용하기).

해동농서』에 실려 있기 때문에, 또 『본리지』에 인용되면서도 서유구가 그 출처를 『해동농서』로 밝혔기 때문에 이 내용은 서호수의 편찬으로 받아들일 만하다. 그렇지만 『의상경제책』에서 서유구의 “제가 예전에 신법인 구고법과 삼각법을 이용하여 양전법의 몇 유형을 예제 15개로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2.2.4)라는 서술에 따르면 자신이 젊은 시절에 정리하여 아버지가 『해동농서』 저술 때 보완했던 것으로 보인다. 부친의 저술을, 그것도 부친의 저술 속의 내용을 자신의 저술이라고 역지를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서유구는 일찍부터 양전법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을 뿐 아니라, 양전법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해 온 셈이다.

제2목의 15문제에서 거의 전적으로 의존한 『수리정운』은 서유구에게 젊은 시절부터 훨씬 익숙했던 수학서였다. 『수리정운』은 청의 강희 연간에 음률音律·역법曆法·수학 등 세 분야에 걸친 총서의 편찬을 계획한 뒤 그 중 수학 분야로 저술된 책으로, 매각성(梅穀成, 1681~1763)·명안도(明安圖, 1692~1763)·하국종(何國宗, ?~1766) 등이 중심이 되어 약 10년(1713~1722)에 걸쳐 서양과 중국의 수학을 종합하여 편찬한 성과물이었다. 세 분야의 저작이 바로 1722년 경에 완성된 『율려정의律呂正義』·『역상고성曆象考成』·『수리정운』 등 100권이며 이들을 통틀어 <<율려연원律曆淵源>>이라 한다. 이 중 『수리정운』은 총 53권으로 상편 5권, 하편 40권, 삼각함수·대수표 등을 다룬 8권으로 구성되어 있다.²⁹²⁾

서유구가 이 제2목의 내용을 손수 정리했다면 그는 이미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사이에 『수리정운』을 세밀히 연구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먼저 그는 조부 서명응을 통해 『수리정운』을 젊은 시절에 접했다. 서명응은 『고사십이집攷事十二集』을 편찬하면서 산법만을 별도로 정리했다. 이 산법 부분은 뒷날 <<임원경제지>> 『유예지』 권2 전 내용을 구성하게 되었다. 『고사십이집』은 1787년(서명응의 몰년) 이전의 저술인 <<보만재총서>>에 수록된 서종 중 하나로, 그 상당 부분이 『수리정운』을 참조했다. 『의상경제책』 15제題에는 『수리정운』에 수록된 도

291) 『海東農書』 卷1 「田制」(『農書』 10, 31~47쪽); 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임원경제지 본리지』 1, 179~195쪽. 『의상경제책』의 서두 부분(2.2.1~5)만 새로 추가되었을 뿐이다. 『본리지』에서는 문제 ①-1의 풀이를 생략하고 답만 제시했다는 점만 『해동농서』와 차이 난다. 현존하는 『해동농서』 필사본은 2종이다. 하나는 성균관대 소장본으로 8권이며(『農書』 9, 아세아문화사, 1981), 다른 하나는 일본 오사카나카노시마부립도서관 소장본으로 4권이다(『農書』 10, 1~363쪽). 양전 15제는 후자에만 실려 있다.

292) 韓琦, “數理精蘊”, 『中國歷史大辭典-科技史』, 上海辭書出版社, 2000, 712~713쪽; 金容雲, “수리정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3, 161쪽.

형이나 수식數式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반면, 『고사십이집』에는 이 부분을 그대로 반영했다. 서유구가 20세 전후에 <<보만재총서>> 편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력을 볼 때 그 당시에 이미 『수리정온』에 담긴 수학을 상당 부분 접하면서 이해하고 있었다고 판단할 만하다.

『의상경계책』에 소개한 15제는 『해동농서』의 글 말미에 ‘이상신보(以上新補, 이상의 내용은 새로 보충함)’라는 표기와 함께 수록되었다. 『해동농서』의 편찬 연대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서호수가 죽기 전에 편찬했기 때문에 1799년(서유구 36세) 이전 작품이다.²⁹³⁾ 또 서호수가 저술한 『수리정온보해數理精蘊補解』 서문을 서유구가 쓰기도 했다.²⁹⁴⁾ 『수리정온보해』는 저자 서호수의 서문에 ‘시헌력원 갑자후일백삼년학산초부서(時憲曆元甲子後一百三年鶴山樵夫書, 시헌력 역원 갑자 103년 후 학산초부²⁹⁵⁾가 쓴다)’라고 적힌 것으로 보아 1787년에 서문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²⁹⁶⁾ 그렇다면 15제 저술은 서유구의 귀농기 이전에 완료했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조부와 생부의 저술에 『수리정온』을 반영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가학을 이어받은 서유구가 양전에 『수리정온』을 토대로 한 실무집을 제안하는 일 또한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양전 관리와 실무자를 위한 이 15제에는 삼각형·사각형을 비롯한 다각형과 원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주를 이루었다. 즉 정사각형, 직사각형, 직각삼각형, 삼각형, 평행사변형, 사다리꼴, 고리모양의 정사각형, 부등변 사각형, 원, 타원, 원 고리모양, 활꼴, 정오각형 등의 농지 넓이를 구하는 문제를 수록했고 이와 더불어 정육각형·정칠각형·정팔각형·정구각형 등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로 응용이 확대될 수 있는 발판을 제시했다.(2.2.6~55)

293) 『해동농서』가 정조 대 ‘권농정구농서윤음勸農政求農書綸音’(이하 윤음으로 약칭)에 대한 응지서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金容燮, 『朝鮮後期農學史研究』, 지식산업사, 2009, 385~386쪽; 염정섭, 「서호수」, 한영우선생정년기념논총 간행위원회 엮음, 『63인의 역사학자가 쓴 한국사 인물 열전』 2, 돌베개, 2003, 408쪽). ‘윤음’은 정조 22년(1798) 11월 30일에 반포했고, 서호수는 정조 23년 1월 10일에 세상을 떠났다. 그렇다면 초고본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조 22년 12월 한 달 간 서호수가 『해동농서』를 정리했다고 보아야 할 텐데, 그럴 가능성은 적은 것 같다. 더군다나 『해동농서』에는 ‘윤음’과 관련된 언급도 나오지 않는다.

294) <<全集>> 『金華知非集』 卷3 「序」 ‘數理精蘊補解序’(<<叢刊>> 288, 350쪽).

295) 학산초부는 서호수의 자호이다. 학산은 묘향인 장단에 있는 백학산의 옛 명칭이다.

296) 시헌력 역원 갑자년은 강희 연간 갑자년(1684)이다. “우리나라 역사가 『역상고성曆象考成』이 나온 뒤부터 조금도 어긋나지 않았는데, 갑인년(1734)에 이르러 절기가 많이 어긋났기 때문에 관상감 관원 안중태安重泰를 연경에 보내 이것을 질문하게 했다. 그랬더니 구법은 강희 연간 갑자년(1684)을 역원으로 삼았고 신법은 옹정 원년(1723)을 역원으로 삼았다고 한다. 我國曆書,自曆象考成出來之後,纖悉不爽,至甲寅年,節氣多舛,故送觀象監官安重泰于燕,問之,則舊法以康熙甲子爲元,新法以雍正元年爲元.” 『영조실록』 11년(1735) 1/30.

서유구가 이렇게 비교적 다양한 유형의 계산법을 제시한 이유는 농지 모양이 아주 다양했을 텐데도, 정조·순조 대 전국에서 양전에 활용한 유형은 5가지뿐이라는 점에 불만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5가지는 방전·직전·제전·규전·구고전(勾股田, 직각삼각형 농지)이 그것이다.²⁹⁷⁾ 이는 『속대전』에 기록된 다음과 같은 규정에 입각하여 방전·직전 외에 3가지를 추가한 내용이다. “농지 모양이 명확하지 않은 곳은 방전과 직전으로 재량하여 측량한다. 경사진 곳이나 흠이 있는 곳은 따로 농지 모양을 만들어 측량한다.”²⁹⁸⁾ 하지만 이 같은 전지의 다섯 유형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었다. 팔도의 농지가 이 다섯 유형만 있을 리 없었지만, 여러 유형을 세분하여 관리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심지어는 이 같은 소략한 기재 방식에 대해 현실의 농지는 이 다섯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었다.²⁹⁹⁾ 이로 볼 때 다양한 유형의 농지를 5개 농지로 유형화함으로써 빚어질 부정확한 양전이 얼마나 많았을지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양전법으로 가급적 정확한 양전을 하기 위한 세부 지침의 필요성에서 서유구가 이 같은 여러 계산법을 소개한 듯하다.

서유구는 15제의 문제와 풀이법을 거의 대부분 서양 신법이 반영된 『수리정운』에서 발췌했다.(표7) 문제의 유형 중에는 상당 부분이 이전의 중국 수학서에서 이미 다뤄졌으나 이전 수학서보다는 신법을 주로 반영하려는 시도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의상경제책』의 제2목에서 활용한 『수리정운』의 산법은 모두 하편에 수록된 내용이었고, 그 중에서도 점·선·면·입체 가운데 면을 다루는 영역이 집중적으로 반영되었다.³⁰⁰⁾ 『수리정운』의 해당 부분은 본래 농지 측량을 목적으로 저술된

297) 정조도 이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若田形不分明處,以方田直田裁作尺量.斜缺處,別作田形打量,只以五名色懸錄量案.而無論陳起,量滿五結則用一字號標之,曰方田也,曰直田也,曰梯田也,曰圭田也,曰勾股田也.”(정조, <<홍제전서>> 제121권 『추서준기鄒書春記』 2 「진심편盡心篇」 ‘서백선양로장西伯善養老章’) 또 『만기요람』에는 다음과 같이 5종의 농지 넓이를 구하는 방법까지 소개했다. “田形各異,名色易眩.故只以人所易知方田·直田·梯田·圭田·勾股田五名色打量錄案.方田,方自乘;直田,長廣相乘;梯田,大小頭相併折半,以長乘之;圭田,長濶相乘折半;勾股田,勾股相乘折半,各爲田積.” 『만기요람』 「재용편」 2 “전결田結” ‘양전법’. 한편 홍대용도 이 5가지 양전법을 소개하며 유형마다 예제 1개씩을 제시하기도 했다. <<담헌집>> 외집 4권 『주해수용籌解需用』 내편 상 ‘양전법’.

298) “田形不明處,以方田直田裁作打量.斜缺處,別作田形打量.” 『大典通編』 卷2 「戶典」 ‘量田’(『大典通編』 上, 199쪽).

299) “右所列七樣田打量之式,都係死法,尺童之所能知也.(중략)今國中之田,小自一稜,大至一成,無一而非無法四邊之形也.(중략)巡行八路,畢世而不一遇矣.” <<與猶堂全書>> 『牧民心書』 卷4 「戶典六條」 ‘田政’. 정약용은 5가지에 2가지를 더 추가하여 마름모꼴의 사전梭田과 직사각형에서 허리 부분이 잘록해진 요고전腰鼓田을 소개했다.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의상경제책』(인용한 이전 저술을 포함하여)에서 정리되면서 양전 계산 용도에 맞게 문제에 조금씩 변형이 가해지기도 했다. 이것이 『의상경제책』 양전법 15제의 특징 중 하나다. 그 예를 두 가지만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문에는 없던 ‘전田’이라는 글자가 모든 문제에 추가된다거나 길이 단위를 줄이거나 키우기도 했다.³⁰¹⁾ 이렇게 변형이 가해지면서 이 15제에서 구한 넓이는 작게는 3척² 남짓에서부터(⑭) 많게는 45,9684척²까지의(①, ①-1) 범위에서 다뤄졌다. 3척²은 가로·세로가 약 1.7척 정도(약 0.4m) 되는 정사각형만한 넓이이며 45,9684척²은 가로·세로가 678척(=113보, 약 157m)인 길이라 속중 대의 방전법에서 채는 길이(360보)보다는 짧다.³⁰²⁾ 이로 볼 때 손 두 뼘 정도 되는 작은 공간이라도 양전의 대상으로 염두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표7> 농지 계산법 15문제의 유형과 출처

순서	구하는 내용	주어진 조건	수리정온 출처
①	정사각형 넓이	한 변 길이	
①-1	정사각형 한 변 길이	정사각형	하편 권11
②	직사각형 넓이	가로·세로 길이	
③	가로·세로 길이	직사각형 넓이, 세로 길이= 가로 길이+5척	하편 권11
④	가로·세로 길이	직사각형 넓이, 세로 길이+ 가로 길이=71척	하편 권11(유사)
⑤	직각삼각형 넓이	밑변 길이, 높이	하편 권12(유사)
⑥	삼각형 넓이	세 변 길이, 수선 길이	하편 권14(유사)
⑦	평행사변형 넓이	네 변 길이, 긴 대각선 길이, 긴 대각선에서의 수선 길이	하편 권19(유사)
⑧	직각 사다리꼴 넓이	윗변·아랫변·직각 긴 변 길이	하편 권19
⑨	사다리꼴 넓이	윗변·아랫변 길이, 높이	하편 권19
⑩	고리 모양 정사각형 넓이	바깥 둘레, 안 둘레	하편 권19
⑪	부등변 사각형 넓이	네 변 길이, 대각선, 대각선에서의 수선 길이 두 개	하편 권19(유사)
⑫	원 넓이	지름	하편 권20

300) 변을 다루는 영역은 『수리정온』 하편 권11~22이고 이 중 『의상경제책』에서 인용된 곳은 권 11, 12, 14, 19, 20이었다.

301) 예를 들어 ‘正方’·‘長方’을 ‘正方田’·‘長方田’으로(①-1, ③), ‘銳角三角形’을 ‘三角田’으로(⑥), ‘斜方形’을 ‘斜方田’으로(⑦), ‘圓環形’을 ‘環田’으로(⑭) 바꾼 사례가 전자에 해당하고, ‘六尺’을 ‘六十尺’으로(⑤), ‘二十五丈’을 ‘二十五尺’으로(⑦), ‘八寸’을 ‘八尺’으로(⑫) 바꾼 사례가 후자에 해당한다.

302) 1척을 약 23.1cm로 환산한 수치이다.

⑬	타원 넓이	장축·단축 길이	하편 권20
⑭	고리 모양 원 넓이	안 지름, 바깥 지름	하편 권20
⑮	활꼴 넓이	현 길이, 현과 호 사이의 가장 긴 길이	하편 권20
⑮-1	정오각형 넓이	한 변의 길이	하편 권20

양전에 맞게 변형된 두 번째 사례는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서 볼 수 있다. 15제 중 문제 ⑥번(2.2.24~25)은 삼각형 농지 넓이를 구하는 문제와 풀이이다. 문제에서는 세 변과 수선이 주어졌고, 이 문제의 풀이법에서는 주어진 조건 중 2개 즉 밑변과 수선의 길이만을 사용했다. 그렇게 되면 조건에서 제시된 긴 변과 짧은 변의 길이는 문제 풀이에 전혀 쓰이지 않는 사족이 된다. 이처럼 주어진 조건 두 개가 의미 없이 제시된 경우는 이 외에도 ⑦·⑪ 두 문제가 더 있다. 위의 세 문제는 한결 같이 삼각형의 두 변 길이를 풀이에서 이용하지 않은 점에서 같은 유형이다. 이 문제들을 제외한 나머지 12문제는 풀이에 필요한 조건만 제시되었다.

꼭 필요한 조건만을 제시하는 수학 문제에 왜 이렇게 불필요한 조건이 포함되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실제 양전에서는 삼각형 전지에 대해 수선 길이를 실측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양전을 할 때 밑변에서 바라다 보이는 꼭지점까지의 수선 길이는 직각자와 줄자를 이용하면 큰 오차 없이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기하학적인 도형에서는 엄밀한 증명을 통해 수선 길이 구하는 법을 알아야 하지만, 실측하는 일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양 빗변을 측량하고, 다시 세 변 길이를 이용하여 수선 길이를 구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한다.³⁰³⁾ 이렇게 본다면 삼각형 넓이 구하는 법은 양전 과정의 실측을 염두에 둔 문제 변형의 사례가 될 것이다.

양전 용도로 문제가 변형된 점과 함께 양전법 15제의 또 다른 특징은, 중국과 서양의 방법을 필요에 따라 취사선택했다는 점이다. 15제 중에 정사각형, 직사각형, 직각삼각형 등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풀이가 대체로 간단하다. 이는 중국의 이전 수학서에서 많이 다룬 내용으로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중 정사각형의 넓이를 알 경우 제곱근을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는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다. 제곱근 구하는 방법

303) 그렇다고 해도 불필요한 조건 두 개는 아예 없애도 무방했을 것이다.

을 개방開方 또는 개평방開平方이라고 하는데, 이는 『구장산술』에도 이미 그 방법과 원리가 밝혀져서 서유구는 그 방법을 그대로 따랐다. 이상의 방법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서양수학의 풀이법을 흡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 한 예로 원의 넓이를 구하는 경우 고법古法과 함께 신법新法에서 제시한 보다 더 정교한 원주율을 이용한 방법도 받아들였다. 양전 15제에서는 원주율을 이용한 문제가 모두 3가지(⑫·⑬·⑭)인데, 이 중 첫 번째 문제(⑫)에서는 구법을 이용하여 풀었다. 실제로 『수리정온』에는 지름의 길이를 알 때 원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5가지로 소개했다.³⁰⁴⁾ 양전 15제 중 ⑫번은 이 중 가장 간단한 다섯 번

304) 이 5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주율($=3.14159265$)을 이용하여 지름으로 원주를 구한 뒤 원주의 반을 구하고 이를 다시 반지름 길이와 곱하여 원 넓이를 구한다(“設如圓徑八寸問面積幾何?法:以圓徑八寸,用徑求周法,求得圓周二尺五寸一分三釐二豪七絲四忽一微二纖折半,得一尺二寸五分六釐六豪二絲七忽零六纖,與半徑四寸相乘,得五十寸二十六分五十四釐八十二豪有餘,即圓之面積也.” 『御製數理精蘊』 下編 卷20 「面部」 10 「曲線形」). 둘째, 원의 외접사각형 넓이와 원 넓이의 비례 관계($1,0000,0000:7853,9816$)를 이용한다(“又法:用方邊圓徑相等·方積圓積不同之定率比例,以方積一〇〇〇〇〇〇〇〇爲一率,圓積七八五三九八一六爲二率,今所設之圓徑八寸自乘得六十四寸爲三率,求得四率五十寸二十六分五十四釐八十二豪有餘即圓之面積也.” 위의 글). 셋째, 원과 정사각형의 넓이가 같을 때, 원지름과 사각형 한 변 길이의 비례 관계($1,0000,0000:8862,2692$)를 이용한다(“又法:用圓積方積相等·圓徑方邊不同之定率比例,以圓徑一〇〇〇〇〇〇〇〇爲一率,方邊八八六二二六九二爲二率,今所設之圓徑八寸爲三率,求得四率七寸零八釐九豪八絲一忽五微四纖有餘爲與圓面積相等之正方形,每邊之數自乘得五十寸二十六分五十四釐八十二豪有餘,即圓之面積也.” 위의 글). 넷째, 원둘레와 이 원의 외접사각형 둘레의 비($355:452$)는 원넓이와 외접사각형 넓이의 비와 같음을 이용한다(“又法:用方周·圓周定率比例,以方周數四五二爲一率,圓周數三五五爲二率,圓徑八寸自乘得六十四寸爲三率,求得四率五十寸二十六分五十四釐八十六豪有餘,即圓之面積也.此法蓋因方周與圓周之比同於方積與圓積之比.” 위의 글). 다섯째, 원둘레와 이 원의 외접사각형 둘레의 비($11:14$)는 원넓이와 외접사각형 넓이의 비와 같음을 이용한다(넷째와 다섯째는 비례수의 차이만 다를 뿐, 같은 방법이다). (2.2.38) 첫째~셋째 방법은 모두 원주율을 소수 여덟째 자리(3.14159265)까지 정확하게 쓴 것으로, 『수리정온』에서 새로 쓴 방법이다($7853,9816.25=5000 \times 5000 \times 3.14159265$. “凡方員同徑,則方積大,員積小,周亦如之.其比例若四〇〇〇〇〇〇〇〇與三一四一五九二六五,方徑一〇〇〇〇,周四〇〇〇〇,積一〇〇〇〇〇〇〇〇;員徑一〇〇〇〇,周三一四一五九,積〇七八五三九八一六.” 梅文鼎 撰, 『曆算全書』 卷56 「方圓冪積」 卷1 「方圓周徑相求」. 한편 서유구도 열람했을 가능성이 있는 한역 서양 수학서에서는 원주율을 3.14159265358979323846 과 3.14159265358979323847 사이 값이라 제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徐光啓 等 撰, 『新法算書』 卷91), 여기서 이용한 원주율은 당시 계산의 편의 상 이용한 원주율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넷째 풀이는 원주율을 3.14159292 로 소수 여섯째 자리까지 정확하지만, 다섯째 풀이는 3.14285714 로 계산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만의 정확도만 보였다. 이 넷째·다섯째는 조충지(祖沖之, 429~500)가 밝힌 구법을 따른 것이다(조충지 이전까지는 원주율을 3으로 계산했으나 그는 3가지 원주율을 새로 계산했다. 하나는 지름과 원주의 비가 7:22이고(이를 약률約率이라 한다), 또 다른 하나는 $113:355$ 이며(이를 밀률密率이라 한다), 나머지 하나는 원주율이 $3.1415926 \sim 3.1415927$ 에 들어 있는 값이다. “古之九數圓周率,三圓徑率一,其術疏舛.自劉歆張衡劉徽王蕃皮延宗之徒,各設新率,未臻折衷.宋末南徐州從事史祖沖之更開密法,以圓徑一億爲一丈,圓周盈數三丈一尺四寸一分五釐九毫二秒七忽,朒數三丈一尺四寸一分五釐九毫二秒六忽,正數在盈朒二限之間,密率圓徑一百一十三,圓周三百五十五,約率圓徑七,周二十二.” 『隋書』 卷16 「志」 第11 “律曆” 上 “備數”).

째 방법을 썼는데, 이 방법은 가장 간단하면서 동시에 정확도는 가장 떨어진다. 원 넓이를 구하는 방법으로 서유구는 구법 중에서도 간단한 원주율을 썼던 것이다.³⁰⁵⁾

하지만 위의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두 문제(⑬·⑭)에서는 신법의 원주율을 이용했다. 원 넓이를 구하는 5가지 방법 중 둘째, 즉 원의 외접사각형 넓이와 원 넓이의 비례 관계(1,0000,0000:7853,9816)를 활용한 것이다.(2.2.39~44)³⁰⁶⁾ 이런 사례를 볼 때 양전법으로 덜 정교하면서 계산이 쉬운 구법 뿐 아니라, 정교하지만 계산이 복잡한 신법까지 제시하여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원주율과 함께 서양의 방법을 도입한 또 다른 예는 삼각함수표의 활용이다. 당시 용어로 팔선표八線表라고 했던 삼각함수표는 활꼴 농지와 정오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이용되었다.(2.2.45~50, 52~53) 그 중 활꼴 농지의 경우, 삼각함수의 사인 값을 팔선표에서 찾은 뒤 삼각형의 특정 각도를 구하는 방법에 사용한다.(2.2.46) 팔선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리정운』에 수록해놓은 표를 반드시 참조해야 한다.³⁰⁷⁾

양전법 15제를 모두 해설한 뒤, 서유구는 실제 농지 형태가 매우 다양하더라도 15제를 유추한다면 두루 적용이 가능하다고 그 예로 정오각형 넓이 구하는 법을 소개했다. 정오각형 넓이 풀이에서 그는 삼각함수표를 이용하는 삼각법과 직각삼각형의 정리를 이용하는 구고법을 적용했다.(2.2.51~54) 현실의 농지가 기하학적 도형의 모양처럼 정확하게 형상화되는 일은 없지만 다양하게 만들어진 농지 유형을 가급적 최대한 포괄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지금 입장에서는 매우 소략해 보일 수 있는 이 문제들을 통해 서유구는 여러 유형의 실제 농지의 넓이를 측량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15제를 기본으로 하여 구고법과 삼각법을 응용하면 여러 유형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2.2.55)

305) 원 넓이를 구하는 고법에 대해서는 <<임원경제지>> 『유예지』에서도 다루었다. 『유예지』에서는 원의 넓이를 구하면서 원주율을 모두 3으로 쓰는 구법 3가지를 먼저 소개했다. 이어 주석에서는 『수리정운』에서 쓰는 원주율(3.14159265...)이나 지름과 원둘레의 비(113:355)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을 간략히 설명하며, 이 방법으로 풀어야 보다 정밀한 값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서명응의 『고사십이집』을 인용한 이 부분에서는 구법과 함께 신법으로 원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유예지』에서 소개했던 『수리정운』의 원 넓이 구하는 법 두 가지는 첫째와 넷째 방법이었다.

306) 이 비율은 한 번이 1,0000인 정사각형과 이 도형의 내접원과의 넓이 비이다. 타원과 타원의 외접사각형 넓이의 비도 원의 경우와 같다.

307) 팔선표는 『御製數理精蘊』表 卷1~2에 수록되어 있다.

2.1.3. 제3목 ‘전담 기관을 설치하여 근무 태도 평가하기’

2.3. 전담 기관을 설치하여 근무 태도를 평가한다

2.3.1. 셋째는 전담 기관을 설치하여 근무 태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三曰:設專司以考勤慢.

2.3.2. 제가 삼가 법전을 살펴보니 양전 시행이 있을 때마다 균전사均田使³⁰⁸)와 경차관敬差官³⁰⁹)을 나눠 파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臣謹稽國典,每有量田之役,分遣均田使敬差官,蓋所以綦重其事也.

2.3.3. 그러나 제가 듣기로는 군과 현에 임무를 일임했기에 원가(송 문제의 연호, 424~453년) 연간에 별 일 없었으나, 조정에서 대사臺使를 이리저리 파견하니 소제(479~493?)³¹⁰) 때는 난을 불러들였습니다.

然臣聞責成³¹¹)郡縣,元嘉所以少康;臺使縱橫,蕭齊所以召亂.

2.3.4. 또 제가 예전에 보았던 유형원의 『반계수록』에서는 “최근에 재상경차관災傷敬差官은 재상災傷이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면서 기생을 싣고 다니며 술판을 벌리고, 한두 수령을 파면시켜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이에게 양값음이나 하고, 한두 서리를 곤장 치고 가두어 위엄이나 세울 뿐이다. 또한 경차관의 종자에게 주는 뇌물은 모두 아전이나 백성에게서 나오는데 그 한도를 모른다.”³¹²)고 했습니

308) 균전사均田使: 조선 시대 백성의 부담을 공평히 할 목적으로 백성의 실정을 살피고 토지의 등급을 다시 사정하기 위해 지방에 파견되던 관료. 조선 후기의 요역과 공물 징납은 소유 토지에 기초하였으므로 토지 소유 실태를 정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었는데, 규정된 양전 이외에도 수시로 균전사를 파견하여 토지 소유 실태를 조사하였다. 균전사가 지방관의 비위를 조사할 경우, 당상관 이상은 계문啓聞하고, 당하관 이하는 직권으로 처단하였다. 『한국고전용어사전』 1, 832쪽.

309) 경차관敬差官: 조선 시대 지방에 파견하던 임시 벼슬. 주로 전국田穀의 손실을 조사하고 민정을 살피는 일을 맡았다. 『한국고전용어사전』 1, 347쪽.

310) 소제: 남조南朝의 제나라. 소씨가 창건함.

311) 責成: 임무를 완성하도록 요구함.

312) “又今田結久爲書員之利窟,故書員不得全利,歸分於眾吏.爲官者又使書員販納官需諸物.又敬差官從人供饋賄賂,皆出書員.朝廷雖遣災傷敬差官,所謂敬差官者全不知災傷之爲何事,不過載妓縱酒,罷黜一二守令,以報私嫌,時或坐杖書員,立己威焰而已.敬差官雖不知災傷之爲何事,百司皆不知其職務,其來已久,故世亦以爲常事.” 『礪溪隨錄』 卷6 「田制攷說 下」 ‘國朝田制附’.

다. 관리 파견에서 생긴 여러 폐단이 예나 지금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臣嘗見柳馨遠礪溪隨錄云：“近來災傷敬差官全不知災傷之爲何事，不過載妓縱酒，罷黜一二守令以報私嫌，杖囚一二吏役，立己威焰。而從人之供億賄賂，皆責出於吏民，不知紀極。”
遣使煩弊，古今何異？

2.3.5. 제가 듣기로는 지금의 남도 양전은 관찰사가 수령에게 업무를 지시하게 하여 편의대로 하도록 관찰사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합니다. 백성을 가엾이 여기고 그들의 고통에 마음 아파하시는 전하의 마음을 누가 손 모으고 우러러 칭송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제가 생각건대 관찰사의 조치가 미치는 곳은 한 도에 그칠 뿐이니, 다른 도의 조치가 어떤가에 대해서는 그 관찰사의 알 바가 아닙니다. 만에 하나 일을 마친 뒤에 도마다 조례가 다르고 작업의 수월성이 현격하게 차이난다면, 이것이 어찌 우리 전하께서 일시동인一視同仁하시는 마음이라 하겠습니까?

伏聞今此南路量田，專委道臣飭勵守宰，³¹³⁾隨便爲之。恤隱軫虞之口聖意，孰不攢手仰頌？而第伏念道臣施措之所及止於一道而已，他道之施措如何非其所知也。萬一竣事之後，條例各異，便否懸殊，則是豈我口聖上一視同仁之意哉？

2.3.6. 제가 생각하기로는 묘당에 명하여 비변사의 여러 관원 중 사무에 통달한 8명을 골라 팔도 양전 업무를 분담하게 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모든 도의 업무를 맡는 구관당상勾管堂上³¹⁴⁾의 예처럼 하면 되지, 반드시 모든 도에 나눠 파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비변사 회의를 통해 응당 시행해야 할 규정을 정하게 하여 팔도에 나누어주고 각 도에서 이를 살피 시행하게 하면 됩니다. 팔도의 관찰사는 모두 균전사 직함을 겸임하고 내직과 외직이 서로 긴밀히 유대하면서 의사소통을 통해 잘 헤아려 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전담 기관을 설치하여 거기서 근무 상태나 장부·문서를 검열합니다. 무릇 전하께 보고하고 결재 받을 일이 있으면 요약문서[草記]를 올려 재가를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이 거의 통솔되어 도마다 조례가 달라지는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313) 飭勵守宰: 수령에게 명령을 내려 힘쓰게 함.

314) 구관당상勾管堂上: 비변사를 설치하면서 팔도구관당상관八道勾管堂上官이 의정부 소관 업무였던 지방의 장계狀啓와 문부(문서와 장부) 업무를 관장했다. 1713년(숙종 39)부터는 5도의 군무軍務를 관장하였다. 대개 각 도에 1인의 구관당상을 두어 그 도의 장계와 문부를 맡아보게 했다. 『한국고전용어사전』 1, 660쪽.

臣謂宜令廟堂擇備局諸宰中通鍊事務者八人,分掌八路量田.如今諸道句管堂上之例,不必分遣諸道.只令會議籌司,講定應行事目,頒之八路,俾各按而行之.八道道臣皆兼均田使之銜,使之內外相維,往復商確.仍設專司於京,以句檢簿書.凡有口稟裁,許以草記取口旨.庶幾事有統攝,無道各異例之弊矣.

2.3.7. 옛날 현종 4년(1663)에 경기도 농지를 다시 양전할 때였습니다. 비록 경기감사와 수령에게 전적으로 위임했습니다만, 고 영의정 민정중閔鼎重과 고 판서 김시진金始振이 균전사가 되어 서울에서 이 업무를 심사했습니다.³¹⁵⁾

昔在口顯廟四年,改量京畿田,雖專委監司守令,而故相臣閔鼎重·故判書臣金始振爲均田使,在京考察.

2.3.8. 숙종 44년(1718)에 삼남(충청·경상·전라도) 농지를 다시 양전할 때에도 관찰사를 균전사로 삼고 도사都事³¹⁶⁾를 종사관從事官으로 삼았지만, 다시 서울에 양전청을 설치하여 구관당상 2인과 종사관 3인을 두어 문서를 관장하게 했습니다.³¹⁷⁾ 이들은 모두 본받을 만한 최근의 예입니다.

口肅廟四十四年,改量三南田,亦以道臣爲均田使,都事爲從事官,而復設量田廳於京,置句管堂上二員從事官三員,俾句管文書.此皆近例之可倣者也.

2.3.9. 또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각 읍 수령이 자기 읍을 평가한다면 서리의 비리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만약 서로 교환하여 다른 읍으로 옮겨 평가하게 하면, 팔도 360개 주와 군은 추수 뒤부터 춘분까지 단 한 읍이라도 자리를 비워서 업무를 보지 못 하게 될 걱정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일의 형세를 헤아려보아도 장애가 많은 것입니다.

臣又竊念列邑守令自量其邑,則無以防吏胥之姦.若令互換代移,則是八路三百六十州郡,自秋成以後至春分以前,無一邑不有曠官廢事之憂.揆諸事勢,亦多掣碍.

315) 이 일은 『현종실록』, 『현종개수실록』 4년(1663) 2/19, 2/22의 기사에 나온다.

316) 도사都事: 관리의 감찰과 규탄을 맡아보는 중5품 벼슬. 각도 감영의 경우에는 감사 다음 가는 벼슬로 지금의 부지사 급이며 수령의 비행을 감찰하고 과시科試를 맡아보았다. 중앙의 경우 충훈부·의빈부·의금부·개성부·충익부·중추부·오위도총부 등에 딸렸다. 『한국고전용어사전』 2, 261쪽.

317) 영의정 김창집金昌集의 건의에 의해서 실행되었다. 『숙종실록』 44년(1718) 3/13.

2.3.10. 그래서 저는 「경계장經界狀」에서 ‘관리를 추천하여 선발한다.’는 주자(朱子, 주희, 1130~1200)의 유지를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관찰사에게 관내 수령의 능력을 살펴 서너 읍에서 1인을 추천하거나 여덟아홉 읍에서 1인을 추천하게 합니다. 수령으로 인물이 부족하다면 우관郵官³¹⁸⁾에서 고르고, 우관으로 부족하다면 도내에서 임시로 머물고 있는 조정 관리에서 고르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선비 중에서 고릅니다. 이 때 그들의 명성에 맞게 임시로 군직軍職을 주고 아울러 균전관均田官이라 부릅니다. 일을 시작할 때는 심사숙고하도록 하고 마칠 때는 책임을 완수하도록 합니다. 일이 끝난 뒤 심사하여 표창한다면 사람마다 다투어 애쓸 것이니, 일은 성취되었으면서도 백성은 동요하지 않습니다.³¹⁹⁾

臣謂宜倣朱子經界狀“推擇官吏”遺意.先令道臣察一道守宰之能否,或三四邑而舉一人焉,或八九邑而舉一人焉.守令不足則擇於郵官,郵官不足則擇於道內寄寓朝官,又不足則擇於士人.以其名口聞,權付軍銜,並以均田官爲名.使之審思熟慮於其始,而委任責成於其終.事畢之後,量加旌賞³²⁰⁾,則人人競勸,事克濟而民不擾矣.

2.3.11. 또 제가 주자의 「신제사경계장申諸司經界狀」을 본 적이 있는데, 지선유 현知仙游縣인 정소숙鄭昭叔이 경계 업무를 행했던 일을 논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³²¹⁾

“정소숙이 스스로 말했습니다. 처음에 호부戶部에서 하달한 규정을 얻어 읽어보니, 명해져서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속관屬官과 이사吏史는 어서 시행해주시사 요청하지만, 제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일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문을 닫고 업무를 접어두고서 열흘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뒤에 환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마음과 입으로 반복하여 다시 의문나는 대목을 서로 따져서 물어보니, 가슴 속이 뻥 뚫려 다시는 의문점이 없었습니다. 그런 뒤에 동료들을 불러모아 자세히 일러

318) 우관郵官: 각 역의 마정馬政을 관장한 찰방察訪의 이칭.

319) 이상은 주희가 장주漳州를 다스릴 때, 광종光宗 소희紹熙 원년(1190)에 올린 장계를 조선의 현실에 적합하게 취하였다. “一.推行經界,最急之務在於推擇官吏.臣昨因本路諸司行下詢究嘗具已見申陳欲乞朝廷先令監司一員專主其事使擇一郡守臣汰其昏繆疲輓力不任事如臣等者,而使郡守察其屬縣令,或不能則擇於其佐,又不能則擇於它官,一州不足則取於一路見任,不足則取於得替待缺之中,皆委守臣踏逐申差,或權領縣事,或只以措置經界爲名.使之審思熟慮於其始,而委任責成於其終.事畢之後,量加旌賞,果得其人,則事克濟而民無擾矣.伏乞聖照許賜施行.” 朱熹, 『晦庵集』 卷19 「奏狀」 ‘條奏經界狀’의 첫째 항목에 나온다.

320) 旌賞: 『의상경계책』 旌賞. 『회암집』에 의거하여 수정.

321) 朱熹, 『晦庵集』 卷21 「申請」 ‘經界申請司狀’.

주고서 의문점이 있으면 서로 묻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며칠을 하니 동료들도 이해하지 못한 이가 없었습니다.

臣又嘗見朱子申諸司經界狀,論仙游知縣³²²⁾鄭昭叔推行經界事曰:“鄭自言初得戶部行下事目讀之,茫然不曉所謂.而寮佐³²³⁾吏史亟請施行,因竊自念己猶未曉,何以使人?乃閉閣³²⁴⁾謝事,覃思旬日,然後通曉.心口反復,更相詰難,胷中洞然,無復疑滯.然後集諸同官而告語之,使其有疑,即以相問.如是數日,而同官亦無不曉.

2.3.12. 동료들이 이해한 뒤 보정保正·보장保長³²⁵⁾을 일정하게 차출하되 몇 개의 현을 합하여 통틀어 차출하였으니, 인가의 거리에 구애받지 않았고, 부역(보정의 임무?)을 마친 지가 얼마 되었는지도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생산성이 높은 장정부터 취하여 두 등급으로 나뉘었는데, 크게는 도보부都保副와 도보정都保正³²⁶⁾의 직임을 갖추고, 작게는 대보장大保長³²⁷⁾의 직임을 갖추었습니다. 각각 종이 쪽지에 그 이름을 써서 두 문서 첩에 나누어 배치하되, 또 그 두 첩에서는 각각 네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동원할 물자가 많은 이, 인력이 많은 이, 재주가 좋아 기획을 감당할 이, 근력이 좋아 빠릿빠릿하게 움직일 이를 각각 분류하여 한 첩에 배치하는 것입니다.³²⁸⁾

同官既曉,然後定差保正·保長,合縣通差.不以烟爨遠近爲拘,不以歇役新舊爲限.但取從上丁產高人分爲二等.大者以備都保³²⁹⁾副正,小者以備大保長.各以紙籤書其姓名,分置兩貼,又於二貼各分四類.或物力高疆·或人丁衆盛·或才智足任謀畫·或筋力可備奔走,各以其類,置於一貼.

2.3.13. 무릇 한 도都와 한 보保를 선발하면 반드시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얻어서 같은 일을 시키고 각자의 장점을 드러내게 하여 서로 돕게 합니다. 그리하여

322) 仙游知: 『晦庵集』 知仙游.

323) 寮佐: 속관.

324) 閣: 『회암집』 閣.

325) 보장保長: 중국 송나라 신종 3년(1070)에 창설된 보갑保甲의 책임자. 보갑이란 군사력 향상을 위해 향촌사회를 10가호[保], 50가호[大保], 500가호[都保] 단위로 묶은 조직으로, 보와 대보마다 장장이 있었다. 『한국고전용어사전』 2, 966쪽.

326) 도보부都保副와 도보정都保正: 도보부는 송나라 보갑 제도에서 500가호의 부책임자이고 도보정은 책임자이다.

327) 대보장大保長: 송나라 보갑 제도에서 50가호의 책임자.

328) 상·하 두 조로 나누어 각각의 조에 4종의 특성을 갖춘 이들을 배치한다는 의미이다.

329) 保: 『의상경계책』 없음.

이들이 모두 즐겁게 복종하면서 서로 격려하며 일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차역(差役, 차출하여 맡긴 일)이 정해진 연후에 인쇄한 호부의 규정을 나눠줍니다.

凡選一都一保則必兼取此四色人,使之同事,令其各出所長,以相協濟.於是人皆悅從,相率就事.差役既定,然後以戶部事目印本給之.

2.3.14. 또 호조의 규정에 담긴 기본 의도를 설명해주고 물려나서 공부하게 합니다. 하루 뒤에 현의 뜰에 모두 모이기로 하고, 모이면 의심난 점을 자유롭게 묻고 모두가 자신의 생각대로 자세히 해설하도록 합니다. 힘들어서 기운이 빠지면 동료에게 임무를 교대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대엿새 하면 보정·보장 모두가 역시 그 방법을 완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又爲說其大意,使之退而講究.期以一日悉集縣庭,凡有所疑,悉以己意詳爲解說.力疲氣乏,則請同官更番應之.如是五六日,凡爲保正長者,亦悉³³⁰⁾曉其法.

2.3.15. 이런 뒤에 비로소 각자의 위치로 보내 양전을 하게 하면 두 달도 채 안 걸립니다. 다른 읍에서 차역을 아직 정하지 못했더라도 선유현의 양전 시행에 대해 이미 그 순서를 밝혀놓았습니다. 그러니 만일 차역을 담당할 관리가 모두 정군(정소속)의 마음씀씀이처럼 한다면 비록 매년 방전方田을 하고 경계를 밝힌다 해도 백성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

然後散遣打量,不過兩月.他邑差役未定,而仙游打量已³³¹⁾見次第.若³³²⁾使被差之官,人人如鄭君之用心,則雖歲歲方田,年年經界,亦無害於民矣.”

2.3.16. 저 또한 오늘날 양전하는 관리도 이 글을 자리 오른쪽에 붙여놓고 수시로 보면서 그 방법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臣亦以爲今日量田官吏宜以此書付座右,常目遵法也.

금화지비집 권제11 끝

金華知非集 卷第十一

330) 悉: 『회암집』 無不悉.

331) 已: 『회암집』 없음.

332) 若: 『회암집』 矣熹嘗竊記其言以爲若.

<제3목 해설>

양전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거론한 뒤 서유구는 『의상경제책』의 제2장 제3목에서 양전을 관리·감독하는 행정 절차를 건의했다. 당시에는 100년 가까이 대규모 양전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읍에 한정해서 산발적으로 양전이 시행되고 있었다. 게다가 읍 단위 양전도 묵은 농지와 개간 농지의 전면적인 개량畝量이 아니라, 묵은 농지를 파악하는 식의 소극적인 사진査陳에 머물렀다. 이렇게 소규모로 양전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굳이 양전 행정관이나 감독관을 파견할 필요가 없었고, 대신 해당 읍의 수령이 양전 실무를 책임지고 관찰 도 관찰사가 감독관 역할을 맡아 중앙에 보고하는 식의 행정기관제가 되었다.

이에 반해 마지막 대규모 양전이 있었던 숙종 때까지만 해도 이를 지방 관리에게만 맡기지 않고 중앙에서 균전사均田使나 경차관敬差官을 파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읍 단위 양전 실무를 맡은 경차관을 수 십 명 씩 보내기도 하고, 도 단위 양전을 총괄하기 위해 균전사를 도에 1~2인을 보내기도 했다.³³³⁾ 그러나 양전 시 중앙 관료의 파견으로 부작용이 생겼다. 서유구가 인용한 유형원의 언급에 따르면, 재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파견된 재상경차관災傷敬差官이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 한 채 기생과 어울려 술판을 벌이거나, 사적인 원한으로 한두 수령을 파면하거나, 담당 서리를 시범 처벌함으로써 위엄만 세우려 하거나, 아전이나 백성에게서 나온 뇌물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서유구는 중앙 관리를 파견하여 생기는 폐단에 대한 유형원의 언급이 여전히 유효하며 이런 사례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진단하면서 관리 파견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2.3.3~4)

실제 순조 대의 경진양전령에서는 양전을 위해 균전사나 경차관을 파견하지 않고 지방관에게 그 임무를 일임하려 했다. 즉 균전사 대신에 관찰사가, 경차관 대신에 수령이 그 역할을 맡도록 한 것이다. 이는 전정의 문란이 심한 곳부터 차근차근 양전을 시행하자는 우의정 남공철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었다.³³⁴⁾ 서유구는 지방관이 양전을 맡는다는 원칙에는 찬성하면서도, 여기서 더 나아가 중앙 정부에도 양전 전담 기관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양전이 한 도가 아니

333) 정약용, 『경세유표』 권9 「지관 수제地官修制」 “전제별고田制別考” 1 ‘제로양전고諸路畝田考’.

334) 『순조실록』 19년(1819) 9/10, 12/10.

라 팔도에 모두 시행되기에 전국적 차원에서 양전 규정을 만들고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이와 더불어 양전 작업을 평준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2.3.5) 관찰사에게 양전을 위임하면 해당 관찰사는 자신이 맡은 도의 양전에만 신경 쓸 뿐 다른 도의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또한 관찰사의 양전에 대한 관심이나 능력 등의 차이로 인해 양전 시행의 성취도에서 차이가 크게 날 수도 있다. 서유구에게 양전 전담 기관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여 팔도의 양전 작업을 동일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대책이었던 것이다.

서유구가 제안하는 전담 기관은 비변사의 구관당상句管堂上 같은 방식이었다. 구관당상은 각 도에서 올라오는 장계狀啓와 문부(文簿, 문서와 장부) 업무 등을 관장하는 당상관堂上官을 말한다. 각 도마다 구관당상 1명이 배치되어 중앙에서 팔도 업무를 맡고 있었던 것이다. 서유구의 제안은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양전 전담 기관을 만드는 것으로, 비변사에서 양전 사무에 통달한 8명을 선발해 팔도의 양전 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었다. 이 전담 기관에서는 양전 규정 통일안을 만들어 팔도에 배포하며, 각 도의 양전 업무 상태나 장부·문서를 검열하고, 국왕에게 양전 관련 주요 사안의 결제를 맡기도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소통을 유도할 수 있고, 양전 규정이 도마다 제각각인 폐단도 예방할 수 있다.(2.3.6) 요컨대 서유구가 구상한 중앙과 지방의 양전 업무 진행 방식은, 관찰사가 균전관의 임무를 수행하고, 중앙의 전담 기관에서는 양전 규정을 확정하고 양전 업무를 검열함으로써 도백과 왕 사이의 원활한 소통을 담당하는 구조였다.

서유구가 제안한 양전 전담 기관은 현종 대(1663년)와 숙종 대(1718년)의 전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현종 대에는 민정중(閔鼎重, 1628~1692)과 김시진(金始振, 1618~1667)이 균전사가 되어 서울에서 경기도의 양전 업무를 심사하여 양전에 불성실한 수령을 보고했다.³³⁵⁾ 숙종 대에 삼남을 양전할 때에는 처음에는 관찰사를 균전사로 삼고 각 도 감영의 도사都事를 종사관從事官으로 삼았지만, 관찰사가 양전을 시행하지 않자, 다시 서울에 양전청을 설치하여 구관당상 2인과 종사관 3인을 두어 문서를 관장하게 했다.³³⁶⁾ 서유구는 이 같은 전례를 모두 본받을 만하다고 여겼다.(2.3.8)

335) 『현종(개수)실록』 4년(1663) 2/19, 2/22.

336) 영의정 김창집(金昌集, 1648~1722)의 건의에 의해서 실행되었다. 『숙종실록』 44년(1718) 3/13.

이처럼 도 단위의 양전 업무를 논한 뒤 서유구는 관찰사가 각 읍의 양전을 어떻게 감독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선 수령이 자기 읍의 양전 결과를 평가하면 양전 과정의 비리를 막을 길이 없고, 각 수령이 다른 읍을 평가하면 양전 기간 동안 관찰 읍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두 가지 평가 방식에는 반대했다.(2.3.9) 대신 능력 있는 수령을 몇 읍 단위에서 한 명 씩 추천하거나, 추천할 만한 수령이 없을 경우 우관郵官³³⁷⁾이나 임시로 머물고 있는 중앙 관리 및 선비 중에 골라 군직을 줌과 동시에 ‘균전관均田官’이라는 직함을 주고 각각으로 하여금 몇 읍의 양전을 책임지도록 했다.(2.3.10) 도내의 능력 있는 자를 잘 선발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시킬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관리들이 양전에 임했을 때의 태도나 방법에 관해, 주희가 상세히 제안했던 모범 사례를 선발된 균전관이 따르게 하자고 제안했다. 그에 따르면, 먼저 균전관 본인이 양전 규정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양전 실무 책임자로서 해야 할 선행 작업이었다. “문을 닫고 업무를 접어두고서 열흘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뒤에 환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마음과 입으로 반복하여 다시 의문나는 대목을 서로 따져서 물어보니, 가슴 속이 뽕 뚫려 다시는 의문점이 없었습니다.”(2.3.11) 이 수준으로 본인이 완전히 규정을 이해한 뒤 다른 동료 균전관에게 이해될 때까지 며칠이고 설명을 한다. 그 뒤에 균전관은 양전 실무자를 뽑는데, 주희의 말을 인용한 서유구는 한 읍이나 마을을 양전하는 실무자는 반드시 네 부류의 장점을 지닌 이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동원할 물자가 많은 이, 인력이 많은 이, 재주가 좋아 기획을 감당할 이, 근력이 좋아 빠릿빠릿하게 움직일 이”가 그것이다.(2.3.12) 양전에 필요한 네 방면의 특징점을 지닌 실무자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실무자를 선발한 후에 그들에게 비로소 양전 지침을 하달하고 자유로운 토론과 발표 등을 통해 이를 숙지하게 한다. 그 뒤에 각자가 맡은 지역에 가서 양전을 행한다. 이상이 서유구가 제안한 중앙 양전담당 구관당상부터 최종 실무자까지의 업무 시행 지침의 대략이다.

이 시행 지침은 모두 남송 대 주희의 양전 방안을 받아들인 내용이었다. 서유구가 받아들인 주희의 양전 방안은 주희가 황제에게 제출한 「신제사경계장申諸司經界狀」³³⁸⁾이라는 글에서 논한 양전 방안 중에서, 지선유현(知仙游縣, 선유현

337) 우관郵官: 각 역의 마정馬政을 관장한 찰방察訪의 이칭.

338) 朱熹, 『晦庵集』 卷21 「申請」 ‘經界申諸司狀’.

지사)이었던 정소숙(鄭昭叔)이 양전 업무를 행했을 때의 경험을 밝힌 내용이었다.(2.3.11~15) 이는 또한 제1목에서 밝힌 서유구의 양전 시행 방안의 연속선상에 있다. 전제 개혁과 관련된 ‘팔폐’와 ‘오의’를 담당 관리가 검토한 뒤 조례를 정하여 팔도 관찰사에게 반포하고 이를 읍에서 시행하도록 하자는 계획(1.1.69)의 세부안인 것이다.

이상에서 양전 행정이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서유구는 중앙에 양전 전담 기관의 설치를 건의했다. 기관의 명칭이나 상설화 여부 등을 그가 이 글에서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전의 관례로 볼 때 ‘양전청’ 같은 기관을 경진양전에서 임시로 설치하자는 제안인 것 같다.

제3장. 『의상경제책』의 농정론(농법과 둔전) : 『의상경제책』 하권

3.1. 제3장 ‘농정에서 서둘러 시행해야 할 여섯 가지’

농정의 영역은 『의상경제책』의 제3장에서 다루어졌는데, 세부 내용은 모두 여섯 목이다. 앞의 제1~2장은 『의상경제책』 상권에 함께 수록되었고, 이 제3장은 『의상경제책』 하권에 따로 수록되어 있다. 제3장은 『의상경제책』 전체의 57.9퍼센트(14,708자/25,383자)를 차지한다.

제3장은 20여 년 전 정조가 반포한 ‘권농정구농서윤음’에 대한 서유구의 답으로 읽힐 수도 있는 성격의 글이다. 윤음에 표현된 ‘농정’이나 ‘농서’가 모두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논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전과 토지제도, 즉 ‘경제’를 논한다고 표방한 글에서 농정론을 다룬 일은 초점을 벗어난 시도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농정론을 전정론과 함께 다루면서 서유구는 전정 그 자체의 개혁만으로는 전정 개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하고자 했다. 제3장에서 말하는 농정은 국가의 적극적 권농 정치라 할 수 있다. 새로운 농업기술, 즉 농법을 확산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농정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이 실행할 수 있는 농법에 머무르지 않고, 그 농법을 개선하고 잘못된 관행을 제도적으로 금지하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새 농법을 역시 제도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구상했던 것이다. 북극고도를 활용한다든지, 농법을 가르친다든지, 좋은 종자를 구입한다든지, 수리를 진흥시킨다든지, 번전을 금지하는 등의 구체적인 농정론은 농민 한 사람 한 사람을 계도하려는 차원의 권농이 아니라, 정부의 개입을 통해 농업 현황을 개선하려는 적극적 권농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농업의 기반이 되는 농업기술을 제고하여 조선의 농업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서유구는 확신했다.

제3장인 ‘농정에서 서둘러 시행해야 할 여섯 가지’는 경세가로서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으며 농서를 저술하는 농학자로서 서유구의 전문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제기되었다. 이 점은 『의상경제책』의 성격 규명을 위해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전정을 포함한 큰 의미에서의 농정론이 서유구에게는 ‘농사’라는 행위의 구체적

인 경험 및 이를 통한 통찰과 긴밀하게 접목되고 있다. 필자는 서유구가 『의상경제책』을 통해 바로 ‘농정’과 ‘농사’의 접목에 성공한 경세가이자 농학자라는 측면에서 이후에 소개하는 서유구의 농정론을 주목했다. ‘농정’이라는 주제 하에 제시한 여섯 조목이 ‘농사’를 경험한 노농이자 이를 농학으로 정리한 지식인으로서의 통합적 안목을 드러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3.1.1. 제1목 ‘북극고도(위도) 측정으로 정확한 때 알려주기’

3.1. 북극고도(위도) 측정으로 정확한 때를 알려준다

3.1.1. 농정에서 서둘러 시행해야 할 사안이 여섯 가지인데, 첫째는 북극고도를 측정하여 백성에게 정확한 때를 알려주는 일입니다.¹⁾

農政之亟宜施措者六，一曰測極高以授人時。

3.1.2. 제가 듣기로 만물은 때에 따라 기운을 받고 기운에 따라 생명이 발현되므로,²⁾ 때와 기운이 꼭 맞으면 생기(生機, 생명의 기틀)가 이를 따르게 된다고 합니다.³⁾ 그러므로 명철한 옛 선왕들께서 정삭(正朔, 정월 초하루)을 반포하여 때를 밝히신 이유는 다만 통일을 중시했기 때문이 아니었고, 이 백성들이 절기를

1) 위도 측정값이 농사를 알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은 서광계가 『농정전서』에서 “내 생각에는 ‘모처는 북극출지 몇 도’ 하는 식으로 남북의 위도를 기록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알맞은 온도를 알아 그 땅에 알맞은 식물을 식별하게 하고, 심고 가꾸는 일을 일으키도록 하고 싶다.”(『農政全書』卷2「農本」‘諸家雜論’下(『農政全書校注』, 42쪽); 『임원경제지 본리지』1, 401쪽)라고 말한 대목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서유구는 『농정전서』에 나오는 이 구절을 보고 무릎을 치며 “이것이 농사의 비결”이라고 확신했다고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서광계는 남북의 위도 차이를 농서에 실어서, 알맞은 온도를 알게 하여 그 땅에 알맞은 식물을 구별하게 하고 심고 가꾸는 일을 일으키려고 생각했다. 나는 이곳을 읽을 때마다 무릎을 치며, “이것은 농사의 비결이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 서씨의 『농정전서』를 살펴보면, 간단하게 기재한 것이 적지 않으니, 무엇 때문인가? 아마도 겨를이 없었거나, 그것에 대한 설명이 이미 『송정력서崇禎曆書』에 자세히 있어서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쓸데없는 중복이라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杏菴志』卷1「律時」(『農書』36, 64쪽); 『임원경제지 본리지』1, 404쪽) 서광계는 위도의 중요성을 거론한 것을 뿐 위도를 일일이 명시하는 일은 하지 않았지만, 서유구는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행포지』, 『본리지』에 기록하는 일은 물론 『의상경제책』에서도 제안하는 데까지 이어졌다.

2) 이 부분은 『진부농서』를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蓋萬物因時受氣，因氣發生，理固不易測也。”陳專，『陳氏農書』上「天時之宜篇」第4.

3) 이 문장은 본래 『진씨농서』를 인용한 부분과 『왕정농서』에서 왕정이 새로 추가한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나, 서유구는 한 문장으로 취급했다. “農書天時之宜篇云：‘萬物因時受氣，因氣發生。’時至氣至，生理因之。”王禎，『農書』卷1「農桑通訣」集1「授時篇」第1；徐光啓，『農政全書』卷10「農事」‘授時’；『임원경제지 본리지』1, 386쪽.

엄수하여 일을 즐기면서 효과를 내도록 하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⁴⁾

臣聞萬物因時受氣，因氣發生，時至氣至，生機因之。故古先哲王所以班朔明時者，非直大一統也，將以使斯民謹時令樂事赴功也。

3.1.3. 하지만 땅에서 경도나 위도의 거리가 2백리 차이가 나면, 하늘의 경도나 위도는 반드시 1° 차이가 납니다.⁵⁾ 남북으로는 극을 바라볼 때 높이의 차이가 있어서 절기의 온도가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북극의 아래에는 만물이 나지 않고, 중형中衡⁶⁾의 주변에는 1년에 2번이나 수확합니다.⁷⁾

然地之經緯相去二百里，而天之經緯必差一度。南北則望極有高下而節氣之寒暑不同⁸⁾。故北極之下，萬物不生，而中衡⁹⁾左右，一年再穫。

3.1.4. 한편 동서로는 해를 볼 때 시간의 차이가 있어서 절기의 선후가 같지 않습니다.¹⁰⁾ 그러므로 서쪽에 치우친 곳의 입춘이 한밤중에 있다면 동쪽에 치우친 곳의 입춘은 한낮에 있습니다.

東西則見日有早晚而節氣之先後不同¹¹⁾，故偏西之立春在於子夜，而偏東之立春在於午晝¹²⁾。

3.1.5. 이것이 역가曆家가 말한 “경도와 위도의 차이는 역曆을 파악하는 커다란 관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시헌력時憲曆은 반드시 북극의 위도 차이로 각 지역의 주야 시각을 정하였고 적도의 경도 차이로 각 지역의 절기 시각을 정하여, 책머리에 실어서, 혹시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한 것은 이러한 점을 생각해서 인 것입니다.

4) 이 부분은 『진부농서』를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古先哲王所以班朔明時者，匪直大一統也，將使斯民知謹時令樂事赴功也。故農事以先知備豫爲善。” 陳專， 앞의 책; 『임원경제지 본리지』 1, 354쪽.

5) 여기서부터는 『임원경제지 본리지』 1, 405~408쪽; 『杏菴志』 卷1 「律時」(『農書』 36, 64~74쪽)와 상당 부분 겹친다.

6) 중형中衡: 황도와 하늘의 적도가 서로 교차하는 지점.

7) 『주비산경』에 이와 비슷한 구절이 나온다. “中衡左右，冬有不死之草，夏長之類，此陽彰陰微，故萬物不死，五穀一歲再熟。凡北極之左右，物有朝生暮獲。” 李淳風 注釋，『周髀算經』 卷下1.

8) 不同: 『행포지』·『본리지』 因之.

9) 衡: 『의상경제책』 衡.

10) 여기서부터 이하 네 단락을, 서호수가 정조에게 올린 건의문을 실은 기사에도 세주에 실려 있다. 『정조실록』 15년(1791) 10/11.

11) 不同: 『행포지』·『본리지』 因之.

12) 晝: 『행포지』·『본리지』 朝.

此曆家所謂經差緯差之爲治曆大關捩¹³⁾,而中¹⁴⁾國時憲曆必以北極緯差定各地之晝夜刻分,赤道經差定各地之節氣時刻,載之卷首,罔敢或忽者,亦有見乎此也.

3.1.6. 우리 동국은 비록 국토가 좁고 작아 동서 경도 차이의 다투는 바는 비록 2~3°에 불과하지만 남북으로는 거의 3000리가 넘습니다. 직선거리[鳥道]로 계산하면 서울에서 남으로 강진·해남까지 위도차는 5~6°에 해당하고, 북으로 경원·함흥까지 위도차는 6~7°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서운관書雲觀의 계산[推步]은 다만 한양의 북극고도에 근거하여 주야 시각을 계산할 뿐입니다.¹⁵⁾

我東壤地褊小,東西經差之所爭雖不過二三度,而南北恰過三千里.以鳥道計之,自京城南至于康津·海南,緯差當爲五六度,北至于慶源·慶興,緯差當爲六七度.而雲觀推步但據漢陽北極高度,以推晝夜刻分.¹⁶⁾

3.1.7. 팔도의 북극고도는 아직 측량하여 확인한 적이 없고, 다만 한양의 북극고도로 개략적으로 추산하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국의 역법은 곧 경기의 2백리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역법이지, 2백리 이외의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역법이 아닙니다.

至於諸道極高¹⁷⁾則未曾測驗,直以漢陽極高¹⁸⁾而蓋之.是我東之曆,卽畿甸二百里以內之曆,而非二百里以外之曆也.

3.1.8. 동국의 땅을 둘러싼 수 천 여 리가 왕의 땅 아닌 곳이 없는데, 성인께서 경천수시(敬天授時, 하늘을 공경하여 때를 백성에게 알려줌)하시는 정치가 어찌 2백리 이내에서만 상세하고 2백리 이외에서는 개략적이겠습니까? 우리 조정에서 교화로 다스린 역사가 오래되어 인화단결의 향기가 가득했고, 비와 바람이 순조

13) 捩: 『의상경계책』 板.

關捩판러: 회전할 수 있는 기계 장치로, 사물의 요긴한 곳의 비유로 쓰이기도 한다.

14) 中: 『행포지』·『본리지』 今中.

15) 서운관에서 계산한 구체적인 내용은 서유구의 아버지 서호수의 주도로 편찬된 『國朝曆象考』 卷 1 「北極高度」 「晝夜時刻」(서호수·성주덕·김영 편저, 이은희·문중양 역주, 『국조역상고』, 소명출판, 2004, 44~55쪽)에서 확인된다.

16) 이 단락은 『행포지』·『본리지』과의 내용 차이가 많아 『행포지』·『본리지』 원문 전체를 제시한다.
“我東雖壤地褊小,東西一千餘里,南北三千餘里.以鳥道計之,經差當過數三度,緯差當過六七度.而雲觀推步,但據漢陽北極高度與偏東之度,以極度推漢陽晝夜刻分,以偏度加燕京節氣時刻而已.”

17) 極高: 『행포지』·『본리지』 經緯里差.

18) 極高: 『행포지』·『본리지』 經緯度.

롭게 내리고 불어 온갖 곡식이 풍성하게 여물었기에, 비록 역법을 수정하지 않고서도 밭 갈고 김매고 수확하는 일에 시기를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왕聖王께서 정사를 베푸심에 이처럼 소홀히 하여 누락하거나 구차하고 불완전해서 는 안 됩니다.

環東土數千餘里莫非□王土,聖人敬天授時之政,何詳於二百里以內,而何略於二百里以外哉?雖我□國朝化理縣遠¹⁹⁾,人和昐蠻²⁰⁾,雨順風調,百穀登稔,不待曆法之修改,而耕耘斂穫未嘗愆期.然□聖王立政,不當若是其疎漏苟艱也.²¹⁾

3.1.9. 원나라 곽수경郭守敬²²⁾의 『수시력授時曆』²³⁾은 고려의 북극고도를 38과 1/4도²⁴⁾라 정했는데, 이는 곧 개성의 북극고도입니다.

元郭守敬授時曆定高麗極高三十八度四分度之一,即松京極高也.

3.1.10. 청나라 매각성梅穀成²⁵⁾의 『역상고성曆象考成』²⁶⁾은 조선의 북극고도를

19) 化理: 교화하여 다스림. 縣遠: 시간이 아득히 오래됨.

20) 昐蠻(힐향): 소리의 울림이 사방으로 퍼짐. 또는 향기가 가득함.

21) 이 단락은 『행포지』, 『본리지』에는 없고, 대신 “그렇다면 경기도 이외의 여러 도는 역법이 없다고 말해도 좋은 것이다. 역법이 없다면 심고 가꾸는 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然則畿甸以外諸道, 雖謂之無曆可也. 無曆, 則其於樹藝何哉?”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22) 곽수경(郭守敬, 1231~1316): 원대의 학자. 하북성河北省 순덕順德 출신. 1276년 개력改曆의 명령을 받아 태사령太史令 왕순王恂 등과 함께 신력新曆 편찬에 참여했다. 왕순은 이론계산, 곽수경은 관측의기觀測儀器 제작 및 천문대 설립, 관측에 종사하였다. 신력은 1280년에 완성되어 수시력授時曆이라 칭하였다. 왕순의 사후死後 태사령이 되어 수시력 문헌을 정리하였다.

23) 『수시력授時曆』: 원대에 곽수경郭守敬, 허형許衡, 왕순王恂 등에 의해 편찬된 역법. 1281년 원에서 시행된 이후, 명명에서도 대통력大統曆으로 이름만 바꾸어 1644년까지 약 400년간 시행되었다. 세종 24년(1442) 수시력법授時曆法과 명명의 통괘력법通軌曆法을 참고하여 조선 실정에 맞게 『七政算內篇』을 편찬하였다.

24) 38과 1/4도: ‘하늘 전체의 도수[周天度數]’를 365° 1/4로 놓고 얻은 값이다. 시헌력이 시행된 이후에는 주천도수를 360°로, 1일을 60′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360°법으로 변환하면 37° 41′이다. 『書雲觀志』 卷3 「故事」(성주덕 편저, 이면우·허운섭·박권수 역주, 『서운관지』, 소명출판, 2003, 280쪽).

25) 매각성(梅穀成, 1681~1763): 청淸의 천문·역법 학자. 안휘성安徽省 의성宜城 출신. 『曆象考成』, 『明史』 「天文志」 편찬에 참여하였다. 저서로 『數理精蘊』, 『增刪算法統宗』, 『赤水遺珍』 등이 있다. 『淸史』 「梅穀成列傳」이 전한다.

26) 『역상고성曆象考成』: 청淸의 역산서曆算書. 『上下編』 26권(표16권 별도)과 『後編』 10권이 있다. 『上下編』은 매각성·하국종何國宗 등이 『西洋新法曆書』를 재편집한 것으로, 강희제康熙帝의 칙찬사업勅撰事業으로 편찬되었다. 『律曆淵源』의 일부를 변용하고, 티코 브라헤의 학설과 그 역산을 기술하여 1723년에 간행하고 1726년부터 시헌력을 개정하여 사용했다. 강희康熙 갑자년(1684)을 역원曆元으로 했기에 ‘갑자원력’이라 불렀고, 또 매각성의 성을 따서 매법梅法이라고도 했다. 『上下編』에서 추산한 시헌력時憲曆도 차츰 차이가 생기게 되자 청 고종高宗의 칙명을 받아 예수회 수도사 괴글러戴進賢 등이 1742년에 편찬한 역법서가 『曆象考成後編』이다.

37° 39′ 13″²⁷⁾라고 했는데, 이는 곧 청나라 사신 하국주何國柱²⁸⁾가 상한의象限儀²⁹⁾를 사용하여 한양의 종로에서 북극고도를 측정한 것입니다.³⁰⁾

淸梅穀³¹⁾成曆象考成定朝鮮極高三十七度三十九分一十三秒,即淸使何國柱用象限儀³²⁾,測極高於漢陽雲³³⁾鍾街者也.³⁴⁾

3.1.11. 『운관일기雲觀日記』³⁵⁾에는 세종께서 역관曆官을 마니산·백두산·한라산으로 나누어 보내어 북극고도를 측량하게 하셨다는 글³⁶⁾이 있으나, 그때 측량한 각도는 지금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雲觀日記有□世宗朝分遣曆官,測北極高度于摩尼峰·白頭山·漢拏山之文,而其所測度分今³⁷⁾不可考矣.

3.1.12. 제 생각으로는 서운관에서 구리로 주조한 상한의 8개[座]를 제조하여 팔도에 나누어 보내도록 했으면 합니다.³⁸⁾ 그리하여 관찰사 감영이 있는 곳의 북

27) 『曆象考成下編』 卷1 「日躔曆法」 ‘推日出入晝夜時刻法’. 『曆象考成』에서는 37° 39′ 15″라고 해서, 이 기록과는 2″가 차이 난다.(이면우·허운섭·박권수 역주, 앞의 책, 279~280쪽)에서도 『曆象考成』의 기록을 따르고 있다.

28) 하국주何國柱: 숙종 39년(1713) 청나라 사신으로 와서 북극고도를 측정하였다. 『書雲觀志』 卷3 「故事」.

29) 상한의象限儀: 상한대의象限大儀. 위치천문位置天文 측량관측 장치이다. 상한이란 원을 4등분하여 얻은 한각(90°)을 말한다. 경위의(經緯儀, theodolite)와 같은 근대적인 측량기가 발명되기 이전에 측각장치測角裝置로 사용되었다.

30) 한양의~것이다: 『研經齋全集』 外集 卷43 「天文類」 ‘北極表’에 나온다.

31) 穀: 『의상경계책』 載.

32) 儀: 『행포지』·『본리지』 大儀.

33) 雲: 『행포지』·『본리지』 없음.

34) 『행포지』·『본리지』에는 이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나의 조부 문정공 서명응은 백두산을 유람할 때, 상한의를 사용하여 연지봉 아래에서 북극고도를 측량하여 42° 3′을 얻었다. 이것들은 모두 실제로 측량한 값이다. 그러나 그 나머지 각 도의 북극고도는 모두 일찍이 측량해본 적이 없다. 先王父文靖公遊白頭山,用象限儀,測高於臙脂峯下,得四十二度三分.此皆實測也.其餘各道極高,則竝不曾推測.”

35) 『운관일기雲觀日記』: 『관상감일기觀象監日記』의 별칭. 운관은 운감雲監·운대雲臺와 함께 관상감의 다른 이름이다.

36) 『書雲觀志』 卷3 「故事」(이면우·허운섭·박권수 역주, 앞의 책, 281쪽)에서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37) 今: 『행포지』·『본리지』 則今.

38) 이 단락은 『행포지』·『본리지』와는 내용이 다르다. 『행포지』·『본리지』에서는 이 부분에서 서유구의 조부 서명응이 『양곡지陽谷志』를 편찬할 때 250리의 차이를 1°로 하는 고법古法을 이용했고, 정후조의 『동국여지도』를 근거로 여러 도道의 경도와 위도의 도수를 정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또한 그의 부친 서호수가 200리의 차이를 1°로 하는 방법을 이용했고, 『여지도』를 근거로 여러 도의 경도와 위도의 거리 차이를 정하였다는 이야기도 했다.(그리고 뒷부분에 서명응과 서호수가 얻은 추정치를 모두 기록해 놓았다.) 하지만 이런 값이 모두 추정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극고도를 실측하고, 북으로 경원·경흥, 남으로 해남·강진, 서로 의주·창성, 동으로 동래·기장 등과 같이 사방의 변방 읍도 양전 관리에게 북극고도를 측량하게 합니다. 각각은 이 실측 수치를 전하게 보고하고, 전하께서 서운관에 하달합니다. 서운관에서는 이를 토대로 각 지역의 주야 시각을 추산하고서 중국 시헌서의 범례처럼 역서曆書에 기재합니다. 그리하여 천시天時를 이용하고 땅의 이익을 나누는 기준을 만든다면 수시授時의 빛나는 교화를 공정히 따르는 일에 보탬이 될 것이니, 어찌 가볍고 적다 하겠습니까?

臣謂宜令書雲觀造銅鑄象限儀八座,分送八路.實測觀察營極高,而四界邊邑如北之慶源慶興·南之海南康津·西之義州昌城·東之東萊機張等邑,亦令量田官吏測量極高.各以實測度分上□聞,下之雲觀,推各地晝夜刻分,載之日曆如中國時憲書凡例.用作用天分地³⁹⁾之指南,則其有補於欽若授時之臧化,豈云淺渺哉?

3.1.13.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⁴⁰⁾

“중국의 지도[職方]⁴¹⁾ 기록 중에 먼 곳은 혹 1만여 리나 되므로, 역법을 제정하여 백성들에게 때를 밝혀주기 위해 거리의 차이를 반드시 상세히 알리는 일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동국의 땅은 탄환만한 크기로 겨우 중국 구주의 하나와 맞먹을 정도인데, 어찌 이처럼 자질구레하게 거리 차이를 살핀다는 말인가?”

或言⁴²⁾:“中國之職方所紀,遠者或萬餘里,其治曆明⁴³⁾時之必詳於里差,固也.如我東彈丸之大,堇敵九州之一⁴⁴⁾,烏用是瓌瓌爲也?”

자신의 뜻과 같은 선비들이 각 지역에 갈 일이 있을 때, 그곳의 경위도를 실측한 뒤 그 결과물을 종합하자는 제안이 이어졌다. 『행포지』·『본리지』에서는 책의 성격 상, 제도적 차원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지식인에게 경위도 실측에 동참하자고 제안한 점이 『의상경제책』과 다르다고 하겠다.

39) ‘用天分地’라는 표현은 다음의 글에서 확인된다. 『資治通鑑』 卷136 「齊紀」 2 ‘世祖武皇帝上之下’.

40) 여기서부터는 『행포지』·『본리지』에서 다른 주제(“좁은 땅도 경위도를 살펴야 한다.”)로 다루고 있다. 『임원경제지 본리지』 1, 419~421쪽; 『杏菴志』 卷1 「律時」(『農書』 36, 74~77쪽). 『의상경제책』에서는 북극고도 즉 위도만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경도에 관한 언쟁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41) 지도[職方]: 직방職方은 『周禮』 「夏官」 「職方氏」에 나오는 관직명職方, 구주九州의 지도地圖를 관장하고」에서 들어오는 공물을 다룬다.

42) 或言: 『행포지』·『본리지』 客有難之者曰子誠好事耳.

43) 明: 『행포지』·『본리지』 授.

44) 九州之一: 『행포지』·『본리지』 中國之一省.

3.1.14.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세는 동서로는 좁으나 남북으로는 깎니다. 북쪽의 삼수·갑산은 중국의 심양과 위도가 같으며, 남쪽의 제주[耽羅]는 중국의 절강과 위도가 같습니다. 장백산(백두산) 아래에서는 4월에 서리가 내리지만, 지리산 남쪽에는 겨울에도 벌레가 동면하지 않습니다.

臣以爲⁴⁵⁾不然.我口國⁴⁶⁾地勢,東西狹而南北長.北之三水·甲山⁴⁷⁾,與瀋陽⁴⁸⁾相直;南之耽羅,與浙江⁴⁹⁾相直.長白之下,四月隕霜,而智異之陽,冬月蟲不蟄⁵⁰⁾.

3.1.15. 이러한 우리나라 남북의 온도 차이가 중국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옛말에 ‘후직后稷⁵¹⁾과 같은 지혜로도 벼를 겨울에 자라게 할 수는 없다.’고 했고, 또 ‘서리가 내릴 때 조[穀]를 심고 얼음이 녹을 때 수확을 하여 먹을 것을 얻고자 하면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시후 살피기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此其南北寒暑之差,與中國何異哉?古語曰‘智如后稷,不能使禾冬生’,又曰‘霜降而樹穀,冰泮而求穫,欲得食則難矣’.此言審時之爲貴也.

3.1.16.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북단과 최남단 지역의 발갈기, 김매기, 거두기를 일률적으로 한양의 절기에 맞춘다면, 겨울에 조[穀]를 심어 봄에 수확하려는 일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⁵²⁾

今使極⁵³⁾北·極南之耕耘收穫,一準漢⁵⁴⁾陽之節氣,不⁵⁵⁾其幾於冬樹穀而春求穫也乎?

3.1.17. 이는 다만 이른바 기러기발을 고정시키고 거문고를 연주하는 일이며, 저울추를 붙여놓고서 무게를 다는 일입니다.

此直⁵⁶⁾所謂膠柱而鼓瑟·黏錘而權輕重者也.

45) 臣以爲:『행포지』·『본리지』 余曰.

46) 國:『행포지』·『본리지』 東.

47) 三水甲山:『행포지』·『본리지』 慶源慶興.

48) 瀋陽:『본리지』 宣府大同,『행포지』 開原瀋陽.

49) 耽羅與浙江:『행포지』·『본리지』 海南康津與登州萊州.

50) 智異之陽冬月蟲不蟄:『행포지』·『본리지』 耽羅橘柚冬不著裘.

51) 후직后稷: 주周的 시조인 기稷의 다른 이름이다. 후직은, 기가 농사를 좋아해서 요임금 때 농관農官이 되었고 순임금 때도 농관을 맡아 백성들에게 농사짓는 일을 가르친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하나라 우禹임금의 치수 사업을 돕고, 곡식을 파종하였으며, 농사에 힘쓰다가 결국 들에서 죽었다. 뒤에는 후직이 관직 명칭이 된다. 『中国历史大辞典』, 1098쪽.

52) 『행포지』·『본리지』에는 이 아래 부분에 우리나라에서 경도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에 대한 서유구의 반론이 개진되어 있다.

53) 極:『행포지』·『본리지』 我東極.

54) 漢:『행포지』·『본리지』 乎漢.

55) 不:『행포지』·『본리지』 則不.

<제1목 해설>

한 나라를 운영하는 왕의 임무 중 백성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일은 이미 중국의 고대부터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있었다. 자연의 시간을 역曆으로 반포하는 일을 왕의 권한으로 받아들이거나 재이災異를 왕이 정치를 잘못하여 일어나는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일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자연의 시간을 제정하는 일은 천명을 받은 천자(또는 왕)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믿었던 것이다. 역의 체계를 통해, 반포되는 역서曆書를 통해 통치자는 백성에게 시간을 부여해주었다.

이 시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일 중의 하나는 농사였다. 농사는 때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은 동아시아 전통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농사의 때, 즉 농시를 어기면 한 해 농사를 망치고 그 결과 백성의 생업이 피해를지기 때문에, 국정에서 농시를 어기지 않고 제 때에 농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권농정책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따라서 조선에서도 연초 뿐 아니라 수시로 권농교서를 하달하여 지방관들에게 농시를 어기지 말고 게으른 농부를 독려하라고 강조했다.

백성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행위를 천자의 고유 권한으로 소개한 기록 중 국정 최고책임자나 유학자들이 가장 즐겨 인용한 책은 『상서尙書』였다. 『상서』 「요전」에 나오는 대목은 요 임금의 신하인 희씨羲氏와 화씨和氏에게 천체의 운행을 살펴 사람들에게 때를 알려주고 백성에게 사계절의 기후를 알게 했다는 내용이다.⁵⁷⁾ 송나라 진부(陳旉, 1076~?)가 지은 『농서』(일명 『진부농서』)에 수록된 다음과 같은 내용은 『서경』 「요전」을 정리한 것으로, 백성에게 시간을 알려주어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천자의 역할을 가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요 임금은 희씨와 화씨에게 명하여, 해와 달과 별들의 운행을 상세하게 관찰하여 백성에게 공경히 때를 알리도록 했고, 농사를 시작하는 봄의 기후, 작물을 화육化育하는 여름의 기후, 만물이 이루어지는 가을의 기후, 해가 바뀌는 겨울의 기후를 모두 알게 했다.”⁵⁸⁾ 고대의 성왕으로 칭송되는 요 임금이 하늘의 시간을 파악하여 백성에게 농시를 알려주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유교의 가장 중요한 경전

56) 直: 『행포지』·『본리지』 眞.

57) “乃命羲和, 欽若昊天, 曆象日月星辰, 敬授人時. 分命羲仲, 宅嵎夷, 曰暘谷. 寅賓出日, 平秩東作. 日中, 星鳥, 以殷仲春. 厥民析, 鳥獸孳尾. 申命羲叔, 宅南交, 曰明都. 平秩南訛, 敬致. 日永, 星火, 以正仲夏. 厥民因, 鳥獸希革. 分命和仲, 宅西, 曰昧谷. 寅饒納日, 平秩西成. 宵中, 星虛, 以殷仲秋. 厥民夷, 鳥獸氄毛. 申命和叔, 宅朔方, 曰幽都. 平在朔易. 日短, 星昴, 以正仲冬. 厥民隩, 鳥獸氄毛.” 『尙書』 「堯典」.

58) “故堯命羲和, 歷象日月星辰, 以欽授天時, 俾咸知東作南訛西成朔易之候.” 陳旉, 『陳氏農書』 上 「天時之宜篇」 第4.

중 하나인 『상서』에 기록되었기에 조선에서도 국왕의 역할을 거론할 때 자주 인용되는 대목이었다.

서유구가 북극고도, 즉 위도를 농사에 이용하자고 제안한 배경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한다. “만물은 때에 따라 그에 맞는 기운을 받고 기운에 따라 생명이 발현되므로, 때와 기운이 꼭 맞으면 생기(生機, 생명의 기틀)가 이를 따르게 된다.”는 말로 북극고도를 운운하는 조목의 서두로 삼은 이유는 바로 하늘의 운행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실농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명절한 옛 선왕들께서 정삭(正朔, 정월 초하루)을 반포하여 때를 밝히신 이유는 다만 통일을 중시했기 때문이 아니었고, 이 백성들이 절기를 엄수하여 일을 즐기면서 효과를 내도록 하려했기 때문”이라며 농시를 엄수하게 하는 일이 성왕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임을 강조했다.(3.1.2) 위의 인용문 중 앞 대목은 1년을 24 절기로 나누어 각 절기마다 해야 할 농사를 알려주는 ‘수시도授時圖’의 서문 격으로 적어 놓은 『왕정농서』의 대목을 인용한 것이며, 뒷 대목은 『진씨농서』를 인용한 부분이었다.⁵⁹⁾ 이렇게 중국 농서에서 농시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목을 전제한 뒤 그는 곧장 경도와 위도의 의미를 논의했다.

땅에서의 200리마다 경도나 위도가 1°씩 차이가 난다는 서학의 최근 성과를 받아들인 서유구는, 조선의 경우 위도 차이에 따라 절기의 기온이 다르고 경도 차이에 따라 시차가 생긴다는 점을 지적했다.(3.1.3~4) 당시 조선에서 시행하고 있던 청의 시헌력時憲曆에서 경위도가 다른 중국 각 지역의 주야 시각과 절기 시각을 명시하고 있는 이유가 지역마다 다른 기온과 시각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3.1.5) 이 같은 지역별 정보는 청에서 매년 반포하는 『시헌력時憲曆書』의 책머리에서 제공하고 있었다.

서두에서 농시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일의 중요성, 이를 잘 실현하고 있는 청나라 시헌력의 사례를 든 이유는 조선에서 이 같은 실천이 없음을 부각하기 위해서였다. 조선의 경우 경도의 차이는 2~3°밖에 안 되지만, 위도 차이는 한양에서 남으로는 5~6°, 북으로는 6~7° 차이가 날 정도로 큰 지역 차이가 있음에도 조선의 역법을 담당하는 서운관書雲觀에서의 계산은 여전히 한양의 위도만을 표준으로 삼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3.1.6) 청나라처럼 각 성마다 북극고도와 경도를 측량한 유례가 조선에는 없었고, 다만 한양의 북극고도를 기준으로 각 지역의 경위도를 추산한 결과만 있었으며(3.1.7), 그나마 이렇게 추산된 각 지역의 북극

59) 『왕정농서』에서 인용된 부분도 『진부농서』, 같은 곳에 이미 나온 내용을 정리한 것이었다.

고도가 조선의 역법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유구는 조선 각 지역에서의 경위도, 특히 위도를 반영하여 시각을 백성에게 제공하지 않는 역법을 한양을 포함하여 “경기의 2백리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역법”(3.1.7)일 뿐 팔도에서 쓸 수 있는 역법이 아니라고 성토했다.

서유구에 따르면, 조선 전체가 왕의 땅인데, 경천수시(敬天授時, 하늘을 공경하여 때를 백성에게 알려줌)하는 정치를 한양 주변의 200리 안에만 유효하게 적용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3.1.8) 결국 서유구는 조선 각지의 위도를 본격적으로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먼저 서운관에서 북극고도를 측정하는 천문의기儀器인 상한의象限儀 8개를 제조하여 팔도에 보낸 뒤 먼저 팔도 감영의 북극고도를 실측하고 이어서 동서남북 경계에 있는 읍 등도 북극고도를 측량하게 한다. 실측은 여기까지 하고서 나머지 읍들의 북극고도는 서운관에서 추산하고 이 결과로 주야 시각을 예상하여 역서에 기재하도록 했다.(3.1.12) 즉 서유구가 말하는 북극고도는 전국의 모든 읍을 실측하는 것이 아니라 팔도 감영과 국경의 주요 지점의 실측값을 토대로 나머지 읍들은 추산한 값으로 보완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는 이미 서호수의 시절부터 반대하는 이들이 있었다. 정조대 서호수는 팔도 감영에서의 경위도 추산값을 토대로 주야 시각과 절기 시각을 다음 해의 역서에 신자고 주장했다가, 결국 반론이 일어나는 바람에 시행하지 못한 적이 있다.⁶⁰⁾ 서유구는 조선이 중국에 비해 너무 작은 나라라는 이유로 역서에 경위도를 반영하는 건에 반대하는 의견을 소개하면서(3.1.13) 재반론에 나섰다. “북쪽의 삼수·갑산은 중국의 심양과 위도가 같으며, 남쪽의 제주 는 중국의 절강과 위도가 같”을 정도로 중국 못지않게 기후 차이가 큰 특성을 강조하면서 “최북단과 최남단 지역의 발갈기, 김매기, 거두기를 일률적으로 한양의 절기에 맞춘다면, 겨울에 조를 심어 봄에 수확하려는 일과 비슷”하다고 비유했다.(3.1.14~16) 정확한 위도 파악으로 백성에게 제 농시를 알리지 않으면 지역에 따라 일정을 달리 해야 할 농사에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경고였다.

서유구는 이상에서 경위도 중 경도보다는 위도가 농시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그의 입장은 본래 경도도 위도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임을 강하게 주장했던 『행포지』에서의 태도와는 달랐다. 『행포지』에서 그는 조선처럼 좁은 땅이라도 경위도를 모두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유구는 “만약 한

60) 『정조실록』 15년(1791) 10/11.

양의 입춘이 ‘자정 바로 전’에 있다면 동쪽으로 1° 치우친 곳은 1일 뒤가 입춘이 됩니다. 그러나 ‘자정 바로 후’에 있다면 서쪽으로 1° 치우친 곳은 1일 앞서 입춘이 됩니다. 무릇 올해와 다음 해가 교차하는 때에 앞뒤로 갈라져서 2일로 되니, 이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⁶¹⁾라며 경도는 무시해야 한다는 반론을 일축했지만 『의상경계책』에서는 경도 관련 부분이 모두 빠져 있었다.⁶²⁾

이상의 제1목에서 제시한 주장은 모두 『본리지』의 「시후 살피기[審時]」라는 조목에서 다룬 내용이었다. 「시후 살피기」는 네 개의 중제목과 11개의 표제어, 그리고 네 개의 소표제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의상경계책』에서 이용한 부분의 표제어는 ‘천시의 알맞음에 대한 총론’, ‘쉽게 활용하는 수시도’, ‘우리나라의 경도와 위도’, ‘좁은 땅도 경위도를 살펴야 한다’, 이렇게 네 개였다(표8). 앞 두 표제어에서 인용한 부분은 제1목의 서두에 해당하는 곳으로 중국의 『진부농서』와 『왕정농서』를 활용했다. 나머지 두 부분의 출전은 모두 『행포지』였다. 필자가 임의로 나눈 『의상경계책』 제1목의 17단락 중 『본리지』를 활용하지 않은 곳은 모두 세 곳이었는데, 이는 주제를 제시한 맨 앞(3.1.1)과 조선이 모두 왕의 땅인데 한양 주변 200리 내의 역법에 머물면 안 된다는 내용(3.1.8)과 서운관에서 상한의를 제조하여 팔도 요처의 북극고도를 실측하고 나머지 읍의 북극고도는 추산한 뒤 역서에 반영하라는 건의(3.1.11)뿐이었다. 『본리지』는 국가 운영의 문제

61) “余曰:‘假使漢陽立春在子初三刻之末,則偏東過一度之地,乃後一日立春矣;在子正初刻之初,則偏西過一度之地,乃先一日立春矣.夫以兩年交界之際,而先後判爲兩日,是豈細故也哉?烏得以刻分之微而忽之?’” 『杏菴志』 卷1 「律時」(『農書』 36, 75~76쪽); 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임원경제지 본리지』 1, 420쪽.

62) 팔도의 경위도를 반영하지 않는 조선 역법의 문제를 농사와 연관 지어 거론한 이 대목은 서유구의 집안이었기에 가능한 논변이었다. 서유구가 순조에게 이 견해를 전달하기 이미 60년 전(1760) 서명응이 영조에게 주야 시각과 절기 시각의 차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을 때(『영조실록』 36년(1760) 12/7; 『승정원일기』 영조 36년(1760) 12/8), 그리고 29년 전(1791)에 서호수가 역서에 팔도의 경위도를 반영하여 반포하도록 정조에게 건의했을 때(『정조실록』 15년(1791) 10/11. 『정조실록』에는 서유구와 같은 견해를 서호수의 말로 인용하지 않고 주석에서 설명했는데, 주석의 내용이 구면삼각법 등을 논한 매우 전문적인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서호수의 의견으로 보아도 무방하리라 생각한다), 이들이 밝힌 견해는 서유구의 그것과 세부적인 수치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원칙론에서는 대동소이했다. 서명응은 자신의 『양곡지暘谷志』(1787)라는 저술에서 이미 조선의 위도를 30~42°로, 경도를 한양을 중심으로 편동과 편서 1~3°로 나누어 이에 해당하는 지역을 모두 기재했는데, 250리마다 1° 차이를 두었다. 또 서호수는 서운관 제조이던 시절(1791) 팔도 감영의 경위도를 추산했는데, 200리마다 1° 차이를 두었다. 물론 이 두 사례는 한양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이지 실측 결과는 아니었다. 서유구가 이러한 서명응과 서호수의 논의를 자신의 가학으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농법과 역법을 간밀하게 연결 지을 수 있었던 것이다(서명응과 서운관의 경위도 추산값은 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임원경제지 본리지』 1, 411~418쪽 참조).

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과 관련된 이 내용은 『의상경제책』 저술 시에 추가되었을 것이다. 『본리지』에서는 위도뿐 아니라 경도에 대해서도 서명응의 『양곡지』와 서운관의 추산 결과를 그대로 반영했고, 경도도 ‘정확한 때’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으나, 『의상경제책』에서는 모두 빠져있는 점도 특기할 차이라 하겠다.

<표8> 『본리지』(권3) 「시후 살피기」의 목차⁶³⁾

대제목	중제목	표제어	소표제어	의상경제책과의 관련부분
시후 살피기 審時	1. 총서 總敍	천시의 알맞음에 대한 총론 統論天時之宜		3.1.2
		곡식농사에 제 때를 얻는 것과 잃는 것의 차이 論禾稼得時失時 之異		
		농시는 빠른 편이 좋다 論農時宜 及早		
	2. 절후 節候	24절기와 72후 論二十四氣七十二 候		
		쉽게 활용하는 수지도 授時指掌 活法圖		3.1.2
	3. 경도와 위도 經緯度	농사의 기후는 경도와 위도를 살 펴야 한다 論農候宜察經緯度		
		남북의 절후 차이 論南北節候之 差		
		우리나라의 경도와 위도 論東國經緯度		3.1.3~7, 9~11
			『양곡지』 고정 각 도의 북극고도 陽谷 志考定各道北極高度	
			『양곡지』 고정 각 도의 동서편도 陽谷 志考定各道東西偏度	
			서운관 고정 각 도 의 북극고도 書雲觀 考定各道北極高度	
			서운관 고정 각 도 의 동서편도 書雲觀 考定各道東西偏度	
		좁은 땅도 경위도를 살펴야 한다 論褊壤亦察經緯度		3.1.13 ~17
	4. 물후 物候	풀로 농사철을 안다 候草爲農時		
		풀달력 草曆		

마지막으로 제3장 제1목에서 정확한 농시를 알려주기 위해 서유구는 농시를 알아내는 다른 방법은 제안하지 않은 채 왜 하필 위도 측정만을 요구했는지 짚을 필요가 있다. 『본리지』의 「시후 살피기」는 전통 사회에서 농시와 관련하여 주요한 요소를 잘 정리하고 있다. 농시가 구체적으로 왜 중요한지, 각 절기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농사 절기를 어떻게 아는지 등에 대한 정보들이 자세하다. 심지어는 들이나 산에 나는 풀들의 생리를 보고 농시를 파악하는 방법까지 제공하고 있다.(위 표의 ‘물후’ 부분) 농시와 관련된 이 같은 지식은 굳이 국가 차원에서 조장하거나 권고하지 않아도 농부들이 알 수 있는 지식들이다.

그러나 북극고도 측정은 천문 관측 기구 등을 갖고서 의식적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조선 후기에 시현력을 도입하면서 조선의 서운관 관원을 포함하여 많은 식자들 사이에 시현력에 대한 이해가 점차 깊어졌지만,⁶⁴⁾ 서명응이나 서호수조차도 팔도의 실측값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유구는 『의상경계책』을 쓰기 전에는 국가적 차원의 사업보다는 지식인의 자발적 노력을 강조했다. 경위도 측정의 필요성을 의식하는 사대부들이 명승지에 여행가거나, 향촌에 살거나, 다른 지방에 들 때 실측하여 이 정보를 수합하기를 바랐던 것이다.⁶⁵⁾ 하지만 국왕에게 올리는 형식의 『의상경계책』에서는 대상 독자가 달라지면서 정책적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일을 제안해야 했고, 따라서 그는 농부들 수준에서는 알아낼 수 없는 위도 측정만을 왕에게 특기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63) 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위의 책, 347~436쪽.

64) 시현력을 이해하기 위한 조선에서의 노력에 대해서는 전용훈, 「조선후기 서양천문학과 전통천문학의 갈등과 융화」,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4 참조.

65) “나는 직분職分이 희義씨와 화和씨의 일이 아니며, 농사나 짓고 있는 사람이 하찮은 지식으로 사방을 측량하러 다닐 수가 없었으므로, 우선 옛날에 집안에서 배워 얻은 것을 아래와 같이 기록한다. 무릇 나와 뜻이 같은 선비가 명승지를 노니는 일에 싫증이 나거나 향촌에 복거卜居할 때, 잠시 들르거나 머무는 지방에서 상한의象限儀와 자오선의子午線儀를 이용하여 거리의 차이에 따른 경도와 위도를 실제로 측량하여, 하나하나 모아 합치고 차례대로 정정訂正한다면, 이 편編은 수시授時의 빛나는 교화를 공경히 따르는 것에 보탬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余也職非義和, 跡輒畎畵, 既無由握管窺測于四方. 則姑以昔所得於過庭者, 著錄如左. 凡我同志之士, 或倦游名勝, 或卜居邱園, 卽從其所到所居地方, 用象限·子午線等儀, 實測經緯里差之度, 零零湊合, 逐加訂正, 則是編也未必不有裨於欽若授時之晟化.” 『杏菴志』 卷1 「律時」(『農書』 36, 67~68쪽); 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앞의 책, 410쪽.

3.1.2. 제2목 ‘농법을 가르쳐 땅심 다 쓰기’ 역주

3.2. 농법을 가르쳐 땅심을 다 쓴다

3.2.1. 둘째는 농법을 가르쳐 땅심을 다 쓰도록 하는 일입니다.

二曰教樹藝以盡地力⁶⁶⁾.

3.2.2. 제가 듣기로 전국시대 위나라 문후 때, 이희李愷⁶⁷⁾라는 사람이 땅심을 다 쓰도록 하는 가르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방 100리는 모두 9만 경頃이다.⁶⁸⁾ 산과 하천과 못이나 저수지, 그리고 읍성의 주거지 등의 1/3을 제외하면 600만 묘⁶⁹⁾이다. 농사에 부지런히 힘쓰면 1묘당 3두를 더 수확하고[晦益三斗], 그렇지 않으면 손실이 역시 그만큼이 된다. 사방 100리에서의 증감량은 곧 조[粟] 180만 석⁷⁰⁾이 되는 것이다.”⁷¹⁾

臣聞魏文侯時,有李愷者作盡地力之教.其言以爲“地方百里提封九萬頃,除山澤邑居,參分去一,爲田六百萬晦.治田勤謹則晦益三斗,不勤則損亦如之.地方百里之增減輒爲粟百八十萬石.”

3.2.3. 문후 때는 정전으로 땅을 구획하는 토지제도가 없어지지 않았고, 백성을 잘 다스리는 성인의 교화로부터 멀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른바 농사의 부지런

66) 力: 『의상경제책』 方. 아래 이희의 언급(作盡地力之教)과 전체 문맥을 고려하여 수정.

67) 이희(李愷, B.C.455~B.C.395): 전국시대 초기 위魏나라의 정치가로 법가法家の 선구이다. 위魏 문후文侯 때 승상으로 활동하여 위나라를 전국칠웅의 하나로 만드는 데 공헌하였다. 그는 치농治農에서 지력地力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강조했는데, 힘써 밭을 갈고 자주 김매줄 것, 만드시오곡을 섞어 심을 것, 수확에 때를 놓치지 말 것 등을 주장하였다. 특히 수리와 관개를 매우 중시하여 구획溝洫을 허墟로 만들었고 주공周公보다 뛰어난 공적이라고 자랑할 정도였다. 『李子』 32편을 지었다고 하나 유실되었다.

68) 10리=300경, 1리=30경=30×100묘=3000묘.

69) 600만 묘: 100묘가 1경이다. 따라서 9만 경은 900만 묘이고, 여기서 1/3을 제외하면 600만 묘가 된다.

70) 180만 석: 600,0000묘×3두=1800,0000두=180,0000석. 10두=1석으로 환산.

71) 이희의 설은 『사기』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고, 『전한서』에서 이 내용을 자세히 전했으며, 이후 이 내용이 여러 서적에서 반복되었다. “魏有李愷,盡地力之教(正義:藝文志李子三十二篇,李愷相魏文侯,富國強兵.).” 『史記』 卷74 「孟子荀卿列傳」 第14; “是時,李愷爲魏文侯,作盡地力之教.以爲地方百里提封九萬頃,除山澤邑居,參分去一,爲田六百萬晦.治田勤謹則晦益三升[升은 斗로 바뀌야 함: 신관臣瓚과 안사고顔師古의 주에 의거],不勤則損亦如之.地方百里之增減輒爲粟百八十萬石矣.” 『前漢書』 卷24上 「食貨志」 第4.

함 여부는 농사에 달려들어 효과를 내는 때를 잘 맞추는 것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도 100리에서의 증감량의 수치가 100만 단위로 계산될 정도입니다. 더욱이 밭갈이·파종·김매기 등에 전혀 법도도 없이 농사를 짓는다면 1묘에서의 손실이 어찌 3두 정도에 그치겠습니까? 그리고 사방 천 리인 땅에서의 증감량은 또 어찌 계산 잘하는 이라한들 다 계산해낼 수 있겠습니까?

當文侯之時,井畫之田制未泯,康功⁷²⁾之聖化不遠,其所謂治田勤否,不過趨事赴功之早晚.而百里增減之數,乃以百萬計.況耕播耘耔一切無法以制之,則一畝之夫⁷³⁾,何止三斗之微?而地方數千里之增減,又豈巧曆之所能窮哉?

3.2.4. 그런데 우리 동국은 땅이 궁벽진 곳에 있고 풍속이 조악하여 일마다 중국에 못 미칩니다. 그 중 가장 법도가 없는 것으로는 농사만큼 심한 게 없습니다. 我東地僻俗窳,事事不及中國.而其最無法者,莫如耕稼之甚.

3.2.5. 제가 듣기로는 중국의 농지는 소 가랑이만한 너비에 곡식의 씨를 한 줄로 심는데, 쟁기의 보습은 너비가 1척입니다. 홀쟁기는 사람이 끄는 농구로 두 개를 합쳐 한 쌍이 되는데, 그 너비는 0.5척입니다. 사람·소·밭·농기구는 치수가 서로 잘 맞아 남는 곳도, 모자라는 곳도 없습니다.⁷⁴⁾ 『여씨춘추呂氏春秋』에서 “길이 6척짜리 보습[耜]⁷⁵⁾으로는 두둑을 만들고, 너비 0.8척의 보습날로는 고랑을 만든다”⁷⁶⁾고 말한 구절이 이것입니다.

臣聞中國之田,以一牛之脚之間,種穀一行,其鑿一尺.單耜⁷⁷⁾之以人耕者,合兩耜⁷⁸⁾而爲耦,其廣五寸.人也·牛也·田也·器也,尺寸相應,無剩無縮.呂覽所謂“六尺之耜⁷⁹⁾,所以成畝;其博八寸,所以成畎”是也.

72) 康功: 백성을 편안히 잘 다스리는 일. “文王卑服, 卽康功田功.” 『尙書』 「無逸」.

73) 夫: 失의 오기로 보인다.

74) 이 단락에서 여기까지는 『임원경제지 본리지』 2, 67쪽; 『北學議』 「進北學議疏」 ‘田’(『農書』 6, 84~85쪽)과 많은 부분이 겹친다. 쟁기와 보습의 치수는 『주례』 「고공기」에 나온다.

75) 길이 6척짜리 보습[耜]: 보습자루를 끼운 보습이다. 따라서 보습과 보습자루 길이까지 포함한 길이가 6척이라는 뜻이다. 자세한 설명은 『본리지』 권10 「그림으로 보는 농사연장」 上(『임원경제지 본리지』 3, 95~98쪽) 참조.

76) 『임원경제지 본리지』 2, 17쪽; 『呂氏春秋』 卷26 「土容論」 第6 ‘辯土’.

77) 耜: 『의상경계책』 耜. 『본리지』를 비롯한 여러 전적들에서 모두 耜라고 함. 이하 같음.

78) 耜: 『의상경계책』 耜.

79) 耜: 『의상경계책』 耜.

3.2.6. 우리나라의 경우 산간에서는 소 1쌍에 연결한 쟁기(거리)를 쓰고, 들에서는 소 1마리에 연결한 쟁기(호리)를 씁니다. 그런데 쟁기의 길이와 너비가 제멋대로여서 정해진 척도가 없습니다. 그 중 소 1마리로 가는 경우 2줄의 너비는 거의 중국에서의 3줄을 차지하고, 소 1쌍으로 가는 경우 1줄의 너비는 거의 중국에서의 2줄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 이유없이 농지의 3~4분의 1~2를 잃어버리는 셈입니다.⁸⁰⁾

我口國峽用雙牛犁,野用單牛犁.大小闊狹,漫無尺度.其用單牛耕者,二行之廣幾占中國之三行;其用雙牛耕者,一行之廣幾占中國之二行.是我無故而失田三四分之一二矣.

3.2.7. 중국의 밭갈이법은 밭갈이 1번에 씨레질[耨]을 2번 하고, 씨레질 1번에 고무래질[耨]을 2번 합니다. 파耨에는 ‘흙을 부수고 풀을 잘라낸다[渠疏]’는 뜻이 있고, 로耨에는 ‘흙을 고르게 덮는 고무래질[蓋磨]’의 효과가 있으니, 모두 쟁깃밥을 흘뜨리고 흙덩이나 풀을 제거하며 토양을 평평하게 고르는 연장들인 것입니다.⁸¹⁾ 3번 밭갈이하고 6번 씨레질하면 흙 표면이 시원스럽고 매끄러워집니다. 이 때문에 비록 가뭄을 만나도 완전히 망치는 지경은 되지 않습니다.

中國耕法,耕一徧耨二徧,耨一徧耨二徧.耨有渠⁸²⁾疏之義,耨有蓋磨之功,皆所以散壤去塊芟,平土壤也.三耕六耨,地面爽潤,縱值旱乾,不至全損.

3.2.8. 반면 우리나라는 상농부 중에서 평생 농사를 지은 사람조차도 눈 뜨고도 파耨나 로耨라는 농기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소 밭갈이를 1번 하면 할 수 있는 일은 다 끝났다고 여기고서 크고 작은 흙덩이들이 뒤섞인 채로 곡식을 뿌립니다. 그러니 곡식 뿌리와 흙이 서로 붙지 않아 들뜬 채 죽거나, 벌레 먹어 죽거나, 말라 죽는 병폐가 생깁니다.⁸³⁾ 이리하여 우리는 이미 밭갈이법을 잃어버렸고 또

80) 중국과 비교한 내용은 『북학의』에 다음과 같이 실린 정보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3줄 너비는 우리의 2줄 너비와 같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농지의 1/3을 잃어버리는 셈이다. 其三行之間,如我兩行之廣.是我無故,而失田三分之一矣.” 『임원경제지 본리지』 2, 67쪽; 『北學議』 「進北學議疏」 ‘田’(『農書』 6, 84쪽)

81) 이 문장은 『임원경제지 본리지』 2, 123쪽; 『王禎農書』 「農桑通訣」 卷2 ‘把勞’ 5, 26~27쪽; 『農政全書』 卷6 ‘農事’ ‘營治 上’(『農政全書校注』, 141~142쪽) 등에 나온다.

82) 渠: 『의상경제책』 渠. 『본리지』, 『왕정농서』, 『농정전서』 등에 의거함.

83) 이 문장은 『본리지』와 『행포지』에 나오는, 조의 골재배법(건중법)을 설명하는 곳에서 우리나라의 조 재배의 7가지 잘못을 지적하는 대목(셋째 잘못)에 들어 있는 표현과 유사하다. “설령 비가 내려서 싹이 난다 해도 뿌리가 거친 흙 속에 서있기 때문에, 뿌리가 흙에 활착하지 못하여 들뜬 채 죽거나 벌레 먹어 죽거나 말라 죽는 병폐가 생긴다. 縱令待雨而生,立根在麤土之中,根不著土,有懸死蟲死乾死之病.” 『임원경제지 본리지』 2, 289쪽; 『杏菴志』 卷2 ‘種粟’(『農書』 36,

씨레질법도 잃어버렸기에 밭에 남아 있는 곡식은 열에 서넛도 채우지 못하게 됩니다.⁸⁴⁾

我口國上農夫之終身服田者,目不識耨耨之器.一番犁耕,便謂能事已畢,雜然播穀于大塊小壤之間.根土不相着,有懸死·蟲死·乾死之病.是我既失之耕法,又失之耨法,而田之存者未滿什之三四矣.

3.2.9. 중국의 파종법에는 만종법漫種法·누종법耨種法·호종법瓠種法·구종법區種法⁸⁵⁾ 등의 구별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한결같이 고르고 바르게 뿌리므로 서로 겹치거나 비스듬히 자라지 않습니다. 길면 모두 길고, 짧으면 모두 짧아 결코 들쭉날쭉하는 법이 없습니다.⁸⁶⁾

中國之播種也,有漫種·耨種·瓠種·區種之別.要皆均正齊一,不疊不斜.長則俱長,短則俱短,絕無參差出入之異.

130~131쪽).

84) 밭에 작물이 30~40퍼센트 정도만 자란다는 서유구의 말은 조선의 농업 상황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너무 과장되게 진단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서유구는 밭갈이법을 이처럼 보습의 치수나 씨레질·고무래질 등의 횡수 차이를 가지고 중국과 조선을 대비하는 방식 외에, 밭 모양을 만드는 치전법治田法의 차이로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쟁기로 흙을 일으며 봉긋 올라온 부분을 ‘농(壟, 두둑)’, 두 농 사이에 생긴 골을 ‘견(畎, 고랑)’이라 정의하고서, 견은 씨를 파종하는 곳으로, 농은 흙을 무너뜨려 복지기하는 곳으로, 구(溝, 도랑)는 배수하는 곳이자 물을 대는 곳으로 정의했다. 서유구에 따르면 이러한 역할의 측면에서 볼 때 고랑은 물을 곧게 하여 곡식의 통풍을 고르게 함으로써 고르게 익을 수 있게 했고, 두둑은 높게 하여 뿌리를 두텁게 돋움으로써 태풍을 견딜 수 있게 했고, 도랑은 크고 깊게 하여 물을 쉽게 빼거나 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뭄이나 장마를 무사히 넘길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밭갈이법이 옛 법이었다. 하지만 후세에 두둑에 파종하는 만종법이 유행하면서 고랑이 쓸모없는 흙이 되었고, 고랑이 파종처로서 쓸모없어지면서 도랑을 대신하여 배수를 했으므로 밭에 도랑이 사라졌다는 것이다.([임원경제지 본리지] 2, 112쪽; 『杏菴志』 卷2 「耕耙」([『農書』 36, 107~108쪽)). 밭갈이를 통해 만들어진 밭 모양의 구조에 대한 이와 같은 서유구의 인식은 뒤에서 언급하는 건종법이 옛 법이며 따라서 이 농법을 조선에서도 따라야 한다는 그의 의지를 암시한다.

85) 만종법漫種法·누종법耨種法·호종법瓠種法·구종법區種法: 만종법은 뒷박에 종자를 넣고 왼쪽 겨드랑이 사이에 끼고 오른손으로 요량껏 취하여 뿌리는 방법이다. 뿌리면서 걸어가는데, 약 3보 쯤 걸어간 즈음에 다시 요량껏 취하여 씨를 고르게 뿌리면 싹이 고르게 난다. 누종법은 누리(耨犁, 또는 누차)로 파종하는 방법이다. 호종법은 박에 구멍을 뚫고 종자를 담아 걸어가면서 씨앗을 뿌리는 방법이다. 고르게 뿌리도록 하되 쟁기로 따라가며 덮는다. 덮은 흙이 두터우면 비록 폭우가 내려도 씨가 비에 두들겨 맞지 않고, 더운 여름에도 가뭄을 매우 잘 견디며, 게다가 김매기에도 편하다. 구종법은 구덩이를 파고 거름을 채워 넣은 후 곡식 종자를 손가락으로 집어 파종하는 방법이다. 지금의 호박이나 오이 심는 법과 비슷하다. 파종법에 관한 설명은 『임원경제지 본리지』 2, 188~189쪽; 『王氏農書』 「農桑通訣」 集2 「播種篇」 第6(『王禎農書』, 30~31쪽) 참조.

86) 앞 두 문장은 『임원경제지 본리지』 2, 67쪽; 『北學議』 「進北學議疏」 「田」([『農書』 6, 85쪽)과 많은 부분이 겹친다. “又種法至均,不疊不斜.長則俱長,短則俱短,絕無參差.”

3.2.10.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단지 지종법趾種法⁸⁷⁾ 하나만 알고 있으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작물이 무더기로 겹치기도 하고 줄도 없어서 바람도 고르게 통하지 않습니다. 높이 자란 작물은 열매를 맺어 거의 익어가지만, 아래쪽에 처진 작물은 한창 꽃이 피어 계속 자랍니다. 수확할 때는 말라빠진 쪽정에만 거의 반입니다.⁸⁸⁾ 이리하여 우리는 또 땅에서 곡식 종자 수 십 만 석[斛, 곡]을 잃어버린 셈입니다.

我口國但知趾種一法之外,更無他法.叢疊無行,通風不齊.高者結實幾熟,而低者方花未已.及夫收穫,萎稈居半.是我又失幾十萬斛穀種於地中矣.

3.2.11. 무릇 밭갈이는 땅을 잘 가꾸려는 일이지만, 우리나라 밭갈이는 도리어 땅을 잃고 있습니다. 파종은 곡식을 살리려는 일이지만, 우리나라 파종은 도리어 곡식을 잃고 있습니다. 결국 총 300만 경(頃⁸⁹⁾)의 땅을 가지고도 잃고 또 잃고, 줄어들고 또 줄어듭니다. 우리의 이용후생利用厚生의 방도를 중국의 수 백 리 정도의 군(郡)이나 현(縣)에 비교해 보더라도 오히려 겹언쩍게도 부끄러워집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夫耕所以治地,而我口國之耕反以失地;種所以生穀,而我口國之種反以失穀.遂以提封三百萬頃之地而損之又損,減之又減.其利用厚生之道,方之於中國數百里郡縣,而猶歉然有愧色.其故安在?

87) 지종법趾種法: 발두둑에 발뒤꿈치로 발자국을 내고 씨앗을 심는 파종법이다. 좌우의 발을 옮기며 발자국을 만든 뒤 서서 씨앗을 떨어뜨리고 뒷발로 자연스럽게 씨앗을 덮는다. 족종법(足種法, 발파종법)이라고도 한다.

88) 지종법의 폐해에 대해서는 『행포지』, 『본리지』에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한다. 우리나라의 조 재배법의 폐단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내용이다. “조 파종을 보면, 종자를 거름재에 섞고 바구니에 담아서 왼쪽 옆구리에 낀다. 양 발뒤꿈치는 교대로 들어서 두둑에 구멍을 만들고, 오른 손으로는 재를 움켜쥐고 걸어가면서 재를 뿌린다. 손과 눈이 척척 맞으면 던져도 파종처를 벗어 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렇지 못하면 종자 섞인 거름재가 왕왕 엉뚱한 곳에 떨어 져서 종자가 생흙에서 자란다. 그러므로 한창 이삭이 맺을 때에 비교해보면, 줄기가 높이 자란 것은 벌써 여물었는데, 작은 것은 이제야 이삭이 패기 시작한다. 큰 이삭은 1척이 되지만 작은 이삭은 0.1척도 되지 못한다. 수확할 때는 말라빠진 쪽정에만 거의 반이다. 그것이 다섯째 잘못 이다. 其種之也,和種于糞灰,籃盛而左挾之.左右舉趾,作竅于壟上,而用右手掬灰,且行且擲.手目相謀,尚可擲不失處.苟或不然,則往往有糞落閒地,種立生土者.故方其既秀而眊之,秔之高者已熟,而低者方秀;穗之大者盈尺,而小者不能以寸.及夫收穫,萎稈居半;其失五也.” 『임원경제지 본리지』 2, 290쪽; 『杏菴志』 卷2 「種粟」(『農書』 36, 131쪽).

89) 1.1.1.9(폐단의 결과와 그 대안인 경묘법)에 나옴.

3.2.12. 한 마디로 말하면 경종법(耕種法, 밭갈고 파종하는 법)에 법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웅楊雄⁹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를 깎아 바둑알을 만들거나 가축을 문질러 공을 만드는 데도 모두 법도가 있다.”⁹¹⁾ 하물며 ‘하늘의 운행에 따르고 땅의 성질을 파악하는’ 일을 한다면 한결같이 어리석은 농부들[夏畦]⁹²⁾에 의지하여 경종법을 법도 없이 망치고서, 그들의 엉성하고 조잡한 보답을 가만히 앉아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⁹³⁾

蔽一言曰耕種之無法也.楊雄有言曰:“斷木爲棊,斲⁹⁴⁾革爲鞠,亦皆有法.”況可以用天分地⁹⁵⁾之事,一付諸夏畦之愚而無法以基之,坐受其鹵莽滅裂之報哉?

3.2.13. 제가 생각하기에 인가 주변이나 산굽이나 비탈진 곳에서는 구전법區田法을 써야 하고, 평지나 넓은 들판에서는 대전법代田法을 써야 합니다.

臣謂人居側近·隈狹·傾阪宜用區田法,平陂衍野宜用代田法.

3.2.14. 구전법은 대대로 전해졌으나 이윤伊尹이 가뭄을 구제하기 위해 만든 데서 시작했습니다. 구전법 제도는 가사협賈思勰의 『제민요술齊民要術』이나 왕정王禎의 『농상통결農桑通訣』 등 여러 책에 상세히 나옵니다. 육조六朝 때 연주兗州⁹⁶⁾의 자사刺史였던 유인지劉仁之⁹⁷⁾는 텃밭[宅田]에서 70보步의 땅으로 구획

90) 양웅(楊雄, B.C.53~18): 어릴 때부터 배우기를 좋아했고, 많은 책을 읽었으며, 사부辭賦에도 뛰어났다. 청년시절에 동향의 선배인 사마상여司馬相如의 작품을 통해 배운 문장력을 인정받아, 성제成帝 때 궁정문인의 한 사람이 되었다. 나중에 왕망王莽 밑에서도 일해 대부大夫가 되었다. 각 지방의 언어를 집성한 『방언方言』과 『역경易經』에 기본을 둔 철학서 『태현경太玄經』, 『논어』의 문체를 모방한 『법언法言』, 『훈찬편訓纂篇』 등을 저술했다. 『중국역대인명사전』 참조.

91) 『揚子法言』 卷2 「吾子篇」.

92) 농부들[夏畦]: ‘夏畦’는 한여름에 고생스럽게 밭을 가는 사람, 즉 농부이다.

93) 이 문구는 『행포지』 서문의 다음과 같은 글귀와 비슷하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맹자』의 ‘치인치어인(治人治於人, 남을 다스리는 일과 남에게 다스림을 받는 일)’을 얘기한 글을 오독하여, 결국 ‘하늘의 운행에 따르고 땅의 성질을 파악하는’ 일을 어리석은 백성들의 몫으로 돌리고서 가만히 앉아서 그들의 갈잡고 지리멸렬한 보답을 받으면서도 반성하는 이가 없는 것에 대해 항상 이상하게 생각했다. 吾一怪夫世之人誤讀孟子‘治人治於人’之文,遂以用天分地之事,一付諸蚩蚩之氓,坐受其鹵莽滅裂之報,而莫之省焉.” 『杏菴志』 「杏菴志序」(『農書』 36, 3쪽). ‘用天分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절이 참조가 된다. “用天之道·分地之利·謹身節用以養父母,此庶人之孝也.(注:春生夏長秋斂冬藏,舉事順時,此用天道也.注:分別五土,視其高下,各盡所宜,此分地利也.)” 『孝經注疏』 卷3 「庶人章」 第6.

94) 斲: 『揚子法言』 斲. 주석가 宋咸이나 吳祕는 ‘斲’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95) “用天之道·分地之利·謹身節用以養父母,此庶人之孝也.” 注:春生夏長秋斂冬藏,舉事順時,此用天道也. 注:分別五土,視其高下,各盡所宜,此分地利也. 『孝經注疏』 卷3 「庶人章」 第6.

96) 연주兗州: 『齊民要術校釋』에서는 서연주西兗州로 교정했는데, 서연주는 지금의 산둥성山東省 정도현定陶縣 지역이다. 『齊民要術校釋』, 90쪽.

하여 구전을 만들어 보았는데 조[粟] 36석을 얻었습니다.⁹⁸⁾ 금금나라 장종章宗⁹⁹⁾ 때, 동산에다 구전으로 시험 재배해보았는데, 다른 밭과 비교하였더니 구전이 훨씬 더 나았다고 합니다.¹⁰⁰⁾ 이는 모두 고인들의 시험으로 확인된 사실인 것입니다.

區田世傳,始自伊尹爲救旱而作.其制詳見賈思勰齊民要術·王禎農桑通訣諸書.六朝時充¹⁰¹⁾州刺史劉仁之以宅田七十步之地,域¹⁰²⁾爲區田,收粟三十六石.金章宗時試區田於苑中,與他田較則區田勝地.皆古人已試之驗也.

3.2.15. 저는 일찍이 갑술년(1814) 봄에 모래자갈 밭 몇 묘에다 구전을 만들어 봄보리 1두를 파종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해에는 극심한 가뭄이 100여 일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러자 밭에 뿌려 심은 기장·조[稷]¹⁰³⁾·콩·삼 등은 일절 싹이 나지 않았고 들판에는 푸른 풀이 거의 없었으나, 오직 구종區種¹⁰⁴⁾한 보리만 예년과 견주어 3배의 수확을 할 수 있었습니다.¹⁰⁵⁾

臣曾於甲戌之春,用數畝沙磧地作爲區田,種春麥一斗.是歲亢旱百餘日.凡黍·稷·荳·麻之漫種者一切不曾吐苗,幾乎野無青草,而獨區種之麥,比常年能得三倍之收.

97) 유인지(劉仁之, ?~544): 북위 때 하남河南 낙양洛陽 사람이다. 서사書史를 두루 섭렵하였고 진서와 초서를 잘 썼다.

98) 유인지의 고사는 『임원경제지 본리지』 1, 130쪽; 『齊民要術』 卷1 「種穀」 第3(『齊民要術校釋』, 83쪽); 『農政全書』 卷5 「田制」(『農政全書校注』, 112쪽)에 나온다.

99) 장종(章宗, 1189~1208 재위): 금금의 제6대 군주. 이름은 완안경完顔璟. 예악을 정비하고 법률과 관제를 개정했으며 상평창을 설치하는 등 정사를 잘 살폈다.

100) 장종의 고사는 『임원경제지 본리지』 1, 135쪽; 『北學議』 「進北學議疏」 「區田」(『農書』 6, 92~93쪽)에 나오는데, 『金史』에도 관련 기사가 보인다. “尙書省進區田法,詔相其地宜,務從民便.” 『金史』 卷10 「本紀」 ‘章宗’ 第10.

101) 充: 『의상경제책』 充, 『齊民要術校釋』 西充.

102) 域: 『齊民要術校釋』 試.

103) 조[稷]: ‘稷’이 ‘粟’과 같은 곡식임을 상세히 고증한 서유구의 글은 『임원경제지 본리지』 2, 499~502쪽; 『杏菴志』 卷4 「穀名攷」(『農書』 36, 237~239쪽)을 볼 것.

104) 구종區種: 일정 간격으로 구획하여 일정 거리를 두고 씨앗을 심어 재배하는 일.

105) 서유구가 구종법으로 재배한 또다른 사례는 다음의 기사에서 확인된다. “신미년(1811)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즈음 극심한 가뭄이 70일이나 지속되었다. 그러자 밭에 뿌려 심은[漫種] 기장·조·목화·콩·삼 등은 일절 싹이 나지 않았고 들판에는 푸른 풀이 거의 없었으나, 오직 구멍에 씨앗을 심은[穴種] 오이류와 목화는 이따금 싹이 돌아났다. 대개 구멍에 씨앗을 심는 것은 구전의 제도와 가까운 것이다. 辛未春夏之交,亢旱七十日.凡黍·粟·木綿·荳·麻之漫種者,一切不曾吐苗,幾乎野無青草;而惟薤·藪·木綿之穴種者,往往出苗.蓋穴種近於區田之制也.” 『임원경제지 본리지』 1, 138쪽; 『杏菴志』 卷1 「田制」(『農書』 36, 41쪽) 이로써 한동안 구종법을 계속 서유구 자신이 시도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1811년의 사례에 비하면 1814년의 사례는 훨씬 더 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를 보았음을 알 수 있다.

3.2.16. 정말 그 방법을 잘 활용하고 정(町, 일정 규격의 두둑)과 구(溝, 배수로 겸 통행로)의 치수를 털끝만큼도 차이나지 않게 만든다면¹⁰⁶⁾ 수확량이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 것임은 당연합니다. 더욱이 황무지라도 곧장 할 수 있으니, 꼭 좋은 밭이 아니어도 됩니다. 삼태기와 삽만 있어도 곧장 할 수 있으니, 꼭 소 밭갈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誠能善用其法,町溝尺寸不差毫釐,則其收當不止此.且荒地便爲,不須良田;畚鍤便爲,不須牛耕.

3.2.17. 지금 산골 사는 백성으로 갈아먹을 땅이 없는 이들이나, 가난한 집안으로 혜택을 받을 소가 없는 이들, 게을러 빠져 하루 일하고 백 날 먹고 노는 이들이 어찌 한정이 있겠습니까? 진실로 이런 무리들의 가족에게 4~5묘의 땅에 구종법으로 재배하게만 해도 이 역시 가난을 치유하는 최고의 방법이요, 흉년을 구제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今狹鄉之民,無地可佃,饑饉之家,無牛趨澤,因循窳惰,一畊百食¹⁰⁷⁾者何限?苟使此輩家治四五畝,亦可爲醫貧之上術,救災荒之要道矣.

3.2.18. 대전법은 멀게는 후직의 전전법畎田法¹⁰⁸⁾에서 출발하여 한나라 무제 때 수속도위搜粟都尉¹⁰⁹⁾인 조과趙過¹¹⁰⁾가 더욱 정비했습니다.

代田之法,遠自后稷之畎田,至漢武帝時搜粟都尉趙過益修潤之.

3.2.19. 삼가 『한서漢書』 「식화지食貨志」를 살펴보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과는 대전代田을 만들었는데 1묘畝에 고랑이 3개[一畝三畎, 1묘 3전]¹¹¹⁾이

106) 구전을 만들기 위한 세부적인 치수는 『제민요술』(2가지), 『왕정농서』(1가지)에 제시되어 있고, 그 내용은 『임원경제지 본리지』 1, 125~134쪽을 참조할 것.

107) 一畊百食: 같은 표현이 「행포지 서문」에 나온다.

108) 전전畎田: 씨앗을 두둑이 아니라 고랑에 재배하는 방법.

109) 수속도위搜粟都尉: 한 무제武帝 때 설치한 일종의 군직軍職으로 대사농大司農에 소속되었으며, 농사와 둔전屯田 등을 관리했다.

110) 조과趙過: 전한대에 대전법을 만들어 농법을 전하는 데 기여했으며 씨 뿌리는 농기구인 삼각루三脚耬를 개발하기도 했다.

111) 1묘에 고랑이 3개: 고랑은 ‘견畎’을 번역한 것. ‘견’을 ‘밭두둑’으로 보는 설[『漢書』 원문에 들어 있는 안사고顔師古의 주석에 그 예]과 ‘밭고랑’으로 보는 설이 있다. 대전법에서 이 문제 이외에도 논란이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閔成基, 『朝鮮農業史研究』,

다. 매년 작물을 재배하는 곳을 바꾸기 때문에 ‘대전’이라고 하는데, 옛 법이다. 어린 싹에 잎이 난 이후로 조금씩 밭두둑의 풀을 김매주는데, 이 과정에서 두둑의 흙을 무너뜨려 어린 싹의 뿌리에 복주기한다.

謹按漢食貨志云：“過能爲代田，一畝三畝。歲代處，故曰代田，古法也。苗生葉以上，稍耨隴草，因隴其土以附苗根。

3.2.20. 그래서 『시경』에 “김매기[芸]도 하고 복주기[耔]도 하니 기장과 조[稷]가 가득하네”¹¹²⁾라고 노래한 것이다. 운뜻은 풀을 없앤다는 뜻이고, 자耔는 뿌리에 복준다는 뜻이다. 이것은 어린 싹이 조금 자라면 김을 땔 때마다 뿌리에 복준다는 말이다. 한여름이 되면 두둑이 다 허물어지면서 뿌리는 깊어져서 바람과 가뭄을 견딘다. 그러므로 가득하여 풍성해지는 것이다.

故其詩曰：‘或芸或耔，黍稷薿薿。’芸，除草也；耔，附根也。言苗稍壯，每耨輒附根。比¹¹³⁾盛暑，隴盡而根深，能風與旱。故薿薿而盛也。

3.2.21. 한 해의 수확량은 보통 만전¹¹⁴⁾보다 1묘당 1석[斛] 이상이 많고, 잘 된 것은 그것의 배가 된다.”¹¹⁵⁾

一歲之收常過縵田畝一斛以上，善者倍之。”

3.2.22. 제가 일찍이 이 설에 의지하여 집안 밭에서 시험해본 적이 있습니다. 해가 쌓일수록 저에게는 밭을 가는 방법 가운데 대전보다 좋은 것은 없고 만전보다 좋지 않은 것도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이 평평한 땅에 흩어뿌리는 만전보다 나은 점에는 모두 5가지가 있습니다.

臣嘗因是說而試之家田。積有年所，竊以爲陸耕之法莫善於代田，莫不善於縵田。代田之勝於縵田者，蓋舉之有五。

3.2.23. 만전에서는 곡식을 두둑에 심기 때문에 이슬이 햇볕에 말라 봄 가뭄을

一潮閣, 1996, 제2장 참조. 여기서는 민성기의 견해를 따랐다.

112) 『詩』「小雅」‘甫田’.

113) 比: 及(이르다, 미치다)의 뜻이다.

114) 만전縵田: 고랑을 만들지 않은 채 두둑에 재배하는 밭.

115) 『임원경제지 본리지』 1, 139~141쪽; 『漢書』卷24上「食貨志」第4上; 『農政全書』卷1「農本」(『農政全書校注』, 25쪽); 『齊民要術校釋』卷1「種穀」第3, 93~94쪽 등에 나온다.

한번 만나면 씨앗이 번번이 살지 못합니다. 이와 달리 대전에서는 고랑에 심기 때문에 그늘지고 움푹 들어간 곳에 물기가 있어서 씨앗이 흙에서 쉽게 나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나은 점입니다.

縵田,種穀隴上,燥露曬暴,一遇春¹¹⁶旱,種輒不生;代田,種之畎中,陰坳潤澤,種易出土:其勝一也.

3.2.24. 만전에서는 줄을 만들지 않고 씨앗을 흩뿌리기 때문에, 김매 때에 허리를 굽히고 쪼그려 앉아 작물의 뿌리를 살펴가며 복주기해야 하고 풀을 찾아다니며 뽑아주어야 하므로, 장정의 하루 노동력으로도 겨우 2~3묘도 작업하지 못합니다. 이와 달리 대전에서는 어린 싹에 잎이 세 장 나면 자루가 긴 호미를 들고 선 채로 두둑의 흙을 갈라 좌우로 나누어 밀쳐놓으면 잡초는 쓰러지거나 뿌리가 뽑혀 저절로 곡식의 뿌리를 복주기 때문에, 장정의 하루 노동력으로 십 수 묘를 작업하고도 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나은 점입니다.

縵田,散種無行,其耨之也,偻背尻坐,計根而壅之,逐草而拔之,壯夫一日之力,治數三畝而不足¹¹⁷;代田,苗生三葉¹¹⁸,以長柄鋤,立劃隴土,左右分堆¹¹⁹,櫟草倒拔,自然培根,壯夫一日之力,可治十數畝而有餘¹²⁰:其勝二也.

3.2.25. 만전에서는 배게 씨앗을 뿌리면 종자를 낭비하게 되고 성기게 씨앗을 뿌리면 땅을 낭비하게 되며, 되는대로 뿌리기 때문에 통일됨이 없어 작물이 자라면 큰놈과 작은놈이 서로 해칩니다. 이와 달리 대전에서는 치수에 규칙이 있고 줄과 열이 바르고 곧습니다. 『항창자亢倉子』에서 “그 ‘줄과 열’[行]을 바르게 하고 작물들의 사이가 시원하게 뚫려 청량한 바람이 소통되게 한다”¹²¹)고 했는데, 오로지 대전만이 그와 같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나은 점입니다.

縵田,密播則費種,疎播則費地,散亂無統,強弱相害¹²²;代田,尺寸有范,行列正直.亢倉子

116) 春: 『행포지』·『본리지』 亢.

117) 治數三畝而不足: 『행포지』·『본리지』 僅(『행포지』: 董)治數三畝而止.

118) 苗生三葉: 『행포지』·『본리지』 耨法.

119) 左右分堆: 『행포지』·『본리지』 分堆左右.

120) 而有餘: 『행포지』·『본리지』 없음.

121) “𡵓欲深以端,𡵓欲沃以平,下得陰,上得陽,然後盛(『農政全書』: 咸)生.立苗有行故速長,強弱不相害故速大,正其行,通其中,疏爲冷風,則有牧而多功.” 『亢倉子』 ‘農道篇’ 第8; 『農政全書』 卷1 「農本」 ‘諸家雜論 上’(『農政全書校注』, 16쪽).

122) 強弱相害: 『행포지』·『본리지』 不能通風.

所謂“正其行,通其中,疏爲泔¹²³⁾風”者,惟代田爲然¹²⁴⁾:其勝三也.

3.2.26. 만전에서는 씨앗을 뿌리는 곳이 본래부터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씨앗을 뿌리기에 앞서 똥거름을 주는데, 너무 많이 주면 똥거름을 낭비하고 너무 적게 주면 효과가 없습니다. 이와 달리 대전에서는 고랑에 똥거름을 주므로 거름을 뿌리에 집중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나은 점입니다.

縵田,受種之地,本無定處,故其先種攤糞也,厚攤則費糞,薄攤則無力;代田,鋪糞畎中,糞專於根:其勝四也.

3.2.27. 만전에서는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아 바람과 가뭄에 견디지 못합니다. 이와 달리 대전에서는 뿌리를 도답게 복주기하여 뿌리가 깊기 때문에 바람과 가뭄에 잘 견딥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나은 점입니다.¹²⁵⁾

縵田,根不深入,不耐風旱;代田,培厚根深,耐風與旱:其勝五也.

3.2.28. 제가 듣기로는 중국의 밭은 대개 모두 곡식을 고랑에 재배한다고 합니다. 작물이 자라서 돌을 만하면 다시 소에 멍에를 매어서 쟁깃날을 답니다. 쟁기의 양끝 너비는 소 가랑이의 너비와 같게 하여 예전에 갈았던 길을 따라 밭을 갑니다.¹²⁶⁾ 한여름이 되면 두둑은 도리어 고랑이 되고 고랑은 도리어 두둑이 됩니다.¹²⁷⁾

臣聞中國之田,大抵皆種穀畎中.穀長而培之,則再駕牛以耜刃.其兩端廣如牛,循故道而耕之.比及深夏,隴反爲畎,畎反爲隴.

123) 泔:『의상경제책』 泔.

124) 亢倉子~爲然:『행포지』·『본리지』 通風既勻穀熟齊一.

125) 대전이 만전보다 나은 점 5가지에 대한 설명은 『임원경제지 본리지』 1, 149~150쪽;『杏菴志』 卷1 「田制」(『農書 36』, 46~47쪽)에 나온다.

126) “中國之田,以一牛之脚之間,種穀一行.穀長而培之,則再駕牛以耜刃.其兩端廣如牛,循故道而耕之.” 『임원경제지 본리지』 2, 67쪽; 『北學議』 「進北學議疏」 ‘田’(『農書』 6, 84쪽). 원문의 첫 문장은 위에서 이미 나왔다.

127) 『본리지』와 『행포지』에서 이와 유사한 부분은 조를 골뿌림(건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묘 3견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대목에 보인다. “이와 같이 2, 3차례 하면 고랑은 도리어 두둑이 되고, 두둑은 도리어 고랑이 된다. 뿌리는 흙 속 깊이 묻히게 되므로 가물어도 습기가 보존되며, 줄기는 두터운 북 가운데에 서게 되므로 쉰 바람에도 다치거나 꺾이지 않는다. 如是數三次,則畎反爲隴,隴反爲畎.根在深土之下,故旱而保澤;莖立厚培之中,故風不損折.” 『임원경제지 본리지』 2, 287쪽; 『杏菴志』 卷2 「種粟」(『農書 36』, 128쪽).

3.2.29. 요遼¹²⁸⁾와 심양瀋陽 들판에 눈앞에 끝없이 펼쳐진 것은 모두 견종畎種한 밭인데, 기장·메기장[稷]¹²⁹⁾·조·콩이 두둑을 끼고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만 필疋짜리 삼베 누비[磨衲]를 펼쳐놓은 것 같다고 합니다.¹³⁰⁾

遼·瀋之野,彌望無際者皆畎種之田也.黍·稷·粟·荳挾隴而長.遠而望之,如布萬疋磨衲.

3.2.30. 밭농사를 이렇게 짓는다면 많은 곡식을 수확함은 당연한 결과이지, 요행이 아닙니다. 따라서 요 지역의 밭 하루같이[一日耕]¹³¹⁾는 넓이가 우리 것의 반밖에 안 되는데도 풍년에는 50~60석[斛]을 낼 수 있습니다.¹³²⁾ 이는 다만 흙이 좋기 때문만은 아니고, 사실 경종법이 적절하기 때문입니다.¹³³⁾

治田如此,其得穀之多固也,非幸也.故遼田一日耕地半于我,而豐年能出五六十斛.非但土厚,誠以耕種之得宜也.

3.2.31. 이로 볼 때, 견전법(견종법, 골재배법)은 후직 때에 만들어져서 조과 때에 제대로 갖춰졌고, 지금까지 이르러 온 천하에서 이를 따르면서 법도를 잃지 않았습니. 그런데 유독 우리 동국의 백성들만 달가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28) 요遼: 지금의 요녕성遼寧省 일대로, 만주 봉천 지역.

129) 메기장[稷]: 직稷이 메기장이 아니라 조[粟]라는 서유구의 주장은 『本利志』 卷7 「穀名考」에 자세히 다. 서유구는 이점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稷과 粟을 이렇게 나란히 쓰지 않았다. 이 부분은 박지원의 글을 옮긴 것인데, 여기서 속粟과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아 박지원이 당시 쓰였던 메기장의 뜻으로 이해했던 것으로 판단되어 이렇게 옮긴다.

130) 이 단락은 박지원의 경험담을 옮겼다. “余嘗過遼野,見其田,皆作細隴,黍·稷·粟·豆挾隴而生.遠而望之,如布萬疋磨衲.” 『임원경제지 본리지』 1, 147쪽; 『課農小抄』 「耕墾」(『農書』 6), 292쪽). 서유구는 중국을 간 적이 없기 때문에 당시 청나라의 농사 실정에 대해서는 주로 유형원, 박제가, 박지원의 글에 의존하고 있다.

131) 하루같이[一日耕]: 소가 밭을 하루 갈 수 있는 넓이. 토질에 따라 넓이가 들쭉날쭉하여 정확한 환산이 어렵지만, 대략 700~1500평 정도인 것 같다.

132) 조선에서의 하루같이라면 100석은 될 것이다.

133) 이 부분은 유형원의 다음과 같은 글을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요에 사는 사람에게서 들으니 요동 지역의 밭도 모두 ‘1묘당 고랑이 셋[一畝三畎]’이라고 한다. 이러한 연유로 요의 밭 하루같이[一日耕]가 우리나라의 밭에 견주어 눈에 띄게 작은데도 요의 하루같이 밭에서는 풍년이 들면 곡식 50~60석[斛]을 산출할 수 있다. 그곳에서 20~30석[斛]을 내는 데 그쳤다면 흉작[失稔]이라 한다. 이것은 비록 흙이 좋아서라고는 하나 실제로는 고랑과 두둑을 이용한 경작법이 적절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에 이른 것이다. 聞之遼人,遼東田亦皆一畝三畎.以故遼田一日耕,比我國田懸小,而遼田一日耕,豐年能出粟五六十斛.其止出二三十斛者,謂之失稔.雖是土厚,實以畎畝耕種之法得宜而致也.” 『임원경제지 본리지』 1, 146쪽; 『樸溪隨錄』 卷7 「田制後錄攷說」 上 ‘務農’, 明文堂, 136쪽.

由是觀之,畎田之法勑於后稷,備於趙過,至于今普天之下,遵而勿失.而獨我東之民不肯爲者何也?

3.2.32. 지금 관서關西와 해서海西 지역에서의 조 재배는 종종 두둑을 버리고 고랑에 재배하는데, 수확량이 두둑 재배 때보다 몇 배[倍蓰]나 됩니다. 평양 외성外城의 밭에서도 견종법을 쓰는데, 하루같이에서 조 50석[斛]을 수확합니다. 고랑과 두둑의 치수를 꼭 옛법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곡식 수확량이 이토록 많은 것입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도, 오히려 미혹되어 옛 습속을 고쳐 좋은 방법을 따르려 하지 않는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今關西海西之種粟往往有棄隴種畎者,其收輒倍蓰¹³⁴於種隴.平壤外城之田亦用畎種法,一日耕得粟五十斛.其畎伐尺寸未必盡如古法,而得穀之多乃如是矣.耳聞之,目見之,而猶且迷不知改舊從善者又何也?

3.2.33. 이제 나라 안의 모든 밭에 견종법을 시행하려면 이는 말이나 문서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둔전屯田을 설치하여 본보기로 삼고 인사 관리를 엄격히 하여 권선징악을 행한 연후에야 비로소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둔전을 운영하는 법에 대해서는 따로 대략의 설을 갖춰 뒤에 적어두었습니다.

今欲盡一國之田而畎之,此不可以言語簿書爲也.必須設屯田以標式之,嚴黜陟以勸懲之,然後始可有實效.屯田之法,另具藹¹³⁵說在後.

3.2.34. 인사 관리와 권선징악의 정사는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하여 잠자코 가만히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 또한 신하가 가슴에 품은 생각이 있으면 숨김 없이 드러내야 하는 뜻은 아니니, 함부로 월권한 형벌을 회피하지 않고 감히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黜陟勸懲之政,非臣之所宜言,欲默而息乎?又非人臣有懷無隱之義,敢不避猥越之誅而一陳之.

3.2.35. 동국의 사람들이 선비를 존경하고 농부는 무시하는 풍속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사민四民¹³⁶은 선비가 그 중 하나를 차지할 뿐이었는데, 지금

134) 倍蓰: 倍는 2배, 蓰는 5배를 뜻한다.

135) 藹: 이 글자로는 뜻이 통하지 않는다.

은 나라 전체에서 반이나 됩니다.¹³⁷⁾ 옛날에는 선비가 곧 농부요, 농부가 곧 선비였습니다. 그래서 “들에서 농사짓고[耕莘] 도를 즐기면¹³⁸⁾ 쟁기와 보습이 곧 『시』·『서』¹³⁹⁾요, 경서를 곁에 지니고서 김매기 하면¹⁴⁰⁾ 서책이 곧 가래[錢]·호미[鑄]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性和 명命에 대해서는 고담준론을 하면서도 오곡은 이름조차도 구별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東人之貴士而賤農也久矣。古者四民，士居其一，今則通口國之半矣。古者士即農，農即士。故曰：“耕莘而樂道則耒耜即詩·書也，帶經而鋤田則方冊即錢·鑄也。”今則有高談性命而不辨五穀之名者矣。

3.2.36. 나라 사람들 중에서 선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겨우 5/10밖에 안 됩니다. 5/10에서 상인과 장인을 제외하면 겨우 열에 한둘에 불과합니다. 열에 한둘에서 또 놀고먹는 무리를 제외하면 논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舉一口國之人而去士，則存者堇什之五矣。什五之中去商去工，則存者堇什之一二矣。一二之中又去游食之徒，則其服勤田疇者果幾何哉？

3.2.37. 일하는 사람은 적고 먹는 사람이 많으니, 논밭을 광점(廣占, 논밭을 넓혀 농사를 많이 지음)하지 않을 수 없는 추세입니다. 광점하기 때문에 일손이 넉넉하지 않고, 일손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논밭 일이 영성해지고, 논밭 일이 영성해지기 때문에 수확량이 고생한 댓가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수확량이 고생한 댓가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 중 흥포하고 약삭빠른 자들은 돌아서서 장사를 하고, 재주가 좋은 자들은 떠나서 장인이 됩니다.

爲之者寡，食之者衆，其勢不得不廣占田疇。廣占故力不贍，力不贍故治田鹵莽，治田鹵莽故收不償勞。人見其收不償勞也，桀黠者轉而之商，巧慧者去而爲工。

136) 사민四民: 백성의 네 계급. 즉 사士·농農·공工·상商.

137) 선비가 전 인구 중 절반을 차지한다는 현실.

138) 들에서~즐기면: ‘耕莘’은 탕왕의 신하 이윤伊尹이 은거하던 초기에 유신有莘이란 나라에서 농사 지었던 고사에서 온 말. “伊尹耕於有莘之野而樂堯舜之道焉.”(이윤은 유신의 들에서 농사지으면서도 요순의 도를 즐겼다.) 『孟子』 「萬章 上」 7.

139) 『시』·『서』: 『시경』과 『서경』(『상서』)를 일컫는다.

140) 경서를~하면: ‘帶經而鋤田’을 옮긴 말로 한漢나라 예관兒寬이 품팔이 할 때 경서를 지니고서 밭일을 하다가 쉴 때면 독송을 했다는 고사에서 왔다. “時行賃作，帶經而鋤，休息輒讀誦.” 『漢書』 卷58 「公孫弘卜式兒寬傳」 第28.

3.2.38. 논밭 이랑에서 늪도록 머리 숙여 농사짓는 자들은 일꾼[人役]이거나 아주 어리석은 이들[下愚] 뿐입니다. 이런 무리들은 씨앗이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곡식을 먹을 수 있다고 알 뿐입니다.¹⁴¹⁾ 어찌 이들이 고법古法이 금법今法으로 변천한 내력이나 중국 법도와 조선 법도의 우열에 의문이 있겠습니까?

其俛首終老於畎畝者,人役耳,下愚耳.是徒知種落地則穀可食而已.更安問古法今法之因革·華法東法之優劣也?

3.2.39. 독서하여 이치를 궁리하는 선비들은 또 황당하게 치인治人과 사인食人을 구별하는 뜻¹⁴²⁾에만 스스로 의지하다 보니, 농사를 비천한 일로 여겨 여기에 기꺼이 마음을 두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하루아침에 수령의 임무를 맡았다가 농사를 권유하고 감독하고 가르치려 하지만, 이는 ‘소경 단청 구경’이요 ‘귀머거리 음악 감상’과 거의 다를 데 없습니다. 그리하여 농부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은 자가 드뭅니다. 농사에 대해서는 지금의 방법으로는 지금의 풍속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니 비록 묘당에서 날마다 공문을 열 통 씩 보내고 수령이 날마다 많은 말로 훈계하게 해도, 백성들은 끝내 믿으려하지 않고 농사는 끝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讀書窮理之士又嚙然自托於治人·食人之義,而鄙不屑留心.一朝居司牧之任,雖欲勸相而督教之,殆無異瞽者之於丹青·聾者之於律呂,其不爲佃夫之所竊笑者幾希矣.田今之道不變今之俗,則雖使□廟堂日發十關,縣官日飭萬言,民終不信,田終不治.

3.2.40. 그러므로 농사를 제대로 관장하려면 반드시 중농重農을 앞세워야 합니다. 중농하려면 반드시 농사의 불이익을 없애고[去其害], 혜택을 주어 장려해야 [聳以利] 합니다.

故將欲治田,必先重農.將欲重農,必先去其害而聳以利.

3.2.41. 농사의 불이익을 없앤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옛날에는 “택지 주변에 뽕과 삼을 심지 않으면 이포里布¹⁴³⁾를 거두고, 밭을 갈지 않으면 옥속屋

141) 밑줄 부분은 『과농소초』 「제가총론」 맨 뒤의 안설 내용과 비슷하다.

142) “勞心者治人,勞力者治於人,治於人者食人,治人者食於人,天下之通義也.” 『孟子』 「滕文公 上」 4.

143) 이포里布: 주나라 때 택지 주변에 뽕과 삼을 심지 않은 집에 그 벌로 1리인 25가구에서 내는 돈을 물리는 세금.

粟¹⁴⁴⁾을 내게 한다”¹⁴⁵⁾고 했습니다. 대개 놀고먹으며 농사에 해를 끼치는 일을 싫어했기에 이들에게 세금을 중하게 매겨 곤란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何謂去其害?古者“宅不毛者有里布,田不耕者出屋粟”.蓋惡其游食害農,而重征以困之也.

3.2.42.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200~300전을 내야 하는 군보軍保¹⁴⁶⁾의 의무가 위로는 선비에 미치지 않고, 아래로는 상인에 미치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한 집 안에 부자나 형제를 모두 장정[丁, 복역 의무자]으로 간주하여 한 사람도 면제되지 않고, 심하게는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이까지 침해하거나 이미 썩은 뼈까지 들춰내기도 하는데, 이들은 대개 농민뿐입니다.¹⁴⁷⁾

我國軍保之役,每歲出錢二三百者,上不及士,下不及商.其一家父子兄弟計丁而無一免,甚或侵在襁之兒,刮既朽之骨者,大抵皆農民耳.

3.2.43. 강자와 약자를 통제하는 차이와 이익과 손해의 현격한 차이가 이와 같은데, 어느 누가 기꺼이 농사지으려 한단 말입니까? 지금은 비록 완전히 면제해 줄 수는 없다 해도, 진실로 옷을 잘 차려입고 사지를 놀리지 않는 부류를 호戶로 계산하여 포를 거둠으로써 농민 호의 의무를 분담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예전에는 열에 한둘의 비율을 차지하는 농민에게서 내었던 군포를 이제 모두에게 고루 분담시킨다면 농민들은 아마도 힘을 좀 펴볼만 할 것이고, 마음을 바꿔 좋은 논밭을 찾으려는 이들도 몰려들 것입니다.

強弱之相制,而利害之相懸也乃如是,人孰肯爲農哉?今縱不能一切豁除,苟令今之長衫博袖·四體不勤之類計戶出布,以分農戶之役.使向出於十分之一二者,今均攤於十分,則農庶幾稍紓其力,而轉而緣南畝¹⁴⁸⁾者衆矣.

3.2.44. 혜택을 주어 장려해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나라가 한창 융성할 때, 효제孝悌¹⁴⁹⁾와 역전力田¹⁵⁰⁾은 관리를 선발하는 같은 과목이었습니다.

144) 옥속屋粟: 주나라 때 농사를 짓지 않은 이에게 벌로 세 가구 몫의 곡식을 내게 하는 세금.

145) 『周禮注疏』卷13「地官司徒 下」‘載師’.

146) 군보軍保: 군역에 복무하지 않는 대신 정군正軍이 현역에 복무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장정. 『한국고전용어사전』 1, 752쪽.

147) 군정 문란의 주된 피해자는 농민임을 설명했다.

148) 南畝: 햇볕을 잘 받는 남향의 농지.

149) 효제孝悌: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자매간에 우애 있게 지냄.

문제(文帝, BC 180~157년 재위)는 조서를 내려 역전하는 이에게는 비단 2필을 주게 했고, 호구戶口를 기준으로 역전하는 상원常員을 두었고, 각각이 역전의 뜻을 따라 백성을 이끌도록 했습니다.¹⁵¹⁾ 당나라 태종(626~649년 재위)은 조서를 내려 백성 중에 현재 직업[見業]이 농부인 자들은 장인이거나 상인이 될 수 없고, 현재 직업을 버리고 역전하는 자들에게는 세금[調]을 면제해주도록 했습니다.¹⁵²⁾ 이는 모두 근본을 도탐게 하고 말단을 억제하여 권면하고 통솔하는 권도에 깃들도록 한 것입니다.

何謂聳以利?漢之盛時,孝悌力田同科.文帝詔賜力田帛二疋,而以戶口率置力田常員,各率其意以導民.唐太宗詔民有見業農者不得爲工賈¹⁵³⁾,有舍見業而力田者免其調.皆所以敦本抑末,以寓勸率之微權也.

3.2.45. 무릇 백성 중에 역전하는 이들은 스스로 자기 가족을 위해서만 계획을 세울 뿐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역전하는 윗사람이 이처럼 농사를 권장하면서 감동을 준다면 어느 누가 일을 즐기며 효과를 내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논밭이 어찌 잘 관리되지 않을 것이며, 농사가 어찌 풍년이 들지 않겠습니까? 집집마다 살림이 넉넉해지고 사람마다 등 따시고 배불러, 모두 풍요롭게 큰 공을 이뤄 편안해질 것이니, 그러한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夫民之力田自爲八口¹⁵⁴⁾計耳,非爲人也,而上之人乃如是聳勸歆動之,人孰不樂事趨功?而田安得不治?穀安得不豐?其家給人足,比隆成康,有以哉!

3.2.46. 이제 마땅히 이 뜻을 본받아 잘 변통해야 합니다. 먼저 팔도 관찰사에게 농사에 통달한 자 1~2인을 여기저기 물어 찾게 하소서. 그리고 매년 초에 이들의 추천서를 작성하되, 경전을 잘 깨우치고 인덕을 잘 닦은 이들[經明行修]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여 전하께 보고 드리게 하소서. 전하께서는 이들을 먼저 서울 주변과 지방에 설치할 둔전의 전농관典農官으로 임명하여 시험해보소서. 만약 실적이 탁월한 자가 있을 경우 그에게 수령의 임무를 준다면, 한 사례로 만 가지

150) 역전力田: 열심히 농사지음.

151) 『前漢書』卷4「文帝紀」第4에 나온다.

152) 문제와 당 태종의 이야기는, 王禎, 『農書』卷1「農桑通訣」集一「孝弟力田篇」第3(『王禎農書』, 18쪽); 『農政全書』卷2「農本」諸家雜論 下(『農政全書校注』, 38쪽)에 나온다.

153) 賈: 『왕정농서』, 『농정전서』費.

154) 八口: 식구가 여덟인 집을 가리킨다. 맹자는 정전법에서 1경을 사전으로 받는 1부夫는 8인 가족을 기준으로 설명했다. “百畝之田,勿奪其時,八口之家,可以無飢矣.” 『孟子』「梁惠王 上」7.

일을 독려하면서 집집마다 농사를 귀하게 여길[上農] 것입니다.

今宜師其意而通變之.令八道道臣訪求明於農務者一二人,每歲首薦剡,與經明行修,同擬以口聞.先試京外屯田典農官,如有實蹟卓異者,畀以字牧之任,則舉一勸萬,比屋上農矣.

3.2.47. 식자층에서는 지금의 역농자力農者는 모두 소박하고 우둔하며 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사람 다스리는 일을 알겠느냐고 말할 게 뻔합니다.¹⁵⁵⁾ 識者必謂今之力農者皆樸魯少文之人,是安知治人.

3.2.48.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글재주[文藝]로만 인재를 선발하는 일은 후대의 말류가 범한 실책입니다. 공자 문하의 네 가지 학과[四科]¹⁵⁶⁾에서 문학文學은 정사政事의 뒷자리에 있었습니다. 호학湖學¹⁵⁷⁾의 양대 학교[齋]에서는 수리水利를 정치 과목 중 하나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문학과 농정農政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臣以爲不然.取人以文藝,後世末流之失也.孔門四科,文學居政事之後;湖學兩齋,水利爲治事之一.文學農政,何軒何輕¹⁵⁸⁾?

3.2.49. 게다가 이른바 글재주라는 것은 운율과 땃구 맞추기[聲律對偶]¹⁵⁹⁾에 불과합니다. 천하의 선비들에게 어릴 때부터 준비하게 늘어선 글자들의 숲에서 흰 가루로 연습하게 하여(수없이 반복 학습하게 하여) 이런 재능을 키우려고만 하다 보니, 정사에 적용하는 일은 이미 감각이 떨어지게 됩니다. 논자들은 이런 점들을 문제 삼지 않고서 “선비를 선발하는 데 이를 버리고 다른 것에서 구할 수는 없다”고만 주장하니, 그들의 생각이 못 미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155) 『課農小抄』 「諸家總論」의 주자권농문 조에서 밝힌 박지원의 견해에서는 선비가 농학에 힘써야 한다는 책임론을 피력했다.(崔洪奎 譯註, 『國譯 課農小抄』, 서울亞細亞文化社, 1987, 40~42쪽.)

156) 네 가지 학과[四科]: 덕행德行, 언어言語, 정사政事, 문학文學. “德行,顏淵·閔子騫·冉伯牛·仲弓; 言語,宰我·子貢; 政事,冉有·季路; 文學,子游·子夏.” 『論語』 「先進」 2.

157) 호학湖學: 송대의 호원胡瑗이 호주湖州에서 만든 학과. 당시에는 사부(辭賦, 문체의 일종)가 유행하고 있었으나 호학은 이를 따르지 않고 경의經義·치학治學 두 재齋를 세워 많은 인재를 배출했다. 『大漢和辭典』 7, 126쪽.

158) 何軒何輕: ‘헌軒’은 앞이 높고 뒤가 낮은 수레, ‘지輕’는 앞이 낮고 뒤가 높은 수레로, 경중·고저·우열의 뜻.

159) 聲律對偶: ‘聲律’은 글자의 발음 규칙에 따라 글을 짓는 방법이고, ‘對偶’는 글자의 뜻과 음절이 둘씩 상대가 되도록 짓는 일종의 수사법이다.

況今之所謂文藝不過聲律對偶而已.使天下之士,童習白紛於櫛句比字之間,而欲以增長其智能,舉而措之政事,亦已疎矣.論者不此之病,而必曰“取士不可捨此而他求”,何如其不思也?

3.2.50. 저는 시골에서 오래 살면서 이것저것 보고들은 바가 많습니다. 조상의 유산을 이어받아 편안히 앉아서 배불리고 따스게 사는 선비들 중에는 시중 받는 일에만 익숙하여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유유자적하며 혼자만 즐기면서 헛되이 곡식만 축내는 이들이 많습니다. 반면 의지할 곳은 없어도 부지런히 농사지어 집안을 일으킨 이들은 모두 빠릿빠릿하고 강하여 나름의 확고한 계획이 있으며, 재능은 일에 달려들어 효과를 확실히 내기에 충분하고, 지혜는 농부들을 마음대로 부리기에 충분합니다. 다만 운을 맞추거나 경전의 뜻을 이해하는 데서 글 쓰는 선비와 하루 사이에 우열을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논밭에서 늙어 죽기를 스스로 감내할 뿐입니다.

臣久處田野,所聞見者多矣.士之承父祖緒餘安坐而飽煖者往往狃於豢養,短於衡慮,優游自喜,空蝗黍粟;其無所資而能以力穡起家者,類皆¹⁶⁰⁾精強有心計,其材力足以趨事赴功,智慮足以役使莊戶.特不能治聲律讀經義,與操觚之士爭得失於一日之間,故自甘老死於田間.

3.2.51. 나라에서 이런 무리들을 위해 벼슬에 진출할 통로를 따로 열어놓고, 업무 실적을 평가하고 청렴성을 세밀히 검토하여 주나 군으로 차차 자리를 옮길 수 있도록 하여, 각자에게 농사에서 이미 겪은 경험으로 성심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면, 황패黃覇가 영천에서 했듯이, 공수龔遂가 발해에서 했듯이, 소신 신召信臣이 남양에서 했듯이 훌륭한 수령이 될 것입니다.

國家爲此輩別開進身之路,考行察廉,以次遷補於州郡,使各以已所經驗於樹藝者設誠而教課之,如黃覇之於潁川·龔遂之於渤海·召信臣之於南陽.

3.2.52. 전하께서 안과 밖의 관리들에게 고명한 가르침을 회복하시려거든, 인사 고과는 반드시 이 방법으로 하셔야 하고 인사관리도 반드시 이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를 실행하게 하는 명령은 사계절처럼 믿을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집행하게 하는 정사는 금석처럼 견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10년도 되지 않아 전

160) 類皆: 모두.

국의 밭에서 모두 건종법을 실행하게 되고, 전국의 밭에서 모두 건종법을 실행하면 곡식은 이루 다 먹을 수 없게 됩니다. 곡식을 이루 다 먹을 수 없으면 풍속이 후해지고, 효제의 인륜이 돈독해지고, 예의와 양보(배려심)를 숭상하게 되어 우리 백성을 ‘인(仁)한 덕으로 장수하게 되는 단계[仁壽之域]’¹⁶¹⁾로 끌어올리는 일을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殿下復明教中外有司,考績必以此焉,黜陟必以此焉.行此之令,信如四時;執此之政,堅如金石.則不出十年,八域之田盡畎矣;八域之田盡畎,而穀不可勝食矣.穀不可勝食,而厚風俗·敦孝弟·崇禮讓,躋斯民於仁壽之域,可執左契¹⁶²⁾而致矣.

161) 인(仁)한~단계[仁壽之域]: 왕도정치의 최상 단계로 평가하는 상태이다. ‘仁壽’는 본래 『논어』의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나왔다. “子曰:‘知者樂水,仁者樂山;知者動,仁者靜;知者樂,仁者壽.’” 『論語』「雍也」 21, ‘仁壽之域’의 용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案:人之一生,每十年而異其名,使人知盛衰之候,而血氣以定,十年而異其事,使人知進退之方而志趨以專.聖人治天下,所爲因時教養,而躋斯民於仁壽之域也.” 『日講禮記解義』 卷1: “蓋欲吾民衣食足而知榮辱,倉廩實而知禮節,以共趨於富庶仁壽之域,德至渥也.當職幸來此承攝,敢陰霽章?” 朱熹, 『晦庵集』 卷100 「公移」 ‘勸農文’.

162) 左契: 둘로 나눈 계약서의 왼쪽 조각. 곧 약속의 증거.

<제2목 해설>

제2목에서는 들판에서 이루어지는 농사짓는 법을 소개하고 이를 보급할 방안을 다룬다. ‘농법을 가르쳐 땅심 다 쓰기[敎樹藝以盡地力]’는 땅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곡식을 최대 생산할 방안을 탐구한 내용으로, 농지 경영의 핵심 농법의 활용을 말한다.¹⁶³⁾ 서유구는 이 제2목에서 농사를 몸소 실천하는 농학자로서, 농업 경영을 관장하는 농정관으로서의 면모를 십분 발휘하고 있다. 여기서 다룬 내용을 분량으로 따지면 총 11목 중 제3강 제6목(둔전을 넓혀 부국을 만든다, 6,599자)과 제1강 제1목(결부법을 경묘법으로 고친다, 4,286자) 다음으로 많다(2,871자).

서유구는 먼저 중국의 이회(李愷, B.C.455~B.C.395)라는 전국시대 초기 농정 개혁가의 말로 논의를 시작했다. 그에 따르면 이회는 ‘땅심을 다 쓰도록 하는 농법의 가르침(盡地力之敎)’을 실행한 이였다.¹⁶⁴⁾ 이회는 농사에 부지런히 힘써서 땅심을 최대한 쓰도록 하면 ‘1묘에서 3두斗를 더 수확할 수 있다[晦(畝)益三斗]’는 계산에서 사방 100리(가로·세로 각각 10리, 즉 900만 묘)에서 땅심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조 180만 석의 생산량이 늘거나 준다고 역설했다.(3.2.2) 1묘의 수확량과 1인이 소비하는 1개월 식량을 모두 15두(=1.5석)로 계산했던 이회의 입장에서¹⁶⁵⁾ 1묘 당 곡식 3두의 추가 수확량은 결코 적지 않았다.

이회의 이 같은 말은 전국시대 초 위魏나라 문후文侯(B.C.445~B.C.396 재위)에게 올린 건의서에 담긴 내용이다. 서유구가 보기에 당시에는 정전제도가 폐기

163) ‘수예樹藝’는 ‘심고 가꾸기’라는 뜻이므로, 농법이라 옮겨도 큰 지장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164) ‘진지력지교’라는 이 표현은 『사기史記』에 이회를 평가하는 말로 처음 사용되었다가(『史記』卷74 「孟子荀卿列傳」 第14) 이후 『한서漢書』 「식화지食貨志」에, 다음 단락에서 소개할 내용(서유구가 인용하기도 했다)이 실리면서 이후 중국에서는 수많은 글에 재인용되었다(『전자판사고전서』에서 ‘盡地力之敎’로 검색한 결과 정문(正文, 원문)으로는 57곳, 주석문으로는 18곳에서 확인된다. 이 중 정문인 5건을 제외한 70건이 모두 이회와 관련된 기사다. 5건이 실린 책은 다음과 같다. 『古今事文類聚』(外集 卷15), 『記纂淵海』(卷35), 『文恭集』(卷12), 『東萊集』(外集 卷3), 『御選古文淵鑒』(卷62). 한편 조선의 경우 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일성록』 등 현재 웹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한 국고문헌을 포함하여 ‘한국고전종합DB’에서 단 2건(『반계수록』, 『의상경제책』)이 확인되어 중국에서의 관심과 대조된다. 제3강 제2목의 주제어에 쓰인 ‘진지력盡地力’도 바로 이회에게 부여된 상징인 이 용어에서 비롯되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165) 이회의 계산에 따르면 1부(5인 가족) 100묘에서의 수확량은 150석이고, 이 중 5인의 식량은 90석, 세금이 15석, 잔여분이 45석이다. 수확량에서 30석이 대전법을 활용한 추가 소득인 셈이다. “今一夫挾五口,治田百晦,歲收晦一石半,爲粟百五十石.除十一之稅十五石,餘百三十五石.食人月一石半,五人終歲爲粟九十石,餘有四十五石.” 위의 글.

되지 않았고 성인의 교화가 남아있는 시기였기에, 농사에 부지런히 힘쓰는 일은 바로 농시만 어기지 않으면 이를 수 있다고 이해했다. 농민들을 전쟁이나 부역 등으로 국가에서 차출하여 제 때에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더라도 1묘 당 3두의 수확이 감량되는 피해를 입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그나마 정전제도라는 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정전제가 폐기된 이후에는 농사의 주요 공정인 밭갈이·파종·김매기 등에 법도도 없이 짓는 농사의 경우 손실이 3두보다 더 많을 것이 분명하다고 서유구는 믿었다. 조선은 일마다 중국에 못 미친다는 입장을 지녔던 그는 “가장 법도가 없는 것으로는 농사만큼 심한 게 없”다고 까지 조선 농업을 평가 절하했다.(3.2.3~4)

서유구는 이 같은 평가의 근거를 밭과 농기구, 밭갈이, 파종법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근거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그는 하나하나를 중국의 사례와 대비하고 있다. 먼저 밭과 농기구(쟁기의 보습)의 경우 중국은 사람·소·밭·농기구가 모두 치수가 잘 맞는다고 했다. 이에 반해, 조선의 경우 쟁기의 보습은 통일된 치수가 없을뿐더러 중국 보습보다 너비가 넓어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두둑의 너비도 넓어진다고 했다. 그 결과 조선은 농지를 낭비한 셈이라고 분석했다.(3.2.5~6)

밭갈이법에서는 중국의 경우 쟁기로 밭갈이를 1회 하면 이어 ‘파耨’라는 농구로 씨레질을 2회 하고, ‘로耨’라는 농구로 고무래질을 4회한다. 이런 식으로 밭갈이를 3회 하면 흙덩이는 거의 모두 잘게 부수어져서 가뭄에도 실농하지 않는다. 반면 조선은 ‘파’나 ‘로’라는 농구도 없고 소 밭갈이를 1회 한 뒤 흙덩이가 여기저기 남아있는 채로 파종을 한다. 그 결과 씨앗의 뿌리가 흙에 안정적으로 내리지 않아 쉽게 죽는다.(3.2.7~8)

파종법에서는 중국의 경우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한결같이 고르고 바르게 뿌려서 성장 상태가 균일하다. 반면 조선의 경우 밭두둑에 밭뒤꿈치로 밭자국을 내고 씨앗을 심는 지중법趾種法만 있는데, 이 파종법은 “작물이 무더기로 겹치기도 하고 줄도 없어서 바람도 고르게 통하지 않”으며 성장 상태가 차이가 많아 수확할 때 쪽정이만 반 정도가 될 정도다. 이 때문에 “땅에서 곡식 종자 수 십 만 석[斛]을 잃어버린 셈”이 되어 곡식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3.2.9~10)

조선에서의 이런 식의 농사에 대해 서유구는 “한 마디로 말하면 경종법에 법도가 없다.”(3.2.12)고 진단했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지도층인 사대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 서유구는 사대부들이 “한결같이 어리석은

농부들에 의지하여 경종법을 법도 없이 망치고서, 그들의 영성하고 조잡한 보답을 가만히 앉아서 받”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3.2.12)

사대부 지식인이 경종법을 연구하고 이를 보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서유구는 자신이 추천하는 경종법 두 가지를 제안한다. 구전법區田法과 대전법代田法이 그것이다. 첫째 경종법인 구전법의 특징은 작물이 가뭄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구덩이에 곡식이 자라기 때문에 구덩이에만 물이나 거름을 주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구전법은 소규모로 경영되기 때문에 물을 주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구전법은 은나라 탕왕 때 명신으로 알려진 이윤伊尹이 7년 가뭄이 들자 가뭄을 구제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다. 가사협賈思勰의 『제민요술齊民要術』에 처음 소개된 이 구전법은 이후 여러 농서에서 소개되었고, 시험 재배로 성공을 거둔 사례도 확인된다.(3.2.14) 서유구는 이 구전법을 몸소 시행하기도 했다. 100여 일이나 지속된 극심한 가뭄이 있었던 때(1814) 밭작물은 말할 것도 없고 들판의 풀조차 고사한 지경이었지만 그가 구전법으로 재배한 보리는 예년보다 오히려 수확이 3배나 되었다고 한다.(3.2.15)

서유구는 이런 효과를 보이는 구전법을 법도대로 시행한다면 수확량이 더 많아질 것으로 믿었다. 구덩이에 자라는 곡식의 뿌리에 집중적으로 거름을 줄 수 있기에 땅의 비옥도는 중요하지 않았다. 또 구덩이를 하나하나 파야 하기 때문에 쟁기질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 황무지에서도, 소가 없는 농가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점이 구전법의 큰 장점이었다. 따라서 땅이 없고, 소가 없는 빈농이 4~5묘 정도의 농지만 확보한다면 한 가족에게 “가난을 치유하는 최고의 방법이요, 흉년을 구제하는 중요한 방법”임을 그는 강조했다.(3.2.16~17) 구전법은 빈농이나 소농이 자투리땅을 활용하기에 최적의 농법이었던 것이다.¹⁶⁶⁾

166) 이상에서 설명한 구전區田에 대해서는 『본리지』에서 이미 상세하게 소개한 바가 있다. 『본리지』에서는 『범승지서』·『제민요술』 같은 초기 농서뿐 아니라 『왕정농서』와 『농정전서』 등에 기록된 구전의 세부적인 제도를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조선에서의 구전법에 대한 관심도 밝혔는데, 박제가의 『북학의』와 박지원의 『과농소초』의 내용이었다. 박제가는 7~8두 수확하던 곳에 구전법을 씌으로써 5~6석을 거뒀다는 사례를 얘기하면서, 법도에 맞게 재배한다면 수확량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박지원은 나무말뚝으로 한나절같이 땅에 구멍을 내어 그 구멍에 조를 재배한 뒤 50석이나 거둔 이상진(李尙眞, 1614~1690)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서유구 자신의 견해를 담은 『행포지』에서는 70일 간 가뭄이 지속되던 해(1811)에 구전법처럼 구덩이에 재배하던 오이나 목화는 말라죽지 않았다는 사례를 언급하며 거름을 뿌리에 집중적으로 투하하고 가뭄에도 물을 댈 수 있어서 가뭄 구제에 구전법만한 농법이 없다고 정리했다(서유

구전법에 대해 이렇게 간단하게 강조한 이후, 서유구는 본격적으로 대전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대전법 역시 중국에서 오랜 전통을 가진 농법이였다. 대전법에 관한 최초의 기록으로 보이는 『한서』 「식화지」를 참조한 서유구는 주나라 시조로 일컬어지는 후직后稷이 처음으로 견전畝田을 만들었고 한나라 무제 때 농사와 둔전 등을 관리했던 수속도위搜粟都尉 조과趙過가 이를 체계화했다며(3.2.18) 대전의 대강을 『한서』 원문 그대로 소개했다.

조과는 대전을 만들었는데 1묘에 고랑이 3개[一畝三畎]이다. 매년 작물을 재배하는 곳을 바꾸기 때문에 ‘대전’이라고 하는데, 옛 법이다. 어린 싹에 잎이 난 이후로 조금씩 밭두둑의 풀을 김매주는데, 이 과정에서 두둑의 흙을 무너뜨려 어린 싹의 뿌리에 복주기한다. (중략) 한여름이 되면 두둑이 다 허물어지면서 뿌리는 깊어져서 바람과 가뭄을 견딘다. 그러므로 가득하여 풍성해지는 것이다. 한 해의 수확량은 보통 만전縑田보다 1묘당 1석[斛] 이상이 많고, 잘된 것은 그것의 배가 된다.(3.2.19~20)¹⁶⁷⁾

인용문에서 살펴듯이 대전법의 핵심은 1묘에 고랑과 두둑을 각각 3개씩 만든 뒤, 고랑에 파종하는 것이다. 『한서』의 원문에는 1묘 3건, 즉 1묘에 고랑을 3개 만든다(그러면 두둑도 저절로 3개가 만들어진다)고만 했지 고랑에 파종한다는 말은 없다. 하지만 “밭두둑의 풀을 김매주는데, 이 과정에서 두둑의 흙을 무너뜨려 어린 싹의 뿌리에 복주기”한다는 표현에서 고랑에는 작물이 자라고 두둑은 아무 것도 파종하지 않아 두둑에 자란 풀을 제거하는 작업임을 추측할 수 있다.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는 대전법의 또 다른 특징은 김매기와 복주기를 동시에 시행한다는 점이다. 두둑에 자란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두둑을 긴 호미 같은 농구로 긁어주면 풀뿌리가 뽑히면서 흙이 고랑으로 흘러내리게 된다. 이렇게 흘러내린 흙은 고랑에서 자라고 있는 작물의 뿌리 주변을 저절로 덮어주는 셈이어서 복주기가 된다. 이 같은 제초 및 복주기 작업을 서너 차례 하게 되면 두둑은 점점 깎이고 고랑은 흙이 쌓이게 되면서 그 결과 작물은 바람이나 가뭄 등을 잘 견딜 수 있게 된다. 『한서』의 기사는 이렇게 재배한 작물의 수확량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대전법을 쓴 밭의 1묘 당 수확량이 만전의 경우보다 최소 1석(=10

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앞의 책, 125~138쪽).
167) 이 내용은 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앞의 책, 139~141쪽; 『漢書』 卷24上 「食貨志」 第4上; 『農政全書』 卷1 「農本」(『農政全書校注』, 25쪽); 『齊民要術』 卷1 「種穀」 第3(『齊民要術校釋』, 93~94쪽) 등에 나온다.

두)은 많다고 했다. 만전縵田은 오늘날의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밭처럼 넓은 두둑에 작물을 재배하는 밭을 가리킨다. 고랑이 아닌 두둑에만 재배하는 만전과 비교했을 때 이 같은 수확량의 차이가 난다면 생산성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것이다.

『한서』와 중국 농서 등을 연구한 서유구는 이 농법도 시험해보았다. 여러 해 시험을 거듭한 결과 그는 “밭을 가는 방법 가운데 대전보다 좋은 것은 없고 만전보다 좋지 않은 것도 없다.”(3.2.22)는 결론에 이른다. 그리고 이렇게 단정하는 이유를 다섯 가지를 들어가며 조목조목 만전과 대전을 비교했다.

먼저 만전의 단점은 ① 밭아울이 낮다, ② 제초가 힘들어 효율성이 낮다, ③ 불균일한 파종으로 작물에 통풍이 안 되고 성장 속도도 들쭉날쭉 균일하지 않다, ④ 거름주기가 비효율적이다, ⑤ 뿌리가 얇아 바람과 가뭄에 약하다는 것이다. 반면 대전은 만전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농법이였다. 즉 대전의 장점은 ① 밭아울이 높다, ② 제초와 복주기를 동시에 하면 서도 효율성이 높다, ③ 균일하게 자라며 작물에 통풍이 잘 된다, ④ 작물 뿌리에만 거름을 집중적으로 주어 거름주기가 효율적이다, ⑤ 뿌리가 깊어 바람과 가뭄에 강하다는 것이다.(표9) 서유구의 이 같은 비교는 『행포지』가 원 출처이며, 중국과 조선의 어느 농서에도 밝히지 않은 점이였다. 대전법을 자신의 밭에서 다 년 간 실험하는 과정에서 터득한 경험 지식이었던 것이다.

<표9> 서유구가 분석한 만전과 대전의 차이 5가지(3.2.23~27)

순서	만전의 단점	대전의 장점
1	곡식을 두둑에 심기 때문에 습기가 쉽게 증발해 봄 가뭄에 밭아울이 낮다.	고랑에 심기 때문에 습기가 잘 유지되어 밭아울이 높다.
2	씨앗을 흩뿌리기 때문에, 쪼그려 앉아 복주기와 제초 작업을 해야 하므로, 하루에 2~3묘도 벅차다.	긴 호미로 선 채로 두둑의 흙을 갈라 좌우로 나누어 밀쳐놓으면 잡초는 쓰러지거나 뿌리가 뽑혀 저절로 곡식의 뿌리를 복주기 때문에, 하루에 심 수 묘라도 여윈롭다.
3	배게 파종하면 종자를 낭비하고 성기게 파종하면 땅을 낭비하며, 되는데로 뿌리기 때문에 들쭉날쭉 자라 큰놈과 작은놈이 양분을 다투느라 서로 해친다.	치수에 규칙이 있고 줄과 열이 바르고 곧아 통풍이 좋다.
4	정해진 파종처가 없기 때문에, 파종 전에 똥	고랑에 똥거름을 주므로 거름을 뿌리에

	거름을 줄 때 너무 많이 주면 뽕거름을 낭비하고 너무 적게 주면 효과가 없다.	집중적으로 줄 수 있다.
5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아 바람과 가뭄에 약하다.	뿌리를 도탑게 복주기하기 때문에 바람과 가뭄에 강하다.

재배법에서 효율적이고 무엇보다 농업생산성이 좋은 이 대전법, 즉 견종법은 당시 청에서도 시행하는 농법이었다. 청으로의 사행길을 다녀온 적이 없었던 서유구는 다른 이들의 연행 경험을 담은 몇몇 기록이나 전언을 통해 청의 사정을 이해하고 있었다. 중국에서는 기장·메기장·조·콩 등을 재배하는 밭에서 모두 고랑에 재배하며, 북경을 왕래하는 사행단의 사행 통로였던 요(遼, 지금의 만주 봉천)와 심양 지역에서 끝없이 펼쳐진 농지는 모두 견종畝種하는 농지라고 했다.(3.2.28~29)

하지만 조선에서 견종법을 전혀 쓰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조선의 북방 지역에서 견종법을 쓰고 있었는데, 평양 외성의 경우 하루같이에서 조 50석을 수확할 정도였다. 이 수확은 두둑에 재배하는 만전에서의 그것보다 몇 배나 많은 양이었다. 그렇지만 관서나 해서 지역의 조 재배법은 고랑에 재배를 하기는 하지만 중국에서 시행하듯이 견종법의 표준 법도를 따르는 것은 아니었다. 이런 이유로 서유구는 견종법을 『한서』 「식화지」 등에서 소개한 내용처럼 법도대로 시행한다면 평양 외성의 조 수확보다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관서나 해서에서의 경우처럼 만전보다 더 많이 수확하는 사례를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도, 오히려 미혹되어 옛 습속을 고쳐 좋은 방법을 따르려 하지 않”는데 대해 깊이 탄식했다.(3.2.32)

서유구는 구전법보다 견종법의 시행을 간절히 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2목의 남은 논의에서는 어떻게 견종법을 보급할까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견종법의 전국적 시행은 말이나 문서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며, 첫째 “둔전을 설치하여 본보기로 삼고”, 둘째 “인사 관리를 엄격히 하여 권선징악을 행”해야 가능하다고 믿었다. 둔전과 관련해서는 제6목에서 상세히 논했기에 이 글의 말미에는 “인사 관리와 권선징악의 정사”만을 논했다.(3.2.33~34) 그가 말하는 인사 관리와 권선징악의 정사는 중농重農을 표방하는 일에서 시작한다. 그는 중농이 실현되기 위한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가 농사의 불이익을 없애는 일[去其害]이고, 둘째가 농민에게 혜택을 주어 농사를 장려하는 일[聳以利]이었다.(3.2.40)

서유구가 견종법 시행을 위해 중농을 표방한 배경은 선비를 존경하고 농부를

무시하는 조선의 잘못된 풍속을 변혁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나왔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당시 조선은 선비가 조선 인구의 절반이고, 그 나머지에서 상인과 장인을 제외한 농민은 1/10~2/10 정도였다. 여기다가 농민 중에서 놀고먹는 자들을 제외하면 농민의 비율은 더 떨어진다. 이렇게 농산물 생산을 담당하는 이들이 적고 소비하는 이들이 많은 결과 광작廣作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는 분석한다. 일손 부족으로 인한 광작 때문에 “일손이 넉넉하지 않고, 일손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논밭 일이 영성해지고, 논밭 일이 영성해지기 때문에 수확량이 고생한 댓가만큼 나오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져 농민은 땅을 등지고 상업이나 공업으로 이탈하게 된다. 그 결과는 농민의 질적 저하였다. 논밭에는 씨앗이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곡식을 먹을 수 있다고 여기는 임노동자[人役]나 어리석은 이들[下愚]만 남았기 때문이다. “고법古法이 금법今法으로 변천한 내력이나 중국 법도와 조선 법도의 우열관계에 의문”을 갖고서 농법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이 농부들에게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3.2.35~38)

게다가 선비는 농사를 천시하여 농사에 무지하다 보니, 수령이 된 후에 갑작스럽게 권농하며 농사를 가르쳐야 하는 입장에 처하더라도 농부들의 비웃음만 사게 된다. 따라서 정부에서 농정책을 하달하고 이를 가지고 수령이 농부에게 훈계해도 그 말의 효력은 거의 없다. 농사에 관한 정령이 백성에게 거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농민은 인구가 줄고 질적으로 저하되며 사대부는 농사 연구는 말할 것도 없고 농사에 아예 관심이 없어서 결국 농업생산은 전적으로 농부들의 주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그는 보았다. 사대부와 농부의 이 같은 양극화로 인해 서유구는 “농사에 대해서는 지금의 방법으로는 지금의 풍속을 바꾸지 못”한다고 단언하면서, 중농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되, 이를 위해 농민에게 불이익을 없애주고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3.2.39~40)

먼저 농사의 불이익을 없애는 일은 농민(농)에게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였던 군역을 다른 직역(사·공·상)과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서유구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매년 군보軍保¹⁶⁸⁾의 의무로 내야하는 돈은 200~300전(=20~30냥)이었고, 이는 모두 선비도, 공인도, 상인도 아닌 농민이 부과하는 양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유구는 사족에게도 호포를 거둠으로써 농민에게 지우는 부담을 경감

168) 군보軍保: 군역에 복무하지 않는 대신 정군正軍이 현역에 복무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장정.

시키자고 제안했다.(3.2.41~43) 다음으로 농민에게 혜택을 주어 농사를 장려하는 일은 농사에 통달한 농민을 선발하여 관직에 임명하는 것이었다. 중국 한나라 때 농사를 열심히 짓는 이를 관리로 선발했었고, 당나라 때 장인이나 상인이 농사를 지으면 세금을 면제해주었던 선례가 있었다. 서유구는 중국의 이러한 전례를 변통하되, 팔도에서 농사에 통달한 1~2인을 관찰사가 추천하여 한양 주변에 설치할 둔전의 전농관으로 임명하고, 그 임무를 탁월하게 수행한 자를 수령으로 발탁하자고 역설했다. 그는 농사를 잘 짓는 역농자力農者가 수령도 될 수 있다는 이 한 가지 사례가 만 가지 일을 독려하면서 농사를 귀하게 여기는 풍토가 조성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믿었다.(3.2.44~46)

여기에 덧붙여 서유구는 글도 모르는 어리석은 농부를 목민관으로 삼는 데 대한 반론에 대해서도 재반박했다. 글재주로만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은 후대에 만들어진 실책이라며, “운율과 댓구 맞추기” 훈련만으로는 실제 정사에서의 감각을 키울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비 중에는 “시중 받는 일에만 익숙하여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유유자적하며 혼자만 즐기면서 헛되이 곡식만 축내는 이들이 많”은 반면, 역농자는 모두 “빠릿빠릿하고 강하여 나름의 확고한 계획이 있으며, 재능은 일에 달려들어 효과를 확실히 내기에 충분하고, 지혜는 농부들을 마음대로 부리기에 충분”한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3.2.47~50)

서유구는 이상에서 말한 인사 관리를 정리하면서 그가 말한 중농 정책을 철저하게 시행한다면 그 효과는 단지 농법 하나를 퍼트리는데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농정책으로 인해 백성이 인仁한 덕으로 장수하는 나라가 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제2목의 마지막 언급에서 그는 농법, 특히 건중법(대전법)의 보급으로 달성할 수 있는 잠재적 효과를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10년도 되지 않아 전국의 밭에서 모두 건중법을 실행하게 되고, 전국의 밭에서 모두 건중법을 실행하면 곡식은 이루 다 먹을 수 없게 됩니다. 곡식을 이루 다 먹을 수 없으면 인심이 후해지고, 효제의 인륜이 돈독해지고, 예의와 양보(배려심)를 숭상하게 되어 우리 백성을 ‘인仁한 덕으로 장수하게 되는 단계[仁壽之域]’¹⁶⁹⁾로 끌어올리는 일을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유구의 이 말에서 주목할 점은, 인한 덕으로 백성이 오래 사는 단계, 즉 인수지역이 달성될 수 있는 출발이 바로 건중법이라는 농법의 보급이라는 것이다. 그의 이 같은 주장에는 조선의 다른 농법에 대한 언급이 일체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조선 후기

169) 인仁한~단계[仁壽之域]: 왕도정치로 달성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해준다.

에 농업생산량을 높여주었다고 알려져 있는 이양법조차도 포함되지 않았다. “곡간이 차면 예절을 알고, 입을거리와 먹을거리가 충분하면 영욕을 안다.[倉廩實則知禮節,衣食足則知榮辱.]”는 『관자管子』의 구절이나,¹⁷⁰⁾ 농시를 어기지 않고 촘촘한 그물로 물고기를 잡지 않으며 제 때에 벌목을 하게 하는 일이 왕도정치의 시작이요, 70세의 노인이 비단 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백성이 굶주리지 않고 춥지 않게 하고서도 왕도정치를 하지 못한 왕이 없었다는 맹자의 말¹⁷¹⁾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 지식인이 알고 있는 왕도정치의 기본은 백성의 의식주의 해결이었다. 서유구는 민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법을 견종법이라 제시했고 견종법의 실현으로 곡식이 남아돌고, 이로 인해 인심이 후해지고, 효제의 인륜이 돈독해지고, 예의와 양보가 풍속이 되어 결국 왕도정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유구는 견종법이 사회의 변화와 백성의 교화에 초석이 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믿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170) 『管子』 卷1 「牧民」 第1.

171) “不違農時,穀不可勝食也;數罟不入洿池,魚鼈不可勝食也;斧斤以時入山林,材木不可勝用也.穀與魚鼈不可勝食,材木不可勝用,是使民養生喪死無憾也.養生喪死無憾,王道之始也.(중략)七十者衣帛食肉,黎民不飢不寒,然而不王者未之有也.” 『孟子』 「梁惠王」 上 3장.

3.1.3. 제3목 ‘좋은 종자 구입하여 재해 대비하기’ 역주

3.3. 좋은 종자 구입하여 재해에 대비한다

3.3.1. 셋째는 좋은 종자를 구입하여 재해에 대비해야 합니다.

三曰購嘉種以備災傷.

3.3.2. 제가 삼가 『한서』의 주나라 제도에 대한 언급을 살펴보니 “무릇 곡식을 재배할 때는 반드시 5가지를 섞어 파종하여 재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석자는 이에 대해 “매년 홍수와 가뭄의 정도 차가 있기 때문에 꼭 5가지를 섞어 파종해야 한다. 5가지 곡식은 기장·조[稷]·삼·맥류·콩을 말한다”고 했습니다.¹⁷²⁾

臣謹按漢書言周制曰：“種穀必雜五種，以備災害。”釋之者曰：“歲有水旱之異，故必雜五種。五種者黍·稷·麻·麥·苳也。”

3.3.3. 대개 하늘의 재앙은 변화무쌍하여 미리 헤아릴 수 없으며, 태일泰壹의 성기(星氣, 별 기운)를 통한 미래 예측과 위선魏鮮의 기후 예측¹⁷³⁾도 모든 사람에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¹⁷⁴⁾ 그렇다면 차라리 밭을 갈아 파종할 때 여러 곡식을 섞어 심는 일이 더 나을 것입니다. 홍수나 가뭄, 바람이나 메뚜기를, 비록 예상치 못하게 만나더라도 두 곡식은 죽고 한 곡식만이라도 거둔다면 완전히 흉년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 또한 옛 성왕들께서 재해를 대비하여 백성을 궁핍히 여기고, 일이 일어나기 앞서 미리 대비하려고 애쓰시는 마음입니다.

蓋天災流行，不可幾度，而泰壹之星氣，魏鮮之占候，又難責之人人。則毋寧於舉趾倣載之初，雜五種而藝之。水旱風蝗，縱值不虞，二耗一收，不至全荒，亦古聖王備災恤民·先事備豫之苦心也。¹⁷⁵⁾

172) 이상의 『한서』에 관한 내용은 『임원경제지 본리지』 2 580쪽; 『漢書』 卷24上 「食貨志」 第4上에 나온다.

173) 태일泰壹의~예측: 태일泰壹은 사전에 ‘천신天神’이라 했으나, 문맥상 뒤의 위선魏鮮과 대비가 되는 뛰어난 천문가일 것으로 보인다. “『泰壹雜子星』二十八卷,(중략)『泰壹雜子雲雨』十四卷,(중략)『泰壹雜子候歲』二十二卷,(중략)『泰壹雜子十五家方』二十二卷,(중략)『泰壹雜子黃冶』三十一卷”(『漢書』 卷30 「藝文志」 第10) 등의 책명들이 이를 암시해준다. 위선은 남일(선달 말일)을 근거로 정월을 정한 한·漢대의 천문가다. <<임원경제지>> 『魏鮮志』는 이 위선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다.

174) 정약용이 「農策」(1790년)에서 한 주장과 차이가 있다.

3.3.4. 그러나 『한서』 「식화지」에서 언급한 5종의 곡식은 다만 개괄적으로 말한 것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모든 곡식이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니 어찌 5종에만 그치겠습니까?

然漢志之五種,特槩言之耳.其實凡穀之可備災傷者,何止五種?

3.3.5. 농서나 지리지地理志를 살펴보면 그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벼의 경우, 같은 벼라도 익주益州¹⁷⁶⁾의 청우도靑芋稻¹⁷⁷⁾와 강음江陰¹⁷⁸⁾의 과숙도瓜熟稻¹⁷⁹⁾는 일찍 익기 때문에 늦은 재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통주通州¹⁸⁰⁾의 육십일六十日¹⁸¹⁾과 덕안德安¹⁸²⁾의 향자만香籽晚¹⁸³⁾은 늦게 재배하기 때문에

175) 二耗一收~苦心也: 『행포지』, 『본리지』 種稔燥濕二耗三收不猶愈乎全荒乎害莫若輕此之謂也.

176) 익주益州: 지금의 사천四川·귀주貴州·운남雲南 3성 대부분 지역과 호북성 서북 지역, 감숙성 일부 지역 등에 해당. 『中国历史大辞典』, 2553쪽.

177) 청우도靑芋稻: 토란이 푸릇푸릇 무성할 때 익는 벼라는 뜻으로 추정된다.

『본리지』, 『행포지』에서는 이 올메벼를 “6월에 익는다”고 하는 곽의공郭義恭의 『광지廣志』의 내용을 소개했고, 『본리지』에서는 여기에 왕상진王象晉의 『군방보群芳譜』에 나온 “청우·누자·백막 3종은 익주益州에서 난다. 크고 길며 쌀알이 0.05척이고 또한 좋은 품종이다. 靑芋·果子·白漠三種,出益州.大而長,米半寸,亦嘉種也.”라는 내용을 덧붙였다. 『임원경제지 본리지』 2, 469쪽. 『광지』는 유실되었고, 『광지』의 내용은 『太平御覽』, 『欽定授時通考』, 『群芳譜』 등 여러 군데에 보인다.

178) 강음江陰: 지금의 강소성 강음시. 『中国历史大辞典』, 1197쪽.

179) 과숙도瓜熟稻: 『본리지』, 『행포지』에서는 이 올벼를 “강음현에서 생산되며, 아주 빨리 익고 쌀알이 길다. 產江陰縣,極早而粒長.”라는 『직성지서直省志書』의 내용을 소개했다. 『임원경제지 본리지』 2, 475쪽. 『직성지서』 원문은 『欽定授時通考』 卷21 「種穀」 ‘稻’ 2에서 확인된다. 이 책에서는 『직성지서』에 나오는 벼 품종을 두 권(권21~22)에 걸쳐 각 지방별로 올벼와 늦벼 등을 정리하고 있다. 이하의 『직성지서』에 나오는 내용도 동일.

180) 통주通州: 지금의 강소성 남통南通시로 추정된다.

181) 육십일六十日: 『본리지』, 『행포지』에서는 이 늦메벼를 “통주 등에서 생산된다. 초가을에 심을 수 있다. 產通州等處.初秋可蒔.”는 『직성지서』의 내용을 소개했고, 『본리지』에서는 “이 품종은 점성벼인 ‘60일 올벼’와는 다른 벼이다. 점성의 올벼는 봄에 심어 여름에 익는데 반해, 이 벼는 초가을에 심어 초겨울에 익는다. 此與占城六十日秬異.占秬,春種夏熟;此稻,初秋種,初冬熟.”는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다. 『임원경제지 본리지』 2, 479쪽.

182) 덕안德安: 지금의 호북성 안륙安陸·광수廣水·응성應城·운몽雲夢·효감孝感 등의 시와 현의 지역. 『中国歷史大辞典』, 3195쪽.

183) 향자만香籽晚: 『본리지』, 『행포지』에서는 이 올메벼에 대해 “덕안부德安府에서 생산된다. 맛이 향기롭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사곡(+/査)穀, 물에 떠 있는 곡식)’이라 부르기도 한다. 심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씨앗을 물에 담그거나 모내기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눈을 갈고 눈에 씨앗을 뿌려도 50~60일이면 결실이 된다. 호숫가에 사는 사람들이 수해를 입었을 때 물이 빠지면 다른 곡식을 심을 겨를이 없기 때문에 이 벼를 많이 심는다. 그러나 평지의 논이라야지 산지에서는 많이 심을 수 없다. 產德安府.以味香故名,又名(+/査)穀.其種法,不必浸種分秧,但耕田下子,五六十日可實.湖人被水害者,水退,不遑他穀,故多布此.然亦

이른 재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서안^{西安}¹⁸⁴의 안남조^{安南早}¹⁸⁵와 태평^{太平}¹⁸⁶의 육십선^{六十畝}¹⁸⁷은 가물에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송강^{松江}¹⁸⁸의 오구도^{烏口稻}¹⁸⁹와 산음^{山陰}¹⁹⁰의 요수백^{料水白}¹⁹¹은 장마에도 재배할 수 있습니다. 혜안^{惠安}¹⁹²의 오망도^{烏芒稻}¹⁹³와 청주^{靑州}¹⁹⁴의 해도^{海稻}¹⁹⁵는 소금기를 싫어하지

- 須平田,山原不多藝.”는 『직성지서』의 내용을 소개했다. 『임원경제지 본리지』 2, 481쪽.
- 184) 서안^{西安}: 지금의 절강성 구주^{衢州}시. 『中国歷史大辭典』, 973쪽.
- 185) 안남조^{安南早}: 『본리지』, 『행포지』에서는 이 올벼에 대해 “서안현^{西安縣}에서 생산되고, 가물에 가장 잘 견디다. 또 한 종이 있으니 포릉^{浦陵}이라고 한다. 產西安縣,最耐旱.又有一種,曰浦陵.”는 『직성지서』의 내용을 소개했다. 『임원경제지 본리지』 2, 475쪽.
- 186) 태평^{太平}: 광서성^{廣西省} 승좌현^{崇左縣} 북쪽 지역. 『中国歷史大辭典』, 398쪽, ‘太平府’ 조의 ②를 따름.
- 187) 육십선^{六十畝}: 『본리지』, 『행포지』에서는 이 올벼에 대해, 황성증^{黃省曾}의 『이생옥경^{理生玉鏡}』에 나오는 ‘점성도^{占城稻}’ 조를 옮기면서 이 품종의 일종이라 했다. 『이생옥경』 원문은 『理生玉鏡稻品』 卷1(叢書集成初編 1469, 1~5쪽)에 나온다. 이하 동일. “송 진종(眞宗, 997~1022 재위)이 점성국에 사신을 보내 진귀한 보물과 바꾸어 오게 하여 백성들에게 보급한 것이다. 밥을 지으면 조금 단단하다. 태평^{太平}에는 ‘60일 올벼[六十日畝]’를 ‘타리귀^{拖犁歸}’라고 한다. 또 ‘적홍색 올벼’와 ‘100일 올벼’가 있으니 이들은 모두 껍질은 희고 까끄라기가 없다. 宋氏使占城,珍寶易之,以給於民者,作飯,則差硬.在太平,六十日畝謂之拖犁歸,有赤紅畝,有百日畝,俱白稈而無芒.” 『임원경제지 본리지』 2, 471쪽.
- 점성도는 점성국^{占城國}에서 온 벼라는 뜻인데, 점성국은 인도차이나반도의 동해안지역을 차지했던 임읍국^{林邑國}의 후대 명칭으로, 캄파(占波, Campa)라고도 한다. 지금의 베트남 남부 지역이다. 『大漢和辭典』 2, 612~613쪽; 『中国歷史大辭典』, 747쪽.
- 188) 송강^{松江}: 지금의 오송강^{吳淞江}. 옛날 오트 지역. 『中国歷史大辭典』, 1752쪽.
- 189) 오구도^{烏口稻}: 『본리지』, 『행포지』에서는 이 늦메벼에 대해 “두 번째 모내기를 하면 늦게 익는다. 송강에서는 색이 검고 무논이나 추운 지역에서 잘 자란다. 또 ‘냉수결^{冷水結}’이라고 부른다. 벼의 하급 품종이다. 再蒔,晚熟.在松江,色黑而能水與寒.又謂之冷水結.是爲稻之下品.”는 『이생옥경』의 내용을 소개했다. 『임원경제지 본리지』 2, 477쪽.
- 190) 산음^{山陰}: 회계산^{會稽山} 북쪽[陰]에 위치한 현이었으며, 산음현의 동쪽에 있었던 회계현과 함께 지금의 절강성^{浙江省} 소흥시^{紹興市}로 병합되었다. 『中国歷史大辭典』, 1113쪽.
- 191) 요수백^{料水白}: 『본리지』, 『행포지』에서는 이 늦메벼에 대해 “산음^{山陰} 등지에서 생산된다. 매년 심한 장마를 만났을 때에도 갑자기 자라나서 물 밖까지 나올 수 있다. 產山陰等地.歲遇甚潦,輒能長出水上.”는 『직성지서』의 내용을 소개했다. 『임원경제지 본리지』 2, 481쪽.
- 192) 혜안^{惠安}: 복건성^{福建省} 진강^{晉江}현 동북쪽. 『大漢和辭典』 4, 1089쪽.
- 193) 오망도^{烏芒稻}: 『본리지』, 『행포지』에서는 이 늦메벼에 대해 “혜안현에서 생산된다. 물에 담가 껍질이 약간 터진 뒤 물에 던져야 발아가 되어 싹이 밀고 나오며, 청만도(靑晩稻, 혜안에서 나며 바람과 홍수 및 가물을 잘 견디며 소금기도 이길 수 있어 태전에서 많이 심는다. 『임원경제지 본리지』 2, 483쪽)와 같은 시기에 익는다. 소금기가 있는 땅 가운데 더욱 짠 곳에서 잘 자란다. 껍질이 거칠고 두껍고, 맛은 시고 뽕으며 향기롭지 않다. 產惠安縣.漬甲微垢投水乃發芽抽苗,與靑晩同熟.鹵地之尤鹹者宜之.穀粗厚,味酸澁不香.”는 『직성지서』의 내용을 소개했다. 『임원경제지 본리지』 2, 484쪽.
- 194) 청주^{靑州}: 지금의 산둥성 덕주^{德州}시·평원^{平原}현·고당^{高唐}현 동쪽, 하북성 오교^{吳橋}현·산둥성 마협^{馬頰河} 남쪽, 제남^{濟南}·임구^{臨朐}·안구^{安丘}·즉묵^{即墨}·내양^{萊陽} 등의 시와 현 북쪽에 위치한 지역. 『中国歷史大辭典』, 1714쪽.
- 195) 해도^{海稻}: 『본리지』, 『행포지』에서는 이 늦메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직성지서』의 글을 소개했다. “청주 바닷가의 염분이 많은 곳으로, 마른 곳이나 습한 곳 모두 이 벼를 재배하기

양아 바다 근처의 태전埭田¹⁹⁶⁾에서 재배할 수 있습니다.

考之農書地志,其類不一.如稻一也,而益州之青芋稻·江陰之瓜熟稻,早熟而可避晚災者也;通州之六十日·德安之香籽晚,晚蒔而可避早災者也;西安之安南早·太平之六十秬,耐旱而可種者也;松江之烏口稻·山陰之料水白,耐水而可種者也;惠安之烏芒稻·青州之海稻,不畏鹹鹵而可種近海埭田者也.

3.3.6. 조의 경우, 같은 조라도 주곡朱穀·고거황高居黃 등 여러 종은 일찍 익고 가뭄에 잘 견딥니다. 타거墮車·하마간下馬看 등 여러 종은 바람에 잘 견디고 참새에게 먹히는 일이 없습니다. 죽엽청竹葉靑·죽근청竹根靑 등 여러 종은 늦게 익고 벌레를 잘 견딥니다.¹⁹⁷⁾

粟一也而朱穀·高居黃等諸種,早熟耐旱;墮車·下馬看等諸種,耐風免雀暴;竹葉靑·竹根靑等諸種,晚熟不畏蟲.

3.3.7. 콩의 경우, 같은 콩이라도 완두·강두(동부)는 메뚜기도 피해를 주지 못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다른 곡물의 비슷한 경우를 살펴본다면 너무 많아 손으로 다 꼽을 수 없습니다.¹⁹⁸⁾

豆一也而豌豆¹⁹⁹⁾豆·豇豆,蝗不能災.引伸觸類,指不勝屈.

에 좋다. 씨를 뿌려 싹이 나고 4, 5차례 김매기를 해주기만 하면 가만히 앉아서 수확을 기다릴 수 있다. 다만 비와 햇빛이 제 때에 맞으면 1묘당 5~6석을 수확하고, 좀 못미치면 4~5석을 거두어들인다. 가을걷이 때 농가에서 짚은 짚을 멀리 내다 팔아 높은 값을 받는 것을 보았는데, 물고기나 소금을 파는 이익에 견줄 만하다. 강남의 논 같은 경우는 비록 순전히 벼만을 재배한다고 하지만 일이 많아 고생스럽다. 농부들은 1년 내내 굶은살이 배고 진흙탕에 살지만, 수확량은 도리어 적어서 1묘당 많게는 2~3석에서 적게는 1~2석 정도 된다. 그러니, 일은 그 반만 하면서도 이익이 배가 되는 ‘해도’ 품종재배만 못하다. 青州海上斥鹵原濕之地,皆宜此稻.播種苗出,耘過四五遍,即坐而待穫.但雨暘以時,每畝可收五六石,次四五石.秋收,見戶春米質遷,得高價,可比魚鹽.若江南水田,雖純藝稻,然功多作苦.農夫經歲胼胝泥淖之中,收入反薄,畝多二三石,次一二石,不如此中海稻,功半而利倍也.”『임원경제지 본리지』 2, 479쪽.

196) 태전埭田: 태埭는 강 유역의 물살이 센 곳에 소나 사람의 힘으로 배가 무사히 지나가도록 하기 위해 쌓아놓은 둑이다. 『敎學大漢韓辭典』, 672쪽. 이렇게 강이나 해안처럼 물에 가까운 곳에 제방으로 막고 만든 농지를 태전이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197) 조의 품종에 대해서는 『齊民要術』 卷1 「種穀」 第3(『齊民要術校釋』, 61쪽); 『農政全書』 卷25 「種藝」 「穀部 上」(『農政全書校注』, 620쪽)에 소개되어 있다.

198) 3.3.3부터 여기까지는 『임원경제지 본리지』 2, 583~584쪽; 『杏菴志』 卷5 「五害攷」(『農書』 36에는 없음)에 주로 나오며 벼의 품종에 대해서는 『임원경제지 본리지』 2, 468~484쪽; 『杏菴志』 卷4 「穀名攷」(『農書』 36, 226~231쪽)의 내용 중 일부를 취했다.

199) 豌豆: 『의상경제책』 晚.

3.3.8. 제 생각으로는 매년 절사(節使, 중국에 보낸 정례적인 사신)가 갈 때, 비싸도 아까워 말고 여러 방면에서 이런 종자를 구입한 뒤 제 방법대로 파종하고 가꾸어 점차 퍼뜨리면 한두 해가 채 지나지 않아 그 혜택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새 종자를 재배하도록 권장하기를 귀찮게 여기지 않는 일도 재해와 흉년을 구제하는 한 방도입니다.

臣謂每歲節使之行,不惜重價,多方購求,按法蒔藝,轉相傳種,則不過一二年,人享其利,不煩勸相,亦救災荒之一道也.

3.3.9. 어떤 이는 우리 동국의 풍토가 중국과 같지 않다고 의심합니다만,²⁰⁰⁾ 저는 풍토의 알맞음에는 본래 한 번 정해져서 바꿀 수 없는 이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귤·유자·여지荔枝 같은 부류처럼 추위를 싫어하고 더위를 좋아하는 종이 아니라면, 모두 여기저기에 옮겨 심을 수 있습니다. 풍토로만 풀이하려는 일은 모두 게으른 벼슬아치나 한가롭게 노는 백성이나 도적질하며 일 하지 않는 자들의 핑계일 뿐입니다.²⁰¹⁾

或疑我東風土不並中州,臣謂風土所宜本無一定不可易之理,除非畏寒喜煖如橘柚荔枝之類,皆可以彼此傳殖.凡以風土爲解者,皆惰窳之吏·游閒之民·媮不事事者之口實耳.

200) 『임원경제지 본리지』 2, 585쪽; 『杏菴志』 卷5 「五害攷」(『農書』 36에는 없음)에 같은 구절이 있다.

201) 이 단락은 서광계의 『농정전서』에 나온 다음과 같은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만약 토의土宜가 고정불변하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 만약 이와 같이 주장한다면, 진실로 후세의 게으른 벼슬아치나 한가롭게 노는 백성이나 도적질하며 일 하지 않는 자들의 핑계일 뿐이다. 옛날부터 시금치[靚稊]·석류[安石榴]·해당海棠·마늘[蒜] 같은 채소나 과일은 외국에서 들어온 것들이 많다. 지금 생강[薑]·울방개[葶薺] 따위를 북방에 옮겨 심고 재배하여, 그 종자가 아주 성대해졌으나, 이것도 예전에는 이른바 토의가 맞지 않은 것들이었다. 무릇 지방에 없는 종자들은 모두 예전부터 없었던 것이거나, 혹 있었다 하더라도 우연히 종자가 끊어진 것들이다. 만약 힘을 다하여 심고 기른다면 알맞지 않은 것이 거의 없을 것이다. 만약 알맞지 않은 경우, 혹 이는 천시天時에 합치되지 않았거나 인력이 지극하지 못한 탓일 뿐이다. 시도를 해 보아야지, 헛소리로 일삼아 막아서는 안 된다. 다만 그 가운데에도 알맞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이는 온도가 작물의 생태와 안 맞아 천기天氣가 끊어진 것이지 땅과는 관계가 없다. 가령 여지荔枝·용안龍眼은 오령(강서·호남·광동·광서 등 4성 사이에 있는 큰 산령)을 넘을 수 없고, 귤橘·유자[柚]·오렌지[橙]·감귤은 회수淮水を 건널 수 없다. 저 난란·말리茉莉 같은 종류는 수 백 가지 중에 한두 가지일 뿐이다. 若謂土地所宜,一定不易,此則必無之理.立論若斯,固後世惰窳之吏·游閒之民·媮不事事者之口實耳.古來蔬果,如靚稊·安石榴·海棠·蒜之屬,自外國來者多矣.今薑·葶薺之屬,移栽北方,其種特盛,亦向時所謂土地不宜者也.凡地方所無,皆是昔無此種,或有之而偶絕果·若盡力樹藝,殆無不可宜者.就令不宜,或是天時未合,人力未至耳.試爲之,無事空言抵捍也.第其中亦有不宜者,則是寒煖相違,天氣所絕,無關於地.若荔枝·龍眼,不能踰嶺;橘·柚·橙·柑,不能過淮.他若蘭·茉莉之類,亦千百之一二耳.” 『農政全書』 卷2 「農本」(『農政全書校注』, 42쪽); 『임원경제지 본리지』 1, 323~324쪽.

3.3.10. 곧 우리 동국의 곡식과 채소의 여러 종으로 말하자면, 참깨[胡麻]는 대완국大宛國²⁰²⁾에서 왔고, 점도占稻는 점성국占城國에서 왔고, 수수[蜀黍]는 아랍[回回]에서 왔고,²⁰³⁾ 수박[西瓜]은 서역에서 왔고, 고구마[甘藷]는 필리핀[呂宋]²⁰⁴⁾에서 왔고, 면화는 남번南番²⁰⁵⁾에서 왔습니다. 이런 곳이 남북으로 서로 떨어진 거리가 어찌 수 만 리만 되겠습니까마는, 지금까지 종자를 전해 번식한 점을 보면 다른 종에 대해서도 모두 비슷하게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卽以吾東穀菜諸種言之,胡麻自大宛來,占稻自占城來,蜀²⁰⁶⁾黍自回回來,西瓜自西域來,甘藷自呂宋來,木綿自南番來.其南北之相去,何啻數萬里?而至于今傳種滋殖,則其他皆可類推矣.

3.3.11. 옛날 송 태종(976~997)은 조칙을 내려 강남 백성은 벼 이외의 여러 곡식을 재배하고, 강북 백성은 벼를 재배하도록 했습니다.²⁰⁷⁾ 송 진종(眞宗, 997~1022 재위)은 점성도가 가뭄에 잘 견디고 서천(西天, 인도) 중인도[中印度] 땅에서 녹두가 알이 많고 낱알이 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사신을 파견하고 그 씨앗들을 구해다가 민간에 퍼뜨리기 위해 재배법을 전운사轉運司²⁰⁸⁾에 하달했습니다.²⁰⁹⁾

昔宋太宗詔江南之民種諸穀,江北之民種稻稔.眞宗聞占城稻耐旱,西天中印土菉豆子多而粒大,遣使求其種,散諸民間,仍以種法下轉運司.

3.3.12. ‘황제의 나라 명[皇明]’²¹⁰⁾의 태학사였던 구준丘濬²¹¹⁾이 지은 『대학연의

202) 대완국大宛國: 중앙아시아 파미르고원 북서쪽 페르가나(Ferghana) 분지에 있는 나라.

203) 참깨, 점도, 수수에 대해서는 『행포지』·『본리지』에서 중국의 품종을 소개하기 위한 서설에서 중국으로 유입된 사례로 나온다. 『임원경제지 본리지』 2, 468쪽.

204) 필리핀[呂宋]: ‘呂宋’은 필리핀 군도 북단의 가장 큰 섬인 루존(Luzon)이다.

205) 남번南番: 중국 남쪽의 변방 국가. 정확한 지명은 알 수 없으나, 목화의 원산지는 인도라고 알려져 있다.

206) 蜀: 『의상경제책』 蜀.

207) “言者謂:‘江北之民雜植諸穀,江南專種稻稔.雖土風各有所宜,至於參植以防水旱,亦古之制.’於是,詔江南兩浙·荆湖嶺南·福建諸州長吏勸民益種諸穀.民乏粟麥黍豆種者,於淮北州郡給之.江北諸州亦令就水廣種稻稔,並免其租.”『宋史』卷173「食貨志」第126‘食貨’上1.

208) 전운사轉運司: 당·송·명 때 조세나 식량의 운송을 맡아보던 관청.

209) 송 진종의 이야기는 『본리지』·『행포지』에서 『湘山野錄』卷下の 기사(『임원경제지 본리지』 2, 549쪽; 『杏菴志』卷4「穀名攷」(『農書』 36, 259~260쪽))에 나오며, 『宋史』卷173「食貨志」第126‘食貨’上1에도 실려 있다.

210) ‘황제의 나라 명[皇明]’: 서유구가 글을 쓴 시기는 명이 이미 멸망하고 청이 융성할 시기이다.

보大學衍義補』에서는 송 황제들의 이 일들을 지칭하여 위대한 『주역』의, ‘천지의 도를 재단하여 이루고 천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도와[裁成輔相] 백성을 다스린다.’²¹²⁾는 뜻에 부합한다고 했습니다.²¹³⁾ 저는 이런 설명이 너무 지나치다고 의심한 적이 있습니다.

□皇明²¹⁴⁾太學士丘濬作大學衍義補,稱宋帝此舉,有合於大易‘裁成輔相以²¹⁵⁾左右民’之義.臣嘗疑其說之太過.

3.3.13. 그런데 과거 정종(正宗, 정조) 무오년(1798)에 호남 지방에 여름 가뭄이 들어 모내기 시기를 놓치자 조정에서는 메밀을 대신 뿌리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전에 벼를 심었던 땅의 7/10에 모두 메밀을 파종했습니다.²¹⁶⁾

往在□先朝戊午,湖南夏旱,插秧愆期,□朝令代播蕎麥.從古漑種之田²¹⁷⁾,什七皆蕎麥也.

3.3.14. 얼마 뒤 복추지교伏秋之交²¹⁸⁾에 장마가 다시 와서 장단지까지 빠질 정도

그런데 명을 굳이 ‘황명’皇明으로 표현하고 존경의 뜻으로 한 칸을 띄어쓰기까지 한 이유는 당시 까지 지속된 소중화小中華 사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의 명의 정통성을 완전히 저버리지 못한 것이다. 여기서는 이런 배경을 암시해 주기 위해 ‘황명’을 ‘황제의 나라 명’으로 풀었으며 이후의 ‘皇明’은 그냥 ‘명’으로 옮길 것이다.

211) 구준(丘濬, 1421~1495): 명 중기의 학자. 광동성 경산瓊山 사람이다. 주자학에 정통했고 저서로는 『大學衍義補』, 『家禮儀節』 등이 있다.

212) 이 말은 『周易』「泰卦」의 다음 구절에서 따온 것이다. “象曰: ‘天地交, 泰. 后以, 財(裁)成天地之道, 輔相天地之宜, 以左右民.’”

213) 송 태종과 진종의 이야기를 앞세운 뒤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臣按地土高下燥濕不同,而同於生物;生物之性雖同,而所生之物則有宜不宜焉.土性雖有宜不宜,人力亦有至不至.人力之至亦或可以勝天,況地乎!宋太宗詔江南之民種諸穀,江北之民種秔稻.真宗取占城稻,種散諸民間.是亦大易裁成輔相以左右民之一事.今世江南之民皆雜蒔諸穀,江北民亦兼種秔稻.昔之秔稻惟秋一收,今又有早禾焉,二帝之功利及民遠矣.後之有志於勤民者,宜倣宋主此意,通行南北,俾民兼種諸穀,有司考課,書其勸相之數,其地昔無而今有有成效者加以官賞.” 丘濬, 『大學衍義補』 卷14 「治國平天下之要」 ‘制民之產’; 『임원경제지 본리지』 2, 472쪽.

214) 명나라를 皇明으로 존칭함과 동시에 한 칸을 띄어 쓴 것은 여전히 명에 대한 존주尊周 의식이 강하게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청에 대해서는 피(彼, 저들)라고 하여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215) 이: 『행포지』 似.

216) 화성에서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정조실록』 22년(1798) 6/5. 염정섭, 「18세기 말 華城府 수리시설 축조와 屯田 경영」, 『농업사연구』 제9권 1호, 한국농업사학회, 2010, 89쪽 참조.

217) 從古漑種之田: 『행포지』·『본리지』 余時守淳昌郡躬行阡陌勸相其役從古水種之地.

218) 복추지교伏秋之交: 중국에서 하천의 홍수가 일어나는 시기를 도신(桃汛, 청명 후 20일 간)·복신(伏汛, 도신에서 입추 사이)·추신(秋汛, 입추에서 상강 사이)의 삼신三汛으로 표현한다. 복추지교는 복신과 추신의 사이, 곧 여름에서 가을 사이 폭우가 쏟아지는 기간이다. 『大漢和辭典』 6, 324쪽; 앞의 책 1, 658쪽; 앞의 책 8, 544쪽. 복추지간伏秋之間이라고도 한다.

로 밭두둑에 물이 깊어지자, 장마로 인한 메밀의 병이 가뭄으로 인한 메벼나 찰벼의 병보다 훨씬 심하여 남도 사람들이 결국 굶주림을 하소연했습니다. 아마 대신 파종한 일은 진실로 옳았지만 파종한 곡물을 잘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未幾伏秋之交,淫澇復至,而畦塍之間水深沒脛,則蕎麥之病澇,復²¹⁹⁾甚於秔稔之病旱,而南人遂告飢²²⁰⁾.蓋代播誠是也,而所播之種,未得其宜耳.

3.3.15. 만약 산음의 요수백처럼 물에 잘 견디거나 덕안의 향자만처럼 늦게 파종해도 먹을 수 있는 품종을 얻었다면 어찌 이 같은 일이 일어났겠습니까?²²¹⁾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좋은 품종을 널리 사들이는 일이 가뭄의 재난을 극복하는 제일의 급선무이고, 송 황제들의 일화를 재성보상裁成輔相이라 평가한다 해도 지나치지 않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²²²⁾

苟得耐水如山陰之料水白,晚蒔而可食如德安之香籽晚,²²³⁾豈有是也?始知²²⁴⁾廣購嘉種爲救災荒之第一急務,而宋帝之事,雖謂之裁成輔相,非過²²⁵⁾也.

3.3.16. 구준의 말에서 또 “마땅히 송 황제들의 이 같은 의도를 본받아 백성들에게 여러 곡식을 섞어 재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관리들의 근무를 평가할 때는 이렇게 백성들을 독려한 횃수를 적고, 그 가운데 예전에는 없었으나 새롭게 생긴 것이 있으면 그들에게 상을 줍니다”²²⁶⁾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또한 근무 업적을

219) 復: 『행포지』·『본리지』 又.

220) 飢: 『행포지』·『본리지』 饑.

221) 『본리지』·『행포지』에서는 이 앞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더 들어 있다. “우리나라의 곡식 종자는 이름과 품종이 비록 많으나 씨앗 뿌리고 김매고 거두어들이는 시기는 실제로 그다지 서로 멀지 않다. 그 가운데 늦게 심어도 먹을 수 있는 곡물은 메밀과 녹두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두 종 가운데 어떤 것은 마른 땅을 좋아하고 습한 땅을 싫어하며, 어떤 것은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고 비옥한 땅을 꺼려한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일을 벌였으니, 일은 일대로 했어도 거두어들인 것은 없다. 吾東穀種,名品雖繁,其實則播耨收穫之期,不甚相遠.其晚蒔而可食者,只有蕎麥與綠豆耳.然二種或喜燥而惡濕,或宜瘠而忌肥,冒昧而作事,宜其勞而無功也.” 『임원경제지 본리지』 2, 599쪽.

222) 이 단락을 포함한 앞의 세 단락은 『임원경제지 본리지』 2, 598~599쪽; 『杏蒲志』 卷5 「五害攷」에 나온다.

223) 得耐水~香籽晚: 『행포지』·『본리지』 能預購中州之異種如德安之香籽晚通州之六十日【俱稻名七月可蒔】.

224) 始知: 『행포지』·『본리지』 故.

225) 而宋帝~非過: 『행포지』·『본리지』 없음.

226) 위에 소개된 『대학연의보』의 원문 참조.

독려하면서 섞어 심는 방법을 전파하는 방도이니, 이제라도 서둘러 본받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丘濬之言又曰：“宜倣宋帝此意，俾民兼種諸穀。有司考課，書其勸相之數，其地昔無而今有者加以官賞。”此又勸課傳殖之方，而在今日亟宜倣用者也。

3.3.17. 이전 군주들의 아름다운 모범을 찾을 수 있고, 명 신하의 훌륭한 제안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전하께서 마음과 뜻을 깊이 간직하시어 송 황제들이 독차지한 미명美名을 먼 옛일로만 만들지 마시고, 구준의 말이 후대에 헛된 약속이 되지 않게 하소서.

前辟之懿範可尋，名臣之良畫不泯。惟□殿下深留□聖意，毋俾宋帝專美古昔，而使丘濬之言有異世之曠契焉。

<제3목 해설>

제3강의 제3목은 좋은 종자를 구입해야 한다는 제안이었다. 서유구는 좋은 종자의 확보가 재해를 대비하기에 가장 좋은 대책 중 하나라고 믿었다. 그는 먼저 기후를 예측하는 일의 한계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재해에 적어도 한 곡식이라도 실패를 면하는 대책을 세울 것을 강조했다. 단일 작물의 실패에 대비해서 성질이 다른 곡물을 혼종混種, 즉 섞어심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곡식 품종의 다양한 특성을 연구해야 함은 물론이었다. 그는 실제로 품종의 다양성의 실패를 쌀(10종)과 조(6종)와 콩(2종) 세 가지 곡식으로 설명했다.(3.3.1~7) 그가 명칭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거론했던 품종은 모두 중국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품종의 중요성을 터득한 서유구는 조선의 농서는 물론이고 중국의 농서나 지리지 등을 살펴 조선에서 이용할 만한 품종을 연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 같은 제안을 할 수 있었다. 그의 『행포지』와 『본리지』에는 각각 한 권 분량으로 곡식 품종을 정리한 「곡식 명칭 고찰[穀名攷]」이 수록되어 있다. 『행포지』의 한 권(권4, 오사카나카노시마부립도서관 소장본)은 『본리지』 한 권(권7)에 그대로 옮겨졌다. 여기에는 조선시대의 곡식 품종을 소개한 문헌 중에서 가장 많은 품종과 명칭이 수록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벼 171종(69)²²⁷⁾, 기장 15종(6), 조 53종(32), 보리 16종(10), 밀 7종(3), 콩 46종(14), 팥 11종(11) 등을 포함한 모든 곡류가 제시되었고, 부록에 야생 곡식 17종도 실고 있다. 벼는 조선종과 중국벼를 올벼·중생벼·늦벼·이모작벼·찰벼·발벼 등으로 나누어 소개했다. 품종의 세부 내용에서는 각 품종의 한글 명칭과 함께 생김새, 생태적 특성을 수록했다. 서유구는 여기서 조선의 서적으로 농서인 『금양잡록』과 『동의보감』·『증보산림경제』를 참조했고 자신이 새로 상당량의 품종을 추가하기도 했다.²²⁸⁾ 중국 서적으로는 『광지廣志』·『직성지서直省志書』·『서안현지瑞安縣志』 같은 지리서와 『이생옥경理生玉鏡』·『군방보群芳譜』·『기가격물편幾暇格物編』 같은 박물서의 지식이 반영되었다.²²⁹⁾

이 제3목에서는 자신의 저술 『행포지』·『본리지』에서 소개한 품종 중 중국 품

227) 괄호 안의 숫자는 조선의 품종이다. 이하 같음.

228) 서유구가 새로 추가한 종은 올벼 12종, 중생벼 3종, 늦벼 11종, 찰벼 6종, 발벼 2종, 조 10종, 차조 8종, 수수 4종, 피 1종, 보리 6종, 밀 1종, 콩 6종, 팥 3종 등이다.

229) 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임원경제지 본리지』 2, 439~573쪽.

종만을 이야기했다. 조선 품종의 경우 품종간의 차별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²³⁰⁾ 그리하여 서유구는 다양한 중국의 곡물 품종을 매년 정례적인 사절단이 갈 때 값을 불문하고 사와서 조선에 퍼뜨리자고 주장했다.(3.3.8) 여기에 덧붙여 그는 중국 품종은 조선에서 재배하기에 알맞지 않다는 논리, 즉 ‘풍토불의론 風土不宜論’을 가지고 새 품종의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 반론을 폈다.²³¹⁾ 서유구는 굴·유자·여지 등 더운 곳에서 자라는 식물 몇 가지를 제외하면 풍토가 알맞지 않아서 자라지 못하는 식물은 없다고 믿고 있었다. 참깨·점도占稻·수수·수박·고구마·면화 같은 외래종이 조선에서도 번식한 점을 보면 다른 종에 대해서도 모두 비슷하게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다.(3.3.9~10)

서유구는 또한 조선에서의 실농 사례를 들며 품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정조 때(1798) 가뭄이 들어 모내기를 못하자 논에 메밀을 대신 파종[代播]하라는 조정의 지시가 결국 실패로 돌아갔던 일을 경험하고서 좋은 품종 구입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대과 지시가 있었을 때 서유구는 순창군수로서 조정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으나 얼마 뒤 장마가 지면서 메밀 농사는 실패했던 것이다.²³²⁾ 이로 인해 그는 대과를 하더라도 곡물 선택을 잘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물에 잘 건디거나 늦게 파종해도 먹을 수 있는 품종을 재배했다면 재해를 피해갈 수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3.3.13~15)

명나라의 태학사였던 구준(丘濬, 1421~1495)의 혼종설混種說에 영향을 받은 제3목에서는 혼종을 농민이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좋은 품종을 중국에서 구입하여 이를 재배하도록 백성을 독려하고, 새로운 혼종 농법을 보급하는 일을 지방관의 주요한 근무 실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3.3.16) 제2목에서 중농 정책의 정확한 시행을 강조했던 그의 입장에서 볼 때 지방 수령이 구체적인 농법을 잘 터득하는 일이 백성을 책임 있게 이끄는 일이기에 근무 태도를 평가하는 데서도 이런 태도들이 반영되어야 함은 당연했다. 이상에서 종자 구입과 혼종의 장려 사업을 건의한 제3목 역시 국가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농정 담론이었음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30) “우리나라의 곡식 종자는 이름과 품종이 비록 많으나 씨앗 뿌리고 김매고 거두어들이는 시기는 실제로 그다지 서로 멀지 않다. 그 가운데 늦게 심어도 먹을 수 있는 곡물은 메밀과 녹두만 있을 뿐이다. 吾東穀種, 名品雖繁, 其實則播耨收穫之期, 不甚相遠. 其晚蒔而可食者, 只有蕎麥與綠豆耳.”

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위의 책, 599쪽.

231) 풍토불의론에 대한 서유구와 서호수와의 견해 차이에 대해서는 2.5절 참조.

232) 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앞의 책, 598~599쪽.

3.1.4. 제4목 ‘수리를 진흥시켜 가뭄과 장마에 대비하기’ 역주

3.4. 수리를 진흥시켜 가뭄과 장마에 대비한다

3.4.1. 넷째는 수리를 진흥시켜 가뭄과 장마에 대비하는 일입니다.

四曰興水利以虞旱澇.

3.4.2. 제가 듣기로 물이 땅에 있음은 사람에게 혈기와 진액이 있음과 같다고 합니다.²³³⁾ 막히면 병이고, 터지거나 넘치면 병이고, 마르면 병입니다. 한 순간이라도 통하지 않아서는 안 되고, 또 한 줄기라도 촉촉이 적셔지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臣聞水之在地,如人之有血氣津液也.壅闕則病,潰溢則病,枯涸則病.既不可使一息不通,又不可使一脉不滋.

3.4.1. 유1무3有一無三

3.4.3. 그러므로 치수治水하는 법은 소통[疏·導]이요, 물막이[防·衛]요, 저장[滯·蓄]이요, 양 조절[節·宣]입니다. 도랑을 준설하고 하천을 여는 일은 소통을 위함 이요, 방죽[圩]²³⁴⁾은 작게 하고 제방[埽]²³⁵⁾은 크게 하는 일은 물막이를 위함 이요, 못이나 저수지나 호수는 저장을 위함 이요, 독의 수문과 수차[車戽]는 물의 양을 조절하기 위함입니다. 치수의 큰 줄거리와 큰 항목은 이 4가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그 가운데 1가지만 있고 3가지는 없습니다.

故治水之法,疏焉·導焉·防焉·衛焉·滯焉·蓄焉·節焉·宣焉.濬洫開河,所以疏導也;小圩大埽,所以防衛也;陂池湖蕩,所以滯蓄也;壩牐車戽,所以節宣也.治水之宏綱大目不越乎此四者,而我國有其一無其三.

233) 『임원경제지 본리지』 1, 201쪽; 『農政全書』 卷12 「水利」 ‘總論’(『農政全書校注』, 281쪽)에 비슷한 내용이 있다.

234) 방죽[圩]: 수면보다 낮은 논밭의 주위에 쌓은 둑.

235) 제방[埽]: 埽(소)는 대나무를 엮은 포대 속에 흙을 채운 호안護岸 공사의 재료인데, 이를 주로 황하 주변의 제방을 쌓는 데 사용했다.

3.4.1.1. 제1무: 도랑과 하천(소통이 없음)

3.4.4. 먼저, 없는 것을 말씀드린 뒤 있는 것을 언급해보겠습니다. 논자들은 모두 우리 동국에는 물난리[河患]가 없다고 말합니다만, 저만 유독 물난리가 없는 곳이 없고 물난리가 없는 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臣請先言其無者而後及其有者焉.論者皆謂我東無河患,而臣獨以爲無地無河患·無歲無河患.何以言之?

3.4.5. 우 임금의 치수하실 때는 도랑[溝洫]을 내는 데 온힘을 다 쓰셨습니다. 이는 다만 논밭을 손질하여 파종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물의 세력을 분산시킴으로써 강물에 가세하여 해를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주용周用²³⁶⁾이 “모든 사람이 밭을 손질하면 곧 그 사람들 모두 하천을 관리하는 것이다.”²³⁷⁾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禹之治水,盡力溝洫.非徒爲父²³⁸⁾田而播種也,亦欲以分其勢而不至助河爲虐²³⁹⁾.周用所謂“人人治田,則人人治河”是也.

3.4.6. 후대로 내려와 도랑[溝洫] 제도가 없어지면서 물난리가 가끔 일어났습니다. 가끔 일어나는 물난리 때문에 치수에 대한 고려가 깊어졌습니다. 정국鄭國²⁴⁰⁾과 사기史起²⁴¹⁾가 앞서서,²⁴²⁾ 문옹文翁²⁴³⁾과 백공白公²⁴⁴⁾이 그 뒤에 치수

236) 주용(周用, 1476~1574): 명명 오강吳江 사람. 1543년(가정 22) 하도河道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理河事宜疏」를 올렸다. 그 소는 『明經世文編』 146「周恭肅集」에 보인다. 『農政全書校注』, 414쪽 주66.

237) 『본리지』에서는 서광계의 「용수소용수疏」에 나오는 말을 인용했다. “周用曰:‘使天下人人治田, 則人人治河也.’” 『임원경제지 본리지』 1, 205쪽.

238) 父: ‘治’의 뜻.

239) 助河爲虐: 하천을 도와 화란을 더함.

240) 정국鄭國: 전국시대 한韓나라 사람으로 수리水利 전문가이다. 진秦나라의 국력을 꺾어내고 진나라가 한韓을 정벌하지 못하게 하도록, 진나라에 경수涇水의 동쪽을 끌어들이 북쪽 낙수洛水로 수로를 뚫을 것을 건의하여 채택시켰다. 그 결과 관중關中은 비옥한 곳이 되어 흉년이 없고 진秦은 부강하게 되었는데, 이 수로를 정국거鄭國渠라고 한다. 『史記』 卷29「河渠書」第7에 그의 사적이 자세하다.

241) 사기史起: 전국시대 위魏나라 사람으로 양왕襄王 때 업령鄴令에 임명되었다. 장수漳水를 끌어 들여서 업전鄴田에 관개하여 하내河內를 비옥하게 만들었다. 백성이 노래로 칭송하였다.

242) 도랑[溝洫] 제도가 없어지면서 준거(浚渠, 깊은 도랑)를 설치했던 정국과 사기에 대해서는 『본리지』에서 박지원의 『과농소초』를 통해 소개했고(『임원경제지 본리지』 1, 262쪽), 문옹과 백공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보전淤田이 생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행포지』의 글을 인용했다(『임원경제지 본리지』 1, 168쪽).

를 했는데, 5리마다 세로 방향으로 포浦를 만들고, 10리마다 가로 방향으로 당塘을 만들었으니, 성난 기세로 무너뜨리는 물의 세력을 제압하기에 충분했습니다. 降及後世,溝洫廢而河患種種然.惟其種種也,故慮水也深.鄭·史在前,文·白在後,五里一縱浦,十里一橫塘,而亦足以制其虓怒決裂之威.

3.4.7. 동국 사람들은 물난리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치수에 대한 고려에 소홀하고 땅을 아끼는 데 익숙합니다. 도랑에 땅을 뺏기지 않으려는 풍속은 중국보다 열 배나 강합니다. 논인 경우 물 대는 도랑[渠]은 100리에 하나나 있을 정도이고²⁴⁵⁾ 논밭도 몇 척을 넘지 않습니다. 밭의 경우 밭두둑만 죽 펼쳐져 있을 뿐 도무지 실도랑 하나 없습니다. 농부(소작인?)가 쟁기로 밭의 사방을 둘러 두둑을 파내 고랑을 만들길라도 하면 주인집에서는 곧장 깜짝 놀라 땅을 낭비했다고 걱정합니다.

東人以其無河患也,故忽於慮水,狃於惜地.其與水爭地之習,十倍於中國.稻田灌溉之渠,百里而一有者,廣不滿數尺.陸田則彌望隣隴,都無尺寸之溝.耕夫或以犁鑿環田之四界而浮隣爲畎,則有田之家輒鰓鰓乎²⁴⁶⁾疑其費地也.

3.4.8. 이렇다 보니 몇 달만 가물면 10리의 들판에서 물 한 바가지 구하려 해도 얻을 수 없고, 10일만 장마져 물에 잠기면 논밭 물과 도랑물이 팔팔거리며 사방으로 넘쳐서 모두가 물에 잠기고 흙이 떨어져나가는 세력을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오직 물가의 논밭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數月旱乾,則十里之坪求涪蹄²⁴⁷⁾之水而不可得;十日淫漑,則田水行潦狂瀾²⁴⁸⁾四溢,皆足以作墊沒壇落之勢,不獨濱河之地爲然也.

243) 문옹(文翁, B.C.156~B.C.101): 전한前漢의 관리로 이름은 당黨이고, 여강군廬江郡 서현舒縣 사람이다. 경제景帝 때 촉蜀의 군수가 되어 교육을 진작하고 현능한 사람을 선발하였으며 수리 시설을 정비하는 등 공적이 탁월하여 문옹이라 불렸는데, 특히 전유구煎澗口라는 수로를 뚫어 관개에 힘썼다. 『文獻通考』 卷6 「田賦考」 6 「水利田」.

244) 백공(白公, ?~?): 한 무제 태시太始 2년(B.C. 95) 섬서성陝西省 관중 지역에 수로 굴착을 건의한 조중대부趙中大夫이다. 그 수로를 백거白渠라고 일컫는다. 『漢書』 卷29 「溝洫志」 第 9.

245) 100리에 하나 꼴로 도랑이 있다는 의견은, 팔도의 보가 2,265곳이었다는 『만기요람』(1808년)의 통계 자료를 고려할 때 다소 과장이 섞인 듯하다. 『만기요람』에서 제시한 각 지역의 보의 수는 다음과 같다. 경상도 1,339곳, 전라도 164곳, 충청도 497곳, 평안도 109곳, 황해도 71곳, 함경도 24곳, 강원도 61곳. 『萬機要覽』, 「財用編」 5 「堤堰」 「各道堰狀」.

246) 鰓鰓乎(시시호): 두려워 하는 모양.

247) 涪蹄(잠제): 마소 밭자국에 낀 물로, 얼마 되지 않는 수량의 형용어.

248) 狂瀾(광란): 거세게 출렁이는 사나운 물결.

3.4.9. 우 임금께서 치수하실 때는 반드시 먼저 구천九川²⁴⁹⁾을 터서 바다로 빠지게 한 뒤에 비로소 물길[畎澮]을 준설하여 하천으로 빠지게 했습니다.²⁵⁰⁾ 참으로 간류는 지류가 흘러가야 할 곳이라, 간류가 막히면 지류는 빠질 곳이 없습니다. 禹之治水必先決九川距²⁵¹⁾海,然後始濬畎澮距川.誠以榦流者支流之所歸,榦流闕則支流無所洩也.

3.4.10. 우리 동국은 산이 많고 들이 적어 산에서 나오는 물은 대개 물살이 빨라 물소리가 큰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도끼를 쓰기 때문에 산등성이와 기슭은 민둥민둥해져 토사가 쉽게 붕괴되면서 날마다 점점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그러다 하천은 높고 논밭은 낮아지는데, 곳곳이 모두 이렇습니다. 하루아침에 산이 무너지거나 독이 터지면 여러 집안의 재산이 모두 모래진흙 속에 파묻혀버립니다. 오직 장마가 심한 해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我東山多野少,水之出於山者例多激射澎湃之勢.而斧斤日尋²⁵²⁾,岡麓童濯,隕土崩沙,日漸流下.川高田卑,在在皆是.一朝潰決,百家之產盡沒於沙泥之中,不獨甚潦之歲爲然也.

3.4.11. 산골짜기에 가까운 강은 모든 하천에서 모래진흙을 실어 나르고, 바다에 가까운 강은 조수가 모래진흙을 실어 물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옷을 건거나 아랫도리를 벗어서 건널 수 있는 얕은 여울이 10리에 1개 꼴로 있습니다. 가물면 배의 운항을 막을 정도이고, 장마지면 물이 거꾸로 흘러 넘쳐서 곡식이 잠기고, 농막이 부서지고, 사람과 가축이 떠다닙니다. 더욱이 이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일입니다.²⁵³⁾

江之近峽者百川驅沙泥入之,江之近海者潮汐驅沙泥淤之.淺灘之揭厲可涉者十里而一有.旱則梗舟,潦則逆漲,浚田禾·壞廬舍·漂人畜.又無處無歲不然也.

3.4.12. 동국 사람들은 본래 뚫거나 준설하는 기술에 어둡습니다. 한양의 청계천[廣通橋] 수로는 상류에서 하류까지 6~7리도 못 됩니다. 하지만 전담 기관을 설

249) 구천九川: 구주九州의 큰 하천들.

250) “予決九川距四海,濬畎澮距川.”『尙書注疏』卷4「虞書」‘益稷’.

251) 距: ‘至’의 뜻.

252) 尋: ‘用’의 뜻.

253) 준설이 안 된 현실을 보여줌.

치하여 준설하고, 내탕금[水衡之財]²⁵⁴⁾을 다 지출하고, 삼영三營²⁵⁵⁾의 군사들을
 녹초로 만들었는데도 오히려 준설하자마자 막혀버려 도로아미타불[徒勞無功]이
 됩니다.

東人素昧疏鑿挑撩之術.京城廣通橋之水,首尾不滿六七里者,設專司而濬之,竭水衡之
 財,疲三營之卒,而猶且旋濬旋淤,徒勞無功.

3.4.13. 하물며 백 리나 되는 하천이나 천 리나 되는 강에 대해서는 말할 게 있
 겠습니까? 물과 접한 읍 관할 구역에서는 물에 잠길 걱정이 날로 생기면 차라리
 읍을 옮겨 회피하려고 하지, 읍을 옮길 비용으로 마음을 돌려 과감하게 하천 준
 설 공사를 일으키려 하지 않습니다. 모래로 막히는 하류에서는 배의 운항이 막힐
 걱정이 날로 생기면 차라리 공사公私의 선적물이 썩어나가는 꼴을 가만히 앉아
 쳐다보려고 하지, 썩어나간 선적물을 보충할 비용으로 마음을 돌려 알아진 곳을
 파내는 공사를 일으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況於百里之川·千里之江乎?臨水邑治,日憂其淪沒則寧徙邑以避之,不敢以移邑之費,回
 作濬川之功.下流沙淤,日憂其梗漕則寧坐視其公私臭載,不思以臭載之費,回作撩淺之
 功.

3.4.14. 중국에서 물난리는 오직 하천과 가까운 곳에서만 생깁니다만, 우리나라
 는 장소에 관계없이 생깁니다. 중국에서 물난리는 백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합
 니다만, 우리나라는 해에 관계없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동국에는 도랑을 준설하
 고 하천을 여는 공사가 없다.’고 한 말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中國河患,惟近河之地爲然,而我□國則無處不然.中國河患,或百年一有,而我□國則無
 歲²⁵⁶⁾無之.臣所云“我東無濬洫開河之工”者,此之謂也.

3.4.1.2. 제2무: 방죽과 제방(물막이 시설이 없음)

254) 내탕금[水衡之財]: 水衡은 한·漢나라 때 세무와 동전 주조를 맡은 관직으로, 황실의 사사로운
 자금을 뜻하기도 한다. 내탕금은 왕실의 재물이다.

255) 삼영三營: 오군영五軍營 가운데 훈련도감(訓練都監, 포수·살수·사수의 삼수병으로 구성), 금위
 영(禁衛營, 도성 수비), 어영청(御營廳, 북벌 대비) 등의 세 군문軍門. 경우에 따라서는 훈련도감
 대신 총융청(摠戎廳, 북한산성 수비)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한국고전용어사전』 3, 247쪽.

256) 歲: 『의상경계책』處. 앞의 無處不然과 대비가 되는 내용이 나와야 한다. 위에서 ‘處’와 ‘歲’를
 대비하여 여러 번 쓰고 있다.

3.4.15. 제가 듣기로 황하의 제방[埽]은 1000리에 끊임없이 이어졌고, 강남의 방죽[圩]은 100리에 연속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모두 밖의 물을 막아 안의 논밭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물 피해가 잦은 저지대 논밭이나 물가의 고지대 논밭 할 것 없이 모두 위안圍岸²⁵⁷⁾의 유무에 따라 논밭의 존망이 갈립니다.

臣聞黃河之埽,千里而縣亘,江南之圩,百里而聯屬.皆所以外禦水而內護田也.低鄉患水之田·高鄉濱水之田皆以圍岸爲存亡.

3.4.16. 그래서 “논밭에 씨앗을 뿌리기 전에 먼저 둑[岸]을 만든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 “논밭은 있는데 둑이 없다면 논밭이 없는 것과 같고, 둑이 높고 두텁지 못하면 둑이 없는 것과 같다. 둑이 높고 두터우나 자안(子岸, 보조 둑)이 없다면 둑이 없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²⁵⁸⁾ 자안子岸은 성곽에 내성이 있는 것처럼, 바깥쪽의 둑을 보조하는 시설입니다.²⁵⁹⁾

故曰“種田先做岸”.又曰“有田無岸,與無田等;岸不高厚,與無岸等;岸高厚而無子岸,與無岸等”.子岸者,外岸之輔如郭之有內城也.

3.4.17. 저는 우리 동국 논밭에 과연 이런 모양의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0리 정도 길이의 방죽[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5장(丈, 50척) 정도 높이의 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조 둑으로 자안을 만든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두 없다면 땅의 높낮이에 맡기고, 하늘의 날씨에 맡기면서 어찌다 한 번 농사가 잘 되는 것은 인재人災이지 운명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동국에는 제방[埽]은 크게 하고 방죽[圩]은 작게 하는 제도가 없다.”고 한 말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臣未知我東之田果有此形制乎?有十里之圩乎?無也;有五丈之岸乎?無也;有子岸之爲輔者乎?無也.大率皆無也,則任地之高下·任天之水旱,十年而一食²⁶⁰⁾者,人也,非數也.臣所云“我東無大埽小圩之制”者,此之謂也.

257) 위안圍岸: 농지의 사방을 에워싼 방죽.

258) 앞의 두 인용문은 경골耿橘의 「대흥수리신大興水利申」에서 위안과 자안 쌓는 법을 설명하는 곳에 나온다. 『農政全書』卷15「水利」‘東南水利’下(『農政全書校注』, 370쪽); 『임원경제지 본리지』1, 250쪽.

259) 이와 비슷한 표현이 앞의 주석에서 소개한 경골의 글 뒷부분에 나온다. “子岸者,圍岸之輔也,較圍岸又卑一二尺.” 『임원경제지 본리지』1, 252쪽.

260) 十年而一食: 흉수나 가뭄 피해를 당하기 쉬운 논밭이 어찌다 한 번 농사가 잘 됨. 十年而一得과 같은 뜻.

3.4.1.3. 제3무: 수문과 수차(양 조절이 없음)

3.4.18. 제가 듣기로 수문을 열고 닫는 일은 쓸 물을 조절하는 일이요, 수차로 물을 넣거나 빼는 일은 쓸 물로 밭을 살리는 일입니다. 가물면 수문을 닫아 물을 가둬두고, 장마지면 수문을 열어 물을 빼냅니다. 조금 가물거나 조금 장마지면 개폐의 정도를 적당히 짐작하여 바라는 만큼만 늘이거나 줄입니다. 이것이 수문의 효과입니다.

臣聞壩牐啓閉,用水之節制也;車戽出入,用水之司命也.旱則閉牐而留之,澇則啓牐而洩之.小旱小澇則斟酌開闔之節宜,增減惟人所欲.此壩牐之功用也.

3.4.19. 가물면 하천의 물을 끌어다 대주고, 장마지면 논밭의 물을 끌어다 빼냅니다. 물 댈 때는 만 석[斛]의 물을 10인(仞²⁶¹) 되는 높이까지 올릴 수 있고, 물 뺄 때는 1000경頃의 물길을 단 하루 이틀에 마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차의 효과입니다.

旱則挈川河之水而灌之,潦則挈田畦之水而洩之.其灌也,萬斛之水可升至十仞之上;其洩也,千頃之波可一兩日而涸也.此車戽之功用也.

3.4.20. 동국 사람들이 도랑[渠]을 파 물을 댈 때는 통나무를 파내어 통을 만들고 논밭의 두렁 바닥에 끼워둡니다. 이 통이 모래진흙으로 막히면 물 몇 방울조차 대지 못하고, 장마로 논밭이 잠기면 물을 빼낼 도리도 없습니다. 이를 수문과 비교해 보면, 통나무 통은 어긋난 제도입니다.

東人之穿渠灌田也,剝木爲筒,插在塍底.沙泥窒塞,涓滴不入;潦水沒畦,去之無術.以是而方之壩牐則爽矣.

3.4.21. 동국 사람들이 물을 끌어올려 가뭄을 구제할 때에도, 용두레[木懸斗]로 한 번 퍼서 한 번 대는데, 모양은 그네처럼 생겨 웃길 정도로 둔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하루 종일 킁킁 대도 한 두렁을 적시지 못합니다. 이를 수차와 비교하면 용두레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제가 “우리 동국에는 수문이나 수차의 활용이 없다.”고 한 말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261) 인(仞): 길이 단위로, 8척설·7척설·5.6척설·4척설 등이 있다.

東人之辱水救涸也,又木懸斗一酌一灌,形如秋千,鈍極可笑.終日滑稽,未沾一畦.以是而擬之車戽則非矣.臣所云“我東無壩牐車戽之用”者,此之謂也.

3.4.1.4. 제1유: 저수지(저장 시설은 있음)

3.4.22. 그런데 저수지 같은 경우는 정말로 있습니다. 하지만 있어도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 있어도 없는 거나 다름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까? 홍주洪州의 합덕지合德池²⁶²)와 제천의 의림지義林池²⁶³)와 익산의 황등제호黃登隄湖²⁶⁴)와 김제의 벽골제호碧骨隄湖²⁶⁵)와 고부古阜의 놀제호訥隄湖²⁶⁶)와 용궁龍宮의 공검지恭檢池²⁶⁷)와 연안延安의 와룡지臥龍池²⁶⁸)는 모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저수지들입니다. 이 밖에 크게는 100경에 달 수 있고, 작게는 10경에 달 수 있는 저수지는 바둑판의 바둑돌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뻗뻗할 정도로 전국에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 없이 논농사 짓는 행위[冒佃]를 금지하는 법률은 법전에 있

262) 홍주의 합덕제: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성동리에 위치하였던 저수지. 1764년(영조 44) 준설 및 보수공사를 했고, 1778년, 1792년에도 수축하였다. 합덕 평야를 관개하던 젓줄이었으나 1964년 예당지禮唐池가 준공됨에 따라 관개용수량이 충분하여 이해에 합덕지는 폐지하고 현재는 농경지로 개답하였다. 폐지 전 제방 둘레는 9km, 길이는 1780m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4, 414쪽.

263) 제천 의림지: 충북 제천시 모산동에 있는 저수지. 김제의 벽골제, 밀양의 수산제와 함께 삼한 시대 삼대 수리 시설의 하나이다. 세종 때 수축한 기록이 있고, 제방 길이는 530척, 둘레는 5805척, 관개면적이 400결結이 된다고 했다. 여러 번 보수, 증축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7, 548쪽.

264) 익산의 황등제호黃登隄湖: 전북 익산시 황등면에 있던 저수지. 『동국문헌비고』에 “길이 900보, 둘레 20리[長九百步,周二十里]”라는 기록이 있는데, 축조 연대는 미상이다. 벽골제, 놀제호와 함께 호남의 3대 저수지[國中三湖]로 불리기도 했다. 조선 말기까지 사용하지 않다가 일제 때 증축하여 활용했으나 지금은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5, 457쪽.

265) 김제 벽골지: 전북 김제시 부량면扶梁面 월승리月升里에 있었던 저수지. 백제 비류왕比流王 27년(330)에 축조되었다. 지금은 그 터만 남아 있다. 『韓國漢字語辭典』 권3, 599쪽.

266) 고부古阜의 놀제호訥隄湖: 전북 정읍시 고부면에 있었던 백제 때의 저수지. 축조 연대는 미상이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고적조古蹟條」에는 1530년(중종 25) “놀지는 군의 서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져 농지가 되었다. 訥池在郡西,今廢爲田.”고 적혀 있다. 이후 개축했다가 다시 1873년(고종 10)에 폐쇄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5, 928~929쪽.

267) 용궁龍宮 공검지: 경북 상주시 공검면 양정리에 있는 저수지. 서력기원을 전후한 시기에 축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규모는 주변이 모두 논으로 개답되고, 만수시 약 1천평 정도의 작은 규모만 남아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 731쪽. 용궁은 경북 예천군 용궁면 지역에 있었던 현으로, 상주목 관할 하에 있었기 때문에 상주 대신 용궁이라 한 것으로 보인다.

268) 연안의 와룡지臥龍池: 황해도 연백군 연안에서 남쪽 12km 지점에 있었던 저수지. 남대지南大池라고도 한다. 언제 축조가 시작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 『동국문헌비고』에 둘레가 20리 102보(8km)라 했으나 제방의 길이나 몽리면적은 미상이다.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남대지는 이제 모두 막혔다”고 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5, 379쪽.

고, 저수지를 수리하고 만드는 행정 사항은 규정에 상세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수지[陂池]나 호수[湖蕩]는 정말로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若夫陂池則誠有之矣.雖然有之,而與無同.何謂有之而與無同也?洪州之合德池·堤川之義林池·益山之黃登隄湖·金堤之碧骨隄湖·古阜之訥隄湖·龍宮之恭檢池·延安之卧龍池,皆我□國陂湖之最著者也.外此,大可灌百頃,小可灌十頃者,碁布而星羅.冒佃之禁著在大典,修築之政詳于事目.臣故曰“陂池湖蕩則誠有之”.

3.4.23. 그러나 저수지의 용도는 저수와 배수일 뿐입니다. 저수와 배수 효과를 관리하는 것은 수문과 수차일 뿐입니다. 그런데 수문과 수차의 제도에 대해 동국 사람들이 본래 어둡다면 이 저수와 배수는 모두 법도가 없는 것입니다. 저수와 배수에 모두 법도가 없다면 이는 저수지가 없는 것입니다.

然陂池之爲用,瀦與洩是已.司瀦洩之功者壩牐車戽是已,而壩牐車戽之制,東人之素昧,則是瀦與洩俱無法也.瀦與洩俱無法,則是無陂池也.

3.4.24. 더욱이 세월이 더욱 오래 되자 막힘 현상이 훨씬 심해져 여기에 침범하여 궁장宮莊²⁶⁹)을 만들기도 하고, 영둔營屯²⁷⁰)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줄풀이나 줄뿌리 등 물풀이 우거지고 물기는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어도 없는 거나 다름없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況歷歲滋久,澱淤益甚,或侵作宮莊,或設爲營屯,茭葑掩翳,瀦潤無幾.臣故曰“雖有而與無同”也.

3.4.2. 피해의 영향

3.4.25. 대개 물이란 모이면 해가 되고 흩어지면 이익이 되며, 버리면 해가 되고 사용하면 이익이 됩니다. 동국 사람들은 흩어지게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모았다가 해를 당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버렸다가 해를 당합니다. 가뭄과 장마에 대비가 없기에 흉년이 반복됩니다.

大抵水之爲物也,聚之則爲害,播之則爲利;棄之則爲害,用之則爲利.東人不知所以播之,故聚而爲害;不知所以用之,故棄而爲害.旱澇無備,飢荒洊仍.

269) 궁장宮莊: 각 궁방(宮房, 왕실의 직계 집안)에 소속된 토지. 궁장에는 면세 혜택이 주어졌다.

270) 영둔營屯: 조선 시대에 각 영문(營門, 군영이나 감영)에 경비 충당을 위해 나눠 준 둔전.

3.4.26. 저는 멀리 옛 일을 끌어다 쓸 겨를이 없이 바로 6~7년 전의 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²⁷¹⁾ 갑술년(1814)에 전국이 가물 때 천 리가 황무지였는데, 이는 버리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은 해로 말미암은 일입니다. 만약 평소에 물을 저장해 두고 적당히 조절하여 사용했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臣不暇遠引古昔,卽以六七年來言之.甲戌八路之旱,汚萊千里,此由棄之而不用之害也.苟其滌蓄有素而節宣得宜,則豈有是也?

3.4.27. 또한 작년 여름 호서 지방의 홍수²⁷²⁾로 언덕이 계곡이 되고 계곡이 언덕이 되는 변화가 있었는데, 이는 모으기만 하고 흩어지게 하지 않은 해로 말미암은 일입니다. 만약 기술적으로 소통시키고 물막이에 소홀하지 않았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去夏湖西之水,陵谷變遷,此由聚之而不播之害也.苟其疏導有術而防衛不疎,則豈有是也?

3.4.28. 세금 감면[檢放]의 양은 징수한 세금의 10배나 되는데도 오히려 불모지에 세금을 매깁니다. 구휼 차원에서 세금을 감면하라는 전하의 말씀이 날마다 군과 읍에 하달되지만, 구령텅이에 빠진 백성을 구제하려는 걱정은 없습니다. 조정과 백성이 궁핍하고 산업이 꺾이기 때문에, 호조의 경상비[經用]는 수입이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기에 관리들의 봉급을 빌려다가 지급하려 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회계를 담당하는 신하는 쪼들려 안달하면서 대처 방안을 생각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만일 사방 수 천 리 규모의 홍수나 가뭄이 다시 생긴다면 유량자들이 늘어난다는 소문이 날마다 들리고, 도적들이 슬며시 일어날 것이니, 저는 속으로 오싹해집니다.

檢放之數十倍於征斂,而猶有不毛之稅.蠲恤之口音,日下於郡邑而無救轉壑之憂.公私窘乏,杼軸俱空.度支經用入不支出,百官廩俸,兌那不給,中外掌財賦之臣,遑遑汲汲,思有以處之而不得其術.萬一復有方數千里之水旱,流亡日聞,剽賊竊發,臣竊寒心.

271) 이 단락과 다음 단락은 『의상경제책』의 저술 연도를 확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제시한다. ‘갑술년(1814)’과 ‘작년 여름(1819)’이라는 말을 통해 1820년에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272) 1819년(8월) 충청도에 1900호가 홍수 피해를 입었다. 전성호, 『조선 후기 米價史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7, 147쪽.

3.4.3. 대책

3.4.29. 어떻게 뒷날을 위해 좋은 계획을 세워 지금의 방도로 삼아야 합니까? 오로지 수리를 진흥시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게 하는 방법뿐입니다. 수리를 진흥시키는 방법 또한 소통과, 물막이와, 저장과, 조절에 지나지 않습니다.

何以善後爲今之道?惟有興水利而使澇旱有備而已.興水利之方又不過曰疏導·防衛·澹蓄·節宣而已.

3.4.30. 마땅히 묘당에 명령하여 자격 조건에 구애받지 말고 수리에 통달한 자 3~5인을 급히 뽑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변사에 사무국을 개설하고 재상급에서 이 일을 주관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수로를 개통하거나 준설하는 법, 독이나 방죽 쌓는 법, 수문을 설치하는 법을 연구하게 하여, 그 성과로 수형감水衡監²⁷³으로 하여금 기구나 기계를 제작하게 하소서. 준설삽[濬鍤]·용조(龍爪, 흙을 파는 기구) 등의 기구와 용골차龍骨車·통차筒車·용미차龍尾車·옥형차玉衡車·항승차恒升車 등의 수차가 그것들입니다.

宜令廟堂不拘資格,急選通曉水利者三五人,開局於籌司,而宰相領其事.講究開挑·圍築·閘竇之法,仍令水衡監造器械,如濬鍤龍爪等器·龍骨筒車龍尾玉衡恒升等車.

3.4.31. 준설삽이란 보습을 끼워 농사지를 곳에 도랑을 사이사이에 내는 기구입니다. 용조란 닻줄을 매달아 하천에서 모래를 긁어내는 기구입니다. 용골차·용미차란 하천처럼, 흐르는 물에서 물을 위로 끌어올리는 수차입니다. 옥형차·항승차란 우물이나 샘처럼, 고인 물에서 물을 흡입하여 끌어올리는 수차입니다.

濬鍤者,所以套鑣而間溝於田作者也;龍爪者,所以繫纜而爬沙於江河者也;龍骨·龍尾,用之於江河而挈水者也;玉衡·恒升,用之於井泉而吸水者也.

3.4.32. 기구와 수차가 준비되면 먼저 서울의 수 십 리 안팎에서 시험합니다. 한강 상하류에서 급히 소통시키거나 준설해야 할 곳은 세 곳입니다. 서빙고 아래·노량진 위가 한 곳이고, 노량진 아래·용산 위가 한 곳이고, 양화나루 아래·행주 아래가 한 곳입니다. 이곳에는 모두 열은 여울이 있습니다.

器械既備,先試之京師數十里內外之地.漢江上下流之急宜疏濬者三:西水庫之下·鷺梁之

273) 수형감水衡監: 산림과 천택川澤을 관장하는 책임자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上,驚梁之下·龍山之上,楊花渡之下·幸州之下,俱有淺灘.

3.4.33. 양화나루 아래 염창항鹽倉項이라는 곳은 배 운항을 막는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마땅히 송나라 사람의 ‘손으로 긁어 물에 실어 보내기[搔乘]’, ‘침전물을 채취하여 제거하기[撈剪]’, ‘휘저어 흘러가게 하기[盤帛]’, ‘물길을 열고 치기[開挑]’²⁷⁴⁾의 방법으로 준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은 용조를 사용하여 모래진흙을 긁어내야 합니다.

其楊花渡之下地名鹽倉項,尤患梗漕.當用宋人搔乘·撈剪·盤帛·開挑之法而濬治之.其最深處宜用龍爪,爬去沙泥.

3.4.34. 천이나 도랑 중에 한강으로 들어가는 곳은, 예를 들어 미음나루로 들어가는 왕산천, 삼전나루로 들어가는 양재천, 두모포로 들어가는 중랭포²⁷⁵⁾, 마포로 들어가는 만천, 서강으로 들어가는 사천 등인데, 모두 수문을 설치하여 배수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양주의 미음²⁷⁶⁾ 들판과 고양의 회천²⁷⁷⁾ 들판은 한강에 가까우면서 지대가 낮기 때문에 10년에 7번 꼴로 물에 잠기는데, 이런 곳은 모두 방죽을 두르고 제방을 길게 쌓아 논밭을 보호해야 합니다.

川渠入江之處如王山川之入漢陰渡者·良才川之入三田渡者·中冷浦之入豆毛浦者·蔓川之入麻浦者·沙川之入西江者,皆設閘竇以節宣之.楊州漢陰之野·高陽廻川之坪,近江而地低,十年七淹,此皆宜圍築長堤以護田段.

3.4.35. 또 「수인遂人」에 나오는 도랑[溝洫] 제도²⁷⁸⁾를 본받아 서울의 동서 양쪽 주변에 각각 지세에 따라 큰도랑[大溝]은 너비 1장(10척) 이상으로 파서 천에

274) 송나라 사람들의 준설법은 서광계의 「용수소用水疏」에 나오는데, 이런 작업의 구체적인 설명은 『본리지』에 나오는 서유구의 주석을 참조하여 옮겼다. 『農政全書』 卷16 「水利」 「浙江水利」(『農政全書校注』, 404쪽); 『임원경제지 본리지』 1, 218~219쪽.

275) 중랭포 : 중랑포이다.

276) 미음漢陰: 경기도 남양주시 수석동 일대.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국토지리정보원, 2008.

277) 회천廻川: 한강 하구의 고양시 쪽 평야로 보이지만 정확한 현재 위치는 확인할 수 없었다.

278) “凡治野,夫間有遂,遂上有徑;十夫有溝,溝上有畛;百夫有洫,洫上有涂;千夫有澮,澮上有道;萬夫有川,川上有路,以達于畿.(注:十夫,二鄰之田.百夫,一鄰之田.千夫,二鄰之田.萬夫,四縣之田.遂·溝·洫·澮,皆所以通水於川也.遂廣深各二尺,溝倍之,洫倍溝,澮廣二尋深二仞.徑·畛·涂·道路,皆所以通車徒於國都也.徑容牛馬,畛容大車,涂容乘車一軌,道容二軌,路容三軌.都之野涂,與環涂同可也.萬夫者,方三十三里少半里,九而方一同,以南畝圖之,則遂從溝橫,洫從澮橫,九澮而川周其外焉.去山陵林麓川澤溝瀆城郭宮室涂巷,三分之制,其餘如此,以至於畿.則中雖有都鄙,遂人盡主其地.)” 『周禮注疏』 卷15 「遂人」.

연결합니다. 또 각각 지세에 따라 작은도랑[小溝]은 너비 4~5척 이상으로 파서 큰 도랑에 연결하고, 또 각각 지세에 따라 싯도랑[細溝]은 너비 2~3척 이상으로 파서 구불구불 작은 도랑에 연결합니다.

又倣遂人溝洫之制,東西兩郊,各隨地勢開鑿大溝廣一丈以上者以達于川.又各隨地勢開鑿小溝廣四五尺以上者以達于大溝,又各隨地勢開鑿細溝廣二三尺以上者委曲以達于小溝.

3.4.36. 큰도랑은 관에서 인부를 모집하여 작업하고, 작은도랑은 사방의 땅주인들이 함께 작업하고, 싯도랑은 각각이 따로 자기 논밭에서 작업합니다.

其大溝,官爲募人爲之;小溝,四界有田者共爲之;細溝,人各自爲於其田.

3.4.37. 이렇게 하면 서울 주변 수 십 리는 홍수와 가뭄의 고통을 겪지 않고 매년 풍년이 들 것입니다. 서울에서 매년 풍년이 들면 팔방에서 반드시 서로 배우려 들 것이니, 그런 뒤에야 이미 시험해 본 기구와 방법을 팔도에 나누어 줍니다.

如此則環京師數十里之地可以不病於澇旱,而歲歲豐熟矣.京師歲歲豐熟,則八方必將轉相倣則,乃以已試之器與法,頒之八路.

3.4.38. 묘당에서는 관찰사들에게 하달하면서 잘 격려하고, 관찰사는 수령들을 잘 통솔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어디에 수리를 진흥시켜야 할지, 어디에 수해를 없애야 할지, 필요한 총 인원[役丁]은 몇인지, 필요한 총 비용[錢糧]은 얼마인지를 조사해냅니다. 지출액이 많으면 관의 재물로 대고, 적으면 부잣집에서 감당하도록 권유합니다.

□廟堂飭勵方伯,方伯董率守令,詢究某處水利當興,某處水害當除,合用役丁幾何,合用錢糧幾何.大者發官帑,少者勸富戶.

3.4.39. 흙으로 메워진 저수지[陂池]는 준설하여 넓혀 가고, 막힌 도랑[溝澮]은 뚫어서 소통시킵니다. 논밭의 지대가 높으면 도랑[渠]을 내고 낮으면 방죽[圩]을 쌓습니다. 물살이 세면 수차에 부딪혀 그 힘으로 끌어올리고, 약하면 물길을 내 끌어들입니다. 앞 공정이 쉽고 뒤 공정이 어렵기도 하고 앞 공정을 서두르고 뒤 공정을 늦춰야 하기도 하므로, 순서대로 시행하여 마음을 다해 운영하도록 합니

다. 만약 업적이 두드러져 백성에게 공사 혜택을 누리게 한 관리가 있으면 표창하고 승진시킴으로써 이 일을 장려합니다.

陂池之闕塞者濬而拓之,溝澮之壅滯者決而達之.高則開渠,卑則築圩;急則激取,緩則疏引.或先易而後難,或先急而後緩,次第設施,悉心經理.如有成績著見,民享其利者,量加旌擢以聳勸之.

3.4.40. 다시 『관자管子』에서 백성의 수를 살펴서, 10가구나 5가구로 조직을 만들고, 농기구[籠函]를 갖추고, 농사에 물을 이용하는 법²⁷⁹⁾을 대략 본받습니다. 한 마을마다 수차 1대, 준설삽 1개, 가래·괭이·봉함鋒函 등속 수 십 개를 마을 사당에 보관합니다. 매년 수확을 마치면 수령은 도랑[溝渠]과 제방과 둑[堤堰]을 살펴서 백성들을 독려하여 증축하거나 수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10년도 안 되어 팔도의 논밭은 해년마다 풍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復略倣管子閱民定什伍具籠函作土利水之法.每一鄉置水車一·濬鍤一·杓鏝鋒函之屬數十,藏之里社.每歲收穫既畢,守令案視溝渠堤堰,督民增修.如此則不出十年,而八域之田可保歲歲豐熟矣.

3.4.41. 시행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많은 이들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공禹貢」 한 편에는 토목 공사 비용을 말하지 않았습니²⁸⁰⁾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 온 천하를 동원한다 해도 지나치다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²⁸¹⁾다.

設施之初,不能不費財動衆.然禹貢一篇不言經費.以事所當爲,則雖舉天下而聽之,不爲過也.

3.4.42. 하물며 물에서 잃었지만 논밭에서 보상받고, 지출은 짧지만 이익은 길게 이어지는 데 있으니,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는 오만 방자한 장사치들도 오히려 달게 여기고 즐겁게 하는 일인데, 일찍이 나라의 계획에 좋은 것이라 일컫는

279) 『管子』 卷18 『度地』 第57 ‘雜篇’ 8.

280) 이와 비슷한 표현이 『농정전서』에 보인다. “唐虞之世,治水治農,禹稷兩人耳,而能平九州之水土,粒天下之烝民.當時之經費,何自出乎?蓋皆用天下之巨室,使率衆而各效其力,事成之後,樹爲五等之爵以酬之.禹貢一篇,所以不言經費,第于則壤成賦之後,終之曰錫土姓而已,故曰建萬國以親諸侯.” 『農政全書』 卷9 「農事」 ‘開墾’(『農政全書校注』, 210쪽).

281) (3.4.40~41)과 비슷한 구절이 박제가 지음, 안대희 번역, 『북학의』 「둔전의 비용[屯田之費]」, 돌베개, 2003, 251쪽에 나온다.

일을 도리어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꺼려야 하겠습니까?²⁸²⁾

況失於水而償於田,費則短而利則長,此販夫·賈豎之居肆者尙且甘心樂爲,曾謂善於謀國者而顧反憚於費乎?

3.4.43. 예전에 송의 신하 범중엄范仲淹은 굶주리는 백성을 모집하여 양자강 소 통 공사를 했는데, 재상에게 보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는 ‘부역을 시킬 때 군량미가 너무 많이 지출된다.’고 말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주[姑蘇, 蘇州]²⁸³⁾의 세금 수입은 쌀 34만 석[斛]인데, 작년 가을에 면제한 세금이 30만 석이었습니다. 만약 풍년인 해에 봄철 부역으로 1만 명을 동원하고 1인당 하루에 3승을 주고 1개월에 마친다면 쌀 9000석²⁸⁴⁾을 쓰게 됩니다. 또 흉년인 해에 1인당 하루에 5승을 주고 1개월에 마친다면 쌀 1,5000석을 쓰게 됩니다. 이쪽의 지출을 헤아려 저쪽의 수입과 비교하면 어느 누가 군량미를 많이 지출한다고 하겠습니까?”²⁸⁵⁾

昔宋臣范仲淹募飢民疏楊子江,其與宰相書曰:“或謂‘力役之際,大費²⁸⁶⁾軍食’,某謂不然.姑蘇歲納苗米三十四萬斛,去秋蠲放者三十萬.如豐穰之歲,春役萬人,人食三升,一月而罷,用米九千石耳.荒歉之歲,日食²⁸⁷⁾五升,召民爲役而²⁸⁸⁾賑濟,一月而罷,用米萬五千石耳.量此之出,較彼之入,孰謂費軍食哉?”

3.4.44. 저는 기사년(1809)·갑술년(1814) 두 해에 조정에서 감면하고 진흥한 곡식의 수량은 적어도 50,0000석 이하는 아닐 것으로 판단합니다. 범중엄의 ‘1인당 하루에 3승을 준다.’는 말로 계산하되, 우리 동국의 도량형법으로 환산한다면 50,0000석은 40,0000명이 5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²⁸⁹⁾ 이것으로 수리를 진흥시킨다면 어떤 이익[利]인들 진흥시키지 못하겠으며, 이것으로 수해를

282) 이와 비슷한 내용이 『農政全書』에 보인다. “世之言費者,吾惑焉.夫捐數萬金之費於春,而收數萬石之穫於秋,費於帑而償於田,此庸人操十一之利者尙甘心焉.曾謂善於謀國者,而顧以費爲憚乎?” 『農政全書』 卷12 「水利」 ‘西北水利’(『農政全書校注』, 301쪽).

283) 소주[姑蘇, 蘇州]: 지금의 강소성江蘇省 소주부蘇州府, 즉 상해 지역이다.

284) 3,0000승×30일=3000두×30일=300석×30일=9000석.

285) 『范文正集』 卷9 「書」 ‘上呂相公并呈中丞諒目【知蘇州時】’; 『農政全書』 卷13 「水利」 ‘東南水利 上’(『農政全書校注』, 318쪽).

286) 費: 『范文正集』 廢.

287) 食: 『范文正集』 以.

288) 而: 『范文正集』 因而.

289) 40,0000(명)×3(승)×150(일)=1,8000,0000승=1800,0000두=180,0000곡=50,0000석(?)

제거한다면 어떤 해해인들 제거하지 못하겠습니까?

臣料已巳·甲戌兩年口朝家鑄放賑濟之數,少不下五十萬石.以范仲淹所謂“人食三升”者率之,而以我東斗斛法計之,當爲四十萬人五月之食矣.以此興水利,何利之不興?以此除水害,何害之不除?

3.4.45. 저는 앞으로 구휼할 지방이 있으면 먼저 그 지방관에게 굶주린 백성 가운데 노약자와 건장한 자의 수를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약자 한 등급, 건장한 자 한 등급으로 따로 기재한 뒤, 노약자에게는 죽을 쑤어 구제해주고 건장한 자에게는 일당 쌀 3승을 지급합니다. 일부에게는 도랑[溝渠]을 열거나 준설하게 하고, 일부에게는 방죽이나 제방을 증축하게 한다면 진휼과 수리 두 정책을 일거양득하게 됩니다.

臣謂今後如有賑濟地方,先令地方官查審飢民老弱疆壯之數.籍其老弱爲一等·壯健爲一等,老弱者設粥以賑之,壯健者日給米三升.或開濬溝渠,或增築圩岸,則賑政水利,一舉兩得.

3.4.46. 재산을 없앴으나 허투루 없애지 않았고, 백성들을 수고롭게 했으나 헛수고하지 않게 했습니다. 단지 일시적인 구황에 머물지 않고 영구적인 구황에 오래도록 의지할 수 있게 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정책은 없습니다.²⁹⁰⁾

糜財而財不虛糜,勞民而民不徒勞.不堇止於一時之救荒,而可永賴於萬世之救荒,策無良於此者矣.

290) “賑政水利,一舉兩得.糜財而財不虛糜,勞民而民不徒勞.不堇止於一時之救荒,而可永賴於萬世之救荒,策無良於此者矣.” 徐有渠,「淳昌郡守應旨疏」(1799년).

<제4목 해설>

농정론의 제4목은 수리를 진흥시키는 일이다. 농정에서 수리의 중요성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치수治水를 잘 한 치적으로 하 왕조의 시조 우禹는 성인 반열에 올랐고, 역대로 중국과 한반도에서도 이 성인의 위업을 계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역대 제왕들은 치수를 통해 지세에 따라 물길을 만들어 물을 소통시키거나 인수하기도 했고, 인공적인 노력으로 물길을 바꾸기도 했다. 수리水利라고도 불리는 이 치수 사업의 축적은 ‘수리학’이라는 학문적 단계로까지 확대되었다.²⁹¹⁾ 서명응이 이미 『본사本史』에서 조선의 농서로서는 처음으로 수리학을 체계화하기 시작했고, 서호수가 『해동농서』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했으며²⁹²⁾ 서유구에 이르러 조선 수리학을 종합하기에 이른다.²⁹³⁾ 제2장에서 살폈듯이 젊은 시절부터 수리와 관련한 의견을 정조에게 개진했던 서유구는 여기에서 ‘농법을 가르쳐 땅심을 다 쓴다’는 제2목과 비슷한 분량을 할애하여 수리의 진흥을 역설했다.

서유구는 먼저 치수법의 종류를 4가지로 나눴다. 소통·물막이·저장·양 조절이 그것이다. 소통은 도랑 준설이나 하천 개통을, 물막이는 방죽이나 제방을, 양 조절은 독의 수문이나 수차를, 저장은 못이나 저수지나 호수를 통해 가능한 수리 사업이었다.(표10) 서유구는 조선의 경우 이 4가지 치수 중 ‘저장’ 기능을 제외한 3가지가 없다(3無1有)고 단언했다.(3.4.3)

<표10> 치수법의 종류와 조선의 상황

치수법 4가지	치수 시설 및 기구	조선의 상황
소통	도랑과 하천	없음
물막이	방죽과 제방	
양 조절	수문과 수차	
저장	저수지	있음

먼저, 소통이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서유구는 수리를 논하는 이들은 모두

291) 중국과 조선의 수리학에 대해서는 문중양, 『조선후기 水利學과 水利담론』, 집문당, 2000을 참조.

292) 같은 책, 121~122쪽.

293) 같은 책, 215~247쪽.

조선에는 물난리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이 보기에 조선에는 물난리가 없던 해도 없었고 물난리가 없는 곳도 없다고 역설하며 논의를 시작한다. 조선에 도랑과 하천의 소통이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한 그의 설명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사람들이 조선에는 물난리가 없다고 여기기에 땅을 아끼기 위해 도랑을 만들지 않아 도랑이 100리에 하나 꼴로 있을 지경이다. 밭에는 두둑만 있어서 실도랑조차 없으며 농부가 밭의 사방을 둘러 도랑이라도 내면 주인은 땅을 낭비했다고 걱정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가뭄 때 물 구하기 힘들고 홍수 때 배수가 힘들었다. 하지만 이런 물난리는 비단 물과 가까운 농지에서만 일어나지는 않는다. 퇴적물이 쌓인 강바닥을 준설하지 않아 가물면 배가 운항을 못할 정도이고 홍수나면 물과 멀리 떨어진 곳에도 물이 역류하여 논밭과 민가가 잠기고 사람과 가축이 떠내려간다. 이 같은 피해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것이다.(3.4.4~11)

서유구에 따르면 조선은 도랑을 내거나 준설하는 기술에 어둡다. 총 길이가 6~7리도 안 되는 한양의 청계천 준설에 내탕금을 들이고 군사들의 노역이 투입되었는데도 준설과 동시에 막히곤 했던 것이 그 예다. 이런 지경이니 수 백 리 이어진 강의 준설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중국의 물난리는 하천과 가까운 곳에서만, 그것도 백 년에 한 번 꼴로 일어나지만 조선은 장소와 해에 관계 없이 발생한다. 도랑 준설과 하천 개통의 공사가 없는 것이다.(3.4.12~14)

둘째, 서유구는 조선에 물막이 시설이 없음을 이야기했다. 중국의 경우 황화에는 천 리에 제방이, 강남에는 100리에 걸쳐 방죽이 갖추어졌는데, 그 이유는 밖의 물을 막아 논밭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조선의 경우는 10리 정도의 방죽도, 5장(=50척) 정도 높이의 독도, 독 곁에 붙여 쌓는 보조 독도 없다는 것이 서유구의 견해다.(3.4.15~17)

셋째로 조선에 없던 수리 시설은 물 조절을 하는 수문과 수차였다. 수문으로는 강우량에 따라 수문의 개폐 정도를 조절할 수 있고, 수차는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경향을 거슬러 물을 위로 끌어올려 농지의 물을 조절한다. 그런데 조선에서 쓰는 통나무 배수통은 보통 논이나 밭의 두렁 바닥에 삽입하기 때문에 흙으로 쉽게 막혀 장마 때는 효과가 없다. 물을 끌어올리는 데도 용두레를 쓰는데, 작동이 둔하여 종일 작업해도 한 두렁도 적시지 못할 정도로 효율이 떨어져서 수차라고 할 수도 없다.(3.4.18~21)²⁹⁴⁾

294) 서유구는 『본리지』에서도 조선 저수지의 수문으로 사용하는 통나무 통에 대해, 통을 보호하는 돌무더기를 설치하지 않아서 나무가 쉽게 썩거나 망가지기 때문에 보수하는 공력과 비용이 매우

이렇게 조선에 없는 수리법 세 가지를 지적한 뒤 서유구는 조선에 있는 1가지, 즉 저수지 같은 저장 시설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먼저 저수지가 정말로 조선에 있기는 하지만, 없는 거나 다름없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10~100경의 농지에 물을 댈 수 있는 저수지는 “바둑판의 바둑돌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뻘뻘할 정도로 전국에 널려 있”고, 이 저수지에 퇴적된 자리를 농지로 삼는 모경冒耕 행위를 법으로 금했으며, 저수지를 수축하는 행정 규정도 상세한 측면에서 본다면 저수지나 호수가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저수지의 본래 용도가 저수와 배수이고,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수문과 수차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수문과 수차 제도에 법도가 없는 조선에는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저수지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그는 판단했다. 게다가 세월이 오래 흐르면서 저수지에 퇴적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많은 저수지가 모경으로 없어지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면서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모경은 대부분 세력가나 관에 의해 이루어져서 왕가의 농지인 궁장宮莊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군영이나 감영의 경비를 쓰기 위한 영둔營屯이 설치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서유구는 저수지가 조선에 많이 있어도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분석한 것이다.(3.4.22~24)

서유구에 따르면 이 같은 수리 사업에서의 문제로 인해 조선에서 가뭄과 홍수의 재해가 반복되었다. 단적인 예로 1814년의 큰 가뭄은 저장과 양 조절 정책의 실패였고, 1819년 충청도의 큰 홍수는 소통과 물막이 정책이 원인이었다. 재해를 당한 지역에 전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라는 국왕의 명이 하달되어도 지방관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불모지에 전세를 매겼다. 이 상황에서 홍수나 가뭄이 또 이어지면 유랑자는 늘고 도적이 흥성할 것이었다.(3.4.26~28)

서유구는 가뭄과 홍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가지 치수법인 소통·물막이·저장·양 조절을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매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처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비변사에서 자격 제한을 두지 않고 수리에 능통한 자 3~5인을 선발하고, 비변사에 수리를 관장하는 관청을 개설하여 재상 급에서 책임을 맡는다. 이를 토대로 이 관청의 책임자로 보이는 수형감水衡監으로 하여금 수리 사업에 쓰이는 여러 준설 기구와 용골차龍骨車·통차筒

많이 든다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임원경제지 본리지』 3, 358쪽. 여기에서 『해동농서』의 이 같은 기사를 거론하며 서유구는 질그릇 통 모양인 ‘와두(瓦寶)’ 제도를 따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車·용미차龍尾車·옥형차玉衡車·항승차恒升車와 같은 각종 수차를 제작하게 한다.(3.4.29~30) 이 관청은 당시 이미 유명무실해진 제언사보다 역할이 한층 폭 넓고 강화되는 기구로 보인다.²⁹⁵⁾ 제언사는 제언의 신축 허가, 폐언廢堰 처리, 제언을 파괴하거나 모경하는 자를 적발하여 치죄하는 일 등 관청의 명칭에 걸맞게 제언 관련 업무만 맡았지만, 서유구가 제안한 ‘수리 관청’은 제언 수축과 관리 뿐 아니라 수로를 개통하거나 준설하고, 수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며, 저수지 기능의 핵심인 수문을 정교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일에도 몰두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련한 기구 및 수차를 먼저 서울과 그 주변에서 시험한다. 퇴적토가 많이 쌓인 한강의 상하류 네 곳을 소통·준설하고, 한강으로 유입되는 지천 다섯 곳에는 수문을 설치해 배수량을 조절한다. 한강 주변의 저지대는 한강의 범람을 막기 위해 방죽을 두르고 제방을 쌓는다.(3.4.32~34) 또 서울의 동서 양쪽으로는 『주례周禮』 「수인遂人」에 나오는 구혁 제도를 본받기 위해 큰 도랑은 10척 이상, 작은 도랑은 4~5척, 실도랑은 2~3척의 너비로 파서 실도랑은 작은 도랑으로, 작은 도랑은 큰 도랑으로, 큰 도랑은 다시 한강으로 이어지게 한다. 큰 도랑은 관에서, 작은 도랑은 땅주인이, 실도랑은 농사를 짓는 농부가 개통시키도록 하여 도랑 작업의 담당 주체까지 명시했다. 이와 같이 수리 사업이 완결되면 그 결과 한양 주변에서는 매년 풍년이 들 것이고, 이를 팔도에서 배우려 할 것이니, 그때 한양 주변에서 시험했던 기구나 방법을 팔도에 나누어 주면 된다.(3.4.35~37)

각 지방에서는 비변사→관찰사→수령의 명령 계통을 통해 수리를 진흥할 곳과 수해를 막을 곳을 선정하고, 소요 인원 및 비용 예상, 자금 투입 방법 등 기획 단계의 대책을 수립하며, 저수지 준설, 도랑 소통, 고지대에 도랑 내기, 저지대에 방죽 쌓기, 물살 센 곳에 수차 이용하기, 물살 약한 곳에 물길을 끌어들이기 등 현장에서의 대책을 시행한다. 또 『관자』를 본받아 5~10가구 단위로 수리 사업 조직을 만들고 수리水利 기구를 갖추어, 수확 후에는 수령이 각종 수리 시설을 증축하거나 수리하게 한다. 서유구는 이렇게 하면 10년 내에 매년 풍년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3.4.38~40)

295) “南履懋曰:(중략)‘比年以來,或不免屢歉之患,此其故何哉?大抵農功之資於水利,亦云斯博,國家所以設置堤堰司,使之專管乎八路堤堰,每歲春初,董領疏拓,俾爲當旱均漑之道.而近來此政,舉多不修.’” 『승정원일기』 순조 19년(1819) 6/9. 정조 대에도 『정조실록』 3년(1779) 10/9; 18년(1794) 8/11; 22년(1798) 11/15 등의 기사에서 제언사가 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나 수리 정책을 이처럼 많은 인력과 시간을 들여 시행한다면 반드시 비용이 많이 들어서 곤란하다는 반대론에 부딪힐 것이다. 이에 대해 서유구는 수리 사업이 비용도 많이 들고 인원도 많이 소요되지만 비용을 따지지 않고 반드시 해내야 할 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냐 하면 수리 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결국 농지에서 보상받고, 지출도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면서 이익은 오래도록 이어지기에, 좋은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데에 비용을 이유로 꺼려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다.

국가가 수리 사업에 투자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흉년으로 농민의 전세를 면제함으로써 줄어드는 국가의 채용과 비교할 때 수리 시설에 투자한 비용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송나라 범중엄(范仲淹, 989~1052)의 견해가 바로 이런 것이었다. 즉 중국의 소주(蘇州, 상해 일대)에서 재해로 면제한 세금이 30만 석이었음에 반해, 수리 사업에 1만 명을 1개월 동원하는 데 드는 비용은 풍년에는 9,000석, 흉년에는 15,000석이므로 적은 투자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서유구는 실제로 범중엄의 이 계산을 조선에 적용했다. 최근에 가장 흉년이었던 두 해(1809·1814년)에 면제한 세금이 최소 50만 석이라고 간주하면, 이 양은 자그만치 40만 명의 5개월 분 식량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정도를 투자하여 수리를 진흥시킨다면 그 효과는 두 말 할 필요 없이 긍정적이라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다.(3.4.41~44)

이 계산을 토대로 서유구는 지방의 수리 진흥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구휼할 지방을 선정하고서 그 지방의 굶주린 백성 중 노약자는 무상 구휼하고, 건장한 자에게는 쌀 3승을 지급하여 수리 진흥에 힘쓴다. 이렇게 하면 ‘진휼’과 ‘수리’를 일거양득하게 된다. 어차피 소모될 진휼곡을 수리 진흥 사업에 결부시켜 일시적 구황을 영구적 구황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3.4.45~46)

‘진휼’과 ‘수리’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법에 대해서 서유구는 1792년 족속이자 박제가·이덕무·유득공과 함께 ‘4검서(檢書)’로 알려진 서이수(徐理修, 1749~1802)가 구휼을 진작하기 위해 진잠 현령의 임무를 맡았을 때, 그를 송별하는 글에서 이미 피력한 바 있다. 즉 기민(飢民)을 구제하는 방법에는 세 분류로 나누어 해야 하는데, 농지가 있는 이들에게는 종자를 빌려주어 농사를 짓게 하고, 노약자나 무연고자에게는 무상으로 죽을 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관에서 고용해서 수리 사업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 중 마지막의 수리 사업이 가장 좋다고 했다.²⁹⁶⁾ 또

296) “余與友人私論荒政,以爲救荒當分三等爲之.飢民有田業者出粟以貸之,老弱癯疾最無告者設粥以食

한 제2장에서 언급했듯이 이미 20여 년 전 「순창군수옹지소」에서도 이런 생각의 일단을 밝힌 바 있었다. 이로 볼 때 수리 정책에 대해서는 젊은 시절부터 꾸준한 관심을 지속했으며 노년에도 그 기조는 크게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서유구의 수리 사업에 대한 견해는 조선후기에 수리 시설의 발달이 농업생산력을 증대시켰다는 기존 연구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조선후기의 수리에 대해 매우 후하게 평가했다. 저수지나 천방(川防, 보)의 발달로 작물, 특히 논에서 벼 수확량이 늘었다고 한다.²⁹⁷⁾ 『탁지지』(1782년)에 기록된 제언 수는 총 3,378개였다.²⁹⁸⁾ 『만기요람』(1808년)에 수록된, 당시 수리가 가능한 저수지는 3,527곳이었고, 보는 2,265개였다.²⁹⁹⁾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듯이 서유구는 이렇게 저수지나 보가 많은 현상에 대해 결코 긍정적이지 않았다.

이보다 앞서 정조도 조선의 대표적인 저수지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저수지가 있어도 관리가 안 되어 모경을 일삼거나 가뭄에도 마르고 장마 뒤에도 얼마 가지 않아 말라버린다고 했다.

지금은 제언의 정사를 포기한 지 오래되어 메워진 저수지에 불법으로 농사짓는 일이 잇다르고 있다. 예를 들어 호남의 벽골, 호서의 함덕, 영남의 공검, 관북의 칠리七里, 관동의 순지蓴池, 해서의 남지南池, 관서의 황지黃池는 나라 안의 큰 저수지로 일컬어진다. 하지만 터놓을 곳이 터져 있지 않고 물이 괴어야 할 때 괴지 않아 장마가 지나간 뒤 즉시 말라 버려 해마다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현재의 큰 계책으로는 이미 있는 큰 저수지를 손대는 일보다 먼저 할 것이 없다.³⁰⁰⁾

이 글은 정조의 ‘권농정구농서윤음’(1798)에 나오는 말인데, 농정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던 정조 대에서조차도 저수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의상경제책』이 저술될 무렵에도 이런 현상은 마찬가지였다. 경연의 시독관으로 참

之,其餘則官爲雇募,興作水利.而三者之中水利最善,糜財而財不虛糜,勞民而民不徒勞.且可使一境之內,永賴其利.故賑貸設粥,一時之救荒,而興作水利,萬世之救荒策,無良於此者也.” <<全集>> 『金華知非集』 卷3 「序」 ‘送族叔理修之任鎮岑序’(<<叢刊>> 288, 352쪽) 저술연대는 이 글의 서두에 “壬子(1792)之冬,兩湖告饑,朝廷方選守令亟賑賑,族叔理修由內閣檢書,出宰於湖西之鎮岑.”이라는 대목에서 알 수 있다.

297) 廉定燮, 「농업생산력의 발달」, 한국역사연구회 엮음, 『한국역사입문』 ②, 407~408쪽.

298) 염정섭, 『조선후기 농업발달 연구』, 355쪽.

299) 『萬機要覽』, 「財用編」 5 “堤堰” ‘各道堰淤’.

300) “今也堤政久拋,冒耕相續.如湖南之碧骨·湖西之合德·嶺南之恭儉·關北之七里·關東之蓴池·海西之南池·關西之黃池,號稱國中大堤,而疏處不疏,濇時不濇,行潦其涸,歲比不登,爲當今之碩畫,莫先乎已有之大堤而著手.” 『홍재전서』 제29권 「윤음綸音」 4 ‘농정農政을 권면하고 농서農書를 구하는 윤음’.

석했던 남이무(南履懋, 1780~?)는 조선에서 가장 큰 저수지들이 거의 다 메워졌고 작은 못이나 보들도 대부분 땅으로 변하여 수리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순조에게 설명했던 것이다.³⁰¹⁾

천방(보)의 경우 그 수가 매우 많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나 서유구는 이에 대해 그다지 중요한 수리시설로 강조한 적이 없었다. 다만 돌을 바구니에 넣어서 만든 중국의 ‘석룡石籠’을 소개하는 곳에서 조선의 예를 들고 있다.³⁰²⁾ 이는 보를 만드는 법이었는데, 물가 농지에서 종종 이 방법을 쓴다고 했다. ‘종종’이라는 표현에서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인식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경상도에는 보가 특히 많았는데 말이다. 『택지지』와 『만기요람』에 기재된 제언의 수치와 실제 역할 사이의 간극은 커 보인다.

301) “雖以海西南大池,嶺南恭儉地,湖西大蓮堤·義林池之國內陂澤中最大者言之,幾皆堙塞.其餘小小池淤之各在郡縣者,殆乎成陸,小經旱乾,則無路灌溉,三農失望,爾風豫備之義,猶或未盡於今日而然矣.” 『승정원일기』 순조 19년(1819) 6/9.

302) “我東瀕川之田,往往有倣此法禦浪者.或用柳枝,或用荊條,編作大籠,內貯石礫,沿溪堆列,以防暴潦衝囓.其或用蘆苫貯土者,殊不能耐久也.又或斫取松櫟枝幹作叉者,樹椿岸上,掛其叉幹於椿,使其枝葉倒浮水面,亦能一時距浪,使作洄流.俗謂之距薪.” 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임원경제지 본리지』 3, 소와당, 2009, 360쪽.

3.1.5. 제5목 ‘번전 및 이모작(간종·근경) 금지하기’

3.5. 번전을 금지하여 명과 실을 밝힌다

3.5.1. 다섯째, 번전反田을 금지하여 명과 실을 밝히는 일입니다.³⁰³⁾

五曰禁反田以覈名實.

3.5.2. 제가 삼가 법전을 살펴보니 밭에 목화 이외의 작물을 재배하면 비록 재해를 입었어도 세금 감면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밭에서는 1년에 2번 수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100년 간 쌀밥을 먹는 풍속이 성행하면서 옛부터 조나 맥류[麥]를 재배하던 밭을 논으로 바꾸어 만들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민간에서는 번전反田이라 하는데, 번反은 번(翻, 바꾼다)의 뜻으로, 밭을 바꿔 갈아서 논으로 만든다는 말입니다.³⁰⁴⁾

臣謹稽國典陸田種木縣外,雖遇災傷,不許放稅.蓋以其一年再穫也.然近自百年以來,飯稻之風盛,而從古粟·麥之田無不翻作水田.俗呼爲反田.反者翻也,謂翻耕旱田而作水田也.

3.5.3. 물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벼가 눈앞에 펼쳐진 마른 밭은 반드시 모두가 도랑[渠]을 낸 물길이 있지는 않습니다. 지세가 높은 곳으로, 두렁과 두둑이 섞여 있는 비탈 밭은 반드시 모두가 물을 끌어들일 수원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다 많은 비를 만나면 요행으로 식량을 얻기도 하지만, 한 번이라도 가뭄이 있으면 바로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됩니다.

遠水之乾坪稻秔彌望者,未必皆穿渠之有路也.高亢³⁰⁵⁾之危坂畦塍錯互者,未必皆泉源之可引也.偶值潦澇,幸得一食,一有旱暵,輒致全荒.

3.5.4. 나라 안의 논밭 전체를 통틀어 계산할 때 이런 번전이 1/3이나 됩니다.

303) 번전으로 과생되는 문제는 서유구의 「淳昌郡守應旨疏」(1799년)에서 이미 논의했다. 『楓石全集·金華知非集』 권1 「上疏」. 정약용은 도맥이모작의 단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금지하자고 주장했다. 김건태, 『조선시대 양반가의 농업경영』, 역사비평사, 2004, 323~325쪽.

304) 『임원경제지 본리지』 1, 201~294쪽; 『杏蒲志』 卷1 「田制」(『農書』 36, 51~52쪽)에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

305) 亢: 『의상경제책』 元. 의미에 따라 교감함.

하지만 이런 곳은 토지대장에 지목을 밭으로 기재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금이라도 세금을 감면해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만약 지목 분류에 착오가 있다면 담당 관리가 엉터리로 조사한 책임이 있을 것이고, 규정대로 준수한다면 백성들은 농사도 되지 않은 밭에 부과한 세금을 물어야 하는 꼴입니다. 이는 이미 명과 실을 종합적으로 밝혀야 하는 방도에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通計一口國田總,此類三分居一,而以其繫在旱田之籍,原無把束益³⁰⁶放之例.區別一差則吏有幻勘之失,事目是違則民供不佃之稅.此已有乖於綜名覈實之道.

3.5.5. 제가 듣기로 산 꼭대기에서 복령을 채취함³⁰⁷을 시인이 드러내어 비난했고, 흙을 분별하여 농사법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주례』에서는 교훈을 들었다 합니다. 가뭄을 싫어하는 품종을 메마른 곳에 억지로 심었다가 요행히 만에 하나 잘 여물면 여덟 식구의 밥을 맡기겠다는 것이니, 이렇게 영성한 방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얻을 것은 매우 적고 잃을 것은 매우 많으니, 이는 농가에서 가장 꺼리는 일이며 왕도 정치[王政]에서 반드시 금지해야 할 일입니다.

而臣聞山巔采³⁰⁸苓,詩人著譏,辨壤教稼,周官揭訓.夫以畏旱之種,強植燥涸之地,僥倖萬一之熟,以寄八口之餐,又何其術之魯³⁰⁹莽哉?所獲甚尠,所失甚多,此農家之所最忌而王政之所必禁者也.

3.5.6. 양전量田하는 관리에게 논밭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확실하게 조사하게 하되, 물을 끌어들이 천이 있거나 수차로 끌어올릴 저수지가 있거나 물 댈 우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랑[渠]으로 끌어들이도 연결되지 못하거나 수차로도 끌어올릴 수 없는 곳은 모두 밭으로 다시 만들어 조·콩·삼·맥류 등속을 재배하게 해야 합니다. 본래 습지인데다가 수원이 없는 곳으로, 가물면 단단하게 굳어버리고 비가 오면 바로 잠기는 곳이 혹시 있으면, 이곳은 밭벼[旱稻]나 논피[水稗] 등 장마나 가뭄을 싫어하지 않는 종을 심게 합니다.

宜令量田官吏逐一查明,除非有川可引·有陂可戽·有井可溉者外,其渠引不至·車戽不及者,一切還作陸田,種藝粟·菽·麻·麥之屬.或有性沮濕而無水源,旱則(歹+ 胡)落,雨輒浸淹

306) 益: 鑷(건)의 오기로 보인다. 번역은 鑷을 따름.

307) 산~채취함: “采苓采苓首陽之巔,人之爲言苟亦無信舍施舍施苟亦無然,人之爲言胡得焉” 『毛詩注疏』卷10 「國風·唐」 ‘采苓’.

308) 采: 『의상경계책』 米. 「순창군수응지소」 採.

309) 魯: 『의상경계책』 ‘순창군수응지소」 鹵.

者,藝以旱稻·水稻等不畏水旱之種.

3.5.7. 관리는 법령의 조문을 엄하게 세워 농부[佃戶]에게 확실하게 일깨우게 하고, 몰소[弓] 조사 대장을 만들어 감사에 대비하도록 합니다. 어긴 농부는 법전[大典]에 명시한 ‘허가 없이 짓는 농사[冒耕]’에 대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농지에는 물 없는 논이 없게 하고, 재배할 때는 재배 못할 종자를 재배하지 않게 하면 논과 밭이 모두 알맞게 됩니다. 가뭄과 장마를 굳이 고려하지 않는 조건 또한 백성의 먹을거리를 여유롭게 하고 재해에 대비하는 한 방도인 것입니다.

嚴立科條,曉諭佃戶,弓造案冊以備勘考.犯者施以大典冒耕之律,使田無無水之水田,種無不藝之穀種,則水陸皆宜.旱澇無虞亦裕民食備災荒之一道也.

3.5.8. 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밭에서 2번 수확한다.’는 말은 대개 맥류를 베고 나서 조를 재배한다거나 조를 베고 나서 맥류를 재배하는 따위를 가리킬 뿐입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농사의 말세에 생긴 잘못입니다. 맥류는 양 사일社日³¹⁰⁾을 거친 이후에야 이삭과 알곡이 영글기 때문에,³¹¹⁾ 파종은 7월 말에 하지 못했다면 반드시 8월 초에는 해야 합니다. 농가의 속담에 “사일社日 뒤에 보리·밀을 파종하려면 씨 뿌리는 기구[耰]를 다투어 이집저집 돌려야 한다”³¹²⁾고 한 것도 때를 서둘러 맞춰야 한다는 말입니다.³¹³⁾

臣又竊謂謂“陸田再穫”者,蓋指刈麥而種粟·刈粟而種麥之類耳.然此皆農之未失也.麥經兩社而後實穎實粟³¹⁴⁾,故其種不在七月之末,必在八月之初.農家諺云“社後種麥,爭回耰”,亦言其趨時之急也.

3.5.9. 요새는 5월에 맥류를 베 뒤 비로소 조·콩을 파종하니, 이는 늦게 여우는 조·콩입니다. 수확은 반드시 9~10월에 하기 때문에 조를 베 뒤 맥류를 파종하면 시기가 늦어 수확이 적어지는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디에 밭갈이 3회, 씨레질 6회, 둔차礮車 굴리기, 땅고르기[曳耨] 하는 법³¹⁵⁾을 따지겠습니

310) 사일社日: 토지신에 제사지내는 절일節日로, 입춘과 입추 후 5번 째 무일戊日이다.

311) 『진부농서陳敷農書』의 “맥류는 추사일과 춘사일을 거치면 수확이 배로 늘어나고 낱알이 단단하고 알차진다.”(『임원경제지 본리지』 2, 316쪽)는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312) 『임원경제지 본리지』 2, 316쪽. 『사농필용』 기사에 나온다.

313) 이 단락을 포함하여 아래 두 문단은 근경(이어짓기)의 폐해에 대해 말한 것이다.

314) 實穎實粟: 이 용례는 “誕后稷之穉,有相之道.弗厥豐草,種之黃茂.實方實苞,實種實褒.實發實秀,實堅實好.實穎實粟,即有邵家室.”『詩經』「大雅」‘生民’.

까? 겨들이 없기에 서둘러 겨우 밭갈이나 하고 바로 파종합니다. 싹은 덩어리들이 남은 거친 흙에서 나왔다가 봄 가뭄을 한 번 만났다 하면 10에 7~8은 말라 죽습니다.³¹⁶⁾

今五月刈麥,始種粟·豆,則是粟·豆之晚熟者也.收穫必在於九十月之間,故刈粟種麥,不勝其晚蒔薄收之懼.更安問三耕·六耨·碾砟·曳耩之法也?忙迫忽猝,才耕卽種.立苗在龜土之中,一遇春旱,十枯七八.

3.5.10. 밀은 더욱 늦게 여물기 때문에 수확기는 대부분 한여름에 있습니다. 흙은 축축하고 무더운 날씨에다 큰 비가 오는³¹⁷⁾ 꼭 그맘때라, 밀을 벤 뒤 조를 파종하면 ‘습할 때 밭갈이나 김매기를 하지 말라’³¹⁸⁾는 주의를 쉽게 범하게 됩니다. 그러다 뜨거운 햇볕을 쬐면 흙은 단단하게 굳어서 종자를 낭비하고 밭을 망칩니다.

小麥尤晚熟,收刈之期多在深夏.政當土潤溽暑大雨時行之候,刈麥種粟,易犯濕耕·澤鋤之戒.遇暘堅垆,費種而傷田.

3.5.11. 혹 가을에 밀이나 보리를 고랑에 파종하고, 봄에 조나 콩을 두둑에 파종한 밭은 다른 작물들끼리 서로 어긋나서 지력을 나눠서 소모시킵니다. 보리나 밀이 무성하면 조가 별 볼 일 없고, 조가 잘 익으면 보리나 밀이 망합니다.³¹⁹⁾

或有秋種秣·粳于畎,春種粟菽于隴者,則異類交戛,分耗地力.麥盛則粟衰,粟稔則麥荒.

3.5.12. 그러니 이런 재배법은 모두 법을 만들어 금지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금지하는 못 시킬지언정 차마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요새는 백성들에게 큰 소리 치며 “이는 1년에 2번 수확하는 방법이다. 조에서 실패해도 오히려 보리나 밀은 건질 수 있으니,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권유한다면, 도둑에

315) 밭갈이~법: 서유구가 밭 손질 때 제안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316) 『임원경제지 본리지』 2, 289쪽; 『杏菴志』 卷2 「種植」(『農書』 36, 130~131쪽)에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

317) 흙은~오는: ‘土潤溽暑大雨時行’를 옮긴 것으로, 『禮記注疏』 「月令」 ‘季夏之月’에 나온다.

318) 이 주의의 원문은 다음 글에서 온다. “諺曰:‘濕耕澤鋤,不如歸去’,言無益而有損.(속담에 ‘습할 때 밭갈이나 김매기를 하느니 집에 돌아가는 게 낫다.’고 했으니, 이익은 없고 손해만 있다는 말이다.)” 『齊民要術』 卷1 「墾耕」 1(『齊民要術校釋』, 38쪽); 『農政全書』 卷6 「農事」 ‘營治 上’(『農政全書校注』, 135쪽); 『임원경제지 본리지』 2, 103쪽.

319) 사이짓기(간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있다. 『임원경제지 본리지』 2, 288쪽, 330쪽; 『杏菴志』 卷2 「種植」(『農書』 36, 129~130쪽, 140~141쪽)에 비슷한 지적이 있다.

게 강도질 하라고 가르치는 일³²⁰)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밭에서
의 세금 감면하는[檢放] 법은 모두 논에서의 예를 따른 뒤에, 준엄한 법령을
엄격하게 세워 1년에 2번 재배하는 잘못된 관습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此皆宜設法而禁之者也.縱不能禁之,其忍基之乎?今號於民曰:“是一年再穫者也.雖失於
粟,尙得於麥,可無稅乎?”,不其幾於教猱升木也乎?臣謂陸田檢放之法一依水田之例,然
後嚴立峻令,禁其一年再種之謬習乃可也.

320) 도둑에게~가르치는 일: 教猱升木(교유승목, 원숭이에게 나무에 오르라고 가르침. 인신하여 나
쁜 사람에게 나쁜 일을 하도록 가르친다는 뜻.)을 의역했다.

<제5목 해설>

제5목은 서유구가 이미 20여 년 전 「순창군수응지소」에서 정조 윤음의 ‘알맞은 토양을 살피는 일[相土宜]’에 대한 답에서 제안한 내용과 유사하다. ‘번전을 금지하여 명과 실을 밝히기’를 제목으로 내세운 제5목에서 ‘번전反田’이라는 용어는 본래 밭이었던 농지를 논으로 바꾸거나, 논을 밭으로 바꾼다는 뜻이나, 서유구는 전자의 의미로 사용했다. 밭은 목화밭을 제외하고는 재해를 당하더라도 급재(給災, 재해로 인한 전세의 감면이나 면제)를 받지 않았다. 이는 조선 초부터 적용된 법으로, 가뭄이나 홍수로 밭에서 실농해도 두 번 재배하여 두 번 수확하므로 나머지 한 번의 수확물이 있기 마련이라는 전제 때문에 가능한 정책이었다.(3.5.2) 예를 들어 같은 밭에 봄철에는 조나 콩을 재배하고, 이 작물을 수확한 뒤 다시 가을철에는 보리나 밀 같은 맥류를 이어짓는다.

밭은 조선 초기에는 약 80퍼센트를 차지할 만큼 농지의 대다수를 차지했다.³²¹⁾ 논이 전체 농지의 1/5 정도였던 이 같은 추세는 임란 후 쌀이 주요 작물이 되면서 논으로의 번전이 성행함에 따라 차츰 변해갔다. 이로 인해 논의 비율도 약 25퍼센트로 높아졌다.³²²⁾ 논 입지조건은 무엇보다도 그곳에 물을 댈 수 있느냐는 데 있다. 번전의 대부분은 논 입지에 맞지 않는, 물을 댈 수 없는 천둥지기(봉천답)였다. 비가 많은 해에는 이런 번전의 수확도 좋지만 그렇지 못한 해는 실농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던 것이다.(3.5.3) 이런 이유로 천둥지기의 이앙은 조선 초부터 금지되었다.

이앙이 일반화된 조선후기에도 이런 금령이 자주 내려졌으나, 그럼에도 천둥지기는 점점 확대되었다. 서유구가 분석한 바로는, 이런 번전이 농지 전체의 1/3이나 될 정도였다. 이 상황에서 문제는 명명은 ‘밭’이고, 실實은 ‘논’이기에 명실이 상부하지 않음으로써 농민이 급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만약 양전 시 지목을 분류할 때 ‘논’을 ‘밭’으로 착오하여 기재했다면 양전 관리에게 책임이 있는

321)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팔도의 밭은 총 1,233,774결로 농지 전체의 72.0퍼센트(1,233,774/1,713,726)였다. 그러나 밭은 논보다 전품이 낮았기 때문에 밭 1결의 넓이가 논 1결의 넓이보다 넓었다. 그 비율을 추정하기 위해 이호철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종료 직전(1913년)와 토지조사사업 직후(1919~1921년)에 조사한 농지 넓이 통계에서 당시 밭과 논의 실제 넓이 비율을 구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세종 대 밭과 논 비율은 ‘81.0 : 19.0’였다. 李鎬澈, 『朝鮮前期 農業經濟史』, 한길사, 1986, 262~265쪽 중 특히 주 57 참조.

322) 위의 주에 소개한 글에서 이호철이 제시한 방법으로 『만기요람』에 나오는 팔도의 밭과 논 비율을 구하면 ‘75.2 : 24.8’가 된다.

셈이고, 규정대로 ‘밭’을 기준으로 전세를 부과한다면 수확도 못한 농지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백성이 억울하게 될 것이다. 명과 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이유이다. 하지만 양안에 지목地目이 ‘밭’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을 ‘논’으로 전환했다가 재해로 실농했을 경우, 그 논을 구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이런 이유로 서유구는 논에서 재배해야 할 벼를 봉천답에 재배하는 일은 농가에서 가장 꺼리는 일이자 왕의 정사에서도 금지해야 할 일로 규정했다.(3.5.4~5)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침으로 서유구는 양전할 때 담당 관리가 농지 하나하나를 조사하여 물델 수 없는 곳에 만든 논을 다시 밭으로 만들도록 했다. 농부가 이를 어길 경우는 모경冒耕에 해당하는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양안의 지목과 실제 지목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던 것이다. 번전을 금지하자는 서유구의 오래된 주장은 당시 논농사 성행 풍속을 부정적으로 보고 금지하려 했던 정부의 방침과 크게 다르지 않다.(3.5.6~7)

번전의 법적 대책을 제시한 제5목에서 서유구는 여기서 더 나아가 당시 성행했던 밭에서의 이모작 관행을 법으로 금지하려고까지 했다. 이모작 농법의 하나인 ‘근경(根耕, 그루갈이)’은 앞작물(전작) 수확 후 밭을 다시 갈아 뒷작물(후작)을 재배하는 농법으로, 이어짓기라고도 한다. 당시 근경법이 이루어진 방식은 ‘맥류-조’ 또는 ‘맥류-콩’의 이모작이다. 또 다른 이모작 농법인 간종은 앞작물이 성장하고 있는 고랑과 고랑 사이에 만들어진 두둑에 뒷작물을 재배하는 농법으로, 사이짓기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맥류를 가을에 밭의 고랑에 파종하고 고랑과 고랑 사이에 남겨 둔 두둑에는 이듬해에 조나 콩을 파종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서유구는 “밭에서 2번 수확한다.”는 근경이나 간종 농법이 “농사의 말세에 생긴 잘못”이라고 진단했다.(3.5.8) 먼저 근경은 앞작물과 뒷작물의 수확기와 파종기가 잘 맞아야 문제가 적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 농사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이 생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맥류와 조를 근경으로 재배하는 근경법의 경우 맥류는 5월에 거두며, 맥류를 벤 뒤 뒷그루를 파종해야 하므로 늦조나 늦콩을 재배해야 한다. 9~10월에 늦조를 수확한 뒤 맥류를 파종하려면, 맥류 파종 적정기인 7월 말~8월 초를 이미 넘겼기 때문에 농작업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겨우 밭갈이나 한 번 하고 바로 파종하게 되니 “싹은 덩어리들이 남아 있는 거친 흙에서 나왔다가 봄 가뭄을 한 번 만났다 하면 10에 7~8은 말라죽”는다.(3.5.8~9) 밭을 재배했을 경우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밭은 보리보다 수확기가 늦어 한여름(6월)에 수확해야 한다. 이 수확기가 대부분 장마철과 겹치기 때

문에 습기를 많이 머금은 흙을 갈아야 하고 그 결과 장마가 끝나거나 소강기에 햇볕을 쬐면 갈아놓았던 흙이 단단하게 굳어 파종 효과가 감소한다.(3.5.10)

간종법(사이짓기)도 서유구에게는 근경법과 마찬가지로 말세의 잘못된 농법이 었다. 간종법은 작물의 생장 기간이 겹쳐서 파생되는 이어짓기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서유구는 이 사이짓기는 두 작물이 지력을 다투어서 둘 중 하나는 실패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즉 “보리나 밀이 무성하면 조가 별 볼 일 없고, 조가 잘 익으면 보리나 밀이 망”한다는 것이다.(3.5.11)

여기서 언급한 근경법과 간종법은 당시 지배적인 농법이였다. 서유구도 이런 상황을 자신의 『본리지』에서 토론했다. 그는 이 책에서 『농사직설』의 간종법을, “밭이 적은 이는 보리나 밀의 이삭이 패지 않았을 때 두 두둑 사이를 얇게 갈고 콩을 파종한다.”³²³⁾라고 소개하고서 간종법이 당시에 통용되는 농법이였지만 좋은 농법이 아님을 주석에서 밝혔다.

이 방법은 지금 민간에서 두루 쓴다. 팔도 이렇게 파종할 수 있다. 그러나 보리의 그늘에 가려져서 잘 자라지 못하니, 좋은 방법이 아니다.³²⁴⁾

콩이나 팥을 파종하기 이전 해에 보리를 파종해서 보리가 나중에 심은 이 작물보다 성장 속도가 빨라 새싹의 성장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좋은 재배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의상경제책』에서 지적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이유였다. 『농사직설』의 간종법을 이후 재 수록했던 『농가집성』이나 『산림경제』 같은 책에서는 서유구가 했던 식의 반론은 없었다. 간종법을 당시의 농법으로 소개했을 뿐 비판적으로 보지는 않았던 것이다.

또한 『본리지』에서는 근경법도 당시에 통용되는 농법으로 소개했다.

맥류를 베고서 콩이나 조를 파종하는 것을 향촌에서 ‘그루같이’라고 일컫는데, 지금 농가에서 두루 쓴다. 그러나 6~7월에는 해마다 폭우가 많아서 한번 김매기 할 때를 놓치면 곧 다시는 손질할 수가 없게 된다. 팥은 습기를 더욱 싫어하여 물 때문에 망치기 쉽다. 그러므로 그루같이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먼저 밭두둑을 끊고 도랑을 가로로 내

323) “田少者, 兩麥未穗時, 淺耕兩畝間, 種以大豆.” 『農事直說』 「種蕎麥」(『農書』 1, 20쪽); 『農歌集成』 「農事直說」 「種蕎麥」(『農書』 1, 164쪽); 정명현·김정기 역주, 『임원경제지 본리지』 2, 366쪽.

324) “此法, 今俗所通行也. 小豆亦可種. 然翳在麥蔭, 鮮能滋長, 非良法也.” 정명현·김정기 역주, 위와 같은 곳.

서 물길을 시원하게 뚫어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0에 3~5는 잃는다.³²⁵⁾

이와 더불어 콩이나 조 같은 보리 뒷그루가 장마로 인해 제초시기를 놓치거나 수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을 거론하며 배수로를 반드시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역시 좋은 농법이 아님을 시사하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농촌 선비에게 필요한 농사 정보를 제공하려는 『본리지』의 성격 상 제도적인 차원의 제안까지는 삼갔다.

이상의 두 기사를 보면 당대에 통용되는 밭 농법은 간종과 근경이었다.³²⁶⁾ 서유구는 『본리지』에 나오는 농법 설명에서 ‘통행(通行, 두루 쓴다)’이라는 표현을 총 3회 사용했다. 간종 및 근경, 그리고 상수리나무 잎[櫟葉]을 거름으로 쓰는 일³²⁷⁾, 이 세 가지다. 그렇다면 간종과 근경이 당시 밭농사의 주종이었음은 충분히 알 수 있다. 주종이었다 함은 소농만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넓은 농지를 소유한 광농廣農도 모두 이 방법을 쓴다는 뜻이다. 간종, 근경 이 농법은 조선 후기에 거의 모든 농가에서 쓰던 농법이었다.

『의상경제책』에서는 이 간종법과 근경법을 “모두 법을 만들어 금지시켜야” 한다며 국가가 이 농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주장했다. 그럼에도 관리들은 “이는 1년에 2번 수확하는 방법이다. 조에서 실패해도 오히려 보리나 밀은 건질 수 있으니,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며 간종법과 근경법을 금지할 수 없었음을 백성에게 오히려 더 권유했다고 한다. 서유구 입장에서 이렇게 기존 농법의 답습을 권유하는 태도는 도둑에게 강도질하라고 가르치는 일이나 다름없었

325) “刈麥而種豆粟，俗稱根耕，今農家之所通行也。然六七月之間，每多淫霖，一失鋤工，便不可復治。小豆尤惡濕易敗。故凡根耕者，宜先截蘗作橫溝，以清理水道。不然則十失三五也。” 정명현·김정기 역주, 『임원경제지 본리지』 2, 370쪽.

326) 이전의 연구에서도 이 두 농법이 조선 후기의 주된 밭 농법임을 보여주고 있다. 閔成基, 『朝鮮農業史研究』, 一潮閣, 1988, 제5장 「朝鮮後期 旱田輪作農法の展開」; 嚴正섭, 『조선시대 농법 발달 연구』, 제2부 제4장 「旱田 二毛作 경작방식의 고도화」; 김건태, 『조선시대 양반가의 농업 경영』, 제3장 「이양법의 활용」; 안승택, 『식민지 조선의 근대농법과 재래농법 : 환경과 기술의 역사인류학』, 신구문화사, 2009, 제4장 「조선후기의 농업기술론 분화와 두 가지 농업론」 등 참조.

327) “상수리나무 잎은 밭을 가장 기름지게 한다. 지금 산이나 들판에서 논을 가꿀 때 너무 넓어서 쪼그려 앉을 골고루 다 뿌릴 수 없는 곳에서는, 이것을 가장 좋은 거름으로 삼는다. 매년 4월, 잎이 무성해지면 여러 사람들을 모아 잎을 고루 따서 밭에 두껍게 깔 다음, 물을 끌어다가 대주어 오랫동안 담가놓고 썩힌 뒤에 모를 심는다. 이 방법은 남쪽 지방과 북쪽 지방에서 두루 쓰인다. 櫟葉最能肥田. 今山野治田, 廣闊糞溷不敷處, 惟以此爲上肥壅. 每四月, 葉盛, 衆力齊摘, 厚布田面, 引水灌之, 令溷淹腐化, 然後插秧. 此南北之所通行也.” 『杏菴志』 卷2 「淤蔭」(『農書』 36, 97쪽); 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임원경제지 본리지』 2, 166쪽.

다.(3.5.12) 이처럼 그가 물 확보가 어려운 농지는 논으로 바꾸지 않도록 하고, 이미 바꾼 농지도 원 상태로 되돌리도록 하며, 그 밭에서 간종법이나 근경법을 쓰지 않도록 했다는 데에서 조선 전역에서 두루 쓰는 주요 농법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간종법과 근경법의 제도적 금지는 조선에서의 밭농법의 근간을 바꾸는 일이나 다름없었다.

서유구는 제5목의 마지막을 “밭에서의 세금 감면하는 법은 모두 논에서의 예를 따른 뒤에, 준엄한 법령을 엄격하게 세워 1년에 2번 재배하는 잘못된 관습을 금지시켜야 합니다.”라는 말로 마무리했다. 조선 초부터 밭에서는 급재가 적용되지 않았는데도 이런 법을 개혁하자고 했다. 밭에서도 논에서처럼 재해가 생길 때 감면하는 법을 적용하자라는 것이다.³²⁸⁾ 이는 한 농지에서 간종이나 근경 같은 이모작을 금지하여 단일 작물만 재배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제안이었다. 기존 농법을 폐기한 뒤의 대안이 제2목에서 논의했던, 1년 1작을 하는 견종법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주장이 가능했던 것이다.

1년 1작 견종법은 서유구가 보기에 이모작보다 수확량이 더 많다. 그는 노농으로 보이는 농부와와 대화 기록에서 조선의 밭갈이와 견종법의 밭갈이를 통한 농법을 비교해 보았다. 즉 기존의 농법으로 100묘(=1경) 농지에 고랑과 두둑을 각각 150~200개씩을 만든다면, 간종을 할 경우에는 고랑과 두둑을 모두 사용하고 그루갈이를 할 경우에는 두둑만을 2회 쓰므로 모두 300~400개의 두둑(또는 두둑과 고랑)에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견종법으로 두둑과 고랑을 만들면 너비가 조선의 그것보다 작기 때문에 각각 300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밭을 만든 견종법을 쓰면 제2목에서 분석했던 만전과 대전의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견종법에서 수확량이 두 배가 더 높다.³²⁹⁾ 그가 말한 만전은 두둑에다 작물을 재배

328) 이 같은 서유구의 언급은 조선후기에 통용된 밭농법인 근경법과 간종법의 확산 이유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전의 여러 연구자들은 간종법이나 근경법이 민간에서 저절로 보급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측면 외에 관에서 유도한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간종법과 근경법을 권유하는 일은 세금 확보를 위한 권농책일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사직설』에는 간종법이 밭이 적은 이[田少者]가 재배하는 방식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아마도 조선초에는 간종법보다는 근경법이 주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329) -서유구: “100묘의 농지에 두둑과 고랑은 몇 개 만드는가.”(復問曰: “今有百畝之地, 用東法耕之, 得幾壟·幾畎?”)

-농 부: “밭갈이를 잘 하는 이는 두둑을 높게 하고 고랑을 좁게 해서 두둑과 고랑 200개씩 만든다. 밭갈이를 잘 못하는 이는 두둑과 고랑을 넓게 해서 두둑과 고랑 150개씩 만든다.”(曰: “善耕者, 高作壟, 狹作畎, 可得二百壟·二百畎; 不善耕者, 廣作壟, 廣作畎, 可得一百五十壟·一百五十畎.”)

-서유구: “지금의 100묘의 땅으로는 옛법을 따르면 두둑과 고랑을 각각 300개씩 만든다. 고랑

하는 방식이므로 간종과 근경 모두가 해당된다. 100묘에서의 수확량이 몇 석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전의 제2목에서 언급했던 견종법의 효과를 염두에 둔다면 수확량의 차이가 확연할 것이다.

『의상경제책』의 11개 목 중에서 가장 적은 분량을 차지하는 이 제5목은 내용은 간단하지만 조선에서 주로 쓰던 농법 3가지(번전·간종·근경)를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 번전을 통해 논에서의 이앙법을 확산시키는 일, 간종과 근경을 통해 1년에 두 번 수확하는 일은 기존의 연구에서 조선후기의 생산력을 증대시켰다고 이해된 핵심적인 농업기술이었다.³³⁰⁾ 하지만 농업생산력이 증대되었다는 18세기 말, 19세기 전반을 경험했던 서유구는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150개에는 보리를, 나머지 고랑 150개에는 조를 심으면 땅 넓이가 전보다 넓어지지는 않았으나 수확량은 몇 배나 될 것이다. 어찌 꺼리기만 하고 하지 않는가?”(復問曰:“今將百畝之地,倣古法作三百畝.以一百五十畝種粟,一百五十畝種麥,則地之廣邪不加於前,而得穀之多可倍焉蓰焉.何憚而不爲?”)『杏菴志』卷2「種植」‘種粟’(『農書 36』, 135~136쪽).

330) 閔成基, 『朝鮮農業史研究』, 169~196쪽; 엄정섭, 『조선시대 농법 발달 연구』, 207~268쪽; 김건태, 『조선시대 양반가의 농업경영』, 127~158쪽 등.

3.1.6. 제6목 ‘둔전 넓혀 부국 만들기’ 역주

3.6. 둔전을 넓혀 부국을 만든다

3.6.1. 둔전 시행의 필요성

3.6.1. 여섯째, 둔전을 넓혀 부국을 만드는 일입니다.

六曰廣屯田以富儲蓄.

3.6.2.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중국의 재용 관리는 좋은 방법으로 삼기 쉽고, 우리 동국에서 말하는 재용의 이익에 관한 논의는 좋은 방법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주례』의 ‘태재太宰’에서는 9부賦³³¹⁾를 기준으로 재물을 거두었습니다. 방중邦中·사교四郊·방전邦甸·가삭家削·방현邦縣·방도邦都 6가지는 땅의 원근을 기준으로 한 세금[地賦]이고, 그 나머자인 관시關市·산택山澤·폐여幣餘 3가지는 모두 물건을 기준으로 한 세금이었습니다. 이렇게 재정 수입을 전적으로 지부地賦에만 기대지 않았던 상황은 주나라 때부터 이미 그러했습니다.

臣竊以爲中國之理財用者³³²⁾易爲工,我東之言財利者難爲術.何以言之?周官太宰以九賦斂財賄.其邦中·四郊·邦甸·家削·邦縣·邦都六者爲地賦,而其餘關市·山澤·幣餘三者則皆貨物之稅.治財之不專恃地賦,自成周已然矣.

3.6.3. 후대로 내려오면서 구리 채굴세, 소금세, 주세酒稅, 차세茶稅, 시장세, 배 운행세와 수레 운행세 등 세법이 날로 늘면서 수취 방식도 더욱 치밀해졌습니다. 그러나 태관太官³³³⁾의 용품과 변방의 비용 충당에는 반 이상을 여기에 의지하여 처리했지, 오로지 논밭의 세에서 추렴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른 바 “산과 못에서 나는 재물을 거둬 농지의 세금을 느슨하게 하고, 시장세를 거둬 농지세로

331) 9부賦: 주나라에서 실시한 9종의 부세(세금) 제도. 방중(邦中, 성곽 안)·사교(四郊, 성곽에서 100리 이내)·방전(邦甸, 성곽에서 200리 이내)·가삭(家削, 성곽에서 300리 이내)·방현(邦縣, 성곽에서 400리 이내)·방도(邦都, 성곽에서 500리 이내)·관시(關市, 시장)·산택(山澤, 산림과 천택)·폐여(幣餘, 공용에 쓰고 남은 물품) 등이었다. 『周禮注疏』卷2 「天官冢宰」 ‘太宰’.

332) 者: 『의상경제책』 法. 뒷구절과 대구가 되어야 한다. 아래에서 반복된 “臣故曰中國之理財用者易爲工也”라는 글귀에서 ‘法’은 ‘者’로 적혀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33) 태관太官: 궁중 음식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진秦나라 때 설치하여 원 이후에 폐지되었다.

거둔 십일조(1/10)의 비축 세금에 보충한다”³³⁴⁾는 것입니다.

降及後世,鑄山煮海³³⁵⁾,榷酒酤³³⁶⁾而征茶茗³³⁷⁾,稅關市³³⁸⁾而筭³³⁹⁾舟車,其法日增,其取益密.然其供太官之用·給邊圉之費者太半倚辦於此,而不專出於農田之租稅.所謂“斂山澤之貨以寬田疇之賦,收關市之稅以助什一之儲”者也.

3.6.4. 지나치게 세세한 명목으로 세금을 거두는 것은 공근孔僅과 상홍양桑弘羊이 털끝까지 쪼개려 하듯 각박하게 한 일이고,³⁴⁰⁾ 임시변통에 권도權道가 있는 것은 유안劉晏³⁴¹⁾이 재용을 잘 관리한 것입니다. 재산이 넉넉한 집에 비유하자면, 별장이나 집 그리고 논밭 외로 생계를 운영하는 길을 한 가지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의복은 양잠과 방적에서 얻었고, 손님 접대와 제사 음식은 가축 사육에서 얻었습니다. 또 재물에서 생기는 이익은 불시에 갑자기 드는 비용에 충당하면서 농지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항상 여유 있게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양식으로 흉년을 대비할 수 있었기에 재산은 불어나기 쉽고 없어지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의 재용 관리는 좋은 방법으로 삼기 쉽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取之太細則爲孔桑之析秋毫,權之有道則爲劉晏之善理則³⁴²⁾.譬如足產之家,莊宅田疇之外,營生之路不一其端.裘葛取諸蠶績,賓祭取諸畜牧.又有貨殖之利以給不時橫用,而田疇歲入常有餘裕,可以蓄積而備凶荒,故其產易殖而難匱.臣故曰“中國之理財用者易爲工”也.

334) 이 말은 『資治通鑑』(卷146 「梁紀」 ‘高祖武皇帝’ 2)을 비롯하여 『大學衍義補』(권28), 『思辨錄輯要』(권16) 등에 나온다.

335) 鑄山煮海: 산의 구리를 캐 돈을 주조하고, 바닷물을 달여 소금을 만든다. 자연 자원을 개발한다는 뜻.

336) 榷酒酤: 주류를 전매하다.

337) 茗: 차 싹.

338) 關市: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시장.

339) 筭(算): 세금을 매기다.

340) 공근孔僅: 한나라 남양南陽 사람. 무제 때 대농승大農丞이 되어 소금과 철의 일을 관장했다. 소금과 철의 세금 징수만 담당하는 기관을 세울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관의 주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이들이 많았다.

상홍양桑弘羊: 한나라 낙양洛陽의 상인의 자식이었다. 무제 때 대농승大農丞이 되어 염철을 관장하여 평준법을 만들었다. 『史記』 卷30, 『漢書』 卷24上.

341) 유안劉晏: 당나라 사람. 현종, 숙종, 대종, 덕종 4대에 걸쳐 관리호 활동했다. 염철 업무를 관장하기도 했다.

342) 則: 財의 오기로 판단된다. “유안이 재물의 이익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등용한 것이다. 晏善治財利故用之.”(『資治通鑑』 卷221 「唐紀」 37 ‘肅宗文明武德大聖大宣孝皇帝 下之上’)는 구절이 보인다.

3.6.5. 우리나라는 조정의 교화로 다스림이 크게 융성했을 때는 백성에 대한 수취에 제도가 잘 갖춰졌습니다. 위로는 임금께 바치고 아래로는 나라에 충당한 세금이 규정된 공물과 부세 이외에서 나오지 않았고, 가렴주구苛斂誅求는 백성에게 조금도 가해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하·은·주 삼대三代에서나 겨우 있었을 뿐 한·漢·당·唐 이후로는 결코 없던 일이었습니다.

我口國朝化理邳隆,取民有制.上供口乘輿,下給軍國者,不出惟正貢賦之外,而苛征橫斂未嘗一及於民.此三代之所堇有,而漢唐以後之所絕無也.

3.6.6. 이 아름다운 풍속이 얼마 되지 않아, 물건은 넘쳐나고 비용은 커지면서 정해진 세금[經賦] 수입으로 지출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나라 예산을 담당하는 관리는 애가 타도록 다급해졌습니다. 이는, 있는 그대로 대처하면서 두각을 드러내서 세금과 전매수입만으로 지출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는 말을 감히 하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이들은 말 한 마디만 꺼내면 사방에서 비웃으며 자기를 비난할까봐 참으로 걱정했기에, 오물을 피하듯 하여 자신들을 더럽게 만들지 않으려 했습니다.

及未休養既久,物盈用廣,經賦之入,不能支出,則司口國計者煎熬逼迫,不如所以處之而終不敢奮頭角以征榷爲言者.誠恐言一發而嗤點四起,如逃垢穢,不欲自污也.

3.6.7. 비유하자면 온화하고 유약한 선비가 생계를 꾸리는 일에는 서툴면서 돈 버는 일은 입에 담기를 부끄러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대대로 물려받은 가업만으로도 지출을 오히려 감당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식구가 늘어나면서 연간 지출비가 넉넉하지 않다 보니, 가난으로 쌀독에 바닥이 샌 듯 양식이 다 떨어져 아침에 저녁거리조차 챙기지도 못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양식을 꾸기 위해 못 하는 일이 없습니다만, 내놓고 행상을 하면서 돈 모으는 일에는 여전히 기꺼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동국에서 말하는 재용의 이익에 관한 논의는 좋은 방법으로 삼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譬如文弱自好之士拙於謀生,耻言貨利.其始也世業租課尚可持支,及其口衆食繁,歲計不給,則貧窘漏底,朝不謀夕.凡干求假貸,無所不爲,而猶不肯顯作轉販營殖之事.臣故曰“我東之言財利者難爲術”也.

3.6.8. 조租·조調·용庸³⁴³)은 정해진 세금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우리나라에는 조租만 있고 조調와 용庸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근 100년 사이에 비로소 호포戶布³⁴⁴)를 거두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도리어 신중하게 판단하기 어려움[難愼]을 두려워하여 결국은 결행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租調與庸,其爲經賦也同,而我國有租而無調庸者何也?近自百年以來,始有戶布之議,而顧畏難愼,迄莫能斷而行之.

3.6.9. 소금세·차세·주세는 상품세와 전매품[征權]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우리나라에는 소금세만 있고 주세가 없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사방으로 통하는 큰 읍들은 1년에 천 번이나 술을 빚지만 눈썹만큼의 세금도 현의 관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관서 지역의 담배[菸草]는 팔도에 흘러넘치는데 시장세를 낸 이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鹽筴³⁴⁵)茶酒,其爲征權³⁴⁶)也同,而我國有鹽稅而無酒課者又何也?通都大邑,一歲千釐,而鎔銖之征不入縣官.關西菸草,流溢八域,而所過關市,莫之誰何.

3.6.10. 무릇 한·漢·당·唐 이후의 재용 관리법이 우리에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대한 의관이나 문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국을 철저히 모방한 뒤에야 그만 둡니다. 이러니 그 재용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창견에 대해서는 비방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예전에 없던 것을 지금 새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에 비해 정情은 인습에서 쉽게 익숙해지기 때문에 예전에 있던 것을 지금 그 이름에 의거하여 재주껏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근에 재용을 만들어 내는 것은 예전에 있던 군보軍保에 의거하여 당번을 면제하고 포부를 징수하거나 예전에 있던 조적糶糴³⁴⁷)에 의거하여 운송 과정에서의 손실분[雀鼠之耗]³⁴⁸)을 부가세로 취하는

343) 조租·조調·용庸: 조租는 수확한 곡식에 대한 세금이고, 조調는 나라에 진상하는 지방 특산물이고, 용庸은 부역을 대신해 내는 베나 무명이다.

344) 호포戶布: 호의 단위로 면포綿布나 저포紵布를 징수하던 세제. 고려 충렬왕 때 처음으로 실시했고, 조선 태조 때 요역 대신 이를 징수 하였는데, 충청·황해·경상·전라·강원도 등의 민호에게 부과했다. 대호大戶에 2필, 중호中戶에 1필, 소호小戶에 반 필을 부과했고 대개 봄과 가을 두 차례 징수했음. 태종 때 폐지함. 『한국고전용어사전』 5, 809쪽.

345)鹽筴(염책): 소금세 징수 정책.

346) 征權: 나라에서 거두는 상품세와 전매.

347) 조적糶糴: 고려조선 시대 상평창 등의 국가 기관에서 쌀을 비축하고 배포하는 행위. 주로 물가의 조절이나 가난한 농민의 진휼을 위해 행해졌다. 춘궁기에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는 것을 조糶라 하고, 추수기에 빌려준 곡식에 1/10의 이자를 붙여 환수하는 것을 적糶이라 한다. 『

일에 불과합니다.

凡漢·唐以來治財之術,我無一焉,而其衣冠文物之盛則必欲盡倣中國而後已.此其財安從出乎?誘易生於勘見,故昔之所無者今不可勘也;情易狃於因襲,故昔之所有者今可以因其名而巧取之也.是以近來所以生財者,不過因舊有之軍保而放番徵布,因舊有之糶糴而取其雀鼠之耗而已.

3.6.11. 시행한 지 100여 년에 명목상 정해진 액수는 매년 증가하고 착취는 날로 심해져서 쫓아가 몽둥이질하고 칼을 찌우는 일이 없고, 점점 번져 이런 관행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밀어붙이며 가혹하게 횡포를 부리기로는 덕종德宗 때 집의 칸 수만큼 세금³⁴⁹⁾을 매기던 것보다 심했고, 가혹한 세금으로 백성을 착취하는 데 끝이 없기로는 남송南宋의 경제經制와 총제總制³⁵⁰⁾보다 더 지나쳤습니다. 송나라 신하 소식의 “쇠퇴하는 시기의 구차한 정치를 모두 했다”³⁵¹⁾는 말이 여기에 있지, 소금세와 주세에 있지 않습니다.

行之百餘年,名額歲增一歲,剝割³⁵²⁾日甚一日,追莫棒³⁵³⁾枷³⁵⁴⁾,轉相蔓延.其猝迫苛橫甚於唐德³⁵⁵⁾之稅間架,其掊克無藝浮於南宋之經總制.宋臣蘇軾所謂“盡用衰世苟且之政”者在此,而不在鹽酒之征矣.

3.6.12. 더욱이 권세가 있는 부자들은 온갖 죄를 부려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농가에서만 편파적으로 그 고초를 받습니다. 곤경에 빠져도 하소연할 데 없어 사방으로 떠돌아다니니 소작인[客]들은 흩어지고 논밭은 황무지가 되는 상황도 순식간입니다. 옛날에 이른바 “올바른 공물과 부세[貢賦]”는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태반은 제대로 거둘 수 없는[無麪之不托]³⁵⁶⁾ 것입니다. 위로는 정벌征伐³⁵⁷⁾과

한국고전용어사전』 4, 884쪽.

348) 운송 과정에서의 손실분[雀鼠之耗]: 참새나 쥐가 먹어 축난 분량. 오대五代 후당後唐 때 생긴 제도로, 곡식을 운송하는 중에 소모되는 분량의 몫으로 1석에 2승의 비율(즉 2%)로 부가세를 징수했다.

349) “趙贊復請稅間架算除陌.其法,屋二架爲間,上間錢二千,中間一千,下間五百.匿一間,杖六十.告者賞錢五萬.”『唐書』卷52「食貨志」第42

350) 경제經制와 총제總制: 송의 선화宣和 연간에 실시했던 부가세의 일종.

351) “至於最下而無謀者,量出以爲入用之不給,則取之益多天下晏然無大患難,而盡用衰世苟且之法,不知有急則將何以加之.此所謂不終月之計也”『東坡全集』卷47「策別十七首」‘策別’ 1.

352) 剝割: 가족을 버기고 살을 베어냄. 백성의 재물을 약탈함의 비유.

353) 棒: 『의상경계책』 棒. 문맥을 고려한 교감.

354) 棒枷: 몽둥이와 목에 찌우는 나무 갈.

355) 德: 德宗의 오기로 보인다.

순수巡狩³⁵⁸)의 정치가 보이지 않고, 아래로는 호화와 사치의 풍속이 보이지 않는 데도 나라의 빈곤은 더욱 심해졌으니, 어찌 까닭도 없이 그렇겠습니까?

況豪富百計圖免,農戶偏受其苦.窮蹙無告,轉而之四,則客散田荒亦次第³⁵⁹)事,而向所謂“惟正之貢賦太半爲無麪之不托”矣.上不見有征伐巡狩之事,下不見有繁華奢侈之俗,而國之貧也滋甚者,夫豈無所致而然哉?

3.6.13. 그렇다고 이제 4백 년 동안 있어 본 적이 없던 법을 만들어 소금세·광산세·주세·차세를 징수함으로써 상인들의 이익을 빼앗으려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현재를 위한 방도는 오직 이희李愔가 땅심을 다 활용한 가르침을 서둘러 쓰는 데 있을 뿐입니다.

今欲創爲四百年來未始有之法,煮鹽·鑄鐵·榷酒·筭茶以奪商賈之利,則臣知其必不能也.爲今之道,惟有亟用李愔盡地力之教³⁶⁰)而已.

3.6.14. 땅심을 다 활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나라는 오랫동안 안정적이었고 들판은 날로 개간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땅에 남아있는 이익이 아직도 있고, 그럼에도 놀고먹는 자들이 많아 이익을 얻으려 해도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밭 갈고 재배하는[耕種] 데에도 법도가 없어서 곡식 생산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밭 갈고, 씨레질하고, 재배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盡地力奈何?邦內久安,田野日闢.而臣以爲地有遺利者,淤食者衆而爲之不疾,耕種無法而生穀不多.故耕耨·樹藝之法不可不教也.

3.6.15. 재배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관행에 익숙한 자들은 얼굴 표정과 말만으로 깨우칠 수 없고, 외진 구석에서 정체되어 있는 자들은 정령政令만으로 고른 수준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반드시 표준 방법을 보여주

356)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 없다[無麪之不托]: 無麪飢飢(무면박탁)과 같은 뜻. 밀가루가 없으면 수제비를 만들지 못함.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음의 비유.

357) 정벌征伐: 군대를 파견하여 죄 있는 무리를 침.

358) 순수巡狩: 천자가 수렵을 통해 병사를 단련시키는 한편, 지방의 제후국을 순회하며 정치의 득실과 민정을 시찰함.

359) 次第: 잠깐 사이, 순식간의 뜻으로 풀었다.

360) 재용 관리의 유일한 대안이자 핵심은 결국 “教樹藝以盡地力”(3.2)으로 귀결되고 이를 실천하는 방도로서 둔전 경영으로 이어진다.

고 그 효과를 부러워하게 해야 합니다.

敎樹藝奈何?習狃於故常者不可以色辭喻也,見滯於方隅者不可以政令齊也.必須程式以示之,功效以歆之.

3.6.16. 세상에서 쟁기를 잡거나 논밭 두둑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논밭 손질법이 이러하면 논밭이 질서가 잡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황폐해지고, 곡식 재배법이 이러하면 잘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굶는다는 것을 환히 알게 해줍니다. 노련한 이와 서투른 이가 서로 비교되면서 고생과 편안함이 갈리고,³⁶¹⁾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이 어긋나면서 이익과 손해가 차이 남을 환히 알게 해줍니다.³⁶²⁾ 그런 뒤에 다투어 적극적으로 권하게 될 것이고, 명령하지 않아도 달려들 것입니다.³⁶³⁾ 그러므로 둔전 시행을 늦출 수 없습니다.

使世之執耒耜³⁶⁴⁾而服田疇者,曉然知治田如此則理,不如此則荒,種穀如此則食,不如此則饑;巧拙之相形而勞逸判焉,善否之相違而利害懸焉.然後競相興勸,不令而趨.故屯田不可緩也.

3.6.2. 서울 주변 둔전 네 곳

3.6.2.1. 동둔東屯

3.6.17. 저는 서울에 둔전을 4곳 설치했으면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경성 동쪽 10여 리 떨어진 중냉포³⁶⁵⁾ 서쪽³⁶⁶⁾입니다. 사방 몇 리가 모두 예전에 논[稻

361) 노련한~갈리고: 둔전을 시행할 때, 경종법에 노련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이들이 함께 어울려 농사를 지을 때, 노련한 이들은 편안하게, 초보자들은 힘들게 짓는다는 의미로 보인다.

362) 좋은~납니다: 둔전을 시행할 때, 좋은 경종법을 시행한 이들이 얻은 이익과 좋지 않은 경종법을 시행한 이들이 겪은 손해의 차이가 크다는 의미로 보인다.

363) 그런~달려듭니다: 둔전을 통해 보여준 효과로 말미암아 여기저기서 자발적으로 새로운 경종법을 익히려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364) 耜: 『의상경제책』 耜. 문맥으로 고감함.

365) 중냉포 : 중랑포中梁浦의 오기인 듯하다. 중랑포[中浪浦]. 중랑구 목동과 노원구 월계동 사이의 중랑천을 건너는 나루터로서, 중랑천의 지류인 우이천과 목동천이 합류되는 지점이 큰 바닷가와 같이 넓은 데서 유래된 이름이다. 중랑포·중랑포·속계·송계라고도 하였다.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지명사전』, 2009.

畦]이었는데, 최근 40~50년 동안 큰 홍수로 모래진흙이 물려와 뒤덮어버리면서 물길이 무너지고 물이 넘치는 바람에 결국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용조龍爪 등의 기구로 하류를 준설하여 물을 소통시킨 뒤, 물이 농지 가운데로 흐르게 하고 그 주변에 방죽을 쌓고 예전 농지의 두둑을 회복한다면 논 50~60경頃을 얻을 수 있습니다.

臣請京師置屯田四所.其一京城東十餘里中冷浦之西地方數里皆舊稻畦也,近自四五十年,爲暴潦驅沙泥堆掩,水道潰溢,遂成荒野.今用龍爪等器疏濬下流,使水由地中行而圍築圩岸,治其舊塍,則可得稻田五六十頃.

3.6.18. 조금 동쪽으로 4~5리 떨어진 배봉拜峰³⁶⁷⁾ 아래에 태복시太僕寺³⁶⁸⁾ 관사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용영壯勇營에 속했으나 장용영이 혁파되어 소속이 없어지면서 태복시 소속이 되었습니다만, 태복시 입장에서든 큰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건물 앞 들판의 논밭과 중영포의 농지를 더 사들여 이를 합해야만 몇 백 경이 될 것이니, 배봉 관사에 둔전소를 설치합니다. 이것이 동둔東屯입니다.³⁶⁹⁾

稍東四五里拜峰之下有太僕牧廐.舊屬壯勇營,營罷無所屬,屬之太僕,在太僕無甚利害也.宜益買前坪水陸田與中冷浦之田,合湊爲數百頃,而設屯田所於拜峰牧廐:是爲東屯.



366) 중영포 서쪽 : 장위·월곡·석관동 일대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367) 배봉拜峰 : 배봉산拜峰山. 서울 동대문구 진동동에 있는 표고 110m의 산. 서울시립대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조선시대 영우원과 휘경원 등 왕실 묘원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목마장의 울타리가 지났던 곳.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지명사전』, 2009.

368) 태복시太僕寺: 고려 시대 궁중의 타는 도구[乘輿], 말, 목장 등의 일을 관장하던 관청. 공민왕 21년(1372) 사복시(사복사)로 되어 조선 시대로 이어짐. 『한국고전용어사전』 5, 390쪽.

369) 안대회 번역, 『북학의』 「진북학의」, 252쪽에서 언급함.

3.6.2.2. 서둔西屯

3.6.19. 또 하나는 경성 서쪽 10여 리 떨어진 양철평楊鐵坪³⁷⁰⁾에 있습니다. 모래 자갈밭에다 샘이 부족하여 황무지가 죽 펼쳐져 있습니다. 만약 산 계곡에 의지해 제방을 쌓고 저수지를 만든 뒤 가을과 겨울의 비나 눈을 받아 관개용수로 준비하고 거기다 도성의 뽕거름을 수레로 운송해 거름을 줄 수 있다면 척박한 땅은 옥토가 되어 비옥한 농지 수 십, 수 백 경을 얻을 수 있습니다.

其一京城西十餘里有楊鐵坪,沙确乏泉,一望陳荒.苟能依傍山谷,築堤爲陂,受秋冬雨雪之水以備灌溉,且車輸都城糞壤而糞之,則化瘠爲沃,可得良田數十百頃.

3.6.20. 서남쪽으로 몇 리 떨어진 곳에는 연의궁衍義宮³⁷¹⁾ 옛터가 있는데, 그 앞 들판에 수를 놓은 듯 펼쳐진 밭두렁은 모두 백성의 밭입니다. 몇 년 전 여름 홍수 때 침수되어 모래진흙으로 덮힌 곳이 몇 십 경이나 되는지 모릅니다. 땅주인들이 싸게 팔려고 하지만 팔리지 않습니다. 만약 관에서 그 땅을 매입한 뒤 일꾼들을 모집하여 모래진흙을 소탕시키고 옛 두렁을 회복한다면 모두 경성 근처의 비옥한 농지가 됩니다. 양철평 농지와 합치면 몇 백 경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서둔西屯입니다.

西南數里有衍義宮舊基,前坪繡錯之田疇皆民田也.數年前夏潦,爲沙泥湮沒者不知幾十頃.田主欲賤售而不可得.若官買其地,募役夫疏其沙淤,復其舊塍,則皆成負郭良田.與楊鐵坪之田,合湊爲數百頃:是爲西屯.

3.6.2.3. 남둔南屯

3.6.21. 또 하나는 시흥·안양 들판입니다. 초목이 10리에 걸쳐 무성하고 안양천[安陽橋] 물이 그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문이나 수명을 여러 군데에 설치하여 물을 잘 조절한다면 상등급의 기름진 논 몇 백 경을 얻을 수 있습

370) 양철평楊鐵坪: 양철리梁鐵里라고도 한다. 은평구 불광동에 있던 마을로서, 수리봉 밑 양철고개·양철평에 있던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양철리라고도 하였다.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지명사전』, 2009. 양철현[梁鐵峴]: 은평구 녹번동 녹번삼거리에서 불광네거리로 넘어가는 고개로서, 양천리兩千里고개라고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수리봉 밑에 있는 마을을 양철리라고 하였다. 또 이곳을 양철리게梁鐵里契·양철리게梁哲里契·양철리게陽鐵里契라고도 하였으며, 앞 들판을 양철평梁鐵坪·양철평梁徹坪·양철평良鐵坪 등으로 같은 음을 다른 한자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지명사전』, 2009.

371) 연의궁衍義宮: 연희궁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니다. 이것이 남둔南屯입니다.

其一始興·安陽之野.平蕪十里,安陽橋之水貫其中.若多設壩閘而節宣之,則可得上腴稻田數百頃:是爲南屯.

3.6.2.4. 북둔北屯

3.6.22. 또 하나는 양주楊州 의정평議政坪입니다. 땅이 평평하고 광활하여 농사 지을만합니다만, 이곳이 도봉산과 수락산 사이에 있어서 장마를 한 번 만나면 두 산의 물이 여기로 모여들어 평지가 강이 되면서 흙으로 뒤덮여 농사를 망칩니다. 따라서 개간하자마자 황무지가 되기 때문에 10년에 3번 정도나 수확할 뿐입니다.

其一楊州議政坪.平遠可耕,而處在道峰·水落之間,一遇暴潦,兩山之水合匯於此,平地洪河,浸淹敗稼.故旋墾旋荒,十年三食.

3.6.23. 이곳은 「장인匠人」에 나오는 구溝와 혁沍의 제도³⁷²⁾를 대략 본받아 4척 너비의 구와 8척 너비의 혁이 농지를 가로세로로 에워싸게 합니다. 구는 혁으로 이어지고, 혁은 회澮로 이어지고, 회는 천川으로 이어지게 하여 1묘3전(一畹三畝, 1묘에 고랑 세 개에 재배하기)의 방법을 다시 써 농사지으면 상등급의 기름진 조밭 몇 백 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북둔北屯입니다

此宜略倣匠人溝·沍之制,四尺之溝·八尺之沍,縱橫縈絡.溝達于沍,沍達于澮,澮達于川,復用一畹三畝之法治其田,則可得上腴粟田數百頃:是爲北屯.

3.6.3. 둔전의 운영 및 보급

3.6.24. 이 네 둔전은 각각 지형의 편의에 따라 300경이나 200경을 차지하도록 하되, 네 둔전이 총 1000경이 되게 한 뒤에 그칩니다. 10경 단위로 우리(耦犁, 두 마리 소가 끄는 쟁기) 소 4마리, 수레 2대, 농부[佃夫] 5명으로 구성합니다.³⁷³⁾ 이 가운데 밭갈이 소는 영남에서 데려와야 하는데, 영남 소가 더위에 강

372) “爲溝沍,耜廣五寸,二耜爲耦.一耦之伐,廣尺,深尺,謂之呎.田首倍之,廣二尺,深二尺,謂之遂.九夫爲井,井間廣四尺,深四尺,謂之溝.方十里爲成,成間廣八尺,深八尺,謂之沍.方百里爲同,同間廣二尋,深二仞,謂之澮.”『周禮注疏』卷42「考工記」‘匠人’.

373) 이를 토대로 한 1000경에 필요한 재원은 우리 400마리(=4×100), 수레 200대(2×100), 농부

하고 밭을 잘 갈기 때문입니다. 논농사를 지을 농부는 영남 좌도左道³⁷⁴⁾ 사람을 모집해야 하는데, 이들이 논농사를 잘 짓기 때문입니다. 조밭 농사꾼은 해서(海西, 황해도)나 관서(關西, 평안도) 사람을 모집해야 하는데, 이들이 조 농사를 잘 짓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모두 경기도 사람과 섞여 살면서 농사법을 가르쳐주도록 합니다.

四屯各隨地形便宜,或占三百頃,或占二百頃,要令總四屯滿千頃而止.每十頃,用耦犂四牛·役車二乘·佃夫五人.其耕牛當徵於嶺南,嶺南產者耐暑善耕也.其佃夫之治稻田者當募嶺南左道人,是善治稻田也.治粟田者當募海西關西人,是善治粟田也.皆使與畿人錯居而教習之.

3.6.25. 집을 지어주고, 봉급을 후하게 주고, 세금과 요역을 면제해주고, 일과 휴식을 잘 조절해 주어, 사람마다 일을 즐기면서 효과를 내도록 합니다. 둔전 하나마다 한나라의 수속도위搜粟都尉³⁷⁵⁾나 농도위農都尉³⁷⁶⁾ 제도처럼 농사 업무에 밝은 자 1명을 선발해 전농관典農官으로 삼아 이 일을 주관하게 합니다.

制其室廬,厚其稍廩,蠲其征徭,節其勞逸,令人人樂事赴功.每一屯,選明於農務者一人,爲典農官,領其事,如漢搜粟都尉·農都尉之制.

3.6.26. 물가의 땅을 골라 물풀무[水排]³⁷⁷⁾를 설치한 뒤 물을 격동시켜 풀무질을 하면서, 보습[鑿]·쌍날삽[鏵]·가래[錢]·박[縛, 호미의 일종]·괘이[鑊]·봉鋒·호미[鉏]·누[鋤, 호미 또는 괘이 耨의 오기?]·낫[鎌] 등속을 담금질로 만듭니다. 또 누차耬車·둔차硃車·육독礪礪·역택礪礪·풍구[颶扇]·항아리방아[礪碓]·연마(連磨, 동시 작동 맷돌)·물맷돌[水磨]·물토파[水碾]·물연자방아[水碾]·롤러연자방아[海靑

500명(5×100)이다. 그렇다면 1인 당 2경(=200묘)을 경작하는 꼴인데, 인원이 너무 적은 듯하다. 처자식 인원까지를 계산한 것일까. 뒤에 “처자식을 데려와 살게 하고”라는 구절에서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다. 박제가, 『북학의』 「둔전지비屯田之費」와 비교할 것. 10경 기준, 소 20, 수레 10, 인부 20. 『북학의』 「진북학의소」 ‘糞’(『임원경제지 본리지』 2, 140쪽)에서는 100묘에 소 2마리, 수레 1대를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또 金容燮, 『朝鮮後期農業史研究』 II, 326쪽에서는 다음의 설명이 있다. 1경=40두락(『반계수록』)=30두락(정약용).

374) 영남 좌도左道: 조선 중종 때 낙동강을 중심으로 경상도를 양분하여 그 왼쪽 지역에 속하는 여러 군을 통칭한 행정구역.

375) 수속도위搜粟都尉: 한 무제武帝 때 설치한 일종의 군직軍職으로 대사농大司農에 소속되었으며, 농사와 둔전屯田 등을 관리했다.

376) 농도위農都尉: 한 초기에 설치했으며, 농사를 관리했다.

377) 물풀무[水排]: 수력을 이용해 바람을 일으켜 불을 피우는 풀무. 쇠를 단련하는 데 사용한다.

碾] 및 여러 종의 수차를 머리가 좋은 사람에게 감독하면서 제조하게 하여 쓰일 곳에 공급합니다.³⁷⁸⁾

擇濱水地,設爲水排,激水鼓鞴³⁷⁹⁾,打造鑪·鑄·錢·鑄·鑄·鋒·鉏·鋤·鎌之屬.又使巧思人監造樓車·硃車·礪礪·礪礪·颶扇·塙³⁸⁰⁾確·連磨·水磨·水磨·水碾·海青碾及諸種水車,以給其用.

3.6.27. 무릇 논농사는 영남의 벼 재배법을 참고하면서 옛 사람들이 썼던 쟁기질 3회, 씨레질 4회, 벼 밀어젓히기, 벼 말리기 등의 방법을 적당하게 증감해야 합니다.³⁸¹⁾ 밭농사는 지금의 방법을 모두 바꾸서 조과趙過가 만든 대전법代田法을 써야 합니다. 대전법은 밭갈이의 표준이라, 결코 바뀌서는 안 됩니다.³⁸²⁾

凡治稻田宜參用嶺南種稻法,而以古人三犁·四耨·揚稻·燒稻等法消息之.至於陸田則宜一切改今法,用趙過代田法.此爲陸耕之規矩準繩,斷斷不可易者也.

3.6.28.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농사지으면 평년작으로 계산한다 해도, 1묘에는 조[穀] 1석[斛]을 얻고, 1경에는 100석을 얻어, 둔전 하나에는 2~3만 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반으로는 본 둔전의 관리와 농민의 급료, 의복 및 들밥, 소 사육, 집 수리, 농기구 보수 등의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 반으로는 홍수나 가뭄 등 불의의 재해에 대비합니다.

臣意治田如此,以中年率之,一晦可得穀一斛,一頃得百斛,一屯得二三萬斛.用其半爲本屯官民廩食·裘葛及饁田·飼牛·葺理室廬·修補器械之費,儲其半爲水旱不測之備.

3.6.29. 서둔과 북둔의 곡식은 북한산성으로 운송하고, 동둔과 남둔의 곡식은 경성으로 운송하되, 모두 별도로 곡간을 설치하여 보관합니다. 곡간은 반드시 벽돌로 짓고, 곡식은 쪼어서는 안 됩니다. 벽돌로 지으면 참새나 쥐의 피해가 없고, 곡식을 쪼으면 장기간 보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378) 농기구와 수차를 제작하는 계획으로, 그 일단은 박제가, 안대회 번역, 『북학의』 「둔전의 비용 [屯田之費]」(251쪽)에 제시된 적이 있다.

379) 鞴: 『의상경제책』 鞴.

380) 塙: 『의상경제책』 塙.

381) 『임원경제지 본리지』 2, 193~245쪽; 『杏菴志』 卷2 「種植」(『農書』 36, 121~127쪽)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382) 『임원경제지 본리지』 2, 287쪽; 『杏菴志』 卷2 「種植」(『農書』 36, 128쪽)에 비슷한 표현이 있다.

西北屯之穀輸于北漢山城,東南屯之穀輸于京城,並另設倉廩而藏之.廩必壁築,穀勿蟻變.壁築則遠雀鼠之耗,蟻變則不能耐陳也.

3.6.30. 이렇게 몇 년 동안 시행해서 뚜렷한 효과가 나온 뒤에야 이 무리를 4도都³⁸³⁾와 팔도에 나누어 파견하면 1명이 10명에게 전하고 10명이 100명에게 전하면서 밭갈이·씨앗뿌리기·김매기 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각각은 감영 관할지 근처에다 둔전을 설치하는데, 많게는 700~800경, 적게는 400~500경이 되게 하며, 시행하는 제도는 모두 경성 주변 둔전을 본받게 합니다. 수륙水陸 절도사節度使³⁸⁴⁾ 감영과 관할 읍의 도호부都護府³⁸⁵⁾는 모두 편의에 따라 둔전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行之數年,灼見成效,然後分遣其徒于四都八道,以一傳十,以十傳百,教導其耕播·芸耨之法.各就營下近處,設置屯田,多或七八百頃,少或四五百頃,其設施規制一倣京屯.水陸節度營及列邑都護府皆聽便宜置屯田.

3.6.31. 매년 수확을 마치면 수확량의 반은 근처 산성으로 운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10년도 못 되어 곳곳에 곡식이 쌓이고 곡간은 넘쳐날 것입니다. 옛날에 이른 바 “3년 농사지으면 1년 먹을거리가 남고, 9년 농사지으면 3년 먹을거리가 남아, 30년 전체를 통털어 비록 가뭄과 홍수가 있어도 백성이 굶주려 초췌한 얼굴빛은 없었다”³⁸⁶⁾고 한 말에 견줄 수 있습니다.

每收穫既畢,輸其半于近處山城.不出十年,在在積穀,倉庾充溢,古所謂“三年耕,餘一年之食;九年耕,餘三年之食.以三十年之通,雖有凶旱水溢,民無菜色”者,可得以比擬矣.

383) 4도都: 조선 시대 유수留守를 두었던 수원부水原府, 광주府廣州府, 개성부開城府, 강화부江華府를 가리킴.

384) 수륙水陸 절도사節度使: 조선 시대 지방에 설치했던 무관직으로 도道の 군사권을 도맡았다. 대체로 관찰사가 겸임하였으며 군대에 따라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와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로 나뉘어졌다. 『한국고전용어사전』 4, 720쪽.

385) 도호부都護府: 고려조선 시대 지방 행정기구의 하나. 본래 중국에서는 이민족 통치를 위한 군사적 성격이 강해 주로 변경에 설치되었으나, 고려조선시대에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었다. 도호부수는 후기에 갈수록 증가하여 세종 초에 38읍, 중종 때 45읍, 고종 때 75읍으로 격증했다가 1894년 군으로 통합되어 폐지되었다. 읍격邑格 상 목사와 군수의 중간에 해당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7, 36~37쪽.

386) 『禮記注疏』 卷12 「王制」; 『임원경제지 본리지』 2, 78쪽.

3.6.4. 초기 비용 마련 방안

3.6.32. 논의하는 자들은 반드시 “둔전을 설치하는 초기에 농지와 농우를 구입하고, 농부[佃戶]를 모집하고, 집을 짓고, 기구를 제조하는 데 비용이 이만저만 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조정이나 민간이나 재물이 부족한데 어디에 여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미치겠습니까?”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³⁸⁷⁾

議者必曰:“設施之初,買田·買牛,募佃戶·制室廬·造器用,靡費千萬.以今公私匱乏,安有餘力及此.”臣籌之熟矣.

3.6.33. 동둔에는 본래 방목을 관리하는 관사가 있었으니, 예전에 하던 관행대로 하면 복잡하지 않게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조적미糶糶米가 몇 천 석이 있다고 하니, 이를 반으로 나눠 반으로는 방축을 쌓고 포구를 준설하며 농기계를 제조하게 합니다. 나머지 반은 비축해놓고 예전대로 거둬들이거나 빌려주면서 그 이자를 취했다가 식사나 소 사육 비용으로 쓰고도 넉넉할 것입니다.

東屯本有監牧廐宇,可以仍舊貫而不煩改爲.又聞有糶糶米數千斛,平分爲二,用其一築圩濬浦,製造器械.儲其一依舊斂散取殖,以爲饁田·飼牛之費而裕如矣.

3.6.34. 따라서 돈과 곡식에 대해 계획할 곳은 남·서·북 3둔전뿐입니다. 지금 돈과 곡식을 관리하는 중앙 관청의 아문衙門에는 모두 은화를 보관하여 예상하지 못한 일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란 홍수나 가뭄, 전쟁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전란으로 피폐하여 어수선한 때에 은화로 식량과 의복을 공급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은화로는 평시에 물가를 조절할 수는 있어도, 전란으로 피폐했을 때 사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보관해서 예상하지 못한 일에 대비한다는 말에 저는 내심 의심이 듭니다.

所當區劃錢穀者惟南西北三屯耳.今京司司錢穀之衙門皆有封樁銀錢,以備不虞.不虞者.水旱師旅之謂也.臣未知兵荒搶攘之時,可用銀錢食人而衣人乎?銀錢可以權財於平時,而不可救人於兵荒.凡藏銀而謂之備不虞者,臣竊惑焉.

3.6.35. 마땅히 호조·선혜청·균역청·사복시·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총융청으로 하여금 각각 1,0000민緡³⁸⁸⁾ 또는 5000~6000민을 내게 하소서. 이를 3둔전에 각

387) 둔전 설치 초기 비용 마련 방안을 제시한다.

2,0000민(즉 20,0000냥) 씩 나눠주어 농지 구입, 집 짓기, 기구 제조 및 1년 차의 봉급 등의 비용으로 쓰게 하소서. 매년 추수 뒤에 이자를 계산하여 곡식으로 배상하면 10년도 안 되어 마땅히 100배의 이자를 얻을 것입니다. 속담에 “돈 1000꾸러미를 집에 뒤 봐야 한 푼 제 때에 쓸만 못하다”고 했는데, 하물며 쓸 돈이 한 푼에 그치지 않는다면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宜令戶曹·宜惠廳·均役廳·司僕寺·訓局·禁衛營·御營廳·摠戒廳,各出錢萬緡或五六千緡.分與三屯各二萬緡,以買田·營室·造器及初年廩食之費.每歲秋成,計殖輸穀而償之.不過十年,當得百倍之殖.諺云“千緡而家藏,不若銖兩而時入”,況所入不止銖兩也乎!

3.6.5. 농우 구입 및 농부 모집 방안

3.6.36. 소 도살은 나라에서 항상 금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상당히 해이해져 어기는 자들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이제 이 법으로 엄중히 단속하여 재주껏 적발하면 1년의 벌금 수입으로도 서울 주변 둔전에 농우農牛를 공급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몇 년 동안 새끼 쳐서 사육이 날로 번성하면, 밭갈이가 용성해지는 정사政事와 그물을 풀어 도망갈 길을 터주는 어궤³⁸⁹을 일거양득하게 됩니다.

屠宰牛犢,邦有常禁,而近頗解弛,犯者狼藉.今若申嚴其法,摘發有術,則一年醵金之入可給京外屯田之牛而有餘.數年孳殖,畜養日繁,則敦耕之政·解網之仁,一舉而兩得矣.

3.6.37. 농부들에 대해서는 제가 영남 사람을 모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금위영이나 어영청으로 입대하는 군인 중에 건강하고 농사에 열심인 20~30세 영남 사람을 고른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처자식을 데려와서 살게 하고, 보미保米³⁹⁰를 써서 이들이 올라오는 데 드는 비용을 대주게 하면 사람마다 기꺼이 달려올 것입니다.

至於佃夫,臣謂募於嶺南者,就禁衛·御營上番之軍,選年二十以上三十以前強勤力穡人,許令率其妻孥,用保米資其道路之費,則人人樂赴矣.

388) 민궤: 1민=10냥兩=100전=1000문文.

389) 그물을~어궤: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겠다. 벌금을 받아냈으니 소 잡는 사람들에게 한 말은 아닐 것 같다. 소의 입장에서 소가 번식할 수 있게 해준 것을 가리키는 걸까. 아니면 농부의 입장에서 소가 많아져서 편리한 밭갈이를 할 수 있는 걸까.

390) 보미保米: 보인保人이 정군으로 근무하지 않는 대신에 바치던 쌀. 보인은 군대에 근무하는 정군의 경제적인 보조를 위해 정군에 배정되어 배나 무명 등을 납부하던 자이다. 『한국고전용어사전』 2, 953, 965쪽.

3.6.38. 양서(兩西, 해서·관서)에서의 모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 해서·관서의 농가에서 매년 초에 장원의 일꾼을 모집하는데, 1인 당 1년 고용비가 300전錢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만약 양 도道의 관찰사에게 각종 면죄금[贖鍰]을 써서 좋은 농부를 모집하게 하되, 거주지와 거리를 고려해서 500~700전을 지급하도록 하면 수 백 명의 무리를 하루 만에 고용할 수 있습니다.

其募於兩西者,臣聞海西·關西治田之家,每於歲首雇募莊客,一人一歲之直不過三百錢. 若令兩道道臣用各樣贖鍰,雇募善農人,量道里遠近,人給五七百錢,則數百之衆可一日而雇也.

3.6.39. 최근 경기 지역 100리 안팎에 사는 백성 중에 아이를 업고 도성 근처로 이주한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는 모두 세금 독촉으로 곤란을 겪고 요역을 피하느라 급박해서 쉽게 집을 버리고 기꺼이 이웃과 이별을 하는 것이지, 반드시 빈둥거리고 게으름을 피우면서 농사를 짓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들을 수 십 명 모아 그 중에 1~2명을 선발한 뒤 집을 주고 영남·양서의 일꾼과 섞여 살게 하면 서로 격려하고 본받아 게으른 풍속이 바뀔 것입니다.

近年畿甸百里內外之民,襁負而至都下者踵趾相屬.此皆困於催科,急於避役,輕棄田宅,甘爲化離,未必皆游惰不事農之民.聚什佰而選其一二焉,授以室廬,與嶺南兩西之佃戶相錯而居,則轉相勸儆,風俗可變矣.

3.6.6. 지방 둔전 운영 방안

3.6.40. 모든 도의 관찰사 감영에는 의례 별비전別備錢이 있는데, 이는 선후임 관찰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떠날 때, 봉급을 주고 난 잉여물을 보관하였다가 예상하지 않은 일에 대비하는 용도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팔도 감영 관할의 둔전은 해당 도의 별비전의 양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이 중 1/3 또는 2/3를 제외한 나머지를 1년 차의 설치 비용으로 썼으면 합니다. 후임 관찰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에도 봉급의 잉여분이 있으면 둔전 몇 십 경을 증설하여 매년 곡식을 불리면, 돈을 보관만 하면서 요행으로 불리는 일에 견주어 그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諸道觀察營例有別備錢,即前後道臣任滿將歸,留置俸廩羨餘³⁹¹⁾以備不虞者也.臣謂八

道營下屯田隨該道別備錢多寡,除用三分一或三分二,用作初年設施之費.嗣後道伯任滿,如有廩俸贏餘,增置屯田幾十頃,歲歲殖穀,則其視藏餼而乾沒³⁹²⁾,功效霄壤矣.

3.6.41. 양서와 삼남(충청·경상·전라)의 읍들에는 대부분 공사고公使庫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혹 돈을 빌려주어 이자를 받기도 하고, 곡식을 빌려주어 이자를 거두기도 하고, 없어진 절이나 민가 농지를 귀속시키기도 합니다. 혹 한 마을[坊] 전체에 요역을 면제시켜 줌으로써 호구 수대로 돈을 거두기도 하여, 구관 수령과 신관 수령 및 중앙 상부 기관의 요구에 응하기도 합니다. 많게는 1년에 1,0000민을, 적어도 1년에 몇 천 민을 사용하는데, 부족하면 바로 농지에 나눠 거둬들입니다. 이렇게 1년에 2~3회를 거두기도 합니다.

兩西三南列邑多有公使庫設置者,或貸錢取殖,或散穀收息,或以廢寺·絕戶之田屬之,或環一坊除其徭役而計戶斂錢,以策應送舊迎新及京司上營之徵求.多者歲用萬緡,少亦歲用數千緡,不足則直數斂於田結.有一年再斂三斂者.

3.6.42. 조정에서는 모르는 일이나 잠시 머물렀다 가는 수령의 백성 착취가 이처럼 끝이 없으니, 백성들이 어떻게 곤란을 겪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각 읍의 공사고에 있는 본전과 이자, 그리고 환전한 돈을 가져다가 둔전을 설치하면 큰 읍에서는 몇 백 경을, 작은 읍에서는 70~80경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朝家之所不知,而一時守令之取民無藝乃如此,民安得不困?若取各邑公使庫本利變賣³⁹³⁾置屯田,大邑置數百頃,小邑置七八十頃.

3.6.43. 이제 80경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진실로 재배법에 법도가 있다면 평년작 수확량의 반만으로도 4000석[斛]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중 3/4을 내어 공사고에 주어 1년의 공비로 쓰고, 1/4은 따로 곡간에 저장하여 10년을 쌓아두면 1,0000석이니, 홍수나 가뭄 등의 위급한 일에 대비할 수 있고, 규정 이외의 조세를 함부로 징수하는 일도 차츰 끊어질 것입니다. 비용은 짧게 들지만 이익은 오래 생긴다는 말이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今以八十頃爲率.苟能樹藝有法,則中年所收之半當不下四千斛.糶其四分之三,付之公使

391) 羨餘: 잉여, 나머지.

392) 乾沒: 요행으로 이익을 얻음. 투기함.

393) 變賣: 물건 따위를 팔아서 돈으로 만듦.

庫,爲一年公使之需;取其一另貯倉廩,十年之積,當爲萬斛,水旱緩急可以有備無虞,而科外之橫斂亦可漸次杜絕.費短利長,此之謂也.

3.6.7. 내지 둔전론을 제기한 이유

3.6.44. 그러나 이는 다만 제가 보고 들은 일로 한정해서 말씀드린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저의 눈과 귀가 미치지 못하는 이런 종류의 효과를 어떻게 이루 다 셀 수 있겠습니까?

然此但據臣聞見所及者言耳.臣之耳目所不及若此類,何可勝數?

3.6.45. 원하옵건대, 전하께서 안과 밖의 관리들에게 고명한 가르침을 베푸셔서 다방면에서 살살이 조사하고 마음을 다해 계획을 세우게 하신다면, 반드시 대사농(大司農, 곧 호조)³⁹⁴의 경비를 성가시게 쓰지 않고도 편리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願□殿下明敎中外有司之臣,使之多方查括,悉心區劃,必有不煩大司農經費,而便宜措處者矣.

3.6.46. 대개 둔전 제도는 한나라 소제(昭帝, BC 87~74년 재위) 때 장액張掖의 둔전에서 시작했고, 조충국趙充國³⁹⁵의 『금성방략金城方略』에서 크게 갖춰졌는데, 이는 모두 변방을 튼실하게 하면서 조달할 양식을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大抵屯田之制始自漢昭帝張掖之屯,大備於趙充³⁹⁶國金城方略,皆所以實邊圉·省饋餉也.

3.6.47. 조조曹操에 이르러 조지棗祗와 한호韓浩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³⁹⁷ 백성을 모집하여 허하許下³⁹⁸에 둔전을 설치했으니, 병란의 여파로 농지는 황폐해지

394) 대사농大司農: 구경九卿의 하나. 진秦의 치숙내사治粟內史를 고친 이름으로, 세금, 돈과 곡식, 소금과 철 등을 관장했다. 뒤에는, 호부상서戶部尙書의 별칭이다. 여기서는 호조의 별칭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95) 조충국趙充國: 한나라 상규上邦 사람. 말타기와 활쏘기가 뛰어났다.武帝 때 흉노족을 격퇴했고 宣帝 때, 營平侯에 봉해졌다. 『漢書』 卷69.

396) 充: 『의상경계책』 克.

397) 건안建安 원년(196년).

398) 허하許下: 주周 때 설치한 주. 조조가 헌제獻帝를 맞아 이곳에 도읍하였고, 그 아들 조비曹丕

고 백성은 떠돌아다녔기에 농사를 권장하고 식량을 축적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至曹操用棗祗·韓浩之言,募民屯田許下,則以兵燹³⁹⁹⁾之餘,田荒民流,爲勸農蓄積之計.

3.6.48. 내지內地의 둔전은 여기에서 시작되었는데, 사관史官은 “허하의 둔전에서 1년에 조 100만 석을 얻었더니, 주와 군에서 의례 둔전담당관[田官]을 두었고 여기저기에 쌓인 곡식을 셀 수 없었다”⁴⁰⁰⁾고 했으니, 옛날부터 둔전의 현저한 효과 역시 이보다 큰 적이 없었습니다.

內地屯田始於此,而史稱“許下屯田,歲得穀百萬斛,州郡例置田官,所在積穀無算”,則自古屯田之顯效亦莫如此.

3.6.49. 제가 위로 거슬러 둔전을 이야기한 이유는 조지와 한호의 주장을 본받아 내지의 식량 비축을 위한 계획으로 삼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변방을 튼실하게 하는 대책에 대해서는 이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臣之上所言屯田,蓋欲倣棗祗·韓浩之言,爲內地貯積之計.而若夫實邊固圉之策,則臣請繼此而陳之.

3.6.8. 국경 둔전

3.6.8.1. 국경 둔전의 필요성

3.6.50. 제가 엮드려 들어보니 세종 때 북방의 6진鎮⁴⁰¹⁾을 개척했다고 합니다. 두만강을 경계로 삼았는데, 강 안쪽에 살던 변경의 오랑캐들은 이주하려 하지 않았으며 그대로 강 안쪽에 살면서 오래도록 배반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

가 이름을 허창許昌으로 고쳤다. 지금의 하남성 허창시.

399) 兵燹(병선):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 병화.

400) “漢自董卓之亂,百姓流離,穀石至五十餘萬,人多相食,魏武既破黃巾,欲經畧四方,而苦軍食不足.羽林監潁川棗祗建置屯田議.魏武乃令曰:‘夫定國之術在於強兵足食,秦人以急農兼天下,孝武以屯田定西域,此先世之良式也.’於是任峻爲典農中郎將,募百姓屯田許下,得穀百萬斛,郡國列置田官,數年之中,所在積粟,倉廩皆滿.”『晉書』卷26「志」第16「食貨」 등 여러 서적에 나온다.

401) 6진鎮: 조선 세종 때 두만강 하류 남쪽 연안에 설치한 국방상 요충지. 곧, 중성鍾城·은성穩城·회령會寧·경원慶源·경흥慶興·부령富寧의 여섯 진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7, 247쪽.

는 신하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장성을 쌓고 그들을 성 밖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청나라 사람들이 건주建州에서 일어나서 변방 오랑캐들이 두만강 북쪽으로 멀리 옮겨간 이래로 지금까지 거의 200년이 되었습니다.

臣伏聞□世宗朝開拓北路六鎮也.以豆滿江爲界,藩胡之居江內者不欲徙去,願仍處江內,永爲不叛不貳之臣.□朝廷爲築長城而使處城外.一自清人起於建州,而藩胡遠徙於江北者今幾二百年矣.

3.6.51. 정승파政丞破·오달족吾達竹·돈모로頓毛老·동량동東良洞·노부락(老/土)部落·말우시배乙于施培 등과 같은, 무산茂山 북쪽에서 부령富寧의 차유령車踰嶺 북쪽까지 120여 리는 비옥하여 경작할 만한 곳이 많습니다. 혈연평歇然坪·서가선西加先·리시利施·도곤都昆 등과 같은, 말우시배의 강 연안의 동쪽 아래에서 회령會寧의 농산보農山保까지 백 수 십 리도 역시 기름지고 평지가 넓은 곳이 많아 수 백 수 천 명이 농사지를 만합니다.

自茂山北行至富寧車踰嶺之北一百二十餘里,如政丞破·吾達竹·頓毛老·東良洞·(老/土)部落·乙于施培等地,多土沃可耕處.自乙于施培沿江東下至會寧農山保一百數十里,如歇然坪·西加先·利施·都昆等地,亦多饒沃平曠,可爲數千百人耕稼之場者.

3.6.52. 현종顯宗 계축년(1673)에 관찰사 남구만南九萬이 읍과 진영[鎮] 설치에 대해 상소를 올렸으나, 의론이 맞서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⁴⁰²⁾

□顯廟癸丑,道臣南九萬陳疏諸置邑鎮,而議格不果行.

3.6.53. 관서의 무창 등 4군郡에는 국초부터 진영과 보루[堡]를 설치했습니다. 태종 때에는 여연間延을 군으로 승격했고, 세종 때에는 무창茂昌·우예虞芮·자성慈城을 군으로 승격했습니다. 세조 때가 되자, 강 북쪽의 올랑합兀良哈과 홀라온忽刺溫 부락에서 시도 때도 없이 4군을 침탈했기 때문에 그곳 백성을 이주시켜 땅을 비웠습니다. 건주의 패자 누루하치 때부터 강 안팎으로 변방 오랑캐의 자취가 없어진지 역시 거의 200년이 되었습니다. 숙종 계해년(1683)에 4군을 다시 설치하자는 의견이 있어, 백성들에게 들어가 농사짓도록 허락했으나, 곧바로 다른 의

402) 남구만은 당시 함경도 관찰사였다. 『현종개수실록』 14년 계축(1673) 12월 30일(을축) 조에 자세한 정황이 보인다. 남구만, 『약천집』 제4권 「소차疏劄」 ‘북쪽 변경의 세 가지 일을 아뢰고 이어 지도地圖를 올린 소’에도 나온다.

전에 부딪혀 해산했습니다.

關西茂昌等四郡,自□國初置鎮堡,□太宗朝陞閭延⁴⁰³)爲郡,□世宗朝陞茂昌·虞芮·慈城爲郡.至□世祖朝以江北兀良哈·忽刺溫部落,無時侵掠,移其民空其地.自建州雄長而江內外無藩胡之跡者亦幾二百年矣.□肅廟癸亥,有四郡復設之議,許民入耕,旋以異議罷.

3.6.54. 정조 갑인년(1794)에 먼저 삼천방三川坊의 경작과 개간을 허락했는데,⁴⁰⁴) 이곳은 바로 4군의 애초 경계였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유랑자들이 사방에서 모여 지금까지 십 몇 년 동안 이미 1,0000여 호가 넘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내버려둔 나머지 땅심이 더욱 배가되어 조 1승升을 파종하면 7~8석[斛]을 얻을 수 있습니다.

□先朝甲寅,先許三川坊耕墾,卽四郡之初界也.臣聞流戶四集,于今數十年已過萬餘戶.曠廢之餘,地力尤倍,種粟一升,能出七八斛.

3.6.55. 이 사실로 미루어 보면 조정에서 서북방 국경 주변 1000리의 땅에 버린 곡식의 양이 몇 백만 석이나 되는 줄 모르겠습니다. 토지에 대해 공간적으로 계산해도 이렇다면 100년에 걸쳐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또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以是推之,□朝家之棄穀於西北沿邊千里之地者不知幾百萬石.橫計於土地而如此,則豎計於百年,又豈有紀極哉?

3.6.56. 무릇 땅을 개간하고 영토를 개척하는 일을 옛사람들은 군사를 전멸시키고 장수를 사로잡으면서까지 추구하려 했습니다만, 우리는 아무 이유도 없이 1000리의 옥토를 버렸습니다. 곡식을 축적하고 변방을 튼실하게 하는 일을 옛사람들은 나랏돈을 다 쓰고 관작을 팔아서까지 도달하려 했습니다만, 우리는 아무 이유도 없이 땅에다 몇 억 석을 버렸습니다.

夫關地啓疆,昔人所以覆軍禽將而求者也,我則無故棄千里之沃壤;積穀實邊,昔人所以竭帑鬻爵而致者也,我則無故棄幾萬萬石於地.

3.6.57. 제가 참으로 어리석기에 이리저리 생각해봐도 조정에서의 계획이 무슨

403) 閭延 : 『의상경계책』 延閭.

404) 평안도 관찰사 김사목(金思穆, 1740~1829)이 장계한 내용을 가리킨다. 『정조실록』 18년 (1794) 11/19.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저네들이 옛땅을 다시 찾으려 한다면 국경 분쟁이 우려할만하다.’⁴⁰⁵⁾고 말합니다. 그런데 두만강과 압록강이 양쪽을 나눈다는 사실은 저네들이나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땅을 개간한다는데, 저네들이 무슨 간섭을 하겠습니까?

臣誠愚昧,左右思而莫識口廟筭之何說也.以爲“彼將復尋故地,邊釁可慮”云爾,則豆滿·鴨綠之爲兩界所分,彼我之所共知也.我墾我地,彼何與焉?

3.6.58. 지금 과수 재배를 하는데 도둑의 침탈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결국 울타리를 줄여서 울타리 밖의 땅에다 과일 나무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도둑의 발길이 멀어지자 여전히 손을 내저으면서 경계만 할뿐, 과감하게 울타리 밖을 한 걸음도 엿보지 못하고서 ‘이들이 곧 다시 올 것이다.’라고만 합니다. 이렇게 해매는 모습은 말로 비유할 수조차 없을 지경입니다. 지금 국경 분쟁을 우려하는 일이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今有治園圃者不勝偷竊之侵軼也.遂感樊而割與樊外之地.及其偷竊遠跡,猶且搖手相戒,不敢窺樊外一步,曰“是將復來”.此其惑不可以言語喻也.今之慮邊釁者,不其類此乎?

3.6.59. ‘저들의 땅과는 강 하나 사이로만 떨어져 있어서 간사한 백성이 몰래 넘어갈까 우려할만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의주 북쪽에서 회령 동쪽으로 강 연안에 있는 여러 읍과 진이, 어찌 저들의 국경 지대와 바짝 붙어 있지 않은 곳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런데도 일찍이 이를 근심거리로 여기지 않은 것은 왜였습니까? 以爲“與彼地隔一帶水,姦細之潛越可虞”云爾,則義州以北會寧以東沿江諸邑鎮,何莫非迫近彼境之地,而曾是之不虞何耶?

3.6.60. 게다가 바둑판의 바둑알처럼 여기저기 배치시킨 진영과 보루[鎭堡]를 바로 국경의 최전방으로 삼는 것인데도, 반드시 그 곳을 비우고 군대를 철수한 뒤에야 ‘몰래 월경하는 폐단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비록 자공子貢의 설을 빌린 주장이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405) 『현종개수실록』 14년(1673) 12/30 기사에 다음과 같은 말이 보인다. “우의정 김수흥金壽興이 아뢰기를, ‘차유령車踰嶺 밖의 토지가 비옥하다는 것은 사실 그러합니다만, 이곳은 바로 옛날에 호인胡人이 들어와서 살던 지역이니, 혹시라도 군을 설치한 뒤에 다시 그들이 침탈한다면 일이 매우 난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철수하여 떠난 지가 거의 50, 60년이나 되는데, 지금 어찌 다시 침탈할 리가 있겠습니까.’”

且鎮堡某布,政所以爲藩限,必欲虛其地撤其藩而後,謂“可以杜潛越之弊”.雖借說於子貢,人將不信.

3.6.61. 지금 날마다 이웃 농작물을 가축이 짓밟을 일을 걱정하는 목축하는 자는 반드시 울짙을 설치하고 목동을 들여 지키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울짙을 훼손시켜놓고 다만 양이나 돼지를 멀리 몰고 가도록 한다면, 얼마 못 가 이웃 농작물을 모두 망칠 것입니다. 지금 몰래 월경할까 걱정하는 일이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今有畜牧者憂其日擾鄰人之稼,則必須設棧柵置牧人守之.乃反毀棧柵,但令驅羊豕而遠之,無幾何而鄰之稼盡矣.今之虞潛越者,不其類此乎?

3.6.62. 이 2가지의 우려가 모두 잘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기름진 땅을 버려둔 채 모두 목재만 채취하는 곳으로 삼은 것이니, 저는 그 까닭을 알고 있습니다.

二者之慮皆非也.則其迄今拋膏腴之地,鞠爲林木之場者,臣知其故矣.

3.6.63. 100여 년 이전에는 약해진 나라로서 두렵고 조심스런 일이 많았고, 서쪽 이웃나라⁴⁰⁶⁾에서 떠들어 대는 소리가 날마다 우리를 압박했습니다. 비록 내지의 성곽조차도 감히 조약을 위배하면서까지 수리하지 못할 지경인데, 하물며 변경 지대에 읍이나 진영을 세우는 일을 의제 삼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신경 쓰지 않는 것은 본래 그럴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百餘年以前,弱國之畏悴多端,西鄰之嘖言日至.雖內地城池亦不敢違約條繕治,況可以議建置於邊界乎?委而棄之固其勢也.

3.6.64. 100여 년 이후에는 저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나긋나긋해서 옛날처럼 허세를 부리며 공갈협박하지 않자 밖으로는 국경 분쟁이 불시에 생길 걱정이 없어졌고, 안으로는 휴양하며 삶을 영위하는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눈앞의 향락만을 생각했지 새가 뽕나무 뿌리로 재난을 대비하는[桑土]⁴⁰⁷⁾ 일과 같은

406) 서쪽 이웃나라: 청을 건국한 만주족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청과 군신관계를 유지 하던 저술 당시조차도 중화국으로서의 청을 인정하지 않는 셈이다. 명에 대해서는 황명(皇明)이라는 극존칭을 썼던 사례와 대조된다.

407) 뽕나무 뿌리로 재난을 대비하던[桑土]: 상두桑土는 桑土綢繆(장마 전에 새가 뽕나무 뿌리 껍

원대한 계획을 급선무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요리조리 잘 꾸민 껍데기 글[虛文]만 좋아라 했지 변방의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군사 전략을 우선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百餘年以來,彼所以待我者歎然無復前日之惘疑虛喝,而外無疆域竊發之虞,內有休養生息之樂.目前之宴安可懷,而桑土之遠慮非所急也;粉飾之虛文可喜,而籌邊之武略非所先也.

3.6.8.2. 국경의 읍과 진영 설치 방안

3.6.65. 전례를 따라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지금까지 치지도 못한 일은 구차하게 가만히 앉아 기다린 것일 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정말로 묘당(조정)에 확립된 계획이 있어서 부질없는 논란 때문에 배격되는 일이 없게 한다면, 아침에 명령 내려 저녁에 모일 정도의 신속한 집행은 한 번 조치하는 사이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因仍⁴⁰⁸倚閣⁴⁰⁹,至于今置之笆籬⁴¹⁰之外者,只坐于偷耳,非有他也.誠使□廟堂有成算,不爲浮議所格,則朝令夕集在一舉措⁴¹¹之間矣.

3.6.66. 논자 가운데는 ‘읍이나 진영을 설치하려면 비용 낭비가 더 크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이에 대해 저는 원나라 신하 우집虞集의 주장을 활용해보겠습니다. 관직을 얻고 싶어 하는 부자들에게 농부를 모집하고 운영비[工本]를 준비해 농사짓도록 합니다. 100부夫를 지을 수 있으면 농지 100부를 주어 백부장百夫長을 삼고, 1000부를 지을 수 있으면 농지 1000부를 주어 천부장千夫長을 삼습니다. 벼슬을 내리고 녹봉을 주면 응모자가 떼 지어 몰려들 것이니, 나랏돈을 쓰지 않고도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⁴¹²⁾

질로 동지의 구멍을 막음. 「빈풍」. 미리 준비하여 환난을 방지함의 비유)의 준말.

408) 因仍: 인습인襲. 예전의 관습이나 예절을 답습함.

409) 倚閣: 그대로 놓아둠, 잠시 중지함.

410) 笆籬(과리): 대울타리.

411) 舉措: 시행함, 조치함.

412) 우집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데, 서유구는 이를 조선의 사정에 맞게 조정했다. “京師之東,瀕海數千里,北極遼海,南濱靑·齊,萑葦之場也.海潮日至,淤爲沃壤.用浙人之法,築堤捍水爲田.聽富民欲得官者,合其衆,分授以地,官定其畔以爲限.能以萬夫耕者,授以萬夫之田,爲萬夫之長.千夫百夫亦如之.察其惰者而易之,一年勿征也,二年勿征也,三年視其成,以地之高下定額於朝廷,以次漸征之.五年有積蓄,命以官,就所儲,給以祿.十年佩之符印,得以傳子孫如軍官之法,則東面民兵數萬可以近衛京師,外禦島夷,遠寬東南

議者或謂“建置邑鎮，靡費滋大”，則臣請用元臣虞集之議：聽富民欲得官者，募佃夫備工本⁴¹³⁾入耕。能以百夫耕者，授以百夫之地，爲百夫之長；能以千夫耕者，授以千夫之地，爲千夫之長。命以爵而授以祿，則應募者麇集，可以不費官帑而事舉矣。

3.6.67. 더러는 ‘개간의 공으로 벼슬을 내린다면 명나라에서 벼슬을 남발하던 사례의 폐해가 생길까.’ 의심하기도 합니다만, 이에 대해 저는 명의 신하인 서광계의 주장을 활용해보겠습니다.⁴¹⁴⁾ 벼슬을 내려주었지만 실제로는 백성을 다스리지 않고 일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는 헛이름[空名]과 같습니다. 녹봉을 주었지만 개간한 농지의 세금으로 그 녹봉을 준다면 몸을 놀려 먹고 사는[食力] 것과 같습니다.

或疑“墾田命爵，必有□皇明事例官之弊”，則臣請用明臣徐光啓之議。命以爵而不理民不治事，則猶之空名也；給以祿而因其稅給其祿，則猶之食力也。

3.6.68. 더러는 ‘빈 직함이라 실제 맡는 일이 없어서 사람들이 기꺼이 달려들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하기도 합니다만, 이에 대해서도 저는 다시 서광계의 ‘둔전에 배정한 과거[屯額科擧]를 따로 만든다.’는 설을 본받고, 우리나라의 도과(道科, 각 도에서 치르는 과거)를 참작하고자 합니다.

或疑“空銜無實，人不樂赴”，則臣又請倣徐光啓“另立屯額科擧”之言，而參之以我國道科之制。

3.6.69. 10경頃 이상의 농지를 개간한 이에게는 무과 정원으로 응시 자격을 부여합니다. 매년 봄과 가을에 평안도 관찰사는 강계江界⁴¹⁵⁾로 순시하고, 함경도 관찰사는 6진으로 순시하여 말타기·활쏘기·격투기 시험을 치릅니다.

墾田十頃以上，許付武學解額。每年春秋，關西觀察使之巡到江界，關北觀察使之巡到六鎮，試以騎射擊刺之法。

海運以紓疲民，遂富民得官之志，而獲其用江海游食盜賊之類皆有所歸。”『元史』 卷181 「列傳」 第68 「虞集」。徐光啓，『農政全書』 卷9 「農事」 「開墾 下」(『農政全書校注』，209쪽)에서 서광계의 「墾田疎」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다.

413) 工本: 공사 비용, 자본.

414) 이하에서 소개한 서광계의 주장은 『農政全書』 卷9 「農事」 「開墾 下」(『農政全書校注』，210쪽)에서 서광계의 「墾田疎」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싣고 있다.

415) 강계江界: 강계부江界府를 가리킴.

3.6.70. 그 가운데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전하께 보고 드리면 무과 출신出身⁴¹⁶⁾을 하사하소서. 그리고 공을 심사하고 능력을 세밀히 살펴 서서히 발탁합니다. 품계가 없다[流外]⁴¹⁷⁾는 이유 때문에 등용에 제한을 두지만 않는다면 사람마다 다투어 권장할 것입니다.

拔其優者,以其名聞⁴¹⁸⁾,賜武科出身.考功察能,以次擢拔.不以流外限其用,則人人競勸矣.

3.6.71. 그리하여 강에서 10리 이내 지역에 바르게 구획하여 농지를 나누되, 모두 내지 둔전의 제도와 같게 합니다. 3년이 지난 뒤⁴¹⁹⁾에 농지의 토질을 살피고 1/10세를 정하여 세금의 반으로는 해당 둔전 책임자의 녹봉으로 쓰고, 나머지 반으로는 비상사태에 대비한다면 10년이 지나서는 비축량이 넘칠 것입니다.

於是就距江十里以內之地,畫井分田,一如內地屯田之制.三年之後,視田高下,定什一之稅,用其半爲本屯長俸祿,儲其半以備緩急,十年之後貯積充溢.

3.6.72. 이런 뒤에 땅을 더 개척하여 강을 경계로 삼고, 요충지를 골라 읍을 세우고 진영과 보루를 건설합니다. 각 읍마다 둔전 5000경을, 각 진영마다 둔전 3000경을 둡니다. 관에서 백성을 모집하여 농사짓되, 세금 비율은 땅주인과 소작인[主客]의 사례대로 합니다. 징수된 세금은 3등분하여 1/3로는 무리(병졸)의 봉급과 식사비로, 1/3로는 관리의 녹봉으로, 1/3로는 비상사태 대비용으로 씁니다.

然後益復拓地,以江爲界,擇要害之地,建郡邑設鎮堡.每一邑置屯田五千頃,每一鎮置屯田三千頃.官自募民耕之,收其租如主客例.平分爲三,用其一廩徒餉士,用其一爲官俸,貯其一以備緩急.

3.6.73. 민둔民屯은 안쪽을 차지하고, 관둔官屯은 바깥쪽을 차지합니다. 관둔에서는 군인을 내어 백성을 보호하니 군인의 세금을 면제해주고, 민둔에서는 호포戶

416) 출신出身: 과거에 급제하고 아직 관직을 부여받지 못한 신분.

417) 품계가 없다[流外]: 1품에서 9품까지의 正·從의 양반직 품계를 유내流內라 한 것에 비추어 이 외에 품계가 없는 관직을 유외流外라 한다. 『한국고전용어사전』 4, 190쪽.

418) 띄어쓰기도 언어임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聞’ 앞에 한 칸을 띄어 쓴 것으로 보아 국왕에게 보고한다는 뜻이다.

419) 우집은 이와 달리 3년째에 세금을 받도록 했다. (3.6.66)의 주석 참조.

布를 내어 군인을 지원하니 백성의 국정 근무를 면제해줍니다. 안팎으로 서로 지탱해주고, 관과 민이 날실과 씨실처럼 잘 짜여있습니다. 이 조례의 세부 사항은 제가 함부로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정도가 전체 개략입니다.

使民屯居內,官屯居外.官屯出兵以衛民而免其調,民屯出布以養兵而免其戍.內外互爲維持,官民相爲經緯.其條例纖穠,臣不敢縷陳,而此其大略也.

3.6.9. 국경 둔전 개발의 10리(利, 이익)

3.6.74. 이런 조치들이 시의적절하다면 국경에 관한 나라의 계획에 크게 관련될 만한 일이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겠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개략적으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苟能措置得宜,則大有關於邊虞□國計者不可勝數.臣請槩言之.

3.6.9.1. 제1리: 이민족에게 국경을 잠식당할 우려 종식

3.6.75. 제가 듣기로 최근 100년 동안 저들 가운데 인삼을 캐거나 담비를 사냥 하러 4군 영역까지 넘어오는 이들은 수 백 명의 떼거리로 몰려온다고 합니다. 검문하는 군사들은 그네들이 지나가도 감히 말도 걸지 못합니다.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저들의 법도가 아직은 해이해지지 않았기에 오히려 변방의 법도를 두려워하며 멋대로 날뛰는 지경이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들은 모두 고요히 비어있는 이곳이 개간할만하다는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으르렁대며 삼켜버리려는 마음을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臣聞近自百年以來,彼人之爲採蔘獵貂犯越四郡之境者百千爲羣.防汛之卒,過之而不敢問.今幸彼之綱維未弛,尙可怵之以邊憲,不至肆其跳梁耳.彼皆熟知其閒曠可墾也,猶然吞噬之心,未嘗一日忘也.

3.6.76. 하루아침에 세상에 변고가 생겨 움직임이 다급해지면 이전 왕조인 고려의 앞일이 우리에게도 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강 연안 1000리 땅이 다시는 국가國家 소유가 아니어서 서북 지역 백성에게 지금부터 평화 시대가 없어질까 두렵습니다. 지금은 국경 내외로 편안한 때이니, 개간을 통해 백성을 이주시켜 밥 짓는 연기가 이어지며, 군郡과 진영을 설치하여 성채와 보루가 서로 바라다보

이게 한다면 변경의 담장은 굳건해지고 도둑질도 종적을 감출 것이니, 뒷날 야금 야금 국경을 잠식당하는 우려를 오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 이익입니다.

一朝天下有事,呼吸乍急,則勝國⁴²⁰之往轍不遠.臣恐沿江千里之地,非復國家之有,而西北之民自此無寧歲矣.及今兩界晏謐之時,墾田實民,烟爨相接,置郡設鎮,砦堡相望,則藩垣壯固,穿窬⁴²¹斂跡,可以永杜後日舐糠及米⁴²²之患:其利一也.

3.6.9.2. 제2리: 국경지대의 병농일치로 방비의 폐단 제거

3.6.77. 강계에 근무하는 병사들이 압록강 변으로 경계 근무 들어가는 곳은 무창의 오통동五統洞에서 만포滿浦의 옥동玉洞까지 모두 93곳입니다. 강계부江界府와의 거리는 먼 곳이 70~80리나 떨어져 가는 길에 힘이 다 빠지고, 양식 보급을 위해 지고 나르느라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며, 풍찬노숙(바람과 이슬을 맞고 한 데서 먹고 잠)하느라 지쳐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옛날에 “각박한 수자리(국경 경계 근무), 천으로 두른 막사, 어찌 수레 막으려는 사마귀의 호기와 다를 바 있나?”⁴²³라 했던 상황이 반드시 이처럼 열악하지는 않았고, 보급병들이 먹는 식량이 연간 1000여 석[斛]이나 소비된다니, 도대체 이게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江界戍卒之入防於鴨綠江邊者,自茂昌之五統洞至滿浦之玉洞,總九十三處.其距江界府,遠者七八百里,筋力疲於道路,資糧窘於肩輿,風餐露宿,羸困欲仆.古所謂“薄戍縣幕,何異於螳螂之衛?”者未必若是之甚,而歲費餉穀千餘斛,此何爲者也?

3.6.78. 만약 땅을 개간하고 백성을 모은 뒤, 강 연안의 위와 아래에 가마를 설치하여 벽돌을 굽는다면, 3~5리 간격으로 가운데가 빈 망루(초소) 한 채를 지어서 안에는 곡식을 보관하고, 위에는 병사들의 화약총·화약쇠너(화약을 장전하여 기계 장치로 쏘는 활)·긴 활·센 화살·병기 보관함을 둡니다.

若於土闢民聚之後,就沿江上下,設窯燒甍,每相距三五里築空心敵臺一座,內藏米穀,上置戍兵火銃·藥弩·長弓·勁矢·取具.

420) 勝國: 망한 나라, 즉 전대前代 왕조.

421) 穿窬(천유): 벽을 뚫거나 담을 넘음.

422) 舐(지)糠及米: 거름 다 밟고 쌀까지 먹어치움. 욕심이 커져 잠식해 들어감의 비유.

423) “蘧伯玉謂顔閔曰:‘汝不知夫螳螂乎?怒其臂以當車轍,不知其不勝任也.’”『文選』卷6「魏都賦」‘左太冲’. 사마귀의 호기에 대해서는 『장자』에 나온다.

3.6.79. 병사들에게는 망루에서 내려와서는 농사짓고, 망루에 올라가서는 먼 곳을 감시하게 하는데, 비상사태가 있을라치면 집안 재산을 망루 위에 옮겨놓고 수비에 임합니다. 이것이 사람마다 자기 힘으로 먹고 자기 집을 지키게 하는 일이니, 국경을 튼튼하게 할 수 있고, 적이 이용할 수 없게 들의 식량을 치우는 술법[淸野之術]⁴²⁴⁾을 행할 수 있고, 국경의 방비에서 생기는 폐단을 제거할 수 있고, 보급하느라 허비되는 식량 연간 1000여 석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둘째 이익입니다.

令戍卒下臺耕耘,上臺瞭望,遇有警急,輸家產上臺而守之.是使人人自食其力·自守其舍也,可以固邊圉,可以行淸野之術,可以除遠戍之弊,可以歲省餉穀千餘斛:其利二也.

3.6.9.3. 제3리: 내지 군사 시설 폐지로 경비 절감

3.6.80. 강 연안에 진영을 설치한 뒤에는, 관북(함경도)의 풍산豐山·양영梁永·옥련玉蓮·어유간魚游澗 등의 진영과 보루, 그리고 관서(평안도)의 마마해馬馬海⁴²⁵⁾·추파楸坡⁴²⁶⁾·중포從浦⁴²⁷⁾·상토上土⁴²⁸⁾·윗괴외叱怪⁴²⁹⁾ 등의 진영과 보루는 모두 내지가 되니, 저절로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비 몇 만 석을 줄이고, 병사 4~5천 명을 징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셋째 이익입니다.

沿江設鎮之後,如關北之豐山·梁永·玉蓮·魚游澗等鎮堡,關西之馬馬海·楸坡·從浦·上土·外叱怪等鎮堡,皆處內地,自當革罷,可省經費數萬,簽丁四五千:其利三也.

3.6.9.4. 제4리: 평안도 요충지 강변 7읍의 식량 비축

3.6.81. 식량 비축은 천하의 큰 사명인데, 변방에서는 더욱 급한 임무입니다. 제가 듣기로 의주 북쪽 변경인 7읍은 대개 몇 년 버틸 식량조차도 없는 반면, 강계

424) 적이~술법[淸野之術]: ‘淸野’는 전쟁 때 적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 양식이나 물자를 옮겨 없애는 일을 말한다.

425) 마마해馬馬海: 마마해보馬馬海堡. 옛날에는 마마해麼麼海라고 하였는데, 석성이다. 권관.

426) 추파楸坡: 추파보楸坡堡. 부의 동쪽 30리에 있는데, 석성이다. 만호.

427) 중포從浦: 중포보從浦堡. 부의 북쪽 25리에 있는데, 목책木柵을 설치하였다.

428) 상토上土: 상토진上土鎭. 부의 북쪽 1백 리에 있는데, 석성이다. 옛날에는 만호 보였다. 첨사.

429) 윗괴외叱怪: 윗괴보外叱怪堡. 옛날에는 외괴보外怪堡라고 하였다. 부의 서쪽 1백 23리에 있는데, 석축이다. 만호.

의 삼천방三川坊은 곡식이 흩쳐럼 흔하지만 바다와는 너무 멀어서 소금은 금처럼 귀하다고 합니다. 4군이 모두 개간된 뒤로는 흔하던 곡식은 더 흔해지고, 귀하던 소금은 더 귀해질 것임도 알 만합니다.

貯積者天下之大命也,在邊圉尤爲急務.臣聞義州以北沿邊七邑大率無數年之餉,江界三川坊穀賤如土,而距海絕遠,鹽貴如金.四郡盡墾之後,賤者益賤,貴者益貴,又可知也.

3.6.82. 이제 변경 7읍 각각에게는 관 운영비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출자하여 운영비로 책정하고, 의주義州·양주楊州·미라산彌羅山 등 해변 지역에서는 해수를 끓여 소금을 만들게 하소서. 이 소금을 가벼운 거룻배에 싣도록 하고 통행증을 발급하여 강을 거슬러 올라가 4군에 납품하면 소금 1석으로 곡식 3~4석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곡식을 서서히 7읍으로 운송하여 묵은 곡식을 햇곡식으로 바꾸고 세금 부과량을 저축하면, 10년도 지나지 않아 변경 7읍 모두 수 십 년분을 축적할 것입니다. 이것이 넷째 이익입니다.

今使沿邊七邑各出無礙官錢爲工本,煮鹽於義州·楊州·彌羅山等濱海之地.載以輕舫,給以路引,溯江糴穀於四郡,則鹽一斛可得穀三四斛.以次轉輸于七邑,推陳易新,課歲⁴³⁰貯積,則不過十年,沿邊七邑皆有數十年之蓄:其利四也.

3.6.9.5. 제5리: 견증법 시행 용이

3.6.83. 동남 지역(관동과 삼남)의 좁은 마을은 대개 산을 사다리 모양으로 깎아 다락밭[梯田]을 만든 곳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산의 높은 봉우리나 험준한 비탈에 불을 질러 농지를 만든 곳은 한쪽 무릎을 꿇고서 밭을 갈고⁴³¹ 구덩이를 뚫고서 재배하는데,⁴³² 바라만 보아도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밭을 갈아 고랑

430) 歲: 稅의 오기로 추측된다.

431) 그 가운데~갈고: 『본리지』(『임원경제지 본리지』 1, 170쪽)에는 『과농소초』(박지원)에서 인용한, 유사한 구절이 있다. “그 가운데 산의 높은 봉우리나 험준한 비탈에 불을 질러 농지를 만든 곳은 다락밭처럼 층층이 되지 못하여 한쪽 무릎을 꿇고서 경작한다. 1년 농사짓고 그곳을 떠나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산화전山火田이라고 한다. 其峭峰峻阪,烈火燒畝,不成梯級,偏跪以耕.一年種粟,去又之他者,曰山火田.”

432) 구덩이를~재배하는데: 밭이 너무 좁아 밭 디딜 틈이 없기 때문에 비탈의 구멍에 의지해 파종, 김매기 등을 행하는 모습을 설명한 듯하다. 이와 유사한 『본리지』의 구절이 아래와 같이 보인다. “또 산세가 아주 험준하여 밭을 내디딜 수 없는 곳에서 씨앗을 뿌리고 곡물을 재배할 때, 사람은 개미처럼 허리를 굽히고 거슬러 올라가면서 흙을 갈아 씨앗을 심고 구덩이를 뚫고 김을 맨다. 이런 산의 농지는 고르지 않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모두 사다리 계단과 같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락밭이라고 한다. 又有山勢峻極,不可展足,播植之際,人則僂僂蟻沿而上,耨土而

[畎]과 두둑[伐]을 법도대로 만들 수 없는 이유가 단지 농법에 서투르기 때문만이 아니라, 땅의 형세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東南狹鄉,類多梯山爲田.其稍峰峻坂烈火燒畬者,偏跪而耕,躡坎而種,望之亦覺體栗⁴³³). 其耕治畎伐之不能如式,非但農法鹵莽,亦由地勢使然也.

3.6.84. 이에 반해 서북 지역(관서와 관북)은 비록 높은 산과 큰 고개가 많지만 아래 들판은 바둑판을 보는 듯 모두 평탄하고 넓습니다. 무릇 바둑판처럼 바르게 구획하여 수로를 준설하고, 이랑을 만들어 여기에 고랑으로 손질하면서 옛사람들의 법도를 본받기로는 다른 땅에 견주어 힘쓰기가 매우 쉽습니다. 이것이 다섯째 이익입니다.

西北之地,雖多高山大嶺,而其下野之坪必皆平直夷曠如對碁枰.凡畫井濬濬,作畹治畎,以倣古人之法者,視諸他地,特易爲力.其利五也.

3.6.9.6. 제6리: 4군郡에서의 풍년 기대

3.6.85. 흙의 색깔과 성질은 천차만별이지만, 가장 좋은 흙은 입자가 작고 부드러우면서 기름지며 가장 좋지 않은 흙은 단단하게 마르면서 굵고 차집니다. 이 때문에 훌륭한 농부가 땅을 손질할 때 밭갈이 3번, 씨레질 6번, 중형으로 고무래질을 하는 이유는 흙이 잘게 부서져서 씨앗에서 싹이 쉽게 나도록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土之色性有萬不齊,而最貴者細腴膩潤也,最忌者剛垆龜黏也.是以良農之治地也,三耕六耨.縱橫耨蓋,欲使土細而種易出芽也.

3.6.86. 제가 듣기로 4군 지역은 몇 백 년 동안 황폐한 채로 있다 보니 썩은 나뭇잎과 풀이 모두 기름진 거름이 되어서, 잘 빻은 밀가루[節麪]처럼 보드라와 무엇을 파종하든 알맞지 않은 곡식이 없으나, 개간을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합니다. 다만 개간을 한다면 무수히 많은⁴³⁴) 작물이 약속이나 한 듯이 제대로 자랄

種,躡坎而耘.此山田不等,自下登陟,俱若梯磴,故總曰梯田.”『임원경제지 본리지』 1, 159쪽(『왕정농서』를 인용한 부분임).

433) 栗: 『의상경계책』 栗. 문맥상으로 교감함.

434) “既齊既稷,既匡既勑,永錫爾極,時萬時億(箋云:是萬是億,言多無數.)”『毛詩注疏』 卷20 「小雅-谷風之什」 ‘楚茨’.

것이 뻔합니다. 이것이 여섯째 이익입니다.

臣聞四郡之地累百年荒廢，腐葉朽草，皆成肥壅，細如節麩，種無不宜，有不壅耳。苟壅之，時萬時億，執契而必：其利六也。

3.6.9.7. 제7리: 수로가 곧 견고한 요새

3.6.87. 옛사람들이 땅을 구획하여 나라를 세울 때 “나 땅의 경계 짓고, 나 작은 길 내니, 이랑을 동쪽으로 내기도, 남쪽으로 내기도 하도다”⁴³⁵⁾라 했는데, 이는 흙을 손질하여 작물 재배에 힘쓰는 일 뿐만 아니라, 요새를 만들어 전쟁을 막는 일을 말한 시이기도 합니다. 진짚나라가 제齊나라를 칠 때 반드시 “그 이랑을 모두 동쪽으로 냈다”⁴³⁶⁾고 말한 것도 수레 이동에 편리함을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변경 천 리에 가로세로로 수로[溝澮]를 낸다면 논밭 사이가 모두 견고한 요새[金湯之險]⁴³⁷⁾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일곱째 이익입니다.

古人之畫地而國也，曰“我疆我理，南東其畝”，非徒父⁴³⁸⁾土而務樹藝，亦以設險而禦戎馬。晉之邀齊，必曰“盡東其畝”，亦欲其利於行車也。今使沿邊千里，溝澮縱橫，則田野之間，皆成金湯之險：其利七也。

3.6.9.8. 제8리: 유출되던 목재 풍부하게 확보

3.6.88. 매년 봄과 여름 사이에는 압록강을 타고 내려가는 뗏목이 앞뒤가 이어져 끊이지 않는데, 모두 산동 지역의 백성들이 압록강 상류에서 도벌한 나무입니다. 저들이 비록 장백산(백두산) 남쪽에서 채취한다고 말하지만, 도벌을 방치함으로 써 우리가 적에게 무기를 빌려준다거나[藉寇] 도둑에게 양식을 빌려주는[齎盜]⁴³⁹⁾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每年春夏之交，桴筏之自鴨江流下者首尾相續，皆山東之民偷斫於鴨江上流者也。彼雖云

435) “信彼南山，維禹甸之，畇畇原隰，曾孫田之，我疆我理，南東其畝。”『毛詩注疏』卷20「小雅-谷風之什」‘信南山’。

436) “故詩曰：‘我疆我理，南東其畝’。今吾子疆理諸侯，而曰盡東其畝而已。唯吾子戎車是利[注：晉之伐齊，循壟東行易]。”『春秋左傳注疏』卷25‘成公二年’。

437) 견고한 요새[金湯之險]：金湯은金城湯池의 준말로, 쇠를 부어 만든 성과 끓는 물이 고여 있는 못이다. 함락이 불가능할 정도로 견고한 성의 비유.

438) 父：治의 뜻.

439) “此所謂藉寇兵而齎盜糧者也。”『史記』卷87「李斯列傳」第27。

得之長白之陽,安知非我之藉寇而齎盜也乎?

3.6.89. 이제 천 리를 개간한다면, 도끼로 쓰러뜨릴 나무는 아무리 계산에 능통한 자라도 셀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이 나무를 압록강으로 내려 보내거나 장마를 기다렸다가 장진강長津江으로 내려 보낸다면, 목재는 이루 다 쓸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덟째 이익입니다.

今若千里墾關,其斫倒木植,巧歷不能數.或從鴨江流下,或待潦漲從長津江流下,則材木不可勝用矣:其利八也.

3.6.9.9. 제9리: 양 목축과 양잠으로 생산물 공급

3.6.90. 왕도王道 정치는 생산물을 내는 일이 우선입니다. 생산물을 내는 방도 중에는 식목과 목축이 급선무입니다. 우리 동국은 본래 목축 기술에 어두워, 집에서 소[穀觥]라도 키우면 키운 이를 추켜세우며 상농上農이라 합니다. 마굿간에 둔한 말이라도 두면 둔 이를 가리켜 대상(大商, 큰 상인)이라 합니다. 육지에서 양 250마리 정도를 사육하거나, 습지에서 돼지 250마리 정도를 키우는 곳은 온 나라에서 한둘이나 보일까말까 합니다.

王者之政,制產爲先:制產之道,樹畜爲急.我東素昧畜牧之術,家飼穀觥,訖爲上農.廐有驚駘,指爲大商.陸地千足羊·澤居千足彘,舉一國而未見一二也.

3.6.91. 배를 채우는 데 오로지 곡식과 채소에만 의지하고, 입에 비린내라도 묻힐라치면 단지 소 도살만을 기다립니다.⁴⁴⁰⁾ 그래서 농사는 날로 더 힘들고, 생산물은 날로 더 부족해집니다.

果腹惟靠穀菜,腥口只待宰牛,而農日益困,產日益匱.

3.6.92. 제가 듣기로는 압록강 북쪽에서는 목축을 하느라 들판을 뒤덮고, 삼척동자도 양이나 돼지 100~200마리를 관리할 수 있으며, 고기와 털옷은 모두 그곳에서 해결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서북의 강 연안 지역은 저들의 땅과 맞붙

440) 조선 사람들이 소고기만 먹었다는 서유구의 언급은 다소 과장이 섞인 듯하다. 앞에서도 서리나 아전이 세금 독촉 차 고을을 돌아다니면 마을에 개와 닭이 남아나지 않는다는 언급(1.1.26)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나 닭도 민간에서 식용하는 중요한 가축이었다. 소 이외의 가축도 민간인이 섭취한 육고기일 텐데, 소 도살만 부각한 듯하다.

어 있어 풍토의 기운이 그다지 다르지 않음이 확실합니다.

臣聞鴨江以北畜牧蔽野，三尺之童能牧羊豕一二百頭，食肉衣裘皆辦於此。臣意西北沿江之地，與彼壤地相接，風土之氣諒不甚遠。

3.6.93. 새로 개간한 곳에는 목재가 쌓일 것이니, 필요한 울짙을 가져다 써도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절사節使가 중국에 갈 때마다 암양 100마리, 숫양 10마리를 구입해오게 하고, 함경도 변경 지역에서는 개시開市⁴⁴¹⁾에서 직거래로 구입합니다.

新闢之地，材木委積，棧棚所需，取之不竭。每於節使之行，買來牝羊百口，羝羊十口，關北沿邊之地則直爲交易於開市。

3.6.94. 그리고 물과 풀의 접근이 편리한 곳을 골라 울짙을 넓게 설치하여 기릅니다. 백부장百夫長이나 천부장千夫長 가운데 자신의 자금으로 사와서 목축을 하고 싶어 하는 이가 있으면 허가해줍니다. 몇 년 동안 새끼 쳐서 차츰 내지로 종자를 퍼뜨리면 털모자[氈帽]를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고기를 소에게만 맡기지 않아도 됩니다.

擇水草便宜處，廣設棧棚而牧之。百夫長·千夫長之願以己資買來畜牧者聽。數年孳殖，漸次傳種於內地，則氈帽不藉於中國而擊鮮⁴⁴²⁾不專於牛犢矣。

3.6.95. 제가 또 엮드려 들으니 난하灤河⁴⁴³⁾ 서쪽에 넓게 펼쳐진 사전(沙田, 모래와 진흙이 쌓여 만들어진 농지)에는 모두 뽕나무[桑]나 산뽕나무[柘]를 심었는데, 뽕잎의 윤기가 국산품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제 그 품종을 구입하여 4군에 널리 심어서 원위元魏의 상전桑田과 노전露田 제도를 본받게 하소서. 뽕나무를 밭에 옮겨 심어 재배하는 것을 상전이라 하고, 옮겨 심지 않은 채로 재배하는 것을 노전이라 합니다. 노전 3경을 상전 1경으로 간주합니다. 반드시 상전 10경을 채운 뒤에 비로소 과거 응시 자격[解額]을 부여합니다.⁴⁴⁴⁾

441) 개시開市: 외국과의 교역을 위해 열었던 시장. 북관개시北關開市·왜관개시倭關開市·중강개시中江開市 등이 있었다. 이 중 함경도에 있던 북관개시는 청나라의 요청으로 개설한 회령시(會寧市, 1637년)와 경원시(慶源市, 1646년)를 이른다. 『한국고전용어사전』 1, 190쪽; 같은 책 2, 1102쪽.

442) 擊鮮(격선): 짐승을 잡음. 갓 잡은 고기는 신선한 데서 이름.

443) 난하灤河: 하북성河北省에서 발원하여 발해로 흘러드는 강. 하북성 동북쪽에 있다.

444) 북위(北魏, 후위)에서 시행했던 상전과 노전 제도는 효문제(孝文帝, 471~499 재위)가 실시한

臣又伏聞灤河之西,彌望沙田皆栽桑柘,其葉肥沃大異東產.今若多購其種,廣植於四郡,而倣元魏桑田·露田之制.栽桑田畔者爲桑田,不栽桑者爲露田.露田三頃准桑田一頃.必滿桑田十頃,然後始付解額.

3.6.96. 또 잠망蠶網·잠가蠶架·물레[繰車]·베틀[織機] 등 중국의 비단 짜는 기구들을 구입하게 한 뒤 기구의 구조를 잘 살펴 제작하게 합니다. 둔전의 장長에게 서로 권장하면서 감독하고 심사하게 하면, 비단실이 중국보다 풍부해져 양생송사養生送死⁴⁴⁵⁾에 필요한 물품을 멀리 북경까지 가서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아홉째 이익입니다.

又求中國蠶績之具如蠶網·蠶架·繰車·織機等器,按式製造.令屯田之長勸相而督課之,則絲縷豐溢於口國中,而養生送死之需不待遠貿於燕市:其利九也.

3.6.9.10. 제10리: 정전제 시행의 최적지 확보

3.6.97. 예부터 입만 열면 왕도 정치를 논하는 자들은 반드시 정전제井田制를 말하면서도 이를 시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2가지 듭니다. 첫째, 겸병한 넓은 농지를 빼앗아 빈민에게 나눠준다면 부자들은 불복하여 난이 일어나기 쉽다는 점입니다. 둘째, 봉건封建 제도가 없어지면서 관리와 백성이 서로 잘 알지 못하게 되자, 농지를 나눠주거나 환수하는 과정에서의 속임수를 세밀히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自古侈口論王政者必曰井田,而難之之說有二.一曰:奪兼并之田以與貧民,則富民不服而易生亂也.一曰:一自封建廢而官民不相稔,授田還田之際,欺冒難察也.

균전제(均田制, 485년)에 들어있는 제도를 가리킨다. 농민에게 토지를 호구에 따라 균등하게 지급하는 균전제에서는 농부에게 나누어 줄 노전의 넓이를 15세 이상의 남자에게는 40묘로, 여자는 그 반으로 규정했다. 과세할 기간이 지나면 국가에서 이 노전을 환수했지만 상전의 경우는 영업전永業田으로 규정하여 세습이 가능하게 했다(“(太和)九年,下詔均給天下民田,諸男夫十五以上受露田四十畝,婦人二十畝,奴婢依良丁牛一頭,受田三十畝,限四牛,所授之田率倍之,三易之田再倍之,以供耕作及還受之盈縮,諸民年及課則還田,奴婢牛隨有無以還受,諸桑田不在還受之限.”『魏書』卷110「志」第15「食貨」6. 균전제와 관련한 내용은 柳馨遠,『礪溪隨錄』卷6「田制攷說」下「後魏北齊隋唐田制」; 丁若鏞, <<與猶堂全書>> 第5集 政法集 第6卷『經世遺表』卷6「地官修制」‘田制’ 5(<<叢刊>> 285, 112쪽)에도 나온다. 그러나 서유구가 제안한 상전은 땡나무만을 전적으로 재배하는 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가 제안한 상전 10경을 채운 사람에게 과거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는 본래 균전제에 들어 있지 않으나, 상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롭게 구상한 부분이다.

445) 양생송사養生送死: 부모를 생전에 잘 모시고 사후에 후하게 장사지냄.

3.6.98. 이제 주인 없이 고요히 비어 있는 땅을 개간한다면 겸병한 농지 소유자들의 원망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백부장이나 천부장에게 모두 세습을 허락한다면, 봉건 제도와 다를 바가 없어서 일꾼(소작농)⁴⁴⁶⁾들의 능력과 태도 모두를 두루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하에 정전제를 시행할 수 있는 곳은 오로지 이곳만이 그렇습니다.

今墾無主閒曠之地,則兼并之怨非所慮也.百夫千夫之長皆許世襲,則與封建無異,而佃戶之虛實勤惰皆可周知矣.舉天下而可行井地之制者,惟此地爲然.

3.6.99. 옛날 횡거 장재張載⁴⁴⁷⁾ 선생이 어느 마을의 땅을 얻어 정전井田으로 구획하려 했으나 의지만 있었을 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⁴⁴⁸⁾ 이제 도합 100만 경의 땅으로⁴⁴⁹⁾ 옛 성왕이 나라를 운영하면서 들판을 구획하던 큰 정치를 그대로 모방하는 일 또한 오래도록 전해질 일대 쾌거입니다. 이것이 열째 이익입니다.

昔橫渠張子思得一鄉之地,畫爲井田,而有志未遂.今將提封百萬頃之地,盡倣古聖王經國畫野之大鋪叙⁴⁵⁰⁾亦千古一大快事:其利十也.

3.6.100. 이익이 10가지나 있고 1가지도 손해가 없는데, 왜 꺼리면서 해보지 않습니다? 이상은 서북 지방의 변경을 탄실하게 하는 방책이었습니다.

有十利而無一害,何憚而不爲哉?此西北實邊之策也.

446) 이 구절에서 김용섭은 ‘佃戶’를 지주전호제의 전호가 아니라 ‘佃夫戶’의 줄임말로 보았다. 金容燮, 『韓國近代農業史研究』 I, 173쪽 주402번 참조.

447) 장재(張載, 1020~1077): 북송의 횡거진橫渠鎭 출신. 횡거 선생이라고도 한다. 북송 오자五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성리학의 토대를 구축했으며, 기氣를 중시했다. 『正蒙』, 『西銘』, 『橫渠易說』 등의 저서가 있다.

448) “비록 세상에서 이를 실행할 수는 없으나, 한 마을에서 시험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한창 학자와 옛법을 의논하고서, 네모난 밭 한 곳을 사고 몇 개의 정으로 구획한다. 縱不得行之天下,猶可驗之一鄉. 方與學者議古之法,共買田一方,畫爲數井.” 『橫渠易說』 「橫渠先生行狀」; 『張子全書』 卷15 「行狀」. 『農政全書』 卷3 「農本」 ‘國朝重農考’(『農政全書校注』, 78쪽)에도 유사한 구절이 나온다. “宋儒張子厚有買田一方·畫爲數井之思,且講求法制,以爲不刑一人而可復.時皆不售.”

449) 서유구가 조선의 강토를 600만 경으로 파악하여 그 중 농지가 300만 경이라고 추정했던 사례(1.1.45)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언급한 100만 경을 국경 지대에 개간할 농지 넓이로 보기에 너무 많다. 따라서 100만 경은 북방의 국경 지역이 포함된 관서(평안도)와 관북(함경도)의 전체 넓이를 뜻하는 것 같다.

450) 大鋪叙: 크게 펼침.

3.6.10. 도서 지역 둔전

3.6.101.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큰 섬은 주위가 200~300리이고, 작은 섬은 60~70리입니다. 기름져서 부쳐 먹을 만한 곳이 많지만 그 가운데 서남해에 있는 섬 7/10이 말 사육장입니다. 원나라 지원至元 연간(1335~1340)⁴⁵¹⁾에, 제주가 방성房星에 해당하는 분야分野라 하여 이곳에 말을 사육하면서 그 품종이 여러 섬에 점점 퍼지게 되었습니다.⁴⁵²⁾ 그러나 400~500년 동안 품종을 바꾸지 않아 지금은 모두 왜소한 말이 되었습니다.

我國三面環海,島嶼錯落.大則周圍數三百里,小則六七十里.多膏腴可耕之處,而其在西南海者什七爲牧馬之場.蓋元至元中,以耽羅之爲房星分野,牧馬於此,其種漸殖於諸島.然四五百年不復易種,今皆爲果下款段⁴⁵³⁾矣.

3.6.102. 제가 듣기로 말은 화火 기운을 지닌 가축이라 더위를 잘 견디지 못해 서북 지방에 알맞지 동남 지방에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부터 말 사육 장소는 반드시 서북쪽에 있었음을, 주나라의 연위汧渭나 위魏나라의 하서河西나 당나라의 팔방八坊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臣聞馬爲火畜,性不耐暑,宜於西北而不宜於東南.故自古養馬必在西北,觀於周之汧渭·魏之河西·唐之八坊可見矣.

3.6.103. 제 생각으로는 관서(평안도)와 관북(함경도)에서 물과 풀이 풍부한 곳을 고른 뒤 울짙을 세워 우리를 만들고 7~8군데에 목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매년 관북개시關北開市에서 암말 수 십 마리, 숫말 5~6마리를 구입하여 차츰 새끼를 불러 군대와 나라 운영의 용도로 공급하고, 제주를 제외한 서남해의 목장은 모두 폐지합니다. 이 과정에서 목장 관리를 위한 관사와 녹봉은 전농관에 소속시키고, 백성을 모집하여 농사짓게 하는 일은 모두 내지 둔전의 제도와 같게 합니

451) 원나라 지원至元 연간 : 원나라 세조世祖의 연호(1264~1294)이자 원나라 순제順帝의 연호(1335~1340)다. 원이 고려를 침입한 이후의 일이므로 여기서는 순제의 연호를 가리키는 것 같다.

452) 방성은 28수宿의 하나로, 창릉 7수宿 가운데 네 번째에 있으며 4개의 별로 이루어졌다. 이 별자리가 마신馬神을 맡은 자리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말 사육에 적합한 장소로 제주가 선택되었다는 것이다.

453) 果下款段: 果下는 몸집이 왜소한 말을 가리키고, 款段(관단)은 말(또는 말이 느리게 가는 모양)을 가리킨다.

다. 그러면 오랫동안 쌓인 똥거름 덕분에 이익이 몇 배가 될 것이니, 10년을 행하면 부유할 만큼 축적할 수 있습니다.

臣謂宜擇關西北饒水草之地，樹柵爲隄，移設牧場七八處。每年關北開市，購牝馬數十匹，牡馬五六匹，漸次取字以給軍國之用，而耽羅外西南海牧場並罷之。因其監牧之廐宇廩祿，置典農官，募民耕種，一如內地屯田之制。則積年糞壤，其利數倍，行之十年，富有貯積。

3.6.104. 그런 뒤에야 해상로의 요충지를 골라 진영과 보루를 설치하고 서북 지방의 진영과 보루에서 하듯이 농사와 군대 군무를 함께 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진영 근처에서 생기는 해산물과 소금의 이윤을 허가해주어 내지의 미곡을 사들이면 해양 방어는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이것 또한 동남 지방의 변방을 튼튼하게 하는 방책입니다.

然後擇海路要害處，設爲鎮堡，寓兵於農如西北鎮堡之爲，而復予近鎮魚鹽之利以糴內地米穀，則海防益鞏矣。此又東南固圉之策也。

3.6.11. 둔전은 부국의 근본

3.6.105. 안으로는 근본을 단단하게 하고, 밖으로는 변방을 튼튼하게 하면 재물과 곡식이 풍족하여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공급이 충분해질 것입니다. 그런 뒤에 농사에 손실이 있으면 곡식을 사들이고, 장사에 손실이 있으면 곡식을 내다 팔아서 상평常平의 제도를 본받고, 환곡[還上]의 폐단을 혁파할 수 있습니다. 호적에 빠진 호구를 조사하고, 식구 수를 가려서 용庸과 조調의 세금을 되살리고 군보軍保의 역을 혁파할 수 있습니다.

內壯根本，外固邊圉，財穀充溢，公私給足。然後傷農則糴，傷末則糶，倣常平之制，革還上之弊。查檢漏戶，揀別大小，復庸·調之稅，罷軍保之役。

3.6.106. 그리하여 구리를 채굴하여 바다를 평안하게 하고 물을 쳐서 화폐를 주조하여 곡식과 비단의 경중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송나라 신하 이강李綱이 말한 절용, 폐단 바로잡기, 사실 밝히기, 음양의 열리고 닫힘, 상업 등의 여러 방법으로 성실함을 베풀어 행하고 부세를 더하지 않아도 나라에 필요한 물품이 풍족하다는 말이 어찌 빈말이겠습니까?454)

454) 마지막 문장은 『農政全書』 卷16 「水利」 ‘浙江水利’(『農政全書校注』, 400쪽)에 나온다.

於是採銅寧海,激水鑄幣,以權穀帛之輕重,而復以宋臣李綱所言節用·救弊·覈實·開闢·質
遷諸法,設誠而致行之,不加賦而國用足,豈虛言也哉?

금화지비집 권제12 끝

金華知非集 卷第十二

<제6목 해설>

『의상경제책』의 제6목은 “둔전 넓혀 부국 만들기”이다. 둔전론은 본래 『의상경제책』의 셋째 강인 농정론의 마지막 한 목의 주제일 뿐이지만, 제1목부터의 모든 논의가 이 둔전론을 목표로 두고 진행되고 있다. 둔전론은 11목 중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했던 대목이기도 하다. 정부 주도로 미개간지를 개척하거나 매입하여 농지를 개간함으로써 국영 농장[官屯]이 만들어지거나, 재정 부담이 큰 국경지대 같은 곳은 부호들로 하여금 미개간지를 개간하게 함으로써 민영 농장[民屯]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둔전은 서유구가 자신의 농정론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시험장이었다. 새로 구입한 농지는 개간 이후에 농지를 구획할 때 결부법이 아니라 경묘법으로 경계를 짓고 농지 넓이를 확정할 수 있다. 그가 ‘경’ 단위를 둔전에서 언급한 이유가 바로 경묘법을 시행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경묘법과 방전법 등으로 양전한 이 둔전에서 실제로 시행할 농법은 제3장에서 제시한 서유구의 농정론이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가 전국적으로 넓히려 했던 둔전은 『의상경제책』의 전체 체계에서 토지제도와 농법의 구현 마당으로서의 과도기적 역할을 하게 된다. 과도기적이라 함은 둔전에서 구현된 토지제도와 농법이 결국 팔도에 보급되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목의 해설에서는 서유구가 둔전을 통해 어떻게 조선을 부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추적하기로 한다.

둔전론 제기의 배경

둔전은 본래 국경 수비를 위해 군대를 주둔시킬 때, 해당 지역에서 식량을 조달할 수 있도록 병농일치로 짓던 농지를 가리킨다. 후한 초부터는 국경이 아닌 내지에도 둔전을 설치했다. 병란의 여파로 유민과 황무지가 늘어났기 때문에 농사를 권장하고 식량을 축적하기 위함이었다.(3.6.47) 내지의 둔전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조선에도 내지 둔전이 존재했다. 『경국대전』에서는 변방 둔전을 국둔 國屯田, 내지 둔전을 관둔전 官屯田이라 명명했다.⁴⁵⁵⁾ 서유구의 둔전론은 이 내지 둔전과 변방 둔전을 아우르는 계획이었다.

455) “國屯田,以所在官境內鎮戍軍耕獲,補軍資.”『經國大典』卷2「戶典」“諸田”(『大典會通』, 225쪽); “官屯田:數外屯田及屬公田,竝給貧民,收稅.”『經國大典』卷2「戶典」“諸田”“官屯田”(『大典會通』, 227쪽).

하지만 그의 내지 둔전은 엄밀한 의미에서 당시 조선에 존재했던 관둔전이라 하기는 어렵다. 관둔전은 특정 아문에 소속되어 그 아문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조달하기 위한 둔전이다. 이에 비해 서유구의 내지 둔전은 특정 아문의 운영비를 조달하기 위한 장치로 보기 어려운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또 그의 둔전론은 내지 둔전을 강조한 것이 사실이지만, 국둔전 도입론도 세밀함과 치밀함에서 결코 뒤지지 않았다. 제6목의 절반 이상을 국둔전을 소개하는 데 할애했다는 사실에서도(3,424자, “臣伏聞□世宗朝開拓~끝”) 이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가 국둔전을 설명한 부분은 남구만이 함경도 관찰사 시절 올린 장문의 상소가 4,899자였음을 고려할 때 적은 양이 아니다.⁴⁵⁶⁾ 당시 국둔전은 국경의 최전방인 4군郡이나 6진鎭 지역을 비워둔 채 후방에서 소규모로 운영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서유구는 국경을 확보하여 국방을 강화하는 대책으로 둔전 설치를 주장했던 만큼, 국방과 농경 두 가지를 병행한다는 둔전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자는 차원이 그의 둔전론에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

서유구는 둔전에 관한 자신의 논의를 우선 조선은 채용 관리를 잘 하지 못한다는 지적으로 시작했다. 중국의 채용 관리가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한 국가의 재정 악화에 대한 서유구의 해결책은 기간산업의 대대적 활성화의 측면으로 기울었다. 즉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전세 수취량을 늘리는 방안으로서, 지금까지 그랬듯이 조租·조調·庸庸 중 조租의 비중을 집중적으로 늘리자는 제안이었다. 전매세를 신설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기보다는 농촌경제 수준을 높임으로써 국가 재정을 넉넉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현재를 위한 방도는 오직 이회李愷가 땅심을 다 활용한 가르침을 서둘러 쓰는 데 있을 뿐”(3.6.13)이라는 것이다.

땅심의 전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최선의 농법으로의 이행이 전제되어야 했다. 서유구는 “땅에 남아있는 이익이 아직도 있고, 그럼에도 놓고먹는 자들이 많아 이익을 얻으려 해도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밭 갈고 재배하는[耕種] 데에도 법도가 없어서 곡식 생산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밭갈이법·씨레질법과 재배법을 가르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3.6.14)라고 하여, 국가 재정을 끌어올리는 유일한 방도는 바로 효과적인 경종법을 써서 농업 생산량을 높이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백성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여겼던 ‘효과적인 경종법’은 바로 제2목

456) 남구만, 『약천집』 제4권 「소차疏筭」 ‘북쪽 변경의 세 가지 일을 아뢰고 이어 지도地圖를 올린 소[陳北邊三事, 仍進地圖疏]’(<<叢刊>> 131, 497~503쪽).

에서 다루었던 견종법이였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좋은 경종법을 퍼뜨릴 것인가였다. 농부들은 관행 농법에 익숙해있어서 새 농법으로의 전환에 매우 보수적이였다. 서유구가 생각하기에 강고하게 보수적인 농부들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말로 설명하고 국가에서 문서를 통해 명령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효과를 볼 수 없었다. 그의 방식은 실제 새로운 농업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였다. 국가 차원에서 보급하려는 농법의 표준을 농민에게 보여준 뒤, 표준 농법으로 수확한 농산물의 효과를 부러워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3.6.15) 단위 면적 당 곡식 수확량이 관행 농법보다 높음을 보여준 뒤에야 비로소 농부들이 새 농법을 배우려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실 당대까지 민간에 퍼진 농법들도 이 같은 좋은 농법 ‘따라하기’가 여러 세대 전승된 결과였을 것이다.

서유구의 구상에서 농부에게 전범典範이 될 수 있는 농법을 보여주는 매개가 바로 둔전이였다. 최선의 농업은 바로 둔전 시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굳건한 믿음이였다. 둔전은 전국의 농부나 유식자를 모집할 수 있는 국가적 제도 속에 있기 때문에, 둔전에서 습득한 신기술을 다시 전국적으로 확대하기에 좋은 정책이였다. 팔도에서 모인 농부가 다시 귀향해서 자신의 농토에 새로운 방법을 시도할 것이고, 이들이 행한 농법의 효과를 확인한 주변 농부들도 농법 전환을 모색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3.6.16)

서울 주변 둔전 설치 및 운영론

그의 둔전론은 서울 주변의 사방에 네 곳(동둔·서둔·남둔·북둔)을 먼저 설치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서울 주변 둔전이 성공하면 이후에 팔도에 둔전을 보급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이와는 별도로 국경과 도서 지역에도 둔전을 설치한다. 서유구에게 국경 둔전과 도서 둔전 설치론은 내지 둔전과 짝이 되도록 한낱 구색을 맞추기 위한 계획이 아니였다. 국경 방비를 튼튼히 하면서도 조선의 농업경제 구조를 강고하게 하려는 그의 원대한 구상이 그 속에 들어있었다.

서유구가 추천한 서울 주변 둔전 네 곳은 모두 너른 들판이면서도 황무지라는 점이 공통점이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든 매입이 비교적 쉽고, 농지 구획도 경묘법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기에 좋으며, 황무지 개간부터 관개 시설 정비, 농지 만들기 등 농업기술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서유구가 염두에 두었던 둔전은 바로 기존 관행의 힘이 미치지 않고, 따라서 새로운 방법을 적

용할 만한 새로운 땅이었다. 토지제도, 양전법, 농법 등의 적용은 물론이고 이곳에서 종사하게 될 사람과 소, 농기구 및 설비들도 거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곳이었다.

이와 같은 입지 조건을 갖춘 서울 주변 지역의 둔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둔전은 총 1천 경을 만들고 10경 단위로 우리(耦犁, 두 마리 소가 끄는 쟁기) 소 4마리, 수레 2대, 농사꾼 5명으로 구성한다. 논농사는 벼농사를 잘 짓는 영남 좌도 농사꾼에게서 배우고, 밭농사는 조 농사를 잘 짓는 해서·관서 농사꾼의 견종법을 배우게 한다. 전농관은 둔전마다 1인을 두되, 농사에 밝은 이를 선발한다. 200~300경마다 전농관을 두기 때문에 전농관의 인원은 4인 이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머리 좋은 사람이 감독하여 물품무를 이용해 각종 농기구 및 수차를 제작한다. 이렇게 농사지으면 평년작이라도 1묘에 조 1석을 얻고, 1경에 100석을 얻어, 1천 경에서 총 10만 석이나 수확할 수 있다. 수확물의 반으로는 둔전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 반으로는 불의의 재해에 대비한다.(표11)

위에서 설명한 서유구의 둔전 운영 구상에서 논과 밭의 농법에 관한 언급에 주목해야 한다. 그의 논 농사법에 대한 제안은 매우 소략했다. 논농사에서 “밭갈이 소는 영남에서 데려와야 하는데, 영남 소가 더위에 강하고 밭을 잘 갈기 때문”이고 “논농사를 지을 농부는 영남 좌도左道 사람을 모집해야 하는데, 이들이 논농사를 잘 짓기 때문”이라며 영남의 농우와 농부의 필요성을 피력했다.(3.6.24) 또 “영남의 벼 재배법을 참고하면서 옛 사람들이 썼던 쟁기질 3회, 씨레질 4회, 벼 밀어젖히기, 벼 말리기 등의 방법을 적당하게 증감”하면 된다고 했다.(3.6.27) 이것이 『의상경제책』에서 벼농사의 구체적인 농법에 대해 서유구가 말한 내용의 전부였다.⁴⁵⁷⁾ 조선의 논 농법 중 특히 영남의 농법을 인정하면서 중국의 농법(쟁기질, 씨레질 등)을 여기에 반영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제2목에서 조선의 경종법에 법도가 없다고 비판했던 그의 태도를 볼 때(3.2.4~32) 논 농사의 경우 조선의 농법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은 이례적이었다.⁴⁵⁸⁾

반면 조선의 논농사에 대한 서유구의 호의적인 태도는 밭농사에서는 찾을 수

457) 이 외에 제5목(번전 및 이모작 금지하기)에서 밭을 논으로 바꾸는 번전을 금지하자는 언급을 하여 벼농사를 언급하기도 했으나, 이는 수리 조건이 열악한 곳에 논을 만드는 행위에 대한 비판이었지 논농사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볼 수는 없다.

458) 기존 연구에서 농업 생산량 증가에 큰 기여를 했다고 받아들이는 ‘도맥이모작稻麥二毛作’을(金容燮, 『朝鮮後期農業史研究』 II, 65~100쪽, 176~240쪽; 엄정섭, 『조선시대 농법 발달 연구』, 207~214쪽 등) 서유구는 언급하지도 않았으며 따라서 이를 권유하지도 않았다.

없었다. 앞에서 살폈다시피 제2목은 바로 발농사를 ‘구전법’이나 ‘견종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서유구의 입장은 둔전의 발농사에서 일관되었다. “발농사는 지금의 방법을 모두 바꾸서 조과趙過가 만든 대전법을 써야 합니다. 대전법은 밭갈이의 표준이라, 결코 바뀌서는 안 됩니다.”(3.6.27) 둔전에서는 대전법, 즉 견종법으로 발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신념이 확고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둔전을 전국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서울 주변 둔전에서 몇 년 동안 시행해서 뚜렷한 효과가 나온 뒤에야 여기에 활동했던 무리를 4도와 팔도에 나누어 파견한다. 1사람 당 10명에게 전수하고, 전수받은 이가 또 10명에게 전수하게 한다. 감영 둔전의 경우 관할지 근처에 설치하는데, 많게는 700~800경, 적게는 400~500경이 되게 하며, 시행하는 제도는 모두 경성 주변 둔전을 본받게 한다. 수륙水陸 절도사節度使 감영과 관할 읍의 도호부都護府는 모두 편의에 따라 둔전을 설치한다. 이렇게 하면 10년도 못 되어 곳곳에 곡식이 쌓이고 곡간은 넘쳐날 것으로 서유구는 확신했다.(3.6.30~31) 아래 표에서 보듯이 내지 둔전의 운영 및 그 효과와 이를 팔도에 보급하는 방안은 특히 농업 경영과 관련하여 매우 구체적이었다.

<표11> 내지 둔전의 운영 및 보급

구분	내용	비고	출처
총 넓이	1,000경		3.6.24
10경 당 준비 사항	우리耦犁 소 4마리 수레 2대 농부 5명		
우리 소 구입처	영남		
논 농사꾼 자격	영남 좌도 출신	농사꾼은 경기도 사람에게 농사법 전수	
조밭 농사꾼 자격	황해도, 평안도 출신		
둔전 농부의 대우	집 제공, 높은 임금, 세금과 요역 면제, 적절한 휴식 시간 부여		3.6.25
둔전 책임자	전농관	농사 업무에 밝은 자로 선발	
대장간 설치 장소	물가 땅		3.6.26
대장간 시설	물풀무		
대장간 감독의 자격	머리가 좋은 사람		
대장간에서 제작할 농기구 1	보습·쌍날삽·가래·박(鎛, 호미의 일종)·팽이·봉鋒·호미[鉏]·누(鋤, 호미 또는 팽이)·낫	담금질 이용	
대장간에서 제작할	누차樓車·둔차硨車·육독礮礮·역택礮礮·풍구	보다 정교한 기	

농기구 2	[颰扇]·항아리방아[礪碓]·연마(連磨, 동시작동 맷돌)·물맷돌[水磨]·물토매[水碾]·물연자방아[水碾]·물러연자방아[海靑碾]	구	
대장간에서 제작할 수차	각종 수차		
논농사법	영남의 재배법 참고하면서 옛 사람들이 썼던 쟁기질 3회, 썬레질 4회, 벼 밀어젓히기, 벼 말리기 등의 방법을 적당하게 증감		
발농사법	조과의 대전법으로 모두 개조	대전법은 발갈이의 표준이라, 결코 바뀌서는 안됨	3.6.27
수확량	조 1석/1묘, 100석/1경 즉 2~3만 석/둔전	평년작 기준	
수확물 용도	1/2 : 둔전 관리와 양식, 의복 및 식사, 소사육, 집 수리, 농기구 보수 1/2 : 재해 대비		3.6.28
수확물 보관소	서둔, 복둔 곡식 : 북한산성 동둔, 남둔 곡식 : 경성	모두 별도 곡간에 보관	
곡간 건축 방식	벽돌 건축	참새나 쥐 피해 방지 목적	3.6.29
곡식 보관 상태	껍질 째 보관	장기 보관 목적	
지방 둔전(4도와 팔도) 전수 시기	몇 년 시행해서 뚜렷한 효과 본 뒤		
전수인	서울 주변 둔전 참여자		
전수 방식	1명이 10명에게, 10명이 100명		
전수 내용	발갈이법, 씨앗뿌리기법, 김매기법		
감영 둔전 장소	관할지 근처		
감영 둔전 넓이	4·5백~7·8백 경		
감영 둔전 운영 제도	서울 주변 둔전 모방		
수륙 절도사 감영, 관할 읍 도호부 둔전	편의에 따라 설치		
지방 둔전 수확물 보관소	근처 산성	수확량의 1/2	
둔전 시행의 효과	10년도 못 되어 곡간이 넘쳐남 “3년 농사지으면 1년 먹을거리가 남고, 9년 농사지으면 3년 먹을거리가 남아, 30년 전체를 통털어 비록 가뭄과 흉수가 있어도 백성이 굶주려 초췌한 얼굴빛은 없었다.”는 말에 견줄 수 있음		3.6.31

초기 비용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계획은 좋지만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이 둔전론에서도 빠질 수 없다. 농지와 농우 구입, 농사꾼 모집, 집 건축, 기구 제조 등 둔전 설치를 위한 초기 비용이

많이 들 터였다. 당시 조정이나 민간이나 재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비용 조달의 해결 방안이 없다는 예상 반론에 대해 서유구는 대책을 마련해 두었다.(3.6.32)

동돈은 기존의 관사와 비축미를 활용하면 당시 상황에서도 외부의 지원 없이 충분히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3.6.33) 서유구는 나머지 세 둔전 설치 자금의 경우 재화를 관리하는 중앙의 여러 관청에 보관된 은화를 대출받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은화로 농지 구입, 집 짓기, 기구 제조 및 1년 차의 봉급 등으로 투자한다는 것이다. 매년 추수 뒤에 이자를 갚으면 대출해준 관청은 10년 안에 이자 수익만 100배에 달할 것으로 그는 예상했다.(3.6.33~35) 이와 같은 투자는 서유구가 보기에 둔전은 둔전대로 높은 수확을 올리고 정부는 정부대로 이자 수익을 높일 수 있다는 상생 전략이기도 했다. 이는 민간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조차도 재원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는 때, 새로운 수익원을 찾을 수 있는 과감한 투자를 요청한 것이었다. 그의 이 같은 과감한 발상과 제안은 고수확이 확실한 농업기술, 즉 견종법을 전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상의 제안에 들어있지 않은, 둔전에서 농사를 담당할 중요한 두 요소, 즉 농우와 농사꾼을 어떻게 구입하고 모집할지의 방안에 대해서 서유구는 국가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이야기했다(표12).

<표12> 서울 주변 둔전의 농우와 농민 수급 방안

구 분	수 급 방 안
농우	우금을 어긴 이들의 벌금으로 구입
영남 농부	금위영·어영청의 군인 중 건장하고 농사에 열심인 20~30세 영남 농부. 보미保米로 처자가 올라오는 데 드는 비용 지급
해서·관서 농부	관찰사가 각종 면죄금으로 500~700전 지급
경기 농부	도성 근처로 이주한 백성을 모아 집 제공

농우 구입을 위해서는 우금 정책을 활용하여 법으로 금하는 소 도살이 당시에 성행했기 때문에 단속을 엄히 하면 1년 벌금 수입만으로도 서울 주변 둔전에 소요되는 농우 구입비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영남 농사꾼은 건장하고 농사에 열심인 영남 출신 군인을 고른다. 양서(황해·평안도)의 경우 해당 감영에서 각종 면죄금 수입을 이용해 그 지역 임금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여 모집한다. 또

이들 농사꾼과 함께 살면서 새 농법을 배울 경기도 사람들의 경우는 세금과 요역을 피해 도성에 몰리는 이들에서 선발한 뒤 집을 제공한다.(3.6.36~39) 이렇듯 둔전의 생산을 담당할 농우를 구입하고 농부를 모집하는 일에 대해 서유구는 국가 수입의 일종인 세금이나 벌금을 통해 해결하면 별도로 재정적 부담을 질 필요가 없게 구상했다.

지방 둔전의 설치 및 운영론

각 도 감영의 둔전 설치와 운영비용의 조달 방안도 제시했다. 별비전(別備錢, 별도 준비금)의 활용이 그것이다. 서유구에 따르면 별비전은 “선후임 관찰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떠날 때, 봉급을 주고 난 잉여물을 보관하였다가 예상하지 않은 일에 대비하는 용도”의 자금이었다.(3.6.40) 별비전은 감영의 거의 공식적인 재원으로서 정부에서 자금을 융통할 때 요긴하게 쓰이기도 했다.⁴⁵⁹⁾ 규모에 맞게 별비전의 1/3~2/3로 초기 1년 차 설치비용을 감당하자는 것이 서유구의 생각이었다. 또 관찰사 임기 만료 때 잉여금이 있으면 그것으로 둔전을 넓히자고 했다. 둔전예의 투자가 ‘돈 놀이’ 식으로 자금을 늘리는 일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치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3.6.40)

서유구가 구상한 둔전은 관찰사 감영에만 머물지 않고, 감영 관할의 각 읍치 지역에도 두도록 했다. 서유구는 읍치(주·부, 군·현) 지역 둔전 설치를 위해 다시 과감한 제안을 했다. 각 읍의 비자금을 양성화하자는 것이다. 수령들은 ‘공사고公使庫’라고 하는 이 비자금을 다양한 방식으로 규모를 키워나가 지방 관청의 운영에 이용했다. 서유구가 보는 공사고의 용도는 다음과 같았다. “돈을 빌려주어 이자를 받기도 하고, 곡식을 빌려주어 이자를 거두기도 하고, 없어진 절이나 민가 농지를 귀속시키기도 합니다. 혹 한 마을[坊] 전체에 요역을 면제시켜 줌으로써 호구 수대로 돈을 거두기도 하여, 구관 수령과 신관 수령 및 중앙 상부 기관의 요구에 응하기도 합니다.”(3.6.41) 비자금인 만큼 뇌물을 상납하기도 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기도 했을 것이다.

이런 공사고는 양서와 삼남(충청·경상·전라)의 읍들에서 대부분 운용되고 있었다. 공사고라는 말이 『조선왕조실록』에는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다. 본래 공사

459) “관서의 별비전 5만 냥, 세소미稅小米 1만 석, 별향 목면別餉木綿 2백 동同을 호조에 획급劃給해 주었다. 경용經用이 부족한 때문이었는데, 대신大臣의 청을 따른 것이다.” 『정조실록』 1년(1777) 5/25. 경상도와 평안도 및 통영의 별비전이 화성 성역 경비에 긴요하게 쓰이기도 했다. 『정조실록』 19년(1795) 7/15.

고는 중국 송나라의 지방 관청에서 여러 운영비나 지방관의 비공식적 경비로 쓰는 자금이 보관된 창고를 일컫는 용어였다.⁴⁶⁰⁾ 지방에서 중앙 정부에게 보고하지 않고 자금을 형성하여 지출했던 이 공사고의 자금은 그 규모가 작게는 수 천에서 1만 민緡에 달하기도 할 정도로 적지 않았다. 이 비자금이 부족하면 전세에 과세 명목을 추가하여 1년에 2~3회에 걸쳐 농민에게 거둬들이기도 했다.(3.6.41) 농민을 착취하는 일단이었지만,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게다가 이를 제지할 수도 없었다. 서유구는 이 관행을 타파할 수는 없다고 여기고 공사고 자금을 양성화하여 이를 종잣돈으로 하여 지방 관청 자체에서 스스로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했던 것이다. 이 같은 견해 역시 둔전이 제대로 시행되기만 하면 많은 이익이 생길 것이라는 서유구의 확신에서 비롯된다. 둔전에서 생긴 이윤을 공사고에 들이면 백성에 대한 불법적 착취를 종식시킬 수 있고, 비축미의 증가로 지방 창고의 역할까지 톡톡히 해낼 수 있으리라고 판단한 것이다. 여기서 지방 관청의 관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둔전을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려는 서유구의 실용적 태도를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서유구는 서울 주변 둔전과 지방 둔전 등 내지 둔전을 설치하는 방법과 초기 비용 조달 방안, 그리고 둔전 운영으로 얻는 이득 등을 거론하며 둔전을 설치하자는 자신의 제안이 당시 상황에서 무리한 방책이 아님을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설득력 있게 주장했다.

내지 둔전 설치론의 기획안을 설명한 말미에 서유구는 “비용은 짧게 들지만 이익은 오래 생기는[費短利長]”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다. 1년 간의 짧은 투자로 이익이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이 ‘비단리장費短利長’은 바로 그가 제안한 둔전론의 간결한 결론이다. ‘비단리장’은 주희가 절동浙東 지방의 구황책을 황제에게 올린 글에서 썼던 말로, 기민을 모집하여 수리 사업을 일으키면 진휼과 수리, 즉 복지와 산업 진흥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책이라는 뜻으로 쓰였다.⁴⁶¹⁾ ‘비단리장’이라는 의도가 주희의 맥락에서 ‘진휼’과 ‘수

460) 佐伯富, 「宋代の公使錢-地方財政の研究」 上・下, 『東洋學報』 47-1・2, 1964. 金榮濟, 「南宋의 地方財政에 對해서-浙東路 慶元府(明州)의 財政收支를 中心으로-」, 『中國史研究』 제21집, 2002, 149쪽 주15에서 재인용.

461) “如舊則所損不至甚多,而可以成永久之利.絕凶年之憂,費短利長,未爲失策.” 朱熹, 『晦菴集』 卷17 「奏狀」 ‘奏救荒事宜畫一狀’. 앞의 구절이 포함된 글을 소개한 다음의 글에서는 주희의 장계에 대해 이렇게 정리했다. “先生講求荒政,奏本路災傷遂上畫一事宜六條.此居其四.此篇以因饑募民興役,有一舉兩得之利.(중략)浙東奏狀孝宗朝.” 滕珙, 『經濟文衡』 續集 卷17 「水利類」 ‘乞募饑民修水利’. 수리 사업에 동원된 기민에게 어차피 나눠줄 구휼곡을 이 때 분배하자는 주희의 제안은, 범중엄

리'를 동시에 이루기 위함이었다면, 서유구의 의도는 '투자'와 '국부의 증진'을 동시에 이루는 일이었다. 중앙 둔전에서는 중앙 관청의 자금을, 지방 둔전에서는 지방 관청의 별비전과 공사고를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이로 인해 파생하는 이윤을 얻을 수 있고, 둔전 경영에서 획득한 이윤은 투자처로 회수될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곡식 비축량을 늘림으로써 국부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 차원의 농업경제의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서유구는 설치 초기에 짧은 기간 투자하여 뒤에 두고두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둔전이 최상의 대안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변방 둔전

백두산을 중심으로 두만강과 압록강을 경계로 하는 조선의 국경이 확정된 시기는 조선후기 숙종 대 무렵이다. 조선 초 세종 대에 압록강 상류에 4군과 두만강 하류 남안에 6진이 개척되어 백성들이 많이 진출하기는 했지만, 백두산을 수원지로 하여 형성된 압록강과 두만강 남쪽 주변에는 여전히 조선 조정의 행정력과 군사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많았다. 또 숙종 대에 조선의 영역이 확정되었다고는 하나 그 이후에도 국경 지대는 군사들이 주둔하는 보堡나 진鎭이 없는 곳이 많았고, 따라서 그곳에는 민간인도 정착할 수 없었다. 황무지로 내버려진 이런 곳들에는 여진족이나 만주족 등 북방 민족의 침탈도 잦았다. 남서해안에 집중된 수 천 개의 섬들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이곳에는 왜구들에게 피해를 많이 보았다. 경제적 안정과 보안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백성들이 안착할 수 있는 여건은 형성이 되지 않았기에 조선 정부로서는 이 변경 지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유구가 『의상경계책』을 쓸 당시까지 여전히 무주지無主地가 많았다. 그는 이런 변경 지대에 대한 대책도 강구했다. 기본 구상은 역시 둔전을 통해 군사 및 백성들이 안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있었다. 서유구가 국경과 도서 지역에 대해 제기한 둔전론은 둔전 본래의 의미를 살린 병농일치의 둔전론을 토대로 한다.

(1) 국경 둔전의 현황 및 필요성

서유구는 먼저 북방 국경 지대의 현황을 개괄했다. 백두산 동북쪽 즉 두만강

이 “1만 명을 동원하고 1인당 하루에 3승을 주어 1개월에 공사를 마친다면 쌀 9,000석을 쓰게”(3.4.43) 된다는 제의와 일맥상통한다.

하류 남쪽인 6진 지역의 경우, 세종 대 6진을 개척하자 이민족은 조선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조선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그들이 성 밖에서 거주하도록 허가해주었다. 이런 상황은 만주족이 청을 건립한 뒤에 바뀌어 이민족은 두만강 북쪽 국경 밖으로 이주했다. 6진의 구체적인 지명(『대동여지도』에는 표기되지 않은)들을 일일이 나열하며 그곳이 기름진 땅이 많아 농사짓기 좋은 곳이라고 평가했다.(3.6.50~51)

서유구는 4군의 경계였던 삼천방 지역의 개간 사례를 통해 만일 서북방 국경 주변을 다시 개간하면 연간 수 백만 석을 거둘 수 있다고 계산하고서, 100년 이상 미개간지로 내버려두었기 때문에 그간의 곡식 손실량은 몇 억 석에 달할 것이라며 한탄했다.(3.6.55~56) 이민족이 사라진 지 수 십 년이 지난 현종~숙종 대 남구만을 비롯한 여러 논자들이 변방의 무주지에 적극적인 이주 대책을 세울 것을 조정에 요구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고, 그 기조는 순조 때까지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이다.

서유구에 따르면, 국경 진출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거나 부정적인 대응을 취했던 이들의 논리는 크게 두 가지였다. ① 청으로 넘어간 이들이 옛땅을 찾아올 경우 국경 분쟁의 소지가 있다. ② 국경을 강 하나 사이에 둠으로써 조선 백성의 청으로의 이탈이 우려된다. 그러나 서유구는 이런 논리를 앞세우며 우리 땅을 내버려두는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3.6.57) 국경 진출의 반대 논리 ①에 대해 서유구는 두만강과 압록강이 국경임을 피차가 알고 있는 마당에, 조선이 조선 땅에서 주권을 행사하여 개간하는 일에 청조에서 간섭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한다.(3.6.57) 국경 진출에 대한 반대 논리 ②에 대해서는, 의주를 비롯하여 국경의 강 연안에 여러 읍과 진영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곳에서는 ②와 같은 주장을 전혀 근심거리로 여기지 않았다고 반박한다.(3.6.59)

이상에서 들었던 국경에 대한 우려 2가지는 잘못된 견해임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이 논리가 먹혀들어 여전히 국경 1천 여 리가 비어있는 까닭을 서유구는 이렇게 진단했다. 백여 년 전에는 청의 압박 때문에 변경 지대 국방 강화를 의제로 삼을 상황이 아니었고, 따라서 그냥 내버려둔 채로 지낼 수밖에 없었다. 백여 년 이후에는 청의 태도가 달라져 더 이상 협박하지 않자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눈앞의 향락만을 추구하게 되어 국경 분쟁에 대비하는 일을 무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3.6.63~64)

(2) 국경의 읍과 진영 설치 방안

서유구는 국경의 주요 지점에 읍이나 진영 등이 설치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으레 그렇듯이 설치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꼭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적 비판을 제기하기 마련이다. 서유구는 이에 대해서도 대안을 준비해 두었다. 핵심은 부자들 중 관직을 얻고 싶은 이들에게 “농사꾼을 모집하고 운영비를 준비해 농사짓도록” 기회를 주자는 내용이었다. “100부夫를 지을 수 있으면 농지 100부를 주어 백부장百夫長을 삼고, 1,000부를 지을 수 있으면 농지 1,000부를 주어 천부장千夫長을 삼아” 벼슬을 주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들에게 “녹봉을 주면 응모자가 떼 지어 몰려들 것”이라 확신했다.(3.6.66)⁴⁶²⁾ 1부夫는 1경이므로 100부만 해도 100경이나 되는 상당한 넓이의 농지다. 수 십, 수 백 만 평의 농지를 농부를 모집하여 개간할 수 있는 재력과 의지가 있다면, 국가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관직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서유구의 생각이었다.

이렇게 부호들이 자발적으로 자금을 투여하여 강에서 10리 이내의 땅을 개간한 둔전은, 4년째부터 토품을 살피 1/10의 정액세를 매긴다. 여기서 거둔 세금 중 절반을 백부장이나 천부장 같은 해당 둔전 책임자의 녹봉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비축한다. 서유구는 이렇게 10년 만 지나면 비축량이 넘칠 것으로 예상했다.(3.6.71)

비축미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 땅을 더 개척하면서 비로소 읍을 세우고 진영과 보루 건설 작업을 시작한다. “각 읍마다 둔전 5000경을, 각 진영마다 둔전 3000경”을 마련한 뒤 관에서 백성을 모집하여 지주와 소작인의 사례로 세금을 징수한다.⁴⁶³⁾ 세금으로는 읍이나 진영 및 보루 근무자들의 봉급과 식비, 관리의 녹봉, 비축비용으로 각각 1/3씩 지출하기로 한다.(3.6.72) 읍이나 진영이 세워짐으로써 군사력과 행정력 등 공권력이 본격적으로 미치게 되는데, 공권력을 운영하고 행사하는 데 드는 비용은 모두 자체 해결하는 구조로서 그 재원이 바로 둔전이었다.

무주공황지에 건설한 국경 지대의 농지는 땅주인이 본래 없기 때문에 모두 둔전으로 이용된다. 그 중 백부장·천부장 등 민간인의 자본으로 운영되는 둔전이 민둔이고, 관 주도로 설치한 읍과 진영에서 운영하는 둔전은 관둔이다. 민둔은

462) 이 같은 아이디어는 원나라의 우집(虞集, 1272~1348)의 견해를 차용한 것으로, 서광계가 그의 『농정전서』에서 개간을 위한 좋은 방책으로 소개하기도 한 생각이다.

463) 소작인의 소작료는 당시 병작반수가 관행이었으므로 수확량의 반을 세금으로 내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후방에, 관둔은 전방에 배치한다. 관둔은 면세지이다. 관둔의 군인이 민간인을 보호해주기 때문이다. 민둔은 군대 면세지이다. 민간인은 호포를 내어 군인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안팎으로 서로 지탱해주고, 관과 민이 낱실과 씨실처럼 잘 짜여”지도록 구상된 둔전이 국경 둔전이였다.(3.6.73)

(3) 국경 개척의 10리利

서유구는 북방 국경이 개척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10가지로 나열했다. 여기에 나열된 견해는 이전의 여러 의견을 반영한 결과이겠지만, 서유구가 나름대로 종합한 구상이라 보아도 큰 오류는 없을 것이다.

① 제1리: 이민족에게 국경을 잠식당할 우려 종식

청 건국 이후 국경 밖으로 떠난 이민족은 담비 사냥이나 인삼 등 약초를 채취하기 위해 양강(즉 압록·두만강) 이남으로의 ‘생계형 월경’이 잦았다. 이민족들은 “비어있는 이곳이 개간할 만하다는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진다면 언제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3.6.75)⁴⁶⁴ 개간을 통해 백성을 이주시키고 국경 방비를 확고히 하면 “뒗날 야금야금 국경을 잠식당하는 우려를 오래도록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3.6.76)

② 제2리: 국경지대에서 병농일치를 하지 않은 폐단 제거

조선 북방의 경우 둔전의 본래 취지인 병농일치를 실현하지 못했다. 서유구는 강계부의 사례를 들어 국경 개척을 하지 않아 생긴 폐단을 지적했다. 강계부 관할 경계근무처, 즉 보루는 모두 산악지대에 있었기에 식량을 모두 부府에서 조달해야 했다. 이렇게 산재해 있는 보루에 근무하는 병사들이 1년 간 소비하는 식량만도 1천 여 석에 달할 정도로 많은 양이었다.⁴⁶⁵ 서유구는 국경 둔전만이 이 열악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도라고 주장한다. 벽돌을 생산한 뒤 이 벽돌로

464) 18세기 청인들의 월경과 이에 대한 청·조선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李花子, 『朝淸國境問題研究』, 집문당, 2008, 173~208쪽 참조.

465) 서유구는 강계부 보루(과수처) 수와 그곳에서 소비되는 식량의 양까지 정확하게 거론했다. 서유구가 93곳이라고 보루의 정확한 개수를 제시한 근거는 바로 그와 절친한 관계였던 성해응(成海應, 1760~1839)의 글에 나온다. 성해응은 『강계부지江界府志』의 내용을 인용하여 경계 근무처 93곳을 나열하고 보루 간의 거리를 명시해두었다(“按自厚州界五統洞,爲廢四郡,沿江初境自五統洞置把守,至滿浦界玉洞爲終境,凡九十三把守,九百六十三里.” 成海應, 『研經齋全集』 外集 卷51 「地理類」 「四郡考」 「關防」 第3 沿江把守(<<叢刊>> 277, 383쪽)). 따라서 서유구는 보루의 정확한 수에 대해 성해응의 글이나 『강계부지』를 참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지도서』 「평안도」 편에는 강계부의 과수처를 이 93곳 외에 33곳을 더 추가하여 126곳을 소개했다(이철성 역주, 『전주대학교 고전국역총서 1 여지도서 19 평안도 II』, 디자인하름, 259~270쪽).

강 연안에 3~5리 간격으로, 곡간 겸 무기고이자 적을 방비하는 요새인 망루를 한 채씩 짓는다.(3.6.78) 이곳의 병사들을 농사와 경계근무를 번갈아 하는 병농 일치제로 유지하면 먼 길을 힘들게 가는 보급의 폐단도 없을뿐더러 병사들이 자기 식량을 자체 조달하기 때문에 보급 식량 1천 여 석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3.6.79)⁴⁶⁶⁾

③ 제3리: 내지 군사 시설 폐지로 경비 절감

진영이나 보루를 강 연안에 설치하게 되면 무장 군인은 명실상부하게 국경에 배치될 것이다. 전력이 국경으로 집중되면 이전의 최전방이었던 지역은 더 이상 최전방이 아니고 따라서 이곳들은 모두 폐지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전 군사 시설을 운영하는 데 들어간 경비 몇 만 석을 줄일 수 있고 더불어 그곳의 병사 4~5천 명을 국경 군사 시설로 징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3.6.80)

④ 제4리: 요충지 강변 7읍의 식량 비축

평안도의 ‘강변 7읍’은 폐사군 아래에 위치한 강계江界로부터 압록강 하류 쪽 연안에 위치한 읍들인⁴⁶⁷⁾ 이곳은 당시 청과의 국경이 근접한 최전방으로 국방상, 정치외교상의 요충지였다. 따라서 이 변방 지대에서의 식량 비축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였다. 그러나 강변 7읍은 “몇 년 버틸 식량조차도 없었다.” 반면 정조 때 진출한 삼천방은 날로 곡식이 많아졌지만 내륙이라 소금이 매우 귀했다. 게다가 앞으로 폐사군이 개간된다면 곡식은 더 흔해지고 소금은 더 귀해질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3.6.81) 이 점에 착안한 서유구는 각 지역에 풍부한 산물을 교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즉 변경 7읍에서는 해수로 만든 소금을 4군에 공급하도록 하여 이렇게 교환한 곡식에 부과한 세금 분을 저축하면 10년도 안되어 강변 7읍에서는 곡식 수 십 년분을 비축할 수 있게 된다.(3.6.82) 강변 7읍의 불안한 국방력이 오히려 4군 개간으로 안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⑤ 제5리: 건종법 시행 용이

466) 서유구의 이 같은 제안은 평안도 관찰사 이병모(李秉模, 1742~1806)가 정조에게 올린 건의서에 그 일단이 들어있다. 이병모는 강계부사 신대년이 자신에게 보낸 첩정(牒呈, 보고서)과 자신의 장교가 수집한 내용을 토대로 정조에게 건의했다. 이병모의 장교가 수집한 내용 중에는 강계부의 원로들이 개진한, 개간을 허락하게 되면 얻는 이점 3가지가 들어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주 백성이 많아져서 모병이 원활하고 국방 수비에 도움이 된다. ② 100여 군데의 보루에 양식을 공급하는 데 조달이 쉬워진다. ③ 백성의 증가로 인해 옛 성터로 진을 옮기면 국경의 요새가 더 튼튼해진다. 이 중 ②가 바로 서유구가 제안한 의견과 비슷하다. 원로들의 이 같은 제안은 병농일치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군량 조달의 측면에서는 서유구의 논리와 비슷한 측면을 살필 수 있다.

467) 위원渭原·이산理山·벽동碧潼·창성昌城·삭주朔州·의주義州를 일컫는다.

조선의 서북 지역, 즉 평안·함경도는 동남 지역에 비해 산이 많고 험하지만, 들판은 오히려 동남 지역보다 바둑판처럼 평탄한 곳이 많다는 것이 서유구의 생각이었다. 동남 지역은 다락밭이 많아 평탄한 밭이 드물기 때문에 “밭을 갈아 고랑[畎]과 두둑[伐]을 법도대로 만들 수 없다.”(3.6.83) 반면 서북 지역은 옛사람들의 법도를 본받기로는 다른 땅에 견주어 힘쓰기가 매우 쉽다.”(3.6.84) 여기서 ‘고랑과 두둑을 법도대로’ 만든다거나 ‘옛사람들의 법도를 본받는다.’는 말은 모두 앞에서 서유구가 강하게 주장한 바 있던 ‘1묘 3전’이라는 제도인 견종법을 가리킨다.

⑥ 제6리: 기름진 4군郡 개간 가능

폐사군은 오랜 동안 개간이 안 되어 썩은 식물이 모두 흙으로 쌓였기 때문에 보드랍고 기름진 흙이 되었다. 이런 곳이니, “개간을 한다면 무수히 많은 작물이 약속이나 한 듯이 제대로 자랄 것이 뻔하다.”고 서유구는 확신했다.(3.6.85~86)

⑦ 제7리: 수로가 곧 견고한 요새

서유구가 제안한 둔전의 핵심 농업기술은 견종법이었다. 견종법은 정전법으로 구획된 농지를 전제로 한 농법이었다. 정전법으로 구획된 농지는 이랑과 함께 수로도 조성되었다. 너비와 깊이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로가 농지 사이사이와 사방에 동시에 조성되는 것이었다.⁴⁶⁸⁾ 정전제도에서 100정井(900경)이 모여 이루어진 행정 단위인 1성成으로 구획된 농지의 사방에 파는 혁沍 정도만 되어도 너비가 8척(약 184.8cm)이니,⁴⁶⁹⁾ 무기를 지닌 군사들이 뛰어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둔전이 정전제의 규격대로 조성이 된다면 사방에 크고 작은 수로들이 이어져 있어서 적군의 침공을 저지해주는 역할까지 할 수 있다.(3.6.87)

⑧ 제8리: 목재 확보

조선에서 국경 근처의 출입을 금지한 동안 청에서는 매년 봄과 여름 강물이

468) 구혁溝沍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이 수로는 『주례』에서 이미 견畎·수遂·구溝·혁沍·회澮라는 명칭으로 너비와 깊이가 일정 구획 단위마다 규정이 되어 있다. 견畎는 너비와 깊이가 1척으로 1묘에 세 개를 만드는데, 이 고랑은 견종법으로 농사지을 때의 작물 재배처이기도 하고 배수로이기도 하다. 수遂는 너비와 깊이가 2척으로, 1경으로 구획된 사방에 파는 수로이다. 구溝는 너비와 깊이가 4척으로, 가로와 세로가 3경頃인 9경 즉 1정井으로 구획된 사방에 파는 수로이며, 혁沍은 너비와 깊이가 8척으로, 가로와 세로가 10정인 100정 즉 1성成으로 구획된 사방에 파는 수로이다. 회澮는 너비가 2심(尋, 16척)이고 깊이가 2인(仞, 16척 또는 14척 또는 8척)으로, 가로와 세로가 10성인 100성 즉 1동同으로 구획된 사방에 파는 수로이다(“耜廣五寸, 二耜爲耦, 一耦之伐, 廣尺深尺謂之畎, 田首倍之, 廣二尺深二尺謂之遂, 九夫爲井, 井間廣四尺深四尺謂之溝, 方十里爲成, 成間廣八尺深八尺謂之沍, 方百里爲同, 同間廣二尋深二仞謂之澮.” 『周禮注疏』 卷42 「冬官考工記」 ‘匠人’).

469) 위의 주석 참조.

불어날 때 백두산에서 도벌을 일삼았다. 이들은 벌목한 목재를 뗏목으로 만들어 압록강에 띄운 뒤 서해로 흘러가게 하여 이용했다. 조선의 공지空地 정책이 결국 청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꼴이 되었다고 서유구는 비판했다.(3.6.88) 그에 비해, 비어 있는 땅을 개간하면 그곳에서 그 동안 자란 나무를 베지 않을 수 없다. 국경 연안 1천 리를 개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목재를 압록강이나 장진강으로 보낸다면 목재는 이루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는 이익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다.(3.6.89)

⑨ 제9리: 양 목축과 양잠으로 생산물 공급

국경 개척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 서유구는 곡식 이외의 또 다른 농축산물도 거론했다. 축산과 잠사를 통해 털모자와 양고기를 공급하고 뽕나무 재배와 누에치기를 통해 비단을 만들어내는 일이 그것이었다. 서유구는 이처럼 생산물을 내는 일이 ‘왕도 정치’에서 우선시해야 할 정책이라며 그 중 ‘식목과 목축’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그의 이 같은 견해는 농법뿐 아니라 ‘고기 공급과 따듯한 의복’에서도 자신의 전문적 식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사실에서 주목된다. 이에 그의 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서유구는 인민들에게 부족한 육고기와 수입에만 의존하는 털모자를 자급하려 했다.⁴⁷⁰⁾ 새로 개척한 땅에서 양을 치고 이를 발판으로 전국으로 양 사육을 확대하여 양고기로 육고기를 보충하고 양털을 이용해 털모자도 공급할 수 있다고 믿었다. 서유구가 이처럼 양에 주목한 이유는 압록강 북쪽의 이민족이 유목을 업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했기 때문이다. 그로서는 압록강을 사이에 둔 지역의 풍토가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3.6.92) 그러나 그는 북방 유목민의 방목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하지 않았다.⁴⁷¹⁾

470) 18세기 조선의 중국 모자 수입에 대해서는 유승주·이철성, 『조선후기 중국과의 무역사』, 景仁文化社, 2002. 128~152쪽 참조.

471) 양 치는 법에 대해서 서유구는 그의 <<임원경제지>> 『전어지』에서 다루었다(서유구는 『전어지』에 반영된 『난호어목지』 대부분을 귀농기에 저술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의상경제책』 저술 당시 목축에 관해서 상당한 지식을 습득했을 것이다. 『난호어목지』에 대해서는 2.2.3소절 참조). 『전어지』는 들짐승, 날짐승 및 민물과 해수어 등 야생 식용 동물을 잡는 법을 다룸과 동시에 가축 치는 법도 실었다. 가축으로는 말(22,054자), 소(5,200여 자) 다음으로 양을 수록했고, 양에 대해서는 다른 가축 중 세 번째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었다(2,200여 자). 이는 조선에서 흔한 가축으로 알고 있는 닭이나 돼지 사육법보다 더 많은 정보였다(『전어지』에서 나머지 가축에 관한 사육법을 담은 정보의 글자 수는 다음과 같다. 당나귀와 노새(677자), 돼지(1,411자), 개(1,042자), 고양이(458자), 닭(1,605자), 거위와 오리(1,098자)). 비록 조선 사람에게는 양 사육의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자신이 조사한 정보가 양 목장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을 수도 있다.

서유구는 비단 옷감 생산을 위해 또 하나의 제안을 한다. 옷감 제조 기술, 특히 비단 제조 기술이 중국에 비해 낙후되었음을 일찍부터 인지한⁴⁷²⁾ 서유구는 중국에서 나는 좋은 뽕나무 종자를 구입하여 4군에서 심을 수 있도록 구상했다.(3.6.95) 그리하여 뽕나무와 누에로 상징되는 비단 옷감 제조 산업 전반을 활성화하고자 했다. 그는 중국의 비단 짜는 기구들을 구입하게 한 뒤 기구의 구조를 잘 살펴 제작하게” 하려 했는데, 이 제안은 여성이 담당할 영역으로 여겼던 옷감 산업을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임원경제지>> 『전공지』를 그가 저술했기 때문에 가능한 주장이었을 것이다.⁴⁷³⁾ 『전공지』에 인용된 총 75종의 인용문헌 중 『농정전서』(73회), 『왕씨농서』(68회), 『사농필용』(57회) 다음으로 인용회수가 많으며 이 책에 인용된 조선문헌으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술지鵲志』(49회, 4,462자)⁴⁷⁴⁾는 서유구 자신의 저술이었다.⁴⁷⁵⁾ 방직, 방적에 관한 그의 식견은 조선에서 가장 깊고 방대했다고 할 만하다.

사실 농업 분야에서는 곡식 농사가 대표적인 농업이지만, 그에 못지않은 분야가 바로 이 옷감 제조 분야였다. 중국의 농서들에서는 곡식 농사를 ‘경耕’으로, 옷감 농사를 ‘직織’으로 표현하여, 농사 전반을 ‘경직耕織’이라는 말로 일컫고 있었다. 보통 ‘경’은 남성의 영역으로, ‘직’은 여성의 영역으로 구분 짓는 것도 오랜 전통에서 익숙한 분류였다.⁴⁷⁵⁾ ‘직’은 옷감 제조를 상징하는 표현이었으나, 실제로는 바로 비단 제조를 의미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면화 산업에 비해 비단 산업이 거의 활성화 되지 않았다. 서유구의 분석대로라면 ‘직’ 분야는 거의 없다시피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⁴⁷⁶⁾ 이런 상황이었기에 비단 산업을 국경 둔전에서

472) 그는 <<임원경제지>> 『전공지』에서 뽕 재배법과 누에치기 및 방직 기계까지 중국의 제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펼쳤다. 심지어 국왕의 곤룡포조차도 중국산을 수입해서 쓸 수 밖에 없다고 한탄하기도 했다(<<임원경제지>> 『전공지』 권2 「누에치기와 길쌈 하」 “길쌈” ‘사·라·릉·단 총론’).

473) 총 5권 2책(58,462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공지』의 저술 연대는 확실하게 규정할 수 없지만, 서유구의 귀향기에 저술이 시작된 것만은 틀림없다.

474) 정정기, 「전공지 해제」, 개관서, 666~667쪽.

475) 중국의 남송 때 현령을 지낸 누숙(樓鑄, 1090~1162)이 고종에게 바치려고 그린 『누숙경직도樓鑄耕織圖』와 이를 모본으로 청청 강희 연간에 초병정(焦秉貞, 1689~1726)이 그린 『패문재경직도佩文齋耕織圖』(1696년) 등은 남성의 농사와 여성의 잠업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황제나 조선의 국왕이 친경親耕 의례를 행했다면, 그 부인들은 친잠親蠶 의례를 행했던 것도 바로 경직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드러내 주는 사례이다. ‘경직’의 남녀 역할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왕씨농서』의 서문의 다음과 같은 내용이 참조가 된다. “農,天下之大本也.一夫不耕,或授之饑,一女不織,或授之寒.古先聖哲敬民事也,首重農,其教民耕織·種植·畜養,至織至悉.” 王禎,王毓瑚 校,『王禎農書』「作者自序」,農業出版社,1981,1쪽.

476) 정정기 옮김, 「전어지 서문」, 개관서, 669~673쪽에 이 상황이 잘 표현되어 있다.

일으키려는 그의 구상은 국부의 또 다른 중요한 사안을 다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⑩ 제10리: 정전제 시행의 최적지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임란 후 조선에서도 정전법 시행 여부의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은나라와 주나라에서 시행했다고 알려져 있는 정전제는 유교 경전 중 『주례』에서 비교적 자세히 논했고, 『맹자』에서는 큰 원칙들이 언급되어 있었다. 하지만 『맹자』가 저술된 시대만해도 하·은·주 삼대에서 시행되었다고 믿은 정전제의 실상을 정확히 재구성하기 불가능했다. 이후의 정전제 시행 논의는 주로 문적에 남아 있는 정전제의 기록을 통해 그 가능성을 타진하는 일일 수밖에 없었을 텐데, 많은 논의가 산출되기는 했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시행한 적은 없었다. 균전제나 한전제도 정전제를 실시할 수 없는 현실에서 선택한, 정전제의 변용이었다. 그러나 서유구는 국경이 개발되면 그곳에서 정전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여겼다. 시행이 가능하다면 이는 토지제도 역사상 획기적인 일이 될 터였다. 따라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 그의 정전제 시행가능론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전제는 왜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제도였을까. 이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자의 의견이 있지만, 서유구는 이를 2가지로 압축했다. (1) “검병한 넓은 농지를 빼앗아 빈민에게 나눠준다면 부자들이 이에 불복하여 난이 일어나기 쉽다는 점”과 (2) “봉건封建 제도가 없어지면서 관리와 백성이 서로 잘 알지 못하게 되자, 농지를 나눠주거나 환수하는 과정에서의 속임수를 세밀히 알기 어렵다는 점”이 그것이다.(3.6.97) (1)은 기존 토지제도를 혁파하고 정전제를 시작할 때 부딪힐 기득권의 저항 문제로, 시행 초기의 문제에 해당한다. (2)는 농지를 모두 국가 소유로 만든 뒤 정전제가 시행되었을 때 파생하는 문제로, 시행 과정의 문제에 해당한다.

서유구는 이 두 문제 제기에 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토지소유자가 있는 이상, 특히 대토지 소유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토지 몰수를 단행하기는 어렵다. 이 첫째 문제를 해결할 뚜렷한 방안이 없기 때문에 정전제 시행 논의는 공리 공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서유구가 보기에 국경 둔전은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이었다. 토지 몰수라는 강경책을 시행할 필요도 없고 몰수에 저항할 세력도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인 없이 고요히 비어 있는 땅을 개간한다면 검병한 농지 소유자들의 원망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

었다.”

그렇다면 문제는 (2)로 귀결되는데, 서유구는 정전제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가 생긴 이유를 ‘봉건 제도’가 폐지된 데서 찾았다. 봉건 제도는 제후국이나 공·경·대부 등에게 일정한 지역을 분봉分封함으로써 통치권을 분산시킨다. 그리고 특정 지역을 통치하는 이는 봉건 질서를 교란시키지 않는 한, 세습이 보장되어 있다. 주나라에서 정전제가 시행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지방 통치권자는 해당 지방의 내력이나 인물 등의 사정을 훤히 켈 수 있어야 세습 통치가 가능했을 것이다. 정전제는 8호戶의 정상적인 가구를 기준으로 토지 경작권이 분배되는데, 정전제 운영의 문제는 각 가구의 사정이 일정하지 않고 변한다는 데 있다. 여러 호구가 모여 사는 마을도 마찬가지다. 정전제는 가족이나 마을 공동체의 변화, 그리고 농민의 능력 등을 그때그때 반영하여 불공정한 토지분배의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유지가 가능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인구 변화와 공동체의 구성을 잘 파악해야 제도적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유구는 국경 둔전에서 정전제의 시행과 유지를 위해 봉건 체제를 도입하려 했다. 정전제 시행 지역은 백부장이나 천부장이 관리하는 둔전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둔전의 최고책임자였다. 서유구의 구상에 따르면, 이들의 권력 형성은 애초에 이들의 의지와 부력을 통해서 가능했다. 둔전 건설의 전 과정에서 백부장이나 천부장이 책임을 졌고, 둔전과 무관한 중앙의 관리가 파견된 형태로 권력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둔전 책임자, 즉 백부장이나 천부장의 관할권에 봉건 제도를 적용하면, 책임자의 교체로 인한 책임과 관리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폐단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서유구의 생각이었다. “백부장이나 천부장에게 모두 세습을 허락한다면, 봉건 제도와 다를 바가 없어서 농사꾼들의 능력과 태도 모두를 두루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둔전 책임자의 세습으로 중간 관리층도 이들의 권한 내에서 활동할 것이고, 둔전 농민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둔전을 ‘작은 주나라’의 ‘작은 제후국’으로 만들 때만이 둔전 책임자가 모든 이들의 사정을 세세하게 파악하여 둔전민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서유구는 확신한 것 같다. 이렇게 본다면 4군과 같은 광활한 지역이 무주지였다는 조건이 정전제 시행의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여건이었던 것이다. “천하에 정전제를 시행할 수 있는 곳은 오로지 이곳만이 그렇습니다.”라고 확신했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3.6.98)

임진왜란 이후는 정전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던 시기였다. 특히 청이 중국

을 차지하면서 조선이 소중화를 자처하며 중화라는 문화를 자국화하려는 노력에서 중국 고대의 제도를 조선에서 계승하려는 열망이 강해지고 있었던 때다. 기사에 대한 논구가 늘었던 점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서유구도 정전제에 대한 관심을 자신의 저술에 남겨두었다. <<임원경제지>> 『본리지』의 첫 권에는 「토지제도」를 다루는데, 여기서 토지 종류 총 14가지를 다루고 있다. 그는 여기서 중국의 은나라 성인으로 일컬어지는 기자箕子의 정전井田을 첫 번째로 소개한다. 한백겸(韓百謙, 1552~1615), 허성(許箴, 1548~1612), 서명응, 박지원이 쓴 기사 정전 논문을 차례로 수록한 뒤 마지막에 자신의 안설에서 기자의 정전을 첫머리에 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전을 회복할 수 없게 된 지 오래되었다. 장재張載가 네모난 농지 한 곳을 사서 몇 개의 정井으로 구획하려고 생각한 것도 정전이 가능한지를 시험해보려는 뜻일 뿐이었다. 지금 다만 평양의 정전을 예로부터 기자가 남긴 제도라고 여겨 우리나라 토지제도의 으뜸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제도의 개략적인 것을 위와 같이 실어보았다. 그러나 영남의 경주부慶州府에도 정전이 있다고 하니, 평양의 정전이 확실히 기자께서 남긴 제도인지는 알 수가 없다.⁴⁷⁷⁾

서유구는 여기서 정전제가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토로했고, 다만 정전이 이상적인 토지제도이기 때문에 그 이상성과 정전제 시행의 의도라도 밝혀놓기 위해 글을 남긴다고 적었다. 이 글 이후에는 구전區田·대전代田·위전圍田 등 농지를 조성하는 여러 형태와 제도를 설명함으로써, 향촌에서 농사짓는 이들에게 실용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저술된 『본리지』의 의도를 충분히 보여준다. 심지어 평양에 남아있는 정전이 기자가 남긴 ‘중화’의 유제인지조차도 의심하는 대목에서 정전이 조선에서 시행되었다는 여러 주장에 의구심을 품는 태도를 볼 수 있다. 아마도 조선에서 정전제는 시행된 적이 없다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에서도 정전제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서유구는 국경 둔전에서 찾았다. 삼대 이후 중국에서도 정전을 시도해보려는 노력이 부분적으로 있었지만 성공한 적은 없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북송 대 장재(張載,

477) “井田之不可復, 尙矣. 張橫渠之思買田一方, 劃爲數井, 亦試可之意耳. 今特以平壤井田, 自古傳爲箕子遺制, 而爲我國田制之首, 故載其概略如右. 然嶺南慶州府亦有井田云, 則平壤井田之必爲箕聖遺制, 未可知也.” 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임원경제지 본리지』 1, 124쪽.

1020~1077)였다. “옛날 황거 장제 선생이 어느 마을의 땅을 얻어 정전으로 구획하려 했으나 의지만 있었을 뿐 성공하지 못했다.” 중국 고대 성왕의 이상적 토지제도라 누구나 칭송하던 정전제였다. 수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제도적으로 시행된 적이 없었던 이 제도를 부분적으로나마 조선에서 시행해볼 수 있다면 그야말로 ‘왕도 정치’의 상징이 탄생되는 일이었다. “도합 100만 경의 땅으로 옛 성왕이 나라를 운영하면서 들판을 구획하던 큰 정치를 그대로 모방하는 일 또한 오래도록 전해질 일대 쾌거”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서유구는 정전제 시행을 국경 둔전 개발의 마지막 이익으로 추가했던 것이다.(3.6.99) 정전제가 시행되면 정전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농법의 핵심이 대전법, 즉 서유구의 견종법이 될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표13> 국경 개발 10리와 해당 분야

10리	내 용	분 야
1	국경을 잠식당할 우려 종식	정치, 군사
2	병농일치로 방비의 폐단 제거	정치, 군사, 농업
3	내지 군사 시설 폐지로 경비 절감	정치, 군사, 경제
4	요충지 강변 7읍의 식량 비축	농업, 경제, 군사
5	견종법 시행 용이	농업
6	4군郡에서의 풍년 기대	농업
7	수로가 곧 견고한 요새	농업, 군사
8	유출되던 목재 풍부하게 확보	산림, 경제
9	양 목축과 양잠으로 생산물 공급	정치, 농업(목축, 양잠), 경제
10	정전제 시행의 최적지	정치, 농업

서유구의 ‘국경 개발 10리’의 내용에는 둔전이라는 정치·경제적 모델이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둔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견종법이라는 농법을 통해서 가능했다. 견종법은 식량 증대와 비축미의 풍부한 확보의 첫째 조건이었던 것이다. ‘국경 개발 10리’에서 농업의 생산력을 토대로 한 경제력 향상과 관계되지 않는 사항은 1·3·8리 3개였다. 나머지 7개의 이익인 병농일치(2리), 강변 7읍의 식량 비축(4리), 견종법 시행(5리), 4군에서의 풍년(6리), 농수로의 요새(7리), 양잠에서의 뽕나무 재배(9리), 정전제 시행(10리)은 농업이라는 산업이 전제된 데서 도출될 수 있는 이익이었다(표13).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점은 수전농업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평안도와 함경도 최북단에 위치한 국경의 빈 터는 수전농업에 유리한 조건은 아니었다. 물론 여건에 따라 논을 조성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밭 농업을 염두에 둔 구상이었다. 정전에서 시행되는 농업이 중국 북방의 밭 농업을 전제로 기획되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국경 둔전에서의 견종법이 차지하는 위치는 거의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도서 지역 둔전

북방의 둔전을 개발함으로써 국경을 강화하는 정책에 대해 상세히 의견을 개진한 서유구는 이제 서남방의 도서에도 주목했다. 서유구가 보기에 남서해의 크고 작은 섬은 기름진 땅이어서 농사짓기에 적합한 곳들이었지만, 문제는 그곳 대부분(7/10)이 말 사육장으로 쓰이고 있다는 데 있었다. 이는 원나라가 고려를 침략하면서 만든 전통으로 당대까지 변함없이 이어졌다. 고려 말에 말 사육이 시작된 이래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 상 말은 내부 교배를 통해서만 번식했다. 그렇기 때문에 “400~500년 동안 품종을 바꾸지 않아 지금은 모두 왜소한 말이 되었다.”(3.6.101) 게다가 “말은 화火 기운을 지닌 가축이라 더위를 잘 견디지 못해 서북 지방에 알맞지 동남 지방에 적합하지 않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서유구에게 도서 지역은 말 사육으로 적합한 장소가 전혀 아니었다.(3.6.102)

따라서 서유구는 말 사육장을 조선의 북방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안도와 함경도에 목장을 설치하고서 “매년 관북개시關北開市에서 암말 수 십 마리, 숫말 5~6마리를 구입하여 차츰 새끼를 불러 군대와 나라 운영의 용도로 공급”하자는 것이었다. 도서에 있었던 기존의 말 사육장은 제주만 남겨놓고 모두 폐지한다.(3.6.103) 그리고 도서 지역에 분포된 본래 말 사육장에 둔전을 설치하자는 것이 서유구의 제안이었다. “목장 관리를 위한 관사와 녹봉은 전농관에 소속시키고, 백성을 모집하여 농사짓게 하는 일은 모두 내지 둔전의 제도와 같게” 만들어 ‘도서 둔전’을 창설하자는 것이다. 도서의 말 사육장은 오랜 동안 말만 사육했기 때문에 똥거름 축적이 잘 되어 곡식을 축적할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것이다.(3.6.103)

북방 국경의 예에서처럼 경제적 축적이 된 뒤에야 “해상로의 요충지를 골라 진영과 보루를 설치”하도록 했고, 이곳도 북방 국경처럼 병농일치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했다. 더욱이 진영에서는 그 근처에서 나는 소금과 해산물의 교역을 허가하여 이로부터 수취한 세금으로 내지의 미곡까지 사들인다면 동남 지방의 해양

방어가 훨씬 강고해질 것으로 예측했다.(3.6.104) 서해보다 동남의 도서에 더 국방력을 강화하는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일본 침입을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듯이, 국경 둔전이나 도서 둔전은 국방의 요충지로서 그 최종 목표는 국방 강화에 있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유구는 먼저 경제적 부를 축적해야 한다고 믿었다. 경제적 부를 축적함으로써 백성이 모이고 백성이 모임으로써 변경 수비대를 신설할 명분이 확고해지기 때문이다.

실현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치밀한 둔전론

서유구는 둔전의 효과를 이렇게 정리했다. “안으로는 근본을 단단하게 하고, 밖으로는 변방을 튼튼하게 하면 재물과 곡식이 풍족하여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공급이 충분해질 것입니다.” 근본(농업)과 변방을 확고하게 만들면 국가뿐 아니라 백성의 부는 충만해질 것이라는 기대였다. 조선 전체의 부의 확대로 경제적 안정이 확보된 뒤에, 상평의 제도를 제대로 실시하고 환곡의 폐단도 혁파할 수 있게 되며, 호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조선에는 없다고 서유구가 이야기했던 “용庸과 조調의 세금을 되살리고 군보軍保의 역을 혁파할” 수 있는 기초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3.6.105) 그 결과 화폐를 주조하여 물가를 조절할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 이 글의 말미에는 송나라의 이강(李綱, 1083~1140)이 말한 내용으로, 서광계의 「용수소用水疎」에서 인용한 글을 그대로 옮겨 제6목의 제안을 마무리 지었다. “그리고 송나라 신하 이강이 말한 절용, 폐단 바로잡기, 사실 밝히기, 음양의 열리고 닫힘, 상업 등의 여러 방법으로 성실함을 베풀어 행하고 부세를 더하지 않아도 나라에 필요한 물품이 풍족하다는 말이 어찌 빈말이겠습니까?”(3.6.106) 서광계의 글은 본래 수리의 효과를 말하는 취지였으나 서유구는 둔전도 이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지금까지 정리한 둔전론에서 서유구는 이미 설명했듯이 박지원·박제가·남구만·서미수 등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의 둔전론은 그들의 논의보다 한층 발전된 것이었다. 발전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논의가 이전보다 훨씬 구체화되었다. 그는 내지 둔전을 서울 주변 둔전과 지방 둔전으로 구분하여 그 시행 과정을 세밀히 논했고, 국경 둔전과 도서 둔전을 따로 다루어 내지 둔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둔전 설치론과 경영론을 역설했다. 서울 주변 둔전이나 국경 둔전에서 둔전을 만들어야 할 장소도 구체적으로 지목했고, 그 후보지의 성격도 이미 잘 파악하고 있었다. 둔전의 설치에 대해서도 박제가처럼 비용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론

보다는 토지 매입 비용, 인력, 농우, 기구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토지의 경우는 대부분 주인 없는 황무지였고, 주인이 있더라도 헐값에 매입할 수 있는 진황지를 추천함으로써 토지 매입 비용을 가급적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 둔전의 운영도 책임자로서 전농관이나 백부장·천부장을 활용하는 방식부터 농지 구획과 수리 사업, 경종법까지를 상세하게 제시했다. 또 둔전의 설치와 운영의 예상 비용을 제시했고, 비용 조달을 정부의 유관 기관의 비용을 쓴다든지, 도 감영의 경우는 별비전을, 읍에서는 공사고를 활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국경 둔전의 경우는 부호의 자발적인 개간을 유도하려고도 했다. 수확한 곡식을 분배하는 비율도 둔전 운영 방식에 맞게 달리 규정해두면서 농민이 임금노동자든 자작농이든 소작농이든 간에 그들에게 후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렇듯 서유구는 둔전을 당시 조선에 존재했던 관둔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설치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하려 했다.

수확량 예상은 1묘 당 조 1석이라는 기준을 이용했다. 제1·2장에서 제안했던 토지제도 개혁과 새로운 양전법 도입을 토대로 농지를 구획하고서, 제3장(제1~5목)에서 제시했던 서둘러 시행해야 할 농정안들을 마지막 제6목에서 적용함으로써 땅심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이 같은 여건이 조성됨으로써 평년작으로 묘 당 1석이라는 수확량을 예상할 수 있었다. 물론 예상 수확량의 확정엔 서유구가 귀농기에 여러 해 동안 견종법을 통해 수확량을 산출한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서유구 둔전론의 또 다른 특징은 토지제도 개혁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저항 세력을 만들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균전제나 한전제나 여전제처럼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거나 토지 소유 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거의 거들떠보지 않은 땅에 주목하여 기존의 이해관계의 개입이 전혀 없는 곳을 개척하거나 소유주가 있는 곳은 정부에서 매입함으로써 새로운 국가 경제를 창출려 했던 것이다. 서유구가 적극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둔전론은 사실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수익을 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토지 운영제도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시대 내내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었던 토지제도 개혁론과 양전법 강구론, 그리고 농정 시행론을 실현하려 했다는 측면에서 실현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개혁론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자의 저항이 생길 여지가 없는 무주공황지만

을 골라 둔전을 개발함으로써 경제 부흥의 진앙지로 삼으려했던 것이다.

이제 서유구 둔전론 구상의 구체성을 살피기 위해 구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두 가지 사례, 즉 둔전 설치비용을 마련하는 방안과 수확한 곡식의 분배 방식을 그 예로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둔전 초기 투입 비용은 대부분 비축미와 관청의 자금을 활용하려 했다.(표14) 서울 주변 둔전의 경우 동둔은 기존의 관사와 태복시의 조적미를 활용하고, 나머지 세 둔전은 호조·선혜청 등 정부 기관의 비축금을 활용하려 했다. 국경 관둔, 도서 둔전, 도서 진영과 보루 둔전 등의 경우는 비용 확보 방안을 명확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국경 민둔, 도서의 기존 목장, 도서 둔전 등에 있는 비축미를 이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둔전 설치 비용을 국가가 투입하여 국영 체제를 만들거나 부민들에게 둔전을 개발하게 함으로써 일반 백성에게 비용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 했다.

민간의 자금을 활용하는 유일한 사례는 국경 민둔이었다. 국경 주변은 수 백 년 동안 비어 있는 상태라 황무지를 개척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민간인이 거주하며 생활할 수 있는 근거지 확보가 시급했다. 이 때문에 인구를 먼저 확보하기 위해 재력이 있는 이에게 개발권을 주어 농민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중국의 동해안과 요서 지역의 미개간지를 개척하는 방안을 제시했던 서광계의 구상을 받아들여 조선의 상황에 적용한 것이었다.⁴⁷⁸⁾ 부민에게 둔전 개척의 비용을 투입하여 운영한 댓가는, 그를 둔전의 장으로 임명하여 둔전에서 거두는 세금으로 녹봉을 지급하고, 무과에 응시할 기회를 주며, 둔전의 장을 세습하게 하는 것이었다. 서유구의 이런 생각은 거의 서광계가 그의 「간전소墾田疏」에서 밝힌 구상이었다. 주인 없는 땅을 민간이 개발하고 개발한 이가 운영을 대대로 할 수 있게 한 국경 민둔은,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정전제를 시행하기에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표14> 둔전 설치비용 마련 방안과 수확미의 배분 방식

둔 전	설치비용	수확미 배분
동둔	본래 방목을 관리하는 관사가 있었으니, 예전에 하던 관행을 따름. 태복시의 조적미 <small>糶糶米</small> 반으로 방죽 쌓기, 포구 준설, 농기계 제조. 나머지 반의 이자로 식사, 소 사육 비용.	1/2: 둔전 운영(둔전의 관리와 백성의 양식, 의복 및 식사, 소 사육, 집 수리, 농기구 보수), 1/2: 비축

478) 徐光啓, 『農政全書』 卷9 「農事」 ‘開墾 下’(『農政全書校注』, 209~210쪽)

서·남·북돈	호조·전해청·균역청·사복시·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총융청 6만 민 모금. 3둔전에 각 2만 민 씩 나눠주어 농기구입, 집 짓기, 기구 제조 및 1년 차의 봉급으로 사용.	
영돈	감영 별비전의 1/3~2/3 사용	
읍돈	읍의 공사고 사용	1/2: 둔전 운영, 3/8: 공사고, 1/8: 비축
국경 민돈	부민이 10부 이상 개간	9/10: 농민, 1/20: 둔전 책임자 녹봉, 1/20: 비축(개간 3년 후부터)
국경 관돈	읍에 5000경, 진영에 3000경 둔전 설치. 관에서 백성을 모집(민돈의 비축미를 활용할 듯)	1/2: 농민, 1/6: 병졸의 봉급과 식사비, 1/6: 관리 녹봉, 1/6은 비축
도서 둔전	서남해 목장 폐지(제주 제외)하고 그곳의 관사와 녹봉은 전농관에 소속(설치비용은 목장의 비축미를 활용할 듯)	내지 둔전과 동일
도서 진영과 보루 둔전	해상으로 요충지에 진영과 보루 설치하여 병농일치 둔전 운영(도서 둔전의 비축미를 활용할 듯). 진영 근처에서 생기는 해산물과 소금의 이윤을 허가해주어 내지의 미곡 매입.	국경 관돈과 동일

다음으로, 둔전에서의 수확 배분은 운영 내용에 따라 그 방식에 차이를 두었다.(표14) 내지 둔전과 도서 둔전의 경우는 모두 수확량의 반을 둔전의 관리와 백성의 양식, 의복 및 식사, 소 사육, 집 수리, 농기구 보수 등에 소요되는 둔전 운영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반은 비축한다. 다만 읍 둔전의 경우는 출자금에서 공사고에서 나왔던 만큼 다시 공사고에서 쓸 비용을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둔전 운영비를 제외한 반 중에 3/4(전체의 3/8)을 공사고로 반환하고 1/4(전체의 1/8)을 비축한다.

국경 둔전의 경우는 수확 배분 방식이 내지 둔전과는 달랐다. 먼저 국경 민돈의 경우는 정전제의 세율을 적용하여 1/10의 세금을 내기 때문에 9/10를 농민이 갖고, 1/20은 둔전 책임자의 녹봉으로 쓰고, 남은 1/20은 비축한다. 국경 관돈의 경우는 수확량의 반을 지주에게 주는 당시 지주제의 분배 방식을 따랐기 때문에 1/2은 농민이 갖고, 1/6은 병졸의 봉급과 식사비로, 1/6은 관리의 녹봉으로 쓰고, 나머지 1/6은 비축한다. 이와 같은 운영 방식에서 경작에 참여하는 농민이 받는 대우도 달랐다. 농민은 서울 주변 둔전과 지방 둔전 및 도선 둔전의 경우는 임금노동자였고, 국경 민돈에서는 자경농자였으며, 국경 관돈 및 도서 진영과 보루 둔전에서는 병작반수의 소작농자였다.⁴⁷⁹⁾ 이상에서 서유구는 둔전 설치비의

479) 유봉학은 지방 둔전 및 도서 둔전이 병작반수의 지주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고 보아서 수확

출자금을 각 둔전의 성격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수확된 곡식을 배분할 때도 거의 모든 경우에 배분 비율까지 계획했음을 알 수 있었다.

량의 1/2을 농민이 차지했다고 분석했으나(유봉학, 『연암일과 북학사상 연구』, 219~220쪽), 이는 이 둔전들이 모두 서울 주변 둔전의 사례를 따라 운영된다는 서유구의 언급을 간과한 오류이다.

참고문헌

朝鮮原典類

- 徐有桀 原典

- 徐有桀, 『金華耕讀記』(일본 도쿄 독립중앙도서관)
- 徐有桀, 『蘭湖漁牧志』(국립중앙도서관 영인본, 한古朝68-42)
- 徐有桀, 『鏤板考』(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 0440 1 00)
- 徐有桀, 『樊溪詩稿』(국립중앙도서관 영인수집본, 오사카 나카노시마 부립도서관 소장본)
- 徐有桀, 『擬上經界策』 上·下(<<楓石全集>> 『金華知非集』 卷11~12, <<韓國文集叢刊>>288)
- 徐有桀, 『楓石鼓篋集』·『金華知非集』(<<韓國文集叢刊>>288)
- 徐有桀, 『小華叢書目錄』(미국 버클리대 동아시아도서관 소장본)
- 徐有桀, 『林園經濟志 本利志』(고려대본, 규장각본, 국립중앙도서관본)
- 徐有桀, 『林園經濟志 灌畦志』(고려대본, 규장각본, 오사카본)
- 徐有桀, 『林園經濟志 藝畹志』(고려대본, 규장각본, 오사카본)
- 徐有桀, 『林園經濟志 晚學志』(고려대본, 규장각본, 오사카본)
- 徐有桀, 『林園經濟志 展功志』(고려대본, 규장각본, 오사카본)
- 徐有桀, 『林園經濟志 佃漁志』(고려대본, 규장각본, 오사카본)
- 徐有桀, 『林園經濟志 魏鮮志』(고려대본, 규장각본, 오사카본)
- 徐有桀, <<林園經濟志>> 一·二, 保景文化社, 1983
- 徐有桀, 『林園經濟志略抄』(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經古630.951-Se61i)
- 徐有桀, 『完營日錄』,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2002
- 徐有桀, 『種諸譜』(韓國學文獻研究所 編, 『農書』 36, 亞細亞文化社, 1986)
- 徐有桀, 李佑成 편, 『華營日錄』, 亞細亞文化社, 1990
- 徐有桀, 『杏菴志』(버클리본, 오사카본, 화봉문고소장본)
- 徐有桀, 『杏菴志』(韓國學文獻研究所 編, 『農書』 36, 亞細亞文化社, 1986)

- 史書類

『高麗史』

『高麗史節要』

『高宗實錄』

『國朝文科榜目』 2, 太學社, 1984

『內閣日曆』

『備邊司謄錄』

徐命膺, 『大丘徐氏世譜戊編』(1775년)(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도서번
호 奎 2327, 奎 5387) 二

『成宗實錄』

『世祖實錄』

『世宗實錄』

『世宗實錄地理志』

『肅宗實錄』

『純祖實錄』

『承政院日記』

『英祖實錄』

李肯翊, 『燃藜室記述』

『仁祖實錄』

『日省錄』

『正祖實錄』

『太祖實錄』

『太宗實錄』

『憲宗實錄』

『顯宗改修實錄』

『顯宗實錄』

- 子書類

姜希孟, 『衿陽雜錄』(韓國學文獻研究所 編, 『農書』 1, 亞細亞文化社, 1981)

金鑣,『牛海異魚譜』

金綏,『需雲雜方』

柳本藝,『日省錄凡例』,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柳重臨,『增補山林經濟』(韓國學文獻研究所 編,『農書』 3~5, 亞細亞文化社, 1981)

柳馨遠,『礪溪隧錄』, 明文堂, 1982

朴世堂,『穡經』(韓國學文獻研究所 編,『農書』 1, 亞細亞文化社, 1981)

朴齊家,『北學議』(韓國學文獻研究所 編,『農書』 6, 亞細亞文化社, 1981)

朴趾源,『課農小抄』

憑虛閣 李氏,『閨閣叢書』

徐居正,『筆苑雜記』

徐命膺,『攷事新書』(韓國學文獻研究所 編,『農書』 5, 亞細亞文化社, 1981)

徐榮輔,『萬機要覽』

徐浩修,『海東農書』(韓國學文獻研究所 編,『農書』 9~10, 亞細亞文化社, 1981)

成周憲,『書雲觀志』

生員 河氏,『酒方文』

申沄,『農家集成』(韓國學文獻研究所 編,『農書』 1, 亞細亞文化社, 1981)

安東 張氏,『飲食知味方』

御撰,『經國大典』

御撰,『農事直說』(韓國學文獻研究所 編,『農書』 1, 亞細亞文化社, 1981)

御撰,『大典通編』(『大典通編』 上, 서울大學校奎章閣, 1998)

御撰,『大典會通』

御撰,『續大典』

御撰,『國朝寶鑑』

柳重臨,『增補山林經濟』(韓國學文獻研究所 編,『農書』 3~5, 亞細亞文化社, 1981)

李裕元,『林下筆記』 ‘한국고전종합DB’

李圭景,『五洲衍文長箋散稿』 ‘한국고전종합DB’

丁若鏞,『我邦疆域考』,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丁若鏞,『經世遺表』 ‘한국고전종합DB’

丁若銓·李(田+靑),『茲山魚譜』

中樞院調查課 編,『朝鮮田制考』, 朝鮮總督府中樞院, 1940

崔漢綺,『農政會要』(韓國學文獻研究所 編,『農書』 11~13, 亞細亞文化社, 1981)

崔漢綺, 『心器圖說』(韓國學文獻研究所 編, 『農書』 13, 亞細亞文化社, 1981)
崔漢綺, 『陸海法』(韓國學文獻研究所 編, 『農書』 13, 亞細亞文化社, 1981)
許筠, 『屠門大嚼』
洪萬選, 『山林經濟』(韓國學文獻研究所 編, 『農書』 2, 亞細亞文化社, 1981)
洪萬宗, 『海東異蹟』 서울대 중앙도서관
洪翰周, 『智水拈筆』, 서울亞細亞文化社, 1984
『大東稗林』, 國學資料院, 1997
『陽智縣訟案』,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集書類

姜瑋, 『古歡堂收艸文稿』(<<韓國文集叢刊>> 318)
金煜, 『竹下集』(<<韓國文集叢刊>> 240)
南九萬, 『藥泉集』(<<韓國文集叢刊>> 131)
朴趾源, 『燕巖集』(<<韓國文集叢刊>> 252)
『保晚齋年譜』,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
徐命膺, 『保晚齋集』(<<韓國文集叢刊>> 233)
徐命膺, <<保晚齋叢書>> 7, 서울대奎章閣韓國學研究院, 2009
徐宇輔, 『秋潭小藁』
徐有本, 『左蘇山人文集』, 亞細亞文化社, 1992
徐滢修, 『明阜全集』(<<韓國文集叢刊>> 261)
徐浩修, 『海東農書』(『農書』 9·10, 亞細亞文化社, 1981)
成海應, 『研經齋全集』(<<韓國文集叢刊>> 279)
申琬, 『絅菴集』(<<韓國文集叢刊>> 47)
李書九, 『惕齋集』(<<韓國文集叢刊>> 270)
李裕元, 『嘉梧藁略』(<<韓國文集叢刊>> 316)
李珥, 『栗谷先生全書』(<<韓國文集叢刊>> 44)
李瀾, 『星湖先生全集』
李種徽, 『修山集』(<<韓國文集叢刊>> 247)
正祖, <<弘齋全書>>(<<韓國文集叢刊>> 262~267)
丁若鏞, <<與猶堂全書>>(<<韓國文集叢刊>> 281)

河百源, 『圭南文集』, 景仁文化社 영인본, 1977

韓泰東, 『是窩遺稿』(<<韓國文集叢刊>> 48)

許穆, 『記言』(<<韓國文集叢刊>> 98)

洪大容, 『湛軒集』(<<韓國文集叢刊>> 248)

黃胤錫, 『頤齋遺藁』(<<韓國文集叢刊>> 246)

- 朝鮮翻譯類

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임원경제지 본리지』 1~2, 소와당, 2008

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임원경제지 본리지』 3, 소와당, 2009

서유구 지음, 안대회 엮어옮김, 『산수간에 집을 짓고』, 돌베개, 2005

서유구 저, 이해영 역, 『華營日錄』, 경기도박물관, 2004

서호수·성주덕·김영 편저, 이은화·문중앙 역주, 『국조역상고』, 소명출판, 2004

성백효 역주, 『사가명저선』, 이회문화사, 2000

성주덕 편저, 이면우·허운섭·박권수 역주, 『서운관지』, 소명출판, 2003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국역 증보문헌비고 전부고』 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8

안대회 역, 『북학의』, 돌베개, 2003

안동립 역, 『장자』 현암사, 2010

이철성 역주, 『여지도서』, 『전주대학교 고전국역총서, 디자인흐름

이해형 역, 『화영일록』

정해림 역주, 『역주 경세유표』, 현대실학사, 2004

최홍규 역주, 『국역 과농소초』, 서울아세아문화사, 1987

中國引用書籍

- 經書類

『管子』

『論語』

『唐書』
『禮記注疏』
『呂氏春秋』
『孟子』
『孟子 附諺解』, 學民文化史 영인본
『毛詩注疏』
『尚書』(『書經』)
『尚書注疏』
『詩經』
『莊子集釋』 中華書局.
『周禮』
『周禮注疏』
『周易』
『中庸』
『春秋左氏傳』
『春秋左傳注疏』
『孝經注疏』

-史書類

『金史』
『唐書』
『史記』
『宋史』
『隋書』, 中華書局, 1987
『魏書』
『資治通鑑』
『前漢書』
『晉書』
『漢書』

-集書類

范仲淹,『范文正集』

朱熹,『晦庵集』

張載,『張子全書』

-子書類

賈思勰,『齊民要術校釋』

丘濬,『家禮儀節』

丘濬,『大學衍義補』

滕珙,『經濟文衡』

馬端臨,『文獻通考』

梅文鼎 撰,『曆算全書』

徐光啓 等 撰,『新法算書』

徐光啓,『泰西水法』

鄂爾泰 等,『欽定授時通考』

王懋竑,『朱子年譜』

王禎,『王政農書』

王徵,『諸器圖說』

御撰,『曆象考成』

御撰,『文選』

御撰,『宋文選』

御撰,『御製數理精蘊』

趙汝愚,『宋名臣奏議』

작자 미상,『孫子算經』

張載,『橫渠易說』

陳亮,『歐陽文粹』

陳專,『陳氏農書』

陳子龍,『明經世文編』

-中國著書·譯註書類

丘光明·邱隆·楊平, 『中國科學技術史-度量衡卷』, 科學出版社, 2001.

徐光啓 撰, 石聲漢 校注, 『農政全書校注』, 上海古籍出版社, 1979

劉徽 注, 李淳風 注釋, 『九章算術』

- 웹사이트

고려대 해외한국학자료센터 사이트

『내각일력』,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사이트

『문과방목』, 한국학중앙연구원 사이트

『비변사등록』 국사편찬위원회 사이트

『승정원일기』 국사편찬위원회 사이트

『일성록』,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사이트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사이트

- 著書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규남실학사상연구회, 『규남 하백원의 실학사상연구』, 경인문화사, 2007

김건태, 『조선시대 양반가의 농업경영』, 역사비평사, 2004

김문식, 「徐命膺 著述의 種類와 特徵」, 『韓國의 經學과 漢文學』, 태학사, 1996

김문식, 『保晩齋叢書 해제』, 『保晩齋叢書』 1, 서울대학교 奎章閣韓國學研究院,
2006

金容燮, 『朝鮮後期農業史研究』 I, 지식산업사, 1995

金容燮, 『朝鮮後期農業史研究』 II, 지식산업사, 2007

金容燮, 『朝鮮後期農學史研究』, 지식산업사, 2009

金容燮, 『韓國近代農業史研究』 I, 지식산업사, 2004

金容燮, 『韓國中世農業史研究』, 지식산업사, 2000

김영식, 『주희의 자연철학』, 예문서원, 2005

- 문중양, 『조선후기 水利學과 水利담론』, 集文堂, 2000
- 閔成基, 『朝鮮農業史研究』, 一朝閣, 1988
- 宋亮燮, 『朝鮮後期 屯田 研究』, 景仁文化社, 2007
- 안대회, 『산수간에 집을 짓고』, 돌베개, 2005
- 안승택, 『식민지 조선의 근대농법과 재래농법; 환경과 기술의 역사인류학』, 신구문화사, 2009
- 염정섭, 『농업개혁론을 제시한 임원경제지 편찬자 서유구』, 민속원, 2013
- 염정섭, 『조선시대 농법발달 연구』, 태학사, 2002.
- 유봉학, 『연암일과 북학사상 연구』, 일지사, 1995
- 유승주·이철성, 『조선후기 중국과의 무역사』, 景仁文化社, 2002
- 이호철, 『朝鮮前期 農業經濟史』, 한길사, 1986
- 이화자, 『朝淸國境問題研究』, 집문당, 2008
- 정옥자, 「규장각의 지식기반사회적 의의와 동아시아문화」, 정옥자 외, 『조선시대 문화사(상)』,
- 崔潤晤, 『朝鮮後期 土地所有權의 발달과 地主制』, 혜안, 2006
- 최홍규, 『禹夏永의 實學思想 研究』, 一志社, 1995
- 풍석 서유구 지음, 정명현·민철기·정정기·전종욱 외 옮기고 씀, 『임원경제지 : 조선 최대의 실용백과사전』, 씨앗을 뿌리는 사람, 2012
- 한국역사연구회 토지대장연구반, 『조선후기 경자양전 연구』, 혜안, 2008

- 論文

- 고석규, 「서북지방의 민중항쟁」, 『한국사』 36, 국사편찬위원회, 1997
-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국토지리정보원, 2008
- 김건태, 「농업생산력과 농업경영」, 한국사연구회 편, 『새로운 한국사 길잡이』 上, 지식산업사, 2010
- 김대중, 『풍석 서유구 산문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1
- 김대중, 『楓石鼓篋集』의 評語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5
- 김문식, 「서유구가 편찬한 할아버지 저술」, 『문헌과 해석』 34호, 2006, 문헌과해석사
- 김문식, 「『擬上經界策』에 나타난 徐有渠의 지역인식」, 韓國實學學會, 『韓國實學研

- 究』 18, 2009
- 김문식, 「楓石 徐有渠의 학문적 배경」, 『震檀學報』 108호, 2009
- 김영제, 「南宋의 地方財政에 對해서-浙東路 慶元府(明州)의 財政收支를 中心으로-」, 『中國 史研究』 제21집, 2002
- 金容燮, 「朝鮮後期の 麥作技術」, 『東方學志』 60, 1988
- 金容燮, 「朝鮮後期の 田作技術 -畝種法の 普及에 대하여-」 『歷史學報』 43, 1969
- 김준석, “당평책 실시의 배경”,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1997
- 김환수, 「朝鮮後期 北方 種粟法の 再認識」, 『國史館論叢』 第86輯, 國史編纂委員會, 1999
- 문중양, 『東國·增訂·增補文獻備考』 「象緯考」의 편찬과 영정조대의 한국 천문학, 『震檀學報』 106호, 2008
- 宮嶋博史, 「李朝後期における朝鮮農法の發展」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8, 1981
- 閔成基, 「朝鮮前期의 麥作技術考-『農事直說』의 種麥法 分析」, 『釜大史學』 6, 1982
- 박권수, 「徐命膺(1716~1787)의 易學的 天文觀」, 『한국과학사학회지』 제20권 1호, 1998
- 손병규, 「徐有渠의 賑恤政策-『完營日錄』·『華營日錄』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제42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 엄정섭, 「18세기 말 華城府 수리시설 축조와 屯田 경영」, 『농업사연구』 제9권 1호, 한국농업사학회, 2010
- 廉定燮, 「농업생산력의 발달」, 한국역사연구회 엮음, 『한국역사입문』 ②, 풀빛, 1999
- 李景植, 「朝鮮後期 農業地主制研究의 動向과 「국사」教科書의 敍述」, 『歷史教育』 39, 1986
- 李永鶴, 「조선시기 농업생산력 연구현황」, 『韓國中世社會 解體期の 諸問題(下)』, 한울아카데미, 1988
- 李榮薰, 「『田制詳定所遵守條劃』의 制定年度」, 『古文書研究』 9·10, 1996
- 이종목, 「자연의 경을 담은 자연경실과 서유구」, 『문헌과 해석』 34호, 2006, 문헌과해석사

- 전용훈, 「조선후기 서양천문학과 전통천문학의 갈등과 융화」,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4
- 전성호, 『조선후기 米價史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7
- 정명현, 『임원경제지』 사본들에 대한 서지학적 검토, 『奎章閣』 34, 서울大學校奎章閣韓國學研究院, 2009
- 정명현, 「정약전(丁若銓, 1758~1816)의 『자산어보(茲山魚譜)』에 나타난 해양 박물학의 성격」,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2
- 정명현, 「조선시대 견종법 보급론의 확대」, 『농업사연구』 제11권 2호, 한국농업사학회, 2012,
- 정명현, 「조선후기 견종법(畎種法) 보급설 논쟁 검토」, 『한국 과학사 50년 한국 과학 50년: 한국과학사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한국과학사학회, 2010
- 조창록, 「楓石 徐有渠의 『金華耕讀記』」, 『韓國實學研究』 19, 2010
- 조창록, 「풍석 서유구의 「擬上經界策」에 대한 일 고찰-그의 文藝觀과 治財觀의 한 면모-」, 韓國實學學會, 『韓國實學研究』 11, 民昌社, 2006
- 조창록, 『楓石 徐有渠에 대한 한 研究』,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2
- 崔潤晤, 「肅宗朝 方田法 시행의 역사적 성격」, 『國史館論叢』 제38집, 國史編纂委員會, 1992
- 崔潤晤, 「朝鮮後期の 量田均稅論」, 『朝鮮時代史學報』 19, 朝鮮時代史學會, 2001
- 한민섭, 『徐命膺 一家의 博學과 叢書·類書 編纂에 관한 研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0

-교과서

- 권희영 외, 『고등학교 한국사』, 교학사, 2014
- 왕현종 외, 『고등학교 한국사』, 두산동아, 2014
- 이문기 외, 『중학교 역사(하)』, 두산동아, 2012
- 이인석 외, 『고등학교 한국사』, 삼화출판사, 2011
- 주진오 외, 『중학교 역사(하)』, 천재교육, 2012
- 최준채 외, 『고등학교 한국사』, 리베르스쿨, 2014
- 한철호 외, 『고등학교 한국사』, 미래엔, 2011

『사회 6-1』(1991~2010년도 출판 분)

- 검색자료

『文淵閣四庫全書 電子版』

- 辭典類

강병수 외, 『서울지명사전』,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어사전편찬실 편,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국립국어연구원 편,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大漢韓辭典編纂室 編, 『教學 大漢韓辭典』, 教學社, 1998

諸橋轍次 著, 『大漢和辭典』, 大修館書店, 199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국고전용어사전 편찬위원회 공편, 『한국고전용어사전』, 세
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 民衆書林, 1994

임종욱 편저, 『중국역대 인명사전』, 이회문화사, 2010

中國歷史大辭典·科技史卷編纂委員會 編, 『中國歷史大辭典-科技史』, 上海辭書出版
社, 2000

朝鮮總督府 編, 『朝鮮語辭典』, 朝鮮總督府, 1936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찬부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Abstract

Seo Yu-goo (徐有榘 1764~1845)'s Inquiry
Into Creating National Wealth
Through Advanced Agricultural Techniques :
Annotation, Translation and Footnote of
Ŭisang-kyunggye-chaek 擬上經界策

Jeong, Myung Hyun

Program in the History and the Philosophy of Scienc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translate, annotate and make a bibliographical introduction to the full text of *Ŭisang-kyunggye-chaek* (Policy proposal on land division written for the King), written by a Confucian in Chosŏn dynasty called Seo Yu-goo (1764~1845) who was active in the late 18th century and early 19th century, in order to investigate into the nature of agricultural policy exhibited in the book. The characteristic of this thesis is that it not only analyzes *Ŭisang-kyunggye-chaek*, but also annotates, translates and adds footnote. Part One focuses on the foundation background and analysis of the structure of *Ŭisang-kyunggye-chaek*. In Part Two, the annotation, translation and footnote of *Ŭisang-kyunggye-chaek* are independently arranged.

Part one firstly explores the author Seo Yu-goo's establishment of agriculture theory and the changes in agriculture theory. Subsequently, the situation of Chosŏn dynasty is summarized through the book's main topics, including 'institution of farmland measurement' (量田), 'Kyulboo-beop' (結負法 the land system imposing a tax on crop yield), and 'Kyunjong-beop' (畎種法 furrow-cultivating agricultural techniques of Chosŏn dynasty), and 'Doonjeon' (屯田 a farm cultivated by stationary troops). Through these, part one of the thesis aims to clearly present the argument and the structure of *Ŭisang-kyunggye-chaek*.

Despite being a member of a Seoul-based group that was representative of the late Chosŏn dynasty, formed mainstream of academia, and grew through several generation of bureaucratic life, Seo Yu-goo followed his family's study, characteristic of astrology, mathematics and agriculture. Among these, his deepest interest lied in agriculture and he started his research on agriculture by participating in his grandfather Seo Myung-eŭng (1716~1787)'s writing of an agriculture book in his 20s. During the first bureaucrat period, Seo Yu-goo expressed his viewpoint on agriculture to King Jeongjo (period of reign: 1776~1800) and the majority of his opinion, especially on compilation of agriculture books, concurred with that of King Jeongjo. Due to King Jeongjo's sudden death and Seo Yu-goo's return to farming, however, the compilation of agriculture book was deferred. While Seo Yu-goo researched on practical studies dealing with self-supported life during his stay in his village, he finally wrote *Ŭisang-kyunggye-chaek* in 1820 after King Sunjo (period of reign: 1800~1834) initiated the Kyungjin 庚辰 farmland measurement

order in 1819.

Ŭisang-kyunggye-chaek that seems to have been written during the few months after the farmland measurement order was initiated, was an agriculture theory with structure of 3 divisions and 11 subdivisions. This policy proposal, which did not get presented to King Sunjo as the farmland measurement order was soon withdrawn, was a long piece of writing composed of around 25,000 Chinese characters. In the three divisions of policy proposal, “land system reform”, “learning of the institution of farmland measurement”, and “implementation of agricultural policy” were discussed in the corresponding order and Seo Yu-goo asserted his detailed opinion by including two, three and six subdivisions respectively under each subjects. The term named Kyunggye (經界), the land division of *Ŭisang-kyunggye-chaek* was originally ‘farmland tax policy (田政)’s territory that divided the farmland, measured off farmland and then taxed the farmland. Therefore, it may be expected that only the relevant subjects of land system and institution of farmland measurement will be explored under the topic of land division in the previous two divisions of *Ŭisang-kyunggye-chaek*. However, Seo Yu-goo defies the expectation and includes an unanticipated discussion about agricultural policy here. Through this, he could express his agriculture theory in a manner that organically connects and integrates ‘farmland tax policy’ and ‘agricultural policy’.

Seo Yu-goo’s *Ŭisang-kyunggye-chaek* provides different aspects of the understanding of “Agricultural Techniques and accomplishment of agricultural management in the late Chosŏn dynasty” illustrated through existing research on agriculture

history. The writing presents a contrasting standpoint to the known argument that in the late Chosŏn dynasty agricultural techniques had been ‘developed’ and that agricultural productivity had ‘grown’. For example, the writing is skeptical about whether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rice transplantations led to increased agricultural productivity. Seo Yu-goo even tried to ban aftercropping and intercropping, which were at the time regarded as labor-intensive agricultural techniques that had contributed to development of agricultural techniques. To Seo Yu-goo, Kyunjong-beop was simply an agricultural technique used specifically in northern part of the country, despite being known to have had been disseminated all over the country. Furthermore, he did not believe that the northern Kyunjong-beop was an authentic furrow-cultivating agricultural technique. The agricultural implements were not diverse and their dimensions were not standardized either. Preparation for floods and draughts was poor as hydraulic turbine did not exist and the irrigation facilities did not operate well. Seo Yu-goo also claimed that the large-scale farming (kwangjak 廣作) actually decreased agricultural productivity, despite it being known to have led many changes in agricultural techniques.

Through these diagnoses of reality, Seo Yu-Goo claimed that China’s advanced agricultural techniques should be supplied to increase agricultural productivity in *Ŭisang-kyunggye-chaek*. Seo Yu-Goo believed that cultivation method was the biggest problem in Chosŏn dynasty’s agriculture and believed that major improvement and dissemination of the cultivation method are the only impetus to create national wealth. Particularly, he thought the propagation of Kyunjong-beop was the innovative method to

increase agricultural productivity. However, he believed it was impossible to successfully enhance the cultivation method by changing the cultivation method alone. Therefore, Seo Yu-goo focused on establishing the optimum environment for farmland tax policy and agricultural policy so that cultivation method, especially Kyungjong-beop, could be implemented. Hence, he claimed that land system needs to be reformed from Kyulboo-beop (the land system imposing tax on crop yield) to Kyungmyo-beop (頃畝法, the land system imposing tax on farmland area), and that it is imperative to have an institutional effort to accurately measure the country's land. These were not only prior tasks for imposition of fair tax, but also the foundation to implement standard fixation of the shape of farmland in order to operate Kyungjong-beop. Proposal of agricultural policy, such as measurement of main district's latitude, dissemination of good seeds, promotion of irrigation, banning of prevalent conversion of ricefield into dry field and two-crop farming, namely aftercropping and intercropping, was also intended for the optimization of Kyungjong-beop.

Seo Yu-goo believed that in order for advanced agricultural techniques, such as Kyunjong-beop, to be supplied, another system was needed, and this was Doonjeon, a farm cultivated by stationary troops. The garrison farm that Seo Yu-goo suggested was a model farm that was operated through a completely different system to that of existing garrison farm managed by government office, as it was a space that organically connected and institutionalized advanced land system imposing a tax on farmland area, institution of farmland measurement and agricultural techniques. In reality, every discussion in *Ŭisang-kyunggye-chaek*

synthetically reflects the opinion concerning construction of a garrison farm in division 3 subdivision 6, which is the last subdivision amongst three divisions and 11 subdivisions. Seo Yu-goo combined previous opinions on construction of a garrison farm and carefully planned inner and outer garrison farm. To him, managing this model farm was the best method to ban rice transplantation in rice paddy without easy irrigation and widely used agricultural techniques in dry-field, including aftercropping and intercropping, and also to propagate rice transplantation in rice paddy with good irrigation and furrow-cultivating agricultural techniques in dry fields. Seo Yu-goo's opinion on construction of a garrison farm emerged from his confidence that advanced agricultural techniques had to be institutionalized in order to spread to all farmers. The ultimate goal of *Ŭisang-kyunggye-chaek* that contains ideas on agricultural policy like these was 'to farm on garrison farm that had been measured using land system that imposed tax on farmland area and had used furrow-cultivating agricultural techniques'.

Seo Yu-goo realized that institutionalization of agricultural techniques was the most important driving force to create national wealth. Seo Yu-goo, who developed Part Ji-won and Park Je-ga's argument on institutionalization of agricultural techniques, focused on rice transplantation and furrow-cultivation agricultural techniques and tried to disseminate these two. Throughout the entire Chosŏn dynasty, there was no attempt to guide and disseminate agricultural techniques on the dimension of state. *Ŭisang-kyunggye-chaek* was an attempt to create national wealth by standardizing agricultural system on land that previously

supplied popular agricultural practices or remained as passive encouragement of agriculture. It aimed to achieve this through institutionalization of rational land system, farmland measurement and garrison farm, in order to materialize advanced agricultural techniques.

Part two of the thesis proofreads and gives gauge mark to the original text of *Ŭisang-kyunggye-chaek*. Although the basic principle of translation was to translate literally using easy vocabulary, translation was done freely where necessary. A comment was added when translation could not be settled and an inference was included to the extent of my knowledge. Source is provided wherever it could be found, regardless of the size of text. Explanations are added in the unit of divisions or subdivisions to the translation and footnote. Through above translation and annotation process, I endeavored to undertake a ‘research translation’, from processing the original text to translating and annotating, which reflect previous research.

Key words: *Ŭisang-kyunggye-chaek*, Seo Yu-goo, Kyunggye (land division 經界), Kyungmyo-beop (the land system imposing tax on farmland area 頃畝法), Kyulboo-beop (the land system imposing a tax on crop yield 結負法), institution of farmland measurement’ (量田), Advanced Agricultural Techniques, Kyunjong-beop (furrow-cultivating agricultural techniques of Chosŏn dynasty 畎種法), Doonjeon (a farm cultivated by stationary troops 屯田), institutionalization of agricultural techniques, agricultural productivity

부 록

- <표1> 영조 대 출세 실결 수出稅實結數
- <표2> 정조 대 출세 실결 수
- <표3> 순조 대 출세 실결 수
- <표4> 정조 대 제반면세결수표諸般免稅結數表
- <표5> 순조 대 제반면세결수표
- <표6> 영조 대 급재면세표給災免稅表
- <표7> 정조 대 급재면세표
- <표8> 순조 대 급재면세표

출전: 中樞院調査課 編, 『朝鮮田制考』, 朝鮮總督府中樞院, 1940, 附錄 2~59쪽의 표를 참조하여 필자가 정리.

<표1> 영조 대 출세 실결 수出稅實結數

연도(재위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황해도	강원도	함경도	평안도	합계	증감
1744(20)	55,320	133,196	217,077	226,044	69,233	14,265	60,404	78,814	854,353	
1745(21)	55,033	129,424	201,953	196,850	69,439	11,234	60,784	79,780	804,497	-49,856
1746(22)	51,338	129,820	209,516	220,183	69,101	11,907	61,209	77,983	831,057	+26,560
1747(23)	50,084	126,115	212,488	213,508	68,085	11,987	63,798	79,341	825,344	-5,713
1748(24)	56,221	138,221	217,258	219,069	70,007	11,939	61,622	83,773	858,110	+32,766
1749(25)	56,601	140,437	220,412	224,953	68,883	11,619	16,046	82,508	821,459	-36,651
1750(26)	56,241	139,610	219,315	221,328	65,843	11,528	12,817	80,914	807,596	-13,863
1751(27)	55,355	136,759	212,344	221,986	68,533	11,618	29,244	80,801	816,640	+9,044
1752(28)	55,030	134,056	220,704	221,917	68,578	11,833	60,484	82,829	855,431	+38,791
1753(29)	43,872	122,889	219,601	218,490	61,076	11,348	57,600	83,125	818,001	-37,430
1754(30)	52,607	129,105	218,602	219,935	69,514	11,633	37,973	81,669	821,038	+3,037
1755(31)	47,742	109,552	196,533	183,733	69,483	10,931	19,538	81,638	719,150	-101,888
1756(32)	47,636	116,294	209,336	199,678	70,840	10,835	61,035	82,625	798,279	+79,129
1757(33)	51,328	126,439	212,384	214,271	71,155	11,737	61,282	80,919	829,515	+31,236
1758(34)	50,629	127,608	213,736	212,038	69,573	11,491	60,930	81,833	827,838	-1,677
1759(35)	45,886	119,859	200,831	207,515	64,617	11,427	62,482	82,486	795,103	-32,735
1760(36)	47,409	118,971	209,378	212,012	67,664	11,235	63,424	83,138	813,231	+18,128
1761(37)	53,645	116,242	192,964	190,659	66,618	11,131	63,595	82,957	777,811	-35,420
1762(38)	46,904	89,306	121,628	172,172	68,594	11,407	62,483	81,908	654,402	-123,409
1763(39)	51,210	117,467	195,206	202,911	69,829	10,683	63,951	82,532	793,789	+139,387
1764(40)	46,674	105,710	191,483	195,856	65,274	11,168	63,923	83,321	763,409	-30,383
1765(41)	54,348	120,333	193,721	200,697	70,412	11,335	63,983	83,166	797,995	+34,586
1766(42)	54,272	126,238	207,100	210,132	70,447	11,360	63,993	81,764	825,306	+27,311
1767(43)	51,643	119,526	207,730	203,490	68,318	11,254	62,483	82,754	807,198	-18,108
1768(44)	49,823	119,149	190,251	184,572	67,868	10,330	58,225	83,411	763,629	-43,569
1769(45)	53,768	123,861	199,241	199,547	70,138	11,332	62,483	83,515	803,885	+40,256
1770(46)	53,597	123,345	210,726	209,825	69,880	11,255	60,097	80,802	819,527	+15,642
1771(47)	53,122	120,635	195,439	193,028	68,646	11,201	63,002	82,167	787,240	-32,287
1772(48)	47,534	123,217	206,160	209,883	67,079	11,231	64,418	83,609	813,131	+25,891
1773(49)	49,947	109,189	170,298	196,616	68,482	11,313	64,845	83,860	754,550 ¹⁾	-58,581 ²⁾
1774(50)	50,047	120,228	201,229	204,277	69,195	11,215	64,886	83,991	807,366	+52,814
1775(51)	50,047	116,322	220,208	194,292	68,026	10,556	62,563	81,790	803,804 ³⁾	-3,562 ⁴⁾
1776(52)	52,816	123,488	208,489	203,872	68,074	10,760	64,289	82,873	814,661	+30,857
합계	1,700,027	4,052,611	6,723,341	6,805,339	2,258,504	376,096	1,859,831	2,708,596	26,484,345	
평균	51,515.97	122,806.39	203,737.61	206,222.39	68,439.52	11,396.85	56,358.52	82,078.67	802,555.91	

〈표2〉 정조 대 출세 실결 수

연도(재위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황해도	강원도	함경도	평안도	합계	증감
1777(1)	47,411	108,140	201,007	196,705	67,283	10,396	64,784	84,357	780,083	-34,578
1778(2)	49,962	112,231	200,757	171,877	66,505	10,106	64,342	82,335	758,115	-21,968
1779(3)	54,838	128,041	212,843	204,663	71,627	11,516	64,618	84,512	832,658	+74,543
1780(4)	55,462	127,547	210,359	206,280	71,677	11,514	64,169	84,652	831,660 ⁵⁾	-998 ⁶⁾
1781(5)	54,415	124,911	196,235	181,235	70,389	11,080	64,845	83,051	786,161	-44,499
1782(6)	45,813	107,715	198,474	193,353	70,277	10,885	65,249	84,811	776,577	-9,584
1783(7)	47,270	102,547	175,411	195,715	69,670	8,437	65,190	84,071	748,311	-28,266
1784(8)	56,762	124,276	215,568	206,838	71,960	10,710	65,381	84,765	836,260	+87,949
1785(9)	56,683	124,129	212,176	205,887	68,737	10,977	65,302	84,874	828,765	-7,495
1786(10)	47,440	103,258	180,517	178,751	71,143	9,785	64,630	84,576	740,100	-88,665
1787(11)	52,281	116,016	207,539	200,642	70,529	10,829	65,259	85,057	808,152	+68,052
1788(12)	55,795	123,828	211,044	203,239	71,744	10,728	59,478	83,977	819,833	+11,681
1789(13)	55,229	122,083	207,340	202,000	69,229	10,742	62,555	82,392	811,570	-8,263
1790(14)	54,760	125,129	207,768	206,078	70,101	11,349	64,750	84,927	824,862	+13,292
1791(15)	52,303	119,084	207,285	192,934	68,969	10,814	65,150	82,877	799,416	-25,446
1792(16)	51,111	107,795	195,184	159,680	70,837	10,602	65,259	83,016	743,484	-55,932
1793(17)	53,994	121,902	209,058	199,932	65,607	11,230	65,381	83,274	810,378	+66,890
1794(18)	49,503	98,035	171,274	171,771	69,262	10,657	64,630	83,162	718,294	+92,084
1795(19)	50,915	101,349	205,199	198,294	68,730	11,428	65,957	83,463	785,335 ⁷⁾	+67,041 ⁸⁾
1796(20)	55,720	123,449	209,408	203,559	71,772	11,458	65,957	83,310	824,633	+39,101
1797(21)	54,388	120,936	197,220	181,006	70,574	11,321	65,958	83,864	785,267	-39,366
1798(22)	50,282	99,679	185,094	175,627	71,486	10,940	65,958	84,132	743,198	-42,069
1799(23)	55,145	122,613	207,715	198,600	72,330	11,463	66,482	84,483	818,831	+75,633
1800(24)	54,862	118,144	207,896	197,526	71,884	11,193	66,500	84,430	812,435	-6,396
합계	1,262,344	2,782,837	4,832,371	4,632,192	1,682,322	280,160	1,557,784	2,014,368	19,024,378	
평균	52,597.67	115,951.54	201,348.79	193,008.00	70,096.75	10,840.00	64,907.67	83,932.00	792,682.42	

1) 『朝鮮田制考』에는 754,552로 됨.

2) 『朝鮮田制考』에는 -58,579로 됨.

3) 『朝鮮田制考』에는 783,804로 됨.

4) 『朝鮮田制考』에는 -23562로 됨.

〈표3〉 순조 대 출세 실결 수

연도(세위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황해도	강원도	함경도	평안도	합계	증감
1801(1)	54,634	122,647	202,432	188,844	72,150	11,088	66,500	84,562	802,857	-9,578
1802(2)	54,200	120,528	205,221	202,674	71,837	11,296	66,497	84,297	816,550	+13,693
1803(3)	49,179	113,094	207,949	202,477	67,022	11,437	66,515	84,568	802,241	-14,309
1804(4)	52,694	120,217	210,788	203,131	68,152	11,436	66,532	83,552	816,502	+14,261
1805(5)	53,718	118,623	192,448	196,512	71,669	11,518	66,524	84,942	795,954	-20,548
1806(6)	53,430	119,982	206,627	196,178	70,385	11,580	66,527	84,856	809,545	+13,591
1807(7)	52,107	120,833	204,760	201,553	68,548	11,569	66,539	84,910	810,819	+1,274
1808(8)	51,240	116,438	204,880	197,373	71,226	11,545	66,543	84,970	804,215	-6,604
1809(9)	41,073	83,535	123,750	166,665	69,235	11,270	66,372	85,012	646,912	-157,303
1810(10)	50,469	113,170	173,290	191,371	70,669	11,442	65,836	83,276	759,523	+112,611
1811(11)	49,296	116,551	198,256	202,795	63,808	11,285	65,144	79,912	787,047	+27,524
1812(12)	49,789	106,038	176,878	181,720	63,679	11,457	66,162	73,778	729,501	-57,546
1813(13)	50,055	106,740	199,024	192,334	69,001	10,976	64,807	81,246	774,183	+44,682
1814(14)	39,605	92,099	149,094	134,696	70,402	11,155	64,808	81,005	642,864	-131,319
1815(15)	48,644	110,198	171,117	173,687	68,331	11,437	64,811	81,505	729,780	+86,916
1816(16)	51,432	117,444	192,696	199,029	70,603	11,414	64,797	82,306	789,721	+59,941
1817(17)	50,770	110,381	190,098	185,067	69,408	11,372	64,862	83,113	765,071	-24,650
1818(18)	51,965	116,443	197,627	194,966	68,831	11,686	64,859	82,167	788,544	+23,473
1819(19)	50,461	97,507	197,652	192,456	70,153	11,433	64,889	82,766	767,317	-21,228
1820(20)	52,812	113,219	200,624	197,227	71,915	11,661	64,892	82,882	795,232	+27,915
1821(21)	48,302	106,460	174,337	186,842	67,390	11,557	64,807	81,056	740,751	-54,481
1822(22)	46,676	105,940	193,541	191,057	69,708	11,747	64,895	82,993	766,557	+25,806
1823(23)	50,482	108,615	197,499	193,341	71,560	11,817	63,869	83,144	780,327	+13,770
1824(24)	51,335	112,577	195,324	197,778	72,064	11,809	63,890	83,156	787,933	+7,597
1825(25)	37,971	91,398	195,117	199,098	69,794	11,409	63,886	83,294	751,967	-35,966
1826(26)	51,906	112,795	201,933	198,320	72,617	11,641	63,889	82,814	795,915	+43,948
1827(27)	49,491	105,853	201,702	198,005	71,453	11,799	63,864	82,768	784,935	-10,987

5) 「朝鮮田制考」에는 830,660로 됨.

6) 「朝鮮田制考」에는 -1,998로 됨.

7) 「朝鮮田制考」에는 785,532로 됨.

8) 「朝鮮田制考」에는 67,238로 됨.

1828(28)	49,933	98,051	179,628	165,083	71,635	11,819	63,949	83,464	723,562	-61,373
1829(29)	50,189	106,010	200,197	196,795	71,520	11,840	62,195	82,994	781,740	+58,919
1830(30)	50,304	107,650	200,072	196,293	72,495	11,825	62,825	83,504	784,968	+ 3,228
1831(31)	50,991	109,001	197,359	195,275	72,818	11,862	61,324	83,242	781,872	-3,096
1832(32)	36,985	88,615	196,890	191,484	63,764	11,690	61,626	83,366	734,420	-47,452
1833(33)	41,719	95,265	195,006	156,695	70,397	11,685	61,626	83,507	715,900	-18,520
1834(34)	50,224	110,481	198,731	193,842	72,872	11,797	61,627	83,245	782,819	+ 66,819
합계	1,674,081	3,694,398	6,532,547	6,460,663	2,377,111	392,384	2,198,688	2,818,172	26,148,044	3,268,505.50
평균	49,237.68	108,658.76	192,133.74	190,019.50	69,915.03	11,540.71	64,667.29	82,887.41	769,060.12	96,132.51

〈표 4〉 정조 대 제반면세결수표諸般免稅結數表

연도(재위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황해도	강원도	함경도	평안도	합계	증감
1776(측위년)	51,616	121,969	123,800	122,537	59,804	29,010	45,267	33,422	587,425	
1777(1)	51,370	122,447	124,182	122,839	59,818	29,131	44,772	33,914	588,473 ⁹⁾	+ 1,048
1778(2)	51,083	120,382	123,802	125,727	59,712	29,226	45,214	33,812	588,958	+ 485
1779(3)	51,143	126,326	123,946	126,460	59,728	29,221	44,938	33,998	595,760	+ 6,802
1780(4)	51,122	126,546	113,652	126,766	59,681	29,185	43,921	33,892	584,765 ¹⁰⁾	- 10,995 ¹¹⁾
1781(5)	50,777	125,892	122,894	125,821	59,299	29,122	43,442	33,729	590,976	+ 6,211 ¹²⁾
1782(6)	51,600	125,625	122,835	125,577	59,380	29,106	44,307	33,652	592,082	+ 1,106
1783(7)	52,412	126,299	123,065	126,016	59,348	29,101	44,366	33,587	594,194	+ 2,112
1784(8)	52,500	126,382	123,007	126,283	59,494	29,019	44,175	33,527	594,387	+ 193
1785(9)	52,535	126,457	122,823	126,144	59,471	29,115	44,254	33,492	594,291	- 96
1786(10)	52,592	126,423	122,603	126,257	59,445	29,116	44,233	33,436	594,105	- 186
1787(11)	52,894	126,588	122,453	126,266	59,396	29,112	44,297	33,377	594,383	+ 278
1788(12)	52,992	127,691	122,818	126,790	59,355	29,108	53,589	33,317	605,660	+ 11,277
1789(13)	53,102	127,680	122,862	126,538	59,307	29,115	50,512	33,282	602,398	- 3,262
1790(14)	53,749	127,814	123,136	127,086	59,288	29,194	48,317	33,628	602,212	- 186
1791(15)	54,129	127,649	122,700	126,886	59,267	29,206	48,178	34,964	602,979	+ 767
1792(16)	54,299	127,905	122,123	129,072	59,402	29,321	49,559	35,003	606,684 ¹³⁾	+ 3,705 ¹⁴⁾
1793(17)	54,442	128,559	124,252	129,564	59,380	29,313	49,437	34,994	609,941 ¹⁵⁾	+ 3,257 ¹⁶⁾
1794(18)	54,487	128,675	124,241	129,079	59,365	29,312	50,188	34,965	610,312	+ 371 ¹⁷⁾
1795(19)	54,451	128,729	124,201	128,869	59,376	29,293	48,864	34,960	608,743	- 1,759
1796(20)	54,838	128,329	123,938	128,648	59,142	29,279	48,864	34,916	607,954 ¹⁸⁾	- 789 ¹⁹⁾
1797(21)	55,242	128,289	123,753	129,192	59,091	29,265	51,161	34,824	610,817	+ 2,863 ²⁰⁾
1798(22)	55,290	128,213	123,561	130,245	59,170	29,255	51,451	34,805	611,990	+ 1,173
1799(23)	55,502	128,178	123,358	131,610	59,222	29,240	51,264	34,752	613,126	+ 1,136
1800(24)	55,569	128,117	123,085	133,979	59,109	29,235	51,246	34,717	615,057	+ 1,931
합계	1,329,736	3,167,164	3,073,090	3,184,251	1,485,050	729,600	1,185,816	852,965	15,007,672	
평균	53,189.44	126,686.56	122,923.60	127,370.04	59,402.00	29,184.00	47,432.64	34,118.60	600,306.88	

9) 「朝鮮田制考」에는 588,472로 됨.

<표5> 순조 대 제반면세결수표

연도(제위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황해도	강원도	함경도	평안도	합계	증감
1801(1)	55,971	128,569	123,293	133,667	59,075	29,226	61,246	34,672	625,719 ²¹⁾	+ 10,662 ²²⁾
1802(2)	56,231	128,578	123,072	132,368	59,989	29,220	51,249	34,632	615,339 ²³⁾	-10,380 ²⁴⁾
1803(3)	56,295	128,777	122,827	132,165	58,847	29,211	51,231	34,596	613,949	-1,390 ²⁵⁾
1804(4)	56,697	128,950	122,991	132,100	58,789	29,205	51,214	34,557	614,503	+ 554
1805(5)	56,700	129,148	122,888	131,978	58,755	29,198	51,222	34,519	614,408	-95
1806(6)	56,695	129,218	123,276	131,867	58,705	29,191	51,219	34,482	614,653	+ 245
1807(7)	56,689	129,252	123,131	131,824	58,663	29,188	51,207	34,445	614,399 ²⁶⁾	-254
1808(8)	56,675	129,260	123,011	131,374	58,621	29,182	51,203	34,408	613,734	-665
1809(9)	56,684	129,299	123,001	131,367	58,581	29,177	51,374	34,383	613,866	+ 131
1810(10)	56,635	129,415	122,909	131,330	58,542	29,168	51,910	35,393	615,302	+ 1,436
1811(11)	56,637	129,534	122,824	131,338	58,503	29,165	52,602	35,346	615,949	+ 647
1812(12)	56,932	129,702	122,759	131,340	58,472	29,159	51,584	35,349	615,297	-652
1813(13)	56,992	129,845	122,707	131,294	58,438	29,154	52,939	35,342	616,711	+ 1,414
1814(14)	56,640	129,986	122,658	131,432	58,409	29,148	52,938	35,335	616,546	-165
1815(15)	56,658	130,131	122,614	132,724	58,380	29,145	52,935	35,334	617,921	+ 1,375
1816(16)	56,651	130,141	122,523	133,559	58,458	29,139	52,949	35,334	618,754	+ 833
1817(17)	56,758	130,204	122,133	134,295	58,303	29,131	52,884	35,332	619,040	+ 286
1818(18)	56,762	131,142	122,104	136,862	58,280	29,126	52,887	35,332	622,495	+ 3,455
1819(19)	56,858	131,078	122,079	136,951	58,258	29,122	52,857	35,332	622,535	+ 40
1820(20)	56,774	134,976	122,051	137,116	58,239	29,115	52,854	35,332	626,457	+ 3,922
1821(21)	57,835	135,125	122,027	137,086	58,221	29,116	52,939	35,332	627,681	+ 1,224
1822(22)	56,775	135,445	122,190	137,653	58,203	29,104	52,851	35,332	627,553	-128

10) 『朝鮮田制考』에는 594,783으로 됨.

11) 『朝鮮田制考』에는 -977로 됨.

12) 『朝鮮田制考』에는 -3,807로 됨.

13) 『朝鮮田制考』에는 607,729로 됨.

14) 『朝鮮田制考』에는 4,750으로 됨.

15) 『朝鮮田制考』에는 609,841로 됨.

16) 『朝鮮田制考』에는 2,112로 됨.

17) 『朝鮮田制考』에는 471로 됨.

18) 『朝鮮田制考』에는 607,953로 됨.

19) 『朝鮮田制考』에는 -790으로 됨.

20) 『朝鮮田制考』에는 2,864로 됨.

1823(23)	56,636	134,470	121,209	136,787	57,551	29,034	53,877	35,320	624,884	-2,669
1824(24)	56,933	134,408	121,935	135,026	57,533 ²⁷⁾	29,060	53,856	35,314	624,065	-819
1825(25)	57,218	134,494	123,675	135,130	57,517	29,097	53,860	35,309	626,300	+2,235
1826(26)	56,906	134,390	123,298	134,900	57,474	29,084	53,857	35,308	625,217	-1,083
1827(27)	58,784	135,683	121,029	135,221	57,458	29,034	53,882	35,307	626,398	+1,181
1828(28)	57,470	136,334	120,781	135,380	57,676	29,039	53,797	35,306	625,783	-615
1829(29)	57,873	137,679	120,598	136,779	57,692	29,038	55,551	35,303	630,513	+4,730
1830(30)	57,926	137,747	120,509	136,917	57,677	29,039	54,921	35,300	630,036	-477
1831(31)	58,087	137,882	120,534	137,010	57,662	29,034	56,422	35,296	631,927	+1,891
1832(32)	57,939	137,970	120,341	137,076	57,647	29,029	56,120	35,292	631,414	-513
1833(33)	57,976	138,320	120,325	138,655	57,633	29,024	56,120	35,289	633,342	+1,928
1834(34)	57,649	138,404	120,200	138,886	57,739	29,018	56,119	35,286	633,301	-41
합계	1,938,941	4,505,556	4,153,502	4,569,457	1,979,990	990,120	1,814,676	1,193,749	21,145,991	
평균	57,027.68	132,516.35	122,161.82	134,395.79	58,235.00	29,121.18	53,372.82	35,110.26	621,940.91	

21) 『朝鮮田制考』에는 615,719으로 됨.

22) 『朝鮮田制考』에는 662로 됨.

23) 『朝鮮田制考』에는 614,339로 됨.

24) 『朝鮮田制考』에는 -1,380으로 됨.

25) 『朝鮮田制考』에는 -390으로 됨.

26) 『朝鮮田制考』에는 614,398로 됨.

27) 『朝鮮田制考』에는 27,533으로 됨.

<표6> 영조 대 급재면세표給災免稅表

연도(재위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황해도	강원도	함경도	평안도	합계	증감
1744(20)	1,607	12,142	11,833	9,296	5,257	438		911	41,484	
1745(21)	2,296	14,885	25,522	32,140	3,147	1,291		258	79,539	+ 38,055
1746(22)	5,399	12,940	17,735	9,631	5,263	906		2,130	54,004	-25,535
1747(23)	6,522	17,254	14,724	16,779	5,566	790		941	62,576	+ 8,572
1748(24)	1,742	5,397	10,284	11,448	3,662	384		719	33,636	-28,940
1749(25)	946	3,664	7,727	6,370	4,700	800		2,035	26,242	-7,394
1750(26)	1,245	4,399	9,163	9,870	7,720	900		2,661	35,958	+ 9,716
1751(27)	2,285	4,807	15,972	8,324	4,000	660		2,570	38,618	+ 2,660
1752(28)	2,623	7,420	7,519	8,000	3,494	318		804	30,178	-8,440
1753(29)	13,044	18,861	8,279	11,000	10,959	832		544	63,519	+ 33,341
1754(30)	3,973	10,277	8,398	9,360	2,483	698		2,892	38,081	-25,438
1755(31)	8,482	29,483	29,965	45,883	2,730	1,343		2,017	119,903	+ 81,822
1756(32)	8,430	21,084	16,752	20,002	1,336	1,046		869	69,519	-50,384
1757(33)	4,731	10,503	13,916	3,648	1,482	116		2,702	37,098	-32,421
1758(34)	5,445	9,570	12,633	6,525	3,019	333		2,058	39,583	+ 2,485
1759(35)	8,737	14,420	19,535	14,488	7,001	421		1,215	65,817	+ 26,234
1760(36)	10,251	12,670	10,660	4,415	3,377	556		644	42,573	-23,244
1761(37)	2,830	15,589	27,297	25,707	4,700	656		900	77,679	+ 35,106
1762(38)	9,463	42,650	97,963	44,140	3,043	416		2,001	199,676	+ 121,997
1763(39)	5,013	14,597	24,702	13,715	1,813	1,089	527	1,314	62,770	-136,906
1764(40)	9,480	26,080	28,425	19,322	6,480	470	80	707	91,044	+ 28,274
1765(41)	2,000	11,700	23,911	14,306	1,500	330		899	54,646	-36,398
1766(42)	2,000	5,600	9,433	4,180	1,500	300		2,828	25,841	-28,805
1767(43)	4,500	12,500	9,160	10,500	3,700	410		1,888	42,658	+ 16,817
1768(44)	6,040	13,400	27,000	30,298	4,800	1,307		1,305	84,150	+ 41,492
1769(45)	1,600	9,600	18,500	16,400	2,600	430		1,368	50,498	-33,652
1770(46)	1,600	10,000	6,700	6,147	2,700	580		4,026	31,753	-18,745
1771(47)	2,050	12,600	22,000	24,000	3,700	580		2,531	67,461	+ 35,708
1772(48)	7,370	10,000	9,700 ²⁸⁾	6,400	5,200	560		967	40,197 ²⁹⁾	-27,264
1773(49)	4,800	24,000	45,233 ³⁰⁾	20,033	3,800	450		720	99,036	+ 58,839
1774(50)	2,400	12,660	14,232	12,254	3,000	600		659	45,805	-53,231
1775(51)	5,500	17,650	18,900	21,700	5,200	1,286		3,082	73,318	+ 27,513

1776(52)	2,349	9,730	6,600	10,246	4,760	1,115		1,829	36,629	-36,689
합계	156,753	458,132	630,373	506,527	133,692	22,411	607	52,994	1,961,489	
평균	4,750.09	13,882.79	19,102.21	15,349.30	4,051.27	679.12	303.50	1,605.88	59,439.06	

-
- 28) 「朝鮮田制考」에는 9,7002로 됨.
29) 「朝鮮田制考」에는 40,179로 됨.
30) 「朝鮮田制考」에는 5,233으로 됨.

<표7> 정조 대 급제면세표

연도(재위 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황해도	강원도	함경도	평안도	합계	증감
1777(1)	8,000	24,600	13,700	17,360	5,600	1,359		131	70,750	+ 34,121
1778(2)	5,736	22,574	14,330	39,300	6,471	1,554		2,314	92,279	+ 21,529
1779(3)	800	820	2,100	5,793	1,333	150		10,996	10,996	- 81,283
1780(4)	1,198	1,076	4,878	3,862	1,330	188			12,532	+ 1,536
1781(5)	1,596	4,436	19,760	29,852	3,000	686	1,269	1,805	62,404 ³¹⁾	+ 49,872 ³²⁾
1782(6)	13,746	22,179	17,580	17,978	3,031	897		222	75,633	+ 13,229 ³³⁾
1783(7)	11,479	26,673	40,413	15,176	30,670	3,350		1,054	128,815 ³⁴⁾	+ 53,182 ³⁵⁾
1784(8)	1,899	4,861	314	3,787	1,420	1,160		450	13,891	- 87,924
1785(9)	1,944	4,933	3,890	4,877	4,680	797		402	21,523	+ 7,632
1786(10)	11,131	15,838	35,769	31,900	2,300	1,989	693	785	100,405 ³⁶⁾	+ 78,882 ³⁷⁾
1787(11)	5,989	12,915	8,897	10,000	11,964	949		388	51,102 ³⁸⁾	- 49,303 ³⁹⁾
1788(12)	2,361	4,000	5,027	6,879	1,790	1,055		1,557	22,669	- 28,433 ⁴⁰⁾
1789(13)	2,817	5,756	8,687	8,382	4,353	1,035		3,205	34,235	+ 11,566
1790(14)	2,639	2,576	7,985	3,762	3,500	349		347	21,158	- 13,077
1791(15)	4,908	8,786	9,088	17,308	4,653	872		1,129	46,744	+ 25,586
1792(16)	5,934	19,786	20,766	48,376	2,650	790		977	99,279 ⁴¹⁾	+ 52,535 ⁴²⁾
1793(17)	2,907	5,070	5,863	7,632	7,900	350		759	30,481	- 68,798 ⁴³⁾
1794(18)	7,353	28,868	43,558	36,278	4,264	925		933	122,179	+ 91,698
1795(19)	5,981	25,500	9,673	9,765	4,785	173		666	56,543	- 65,636
1796(20)	1,462	3,800	5,727	4,921	1,300	158		883	18,251	- 38,292
1797(21)	2,390	6,353	18,100	26,928	2,548	308		486	57,113	+ 38,862
1798(22)	6,448	27,686	30,419	31,255	1,557	700		283	98,348	+ 41,235
1799(23)	1,373	4,787	8,000	6,918	661	192		128	22,059	- 76,289
1800(24)	1,590	9,317	8,092	5,623	1,220	467		242	26,551	+ 4,492
합계	111,681	293,190	342,616	393,912	112,980	20,453	1,962	19,146	1,295,940	
평균	4,653.38	12,216.25	14,275.67	16,413.00	4,707.50	852.21	981.00	870.27	53,997.50	

31) 『朝鮮田制考』에는 62,684로 됨.

32) 『朝鮮田制考』에는 50,152로 됨.

33) 『朝鮮田制考』에는 12,949로 됨.

34) 『朝鮮田制考』에는 101,815로 됨.

35) 『朝鮮田制考』에는 26,182로 됨.

36) 『朝鮮田制考』에는 110,405로 됨.

<표8> 순조 대 급제면세표

연도(재위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황해도	강원도	평안도	합계	증감
1801(1)	1,417	4,368	13,375	14,617	986	581	234	35,578	+ 9,027
1802(2)	1,591	6,479	10,807	2,086	1,387	379	567	23,296	-12,282
1803(3)	6,548	13,714	8,324	2,486	6,344	247	373	38,036	+ 14,740
1804(4)	2,736	6,418	5,321	1,897	5,270	258	1,451	23,351	-14,685
1805(5)	1,759	7,814	23,764	8,638	1,787	183	124	44,069	+ 20,718
1806(6)	2,052	6,385	9,827	9,083	3,121	146	272	30,886	-13,183
1807(7)	3,381	5,500	11,840	3,751	5,000	143	280	29,895	-991
1808(8)	4,258	9,887	11,840	8,381	2,364	173	283	37,186	+ 7,291
1809(9)	14,416	42,751	92,980	39,096	4,395	453	291	194,382	+ 157,196
1810(10)	5,069	13,000	43,531	14,427	3,000	289	1,015	80,331	-114,051
1811(11)	6,240	9,500	18,651	2,995	9,900	450	4,433	52,169	-28,162
1812(12)	5,452	19,845	40,094	24,068	10,060	284	10,574	110,377	+ 58,208
1813(13)	5,126	19,000	18,000	13,500	4,772	770	3,114	64,282	-46,095
1814(14)	15,936	33,500	67,979	71,000	3,400	600	3,362	195,777	+ 131,495
1815(15)	6,879	15,256	46,000	30,717	5,500	271	2,863	107,486	-88,291
1816(16)	4,099	8,000	24,512	4,540	3,150 ⁴⁾	350	2,062	46,713	-60,773
1817(17)	4,654	15,000	27,500	17,764	4,500	400	1,257	71,075	+ 24,362
1818(18)	3,455	8,000	20,000	5,300	5,100	91	2,203	44,149	-26,926
1819(19)	4,863	27,000	20,000	7,721	3,800	348	1,604	65,336	+ 21,187
1820(20)	2,568	7,390	17,056	2,785	2,056	127	1,487	33,469	-31,867
1821(21)	7,074	14,000	43,368	13,200	6,600	230	3,314	87,786	+ 54,317
1822(22)	8,699	14,200	24,000	8,418	4,300	50	1,377	61,044	-26,742
1823(23)	5,032	12,500	21,023	7,000	3,100	34	1,238	49,927	-11,117
1824(24)	3,882	8,600	22,472	4,324	2,614	39	1,238	43,169	-6,758
1825(25)	16,925	29,693	20,938	2,900	4,900	400	1,107	76,863	+ 33,694
1826(26)	3,425	8,400	14,500	3,730	2,120	175	1,589	33,939	-42,924

- 37) 『朝鮮田制考』에는 88,882로 됨.
38) 『朝鮮田制考』에는 42,102로 됨.
39) 『朝鮮田制考』에는 -68,303으로 됨.
40) 『朝鮮田制考』에는 -19,433으로 됨.
41) 『朝鮮田制考』에는 99,459로 됨.
42) 『朝鮮田制考』에는 52,715로 됨.
43) 『朝鮮田制考』에는 -68,978로 됨.

1827(27)	4,076	14,049	17,000	3,900	3,300	75	1,636	44,036	+ 10,097
1828(28)	4,833	21,941	39,322	36,665	2,900	50	941	106,652	+ 62,616
1829(29)	4,142	11,896	18,936	3,554	2,998	30	1,414	42,970	-63,682
1830(30)	3,975	10,188	19,150	3,917	2,300	44	907	40,481	-2,498
1831(31)	3,303	8,702	21,838	4,843	1,991	11	1,174	41,862	+ 1,381
1832(32)	17,260	29,000	22,500	8,568	10,800	189	1,053	89,370	+ 47,508
1833(33)	12,509	22,000	24,400	15,000	4,181	199	915	79,204	-10,166
1834(34)	4,039	6,700	20,800	4,400	1,600	93	1,180	38,812	-40,392
합계	201,673	490,676	861,648	405,271	139,596	8,162	56,932	2,163,958	
평균	5,931.56	14,431.65	25,342.59	11,919.74	4,105.76	240.06	1,674.47	63,645.82	

44) 『朝鮮田制考』에는 31,150으로 담.